장편소설

태백산줄기

정 기 종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4(2005)

장편소설 《태백산줄기》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제2전선작전방침을 높이 받들고 용감하게 투쟁한 한 인민군적후부대의 영웅적위훈을 형상하고있다.

작품의 주인공인 류성우중대장과 그의 전우들은 자기들의 적후활동지구인 태백산줄기를 종횡무진하면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련속 가한다.

이 과정에는 적들의 기도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위험한 포위망에 스스로 뛰여드는 엄혹한 순간도 있었고 마지막탄알 하나는 자기자신의 몫으로 남겨 두어야만 하는 비장한 결사전의 순간도 있었으며 힘겨운 전투를 벌리는속에서 중상자에 대한 수술을 해야 하는 다급한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만난을 이겨내며 싸워나간다.

항일혁명투사인 련대장은 전투원들의 가슴속에 백두의 혁명정신을 깊이 심어주면서 그들을 멸적의 위훈에로 힘있게 이끌어준다.

소설은 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는 처녀정치공작원(류성우중대장의 애인)과 남반부의 나어린 소년을 또한 인상적으로 그리고있다.

제2전선부대의 맹렬한 전투행동은 기본전선에 투입해야 할 많은 적들의 예비대들을 태백산줄기에 얽어매놓고 군수물자수송에도 커다란 혼란을 주어 제2전선부대를 제압하기 위한 놈들의 작전을 파탄시킨다.

소설은 맡겨진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적후부대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승리의 개가높이 북행길에 오르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있다.

장편소설 《태백산줄기》는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열렬한 조국애,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와 불굴의 희생정신을 지닌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생동하고도 풍부한 예술적형상으로 감동깊이 보여주고있다.

편집부

주요 인물

류 성 우 중대장

조 강 선 련대장, 항일혁명투사

신 은 하 류성우의 애인, 적후에 떨어진 정치공작대원

엄 기 창 정치부중대장

황 히 세 소대장

류 문 기 의용군 전사

엘든 스테이지 미제침략군 대좌

제 1 장

1

1951년 1월말, 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태백산줄기의 남단 깊은 수림속으로 제2전선련합부대안의 한 련대가 행군해가고있었다.

적후에서 다시 먼 적후종심에로… 전선을 넘어선지도 어느덧 한달가까이 흘러 수척해지고 꺼칠해진 병사들의 색바랜 군복어깨우에는 보총의 멜끈자리만이 푸르스름한 얼룩처럼 남아있었다. 생눈길을 헤치던 군화발들이 하루가 멀다 하게 뜨거운 탄피를 밟아야 했던 전투와 행군의 천리길, 아직 그들은 군모우에 내려앉은 불에 그을린 흙먼지도 털지 못했다.

이해 정초의 날씨는 류달랐다. 태백산줄기의 높은 산봉우리에서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령남땅에서는 진눈까비가 쏟아

지기도 하였다. 허리치는 눈길을 헤쳐온 전사들의 군복잔등을 차디찬 비줄기가 적셔놓는 일도 있었다.

련대는 걸음을 다그치고있었다. 수백수천의 군화발밑에서 얼음버캐가 부서지고 해묵은 락엽들이 짓이겨지는가 하면 보총에 걸린 나무가지들이 휘청거리군했다.

짧은 겨울날은 빨리 저물었다. 숲변두리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치면서 암팡지게 둘러앉은 어린 떨기나무가지들을 잡아흔들고 경사면에 널려있던 가랑잎들을 쥐여뿌렸다. 그러나 전사들은 날이 저무는것도 산바람이 은근히 기세를 돋구는것도 느끼지 못하는듯하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 부대끼고 신음소리를 질러대는 관목숲을 꿰질러 칡넌출로 감은 군화발이며 상처를 싸맨 붕대우로 벌거우리하게 피가 내밴 팔소매며 불에 그슬리고 찢겨진 옷자락들이 언듯언듯 지나갔다. 무겁고도 바쁜 걸음들이였다.

《아직 얼마나 더 가야 하우？》

절뚝거리는 다리를 힘겹게 옮겨짚던 한 전사가 앞서 걷는 경기사수에게 묻는 말이였다.

경기사수의 볕에 타고 먼지오른 얼굴에 느슨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직 멀었어. 남해까지 가려면 아직 멀단말이야.》

경기사수의 롱기어린 말에 전사는 투덜거렸다.

《제길헐！ 누가 남해까지 가야 한다는걸 몰라서 묻소？》

《힘이 들어 그러겠지. 행군이란 전투하는것보다도 어려워. 그래서 한 전투의 승리는 한 전사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병사격언도 있지 않나. 기운을 내라구. 팔공산이 멀지 않아. 이제 우리가 팔공산에 불쑥 나타나 놈들의 뒤통수를 답새겨보지. 어떻게 될것 같나？ 리치웨이란놈이 눈알이 뒤집힐거란말일세. 안그렇나？》

《그야 물론 그렇지만… 미국놈들도 팔짱을 끼고만 있지 않겠지요.》

《그건 동무 말이 옳아. 그러니 빨리 가야지. …》

그때 말투레질소리가 요란히 울리더니 성긴 나무가지들 사이로 말을 달려온 련대장련락병이 뛰여내렸다.

《련대장동지！》 련락병이 웨쳤다. 《사단에서 무전입니다.》

경기사수와 다리를 절던 전사는 그때에야 비로소 가까운 바위곁에서 자기들을 지켜보고있던 련대장을 발견하였다.

련대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련락병쪽에 손만 내밀고있었다. 두 전사는 황황히 서로 마주보았고 다음순간 서둘러 걸음을 옮겨갔다. 파편에 찢긴 군복팔소매를 너펄거리며 바삐 걷는 두 전사를 무거운 눈길로 쫓고있던 련대장 조강선은 이윽고 무선문에 눈길을 옮겼다.

그것은 련대가 팔공산지역에 급속히 진출하여 이미 예견했던 화수동포탄창고, 철도분기점 등에 대한 타격을 앞당겨 진행하라는 련합부대장명령이였다. 그러니 행군속도를 더 높이라는 독촉이다. 가능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그리고 마지막 기력까지 다하여 행군속도를 높이라는 랭혹한 요구였다.

(갈수록 임무는 더 무거워만간다. …)하고 련대장은 아직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은 두 전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보다도 래일은 더 어려울것이다.)

…얼마전, 38도선을 넘어 태백산줄기를 타고 급속히 남하하는 련합부대를 막아보려고 적들은 미제8군의 2제대부대들로 ××계선에 완강한 저지선을 폈다. 련합부대장은 불리해진 정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강선련대로 하여금 적의 저지선을 뚫고 팔공산지역에로 깊숙이 진출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당면하여 적을 당황케 하고 력량을 분산시켜 련합부대의 남하를 용이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제2전선의 기본임무인 배후타격을 신속히 벌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였다.

그리하여 련대는 어제 ××계선에서 저지선돌파를 위한 맹렬한 타격전을 벌렸고 오늘은 적의 종심깊이 뚫고들어가는것이였다.

련대장은 다시금 무선문을 들여다보았다. 련합부대장이 련대의 형편을 몰라서 또 무선을 날렸겠는가? … 그 짧은 글줄에서일망정 조강선련대장은 한개 련대를 떼여낸 그쪽의 어려운 형편을 보았고 그만큼 자기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것을 느꼈다. …

수림을 헤쳐나가는 무거운 발걸음소리들이 그의 귀전을 아프게 울렸다. 나무가지 부러지는 소리며 포마들의 발굽밑에서 얼음쪼각 부서지는 소리가 겨울의 하소연처럼 뿌적뿌적거렸다.

(어려운 싸움은 이제부터이다. 엄혹한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있다. …)

련대장은 행군대오를 바라보았다. 공급소대와 반땅크총소대, 자동총중대에 이어 군의소의 대렬이 련대장을 가까이하고있었다.

부축되여가는 전사,머리를 동이고 담가에 실려가는 전사… 혼자서 걷던 한 부상병은 자기들을 지켜보는 련대장을 발견하자 총부혁을 꽉 움켜쥐고 다리를 절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군의소의 맨 뒤쪽엔 나어린 간호원처녀가 빈 담가를 메고 타박타박 따라서고있다. 적후천리를 헤쳐오는 길에서 새해를 맞아 이제 겨우 17살나이에 이른 련대에서 가장 어린 병사였다. 그는 때때로 빈 담가채를 떨어뜨릴가봐 두손으로 움켜쥐군하였다.

나어린 처녀병사에게서 눈길을 돌려 점차 스러져가는 황혼을 바라보는 련대장의 가슴속에 찌르는듯한 아픔이 파고들었다.

방금전까지 그 담가에는 언제나 부대의 첨병을 담당해오던 용감하고 활달한 중대장이 누워있었다. 3대대 8중대장,그는 장대한 키에 아이들 머리만한 주먹을 가진 억센 사람이였다. 그는 중대를 이끌어 련대가 저지선에서 감쪽같이 적구종심에로 뚫고나갈 길을 열었으나 그자신은 그 길로 걸어나오지 못했다.

전체 중대가 떠받들고 가는 담가에 실려 그는 《걸었다》. 담가는 중대의 맨 앞에서 뒤로,뒤에서 다시 앞으로 끝없이 오고갔다. 그는 모든 전사들과 이야기를 했고 롱담도 건늬였고 그들의 고향과 전쟁전의 직업을 다시금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의 정치부중대장과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음은 점점이 널린 눈더미우로 쉴사이 없이 흘러가는 파란 소나무가지를 꺾어달라고 부탁했다. 그 애어린 소나무가지를 가슴에 댄채 그는 숨을 거두었다.… 하여 지금 나어린 처녀병사는 빈담가를 메고 슬픔속에서 마치 허탈상태에 빠진듯 걷고있는것이였다.

그것은 아마 저 처녀가 처음으로 들었던 담가일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용감한 그 중대장은 처녀의 눈앞에서 숨을 거둔 첫사람일수도 있었다.

처녀는 자기의 대렬을 따라서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었으나 자꾸만 떨어지고있었다. 그것은 처녀의 어깨를 지지누르는 헤아릴길 없는 슬픔과 비통한 아픔때문일것이다. 벌써 그의 뒤로는 3대대의 대렬이 이어졌으나 처녀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듯했다.

련대장 조강선은 대대의 중간에 위치한 8중대를 더듬어 살펴보았다.

머리를 수긋하고 발치를 내려다보며 걷는 전사들… 자기네 중

대장을 묻은 산봉우리로 고개를 돌려보는 전사… 중대의 대렬앞엔 류달리 키가 큰 1소대장이 마치 슬픔의 표말처럼 앞서 걷고있었다.
페부를 찌르는듯한 찬바람을 한껏 들여마시며 련대장은 먼 산줄기 끄트머리로 눈길을 옮겼다.
점차 설피여가는 저녁의 잔광이 질척해진 돌우의 이끼들을 연보라빛으로 물들였다. 껍질이 벗겨진 자작나무들은 숲변두리에서 설렁대고있었다. 사위가 얼어들기 시작하자 8중대도 추위에 웅크리고 걷는듯했다.
나어린 간호원처녀는 어느덧 8중대와 가까와지고있었다. 어린 발걸음으로써는 수천리 행군길에서 못박힌 억센 발걸음들을 따라낼수 없었던것이다.
(좀 빨리 걸을것이지. …)
련대장은 8중대의 전사들이 자기네 중대장이 누워있던 빈 담가를 다시 보는것을 원하지 않았다.
《련락병동무, 저 간호원동무를 불러오시오.》
련락병이 달려가 명령을 전하자 간호원은 발을 곱디뎌가며 부리나케 달려왔다. 련대장앞에 이르자 간호원은 기계적으로 거수경례를 붙이면서 말보다 앞서 올롱한 눈을 크게 떴다.
《련대장동지, 간호원 김숙경 명령대로 왔습니다!》
《좋소.》 련대장은 무뚝뚝하게 말하며 련락병에게 눈짓했다.
《련락병동무, 이 동무의 담가를 넘겨받소.》
련락병이 나서기전에 련대장은 직접 담가를 받아 넘겨주었다. 그리고 말을 끌어오라고 명령했다.
영문을 알수 없었던 어린 처녀의 두눈은 순간순간에 극도의 의혹과 불안으로 바뀌군했으나 련대장은 그것을 전혀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듯 가까와오는 8중대쪽에 고개를 돌렸다.
가라말을 끌어왔다. 락동강전선을 떠나서부터 련대장은 전사들속에서 《털터리》로 불리운 승용차대신 이 말과 함께 전략적 일시적후퇴의 길도 양덕과 평강, 철원 등 적후투쟁의 길도 걸었으며 오늘은 적후에서 다시 더 깊은 적구종심에로 뚫고나왔다.
련대장은 가라말의 목덜미를 툭툭 두드려주고나서 엄엄한 얼굴을 간호원에게 돌렸다.
《간호원동무.》

《옛！》
어찌나 긴장했던지 김숙경은 며칠 안되는 군대생활에서 배운대로 두발을 모으고 서며 또 손을 모자에 올려갔다. 련대장은 말안장을 가리켰다.
《여기 타오.》
김숙경은 무슨말인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눈알만 굴렸다.
《예？…》
《여기에 올라타란말이요.》
다시한번 련대장이 말안장을 가리켜서야 숙경은 기겁한 소리를 질렀다.
《어야나！—》
아마도 물기에 젖은 눈알을 슴벅거리며 두귀를 쫑긋거리는 가라말의 순한 모양까지도 어린 처녀를 질겁시킨것 같다. 당황망조한 처녀는 저도 모르는새에 뒤걸음쳐갔으나 련대장이 노기를 띤 목소리로 불러세우자 그만 울상이 되여 말을 떠듬거리는것이였다.
《아이, 련대장동지, 난 난… 정말 무서워서 그럽니다. 정말…》
불현듯 련대장의 얼굴에 미소가 어렸다. 그러자 련대장의 미소에서 용기를 얻은 숙경은 가까이 지나가는 대오속에 뛰여들어 나이 많은 한 전사의 잔등뒤에 몸을 옹크렸다.
《좀 말해주십시오, 예？》
한 상등병에 불과한 전사더러 련대장에게 말해달라고 하는 이 때아닌 부탁에 지나가던 병사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별안간 터진 상쾌한 웃음이였고 고향에 있는 누이며 조카며 귀여운 딸자식을 그려보게 하는 따뜻한 웃음이기도 했다.
나이 많은 전사는 다정스럽게 숙경이의 팔을 잡아 말곁으로 끌고왔다.
《자, 올라타라구. 련대장동지 명령인데… 내가 거들어주지.》
《야, 정말… 난 정말…》
초조하게 발을 저겨디디고있던 가라말이 두귀를 쫑깃거리더니 요란스럽게 투레질을 해댔다. 숙경은 기겁한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훌쩍 뛰쳐났다.
웃음소리… 앙상한 숲속을 흘러가는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별안간 유쾌해진 병사들의 떠들썩한 목소리들이 소녀병사를 고무

해주었다.

《닁큼 올라 타오, 간호원동무.》

《아따, 꾸물거리긴? 용기를 내오!》

련대장은 숙경이를 끌어냈다.

《올라타라구. 겁내지 말구… 여기서 한 10리쯤 가면 돼. 거게 가면 부상당한 정찰병 한 동무가 있는데 빨리 가서 그 동물 치료하라구. 과업을 알만하오?》

숙경이의 두눈엔 눈물까지 찔끔 솟아날것 같았다.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난 정말… 못합니다.》

《어째서 혼자라구 그래. 여기 이 사람들도 다 가는데… 그리구 말은 련락병이 끌고갈테니 무서워할건 없어. 말이 무서워서야 미국놈들하고는 어떻게 싸우겠나… 에—참, 그리구 내 전사동무한테 정식으로 하는 말인데 무슨 군대가 그렇소? 울상이 돼가지구… 상관이 말을 타라면 타야 하는거구 눈속에 엎디라면 엎디는거지. 그렇지 않소?》

《련대장동지!》하고 김숙경은 거의 애처롭게 들리는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이제라두 전 눈속에 엎디라면 정말 이제라두…》

《핫하하…》

《허허…》

떠들썩한 웃음속에서 숙경은 말에 올라타자 말갈기를 경련적으로 꽉 움켜쥐더니 눈 한번 깜박하지 않고 떠났다.

귀덮개가 달린 솜모자를 푹 눌러쓴 숙경이의 작은 얼굴은 무서움과 흥분으로 하여 애처롭게 보일 지경이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처녀의 두눈에서 튕겨나는 기쁨의 불꽃을 곧 알아보았다.

어깨를 잔뜩 옴츠린 조그마한 모습이 멀어져가는것을 눈여겨보며 걷고있는 8중대전사들의 얼굴엔 화기가 떠돌고있었다. 어느덧 련대장도 무겁던 마음이 가셔지는듯하였다.

나어린 처녀는 비록 멀리 앞서갔어도 그가 남긴 생신한 웃음은 싱그러운 숲의 향취와 더불어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채워준것이였다.

련대장은 경사면을 내려 8중대의 대오를 향해 마주걸어갔다.

안경을 낀 정치부중대장이 달려나왔다. 련대군무자총회에서

감동적인 웅변은 물론 유별나게 굵은 목청으로 사람들을 놀래웠던 갱핏한 사람이였다.

《중대가 어떻소?》

《중대는…》 그는 천천히 숨을 돌려가며 대답했다. 《지금 복수심에 불타고있습니다.》

《음, 그럴테지. …》

슬픔에 잠긴 모습이 결코 나약한 표현은 아니였다.

련대장은 유심히 그를 바라보면서 비통한 심정을 복수의 갈망으로 불태우고있는 이 중대에 한시바삐 담찬 지휘관을 보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희생된 중대장 못지않은 용감하고 지혜로운 지휘관을 보내준다면 그들은 다시금 억센 나래를 펼것이다. 그리고 복수에 불타는 이들에게 첫 전투임무를 맡기자!…

참모장이 달려와 아직 적정이 없다는 척후조의 보고를 전하였다.

《좋소. 행군속도를 더 높이시오. 새벽까진 목적지에 도착해야겠소.》

그리하여 보병대대들과 82미리박격포중대, 기타 직속구분대들에 이르기까지 도처에서 발걸음을 독촉하는 구령소리들이 울리기 시작했다.

《행군속도를 높이시오. 뒤로 전달!》

《뒤로 전달, 속도 빨리!》

82미리박격포중대에 몇필 남지 않은 말들이 허둥지둥 지나가자 채찍을 휘둘러대는 소리도 멀어져갔다. 련대장은 바삐 서둘고있는 전사들을 눈여겨보면서 되돌아온 참모장에게 나직이 물었다.

《참모장동무, 류성우동무네 정찰조가 언제쯤 올것 같소?》

《래일아침엔 꼭 돌아올것입니다.》

《음…》

조강선련대장은 저지선을 돌파하기전에 벌써 타격대상물들에 대한 정찰조들을 파견하였었다. 련대정찰소대장인 류성우가 책임진 조는 화수동포탄창고로, 부소대장과 한 하사관이 책임진 조들은 철다리와 괴뢰군수도사단 《특공대》로 보내면서 련대가 목적지에 이를 즈음엔 정찰결과를 가지고 오도록 한것이였다.

문득 련대장은 자기 뒤를 묵묵히 따라서고있는 8중대 정치부중대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동문 정찰소대장 류성우동무를 만나본적이 있소？》

《없습니다.》

《그래？…》

《소문은 더러 들었습니다.》

《그럴테지, 어편 쌈군이라구.》

안경낀 정치부중대장을 눈여겨보면서 련대장은 마치 심중의 비밀이라도 터놓는듯 류성우에 대하여, 그의 이러저런 공훈들에 대하여 말해주기 시작했다.

정치부중대장은 묵묵히 듣고있었다. 다만 이따금 련대장의 표정을 주의깊게 살피는것으로 보아 뭣때문에 련대장이 낯모르는 정찰소대장에 대한 자상한 소개를 꺼냈을가 하고 골똘히 생각하는듯하였다.

황혼은 어느덧 스러져가고 찬바람은 귀바퀴를 칩질하기 시작하였다. 어둠속에 잠겨 수림도 침침해졌다.

2

다섯명의 정찰병들이 진눈까비 퍼붓는 밤의 등판을 내리고있었다. 야광시계의 바늘이 4시를 가리킬 때부터 시작된 진눈까비로 하여 그들의 위장복은 물론 속옷까지 젖어들고있었다.

《이거라구야.》

포승줄로 묶은 《혀》를 끌고오느라고 갑절이나 더 지쳐버린 정찰병이 이발을 덜덜 떨며 중얼거렸다.

《무슨놈의 겨울날씨가 이 성화람！》

그리고는 연추처럼 무겁게 눈섭에 매달리는 졸음을 털어버리려는듯 세차게 머리를 흔들었다. 벌써 사흘낮 사흘밤을 내처 제대로 자지 못한데다가 더운 국 한술조차 입에 넣어보지 못한 그들이였다. 속은 비고 몸은 얼어있었다.

정찰조의 조장인 소대장 류성우 역시 가까스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동무들, 벼랑이요！》

캄캄한 어둠속 저 아래쪽에서 돌멩이 떨어지는 소리가 소름끼

치게 들려왔다. 질척질척한 이끼에 덮인 바위벽을 짚으며 류성우는 조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조심하오. 졸지 말것！》

그러나 그가 휘여잡았던 나무가 뚝 부러져나가고 미끄러운 바위벽에서 가까스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난 다음 그는 즉시로 결심을 달리했다.

마지막 고비에 이르러 모험할수는 없다. 이제 그 깊이를 알수 없는 낭떠러지를 극복하려면 힘의 저축이 요구되였으니 그를 위한 방도란 오직 하나 쪽잠이라도 자는것이였다.

《섯！》

바위벽을 짚고 되돌아나오자 그는 전사들을 가까이 불렀다.

어둠속에서일망정 물에 젖고 진흙으로 매닥질된 전사들의 극도로 지쳐버린 모습이 느껴졌다.

《휴식, 잠을 자오.》

의혹도 기쁨도 없다. 모두 말없이 서로 둘러보고는 다음순간 저마끔 바위벽에 등을 기대거나 또 동무들의 어깨에 머리를 수그리며 뭉쳐섰다. 흔히 병사들은 최악의 조건에서 차례진 이 짧은 잠을 《통잠》이라는 결말과 대비하여 《말뚝잠》 혹은 《소제대잠》이라고 불렀다.

류성우는 포승끈을 손목에 감고있는 전사에게도 나직이 말했다.

《동무도 자오. 그깐놈 걱정 말고…》

《아닙니다, 조장동진…》 그의 목소리는 벌써 반쯤 졸음에 취해있었다. 《조장동지나 눈을 붙이십시오, 전…》

《자오, 내겐 할일이 있소.》

류성우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누르자 마술과도 같은 힘이 작용한듯 전사는 동무들의 발치에 소리없이 무릎을 꺾고앉았다.

그리하여 굶주리고 온몸이 젖어든 정찰병들은 한덩어리로 엉켜선채 단번에 잠들고말았다.

류성우는 야전가방에서 지도를 꺼내들고는 물에 젖지 않게 하려고 허리를 잔뜩 꺾으며 전지를 켰다. 목적지에 이르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탐색하면서 지도의 등고선들에서 지금 맞다들고있는 등판의 낭떠러지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눈까풀이 아프게 떨렸다. 깜박하는 순간이면 저 전사들과 같

이 화석처럼 굳어진채 영영 깨여나지 못할것 같았다.
입술을 깨물며 다시 지도를 접어넣었다. 시간은 겨우 1분을 넘긴 정도였다.
(5분간만 자도록 하자. 5분!… 문제는 그동안 내가 잠들지 않는것이다.)
그러니 무엇인가 극히 중요한 문제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만 했다.
입에 자갈을 물리운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포로의 날카로운 시선을 감촉하면서 그는 허리를 꿋꿋이 폈다.
(5분간이다. 그 시간이면 충분하다.)
그의 눈앞으로는 눈보라가 아우성을 지르던 태백산줄기의 높고도 험한 봉우리들이 흘러갔다. 그곳 어느 골안에서도 그들은 지금처럼 서로 몸을 기대고 눈보라를 막으며 잠든 일이 있었다. 부대를 앞질러 수십리씩 때로는 수백리씩 달려나가고 또 되돌아가기도 했다. 흔히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는 가장 작은 소원마저도 버려야 했던 일이 정찰병인 그들에게는 얼마나 많았으랴.…
차디찬 물줄기가 목덜미로, 등골로 줄지어내렸다. 앙상한 숲과 바위벽들에 뿌려치는 진눈까비는 으시시하고 고달프고 진저리나는 신음소리처럼 귀전을 두드리였다.
(시계를 볼가?… 아니 좀더 참자.)
이제 부대에 도착하면 정찰결과를 보고하고… 그리고는 아무데나 구겨박혀 세상만사를 잊고 잠들어버릴것이다. 틀림없이 련대장도 정찰조가 가져온 화수동포탄창고의 위치, 경비인원, 화력기재 및 차단물배치상태에 대한 보고와 함께 《혀》로 잡은 공병장교의 진술에 만족해할것이며 언제나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역시 《수고했소. 돌아가서 푹 쉬오.》라고 할것이니… 그이상 더 바랄것이 무엇이랴!…
(부대는 지금 어떻게 되였을가?…)
불현듯 그는 급격한 오한에 몸을 떨었다.
(혹시 놈들의 저지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직도 먼 산발너머에서 지체하고있지나 않을가? 기를 쓰고 찾아갔는데 부대가 없다면?…)
무엇인가 그를 끄당겨 무너앉게 하는것 같았다. 몸의 균형을 유

지하기가 곱절 어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바위벽 저너머에서 나무우듬지들이 휘청거리는 소리도 점차 꿈결처럼 아득히 들려오기 시작했다. 등골로 줄지어내린 물줄기가 발뒤꿈치를 적시기 시작해서는 화락하니 젖은 옷도 말할수 없이 얼어든 몸도 감각을 잃고 물에 잠겨버리는듯했다.

별안간 싸늘한 전률에 몸을 떨면서 그는 시계를 들여다보았고 다음순간 어김없는 그 시간. 약속한 5분이 되였음을 깨달았다.

《자 동무들.》하고 그는 말하였다.

《잠을 깨오. 출발！…》

포로된 적공병장교가 버둥거리며 더는 걷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앙탈을 부린 일을 제외한다면 별다른 일이 없이 벼랑을 극복하였고 등판을 내려 어느 한 골어귀에까지 접어들었다.

날이 밝기 시작하자 진눈까비도 멎었다. 군데군데 거품처럼 쌓인 눈더미들에 이어 물에 질벅한 가랑잎무지와 젖은 눈송이들이 점점이 달라붙은 넓은잎나무가지들이 점차 드러나보였다.

《이젠 멀지 않소.》

마치도 류성우의 이 말을 확증해주기라도 하듯 그 순간 위협적인 웨침소리가 그들을 못박아세웠다.

《섯, 누구야！》

극히 짧은 한순간이 지나자 정찰병들은 극도로 지쳐버린 사람들같지 않게 일시에 몸을 날려 은페지를 차지하면서 전투태세를 취하였다.

《쏘지 마오！》

류성우는 조원들을 향해 짤막하게 명령하고 이어 상대편을 향하여 그쪽은 누구냐고 마주 소리쳤다. 그러자 상대는 좀 누그러진 목소리로 《우리 정찰이요？》하고 물었는데 그것은 그때 포로한 적장교를 동댕이치느라고 제일 뒤늦게야 은페물을 차지한 정찰병을 눈여겨본때문인듯하였다.

류성우는 아무말없이 천천히 일어섰다. 무엇보다 먼저 그의 뇌리를 세차게 친 충격은 이제는 아군진지에 들어섰다는 안도감과 기쁨이였다.

(부대가 도착했구나！…)

웬일인지 아무데나 주저앉아 그닥 즐겨하지 않는 담배이건만 한대씩 나눠물고싶어졌다. 그리하여 파르스름한 한줄기 담배연기속

에 지난 며칠간 겹쌓인 피로와 한시도 늦춤이 없이 가슴을 조여대던 온갖 불안을 다 날려버리고싶었다.

정찰병들이 은폐지에서 나서자 개인천막을 쓴 어깨가 쩍 바라진 전사가 마주왔다. 뒤미처 또 두사람이 나섰다.

《원 날래기도 하구만.》

앞서나온 전사가 하는 말이였다.

류성우는 그에게 물었다.

《어느 부대요?》

흔히 구대원들은 억양 하나만으로도 상대의 관등급을 가늠한다. 그는 류성우를 훑어보더니 마치 위장복속에 감추어져있는 견장이라도 가늠해본듯 차렷자세를 했다.

《적후투쟁부대입니다, 군관동지.》

《그건 나도 아오.》

류성우는 그의 커다란 주먹을 곁눈질했다.

《난 련대정찰소대장이요. 동무넨 몇중대요?》

《옛, 8중대입니다. 우린 지금 경계근무를 교대하고 가는 길입니다.》

《련대지휘부가 어데 있는지 아오?》

《저… 그건 잘…》

웬일인지 성우는 그의 지게군과도 같은 자세며 《내앞에 장령동지가 서있대도 난 생겨먹은 그대로 말하지요.》라는듯한 비위살 좋은 거동들이 거슬렸다.

《그럼 누가 아오?》

그는 잠시 뒤더수기를 긁더니 별안간 뒤에 선 전사에게 구령이라도 지르듯 웨쳤다.

《여 문기동무, 가서 소대장동질 찾소, 빨리!…》

그리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떠서 정찰병들에게로 다가갔다.

《친구들, 서로 통성하는 셈치구 누구 담배 가진거나 있으면 좀 내놓소.》

그는 잠시후 한 정찰병이 니켈도금을 한 담배갑이며 역시 보기드문 라이타까지 꺼내는것을 보자 두눈을 휘둥그래 뜨며 감탄하였다.

《참 괴짜들이거던. 옷주제랑은 말이 아니면서도 사치품은 다

있거던.》
그는 주저없이 담배갑에 손을 내밀더니 먼저 한대를 입에 물고 자기 동무들에게도 나눠주고는 잠시 생각한 끝에 또 한대를 집어 귀바퀴에 끼워넣었다.
그에게서는 전쟁맛을 적지 않게 맛본 병사들만이 가질수 있는 태연자약함이며 배포유한 익살이 느껴졌다. 그는 너부죽한 얼굴에 능청스러운 미소를 띠우고 탐스럽게 담배를 한모금 빨았다.
《담배가 없어 귀가 다 쏘아날 지경이라니까, 참!… 그런데 친구, 저런건 꼭 끌고다녀야 하나?》
그는 포로를 눈짓했다.
《게다가 깔고넘어지기까지 하다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군.》
바로 그때 눈섭이 짙고 입을 비뚤사하게 앙다문 소위가 나타났는데 유별나게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이렇듯 빨리 나타난것으로 보아 소대장이 경계근무를 직접 교대시킨 모양이였다.
《8중대 1소대장 황히세요.》
그의 눈길은 사나와보였다. 그와 악수를 나누며 성우는 련대가 저지선을 어떻게 돌파했는가, 목적지엔 언제 도착했으며 련대지휘부 위치는 어덴가 하고 련달아 물었다.
《참 성미두…》 황히세는 손을 내저었다. 《그렇게 단번에 물으면 무엇부터 대답하라오?… 자, 모든 일이 예정한대로 됐으니 걱정말고 여기서 쉬고가우.》
그는 성우가 대답할 틈을 주지 않고 잡관목들이 들어찬 등성이너머를 손으로 가리켰다.
《저기 숯구이막이 보이지 않소? 우리 중대는 저게 자리잡았소. 좀 낡고 찌그러지긴 했어도 아주 그럴듯한 초막이요. 숯을 굽던 커다란 부뚜막도 제창 있소. 자, 가서 몸이나 녹이우.》
그는 마치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듯이 자기 대원들을 시켜 정찰병들을 빨리 안내하라고 명령했다. 진정에 넘친 그의 권고는 고마운 일이였으나 류성우는 잠시 생각한 끝에 그를 만류했다.
《소대장동무, 고맙소. 헌데 우린…》
《원, 저 사람들 좀 보우.》
황히세는 여전히 성난듯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몸이 얼어서 말도 변변히 못하는데 10리길을 그대로 또 간

단말이요? 걱정 마우, 포로도 호송해주겠소.》
유혹은 크고도 검질긴것이였다. 불더미를 마주하고 군용밥통에서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붙일수 있는, 그리하여 온갖 피로와 시름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잠에 취해버릴수 있는 그 현실적인 숯구이막이 눈앞에 멀지 않다. 그러나… 문득 적들이 포위환을 조이던 저지선에서 정찰조들을 파견하던 련대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땅크포사격이 집중되던 산마루턱이였었다. 포탄이 작렬하는 속에서, 초연이 휩쓸어대는 속에서 련대장은 정찰병들의 손을 하나하나 힘있게 잡아쥐며 말했다.
《중요한 임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동무들은 련대가 목적지에 도착하기전에 대상물들에 대한 정찰을 끝내야 하오. 그리고 될수록 빨리 부대에 돌아와야겠소.》
아마도 련대장은 지금 이 시각 지도의 점과 선들을 아프게 눈여겨보며 정찰조들을 기다리고있을는지 모른다.
《우린 시간이 없소.》 류성우는 결연히 말했다. 《가야 하오.》
황히세는 잠시 류성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대원들이 헐치 않겠소.》
《왜말이요?》
《보매 고집이 세고 리론도 있을법한데 그러면 고생하는건 부하들이요. 그런 사람은 대체로 까다롭거던.》
그는 고개를 돌려 이미 숯구이막쪽으로 가고있던 전사들을 도로 오라고 소리치고는 다시 성우를 마주보았다.
《기분 나쁘오?》
《아니, 솔직한게 맘에 드오.》
그들은 오랜 친지들처럼 악수를 나누고 헤여질수도 있었다. 우락부락하고 투박한 보병소대장과 사색적이고 기민한 정찰소대장은 서로 마주보면서 판이한 두 성격에도 불구하고 친숙해지는 감정을 느끼며 손을 마주잡았다. 그러나 그때 심상치 않은 소란이 전사들속에서 벌어져 그들은 둘다 고개를 홱 돌렸다.
《혀》로 잡힌 적공병장교가 헝클어진 머리를 마구 흔들며 야료를 부리고있었다. 자갈을 물린 수건이 어떻게 빠졌는지 아니면 누가 뽑았는지 아직은 알수 없다.
《난 항의하오. 난 장교요!》

류성우가 다가오는것을 보자 포로는 기승을 부렸다.
산기슭에 몰켜선 보병들이나 정찰병들은 다들 어처구니없는듯 자기네 지휘관들을 흘끔흘끔 쳐다볼뿐이였다. 숯구이막쪽으로 가는 길에 어느 푸접사나운 보병전사가 약간 건드려놓은것 같았다.
《무슨 일이요？》
이번에도 포로는 남먼저 부르짖었다.
《난 장교요. 사병들은 장교를 심문할 권리가 없소.》
그러자 개인천막을 쓴 한 보병전사가 멸시에 찬 어조로 나직이 부르짖었다.
《이 거지발싸개같은 자식아, 우린 그럴 권리가 있는 전사들이야. 이제 네놈들 전부를 심문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나 두고봐. 너절한 너석, 수류탄을 틀어박기전에 입을 다물고있어！》
그의 마지막 말엔 장교놈이 뒤걸음치기까지 했다. 아직도 전사의 손에 수류탄이 쥐여있는것으로 미루어 한번 그 효과성을 증명해보인 모양이였다.
《문기！ 동무가 그랬소？》
황히세소대장의 물음이였다.
문기라고 불리운 목이 쑥 빠지고 허리가 꼿꼿한 그 전사는 마지못해 대꾸했다.
《개노릇을 얼마나 했는가고 좀 따져봤습니다.》
《그것만 아니요！》 장교놈이 또 부르짖었다. 《수류탄을 내밀면서 맛을 보았는가고 했소！》
《잔말 말앗！》
문기의 작은 두눈에서 불꽃이 튕겨나는듯했다.
《미국놈들 발바닥을 핥는 주제에 그래도 뭐 장교가 어쨌다구？ 구역질나는자식！》
참을수 없는 증오와 경멸의 표정이 그의 얼굴에 어려있었다.
성우는 가까이 서있는 정찰병에게 눈짓했다.
《끌어가오！》
정찰병이 포로를 끌고가는동안 문기는 증오와 멸시의 눈길을 그놈에게서 떼지 않으면서 연신 땅바닥에 침을 뱉았다.
《여보게.》 한 정찰병이 말했다. 《더러운것일수록 건드리지 않는게 좋다네.》

《그렇게 더러운걸 우리 중대로 끌고갈건 뭐요? 온 중대를 분통이 터지게 하려고 그랬소?》

《그럼 별수 있나. 그놈 혀바닥이 쓸모있다네, 친구. 그래서 〈혀〉를 잡아온다고 하질 않나. 그런데 친구는 수류탄을 틀어박겠다니 될말인가? 혀바닥만은 살살 다루어야 한다니.》

《제길!》

문기는 쓰겁게 내밸았다.

《그런 일이라면 정찰병도 팔자가 사납구려.》

순간 그와 성우의 눈빛이 맞부딪쳤다.

《그건 무슨말이요?》 하는 성우의 눈빛을 그는 도전적으로 맞받아보았는데 그것은 《왜요? 부럽지 않단말이지요.》하는 대답과도 같은것이였다. 그러나 여전히 주시하는 류성우의 눈초리에 약간 당황해난 그는 잠시 머밋거리다가 별안간 입안소리로 다시금 《제길!》하고 중얼거리더니 몸을 돌려 가버렸다.

아무도 그를 불러세우지 않았다. 성우는 괴뢰군장교놈을 대하는 그의 증오와 강렬한 멸시로 미루어 필시 무엇인가 뿌리 깊은 원한을 가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적구종심에 들어와 처음 만난 보병전사들과 정찰병들은 한동안 묵묵히 서있었다. 그때에야 비로소 류성우는 자기들과 다름없이 수척한 그들의 얼굴이며 불에 타고 찢겨진 군복들에 주의가 미쳤다. 그는 뻔한 질문이라는것을 알면서도 황히세에게 조용히 물었다.

《저지선의 돌파전투가… 힘겨웠소?》

황히세는 잠시 말없이 턱밑의 수염을 손톱으로 뽑아던지더니 불현듯 침통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우린 거기서… 중대장동물 잃었소.》

《뭐요?…》

《…》

《…》

진눈까비가 멎은 때로부터 시작된 찬바람이 어수선한 등판을 휩쓸어내렸다. 꿰여진 장화에서 흙물이 찔금찔금 새여나오는것을 내려다보며 성우는 자기들만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헤쳐온것이 아니라 전 련대가 가혹한 시련을 뚫고나왔다는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자, 그럼…》

성우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다만 황히세소대장의 투박한 두 손을 꽉 쥐였을뿐이였다. 그리고 8중대가 자리잡은 숯구이막을 아픈 눈길로 바라보고는 걸음을 옮겼다.

정찰병들과 보병중대의 전사들도 말없이 악수를 나누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물에 젖고 차디찬 새벽바람에 꽛꽛해진 개인천막을 쓴 보병들의 말없는 배웅을 받으며 질척거리는 진창길을 또 걷기 시작하였다.

3

련대부로 급히 꾸려놓은 반토굴에 들어선 류성우는 먼저 후더운 온기가 무수한 바늘침으로 눈언저리를 찔러대는것을 느꼈다.

비좁은 반토굴집이였다. 무선수와 전화수가 한쪽에 자리잡은채 잠들어있었고 탄약상자를 쌓아올린 《탁자》에서는 련대장과 참모장이 머리를 맞대고있었다. 류성우가 들어서자 그들은 둘다 동시에 허리를 폈는데 고대하던 사람이 문득 나타났을 때 흔히 그러는것처럼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류성우는 되도록 침착해지려고 애쓰며 천천히 보고를 했다. 그러자 련대장은 몸을 뒤로 제끼고 실눈을 짓고있었다. 그는 성우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는것이 아니라 다만 그의 차림새만을 유심히 뜯어보고있을뿐이였다.

진흙으로 매닥질한채 꽛꽛해진 위장복, 앞코숭이가 터진 신발… 련대장의 눈길은 질척하게 젖어버린 모자에도 잠시 멎어있었다.

이윽하여 련대장은 몸을 천천히 일으키고 다가왔는데 피발이 비낀 그의 두눈에서는 장한 일을 하고 온 자식을 애무하는 부드러운 빛이 떠돌고있었다.

그는 류성우의 어깨를 두툼한 손으로 꾹 눌러주며 《제때에 왔소. 제때에… 자, 나가보기요. 우리 매들한테.》하고 말했다.

밖으로 나선 그는 정찰병들을 차례차례 힘주어 악수를 하였다. 역시 류성우와 다름없는 정찰병들의 차림새를 유심히 훑어보면서 《수고했소. … 수고했소. …》하고 거듭 되뇌이는것이였다.

《공급소대에 아침식사와 잠자리를 준비했소. 가서 푹 쉬도록 하오. 소대장동문 좀 남소.》

이어 그는 참모장에게 포로를 따로 심문하라고 지시하면서 류성우를 반토굴로 이끌었다.

《시작하오!》하고 련대장은 잉걸불이 무져있는쪽으로 지도를 옮겨놓으며 엄격하고도 실무적으로 말했다. 그 말에서 류성우는 련대장이 자기들을 몹시 기다렸다는것과 정황의 긴박성을 다시금 느낄수 있었다. 성우는 습관된 동작으로 옷깃을 바로잡고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앉소. 앉아서 말하오.》

련대장과 마주앉은 류성우는 잠시 눈앞에 놓인 지도를 들여다보았다. 크지 않은 지도였으나 거기에 가득찬 오불꼬불한 등고선들은 그의 정찰조가 배밀이로 기여간 자욱들처럼 생각되였다.

《정찰결과를 구체적으로 말해보오.》

입을 꾹 다물고있던 류성우는 천천히 화수동의 포탄창고위치를 짚었고 다음 자기의 야전가방안에서 연필로 그려놓은 략도를 꺼내들었다.

《화수동포탄창고는 야적창고로서 여기 이 세개의 릉선이 막혀있는 골안에 위치하고있습니다. 매 릉선마다 감시대가 있고 그앞엔 참호를 파고 철조망을 둘러치고있습니다. 감시대마다 기관총 한정, 투광등…》

《가만 있소.》

련대장은 지도에 갖가지 부호들을 표기하기 시작했다.

《병력은 얼마나 되오?》

《증강된 한개 중대로서 두개의 화기소대가 세문의 중기, 여섯정의 경기 그리고 지뢰원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이상의 자료는 감시정찰과 또 포로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련대장은 연필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통나무를 쌓아올린 측벽에까지 몇걸음 걸어갔다.

고즈넉한 정적이 어둑스레한 반토굴에 깃들었다. 다만 측벽에서 탁자에로 그리고 다시 돌아서 걸음을 옮기는 련대장의 발자국소리만이 들려올뿐이였다. 동안뜨게 울리는 그 발자국소리는 련대장의 심중에서 벌어지는 침묵의 사색을 강조해주는듯싶었다.

《만일》하고 련대장은 마침내 침묵을 깨뜨리며 말했다. 《동

무에게 이 포탄창고습격임무를 준다면 어떻게 하겠소？》

련대장은 주의깊은 눈길로 성우를 지켜보고있었다. 어려운 임무를 받을 때마다 보아온 엄엄한 표정이였다.

갑자기 입술이 바싹 말라들었으나 성우는 이 한순간에 련대장이 결심을 달리할가봐 겁내는듯 다급히 말하였다.

《련대장동지, 만일 저에게… 제가 이 임무를 맡는다면…》

갑자기 말이 잘되지 않아 떠듬거렸으나 련대장은 여전히 그의 얼굴에 시선을 박은채 묵묵히 기다리고있었다.

《저는 정찰소대를 세개의 기습조로 나누어…》

그는 구겨진 략도를 탁자우에 펴놓고 다림질하듯 손바닥으로 쭉 문질렀다. 련대장이 다가와 묵묵히 들여다보는것을 느끼며 그는 빠른 말씨로 개활지대의 극복과 전투경계진지 및 감시대에로의 돌입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것들은 종래의 습격전투들에서 얻은 체험과 교훈에 근거한, 성우의 생각에 의하면 비상한 대담성과 불의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계획들이였다. 그는 마치 한생을 이 전투의 연구에 바쳐온것처럼 그렇듯 명백하고 조리있고 확신성있게 말하였다. 그러나 성우가 열이 오르면 오를수록 련대장의 표정은 굳어져갔다. 성우가 말을 끝내자 그는 랭담하게 물었다.

《습격은 몇분동안에 끝낼수 있소？》

《15분이면 결속할수 있습니다.》

《15분？》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 화력전이 붙으면…》

《그래선 안되오！》

련대장의 굵은 눈섭은 우로 치켜올라가있었다.

《놈들의 화력기재로는 련대무력이라도 녹여낼수 있소. 때문에 단매에 때리고 끝내야 하오. 적어도 10분이내에！… 또 동무가 말한 세개의 기습조외에도 방차대, 폭파조도 예견해야 하오. 그런즉 증강된 중대력량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어떻소, 성우동무？》

성우는 그만 맥이 풀리는것을 느꼈다. 걷잡을길 없던 흥분은 점차 사라지고 잠시나마 잊고있던 졸음이 일시에 온몸을 녹아버리게 하는듯했다. 그는 련대장이 포탄창고에 대한 습격전투를 조직함에 앞서 자기의 전술적의도를 참고해본데 불과하다는것을 깨달은것이였다.

문득 그는 《피곤하지？》하는 낮은 목소리에 소스라치듯 놀라며 눈을 떴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있었던것이다.

《됐소.》하고 련대장은 지도를 마주하고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돌아가서 쉬오. 그리고 3시간후에 다시 오시오.》

담화가 끝났다는 의미로 련대장은 연필을 잡으며 지도에 머리를 수그렸다.

정확히 세시간후에 성우는 다시금 련대부의 문짝을 대신한 병사용개인천막을 들치고 반토굴에 들어섰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는듯했다. 여전히 련대장은 지도에 눈길을 박고있었는데 그의 모든 상념과 사색과 희망과 기쁨 즉 생활의 모든 설계는 그 지도에 집적되여있는것 같았다.

《눈을 좀 붙였소？》

그새 면도를 깨끗이 한 련대장이 부드럽게 묻는 말이였다.

《충분히 잤습니다, 련대장동지.》

《충분히 잤다？！…》

련대장은 탁자앞에 세운 탄약상자를 눈으로 가리켰다.

《앉소, 중대장！》

성우는 의아쩍은 눈길로 련대장을 바라보기만 했다.

(중대장？！…)

얼굴 전모에 굴곡이 적은 사람, 엄엄한 눈길로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보는듯한 사람으로서 흔히 송곳도 박을 틈이 없다고 비유되는 그런 류의 이 다부진 련대장이 실수했다고 믿기는 어려웠다.

(중대장이라니？…)

《이제부터 동문 보병중대를 지휘하게 되였소. 8중대요！》

류성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의혹과 불안 그리고 이름할수 없는 격동에 그는 싸여있었다.

《지금 8중대는…》 련대장은 계속했다. 마치 류성우의 흥분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듯했다. 《우리 련대의 자랑인 8중대는 지휘관을 잃었소. … 그러나 그들은 지금 슬픔이 아니라 적개심에 불타고있소. 나는 8중대에 화수동포탄창고습격임무를 주려고 하오. …우연한 일치인지는 몰라도 마침 동무가 포탄창고정찰을 했으니 일은 아주 잘된셈이요.》

그동안 류성우는 꽉 부르쥔 손바닥에 내돋는 땀을 두번씩이나 바지무릎에 비비고있었다.

《우린 동무를 8중대장으로 임명하면서 무엇보다도 중대에 억센 날개를 달아주려고 했소. 그것도 바로 적후의 환경에 맞는 그런 날개를 말이요. 그래서 정찰소대도 중요하지만 8중대에 동무를 보내는거요.》

련대장은 류성우의 마음속 생각을 읽는듯 잠시 눈여겨보다가 계속하였다.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새롭고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고있소. 즉 전선에서 정규부대를 떼여 적후방 깊이 진출시켜 강력한 배후타격전을 벌리고있단말이요.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이런 작전은 누구나 내놓을수 있는게 아니요. 그러니 우리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적방침을 잘 알고 본때있게 싸워 반드시 승리해야 하오. 성우동무, 우리의 싸움은 정규부대의 유격전이요. 이젠 무엇때문에 정찰소대장을 보병중대장으로 보내는지 알만하오? 그러니 동무의 경험 즉 적구활동경험을 잘 살리는게 중요하오. 정찰병식으로 치시오. 알겠소?》

《알았습니다!》

《아니 아직 그게 다는 아니요.》

련대장은 다시금 지도를 당겨놓았다.

《지금 련합부대의 형편은 매우 어렵소. 그런데 우리 련대의 임무 즉 포탄창고습격을 비롯한 적의 최후방교란임무는 또 시간을 다투고있소.… 어제 련합부대에서 독촉이 왔소. 이것은 바로 최고사령부가 우리에게 그만큼 신속한 전투행동을 요구한다는것을 말해주는거요. 최고사령부가말이요!》

성우는 숨을 죽이고있었다. 너무도 아름찬 격동에 온몸이 얼어붙은듯 앉아있던 그는 문득 련대장의 묵직한 손이 어깨에 닿자 저으기 놀라기까지 했다.

《준비시간을 단축해야 하오. 어떻게 생각하오. 하루면 되겠소?》

불현듯 싸늘한 오한이 등골을 훑어내리는듯하였다. 웬일인지 그는 이 순간 자기의 얼굴이 창백해지고있음을 감각했다. 대답은 힘들게 나왔다.

《련대장동지, 그건 좀…》

《옳소. 나도 동무가 자신있다는 대답을 했더라면 믿지 않겠소.

그러나 성우동무, 습격준비는 최대한 앞당겨야 하오. 그러자면 빨리 중대와 한덩어리가 돼야 하오. 용감한 전사들이요. 어려울수록 그들을 믿고 의거하시오.》

마지막으로 련대장은 8중대와 희생된 중대장에 대하여 자상히 말해주면서 그에 못지않은 지혜롭고 날파람있는 지휘관을 중대가 지금 기다리고있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그때 성우는 새벽에 만났던 전사들, 얼굴이 너부죽하고 비위살 좋던 하사관이며 두눈에서 불꽃이 튕기던 문기라는 전사 등을 그려보았다. 거칠고 투박스럽게만 느껴지던 병사들이였다. 아마도 그것은 눈섭이 짙은 황히세소대장이 말한것처럼 용감하고 친근한 중대장을 잃었기때문인지도 모른다. … 착잡한 생각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별안간 석쉼해진듯한 련대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성우동무, 우린 동무에게 3시간의 휴식밖에 주지 못했소. 련사흘째 밤을 밝힌 사람에게말이요.》

그러자 성우는 두눈에 피발이 서있는 련대장을 쳐다보았다. 과중한 피로도 무서운 시련과 비통한 슬픔도 다 묵묵히 이겨나가고있는 한 평범한 인간을 보면서 《그래도 전 몇시간이나마 잠을 잤습니다. 허지만 련대장동진…》하는 말이 나오는것을 씹어삼켰다.

《무리한 요구지.》 련대장은 조용히 계속했다. 《지칠대로 지친 동무에게 중대를 맡겼지 또 어려운 전투임무를 주었지. … 전사들과 낯도 채 익히기전에 전투를 해야 하니… 이게 얼마나 무리한 요구이겠소.》

그것은 진정으로 가슴아파하는 목소리,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류성우는 가슴속에서 치밀어오르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성우동무, 새로운 작전을 앞두고 최고사령부에서 그만큼 우리한테 큰 기대를 걸고있다는것을 언제든지 잊지 마오.》

류성우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알았습니다. 련대장동지, 그럼 이제 곧 중대로 떠나겠습니다.》

《가서 정찰병들과 군대식작별을 하고 어서 떠나오!》

떠나갈 사람에게 더는 줄것도 말해줄것도 없을 때 흔히 다정한 벗들이 그러듯이 련대장은 성우의 두손을 잠시 꽉 잡아주었다.

이리하여 매의 기상을 긍지로 삼던 정찰병 류성우는 인내성과

완강성, 무한한 근면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보병이 되였다.

개인천막을 들치고 밖으로 나섰을 때 성우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어린 전사가 맵시나게 거수경례를 붙이는것을 보았다.

《동문 누구요?》

《련락병이요.》 련대장의 말이였다. 《동물 중대로 안내하라고 불렀소.》

4

새벽에 내린 진눈까비는 화전민부락으로 통하는 길마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았다. 82미리박격포중대의 말들은 진창에서 버둥거리며 물기에 젖은 큰눈을 죄송스럽게 굴리군했다. 그것은 사죄의 표시였다. 채찍을 휘두르던 한 포병은 기가 막힌듯 멍하니 섰더니 하늘에 대고 주먹을 내둘렀다.

《빌어먹을 날씨라니까. 한방 쾅! 하구 갈겨댈가부다.》

《팔이미리친구!》 포마를 에돌아가던 병사들중에서 누군가 한마디 했다. 《주먹을 아끼라구. 그리구 포탄은 더 아끼구.》

기진맥진한 포병은 코등에 맺힌 땀방울을 넙적한 손바닥으로 훔쳐냈다.

《고마우이, 념려해줘서.》

진창에서 삐걱거리는 발구채의 신음소리, 산중턱에서 울려오는 염소의 울음소리, 구령소리, 급한 발자국소리… 깊은 산속에 들어앉은 화전민부락, 모두해서 일곱이상은 더 셀수 없는 토막집들만이 들어앉아있는 작은 동네를 둘러싼 산기슭에서, 오솔길에서, 골짜기에서 군대들이 분주히 뛰여다녔다.

물방아가 있는 골아래쪽에서는 발구채를 딛고 선 한 하사관이 짐을 부리는 전사들에게 연방 위협적인 손짓을 하고있었다.

《조심하라구. 그게 뭔지 알아? 지뢰야, 지뢰!…콩가루가 되지 않겠거들랑 살살 다루라구, 갓난애기처럼말이야. …》

권선기를 둘러멘 한 통신병은 어느 토막집 말뚝바자를 뛰여넘어 줄을 늘이면서 달려갔다. 그러자 그쪽 조짚더미에서 수닭 한

마리가 불길같은 볏을 세우고 나오다가 화딱하니 돌아서자 그 장한 모양에 축갈 념려도 않고 바자밑 개구멍으로 기여들었다.

토막집의 낡고 찌그러진 삽짝문들이 탕탕 여닫기고 함지를 인 녀인들과 조무래기들 몇이 분주히 나들었다.

《아이구, 이걸 어쩌문 좋을낭기요? 무서워서 문을 걸고있었더니만 우리 인민군대가 왔닥 하더구마.》

《글쎄 한지에서 잤다구 하늬더.》

밤새 인민군대의 큰 부대가 별안간 들이닥친것이였다. 천리길을 헤쳐왔다면서도 눈도 붙일새 없이 바삐 돌아쳤다.

공급소대에서는 여물가마를 깨끗이 부셔내고 많은 식솔의 아침밥을 두번째로 짓고있었다. 코밑에 검댕이칠을 하여 고분벽화에 그려진 《임금님》처럼 버들치모양의 수염을 그린 젊은 취사병이 가마뚜껑을 열고 뽀얀 증기발속을 들여다보았다. 곁에서 독촉하던 공병장이 바쁜 소리를 쳤다.

《그만 뚜껑을 덮으라구. 밥을 설게 할랴구 그래?》

《웬걸요. 벌써 다 익었는데요.》

취사병은 싱긋 웃으며 널판뚜껑을 탁 덮었다. 마치도 《세상만사란 이렇듯 단순한 법이지요.》 하는듯했다.

이리하여 깊은 골안에서 끝없는 로동과 빈궁과 적막 속에 파묻혀있던 화전민부락은 끓어번지는 거품파도에 실려가는듯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란과 활기도 시작할 때처럼 급작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비좁은 골안에 가득 들어찼던 전사들이 땅속에라도 잦아든듯 보이지 않자 대신 등성이와 산마루턱들에는 탄띠를 물고있는 기관총들과 그의 어엿한 주인들만이 남았다.

바로 이무렵, 련대부를 나와 정찰병들과 짧고도 뜨거운 작별을 나눈 류성우는 련락병 배다운과 같이 화전민부락으로 이어진 오솔길을 바삐 걷고있었다.

《중대장동지, 이젠 왼쪽으로 꺾어야 합니다.》 련락병의 말이였다. 그는 키가 후리후리한 류성우의 걸음을 따르느라고 종종걸음을 치고있었다.

아마도 볕에 탄 거무스레한 얼굴이 조금 여위여 코마루가 특히 날카로와보이는 새 중대장의 눈빛이며 날파람있는 빠른 걸음이 련락병에게는 특별한 인상으로 새겨진것 같다. 후에 가서 련락병

은 년령을 초월하여 자기와 친분을 두터이하고있는 취사원아바이한테 이렇게 말했다.

《난 첫눈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우리 중대장동진 기관총같은 사람이라구.》

어떤 연고로 련락병이 《기관총》같다고 했는지는 분명치 않았으나 이미 희생된 중대장을 두고는 《주먹같은 사람》이라고 말한적이 있다는것을 참작하면서 그때 취사원은 머리를 끄떡끄떡하였다. 그러나 나어린 련락병도 만약 평화롭던 어느 여름날 아름다운 한 처녀가 자기의 중대장더러 음악을 전공하라고 권고한적이 있다는것을 알았더라면 극도로 분개한 나머지 얼굴이 파랗게 질렸을는지도 모른다. 련락병의 눈에 비친 류성우는 타고난 군인, 련발무기의 으뜸가는 명사수였던것이다. …

류성우의 발뒤꿈치에 바싹 다가붙은 련락병은 잰 말씨로 중대의 전모를 다 펼쳐보이기 시작했다. 여사여사한 사연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가 처음 입대해서 경기를 맡겨달라고 떼를 쓰던 이야기에까지 번져갔다. 헌데 차례진 일인즉 취사원아바이를 도와 물을 긷는 일이였다고 한다.

《그러니 후끈달지 않겠습니까, 중대장동지?》

그러나 류성우는 말없이 련대부가 자리잡은 골안쪽을 다시 돌아보고있었다.

모든것이 새롭게 보이고 의미깊게 생각되였다. 례사로이 스쳐버릴수도 있는 먼 산기슭 작은 초막도 한동안 그의 주의를 끌었다. 새벽에 본 숯구이막처럼 느껴진때문이였다.

사위는 처량하고 음울했다. 차고도 습한 바람이 불어치고있었는데 아마도 그것은 혹독한 추위의 예고일것이다.

(이 겨울은 몹시 힘겹겠구나. …)

성우는 자기가 안고가는 무거운 책임과 과업을 생각할 때 어쩐지 힘겹다는 말로는 전혀 표현할수 없는 가혹하고도 준엄한 날들이 오고있다는것을 예감하였다. 그것은 오늘, 아니 바로 이 시각부터일수도 있는것이다. …

《중대장동지.》

련락병의 조심스러운 부름에 류성우는 고개를 돌렸다. 그때에야 비로소 련락병이 지금까지 안경낀 정치부중대장이며 취사원이요

중대 오락회책임자요 하면서 무슨 말인가 줄곧 하였고 또 무엇인지 물은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그만 딴생각을 했군. 그래 무슨 말을 하려고 했소?》

배다운은 씩—하고 웃었다.

《제가 중대장동지 생각을 맞혀보랍니까?》

《음.》

《중대장동진 이제 중대에 가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담… 정찰소대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는 류성우를 흘끔 쳐다보고나서 속삭이듯 물었다.

《맞습니까?…》

성우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마치 지도를 들여다볼 때처럼 그의 귀여운 얼굴을 눈여겨보았다.

배다운이란 이름처럼 별스러운 친구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에게서는 온갖 간난신고를 다 겪어본 병사의 능청스러운 교활성이 엿보였다.

《대체로는 맞는것 같소.》

련락병은 반색했다.

《그렇습니까?… 중대장동지, 이제 중대에 가보십시오. 정찰소대도 좋긴 하겠지만뭐 우리 중대에 대문야…》

그의 말은 어떻게 시작되건 관계없이 중대에로 이어지군했다. 나어린 병사에게서 중대는 온 세계와도 같았고 이 세상 모든 사랑과 행복이 깃들어있는 하나의 큰 가정이였다. 그리하여 련락병이 다시 크고작은 중대의 일상사에로 화제를 끌고가려 할 때 문득 성우는 걸음을 멈추었다.

《가만, 저게 뭐요?》

왁새풀이 흐느적거리는 둔덕아래에 기르마를 얹은 공골말 한필이 서있는데 눈여겨보니 누군가의 부주의로 짐짝들이 도랑채기에 떨어져있는것이였다.

《상급준의동지군요.》

배다운은 짐짓 심드렁한 어조로 그편을 곁눈질하며 대꾸했다. 그러자 두사람을 발견한 상급준의가 소리쳤다.

《동무들, 좀 도와주세요!》

진눈까비로 하여 엉망진창이 되여버린 도랑채기에 떨어뜨린

짐짝을 다시 싣는데는 늙수그레한 마사원이나 한 녀성만으로는 힘에 부친 모양이였다.

《동무들, 어서요!》

군복 입은 녀성들이란 흔히 자기들의 사소한 불편까지도 덜어주기 위해 아낌없이 힘써주는 남정들에게 습관되여있는 법이다. 확실한 구원의 손길을 발견하여 상급준의는 기뻐했으나 련락병 배다운은 웬일인지 상급준의의 봉변을 깨고소해하는 표정이였다. 그는 샐쭉해진 얼굴로 그편을 눈짓하면서 자기의 중대장에게 그 리유를 설명했다.

《아주 독한 녀자라고 소문이 났어요. 사단군의소에서 자청해 왔다는데… 한번은 우리 취사원아바이가 되게 경을 친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취사원아바인 저런 녀자와 맞섰다가는 학질을 뗀다면서 슬슬 피해가군하지요. 중대장동지, 이제 두고보십시오. 우리가 모른척하고 지나가기만 하면…》

류성우는 결코 모른척할수 없었다. 봉변을 당한 상급준의에게로 그는 걸어갔다. 짐짝을 꺼내여 말잔등에 길마를 지우는데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류성우와 배다운은 둘 다 어깨까지 들여대지 않으면 안되였다.

《수고했어요.》 상급준의가 말했다. 《정말 고마와요.》

류성우는 손에 묻은 진흙을 대충 우벼내고 시계를 보았다. 그 초조해하는 동작을 상급준의는 유심히 바라보았다.

나이든 마사원이 채찍을 휘두르자 공골말은 성난듯 갈기를 세차게 흔들며 떠나갔다.

《자, 그럼.》

류성우는 손을 내밀었으나 자기를 유심히 바라보는 상급준의를 보자 약간 거북해짐을 느꼈다. 상급준의가 조용히 물었다.

《저를 모르시겠어요?》

분명 낯익어보이긴 했으나 어데서 만났던지 안타까울 지경으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글쎄요. …》

그러나 상급준의의 기억은 세심한것 같았다. 그는 스스럼없이 성우를 훑어보았다.

《저… 이름을 류성우라고 하지요?》

성우는 선뜻 대답을 못했다.

《왜 놀라세요? 후퇴때 후송된 일이 있지요? 그것 보세요. 전 다른 이름두 알고있어요. 동무를 후송해보낸 다음 군의소로 편지가 왔는데… 그때에야 무슨수로 동무를 찾겠어요. 우리도 오래동안 부대와 떨어져있었거던요. 그래서 그 편진 할수없이 지금까지 제가 간수하고있는데… 참 다행이군요. 이렇게 만났으니…》

《편지요?》 류성우는 의아해했다. 《그게 무슨 편집니까?》

《좋은 편질거예요.》

상급준의는 이어서 군의소도 멀지 않은데 들려가지 않겠는가고 물었다.

《후에 보지요.》

다시한번 시계를 들여다보는것으로 성우는 그의 친절에 대한 사과와 겸하여 정황의 긴박성을 암시하였다.

서로 악수를 나누었다. 여느때 같으면 한 윤기나는 녀성군관과 이처럼 자연스럽고 친밀하게 마주서는 기회를 그렇듯 서둘러 끝내려고는 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류성우에게는 하루를 시간으로가 아니라 분과 초들로 엄격히 구분하여 리용해야 할 그런 날이였다.

《그럼》하고 상급준의가 물었다. 《어느 주소로 보내드릴가요?》

《상급준의동지》 배다운이 나섰다. 《우리 중대장동집니다. 3대대 8중대장!…》

그 자랑찬 어조에 고개를 끄덕이며 련락병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상급준의는 문득 저도 모르게 혀를 찼다.

《아이, 자세히 보니 무척 귀엽게 생겼네!》

이 말이 나어린 전사에게 그처럼 큰 분격을 일으킬줄 알았더라면 상급준의는 혀를 깨물어 피가 나오는 일이 있어도 그 말을 씹어삼켰을것이다.

배다운은 당황하여 류성우를 흘낏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울상이 되였고 참을길 없는 노염으로 하여 새빨갛게 익었다. 상급준의는 나어린 이 전사가 그처럼 돌변할줄은 미처 몰랐던 모양으로 내밀었던 손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허둥지둥하며 면괴스럽게 웃었다.

《난 정말 동무 노엽힐 생각은 꼬물도 없었어요.》

배다운은 끝내 악수를 나누지 않았다.

벌써 공골말은 멀리 앞서갔었다. 상급준의는 류성우와 볼이 부어있는 배다운에게 눈인사를 하고는 종종걸음으로 앞서간 마사원을

따라갔다.
얼마후 다시 바쁜 걸음을 옮길 때까지도 분을 삭일수 없는지 배다운이 투덜거렸다.
《쳇, 기분 상해서…》
《…》
《원래 고추처럼 매운 녀자라구 시비가 많았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고추를 좋아하지.》
《중대장동지,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맵짜고 깔끔한 녀성들이 일반의 평판에선 그릇되게 취급받기가 쉽다.
류성우는 분을 삭이지 못해하는 배다운을 넘겨다보았다.
《쳇, 우리 1소대장동지만 있었으문 찍소리 못했을건데. …》
《그건 무슨 소리요?》
배다운은 말도 말라는듯이 한팔을 내저었다.
《아무리 저 상급준의동지가 맵짜다구 소문났어두 우리 황히세소대장만은 무서워하거던요. 내 눈으로 봤습니다.》
《흠… 왜 그럴가?》
《아, 그건 이제 만나보면 제꺽 알수 있습니다. 1소대장동지가 수염이 시꺼멓구… 전쟁전엔 자동차운전사였거던요.》
자동차운전사라는 직업이 무서움을 주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될수 없다는것을 깨달은듯 즉시 그는 입을 다물었다.
언덕을 내려선 그들은 제나름의 크고작은 생각에 잠긴채 눈석이때처럼 씁쓸한 냄새가 풍겨오는 솔밭을 지나 걸어갔다.
침울한 날씨였다. 물기를 잔뜩 빨아들인 음달진곳의 눈더미를 밟을 때마다 질벅거리는 발자국소리를 내놓고는 모든것이 고달픈 침묵속에 잠겨있었다. 대기는 차고도 습하였으며 무엇인가 숨길을 막고 질식시키는듯한 중압이 느껴졌다. 연기를 잔뜩 마신 사람들처럼 답답하고 쓰린 가슴을 안고 그들은 오래도록 말없이 걸었다.
문득 련락병 배다운이 몸을 떨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들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감기 들린듯했다.
《들었소.》
어데선가 입술을 굴리는듯한 휘파람새의 챙챙한 소리가 들려

왔다. 그러자 고개를 피뜩 돌린 련락병은 류성우와 눈길이 마주치자 약간 무안해하는 기색으로 중얼거렸다.

《난 또… 깜짝 놀랐네. 갑자기…》

《가만.》 성우는 그의 말을 밀막으며 귀를 강구었다. 그들이 가는 앞쪽에서 알릴듯말듯한 총소리들이 울린것이였다. 숨죽인 긴장속에서 그들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재차 울리는 총소리를 분간해 들었다.

《중대장동지, 우리 중대쪽입니다!》

련락병은 마치 얼어붙은 입술을 놀리듯 힘들게 이 말을 했다. 중대장을 쳐다보는 그의 얼굴은 해쓱했다.

류성우는 련락병의 어깨를 잡아돌리며 《련락병, 날 따랏!》 하고 짧게 명령했다. 비록 총소리는 다시 울리지 않았지만 성우는 련락병이 거의 따라낼수 없을 정도로 급히 달려갔다. 한순간 그는 배밀이로 기여가던 지난밤의 정찰때 턱을 찔러대던 얼음쪼각을 생각하였고 다음순간 날카로운 불안에 가슴이 찔리우는것을 느꼈다.

5

깊은 골바닥에 사살된 적병들의 시체가 널려있었다. 여러 병사들이 서둘러대며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수색을 하는 가운데 련락병의 보고를 받은 한 중위가 류성우를 향해 급히 마주왔다. 안경을 낀 그 갱핏한 사람의 걸음걸이는 비록 빨랐지만 그것은 다만 허약한 육체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자기 힘을 깡그리 짜내고있을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줄뿐이였다.

《중대장동무.》 가는 몸집에 비해 유별나게 굵은 목청으로 말하며 그는 군인다운 절도가 극히 적은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붙이였다.

《정치부중대장 중위 엄기창입니다.》

《류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중대장동무.》

성우는 굵은 목청이 울려나오는 그의 목과 울대를 살피며 악수를 했다.

《정치부중대장동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삐 돌아치던 병사들이 모두 일시에 자기를 바라보는 가운데 이것이 중대장의 부임인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것을 알면서도 성우는 이렇게 묻지 않을수 없었다.

정치부중대장은 알릴듯말듯 인상을 찌프리며 안경을 슬쩍 밀어올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마도 벌어진 사태를 재삼 확인하지 않고서는 대답하기가 난감한 모양이였다.

《놈들은…》 그는 천천히 설명했다. 《뜻밖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산속에서 불쑥 나왔지요. 또 이상한것은 군복에 계급장도 없고 군표도 아무런 증명서도 없는것입니다.》

《놈들의 정찰인가요?》

《아니, 그런것 같지도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숨이 붙어있던놈의 말을 들으니 무슨 특수부대라더군요.》

《특수부대?… 그래 그놈이 지금 어데 있습니까?》

《방금 죽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찬바람이 골어귀로부터 불어왔다. 비록 때늦은것이긴 했어도 그것은 겨울의 온갖 재난을 암시하고 시들하게 위협하며 소란스럽게 불어쳤다. 성우는 먼길을 달려오는동안 땀에 젖은 잔등이 오싹해지는것을 느끼며 어깨를 움츠러뜨렸다.

《누가 쐈습니까, 왜 놈들을 사로잡지 않았는가요?》

비록 성우는 이런것들을 다 뒤로 미루고 지금은 인사를, 소개를 또 그러루한 일부터 해야겠다고 곱씹어 생각하였으나 저도 모르는새에 또 벌어진 총격전에로 대화를 끌고간것이였다.

《그 동무들이 여게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정치부중대장 엄기창은 당장 누구를 소리쳐 부를것처럼 몸을 홱 돌렸다. 그러나 곧 아무말도 없이 류성우를 다시 돌아보았는데 그것은 등뒤에 키가 큰 소대장, 이미 낯을 익힌 황히세가 다가온것을 보았기때문이였다.

《1소대장동무, 인사하오. 새로 온 우리 중대장동무요.》

두사람은 한순간 서로 마주보았다. 불과 몇시간전 그들은 같은 소대장으로서 격식도 간격도 없이 대했고 허물없이 나무라기조차 했었다. 류성우가 손을 내밀자 그는 곧 입을 비뚤서하게 악물더니 공손치 않은 두눈을 지릅뜨며 거수경례를 붙이였다.

《1소대장 소위 황히세！》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도 이렇듯 꿋꿋하게 인사하고 악수하지는 않을것이다. 본의 아니게 성우도 깍듯이 규정의 인사를 하고는 좀 랭담한 눈길로 정치부중대장을 돌아보았는데 그것은 《정치부중대장동무, 인사는 후에 하기로 하고 먼저 벌어진 일부터 알아보는게 좋지 않을가요？》하는 의미였다.
《1소대장동무》 엄기창정치부중대장의 말이였다. 《놈들과 조우했던 전사들을 지금 곧 중대장동무한테 불러와야겠소.》
황히세는 역시 꿋꿋한 표정으로 류성우만을 쳐다보며 《알았습니다！》하고 대답했다.
즉시로 그는 두명의 전사를 불러냈는데 그들은 먼발치에서 새로 온 중대장을 눈여겨보며 쑥덕거리던 병사들속에 들어있었다. 한사람은 얼굴이 잔주름으로 뒤덮인 나이 지긋한 병사였고 다른 사람은 황히세와 같이 불과 몇시간전에 낯을 익힌 류문기였다.
나이 지긋한 병사는 느릿느릿한 말씨로 자기는 중대취사원인 김만복이라는것부터 정중히 소개하고 나란히 서있는 류문기를 곁눈질했다. 그러자 문기는 약간 두려워하는 표정으로 새로 온 중대장을 흘낏 바라보고나서 팔굽으로 아바이병사를 슬쩍 건드렸다.
《아바이가 보고하시우.》
그것은 입속말과도 같은 속삭임이였다. 하는수없이 취사원은 주름많은 얼굴을 들면서 먼저 소란스럽게 한숨을 내뿜는것이였다.
《오늘 좀 사정이 있어서 저… 이미 말한것처럼 전 취사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 꿩이나 토끼 같은게 좀 필요하게 됐지요. 그래이 동무더러 말했더니 이 친구 말이 승인만 받아오면 오소리라도 잡아낼수 있다는게 아니겠습니까. 별수 있습니까. 그래서 1소대장동무한테 떼질을 하다싶이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담 둘이 같이 떠났지요. 그런데 무엇도 약에 쓰자면 없다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좋이 두시간이나 쏘다녔는데… 일은 이렇게 시작됐습지요.》
취사원아바이는 보고를 하는것이 아니라 장황한 이야기를 펴놓았는데 그 모든 세말사들이야말로 그가 준비하려던 어떤 료리의 양념감처럼 진기하고 소중한듯하였다.
《그러다가 저쪽 나무숲에서 나오는놈들을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발견하였지요. 혹시 우리편 정찰이 아닐가 하고 이 문기

동무가 말하더군요. 새벽에도 만난 일이 있다면서 좀 케속을 보자는것입니다. 아닐세라 말소리를 들으니 북도말씨이긴 한데 어쩬지 좀 별나더군요. 그래 내가 〈섯, 군호!〉하고 소리쳤지요. 아그랬더니 놈들이 군호를 댄다는게 〈트럭!〉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게서야 어데 트럭이라고 말합니까? 뻔한 일이였지요. 게다가 놈들은 너휜 누구야, 공산군 아니가? 하면서 와락와락 격발기를 당기지 않겠습니까. 때마침 이 문기동무가 〈사격!〉하면서 먼저 총을 쐈습니다. 얼마동안 맞총질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우린 놈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위험할번했지요. 한놈이라도 놓쳤다가는 우리 위치가 발각될게 아닙니까.》

《그건 옳소.》하고 성우는 조용히 말하고 쓰러진 적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정치부중대장의 말처럼 그자들은 계급장도 군표도 없는 군복들을 입었고 모두 자동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데다가 허리에는 단도와 포승끈까지 매달고있었다.

《북도말씨를 들었다고 했는데 이상하다는건 뭐요?》

이번에도 역시 아바이병사가 나섰다.

《놈들은 우정 함경도말투를 흉내냈습니다. 그건 이 문기동무가 잘 알지요. 남쪽태생이니까요.》

《그럼》하고 성우는 문기에게 물었다. 《왜 한놈쯤 사로잡지 않았소?》

문기는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그런 생각까진 못했습니다.》

순간 성우는 그 어떤 분개에 가까운 감정이 치밀어오르는것을 느꼈다.

(아니다, 단지 동무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것이다. 그런건 못난짓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아침에도 동문 그런 리유로 《혀》를 끌고오는 우리 정찰병들을 내놓고 비난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부질없는 감정의 충동을 애써 누르며 그는 말하였다.

《병사라면 그래도 놈들의 기도를 알아내는것이 수십수백명을 잡는것보다 더 중요하다는것쯤 알고있어야지. 더구나 우린 적후에 와있단말이요!》

《…》

《됐소, 돌아가시오.》

그러자 입을 비뚤서하게 꾹 다문 황히세소대장이 다가왔다. 그는 대원들에게 자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낮게 입을 열었다.

《위급한 정황이였지요, 중대장동무.》

류성우는 찌프린 그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난 소대장동무에게 묻지 않았소. 설명해달라고 청하지도 않았고.》

《알겠습니다.》

황히세는 지릅떠보는듯한 눈길을 돌리며 가버렸다.

이것이 8중대다!… 소문난 중대, 이제부터는 나의 중대로 된 8중대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보병중대이다!…

비록 성우는 정찰병을 그 어떤 독립적인 병종으로서가 아니라 보병의 범주에 두고 생각하기에 습관되여있었지만 웬일인지 보병은 그 어떤 류다른 체질을 가지고있는듯이 생각되였다.

류문기와 만복아바이, 황히세, 엄기창 등은 8중대의 축도라고도 할수 있다. 바로 이 사람들과 함께 그는 삼엄한 경계망을 은밀히 뚫고들어가 눈깜짝할새에 적의 포탄창고를 습격하고 날려버려야 하는것이다. 벼락같이, 정찰병식으로!…

착잡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다.…

잠시동안의 무거운 침묵끝에 엄기창정치부중대장이 말을 꺼냈다.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해서든 숨이 붙어있는놈한테서 무얼 좀 알아낼가 했는데 그만…》

뒤늦게야 성우는 무거워진 분위기를 가셔보려고 누구에게라 없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놈이 어떤 특수부대를 말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심상치 않소.》 그는 악명높은 각종 테로단들을 상기하면서 계속하였다. 《빨리 구체적인 내용을 련대에 보고해야겠소. 경계근무도 더 강화하고…》

그가 고개를 돌리자 황히세소대장이 침울하게 대꾸했다.

《제가 조직하겠습니다, 중대장동무.》

잠시후 여러 병사들이 부산스럽게 돌아치는 가운데 성우는 엄기창과 같이 걸음을 옮겼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는 그림자처럼 묻어다니던 련락병이 땅속에라도 잦아든듯 보이지 않는다는것을 알았다. 여기저기 두리번거려서야 그는 숯구이막이 자리잡고있는 골안쪽으로 달려가는 배다운, 마치 꿀문대로 숫해들어가는것처럼 맹렬히 돌입해가는 자기의 련락병을 발견하였다. 그는 의문어린 눈길을

엄기창에게 던졌다. 엄기창은 한손으로 도수높은 안경을 이마언저리까지 밀어올리며 중얼거렸다.

《참 일두… 중대장동무를 이렇게 맞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류성우는 그의 눈가에 어린 서글픈 빛을 보았다. 뒤늦기는 했을망정 그는 배다운을 먼저 빼돌려 중대장의 부임에 그럴듯한 무엇을 준비하려는 모양이였다.

(허나 그게 무슨 소용이람!) 성우는 그의 코잔등과 눈언저리에 다문다문 널려있는 주근깨들을 쳐다보며 생각하였다. (격식이 아니라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의 중대를 보게 되는것이 필요한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중대의 일면을 보았다. …

그러면 엄기창정치부중대장은 나에게 중대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싶었을가? 비상소집? 열병행진? 아니면 전투훈련?…)

그러나 무엇보다먼저 류성우를 실망하게 한것은 바로 엄기창정치부중대장이였다. 솔직히 말하여 그가 기대했고 그려보았던 정치부중대장은 얼굴이 너부죽하고 몸집은 뚱뚱해보일상싶은 사람이였다. 그런 류의 사람들이란 흔히 배포유하고 천성이 너그러워 뭇사람들에게 친밀감부터 일으키는것이여서 군사지휘관이 의탁할 정신적 및 사업상의 기둥으로서는 적임이라고 생각해온 류성우였다. 기대하는 사람에 대한 상상이란 언제나 이처럼 엉뚱한 법이다.

엄기창은 체소한데다가 도수높은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두눈엔 생기가 없었다. 어쩐지 동정해주고싶은 생각부터 먼저 들었다는데 대하여 후날에도 성우는 가끔 회상하군하였다.

혹시는 이 모든 인상이 아침에 황히세가 말했듯이 용맹한 중대장을 잃은때문일수도 있다.

중대장이란 곧 중대의 의지이며 그의 대담무쌍한 투지이며 굴함없는 정신의 조직자, 대변자이다. 이렇게 믿고있는 류성우로서는 중대장을 잃은 중대에 와서 영웅성의 뚜렷한 증거를 찾으려는것이 어쩌면 부질없는 일일는지도 모른다.

찬바람이 휩쓸어내리는 산중턱에서 지난해의 말라버린 잎사귀 하나가 뱅글뱅글 돌아치더니 발치에 떨어져내렸다. 성우는 우정 걸음을 늦추며 아낌없이 그것을 장화발로 꾹 밟았다. 그때 엄기창이 문득 물었다.

《중대장동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성우는 망설였다. 그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는것은 지극히 곤난한 일이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편이 옳을것이다.

《아침에 난…》하고 그는 불현듯 떠오른 생각을 말했다. 《1소대장동무를 잠간 만났습니다. 들었습니까?… 그때 그가 나더러 허물없이 하는 말이 대원들이 헐치 않겠다더군요. 물론 롱으로 한 말입니다만.…》

《예, 그런 얘길 하더군요.》

《그래요?》

엄기창은 쓸쓸히 미소했다.

《그런 동무입니다. 성미가 사납구 또 형편없이 거칠지요. 그렇지만 대원들은 그를 따릅니다. 투박하긴 해도 인정있고 무던히 솔직한 사람이니까요.》

《예, 그런줄 짐작했습니다.》

그는 언제 다시 걸음을 옮겼는지 알지 못했다. 무엇때문인지 연신 안경을 추슬러올리며 큥큥 잔기침을 하고있는 정치부중대장 엄기창을 제때에 힐끗 쳐다보면서 그는 자기가 상상했던 상봉과 불같은 말마디들 대신에 전쟁판에서 흔히 있을수 있는 평범한 일상사에 맞다들었고 그리하여 중대앞에서 자기를 과장함이 없이 보여주었다는것을 깨달았다.

점차 골안은 좁아졌다. 음산한 하늘을 배경으로 물기에 젖어 질척해진 바위벽들이 솟아있는데 그 벽을 가로질러 다래넝쿨이 엇갈려 있었다.

류성우는 계단식으로 된 바위 하나에 뛰여오르자 엄기창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엄기창은 흘끔 치떠보더니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닥 힘들지 않게 뛰여올랐다.

《참 이상하군요.》하고 그는 물기에 흐려진 안경을 벗어들고 중얼거렸다. 《중대장동무 눈엔 내가 약골로만 보이는가부지요?》

엄기창은 능청스럽게 실눈을 지으며 아주 듣기 좋은 바리톤으로 을러멨다.

《내가 그런것도 못보는줄 알았지요? 그렇게 너무 동정하는 빛으로 보지 마시오, 중대장동무!》

《…》

류성우는 푸르스름한 그의 눈확과 안경을 의심스럽게 번갈아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하는것을 그만은 도수높은 광

학렌즈의 도움으로 꿰뚫어볼수도 있지 않을가?… 어떤 유쾌한 기분이 점차 그의 마음을 감싸주는듯했다.

《사실 난 이런 바위에도 뛰여오르지 못할줄 알았소.》

류성우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어데 편치 않다는게 확실히 알리오. 엄동무, 어데가 고장이요?》

《무릎뼈가 애를 멕이오. 금강도하전투때 파편이 긁어놓았지요. 황히세소대장 말이 자동차로 말하면 주행부분고장이란거요. 주행부분이라… 주행부분고장이면 그거야 다된 차지. 그렇지 않은가요?》

류성우는 미간을 찡그렸다.

《글쎄… 자동차는 겨우 운전법을 배웠소. 구멍을 뚫으라면 자신있는데…》

《발파공?… 참 소년광부였으니까.》

《가만.》 성우는 걸음을 멈췄다. 《어데서 들었소?》

《어제 련대장동지가 말해주더군요.》

《?…》

《소년광부였고 해방후 대학까지 다녔다는것두…》

얼마후 성우는 엄기창에게 물었다.

《엄동문 전에 무슨 일을 했소?》

《교원이요. 력사를 가르쳤지.》

《그것참! 그래서 목청이 굵은게로군. 앞으로 돌격구령은 엄동무가 맡아주오.》

엄기창은 굵은 성량을 다하여 웃었다.

《아 그쯤이야 뭘… 원한다면 오락회때에도 중대장동물 대신해줄수 있지요.》

그 순간 엄기창의 푸르스름해보이던 눈확이 성우의 기억에 특별히 새겨졌다.

6

《차렷!—》

억센 구령소리가 울렸다.

《중대— 우로— 봣！》

숯구이막을 채 못미처 낮은 다박솔들과 오리나무, 단풍나무들이 듬성듬성한 릉선에 총을 멘 어깨들이 보였다. 키가 큰 황히세소대장이 모자에 손을 올린채 나무그루터기를 에돌며 걸어나왔다.

(이들은 언제 우리를 앞질러 여기에 왔는가？)

《중대장동지, 중대는 명령대로 정렬하였습니다. 1소대장 소위 황히세！》

(나는 중대를 정렬시키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

류성우는 군모에서 손을 내리며 말했다.

《쉬엿하시오.》

《쉬엿！》

크지 않은 잡관목줄기에 붙어있던 잎새들이 황히세의 세찬 입김에 흔들거렸다. 류성우는 자기 위치로 들어서는 황히세를 따라 다박솔사이에 늘어선 전사들앞으로 걸어갔다. 먼저 어깨가 널직한 분대장앞에 멎어섰다.

《1분대장 중사 방성화！》

서글서글한 눈길이 그를 마주보고있었다. 정찰병들에게 담배를 청하며 니켈도금을 한 담배곽이며 라이타에 감탄하던 사람이였다. 그의 곁에는 류달리 목이 길어보이는 문기가 서있었다. 그는 류성우가 앞에 나서자 어느 정도 날카롭게 들리는 목소리로 《상등병 류문기！》하고 웨쳤으나 별로 절도있는 자세를 취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더라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게 보였을것이다.

군복어깨로부터 웃주머니에 이르기까지 쭉 찢겨졌던 자리에 눈길이 갔다. 깐깐한 솜씨로 그러나 보총의 총부혁을 틀어쥔 그 자신의 거치른 손처럼 투박한 바느질솜씨로 기워놓은것이였다.

(어떻게 되여 아까는 이것을 보지 못했을가？…)

미처 보지 못한것은 그뿐만이 아닌것 같았다. 아까는 그처럼 랭혹해보이던 그 눈빛이 지금은 침울하게 느껴지는것이였다.

그 어떤 알수 없는 심정의 아픔을 애써 누르며 그는 부상당한 전사들을 대렬에서 골라보았다. 그런 전사들은 적지 않았다. 그들은 붕대우로 벌거우리하게 피가 스며나온것을 감추려고 애썼다. 하여 성우는 그들에게서 눈길을 돌렸다.

3소대장은 작달막한 키에 똥똥하고 딴딴해보이는 사람이였다.

밭은 턱에 재가루를 뿌려놓은것처럼 수염뿌리들이 움트고있었다. 이미 정치부중대장은 소대장들을 소개할 때 3소대장이 재치있는 묘술로 중대씨름선수권을 보유하고있다는것과 감쪽같이 적진을 뚫고들어가 불의에 기습하는 전투들을 도맡아했다고 말해주었었다. 황히세소대장이나 단정하고 절도있는 2소대장에 비해 그는 류성우가 함께 싸워온 정찰병들과 가까운것으로 특히 마음에 들었다. 류성우는 보병중대란 가장 평범하고 소박하며 근면한 사람들의 집단이라는데 아직 주의를 돌리지 못했다. 여기서는 남달리 뛰여난 기질보다 서로가 보태주고 더해주되 중대라는 크나큰 한 가정의 이름으로 영예를 나누는, 그리하여 평범하고 성실한것이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것으로 되고있는것이다.

대렬한가운데로 걸어나가던 류성우는 남달리 두 가둑나무사이에 삐여져나와 선 전사를 보았다. 그는 옆의 전사들과 나란히 서려면 작은 웅뎅이속에 빠져들어가야 했으므로 우정 한발 앞으로 나선것이였다. 류성우가 그앞에 걸음을 멈추자 전사는 마치 기다렸다는듯 이상한 목소리로 웨쳤다.

《전사 김명국! 중대오락회책임자입니다!…》

군사규정의 그 어느 조항에도 없는 《중대오락회책임자》라는 직무를 소리쳐 불렀을적엔 남다른 긍지나 자랑이 있는 모양이였다. 그러나 류성우는 얼굴을 찡그렸다.

《규정대로 해야 하오, 전사동무.》

전사는 대번에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나 류성우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렬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말없이 전사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낯선 얼굴들이였다. 그들도 역시 묵묵히 마주보고있었다.

이제는 이 사람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 전투에로 나가야 한다!… 그는 숨소리마저 죽인듯한 100여명의 긴장한 눈빛들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동무들, 나는 우리 8중대에 대하여 어제까지는 그저 막연하게 련대의 자랑이라는 정도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힘이 되고 용감한 중대의 중대장으로 온데 대한 긍지감을 느끼고있습니다.… 나는… 전 중대장의 희생에 대해서 들었으며… 우리 8중대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

리고 동무들이 새 중대장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있는가도 대체로는 알고있습니다.》

류성우는 어째서인지 자기가 공연한 말, 전혀 불필요한 말을 지껄이고있는듯한 생각이 들었다. 무엇을 주절대고있는가, 어째서 말이 이처럼 종잡을수 없게 길어지는가？… 생소한 보병중대에 온 자기의 복잡한 심정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화가 났다.

그리하여 그는 숨을 깊이 들여쉬고나서 단호한 어조로, 쇠소리나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다.

《동무들, 나는 더 긴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로 숨쉬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지금 최고사령부에서는 우리들에게 한시바삐 배후타격을 진행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정세는 긴박합니다. 때문에 련대는 놈들의 중요 철도, 다리 그리고 군수품저장고들을 동시에 습격파괴할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미제침략군8군의 작전적예비대에 보급할 군수품을 저장한 화수동포탄창고에 대한 습격임무가 바로 우리 중대에 내렸습니다. 즉 나와 동무들에게 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맡겼습니다！》

긴장된 눈빛들이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고압전류가 흐르듯 윙— 윙— 하는 소리가 고막을 진동시키는듯이 느껴졌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전투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려운 임무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하루의 준비시간이 주어져있습니다. 동무들, 이만하면 내가 동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있는지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류성우는 《소대장동무들, 나의 앞으롯！》하고 구령을 내렸다. 그는 소대장들에게 포탄창고가 자리잡은 골안의 지형상특징, 경비력량과 화력기재, 잠복초들의 위치, 철조망, 지뢰원 및 감시대 등 차단물배치상태를 렬거하고 소대별 임무를 료해시켰다. 끝으로 그는 《나의 결심은 이렇소. 잠복을 제끼고 철조망과 지뢰원을 극복하면서 돌격구령이 울린 때로부터 전투를 8분동안에 결속지어야겠소. 이 8분을 위하여 소대장동무들은 훈련강도를 최대로 높여야 하오.》

아무도 의견이 없는것을 보자 그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동무들, 시간을 맞춥시다！》

7

날이 어두워서야 숯구이막으로 돌아왔다. 도처에서 화토불이 타오르고 밥통들이 달그락거렸다. 취사원 김만복이 불더미에 짝지발이를 해세우고 군용밥통들을 주렁주렁 걸고있었다. 적후에 들어와서부터는 한 보총수로서 사실상 취사원이란 이름밖에 남은것이 없는 김만복이였지만 그는 중대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도맡아 여러 불더미를 오락가락하는것이였다.

화토불이 타오르자 골안은 아늑해졌으며 거칠어진 전사들의 얼굴도 그 불빛을 받자 불그레하게 생기를 띠였다.

적후의 하루가 저물었다. 류성우에게는 참으로 드바쁘고 힘들고 근심도 많은 하루였다. 소대장들에게 야간훈련을 위한 지시를 주고 숯구이막을 돌아보던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뜻밖에도 그는 삭정이를 한아름씩 안고가는 두 전사의 이야기를 듣게 된것이였다.

《중대장동지가 정말 날파람있던걸！… 펄펄 날더구만.》

《정찰병이였으니까.》 함께 가던 전사의 말이였다. 《그쯤이야 보통이지.》

《그런데말이야.》 먼저 말을 시작한 전사가 계속했다. 《중대장동진 우릴 다 정찰병으로 만들 작정인가？…》

《그건 무슨 소리야？》

《글쎄 생각을 좀 해보라구. 8분동안에 전투를 끝내다니… 힘들거야.》

《…》

상대는 잠자코 있었다. 헌데 그 잠자코 있는 전사는 문기였다. 그들은 화토불가로 가버렸다.

류성우는 눈살을 찌프렸다.

이들은 아직 8분이 왜 필요한가를, 그 깊은 의미를 리해하지 못하고있다. 이들은 마치도 중대장이 정찰병출신이기때문에 그런 요구를 제기한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아니면 너무 아름찬것이기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아도 전사들속에서, 또 일부 하사관들속에서도 8분동

안에 전투를 결속지을수 있다는것을 의심하는 표현들이 감촉되였었는데 방금 류성우는 그것을 자기 귀로 직접 들었던것이다.

류성우는 모든 전사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힘에 대한 확신, 8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겠는가고 생각했다.

해가 떨어져서부터 날씨는 몹시 차졌다. 얼어드는 귀바퀴를 아프게 문지르며 류성우는 가까운 화토불로 걸어갔다. 많은 전사들이 비좁게 둘러앉아 연기를 내지 않도록 싸리가치를 꺾어 불을 지피고있었다. 문득 그는 멎어섰다. 유별나게 굵은 엄기창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 보란말이요. 통나무를 세워놓고 도끼를 박을 때 설찍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소? 도끼날이 박혀서 빠지지 않거던. 그래 이처럼 단순한 리치도 모른단말이요? 에에— 문기동무도 참, 구대원답지 않소.》

가벼운 웃음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러니 8분이란 보고서를 꾸미기 위해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수자가 아니란말이요. 또 오늘 못가면 래일 가도 되는 등산길도 아니지.》

《100메터 달리기나 비슷하지요.》

누군가 한마디 껴들자 여러 목소리들이 다투어 동감을 표시했다.

《아니, 그것도 아니요.》 엄기창의 굵은 목소리였다. 《달리기선수는 1분을 늦어도 되고 달리다가 그만 넘어져서 기권을 해도 되지만 우린 매 1분1초에 생사가 좌우된단말이요. 그뿐인가? 전선의 작전에 금이 가게 하거던. 참, 아까 중대장동무가 훈련할 때 다 말하지 않았소. 우리의 적후투쟁이 새롭고도 아주 힘겨운 싸움이라고말이요. 명국동무, 왜 생각이 안나?》

《알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정규부대의 제2전선방침을 제시하셨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명국이라고 불리운 전사는 어쩐지 좀 이상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시험을 치르는 학생처럼 엮어내려갔다. 그것은 류성우를 중대로 떠나보내면서 련대장이 강조한 내용들이였다.

《우리는 정규부대이지만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하는바》하고 명국은 목청을 돋구었다. 《항일유격대의 경험이 있기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그가 맺지 못한 말을 엄기창이 이어주자 다들 소리내여 웃었다.

유쾌한 화토불가, 친근한 상관과 전사들이였다.

류성우가 다가가자 저마끔 서두르며 자리를 권했다. 류성우는 첫인상에 지게군같아보이던 방성화분대장곁에 자리잡고앉으며 두 손을 불앞에 내밀었다.

《꽤 차구만. 지난밤엔 진눈까비가 내리더니만…》

그러자 누군가 《날씨도 참 성화지.》하고 말해서 다들 웃어댔다. 왜서 갑자기 웃어대는지 어리둥절해있던 성우는 영문을 물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방성화의 이름과 결부된 익살이라는것, 방성화가 누구든 처음 만나는 사람과 악수를 나누고는 《난 이름이 성화요, 젠장!》한다는것을 들었다. 상대가 의아쩍어 《이름이 왜 성화란말이요?》하고 물으면 그는 우정 성을 내며 《성화라는데 왜 그래, 방성화! 이게 내 이름이란말이요.》 한다는것이였다.

방성화는 자칭 그것을 《8중대의 8경》중에서 일곱번째에 속하는것이라고 정색해서 말했다.

관동관서팔경과 같은 명승지 고적물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유명한 일화, 재치있는 개인장끼들을 순서로 정한것이였다. 방성화는 《8경》을 차례로 꼽아가다가 마지막 8번째는 방성화와 류문기 둘중에서 누가 수류탄을 더 멀리 던지는가 하는, 아직 승부를 가르지 못했고 앞으로도 결판이 나지 않을것 같은 경쟁이라고 했다.

성우는 두사람을 은근히 대조해보았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하고 방성화가 또 시작했다. 《이 친구 목이 긴건 그렇다치구 이걸 좀 보십시오. 어깨높이까진 나하구 같은데 팔이나 다리나 다 형편없이 더 길단말입니다.》

방성화는 자기의 팔과 다리를 문기의 그것과 재여보기까지 했다.

《중대장동지, 이게 왜 이런지 압니까? 아 글쎄 이 친구 하는 말이 자기 고향은 더 멀리 있어 그렇다나요.》

전사들과 같이 웃으며 류성우는 따뜻한 온기에 점차 몸이 후더워지는 동시에 마음속에 어떤 친밀한 정이 자라는것을 느꼈다.

《고향이 어디요?》하고 성우는 문기에게 물었다. 《얼마나 멀기에 그러오?》

《이젠… 멀지 않습니다. 하루길이면 가댈수 있는 원소마을입니다.》

《?…》

성우는 커다란 의혹을 느꼈다. 그리운 고향을 가까이 두고 왜

그럴가? 왜 남들처럼 웃고 떠들지 않는가?…

이때 취사원 김만복이 《식사시간!—》하고 이상한 목소리로 말꼬리를 길게 뽑아 화토불에 모여앉은 사람들을 또 웃기였다.

…저녁식사는 달콤한 추억과도 같은 기분을 불러일으켰다. 김만복의 배낭속에서 나온 마른버섯으로 국까지 끓여 한결 푸짐하게 여겨졌다. 이 겨울에 어델 가서 마른버섯까지 다 구해들였는가고 류성우가 묻자 그는 무척 놀라와하면서 《중대장동문 아직 모르시우? 중대에선 이 김만복의 배낭을 도깨비자루라구 하지요. 밤에두 난 그걸 꼭 머리에 베구서야 잠이 듭니다. 손버릇 나쁜 친구들이 눈독을 들이니까요.》하고 말했다.

류성우는 굶주린 사람들이 그러듯이 뜨거운 국을 아무 맛도 느낄새 없이 훌훌 퍼먹고있었다.

누군가 자기의 짝패를 두고 시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까운 버섯을 소금에 절궜구만. 내가 끓인다는데 부득부득 우기더니… 이거야 너무 짜서 맛을 알수가 있나.》

《물을 타라구. 그렇게 간단한걸 통 모르거던.》

《그런데 나는 짜서 입에도 못대겠는데 이 친군 벌써 한그릇 다 비웠으니 어떻게 된 일이야?》

《그거야 간단하지. 난 혀끝으로 맛을 보는게 아니라 배에 채워넣구서야 맛을 아니까.》

화토불마다 차츰 소곤소곤하는 말소리들이 늘어가고 한쪽구석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지기까지 했다.

《취사원아바이, 아무래도 량피공급장한테 가서 신소를 해야겠어요. 우리 중대가 뭐 체화품소비조합인가말이요. 창고에 남은 소금은 몽땅 우리한테만 보내니 이거야 참을수 있는가말이예요.》

국이 짜다고 지청구를 하던 전사가 이번엔 직접 취사원을 걸고 늘어졌다.

《신소를 하게. 그럼 그 구두쇠량반이 가죽띠를 우려먹으라고 할거야. 그래야 적후에서 소금 귀한줄 안다구…》

취사원 김만복은 키가 작고 다부진 체격이였다. 그의 얼굴 전체는 아주 잘디잔 주름살들로 덮여있어 아무리 유명짜한 관상쟁이라도 그 많은 선들로 그려져있는 천상의 행복과 곡절많은 팔자를 다는 밝혀내지 못할것이다.

《걱정 마시우. 가죽띠가 오죽 좋아서요. 그걸 끓여먹드래도 아바이가 성리에서 가로채왔던 보리죽따위는 입에 대지 않겠수다.》

모두가 유쾌한 웃음으로써 악의없는 도발자를 지원하였다.

류성우는 문득 곁에 앉아있는 엄기창을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가로채오다니. 그것도 보리죽을?!…)

엄기창은 안경을 벗어들고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입김으로 불어대고는 다시 걸었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특무장한테서 구두표창과 처벌을 동시에 받았답니다.》

엄기창의 굵은 목소리가 울리자 모두 웃음을 머금고 류성우를 바라보았다. 새로 온 중대의 상관에게 중대의 특기할만한 일화를 알려주게 된것이 무척 즐거운 모양이였다.

《철원계선에서 우리 적후투쟁부대가 포위전을 할 때였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투가 계속되였는데 저 취사원동무가 점심밥을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오르다가 그만 포탄이 날아와 터지는통에 모재비로 나딩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만복인지라 아마 만가지 복을 다 타고났던 모양인지 손가락 하나 다친데 없이 일어났는데 그만 밥통과 국통을 다 쏟드리고말았지요. 다시 돌아가 밥을 짓자니 그동안 전투에서 지치고 배를 곯고있는 전사들 생각에 눈앞이 다 캄캄해지더라지 않습니까. 하하… 그런데 때마침 밋밋한 등판으로 올라가는 적 화식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볼게 있습니까. 다짜고짜 적 화식병을 따라가서 그를 구슬려 지게를 지운채로 중대에 도착했답니다.》

류성우는 좌중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만족한 웃음을 보여주었다. 주름살투성이 취사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만복이라고 이름지었을 때엔 먼 래일의 싸움판에서 그런 행운도 차례지라고 하지 않았을가 하는 객적은 생각까지 들었다.

그때 방성화가 우정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용케 끌고오긴 했지만 그놈의 보리죽을 어데 먹겠드라구요. 난 거기에 입을 댔다가 영 입맛을 잃었다니까.》

방성화는 얼굴을 찡그리며 전사들쪽을 향하여 괴로운 표정을 지어보이기까지 했다.

《정말이요.》

이렇게 말한것은 류문기였다. 류성우는 그의 어조로 미루어 롱이 아니라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약간 경멸하는 어조로 중얼거렸다.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니까.》

유쾌하던 분위기는 문기의 이 한마디로 사라져버렸다. 모두 입을 다물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흥, 또 트집이군.》 김만복이 중얼거리는 말이였다. 《저렇게 꼬장꼬장한게 애비구실은 어떻게 할랴는지 원!…》

밥통뚜껑을 닫고있는 취사원에게 성우는 나직이 물었다.

《그건 무슨 소리요? 그럼 문기동무한테 벌써 아들이 있단말이요?》

《글쎄 제말로는 떡돌같은 아들이 하나 있다는데 알게 뭡니까. 도제 속내를 모를 사람이거던요. 아들은 있다면서도 이름이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

취사원 김만복은 밥통을 걷어쥐더니 샘줄기가 흐르는 골안으로 걸어가버렸다.

성우는 잠자코 생각에 잠겼다. 모르는것이 너무도 많다. 지금 겨우 전사들의 이름이나 익히고있을뿐이다. 그러나 전투는 눈앞에 있다…

밤하늘에서는 별들이 추위에 떨고있었다. 눈덮인 태백산줄기의 높은 령마루들에서 곧추 달려왔을 찬바람이 나무우듬지들을 흔들기 시작했다.

류성우는 삭정이를 꺾어 화토불우에 놓았다. 몸이 녹고 배불리 먹고난 뒤여서 몰렸던 피로가 눈섭에 잔뜩 매달리기 시작했다.

가까운 불무지에서 두런두런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8중대의 8경》중에서 두가지를 가지고있다는 허우대가 큰 방성화분대장이였다.

《멀지 않다네. 예서 하루길이면 된다구 하지 않았나. 하여튼 령남사람치구 원소마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누만.…》

원소마을!… 문기가 떠올랐다. 그가 바로 자기 고향을 원소마을이라고 했었다.

《한번은 원소마을을 지도에서 찾아봤는데…》 방성화가 계속했다. 《암만 찾아야 있어야지. 그렇게 작은 부락이거던. 헌데 왜 그렇게 유명한가 하문 바로 원소때문이라네. 실꾸리를 풀다풀다

끝이 안나 고만뒀다는 옛말두 있다나. 그렇게 깊은 웬소에다 봄과 가을이면 기러기떼가 하늘을 온통 덮으며 날아가고 날아온다누만. 예로부터 기러기떼가 쉬여가는 고장이라네.》

여러 목소리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문득 방성화가 크게 웨쳤다.

《여 문기동무, 왜 잠자코 있어? 아이때 입에 갈대를 물고 들어가 기러기뒤다리를 잡아당기던 얘기나 좀 하라구.》

보병중대!… 성우는 생각했다. 역시 식솔많은 큰 가정답게 근심도 많고 웃음도 많구나!… 그는 무릎우에 가방을 놓고 손바닥으로 옆머리를 비스듬히 고였다. 그리고 화토불의 영원한 노래를 감상하려는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꿈결처럼 어릴 때 광산마을뒤산의 넓은 등판에 뛰여오르던 일을 생각했다. 하이얀 껍질로 몸을 팽팽히 둘러감은 자작나무들이 작은 동리를 이룬 등판이였었다. 그 등판에 오르면 골짜기를 누벼가는 시내물이며 먼 바다기슭에까지 련달아 어깨를 마주댄 산봉우리며 또 저 멀리 백양나무들이 줄지어 선 길을 따라 둘러앉은 마을들과 들판, 마지막으로 바다에로 미끄러져들어가다가 지쳐버려 주저앉고말았다는 전설의 진수봉까지 다 볼수 있었다.

알수 없는 먼 나라, 희망과 동경의 꿈나라를 보려고 가느다란 목을 길게 빼들던 그 시절엔 정든 등판이였었다. 어린 녀동생이 도라지를 채운 작은 바구니엔 그 등판에서 피여난 섬약한 꽃송이가 한들한들 춤추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락반사고로 죽은 아버지의 시신이 거적때기에 말려나왔던 그때부터 소년 성우는 한번도 그 등판에 올라보지 못했었다. 아버지가 남긴 간데라를 입에 물고 어린 소년은 그 등판아래 컴컴한 어둠속을 기여들어갔던것이다.…

화토불은 조용히 타올랐다.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소리, 탁탁 튀여오르는 소리… 소리없이 흘러가는 구름바다에 온몸을 잠근듯했다. 어데선가 불그레한 불기둥이 그의 몸을 휘감아버리더니 아득한 먼 나라로 실어올리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주의깊은 시선을 느끼며 류성우는 눈을 떴다. 대대장이 그의 눈앞에 서있었다. 벌떡 뛰쳐일어난 류성우는 바지혼솔에 두손을 가져다붙이며 장화발꿈치를 딱 마주쳤다.

《실수했군, 실수했어.》

련대의 전체 군관들중에서 성미가 느리고 배심이 든든하기로 유

명한 대대장이 중얼거렸다.
류성우는 그가 말하는 의미를 미처 알아차릴수 없어 잠자코 서 있었다.
《실수했거던. 5분만 더 잠들게 한다는게 그만… 그래 중대장 동무, 준비가 잘돼가오?》
류성우는 그에게 설정된 목표와 습격을 위한 전술적인 방안들에 대하여 설명했다. 대대장은 심중히 들어보더니 몇가지 보충적인 안을 주고는 언명했다.
《전술적으로는… 의견이 없소!》
그는 고개를 돌리더니 이미 대기하고있던 전사들을 소리쳐 불렀다.
《공병분대! 정렬하오.》
어둠속에서 여섯명의 전사들이 달려와 정렬했다.
《자, 중대장동무, 이제부터 이 동무들을 중대에 배속시키오. 습격전투에서 한몫 할게요.》
류성우는 재빨리 공병들의 손을 하나하나 힘있게 잡아주었다.
《동무들, 반갑소. 정말 반갑소.》
역시 만족했던 모양으로 대대장은 공병들의 인사가 끝나자 은근한 어조로 물었다.
《또 요구되는게 없소?》
《없습니다, 대대장동지.》
《없다구? 아하— 그러니 괜한 짐을 메구왔구만.》
대대장의 눈길을 따라 고개를 돌린 류성우는 그때에야 정치부중대장 엄기창과 마주서서 무슨 말인가 재게 속삭이고있는 나어린 간호원처녀를 발견하였다.
대대장은 유쾌한 목소리로 그를 소리쳐불렀다.
《간호원동무, 좀 보여주라구. 정 싫다문야 도로 메구갈수밖에.》
나어린 간호원이 배낭을 들고오더니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중대장동지, 간호원 김숙경 의약품과 붕대를 가져왔습니다.》
《좋소.》
류성우는 어느새 곁에 와 서있는 배다운에게 위생지도원을 불러오라고 명령했다.

(전투는 박두했다. 아니 벌써 시작되였다！…)

위생지도원과 숙경이가 배낭속에 들어있는것을 하나하나 주고받기 시작하자 대대장은 정색하여 물었다.

《야간훈련은 언제 할 계획이요？》

《새벽에 하겠습니다.》

《음.》

대대장은 머리를 끄떡거렸다.

《잘 생각했소. 실전과 같이 해야 하거던. 여보 중대장동무, 그동안 전사들을 푹 재워야겠소.》

그는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어데론가 또 급히 가닿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사정이 있다는것을 그의 표정에서 읽을수 있었다.

《또 오겠소.》

대대장은 계속하여 류문기 등이 사살한 적병들에 대한 보고와 관련하여 련대에서 특별히 경계근무를 강화하고있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야간에 불을 피우지 말것과 새로 배속된 공병들중에 경험많은 폭파수가 있다는것을 알려주었다.

류성우와 악수를 나누고 그는 간호원을 불렀다. 나어린 김숙경은 그새 숱한 전사들속에 쌔워있었다.

《예, 갑니다. 대대장동지！》

전사들에게 몰방으로 인사를 퍼붓고 대대장을 쫓아가던 숙경은 불현듯 도로 뛰여왔다.

《중대장동지, 그만 잊었어요. 편지를 전해주라던걸…》

《편지？》

《우리 상급준의동지가 보냈습니다.》 봉투를 내밀면서 그는 잰말씨로 속삭이였다. 《잊지 말고 꼭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중대장동지, 그럼… 돌아갈만합니까？》

잠시후 숙경은 대대장을 쫓아 어둠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가 섰던 자리엔 화장비누냄새와 또 무엇인지 딱히 찍어 말할수 없는 싱그럽고 생신한 체취만이 남았다.

성우는 손에 든 편지를 불빛 가까이 비쳐보았다. 그러자 흠칫 놀랐다.

(은하？… 아니 이 동무가 이 먼데까지？！)

그는 마치 편지가 아니라 그 녀자자신이 전선넘어 천리길을 찾아온것처럼 이렇게 놀랜 소리를 질렀다.

다시 봉투를 들여다보았다. 희미해진 글발을 뜯어보면서 가슴이 죄여드는것을 느꼈다.

(그는 적후에 떨어졌다고 하지 않았는가?…)

부대가 적후로 뚫고들어오기전의 일이였다. 군단사령부 통신소대장으로 갓 배치된 동창생 병수를 만난 일이 있었다. 바쁜 때여서 그들은 몇마디밖에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여보게 정찰병》하고 병수는 마지막으로 헤여질 때 물었다. 《자네 은하동무 소식을 들었나?》

《아니.》

《그럼 모른단말인가?》

《알고싶지도 않네.》

《뭐?》

병수는 성우의 팔소매를 와락 당겼다.

《그럼 그 동무가 정치공작대로 나간것도 모르구?》

《그런 일이 있었나?》

《그만하라구!》 별안간 그는 성을 내여 부르짖었다. 《어떻게 동무가 그럴수 있나. 그래 그것도 말이라구 해?》

《…》

《성우!》

잠시후 그는 쓸쓸한 어조로 말했다.

《동무의 그… 은하동무말이야… 그 동문 적후에 떨어졌네.》

《뭐?…》

《동무들의 편지에 그런 소식이 있더군, 후퇴때 홀로 떨어졌는데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네.》

부지중 그때 일을 생각하자 가슴이 떨렸다. 상급준의가 하던 말을 돌이켜보면 분명 이 편지는 전선으로 나가기전에 썼을것이다, 그럼 지금 은하는 어떻게 되였을가? 그는 어디에 있을가?… 봉투를 쥔 손이 가느다랗게 떨렸다. 가슴은 세차게 뛰놀았다. 흘러간 먼 시절, 유정한 귀뚜라미소리와 더불어 어린 소녀의 꿈결속에 메아리쳐오던 발방아소리가 가슴속에서 쿵쿵 울리기 시작하였다. …

8

성우는 봉투를 뜯고 불결에 쭈그리고 앉았다. 날름거리는 불길이 종이장우에서 헤염치듯 얼른거렸다. 뜨거운 불의 혀끌들은 사연많은 글줄우로 미끄러지기도 하고 성우의 얼굴에 갖가지 문양들을 열심히 그리며 소리없이 뛰놀기도 하였다.

불은 조용히 타올랐다. 심중의 애끓는 속삭임과도 같이 나무가지에서 바글바글 끓어번지던 진액은 소리없이 잦아들고 끄물끄물 서려오르던 파르스름한 연기도 바람에 불려 사라졌다. 늘었다줄었다하는 불길만이 안타깝게 너울거리며 어둠을 쫓아내려고 헛되이 애쓰고있었다.

성우는 정성담아 박아쓴 글줄마다에서 화토불의 따뜻한 온기를 먼저 감촉하였다. 그것은 다정한 숨결과도 같은 추억의 온기였다.

《성우동무, 지금 저는 대합실장의자에 앉아 이 글을 씁니다. 사실 저는 언젠가 동무가 전선으로 떠날 때 잠간 앉아있었을는지도 모르는 이 의자우에서 벌써 오랜 시간 무엇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망설였어요. 그런데 제결에 앉아있던 한 나이지숙한 군인이 실머리를 풀어주었어요. 그는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망설이시오? 애인한테 씁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선에요.〉

그랬더니 그는 의미있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은근히 귀뜀하더군요.

〈전선에 보내는 인사야 망설일게 뭐가 있소. 솔직하고 용감하게 쓰시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나는 무엇을 쓰고싶었던가?… 비로소 저는 초조감도 망설임도 없이 시작할수 있었어요.》

엄기창이 다가와 조심히 자리잡고 앉더니 싸리가치를 꺾어 불더미우에 올려놓았다. 성우가 머리를 들자 그는 편지를 마저 읽으라는 의미의 눈짓을 하면서 관대히 웃어보였다.

화토불은 다시금 활활 타올랐다. 너울거리는 불빛은 발각거리는 종

이장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빛의 반사를 성우의 얼굴에 옮겨주었다.
《…성우동무, 저는 매일같이 전선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운 동무들을 그려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군복을 입으려고 동무들과 같이 군사동원부의 문턱을 지켜섰지요. 그런데 저는 뜻밖에도 정치공작대로 파견되게 되였어요. 정치공작대! 맡겨진 신임과 책임이 하도 커서 선뜻 말이 나가지 않더군요. 과연 내가 그 일을 감당해낼수 있을가? 하고말이예요. 그러나 정작 출발을 앞둔 지금에 와선 마음이 굳세여지는군요. 한 녀전사로서 총을 메고 죽음도 서슴없이 맞받아나갈 각오가 되여있은것처럼 당이 바라는 일을 기어이 해내리라는 결심을 곱씹었습니다.
성우동무, 기적소리가 울립니다. 벌써 구령소리들이 울리고 전선으로 떠나갈 전사들이 대오를 짓습니다. 지금 성우동무가 싸우는 그곳으로 조국이 우리를 불러주고있어요. 성우동무, 그리운 성우동무, 저는 기뻐요. 이제 우리는 반드시 벗으로 그리고 전우로 다시 만나게 될거예요. 그럼 부디 건강한 몸으로 잘 싸워주세요.
은하.》
성우는 눈을 감았다. 전쟁이 일어나기전에 있은 한가지 서글픈 리유로 하여 본의아니게 그 녀자에게만은 한장의 편지도 쓰지 않았던 그였다. 그러나 은하는 그의 주소를 알아내여 길지 않으나 솔직하고 진정에 넘친 마음을 써보낸것이였다. 손상당한 자존심때문에 다시는 그 녀자를 생각지 않으리라고 마음다지던 성우… 먼 옛날의 일도 아니였다. 성우는 수천리 전선길을 따라 임자를 찾아온 그 곡절많은 편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망설였다. 주머니속에 그대로 찔러넣어버린다면 도의에 심히 어긋나는 일로 될것이다. 그리하여 류성우는 자기의 심리상 굴절을 관찰하고있는 엄기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엄기창이 물었다.
《애인인가요?》
그의 손에는 벌써 모서리가 닳아버린 봉투가 쥐여있었다. 진지하고 부드럽게 바라보는 그의 눈길앞에서 성우는 다른 대답을 한다면 그를 섭섭하게 그리고 노엽게 하리라는것을 깨달았다. 성우는 그에게 편지를 넘겨주었다. 그리고 엄기창이 쥐고있던 불꼬챙이로 저도 모르게 불을 쑤시기 시작했다. 은하를 잊으려고 애썼건만 못견디게 그려지던 밤들, 군용렬차의 살창가며 습격을 앞둔 적구 그리고 위문

편지를 고르던 수류탄등불아래의 습기찬 엄페부들이 떠올랐다.

마침내 편지를 다 읽은 엄기창이 담배를 붙여물더니 《참 좋습니다.》하고 말했다. 이어 굴뚝처럼 연기를 내뿜었다.

《중대장동무, 사랑이란 귀중한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도 보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이지요.》

그리고는 또다시 《참 좋군요.》하고 감탄하면서 천천히 일어나 전사들이 둘러앉은 화토불로 걸어가버렸다.

(혹시 그에게 편지와 결부된 무슨 사연이라도 있지 않을가?…)

맨처음 떠오른 생각이였다. 그러자 준엄한 적후에서 전투를 앞둔 중대장이라는 책임을 놓고볼 때 그 어떤 도덕적이며 량심적인것에 저촉되는듯한 느낌이 그를 번거롭게 하였다.

그는 지어 가방에서 지도를 꺼내여 무릎우에 펴놓기까지 하였으나 오불꼬불한 지도의 등고선들은 멀고먼 기슭의 작은 시내가 추억의 기슭으로 그의 상념을 이끌어갔다.

은하의 편지는 봉인한 기밀서류와 같이 마음속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애끓는 심중의 추억을 다시 불러일으킨것이였다.

문득 싸리단을 안고 지나가던 중기부사수 오리준하사가 허리를 잔뜩 굽히고 온통 웃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는 달려가버렸다.

《?…》

그가 달려간 화토불가에서는 정치부중대장 엄기창을 둘러싸고 전사들이 신명이 나서 떠들며 웃어대기도 하였다.

성우는 편지를 접어 가방속에 밀어넣었다. 그러나 길지 않은 그 글발들은 그의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련락병 배다운이 달려왔다.

《중대장동지!》

그는 스스럼없이 불결에 퍼더버리고 앉았으나 다음순간 중대장의 무릎우에 놓인 지도를 보자 대뜸 정색해졌다.

《왜 그러오?》

《저…》

야릇한 미소가 발가우리한 그의 얼굴에 떠올랐으나 다시 입을 다물었다. 전투를 앞둔 지휘관의 깊은 사색을 방해할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였다.

《일없소. 어서 말하오.》

바로 그때 배다운의 어깨를 툭 치는 사람이 있었다. 련락병을 한쪽으로 밀어버리며 방성화가 불결에 앉는것이였다.

《중대장동지, 정말 기쁘겠습니다.》

《…》

성우는 방성화와 그리고 류달리 정찬 눈매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배다운을 번갈아보았다.

《적후에서 편지를 받다니…》 거의 혼자소리처럼 방성화는 말하였다. 《참 놀라운 일이군요.》

비로소 성우는 갑자기 보는 사람마다 그의 머리에 뿔이라도 난것처럼 새삼스럽게 그리고 온통 웃는 얼굴로 의미심장한 눈길을 던지게 된 리유를 알게 되였다.

(어느새 벌써?…)

그는 정치부중대장의 굵은 목소리가 울려오는 저쪽 화토불가로 고개를 돌리고 귀를 강구었다.

《보란말이요. 우린 그저 전선너머 천리에 와있다, 얼마나 멀리 왔는가 하는 소리만 했거던. 그런데 알고보니 결코 멀지않단 말이요. 모든게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거던. 이렇게 천리밖에 와있어도 우린 여전히 부모처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있단말이요.》

첫인상에 동정심이 먼저 가던 엄기창, 체소하고 도수높은 안경을 낀 정치부중대장은 지금 류성우에게 차례진 작은 기쁨을 그 어떤 용적으로도 계산할수 없고 무게로도 달수 없는 커다란 기쁨으로 만들어 모든 전사들에게 안겨주는것이였다. 비록 한통의 작은 편지였지만 그것을 지척에서 속삭여주는 고향의 목소리, 조국의 목소리로 전투를 앞둔 전사들에게 들려주는것이였다.

《보란말이요!… 멀지 않소!…》

불현듯 성우는 한통의 편지를 중대에 차례진 커다란 기쁨으로 만들어준 정치부중대장이 돋보였다.

《정치부중대장동지가 더 기뻐하는것 같군요.》

방성화의 말이였다.

《음…》

옳은 말이다. 성우는 눈길을 돌리지 않은채 그에게 실망했던 첫인상과 아직도 다는 알수 없는 그의 허약한 체질에 비한 지칠줄 모르는 정력이며 극히 평범하면서도 남다른 그의 성품에 대하여 생각

해보았다.
그때 방성화가 어둠속을 향해 웨쳤다.
《문기！ 왜 말뚝처럼 박혀있어. 어서 오라구. 제가 먼저 오자고 하구선 왜 저 모양일가.…》
문기는 소리없이 다가왔다. 그리고 류성우를 눈여겨보며 조용히 물었다.
《애인입니까？》
이 순박한 물음에 다른 대답을 한다면 심히 기대에 어긋날것이다.
《음.…》
《그럼 중대장동지》하고 문기는 역시 낮게 말했다. 《공개독보해야지요？》
《그렇게 하지. 헌데 문기동무도 공개해야 할것이 있소.》
《？…》
《아들말이요. 떡돌같은 아들이 있다는데 아직 이름이 없다는건 무슨 일이요？》
《아니,중대장동지.》
문기는 당황하여 어깨를 옴츠렸다.
《누구한테서 들었습니까. 아— 알만합니다. 정치부중대장동지한테서 들었지요？》
성우는 그의 어깨를 잡아돌리며 큰소리로 말하였다.
《자,저기 가서 보자구.》
그들은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선량한 별들과 같은 숱한 눈들이 미소를 담고 그를 반기고있었다.

9

잠들수 없었다. 잊을수 없는 추억… 그것은 광복을 맞은 이듬해 어느 여름날이였다. 광산민청일군이였던 성우는 문맹퇴치사업을 위해 가까운 농촌마을로 떠났었다. 시내가에 잇대여진 길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길섶에서 게사니들이 왁자지껄 떠들었다. 문득 그는 아연해졌다.

스무나문마리나 되는 게사니들이 방금 벼꽃이 피기 시작한 논판을 짓뭉개고있는것이였다.

아무리 바쁜 걸음이라 해도 그 판국을 보고 지나칠수는 없었다. 그는 무릎까지 걷어올리고 논판에 들어섰다.

진흙덩어리들을 집어뿌리며 진정할줄 모르는 게사니들을 몰아댔다. 그러자 게사니무리는 악담을 퍼부으며 성이 나서 몰려다녔는데 길가로 내몰면 길건너 논판에 뛰여들고 그쪽에 달려가면 다시 길건너 이편으로 몰려왔다. 광산민청일군과 게사니무리는 얼마후 다같이 악에 치받쳤는지라 가뜩이나 짓이겨진 논판은 엉망진창이 되였다.

술래잡이같은 노릇을 더는 계속할 용기가 없어졌을 때에야 협력자가 나타났다. 길건너편 논판에서 웬 처녀가 소리쳐부르는것이였다.

《이보세요. 이쪽으로 몰아요. 여긴 내가 막을게요.》

이제는 손쉽게 일을 끝낼수 있었다. 둘이 함께 입담센 게사니무리를 언덕길까지 몰아갔을 때 웬 더벅머리총각이 참나무밑에서 기지개를 켜며 일어섰다.

《누구시유, 왜 남의 게사니를 몰아가유?》

총각의 더벅머리와 귀언저리엔 그의 죄과를 여실히 증명해주는 마른 풀잎들이 달라붙어있었다. 아직도 두눈은 흐릿하였고 목소리는 잠에 취한대로였다.

류성우와 처녀의 눈길이 마주쳤다. 제편에서 골을 내는 더벅머리의 모양이 어처구니없어 서로 웃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성우는 입을 다물었다. 처녀의 눈도 굳어졌다. 그 눈빛은 이렇게 묻는듯 했다.

《왜 그래요?》

성우는 잠자코 서있기만 했다. 그는 자기와 마주웃는 그 처녀가 그처럼 아름다운데 놀랐던것이다. 맑고 순결하고 산뜻한 그 아름다움은 일종의 압박감 비슷한것을 느끼게 했다. 그러자 처녀는 생긋 웃었다. 그리고 지꿎은 성우의 눈길을 피하여 진흙으로 매닥질한 종아리를 훑어보았다.

《아이, 이걸 어쩌나.》

성우는 눈길을 돌렸다.

《갑시다.》

물버들이 한가롭게 흐느적거리는 덤불곁으로 작은 시내물이

흐르고있었다.

《참 좋군요.》 처녀는 맑은 물속에 발을 잠그며 말했다. 《그런데 저… 문하리라구 에서 멀어요?》

외삼촌을 찾아오는 길이라면서 처녀는 서둘렀다. 해가 저무는것이 못내 걱정스러운 모양이였다. 처녀와 헤여지면서 성우는 말했다.

《조심해야지 범도 있다우.》

처녀는 커다란 두눈에 야릇한 웃음을 담고 성우를 흘겨보았다.

《고마와요.》

성우는 그가 눈인사를 하고 멀리 갈 때까지 우두커니 서있었다. 그 녀자의 두눈이 맑고 시원하게 느껴진것은 웃음이 샘솟는때문이라는 객적은 생각을 하였고 잠시후엔 자기자신과 벌어진 일들에 화를 내면서 처녀가 가는 길과 정반대되는 광산쪽으로 스적스적 걸어갔다. …

한해가 지났다. 성우는 대학추천을 받았다. 그는 전차들의 종소리로 시작되는 수도의 아침길을 걸어 까다로운 공식들과 외국어며 교원들의 엄한 눈초리가 기다리는 교정으로 들어갔다.

어려운 날들이였다. 광복전 학비를 댈수 없어 광산마구리로 들어갔고 광복후엔 남들이 1년동안 배운것을 한두달어간에 따라잡기 위하여 밤을 밝히군했지만 여전히 기초지식이 약했던 그로서는 머리가 터질지경으로 공부를 해야 했다.

같은 학급에 있는 로병수라는 수재형의 동무가 그를 방조했다. 병수는 광범한 지식과 진지한 탐구심을 가지고있었다. 그는 외국어사전을 펼 때엔 《외국어는 생활을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는가 하면 고등수학을 시작할 때면 《300년전에 벌써 어느 대학자는 수학이란 자연이 인간에게 말하고있는 언어라고 했네.》라고 서두를 뗐다.

《자, 그럼 자연이 말하는 언어를 또 들어보자구. … 그런데 성우, 동문 그저 단번에 삼킬 생각만 하는게 탈이야. 그러다간 꼭 소화불량증에 걸린다니까.》

그들은 친구로 되였다. 한편은 작고 한편은 크고 이쪽이 진지하면 저쪽은 완강했으며 한사람은 《골방선비》, 다른 사람은 《후보선수》라는 별명으로 불리웠다.

《후보선수》는 성우였다. 그것은 학과실력은 물론 체육이나 오락, 바이올린을 켜는 재능 등 다방면적인 성우였으나 어느 하나도 특출하진 못하다는 의미로 병수가 붙여준것이였다.

어느날… 학기말시험을 얼마 앞둔 때 성우는 병수와 같이 유보도로 나가고있었다. 여기서 그는 두번째로 은하를 보았다. 전차정류소에 있던 은하가 먼저 그들을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병수에게 건늬는 말이였다. 《그런데 무슨 책을 그리 많이…》

《예, 시험준비를 하느라구.》

《참 박사로 소문난 동무도 그렇게 시험준비를 요란히 하는가요?》

《천재—이는 근면이다… 이런 말도 있지요.》

병수가 어줍게 웃으며 류성우를 돌아보자 그 녀자도 그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그때 성우는 숨을 죽이고 서있었다. 맑고 명랑해보이는 커다란 두눈, 보통 여름옷을 산뜻하게 조여입은 날씬한 몸매, 부드럽게 곡선을 지은 어깨우로 함함히 흘러내린 윤기나는 머리칼… 그 녀자의 모든것이 조화롭고 생신했고 한해전보다 더 아름답고 세련된듯싶었다.

은하 역시 류성우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때 레루이음짬을 울리는 전차바퀴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려왔다. 병수와 은하는 서둘러 인사를 나누었다.

이렇게 그들은 헤여졌다. 확언하건대 그날 은하는 성우를 알아보지 못한것 같았다. 이것은 성우에게 일종의 노염에 가까운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비로소 그는 자기가 여태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있는 그 처녀를 잊지 않고있었으며 웃음이 샘솟듯하는 아름다운 두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있었다는것을 깨달았다.

성우가 떠나가는 전차쪽을 두번째로 돌아보았을 때 병수가 말했다.

《훌륭한 처녀야. 사범대학에서 으뜸가는 동무지. 한때 우린 이웃해 살았어.》

《그런데 무엇으로 으뜸인가?》

《그야 물론 첫째로는 학과실력이지. 그담 인물로써도 그렇구…

헌데 미리 말해두지만 반하진 말라구. 자네같은 〈후보선수〉는 거들떠보지도 않을걸.》
《걱정 말게.》 성우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제발 그 〈후보선수〉소린 걷어치우라구!》
그 류다른 어조에 병수는 놀래여 걸음을 멈추기까지 했다.
성우가 세번째로 은하를 만난것은 9월 9일 공화국창건을 기념하는 대학별경연때였다. 여기서 성우는 바이올린으로 음악애호가들의 선망의 눈길을 모았다.
연주를 끝내고 내려온 그는 강당출입구에서 은하와 부딪쳤다. 그들은 놀래여 서로 비켜섰고 다음순간 뚫어지게 마주보았다.
《저를 모르겠어요?》
은하의 말이였다.
《글쎄요.》
언젠가 전차정류소에서 있은 일을 잊지 않고있던 성우는 이렇듯 애매하게 대꾸했다.
《그래요?》 은하는 웃었다. 《전번 정류소에서 만났을 때 벌써 동문 날 알아본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성우도 웃고말았다.
《솔직하군요.》
그들은 번잡한 강당출입구에서 물러나 복도로 나섰다.
《우린 가까이 있으면서도 몰랐군요.》 은하가 말했다. 《그런데 왜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요? 동무의 연주를 듣고 모두 감탄하던데…》
그것은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성우는 폐병으로 실직당한 음악가에게서 바이올린을 배우던것을 회상했다. 광산에 쫓겨온 그 사람은 바이올린을 켤 때마다 눈물을 쏟군하였다. 그러나 쓸쓸하고 고되고 눈물겹던 지난 생활의 애절한 음향때문에 그가 음악을 택하지 않은것이 아니다. 그를 대학에 추천한 광산당위원회에서는 유능한 기술자가 되여 돌아오기를 바랐고 또 그것은 성우의 소원이기도 했다.
이러한 설명이 있은후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이 침묵은 그들을 어색하게 했다. 오랜 벗들만이 끝없는 침묵속에서도 그것을 즐기며 서로의 심정을 주고받는것이다. 먼저 성우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우린 아직 이름도 모르고있군요.》

《은하예요, 신은하！》

《전 류성우입니다.》

…그들은 자주 만났다. 외국어사전이나 신간잡지를 주고받았고 은하의 아버지가 작곡가라는것을 알게 된 이후엔 여러가지 악보들이 구실로 되였다.

한번은 은하의 집 대문가에서 작곡가와 마주쳤다. 예술가라기보다 학자풍에 더 가까운 작곡가는 그를 방안으로 이끌어 이러저런 이야기끝에 기탄없이 말하였다.

《젊은이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건 참 유감이군. 이제라도 마음을 달리 해보지 않으려오？》

그것은 무게있는 권고였다. 그는 새조선의 음악전선에 건전하고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요구된다면서 류성우더러 광명한 새시대를 노래하는 시대의 가수로 나서지 않겠는가고 정중히 물었다.

류성우가 어물거리며 미처 대답을 못하자 참다못해 은하가 껴들었다.

《아닙니다, 아버지. 시대의 가수도 물론 좋겠지만 우린 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의 주인공이 되고싶은걸요！》

작곡가는 그것을 어린애들의 혀짧은 말과도 같이 웃어넘길수 있었으나 웬일인지 잠시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너한테도 그런 서정시가 있는줄 몰랐구나. 어느 시집에서 빌려온것만 아니라면 나도 그 대답이 마음에 든다.》

그날 집을 나설 때 은하가 물었다.

《아버지앞에선 왜 우물쭈물했어요？ 고집이 센 동무답지 않게…》

성우는 갑자기 혀가 굳어지더라고 대답했다. 아직 남보다 앞서가지 못하는 주제에 큰소릴 치고싶지 않았다는것이였다.

《아직 후보선수란말이지요？》

은하는 웃으며 병수가 몰래 귀띔해주더라고 말했다.

《흥！》 성우는 조용히 부르짖었다. 《두고보라지. 내 기어이 그 친구도 따라앞설테요！》

《그럼 약속할가요？》

《뭘？》

《따라내지 못하면 이름대신 계속 〈후보선수〉라고만 부르겠어요.》

《따라내면?》

《그럼… 맘대루 하세요.》

《좋소. 내가 무얼 받아낼는지는 그때 가서 말하지.》

그것은 젊은 남녀들이 서로 친숙해지는 시기에 흔히 있는 례사로운 롱담과 약속들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 스쳐지날수도 있었던 약속이 그들사이에 장벽을 쌓게 된 발단이였다는데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것은 무도장에서 있은 일이였다.

좋은 저녁이였다. 훈훈한 미풍에 실려 부드럽고 은은한 무도곡의 선률이 물결처럼 가슴속으로 밀려들었다.

세사람, 성우와 은하 그리고 병수가 나란히 서있었다.

《이거 야단났군.》 병수가 하는 말이였다. 《난 어데서 짝을 구한다?》

그러자 은하가 생긋 웃으며 말했다.

《왜요. 제가 있지 않나요. 성우동무야 〈후보선수〉이니 기다리라구 하죠.》

그것은 성우가 지난 시험때에도 역시 높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데 대한 암시였다. 그러자 병수도 웃으며 웨쳤다.

《참 〈후보선수〉가 있지!》

아마 그때처럼 《후보선수》라는 말이 성우의 마음을 아프게 자극한 일은 다시 없을것이다. 하여 그는 조금 늦게야 은하가 다가와 《오래기다렸어요? 자 이젠 〈후보선수〉 차례예요.》라고 했을때 앙갚음을 하느라고 매정하게 싹 잘라 말했다.

《아니, 난 전혀 기다리지 않았소. 나도 알맞는 상대가 있으니까.》

뜻밖에 얼굴이 해쓱하게 질리는 은하옆을 지나 성우는 홀로 서있는 한 처녀에게로 다가갔다.

얼마후 은하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때에야 비로소 성우는 마음이 쓰라려나는것을 느꼈다. 그러나 다음날 또다시 그는 은하가 전화로 《오늘 시간이 있어요?》 했을 때 본의아니게 비틀어진 소리를 했다.

《아니, 몹시 바쁘오. 〈후보선수〉 신세를 면하자니…》

무안해진 은하는 입을 다물고말았다.

마침내 애달픈 심정의 유희는 시작되였다. 그들은 이것이 사랑이라는 심각한 서사시의 첫절에 불과하다는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성우는 분격한 병수의 갖은 위협과 욕설에도 불구하고 은하를 찾지 않았다. 그러나 괴로왔다. 이제 은하가 찾아준다면 모든것은 하찮은 일로 여겨질것 같았으나 무안을 당한 그는 오지 않았다.

번거로운 날들이 흘렀다. 아마도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변이 눈앞에 닥쳐오고있음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러한 침묵의 대결은 그날로 끝을 보았을것이다.

그때부터 거의 열흘만에야 성우는 자기의 부당한 고집을 누르고 은하를 찾아갔다. 손에는 언젠가 은하집에서 가져온 악보가 쥐여있었다. 그것을 돌려주면서 그는 이렇게 물으리라고 생각했다.

《동문 내가 이렇게 오리란걸 알았소?》

물론 은하는 웃을것이다.

《동문 참!… 이젠 성이 가라앉았어요?》

저녁이였다. 한낮의 해볕에 달아올랐던 포석우로 선들바람이 불어왔다. 구령에 따라 정렬해 선듯 일직선으로 늘어선 가로수들은 자기들의 긴 그림자를 벽돌담벽에까지 내뻗쳤다.

문득 그는 소스라치듯 놀래며 멎어섰다. 먼발치에 서있는 은하를 본것이였다. 웬일인지 은하는 소비조합상점 간판만을 바라보고있었다.

《은하!》 하고 소리쳐부를수도 있었다. 그러나 성우는 그앞에 불쑥 나타나고싶었다. 심장은 서서히 고동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은하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은하는 고개를 홱 돌렸고 방금 상점에서 나온 청년에게로 마주갔다. 두 사람은 낮은 소리로 무슨 말인가 주고받더니 소리내여 웃어댔다. 그리고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굽인돌이 저쪽으로 걸어갔다.

성우는 그자리에 못박혀버린채 움직이지 못했다. 장기판무늬 포장돌을 찍어가는 구두발소리… 성우의 마음을 아프게 토막치던 그 소리도 멀어져갔다.

그는 깨달았다. 언젠가 병수가 말한것처럼 은하는 《후보선수》를 뒤에 남기고 바로 그의 눈앞을 지나 멀리 가버리는것이였다.…

굴렁쇠를 멘 소년이 고개를 기웃거리며 그를 눈여겨보더니 가버렸다.

꾸레미를 량손에 든 로파가 지나가고 고무호스를 둘러멘 로동자가 누군지 소리쳐부르며 달려갔다.

생활은 성우의 쓰라린 심정이나 노염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나름으로 유유히 그리고 바삐 지나쳐가는것이였다.

성우는 굴렁쇠를 둘러멘 소년이 뛰여간 가로수옆으로 걸어갔다. 문득 눈앞에 전차가 와서 멎었다. 사람들이 련달아 내리고 또 오르느라고 한동안 부산을 피웠다.

《여보세요, 안타겠어요？》

머리를 들어보니 전차차장이 작은 창문으로 머리를 쑥 내밀고 있었다. 성우는 인차 그 말뜻을 알아차릴수 없었다. 그는 멍하니 차장을 쳐다보다가 저도 알수 없는 의미로 한팔을 쳐들었으나 맥없이 떨어뜨렸다.

《아이참！》

문이 덜커덩 닫기더니 전차는 떠났다. 레루이음짬을 건너 굴러가는 바퀴소리가 그의 가슴을 쿵쿵 울려주었다.…

그것은 전쟁을 3일 앞둔 날의 일이였다. 그때로부터 많은 날과 달들이 급류처럼 흘러갔다. 천리 남진의 길이며 전략상일시적후퇴의 길도 있었고 재진격의 포성과 더불어 눈보라를 헤치던 길… 그리고 오늘도 다시 먼 적후천리에 그가 와있다.

전쟁은 모든것을 삼켜버렸다. 젊은 가슴에 깃들었던 숫되고 어줍던 마음들은 물론 날카로운 의혹과 참을길없던 모욕감들은 모두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변속에 휘말려들어갔다.

그는 쓰라린 그 추억을 잊으려 했고 또 잊어버렸으니 지난날 생활의 한 자그마한 사변은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류혈과 증오, 원쑤에 대한 복수의 갈망은 포연처럼 가슴속에 서려있었다. 허나 과연 성우는 그것을 잊은적이 있었던가？ 잊으려 애쓸수록 그것은 더욱더 커다란 아픔으로 마음속 그 어느 구석엔가 빗장을 지르고 간직되여 있은것이였다. 은하의 편지는 그 빗장을 벗기고 성우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속 창문을 들여다보게 한것일뿐이였다.…

10

련대장일행이 류성우의 8중대로 떠난것은 어슬무렵이였다. 참모장과 3대대장,3대대상급부관이 동행이 되였다. 그동안 참모장은 3대대장에게서 포탄창고 습격을 전후한 중대들의 기동과 차후 집결로정에 대하여 까근까근 따져묻고있었다.

《1대대는…》 참모장의 말이였다. 《벌써 출발하였소. 〈특공대〉놈들의 숙영지를 기습하려고말이요. 그런데 3대대는… 기동이 굼뜨오.》

《누가 먼저 출발했는가가 문제로 되는건 아니지요.》

3대대장의 어조엔 전투경험이 풍부한 보병대대장으로서의 긍지가 울리고있었다.

《화수동포탄창고의 폭발은 물론이고 7중대도 새벽까지는 꼭 철다리를 끊어버릴것입니다. 습격조들의 철수엄호와 관련해서는 9중대장에게 해당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련대장은 내처 아무말도 없이 걷고있었다. 그는 지금 련대가 적의 저지선을 돌파하여 급속히 진출한 이후 적의 심장부에서 첫폭탄을 터뜨리는만큼 어느 한 고리라도 미흡한 점이 없는가를 줄곧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밤과 래일새벽에 걸쳐 진행하게 될 여러 타격전들에서 화수동포탄창고와 〈특공대〉숙영지는 련대의 주타격대상들이였다.

좀전에 1대대장은 말했었다.

《련대장동지,장담합니다만 〈특공대〉놈들은 잠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겝니다.》

그때 련대장은 그의 어깨를 눌러앉혔다.

《일러. 대답이 너무 일러!… 요란스러운 말들은 신문기자앞에서나 하구 지금은 앉아서 머리를 쓰오!…》

그러면 이제 류성우는 뭐라고 말할가?… 련대장은 남달리 자기 과신이 강한 그의 대답이 궁금하였다.

련대장일행이 8중대에 도착했을 때 전투장구류를 완전히 갖춘 중대가 그들을 맞이했다. 련대장은 팔팔하고 혈기에 넘친 중대장과

출전을 앞둔 병사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전사들의 강철빛 눈들을 몇번이고 번갈아보았다. 그러자 문득 나어린 간호원이 타박타박 옮겨가던 어린 발걸음이 생각났고 슬픔에 잠겼던 전사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중대는 달라졌다. 무엇이 그들을 달라지게 하였는가？ 지혜롭고 날파람있는 중대장을 보내주었기때문인가？… 련대장은 생각했다.

그것은 이 전사들이 전투임무를 받아안았기때문이다！…

병사는 전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병사에게 있어서 전투임무는 생명과 같은것이다！…

규정의 인사들이 오간 다음 련대장은 류성우를 불러 구체적인 보고를 들었다. 이미 대대장을 통하여 기습전의 전술적의도들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 련대장은 모든 전사들이 8분동안에 전투를 결속지을수 있다고 확신하는가를 물었다.

《전중대가 다 그렇게 믿소？》

《예.》

웬일인지 류성우는 규정의 대답이 아니라 좀 자신없는 어조로 《예.》하고 대답했는데 련대장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왜 그러오？ 주저하지 말고 생각되는게 있으면 다 말하오！》

《련대장동지.》 류성우는 몸가짐을 바로 했다. 《사실은 군사기술적으로 원만히 준비됐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중대를 선발했으면 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련대장동지, 이번 전투는 단 8분동안에 결속지어야 하는만큼 기민하고 날파람있는 전사들을 위주로 선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중대에는 아직 짐이 될수 있는 전사들이 적지 않은데…》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련대장의 얼굴에서 엄한 질책의 빛을 본것 같았다.

《그러니 굼뜬 전사들은 떼여놓자는말이요？》

《그렇습니다.》

숨죽인 대답이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련대장이 무겁게 입을 열기까지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다.

《떼여놓다니, 중대단위로 활동하는데 어데다 떼여놓는단말이요？

더우기 적후투쟁을 하는만큼 우린 오늘뿐아니라 래일도 모레도 순식간에 적을 치고 빠져야 하는데 그때도 동문 그들을 떼여놓겠소? 동문 아직도 팔팔한 정찰병들 네댓을 거느린 습격조장인줄 아오?… 동문 중대장이요. 적후부대의 중대장이요.》

련대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안경낀 정치부중대장을 돌아보았다.

《정치부중대장동무도 그렇게 생각했소?》

《…》

대답이 없었다. 당황해하고 무척 난감해하는 그의 표정으로 미루어 련대장은 류성우가 정치부중대장과는 아무런 토론도 없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알고보니…》 련대장은 준렬하게 말하였다. 《준비돼있지 못한건 중대장인 동무자신이요!》

《…》

《동문 습격전투를 전술적으로는 잘 준비했소. 빈틈이 없다고 할수 있소. 그러나 가장 중요한것을 지금 망각하고있소. 내 생각엔 그것을 이 정치부중대장이 보충했으리라고 보오.》

순간 류성우는 엄기창을 흘낏 바라보았다. 짧은 한순간 그는 자기의 정치부중대장이 줄곧 병사들속에서 《8분》의 목적과 의의를 해설하던것이며 중대장에게 온 편지를 전중대의 기쁨으로 만들던것을, 그리하여 침울하고 조폭하기까지 하던 류문기조차 고향과 아들, 그리운 집사람에 대해 털어놓던것을 생각했다. 련대장이 자기를 중대로 떠나보낼 때 중대에 가서 의거하라고 한 병사대중이 불현듯 엄기창의 모습으로 나타나보이는듯했다. 이제와서 류성우는 자기를 위해 자신의 부족점을 찾아주고 바로잡고 보충해주기 위해 련대장이 왔다는것을 더는 의심치 않았다.

훌륭한 지휘관이란 곧 훌륭한 병사들을 키워낼줄 아는 사람들이다.

련대장의 생각이였다. … 그들은 구원될 희망이 전혀 없는것 같은 때에도 성공을 의심치 않는 그런 정력으로 병사들을 준비시킨다.

문득 련대장은 류성우를 처음 알게 된 남진의 길에서 있은 일이 떠올랐다.

패주하는 적들을 포위섬멸하기 위하여 며칠째 강행군을 하던 어느날 한개 중대 이상되는 적들이 과수원속에 숨어있다는 마을사람들의 통보를 가지고 젊은 군관이 달려왔다. 아직 화약내도 배지 않은 산뜻한 군복차림 그대로인 류성우였다.

조강선련대장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물었다.

《몇대대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런데 돌연 젊은 군관은 부리나케 그의 앞을 나서며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차렷자세를 취했다.

《련대장동지, 아직 미배치로 있습니다. 벌써 이틀째나 놀고있습니다.》

부득불 련대장은 멈춰섰다.

《어데서 놀고있단말이요？》

《옛, 담가대에 있습니다, 련대장동지.》

그래서 불만이라는 어투였다. 오늘 기회가 차례진 이상 한사코 떼질이라도 해댈 심사였다.

조강선은 그때 앞서나간 대대나 중대를 불러올수도 없거니와 이 젊은 군관에게 자기의 힘과 능력을 보이게 하는것도 나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좋소. 동무에게 임무를 주겠소.》

혈기에 넘친 젊은이의 얼굴은 이제 아름찬 기쁨이 차례질것을 예감한듯 긴장해졌다.

《과수원속에 숨어있다는놈들을 가서 족치오. 과업을 알만하오？》

성우는 맨처음 어리둥절했으나 다음순간 《알았습니다！》하고 웨치더니 발뒤꿈치를 딱 소리나게 모두며 돌아섰다.

《가만.》

련대장은 그를 불러세웠다. 다음순간 그는 미소를 머금으며 코날이 날카롭고 약간 감실감실한 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담가대에서 전투경험이 있는 동무들을 선발하오. 한개 분대쯤 끌끌한 전사들로말이요. 패잔병들이란 다 얼나간놈들이니 겁낼건 없소. 전투를 피하면서 생포하면 더욱 좋고… 어떻소. 할수있겠소？》

《생포하겠습니다, 련대장동지.》

하여 그는 갔다. 련대장도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다.

후에 그는 류성우를 만나 직접 보고를 들었다. 보고에 의하면 한개 분대를 데리고 과수원에 다달은 그는 부락에 내려와 먹을것을 략탈해가는 적병 두놈을 먼저 생포했다. 그놈들을 통하여 과수원속에 100명도 넘는 굶주린놈들이 있다는것과 소속도 제마끔인 그들을 부상당한 소령놈이 지휘한다는것을 알았다.

함께 간 전사들과 의논하고 그는 생포한놈들을 시켜 산밑에서 소리치게 했다. 포로들은 시키는대로 먹을것을 지고왔는데 힘들어 죽겠노라고 했다.

세명의 적병이 투덜거리며 내려왔다. 그들을 생포하고 얼마쯤 더 올라가서 또 소리쳤다. 몇사람만 더 내려오라고 했다.

이번엔 무려 대여섯이나 되게 쓸어내려왔다. 굶주리고 지친놈들인지라 보자기를 덮은 함지를 보자 숟가락부터 빼드는놈들도 있었다. 이놈들도 생포했다.

이렇게 되여 성우는 대원들을 괴뢰군복으로 갈아입히고 먹을것을 지운놈들과 함께 과수원 깊숙이 들어갔다.

《집합！—》

웨침소리가 울리자 허기져 쓰러져있던 적들이 몰려들었다. 패잔병들이란 짐승의 무리나 같다. 벌써부터 아귀다툼을 해대는놈들에게 총부리를 내대며 위혁적인 고함소리를 질렀다. 총 한방 쏘지 않고 그들은 60여명의 놈들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조강선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틀렸소. 세번씩이나 한가지 방법을 쓰다니. 그리고 어째서 동문 놈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미리 퇴로를 차단하지 않았소？ 어느 하사관을 시켜 임무를 주었더라면 한놈도 남김없이 다 잡았을게 아니요. 왜 동무 혼자서 다 제낄것 같았소？ 실수했소. 실수했단말이요. 아무래도 동문 담가소대가 제일 적당할것 같소.》

하여 류성우는 그 이후 한달나마 담가소대장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련대장은 그를 잊지 않았다. 공훈을 열망하던 그 눈빛도 결패있는 몸가짐도 그리고 좀 지나쳐보이긴 했어도 주저없는 자신심도 잊지 않았다. 그리하여 류성우에 대하여 가끔 알아보았고 그의 전투적기질이 성숙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전투의 한달어간 담가소대장인 류성우가 쏘구역을 뛰여넘으며 포탄세례

를 수십차례 겪었을 때, 욕망뿐아니라 공적도 커갈 때 7단고개의 적 동굴습격을 맡겼다. 그날 성우는 패잔병들로 가장한 대원들과 함께 동굴속에서 적의 중기화점, 대대지휘처를 습격소탕함으로써 부대의 공격을 보장하였다. 그는 훈장과 함께 정찰소대장의 새 직무를 받았다. …

공훈이 적지 않은 류성우였다. 그는 슬기롭고 대담한 지휘관으로 자랐다. 그러나 전사대중의 의지를 체현한 지휘관으로서는 아직도 부족하였다. 공훈과 함께 남몰래 자라난 자기과신…

련대장은 울적한 날씨며 군데군데 눈석이때처럼 물에 씻겨 흘러내린 락엽무지를 둘러보았다.

어데선가 씁쓸한 향취가 바람에 실려왔다. 비가 내린후의 가을철 숲속에서처럼 습기를 머금은 취할듯한 냄새였다.

(또 비가 오려는가?… 아니면 눈이?…)

그것은 중대의 은밀한 전진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반대로 예상치 않은 정황들도 가져올수 있는것이다.

련대장은 어려운 습격전투에 떠나게 될 전사들과 자리를 같이하기로 했다. 그는 류성우에게 불을 피우도록 명령했다.

《연기를 내지 않도록 하오!》

련대장은 생각했다. 이들은 신대원들도 아니고 뜻하지 않은 실패로 의기가 저상된 사람들도 아니다. 이들은 벌써 남북 수천리를 걸어왔다. 공포도 알고 승리한 전투와 그의 격렬한 기쁨은 물론 슬픔도 고통도 헤아릴수 없이 맛본 전사들이다. 이들에게는 교훈적인 설교나 웅변이 아니라 총쥔 병사의 사명감을 자각시키는것이 필요한것이다.

잠시후 련대장을 중심으로 전중대가 둘러앉았다. 타오르는 우등불앞에서 련대장은 이야기했다. 만주광야… 눈보라가 태질하는 밀림… 대오가 가고있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얼어터지는 풍설 사나운 밀림의 밤이였다. 눈을 끓인 맹물도 배속에서 얼음버캐가 되여버리는듯했다. 굵은 나무가지도 휘여잡기 바쁘게 고드름처럼 떨어져나가는 혹독한 추위… 허나 대오는 가고 또 갔다. 그 대오속에는 나어린 한 소년중대원도 있었다.

소년의 어깨는 좁았다. 그 어깨의 너비만큼 좁은 간격으로 발자국들이 눈속에 찍혀지고있었다. 허지만 눈보라는 순식간에 그 작은

발자국을 묻어버렸다. 고향집뜨락에나 찍혀질 그 발자국들이 눈보라가 태질하는 밀림속에 자욱을 남기기엔 너무도 작고 연약했다.

문득 소년의 어깨우에 다정한 손길이 얹혀지더니 후더운 숨결이 귀전을 덥혀주었다.

《힘들지？》

장군님이시였다. 나어린 소년중대원은 불시에 온몸이 확 타오르는듯했다.

《장군님, 힘들지 않습니다！》

아마도 힘껏, 목청껏 웨쳤던것 같다. 정말이지 소년은 조금도 힘들지 않은것 같았고 추위도 눈보라도 다 사납게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입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어깨에 멘 총을 들어주시였다.

《이것 보지. 네 키보다 한뽐이나 더 큰걸, 이 무거운걸 메고 종일 행군하는데도 힘들지 않다？》

《장군님！》

소년은 총을 꽉 잡고 한사코 놓지 않으려 했다.

《정말 조금도 무겁지 않습니다. 지주놈집에선 한바리나 되는 꼴짐두 지고 다녔는데 거게 대문 이거야 뭐… 정말 무겁지 않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잠시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다만 소년의 작은 어깨를 자꾸만 쓰다듬으실뿐이였다.

《그래 무겁지 않단말이지？》

《예！》

소년중대원은 힘차게 대답했다. 장군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더 크게 발자국을 내짚었다.

불현듯 소년의 어깨를 부둥켜안으시며 장군님께서는 약간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책가방이나 메고 다닐 이 어깨우에 총을 메웠구나.》

《장군님！》

소년은 부르짖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그를 꽉 껴안으시고 허리치는 눈길을 헤쳐주시였다.

《그러나 너는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것을 우린 너의 어깨우에 메워주었다. 그 총에 인민의 념원이 실려있다.

너는 지금 한 보총의 무게가 아니라 혁명을 떠메고 간다는걸 알아야 한다!》

무서운 혹한이였다. 입김을 모아 주먹을 불며 작은 손으로 눈보라를 막으며 소년은 걸어갔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어깨우의 총을 추슬러올리고 힘차게 나갔다. 비록 세찬 눈보라는 소년의 발자취를 묻어버렸어도 장군님께서 주신 총을 어깨에 메고 장군님을 따라 걸어온 그 발자국들은 조국광복의 력사에 뚜렷이 새겨지고 있었다…

전사들은 숨을 죽여가면서 듣고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도 매운 눈가루가 파도처럼 달려들고있는듯했다. 그들은 지금 눈보라가 태질하는 30년대의 밀림속을 걷고있는것이였다.

짧은 침묵이 있은 끝에 련대장은 조용히 계속하였다.

《총은 왜 무거운가?… 동무들,잊지 마시오. 총대로 시작된 우리 혁명을 총대로 기어이 끝장내야 한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사상이시오. 때문에 장군님께서 메워주신 그 총을 더 억세게 틀어잡고 끝까지 싸워야 하오. 지금 우리의 어깨우엔 한 보총의 무게만이 아닌 제2전선이라는 거대한 임무가 지워져있소!》

전사들은 부지중 엄숙한 얼굴로 자기들의 무기를 둘러보았다. 그 어떤 무게로도 잴수 없는 제2전선이라는 크나큰 임무가 총과 함께 자기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는것을 재삼 확인해보려는듯했다.

《동무들.》 련대장은 계속했다. 《어려운 전투에로 떠나갈 동무들에게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이젠 동무들도 잘 알것이요. 우리는 총을 한번 쏘거나 수류탄을 한번 던져도 이것이 기본전선의 승리를 앞당긴다는것을 잊지 말아야겠소. 우리가 더 많은 짐을 질수록 기본전선에서 아군의 진격속도는 더 빨라질것이요. 오늘은 비록 포탄창고를 하나 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적들을 놀래우고 더 많은 적을 우리에게 끌어당길수 있소. 이것이 우리의 기본임무요. 련대장인 내나 여기 중대장이나 방성화,저 련락병… 또 나이많은 아바이전사나 모두가 더 많은 짐을 더 무겁게 질 때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적방침을 빛나게 관철할수 있는거요!》

문득 류성우와 눈빛이 마주쳤다. 그는 주저없이 련대장을 마주보았는데 그 진지한 사색이 깃든 눈빛에서 련대장은 자기를 반성하는 솔직한 고백을 읽을수 있었다. 그리하여 련대장은 화제의 결속을

지으려고 했다. 그는 류성우정찰조가 끌고온 포로의 진술을 통하여 맥아더사령부에서 우리 적후투쟁부대들의 진출과 관련하여 스테이지라는 소위 《반유격전의 전문가》를 파견하였다는것, 이자는 지금 저지선에서 종적을 감춘 련대의 행방을 알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는 한편 중요군수품저장고들, 철교, 다리들과 요충지들에 병력을 증강하기 시작했다는것을 말하였다.

《때문에 동무들은 2중3중의 포위속을 뚫고들어간다는것을 명심해야겠소. 8분에 쳤으면 그보다 더 빨리 빠져나와야 하오. 이것을 잊지 마시오!》

잠시후 그는 롱조를 섞어 이제 당장 맥아더가 파견했다는 유명짜한 고문놈과 맞다들수도 있는데 누가 직접 그놈과 겨루어보겠는가고 물었다.

련대장의 이 말은 불시로 유쾌한 속삭임을 불러일으켰다. 웅성웅성하는 가운데 돌연 취사원 김만복이 엉거주춤 일어서더니 좀 쑥스러워하는 어조로 《허락하신다면 제가 좀…》하고 말해서 다들 웃음보를 터뜨렸다.

얼마후 중대는 류성우의 구령에 따라 정렬하였다.

《동무들.》

련대장은 엄숙하게 말하였다.

《성공을 바라오!》

규정의 인사들이 오간 다음 련대장은 류성우와 시간을 맞추었다.

《폭발시간은 밤 1시오!》

류성우는 재깍거리는 시계의 초침소리를 귀담아들으며 《알았습니다.》하고 낮게 속삭이였다.

출발시간이 되였다. 어둠속에서 보총수순위로 번호를 불러가며 잃어진 장구류가 없는가를 검열했다. 무척 서둘기도 했지만 무던히도 깐깐히 훑어보고 재삼 확인했다. 어데선가 방성화분대장의 목소리가 유별나게 크게 들려왔다.

《수류탄!… 그거말이요. 제때에 쓸수 있게 옆구리로 돌리란 말이요.》

그는 지어 전사들의 탄창에 들어있는 탄약보유량까지 따져묻고있었다.

류성우는 이제 가대야 할 행군길을 지도에서 재차 더듬어보고 있었다. 전지불의 밝고 동그란 포위환속에서 포탄창고를 표식한 빨간삼각점은 점차 살아서 움직이고 두드러지며 무엇인가 엄숙히 호소하는듯했다.

《중대— 소대 3렬횡대—》

황히세소대장의 구령소리였다. 류성우는 지도를 접고 일어섰다.

바람이 세차졌다. 휘파람소리같은 울부짖음소리가 날 때마다 마른 솔잎들이 푸실푸실 흩어져내렸다. 달빛도 별빛도 없다. 하늘은 검은 장막에 덮여있었다.

문득 류성우는 나무가지에서 세차게 펄럭이고있는 흰 종이장을 발견하였다.

전투소보였다.

《8분을 위하여！》

연필로 쓰고 색연필로 재간껏 돋구어놓은 그 제목과 작은 글발들을 그는 눈을 감고도 읽을수 있다. 그것은 중대의 구호로 되였던 8분, 중대장인 류성우자신이 전투소보원에게 강조해두었던 8분이였다. 그리하여 소보원은 중대장이 의도하는바를 글발로 옮겼었다.

그때 성우는 무엇을 생각하였던가？… 8분！… 영원할 시간의 흐름에 비해볼 때 그것은 너무도 짧은 시간이다.

8분이란 하루를 180등분한 하나이다. 그것은 낚시대를 들고앉은 중년사나이가 담배 한대를 말아피우는 시간, 어머니의 구슬픈 옛노래 한곡이 끝나는 시간, 원두막에서 잘 익은 참외를 고르는 시간, 그리고 출근을 앞둔 한창나이 처녀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더 거울앞에 서보는 시간이다. 아마도 빨리 어른이 되고싶어하는 소년은 물론 늙은이라도 기차에 오른 할머니라면 백번 천번이라도 아낌없이 내던지려고 할 시간이다. 그러나 중대는 그 8분을 위하여 꼭같은 산과 릉선을 수십차례 뛰여넘었고 잔등에 소금발이 내돋도록 땀을 흘렸다. 그리고 그 8분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

이러한 생각이 류성우로 하여금 《8분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전투소보를 쓰도록 충동하였다. 그 8분에 병사의 념원, 병사의

영예가 다 들어있기때문에,병사가 걸어온 인생행로도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것을 강조하고싶었었다.

그것은 옳다. 이러한 생각을 담은 전투소보는 문학선문집에도 들어갈는지 모른다.

허나 지금 류성우는 어둠속에서 펄럭이는 그 종이장을 바라보면서 쑥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설정된 목표 그자체만을 호소하였지 실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먼저 병사대중의 심장에 새겨주는 뜨거운 신념의 호소가 있어야 한다는데는 주의를 돌리지 못한것이였다. 이제라도 다시 기회를 얻을수 있다면 그는 전투소보원에게 우리모두의 어깨우에 제2전선의 무거운 임무가 똑같이 지워져있다는 내용을 꼭 쓰도록 부탁했을것이다. 허나 그것은 이미 련대장이 종이우에가 아니라 병사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준것이였다.…

알수 없는 충동이 성우로 하여금 전투소보를 접어 가방속에 넣도록 하였다.

황히세소대장이 달려왔다.

《중대장동무,출발준비 끝났습니다.》

《알겠소.》

류성우는 대렬앞으로 걸어나갔다.

거밋거밋한 형체들이 길게 줄지어서있었다. 어둠속에서 번뜩이는것은 보총의 긴 총창들과 전사들의 눈빛들뿐이였다. 숲을 휩쓰는 바람소리만이 몸부림치듯 울부짖었다.

류성우는 숨을 크게 내쉬고나서 구령을 쳤다.

《중대— 내 구령 들으시오.…》

척후분대와 지휘관을 임명했다. 일체 발언을 금지할것과 소대간간격,행군종대를 규정하고 출발을 명령했다.

일시에 가랑잎 밟는 소리가 울렸다. 중대는 척후를 강화하고 황량한 숲속을 떠났다.

11

차디찬 비줄기가 부실부실 흩날렸다. 겨울철의 스산한 비소리가 으시시하게 들려왔다. 눈섭우에 매달리던 물방울들이 점차 목덜미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류성우는 대렬을 멈추고 먼저 정치부중대장이 책임진 엄호조가 진지를 차지할것을 명령했다. 불의의 정황이 발생할 경우 특히 주변의 놈들이 달려올 경우 그들은 여기서 필사적으로 막아야 했다.

산굽이를 돌아서면 포탄창고가 자리잡은 릉선에 붙을수 있다. 분대와 소대들이 발소리를 죽여가며 포탄창고로 통하는 단하나의 외통길을 끼고 산비탈을 질러갔다.

소리없는 구령,소리없는 전진… 류성우는 물기에 젖어 번들거리는 바위결에서 적정을 감시했다. 비소리,바람소리,손목시계의 초침소리…

함지처럼 우묵진 산중에 포탄창고가 자리잡았고 높지 않은 릉선들이 그것을 둘러싸고있다. 아니 수십수백의 강철아구리들이 그것을 둘러싸고있는것이다.

《전진!》

릉선의 정면과 후면으로 세개의 기습조가 각기 갈라져 나아갔다. 비바람치는 숲속으로 전사들이 사라져간지 이윽하여 류성우는 시계를 보았다.

0시 19분.

적어도 40분에는 공격이 개시되여야 한다. 그러나 높지 않은 릉선을 돌파해들어가는 그 길이 류성우에게는 남하행군의 천리 로정보다도 더 먼것처럼 느껴졌다. 사실상 몇명의 정찰병들을 이끈 기습전투라면 아무리 무덤굴같은 어둡속일지언정 숨결로 전달되는 각이한 구령이며 순간의 결심을 주저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한 한개 보병중대를 지휘하고있다. 철조망까지 어떻게 전진할지,구령에 따라 거기에서 감시대며 참호계선 및 천막에까지 어떻게 돌입하게 될지 확신할수 없다. 도중에 어떤 개별적전

사의 실수라도 있을지…

긴장한 시간이 흘러가는가운데 문득 배다운이 속삭이듯 말했다.

《중대장동지, 2소대에서 신호입니다.》

출발진지를 차지했다는 약속된 신호가 잠시후 1소대에서도 전해왔다.

그때였다. 돌연 베천을 쫙 찢는듯한 총소리가 울리더니 뚝 그쳤다. 그것은 엄호조가 차지한 도로앞에서 울린것이였다. 날카로운 불안이 가슴을 찔렀다.

(웬일인가, 엄호조에서 정황이 발생하였는가?…)

그 총소리가 모든것을 뒤엎을수 있다. 포탄창고의 놈들이 신경을 도사리고 지어 반토굴천막안에서 자던놈들까지 두들겨 깨울수 있다.

류성우는 배다운을 엄호조로 보냈다.

초조한 시간이 거침없이 흘러갔다. 그것은 8분을 앞둔 시간, 출발진지에 머무른 시간, 폭풍전야에 멎어선 시간이였다. 아니, 시간은 멎어선것이 아니라 다만 그렇게 원했을뿐이였다.

0시 22분, 23분… 아프고 괴롭고 숨막히게 흘러갔다.

부실부실 내리던 비줄기가 점차 진눈까비로 바뀌기 시작했다. 한차례 또 한차례 세찬 바람이 휘익 불어치면서 후두둑, 후두둑 나무잎과 가랑잎들에 물방울을 뿌려쳤다.

바람소리, 비소리.

찬 물줄기가 등골로 흘러내렸다.

불현듯 발걸음소리가 나서 고개를 홱 돌려본 류성우는 배다운과 엄호조의 전사를 보았다. 배다운이 서둘러 보고했다.

《도중에 만났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억눌린 소리를 등뒤로 들으며 류성우는 엄호조의 전사에게 급히 마주갔다.

《무슨 총소리요?》

《정황이 생겼습니다.》

《?…》

《취사원아바이가 경사지에서 미끄러지는통에 도로순찰병놈들에게 발각됐습니다. 한놈은 즉시 아바이가 목을 비틀었는데 다른놈이 얼결에 그만…》

산너머의 총소리는 그래서 울린것이였다. 사태는 엄중해지고있어 포탄창고가 아니라 뜻하지 않은 후면에서 역습을 당할수도 있었다.

(취사원아바이가？…)

나이든 그 전사가 미덥지 못하여 엄호조에 돌렸던 일을 생각하면서 성우는 입술을 아프게 깨물었다.

《그래 그놈은 어떻게 됐소？》

《포로했습니다. 그놈이 말하기를 오늘밤 군호는 〈까치,물새〉이고 자기들은 산너머 11중대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소. 빨리 가서 전투경계를 좀더 앞으로 내보내여 그쪽에서 놈들의 동태를 면밀히 감시하라고 전하시오.》

《알았습니다.》

엄호조에서 련락을 왔던 전사가 떠나기 바쁘게 류성우는 공격전면으로 붙은 황히세의 기습조로 달려갔다.

뒤에서는 련락병 배다운이 소리없이 묻어왔다. 차디찬 비줄기가 얼굴을 후려쳤다. 바람소리,비소리… 아직은 조용하다.

그러나 1소대와 나란히 엎드렸을 때 그는 릉선우에서 서성거리는 적들을 발견했다. 황히세소대장이 재빨리 다가왔다.

《잠복을 제꼈소？》

《예,찍소리 없이 해치웠습니다.》

비바람치는 이 밤은 불의의 정황을 가져왔거니와 한편 은밀한 전진을 가리워주기도 하는것이다.

《저놈들은 뭐요？》

황히세는 다박솔사이를 기여가는 전사들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하고 대답했다.

《총소리가 나서 나온놈들 같습니다. 엄호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소.》

야광시계는 0시 29분을 가리켰다.

어느덧 릉선우에는 많은 적병들이 달려나와 벌떼처럼 웅성거렸는데 특히 잠에 취한 목소리로 웨쳐대는 어느 상관놈의 악청이 소연한 비소리에 섞여 귀아프게 들렸다. 뜻밖의 총소리로 하여 위급한 정황이 조성되고있는것이다.

(놈들이 밀려내려오기전에 정황을 역전시켜야 한다. 선손을

써야 한다.)

류성우는 중대가 통로를 개설하기전에 적들에게 발각된다면 기필코 마지막 총탄이 남을 때까지 화력전을 벌리게 되리라는것을 생각하자 이 한순간을 대담하고 침착하게 생각하며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던 좌우명과도 같은 말을 곱씹어보았다. 바로 그때 황히세가 그의 귀가에 대고 날카롭게 부르짖었다.

《통로를 개설했습니다. 중대장동무, 헌데 놈들이 쓸어내려오고있습니다.》

성우는 개인천막을 뒤집어썼다. 마음속에서 뾰족한 손톱으로 긁어대는듯한 목소리가 그를 꼬드긴것이였다.

(너는 정찰병이였지. 무엇때문에 주저하느냐. 한순간을 놓치면 파멸인데 누가 위험을 막을수 있다더냐?!)

릉선을 내리던놈들중 한놈이 술취한것처럼 비틀거리더니 어둠속을 향해 소리쳤다.

《어—잠복!—》

더는 지체할수 없었다.

그가 허리를 펴고 일어서는 찰나 황히세가 우악스럽게 틀어잡았다.

《안됩니다, 중대장동무.》

류성우는 급격히 몸을 돌리며 낮은 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일없소. 신호를 기다리오. 모두 개설된 통로에로!…》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걸어나갔다. 개인천막을 뒤집어쓴 어깨우에 비방울이 떨어졌다. 태연히 기침소리를 냈다.

그가 단지 손짓 하나만 했어도 가장 용감하고 기민한 전사들이 달려나갔을 그 길이였다.

《정지, 정지!》

급해맞은 소리가 날아왔다. 철조망너머의 점호에서 비옷을 쓴 적병이 화닥닥 뛰쳐나서고 릉선을 내리던놈들까지 주춤 멎어섰다. 또다시 세찬 바람이 휘익 불어치면서 다박솔들우에 비줄기를 휘뿌렸다.

《정지, 군호!》

그 순간 릉선우의 감시대에서 강렬한 불줄기가 날아와 그를 포착했다. 이 한순간 사소한 의심이라도 적들에게 보이는 때면 보이

지 않는 어둠속에서 수천발의 총탄이 날아와 그의 몸을 벌둥지처럼 만들것이다.

불빛은 전류처럼 그의 몸을 뒤흔들어놓았다. 한번 멈췄던 숨을 돌이켜 길게 내뿜기까지엔 옹근 한시간이나 지난듯 손끝이 저려들었다.

코앞에까지 다가온 류성우에게 적병놈이 다시 소리쳤다.

《군호!》

숨넘어가는 소리였다.

《까치.》

《물새.》

후두둑 비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11중대에서 련락오는 길이여.》

류성우는 남도사투리를 태연스레 번지려고 애썼다. 그러자 릉선우의 적들이 불빛의 둥그런 포위환속에 든 그를 향해 일시에 소리쳤다.

《무슨 련락이야? 빨리 말해!》

《저자식 신삐이 아니가?》

류성우는 릉선우의 적들은 물론 감시대에까지 자기 목소리가 미칠수 있도록 그쪽에 대고 팔을 길게 내뻗치며 목청을 돋구었다.

《아까 총소릴 못들었능기요? 그래 놀라지 말락꼬 련락오는 길잉기여!》

비바람치는 음산한 릉선에 짤막한 침묵이 흘렀다. 다음순간 릉선우의 적들이 일시에 투덜대기 시작했다.

《밤중에 오발은 왜 내가지구 소동이야 제길!》

《글쎄 보란말이여, 괜히 복닥질한닥 하지 않았능기요.》

《임마, 군소리 작작해!》

《다 저것들때문이야, 빌어먹을것!》

돌연 매독쟁이의 목소리같은 목갈린 악청이 어시장처럼 웅성거리는 소음을 휩쓸어버렸다.

《헤치라! 입을 다물고 다 들어갓!》

장교라고 짐작되는 그놈은 불빛의 포위환속에 들어있는 류성우에게 한바탕 욕설까지 퍼부었는데 줄금줄금 내리는 비줄기만 아니라면 당장 뛰여내려 기합이라도 먹여댈 태세였다.

어느덧 릉선우의 놈들이 뿔뿔이 흩어져가고 점호에서 뛰쳐나왔던놈도 입안소리로 웅얼거리며 도로 움츠러들자 성우는 여전히 자기를 비쳐대고있는 불빛을 향해 손을 내저었는데 그것은 《잘 있어!》하는 의미였다. 그러자 불빛이 꺼지며 사위는 무덤속처럼 캄캄해졌다.

이 한순간!… 수십정의 총구앞에 생명을 내걸고 찾은 이 한순간, 폭발의 도화선으로 전선의 승리를 위한 서곡으로 마련된 이 한순간… 류성우는 습격개시를 알리는 구령을 날카롭게 질렀다. 그것은 밤하늘에서 번개쳐내린 회파람소리처럼, 귀전을 스치는 파편소리처럼 구질구질 비에 젖은 릉선의 어둠속을 날카롭게 찢어놓았다.

철조망을 끊고 개설한 통로에 엎드려있던 전투원들이 일시에 뛰여올랐다. 순간의 일이였다. 거밋거밋한 형체들이 비에 젖어 번들거리는 총탁판을 쳐들고 참호속에 뛰여들기까지엔 단 몇초도 걸리지 않은것 같았다. 비소리, 바람소리… 음산한 침묵… 다만 꿈결과도 같이 허우적거리는 환영들이 어둠속에서 얼른거렸을뿐이였다. 허나 다음순간 벌써 우지끈소리와 몸서리치는 비명소리가 터지고 감시대의 투광등이 확 켜졌는데 그러자 이미 목표를 견주고 때를 기다리고있던 1소대의 경기사수가 불빛을 향해 벼락같이 련발사격을 퍼부었다. 순식간에 불빛은 무덤굴속으로 사라지고 마침내 대기는 온갖 음향으로 진동하기 시작하였다.

지뢰가 터지고 수류탄들이 벼락같이 한꺼번에 터지는가 하면 기관총들은 총구멍이 비좁다 하게 탄알을 퍼부어대기 시작하였다.

성우는 관자노리의 혈관들이 툭툭 터져나가는것 같았다. 또다시 가슴을 압박하는 순간과 순간들이 총알처럼 지나갔다. 공병들이 지뢰원을 제때에 개설하지 않는다면, 돌격의 발걸음을 순간이라도 늦춘다면 중대는 몰사격을 받게 될것이며 결국 그것은 전체 중대를 쓰러뜨릴것이다.

폭음, 섬광… 앙칼진 파편소리가 눈앞을 스쳐지나가더니 쓰린 연기가 뒤따라 쓸어왔다.

(빨리, 빨리!…)

그것이 불과 몇초동안의 정지였다고 그때 누가 말했더라면 류성우는 미친놈이라고 웨쳤을것이다. 가슴을 미여지게 하는 한순간이 지나자 폭음들이 줄지으며 검붉은 화염을 흐트러뜨렸다. 지뢰

원을 뛰여넘은 저 앞쪽에서 홀연 날카롭고 억센 웨침소리가 《죽여라！—》하고 부르짖었다. 강쇠소리같은 그 류다른 특징으로 류성우는 그것이 황히세소대장임을 깨달았다.

돌쪼각과 언 흙덩이들이 소낙비처럼 쏟아지는속을 뚫고 류성우는 달려갔다. 군복잔등이 온통 너덜거리는 한 전사를 부둥켜안고 누군가 《이 동문 손으로 지뢰인발선을 걷어냈습니다. 공병입니다！》하는 웨침소리를 듣고 한순간 멎어선 일이 있었다. 한순간이였다. 《장하오！》 하고 웨치며 경사면으로 뛰여올랐다. 이러한 기습전에서 매개 정황, 매개의 차단물이며 쓰러진 매개 전사들에 이르기까지 한 지휘관이 참여할수는 없는것이다. 순간과 순간들이 죽음과 삶, 승리와 패배, 영예와 수치를 판가름하는 이런 기습전에서는 지휘관과 모든 전투원들사이에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려는 오직 하나의 지향만이 눈앞에 있는것이다. 이러한 전투에서 어떤 개별적 전사가 무엇을 생각했고 어떻게 부르짖었으며 어떻게 총창을 휘둘렀는가 함은 많은 경우 전투후의 단편적인 후일담들에 기초하여 신문기자들 혹은 종군작가들이 구체적으로 그려낼뿐이다. 전투원들은 그 신문기사나 종군기들을 읽으며 자기들이 얼마나 날쌔게 뛰여들었고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가를 감동적으로 읽으며 그저 놀라와할뿐이다.

3소대가 수류탄묶음으로 다락감시대를 무너뜨리고 2소대전투원들이 적의 반토굴천막을 들부시기까지의 시간들은 누구도 모르는새에 검붉은 연기타래속에 묻혀 지나가버렸다. 마지막 50메터를 남기고 경사면에서 공격을 저지당한 1소대와 함께 엎드렸을 때 류성우는 벌써 공격이 시작된지 6분이 넘은것을 보았다. 생명을 토막치는듯한 분과 초들이 아프게 흘러갔다. 1소대의 공격전면에 병풍처럼 둘러선 바위벽이 있었는데 그 바위벽틈새기에서 기관총이 비질하고있었다.

한순간, 한순간이 지나면 파멸이다. 릉선우에 올라서지 못한채 8분을 놓치면 중대는… 그것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일이였다.

그 순간 경기를 번쩍 추켜들며 일어서는 전사가 있었다.

《쏘라！—》

그 격렬한 웨침은 문기의 목소리였다. 다음순간 뒤따라 뛰쳐일어난 경기사수가 쏟아지는 불줄기를 향해 맞불질을 시작했다.

《문기！》

류성우는 부르짖었다. 생사가 판가름되는 위급한 순간 문기는 자기의 어깨우에 경기를 올려놓고 놈들의 기관총이 숨은 바위벽틈만한 높이에서 맞불질을 하도록 한몸을 내댄것이였다.

돌발적인 기습이였다. 직선상에서의 랭혹한 화력충돌이 극히 짧은 한순간에 벌어졌고 다음순간 둘다 입을 다물어버렸다.

어깨우에 경기를 진채 비틀거리는 문기를 얼핏 바라보면서 성우는 권총쥔 손을 힘껏 내뻗치고 목구멍이 터져라 하고 웨쳤다.

손톱으로 땅을 허비며 한초한초를 보내던 전투원들이 일시에 뛰쳐일어나 련속 바위벽틈에 수류탄을 던져넣었다. 전투의 종국은 결정되고있었다.

엇갈리는 불길속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웨쳤다.

《죽었어, 죽은놈이야!》

죽어넘어진 적병의 골통을 짓조기는 배다운을 얼핏 바라보면서 성우는 두팔을 벌린채 넘어져있는 문기에로 뛰여갔다.

《문기, 문기동무!》

쓰러진 문기의 얼굴에서 불빛들이 흐느적거렸다. 그는 괴롭게 숨을 몰아쉬고있었다.

《련락병, 위생병을 빨리!…》

너덜너덜 찢겨진 문기의 군복섶을 헤치자 홀연 끔찍한 상처들이 얼른거리는 불빛에 드러났다.

《문기!》

두눈은 모래알을 퍼넣은듯 쓰리고 아팠다.

적의 마지막 지탱점으로 돌입하는 전투원들과 그들의 머리우로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날아다니는 불줄기를 바라보면서 불현듯 성우는 지난밤의 화토불이며 공개독보된 은하의 편지 그리고 문기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토막토막 떠오르는것이였다.

엄기창의 말에 의하면 문기는 10월인민항쟁때 두 형님과 어머니를 잃었다. 미국놈들과 매국노 리승만의 군경놈들은 항쟁운동의 선두에 나섰던 두 형님을 한밤중에 토방으로 끌어내여 학살했으며 병중이였던 어머니마저 때려죽였다. 품팔이를 갔던 아버지와 그때 갓 김천역의 전철수로 떠나간 문기만이 살아남았다.

이러한 피맺힌 원한을 품고있는 문기여서 순박하고 쾌활하던 그는 서리찬 성격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기의 과거사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지난밤만은 엄기창이 마련한 고향에 대한 추억들로 하여 마음이 움직인듯하였다.

《한번은…》하고 그는 조용히 말했었다. 《아버지가 앓는다기에 말미를 얻어 집으로 오던길에 원소에 몸을 던지는 웬 녀자를 건져냈지요. 진해에선가 살다가 부모를 다 잃고 어느 술집에 팔렸다나요. 그래 정처없이 도망치다가 그만 독한 생각을 먹었던겁니다. 그런데… 물에서 건져주긴 했어도 어디 차마 눈뜨고 보겠드라구요. 그래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늙은 아버지는 사정을 듣더니 아무 말없이 그저 고개만 끄떡끄떡하겠지요.》

그것이 인연이 되여 한해후 그들은 결혼하였다 한다. 그러나 결혼후 몇달 지나 문기는 의용군으로 입대하게 되였다.

《그날 10리나 되는 길을 그 사람이 끝내 따라오지 않겠나요. 아무리 말려도 어디 들어줘야지요. 참 그땐 왜 그렇게 거북스럽기만 하던지… 뭐 할말이 있길 하나… 그래도 그 사람은 무슨 말할게 있긴 한가분데 종시 꺼내지 못하고말더군요. 아마 몸조심하라는 말만 해도 열번나마 했던것 같습니다. 그러다 역앞에 갔을 때에야 불쑥 꺼낸다는 소리가 글쎄…》

여기서 그는 가까스로 말을 이어갔다.

《애 이름을 뭐라 지으면 좋겠는가고 묻질 않겠어요. 허 참… 지금와서 생각하면… 난 그저 벙벙해서 그 사람을 쳐다보기만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문득 뭔가 짚이는데가 있더군요. 그래 얼결에 한다는 소리가 그만 〈나처럼 키가 큰 아들이겠구만!〉했다니까요.》

지금도 성우는 뒤더수기를 긁으며 어줍게 웃고있던 문기의 얼굴을 잊을수 없다. 중대장도 정치부중대장도 그리고 화토불주위의 모든 전사들이 웃어대는속에서 웬일인지 그는 약간 낯을 찡그리며 중얼거렸었다.

《그때 왜 내가 이름까지 지어놓고 오지 못했는지… 생각할수록 정말 분하거던요.》

그러던 문기는 단 한순간을 놓치면 중대의 전멸을 가져올수도 있는 위급한 순간 자기 한몸을 내던져 아들에게 가는 길, 고향으로 가는 길, 남녘해방의 문고리를 잡아제꼈던것이다.

위생병이 달려와 기계적인 동작으로 붕대를 감기 시작하였다.

그때 얼굴에 피칠갑을 한 전사가 중대장에게 달려와 목청껏

소리쳤다.

《중대장동지, 포탄창고를 장악하였습니다!》

누군가 성우의 귀구멍에 쾅! 하고 폭탄을 터뜨린것만 같았다. 소용돌이치며 휘말려돌아가던 앙칼진 쇠소리며 벼락치는 폭음들이 홀연 어데론가 사라져버렸다. 귀가 멍해진것 같은 한순간이 이렇게 지나갔다.

얼굴에 피칠갑을 한 전사는 여전히 고함소리처럼 웨쳤다.

《포탄창고를 장악했습니다. 3소대장동지가 그렇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비로소 성우는 뼈마디가 으스러질 정도로 권총을 틀어잡고있다는것을 알았고 다음순간 손아귀가 저려나는것을 느꼈다. 그 손아귀에서는 뜨거운 땀줄기가 주루룩 흘러내리고있었다.

불현듯 의식을 잃고있는 문기의 얼굴에 볼을 비벼대며 《문기동무, 장악했소. 포탄창고를 장악했소!》라고 목터지게 웨쳐대고싶어졌다. 가슴속에서는 피의 분수가 길길이 솟구쳐올랐다. 그는 피칠갑을 한 전사에게 바투 다가갔다.

《폭파준비는?》

《공병들이 붙었습니다.》

《좋소.》

그는 1소대장 황히세에게 전장을 수색하면서 철수를 지휘하라고 명령했다.

《련락병, 중대가 철수하면 즉시 보고하시오. 난 포탄창고에 있겠소.》

그는 흐트러진 머리타래처럼 철조망들이 뒤엉켜있는 포탄창고로 달려갔다.

매캐한 내내가 휩쓰는 릉선에서 전사들이 바삐 뛰여다녔다. 산발적인 총성들이 아직도 계속되고있었지만 련락병 배다운은 그런것들에는 전혀 귀도 기울이지 않고 류문기의 상처를 처치하느라고 신고하는 위생병만을 멍하니 바라보고있었다. 방금전까지 그를 초조하게 하고 심정을 자극하던 그 모든것들이 다 평범하고 하잘것없는것처럼 생각되였다. 머리속이 웅웅거리고 눈앞이 부옇게 흐려질뿐이였다. 고지를 점령한것이 확실한것으로 되였고 이제는 포

탄창고의 폭발만을 기다리는 이 시각에 와서도 기쁨이라고 해야 할 그 심정을 미처 찾을수 없는것이 이상하였다. 누가 말했던가?… 고지를 점령하고 목청껏 만세를 웨친다고?… 전투경력이 풍부한 구대원들이 그렇게 말했고 신문에서 기자들도 그렇게 쓰군했다. 목청껏 만세를 웨치며 눈물을 흘린다고!… 허나 어찌된 일인지 배다운은 아직 그런 일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 전투후엔 언제나 그의 눈앞에 낯익은 사람들, 이 세상 가장 친근하고 귀중한 사람들이 누워있군하였다.

사위여가는 불길이 꾸무럭거리는 연기를 피워올리고있었다. 매운 연기가 목구멍을 간지르며 괴롭혔다. 바람이 불 때마다 도처에서 불꽃들이 확 번져가고 재티들이 날려와 눈을 쓰리게 했다. 그러나 그는 울지 못했다. 울수는 없어도 눈물만은 절로 나와야 할것 같았으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얼마전 중대장의 희생앞에서도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었다. 왜? 무엇때문에?…

류문기의 얼굴은 평온해보였다. 어찌하여 그가 균형잡힌 날씬하고 그쯘한 체격에 그토록 아름답기까지 하다는것을 여태 몰랐을가?…

아무도 류문기처럼 경기를 어깨우에 올려놓고 벼랑턱의 적기관총과 맞불질을 할 생각은 못하였다. 아무도!… 그는 중대의 전진을 열어놓는데 자기 한몸을 아낌없이 내던졌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당초 그 죽음자체도 생각하지 않았을것이다.… 그의 생명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이 시각 그에게 고무적인 무슨 말이라도 해줄수 있다면!…

나어린 전사 배다운, 그는 아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본적이 거의 없었다.

몇해전 여름방학때 그는 시골에 있는 외가에 찾아간 일이 있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두눈을 감았다. 왜 그때 일이 갑자기 떠오를가? 이 준엄한 시각에 내가 왜 왕청같이 그따위 허접쓰레기같은 생각을 할가?… 그러나 그때 일은 지꿎게도 눈앞에 되살아난다. 외할머니가 허둥지둥 마주나왔더랬지…

몇해어간에 머리가 온통 세고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던 외할머니!… 그때 그는 오래도록 외할머니와 마주앉아 농사형편이며 시장의 물건시세이며 하는걸 어른들처럼 이야기했었다.… 외가를 떠날 때 외할머니는 허리괴춤에서 주머니를 끌르더니 1원짜리 두장

을 한사코 바지주머니에 찔러주었다. 어깨에는 고구마를 담은 자루를 메워주었고… 다시 또다시 인사를 나누고 끊임없는 당부와 약속을 몇번이나 거듭했던가! 자그마한 둔덕 하나를 넘으면 외가의 추녀끝으로 솟아오른 돌배나무우듬지마저 보이지 않게 될것이였다. 그때 배다운은 아직도 따라오는 외할머니에게 달려갔다. 래년에 꼭 다시 오마고 했다. 외할머니는 옷고름으로 눈언저리를 찍으며 그의 손을 자꾸만 쓸어만졌다.

《다운아, 이제 가문… 못볼게다.》

리별하는데는 고개길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개길이 나질 때까지 한사코 따라나서는 모양이다. 고개마루엔 록음우거진 여름한철에도 두텁게 마른 껍질을 쓰고있는 느티나무 한그루가 서있었다. 그 나무밑에서 외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손을 들었다.

다음해 방학에 가서 다운은 서글픈 느낌을 자아내던 그 모습을 외로운 무덤가에서 회상했다. 그것은 난생 처음으로 맛보는 쓸쓸함과 가슴저미는 애수였고 어렴풋한 공포였다. 마음속으로 결별의 인사를 남기는데 머리우에서 처량한 새소리가 울렸다. 다운은 측은한 눈길로 그것을 쫓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 행처를 분간하기 어려운 몇방울의 눈물로 그는 소년시절과 작별한듯했다. 가창대의 나팔소리로 응원받던 그 시절은 그렇게 가고 그다음… 전쟁이였다. 무너진 집들, 파괴된 아버지의 철도공장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그때부터 그는 눈물을 몰랐다. 아니, 그는 영영 눈물을 모르는지도 모른다. 두눈이 쓰리도록 아플뿐이다. 나어린 그가 눈물을 모른다고 누가 감히 탓하랴. 전사는 쓰러진 전우들의 위훈과 당부를 자기의 더운 심장에 피로써 새길뿐이다!…

한편 포탄창고로 달려간 류성우는 산더미처럼 쌓인 상자들이며 철조망밖의 도람통들곁에서 공병들이 부산스럽게 돌아치는것을 보았다. 3소대장 리정걸이 폭파수를 재촉하고 또 도화선도 함께 늘이다가 중대장을 발견하자 한손에 도화선을 잡은채 벌떡 일어섰다. 중대씨름선수권보유자— 안걸이치기명수를 힘껏 껴안고싶었으나 역시 류성우의 입에서는 엄격한 명령이 튀여나왔다.

《3소대장, 빨리 철수하오. 좌측릉선을 넘어가면서 살아남은놈들이 없는가 철저히 수색하오. 시간이 없소. 신속히 행동할것!》

《알았습니다, 중대장동무.》

박달나무몽둥이같은 리정결소대장은 대원들을 집결하자 급히 좌측릉선으로 달려갔다. 도처에서 끄물끄물 내내가 피여오르고 간혹 총성이 울리기도 했다.

공병소대에서 배속된 폭파수는 이미 여러개의 도화선들을 예견성있게 늘여놓고있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포탄상자며 휘발유도람통들을 주런이 세운 철조망결에도 빼놓지 않았다.

《중대장동지, 불을 달면 됩니다.》

폭파수는 방수포자락을 끄당겨 지붕처럼 씌워놓고서야 일어섰다.

《시작하오.》

그러나 막상 불을 달려는 순간 공병분대장이 달려오며 급한 소리를 질렀다.

《중대장동지！—》

《무슨 일이요？》

모두 일시에 그를 바라보았다.

《중대장동지, 저 산기슭에 중포들이 위장되여있습니다.》

공병분대장은 침을 탁 뱉고나서 헐떡거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대구경곡사포 다섯문에 박격포들도 있습니다.》

《뭐요？》

이틀전 류성우자신이 12시간 낮과 밤을 이어 감시하고 정찰할 때엔 그것들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자칫하면 놓칠번하였던것이다.

(교활한놈들！…)

저도 모르게 성우는 이발을 부드득 갈았다. 틀림없이 놈들은 새로 정비보강하는 작전적예비대들에 포탄과 함께 넘겨주려고 어제나 오늘 끌어들였을것이다.

《어떻게 하잡니까？》

구질구질 내리던 비줄기가 알고보니 어느새 진눈까비로 변했었다. 푸실푸실 눈송이들도 끼워있는듯했다. 아니 그것은 바람에 날린 재티들일수도 있는것이다.

(어떻게 할가？)

화락하니 젖은 잔등으로 오한이 질주했다. 이때 공병분대장이 성급히 말했다.

《중대장동지, 우리에게 맡기고 먼저 떠나십시오. 시간이 급하지 않습니까！》

성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 그럴순 없다. 나는 아직 위험한 정황속에서 남먼저 물러선적이 없다.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시간, 시간, 시간… 예견했던 철수시간을 벌써 퍼그나 넘기고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을 그대로 두고 갈수는 없지 않는가! 우리가 무엇때문에 이 먼곳까지 뚫고 왔는가, 무엇때문에 류문기가 쓰러졌는가!…

해치우자. 그대로 둘수는 없다. 그는 힘껏 주먹을 거머쥐면서 공병분대장에게 다급히 물었다.

《도화선은 충분하오?》

《옛.》

《그럼 분대장동무, 대원 두명을 데리고가서 폭파준비를 하시오. 준비가 끝나면 자동총련발사격을 할것, 그것을 신호로 동시에 불을 달고 철수해야겠소.》

공병분대장과 또 두명의 잔등이 넓은 병사들이 포탄상자를 둘러메고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빨리, 빨리!…)

그을음을 피워올리던 릉선우의 불길도 스러지고 전장을 수색할 때 간간이 울리던 소총사격의 메아리도 더는 들려오지 않았다. 끓어번지는 쇠물가마와 같이 소용돌이치던 전장은 어느덧 황량한 페허처럼 어둠속에 갈앉았고 음침한 그 페허의 잔해들우에 얼빠진 눈송이들이 푸실푸실 흩날렸다.

련락병 배다운이 달려왔다. 그는 류성우의 곁에서 도화선을 꽉 틀어잡고 서있는 공병전사를 보고 몹시 놀랜듯했다. 무엇때문에 아직도 도화선에 불을 달지 않고 말뚝처럼 서있는지 리해할수 없었던 그는 몇번이고 입을 열려고 했으나 어둠속에서 무섭게 번뜩이고 있는 중대장의 눈빛에 질려 굳어져버렸다. 가슴이 터질듯한 순간과 순간들이 지나갔다.

(공병분대장, 뭘해? 제길!…)

바로 그 순간 련발총성이 울려왔다.

《시작하오!》

허나 성우는 자기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는것을 알았다. 극도의 긴장과 초조감 속에서 그는 목구멍이 꽉 메여있었던것이다. 다음순간 그는 고개를 번쩍 쳐든 공병전사를 향해 다시 웨쳤다.

《불을 달것！》

뿌지직！ 하는 소리에 이어 거침없이 타들어가는 칙—칙— 소리가 선을 따라 불꽃들을 펑끗거리며 질주해갔다. 도화선을 타들어가는 그 거칠고 성급한 소리는 지금까지 숨막히도록 짓눌려있던 마음을 팍—팍— 찢으며 뜨겁게 태우는듯하였다.

류성우는 잠시 칙—칙—세차게 타들어가는 도화선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이 순간을 위하여 그들은 땀흘리고 피흘렸으며 크고작은 모든 희망과 소원을 깡그리 여기에 바쳐온것이였다. 그것이 포탄더미에 가닿을 때까지, 뢰관에 뜨거운 불찌를 퍼부을 때까지 지켜보고싶은 심정이였다. 그러나 공병분대장과 그의 대원들이 숨가쁘게 달려오는것을 발견하자 그는 다시금 분과 초들로 엄격히 계산되는 현실로 돌아왔다. 이제는 인간의 힘을 초월하여 폭발현장을 멀리 벗어나야 했다. 그리하여 류성우의 구령과 함께 그들은 한치한치를 손톱으로 허비며 기여올랐던 릉선, 쏘고 찌르며 목터지게 웨치며 뛰여올랐던 기습공격의 격전장을 단숨에 내달려갔다.

찬바람이 얼굴을 후려치고 관목숲에 발목이 걸채였지만 아무도 넘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릉선을 내려 숲속에 들어선 중대를 따라잡았다. 폭발은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다.

아무도 처음엔 폭발의 굉음을 똑똑히 구별하지 못했다. 땅이 들썩하고 공중에 허궁 들리는것 같았다. 홀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기둥이 확 치솟아올랐고 그러자 대지는 거대한 진동에 부르르 떨었다. 하늘과 땅이 부딪쳐 불꽃방전을 일으켰다.

섬광들이 번쩍이고 그 용적을 헤아릴길 없는 불기둥이 하늘을 뚫고 솟았다.

어마어마한 굉음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다음부터는 비바람소리나 눈보라소리같은 소음들이 파편처럼 대기를 썰었다. 구름장들이 찢어지고 흐트러졌다. 파아란 섬광들이 번쩍번쩍했다. 수천발의 포탄이 튀기 시작하자 우주의 모든 번개불은 다 모여들었다. 수백개의 도람통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며 불덩이를 터뜨려놓았다.

슈—슈—쉬—쉭—

집채같은 바위도 돌쪼각같은 파편도 다 승벽내기로 날아갔다.

그것은 거창하고 무자비하고 장엄한 폭발이였다. 억제할수 없

는 격정에 못이겨 전사들은 만세를 웨쳤다. 웬일인지 련락병 배다운의 얼굴에 피방울같은 눈물이 굴러내리는것을 보자 성우는 자기의 눈굽도 뜨겁게 젖어드는것을 느꼈다.

《동무들!》하고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장하오, 동무들!…》

하늘을 치받들며 솟아올랐던 불기둥이 무겁게 갈앉으며 주변의 산과 골짜기를 삼켜버렸다. 온몸을 휘감아버린 불구름도 아랑곳하지 않고 류성우는 서있었다.

…폭발의 굉음이 사라졌을 때에야 엄호조가 철수해왔는데 맹렬한 총성이 그들을 추격하고있었다. 류성우는 중대를 산개시켰다.

《전투준비!》

불타는 화광을 배경으로 화석처럼 찍힌 앙상한 나무들사이로 엄호조의 병사들이 적들을 견제하면서 언듯언듯 나타났다. 맨 나중에야 달려온 엄기창정치부중대장은 류성우를 발견하자 무작정 그의 두손을 힘껏 잡아쥐였다. 그러나 이때 추격해오는 적들의 발악적인 총성이 연거퍼 울리자 그는 지나온 산비탈쪽을 흘끔 돌아보았다.

《헌데 좀 지체됐군요. 중대장동무, 무슨 정황이 있었습니까?》

다시 기관총과 자동총들이 울부짖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류성우의 귀전을 아프게 두드린것은 세문이상의 12.7미리 미식대구경기관총소리들이였다. 그것은 추격해오는 적들의 력량이 비할바없이 우세하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였다.

도탄되는 탄알의 불꼬리들이 혜성의 궤도를 그리며 순시에 나무줄기들을 확 밝히고는 스러져갔다. 중대는 적들을 견제하며 숲속으로 들어섰다. 예광탄의 긴 불줄기들이 날아오는것을 바라보며 성우는 정치부중대장에게 물었다.

《전투가 붙은지 오랬소?》

엄기창은 천천히 숨을 돌려가며 잠시 대답을 못했다. 그러나 곧 류성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중대장동무, 우린 포위됐습니다.》

《뭐요?》

《…》

이때에야 류성우는 련대장이 그처럼 강조하던것, 신속히 치고 그보다 더 빨리 빠져나오라고 한 명령을 어겼다는것을 깨달았다. 등골로 식은땀이 주루룩 흘러내렸다. …

제 2 장

1

으슥한 골안에서 스러져가는 화토불을 마주하고 세사람이 잠들고있었다. 년령도 직업도 걸어온 운명의 길도 각기 다른 세사람이였다.

한사람은 늙은 산림학자로서 앙상한 무릎사이에 머리를 틀어박고 이따금 마른기침을 깇어가며 자갈길을 굴러가는 수레처럼 겨울 한밤의 고달픈 꿈길을 허우적이고있었고 이제 겨우 열네댓살 남직한 소년은 불편한 잠자리에 습관된 고아들이 흔히 그러듯이 달팽이처럼 몸을 꼬부린채 세상모르고 자고있었다.

깍지낀 무릎우에 머리를 고이고 누구보다 더 깊이 잠들어버린듯 숨소리조차 없는것은 적후에 홀로 남아 곡절많은 길을 걸어온

은하였다. 저도 모르게 깜박 토끼잠에 들었다가도 소스라치듯 놀래며 깨여나서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군하였다.

머리우에서는 하늘의 영원한 방랑자들인 검은 구름장들이 흐트러진채 얼어붙었고 헐벗은 수림속에서는 애달픈 흐느낌소리와 같은 바람소리에 나무가지들이 비비적거리는 소리,무엇인가 뚝뚝 부러지는 소리들이 계속되고있었다.

고통스러운 밤이였다. 밤추위에 부대끼며 숲도 잠들지 못하였고 늙은이의 통곡소리와도 같은 굶주린 짐승의 울부짖음소리도 끊임없이 울려오고있었다.

싸늘한 바람이 재티를 흩날렸다. 은하는 불이 죽어가는것을 보자 나무가치를 꺾어 불더미우에 올려놓았다. 불이 달리자 가까운 실개울에서 잠들줄 모르는 샘줄기가 얼음구멍을 솟구쳐오르는 모양이 바라보였다.

그 샘줄기야말로 극도로 지쳐버린 그들 세사람을 멈춰세우고 하루밤의 고달픈 잠자리나마 정하도록 해주었었다. 골안을 헤매던 그때 얼음구멍속에서 샘물이 솟구쳐오르는것을 본 은하는 그자리에 쪼그리고 앉으며 여기서 하루밤 쉬고가자고 말했다. 아마도 그것은 그 물줄기의 속삭임이 줄기찬 생의 숨결처럼 들려온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기구한 동행자들인 늙은이와 나어린 소년도 그자리에 주저앉고말았던것이다.

소년은 진호라고 불렀다. 한때는 서울시내의 걸식아동들중에서 손재주로써나 노래로써 특히 유명했었다. 인민군대의 서울해방 이후엔 인민군전사들의 특별한 총애를 받기도 했다. 더우기 나어린 한 련락병을 사귄 이후로 그가 죽을지경으로 부러워났던 진호는 단연코 인민군대입대를 결심하고 왕십리역을 떠나 락동강전선으로 가는 군용렬차에 숨어오르기까지 하였다. 《무정하기 짝이 없는》 한 대위(대렬참모)가 그의 덜미를 잡고 쫓아버리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그 련락병처럼 부대에서 귀염받고 떠받들리며 으시댈수 있었을것이라고 그 애는 분해하였다.

늙은이에 대해서는 직업을 잃은 산림학자라는것뿐 별로 아는것이 없었다. 그는 밤이고 낮이고 가슴을 우벼내는듯한 기침소리로 로년의 마지막 기력마저 깡그리 토해버리고있었다.

은하가 이들을 만나게 된것은 며칠전의 일로서 불우하게도 놈들에게 체포되였을 때의 일이였다.

은하는 그 지긋지긋하던날 밤의 싸늘한 랭기를 생각하면서 몸을 떨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던가?… 대오에서 떨어진 정치공작대원, 뜻하지 않게 병마에 시달리던 그가 끝내는 몸을 추세워 북으로의 먼길을 떠났는데 하루길도 가대지 못하고말았으니 그때 은하는 얼마나 통분한 심정으로 자기의 경솔함을 저주했던가.

그것은 철도교차점에서 있은 일이였다. 하루종일 숲속을 헤쳐가기에 지쳐버린 은하는 가까운 철뚝을 넘어 질러가기로 마음먹었다.

저물녘이였다. 급히 철뚝을 넘어선 은하는 그때에야 마주오는 경찰 두놈을 발견하였다. 돌아서기에는 벌써 때가 늦었다. 은하는 머리를 수굿한채 놈들을 지나치려 했으나 암만해도 행색이 수상해보였던지 회초리를 든 경찰놈이 앞을 막아나섰다.

《어델가?》

《홍천에 있는 외가를 찾아가요.》

은하는 불행을 당한 촌녀자의 표정을 애써 지었으나 경찰놈은 얼굴을 찡그렸다.

《홍천?… 그 먼델 가?… 그래 어데서 왔어?》

《저… 원소마을에서 살다가 어머니를 잃구…》

《임나!》 경찰놈이 웨쳤다. 그자의 손에서는 벌써 회초리가 뗨질하기 시작했다. 《말씨가 아닌데두 누굴 속여보려구 그래?》

이제는 그 어떤 변명도 무익한것이였다. 그자는 두눈을 사납게 굴리며 은하의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게다가 뒤미처 다가온 경찰놈은 아래마을 주막집으로 같이 가주면 놓아보내겠노라고 치근거렸다.

《거게 가문 내 부탁해둔 청주가 있어, 너도 한잔 나도 한잔… 어때?》

여기서 은하는 곧장 경찰분서의 림시구치장으로 끌려갔다.

그것은 혁명가들에 대한 소책자들에서나 소설들에서 그렇게도 자주 언급된 어마어마한 감옥이나 콩크리트 감방이 아닌 작고 어수선한 한 창고에 불과했었다. 두터운 담벽도 세상에 통한 단 하나의

통기창도 절컥거리는 쇠사슬이며 번호패쪽이 달린 줄간 수인복도 볼수 없는 창고, 허나 널판자로 둘러막은 그 바람벽도 한 처녀의 행복했던 전 생활과 꿈많던 그의 미래를 칩칩한 어둠속에 묻어버리기에는 충분했다.

창고문이 찌쿠덩! 하고 닫기자 빗장을 지르는 소리가 그를 쓰라린 절망속에 파묻어버렸다. 한동안 그는 눈을 꽉 감고 서있었다. 그러나 돌연 어두운 창고 한구석에서 터진 기침소리에 그는 와뜰 놀래며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비로소 그는 부스러진 짚검불이 되는대로 널려있는 땅바닥이며 찬바람이 스며드는 판자벽 그리고 쟁쟁 울리는 쇠소리와도 같은 지붕우의 바람소리에까지 주의를 돌렸다.

기침을 터뜨렸던 늙은이는 잠시후 바위처럼 다시 굳어졌는데 어둠속에 웅크린 그 모양은 흡사 이끼를 들쓴 바위와도 같았다.

그때 은하는 판자벽에 붙어 누워자는 또 한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낡은 가마니짝우에서도 넉넉히 자리잡고 누워잘만치 작은 사람이였다. 물론 후에 가서야 은하는 그의 이름이 진호라는것을 알았다. 어린애들이 입에 문 풀피리소리처럼 쌕쌕 코고는 소리로 미루어 이런 잠자리일망정 소년에게는 만족스러운듯하였다.

은하는 그들과 사이를 두고 문결에 쪼그리고 앉았다.

불행을 당한 사람들로서 그들은 각기 자기들의 번거로운 생각에만 묻히여 말 한마디 없이 따로따로 구석을 차지하고있었다.

음침하고 서리찬 그 창고속에서 은하는 무슨 생각인들 하지 않았으랴. 물론 아직은 각종 악형의 기구들, 례하면 책에서 읽었던 불에 달군 쇠꼬치며 쇠바줄 그리고 그와 류사한것들로 후려치고 지져대며 기절케 하고는 찬물을 들이붓는 일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래일이면 그것이 어김없이 차례지리라는것을 은하는 알고있었다. 경찰분서의 놈팽이들도 자기를 의심스럽게 보는 형편에 이제 헌병대나 멀지않은 대구형무소에 넘기는 때에는 모든것이 보람없이 끝장날것이였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정치공작대원으로서의 은하는 자기의 신념을 잃지 않을것이다. 놈들은 장군님품에서 자란 공화국의 새세대가 어떻게 죽는가를 보게 될것이고 전률할것이다.

허나 죽음에 대한 맹목적인 공포가 아니라 그립고 정든 사람

들을 멀리 떠나 아무도 모르게, 보람없이 외롭게 죽게 되리라는것이 그를 괴롭혔다. 그것은 뼈를 갉는듯한 아픔이였다.

절망의 충동이 가라앉기 시작하자 은하는 랭정하게 마음을 다잡으며 결사적인 구원의 틈바구니를 찾아보았다. 땅이 얼지 않았더라면 손톱으로 뚜져서라도 출로를 열어보려고 결심했을것이다. 그러나 허술한 창고였지만 빗장은 든든히 가로질러있었고 밖에서는 총을 멘놈이 서성거리며 하루밤의 피로쯤 한사코 견디여내고 있었다.

밤이 늦어 보초를 교대한놈이 빗장을 지른 문틈으로 어둑컴컴한 창고안을 들여다보면서 혀꼬부라진 소리로 추잡스러운 수작을 늘어놓았을 때 문득 은하는 고주망태가 된 그 경찰놈이 보초를 서고있는동안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기필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는것을 깨달았다.

술에 찢어진 목청으로 경찰놈은 래일아침 대구형무소로 끌어갈테니 괜한 생죽음을 하겠는가고 치근거렸다. 그런데 이때 잠들었는줄 알았던 소년이 벌떡 일어나며 볼부은 소리를 했다.

《제길 잠두 못자게 구네.》

좀 상스러운 욕설까지 섞어가며 중얼거리던 소년은 그때에야 은하를 발견한듯 놀랜 소리를 했다.

《아, 그래서 저녀석이 지랄인가? 아씨때문에 오늘밤도 잠은 다잤구나.》

이렇게 말하고는 한동안 은하를 눈여겨보았다. 그다음 뜻밖에도 아주 당돌하게, 거의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무례하게 물었다.

《여긴 왜 왔어?》

아무 대답도 없자 소년은 《흥!》 하고 코방귀를 뀌고는 털썩 드러누웠다.

어쩐지 은하는 그 애가 절망적인 이 어둠속에서 자기의 믿음직한 방조자로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대수롭지 않게 경찰놈을 욕하는 소년의 말투엔 나이를 앞질러 성숙한 담찬 기질이 엿보인때문이였다.

어데서 훔쳐낸것이 아니면 소년과 사귄 어떤 사람이 선물한것일수도 있는 기다란 병사용외투를 몸에 감고 누워있는 그에게 은하는 다가갔다.

《얘, 그럼 넌 왜 잡혀왔니？… 먼저 너부터 말하려무나.》

소년은 한동안 허리를 반쯤 일으켜 올려다보더니 좁은 어깨를 움찔 떨면서 자기의 전체 살림살이를 펼수 있는 가마니짝에 다시 벌렁 드러누웠다.

은하는 기다렸다. 무엇때문이라고는 딱히 찍어 말할수 없으나 이제 그 애가 저절로 은하,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리라는 기대를 버리고싶지 않았던것이다. 아닐세라 끝내 은하가 물러가지 않으니 소년은 무슨 생각이 났는지 가마니짝 한귀퉁이에 자리를 내주었다.

《추운데 여기 앉어.》

소년은 자기의 생활에로 그 녀자가 비집고 들어설 한 구석을 이렇게 맡긴것이였다. 은하는 자리잡고 앉았다.

《왜 잡혔니？》

《오, 별게 아니야. 인민군대노래 불렀다구… 그리구 주머니속에 감춰둔 수류탄두 뺏겼지뭐.》

《노래？… 수류탄두 있었어？》

소년은 이런 물음엔 대답하지 않는편을 택했다. 얼마후에야 은하는 구석을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었다. 소년은 대뜸 정신병자라고 대답했다. 은하가 그런것 같지 않다고 하자 이번엔 그렇게 잘 알면서 왜 귀찮게 구느냐고 짜증을 냈다. 구석쪽에 웅크리고있던 늙은이가 또 한바탕 기관포사격처럼 기침을 련발하더니 처음으로 은하쪽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잔등에 고였던 배낭을 더 편하게 세워놓느라고 꿈지럭거렸다.

얼마후 늙은이의 가르릉거리는 숨소리도 누데기속으로 기여들어갔을 때에야 은하는 그 늙은이가 뒤집어쓰고있는것이 그 어떤 람루도 아니고 단지 물날은 두루마기일뿐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은하가 늙은이쪽에 계속 눈길을 돌리자 가마니짝의 주인이 중얼거렸다.

《불쌍한 령감님이야…》

은하는 소년을 돌아보았다.

《경찰놈들이 말하는 소릴 들으니까 저 령감님이 무슨 나쁜 선전을 하구 다니는 빨찌산이라는거야. 참 눈깔들이 뜸자리지 뭐야. 폐병쟁이같은 늙은이가 빨찌산이야？ 그럼 난 열번두 더 빨찌산이 됐겠다. 흥！ 그담 저 령감님은 또 뭐라는지 알아？ 경찰들이

어데서 뭣땜에 왔는가구 하자 제가 뭐 학자님이라나. 배낭속에 종이뭉치를 넣구다니문 다 학자님인가, 쳇！…》

소년의 말을 다 그대로 믿을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은하는 목숨을 내걸고 구치장에서 빠져나가야 할 특별한 리유가 이들에게는 별로 없는것 같다고 단정해버렸다. 그러나 살벌한 전시에야 무슨 일인들 없으랴. 은하는 당돌하고 오만해보이는 소년에게 단단히 달라붙었다.

《이름이 뭐니？》

《내 이름？… 나한텐 이름이 많아. 그래두 진짜이름은 진호야.》

《진호！… 참 이름이 좋구나. 헌데 넌 죽는게 무섭지 않니？》

소년은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죽긴 왜 죽어. 쳇！ 앞길이 구만리같은 내가 죽어？》

은하는 손으로 하품나는 입을 가리우고있는 진호에게 끈덕지게 말했다.

《가만 애, 내 말 좀 들어. 멍청하니 앉아있다간 우린 다 죽어. 글쎄 저놈들이 죄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리던？… 그저 닥치는대루 잡아죽이는줄 넌 모르니？》

《글쎄 난 안죽어.》

《애,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어. 어쨌든 우린 여게서 빠져나가야 해.》

《난 빠져나갈데두 없어. 집도 없는게 어데 가서 잔단말이야？》

진호는 아예 돌아눕고말았다. 은하도 알고있는 노래, 어린시절을 추억케 하는 동요가 그애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방아는 고단히 잠을 잡니다

은하는 무릎을 깍지껴안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차디찬 별빛이 가까스로 비쳐드는 지붕우로 올라갈수만 있다면… 만약 진호가 그렇게 도울수만 있다면 출로는 생길것이였다. 참다못해 또 그애를 흔들었다.

《애 진호, 저것봐, 별이 보이는걸. 저 지붕우로 올라가면 될거야. 응？》

진호는 팔을 뿌리쳤다.

아, 아! 가슴을 아프게 허비는 외로움과 지금도 손저어 불러주는듯 팔을 내밀면 뜨겁게 잡아줄상싶은 정든 사람들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 하여 은하는 목이 메는듯했다.

은하는 지붕틈새로 바라보이는 별 하나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별밑에 은하의 고향이 있었다. 구기자넝쿨이 포도나무와 키돋움하던 고향집, 은은한 풍금소리와 함께 어린 소녀의 꿈이 싹트던 행복의 요람, 아버지의 노래, 대학생음악회… 류성우와 함께 걷던 밤길… 무도곡…

은하는 그 별빛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러자 부지중 눈굽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성우동무, 동문 지금 어데 있어요? 무엇을 하고있어요?… 어느 전호가나 어느 숲속에서 저 별빛을 바라보고있는가요? 아니면 어려운 싸움길을 걷거나 전우들과 같이 행복했던 지난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지요?… 그렇다면 성우동무, 동무가 그리는 정든 사람들속엔 저도 있는가요? 언제든 동무를 잊지 않고있으며 애타게 그리는 이 처녀, 멀고먼 적후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있으면서 간절히 동무를 불러보는 저의 이름도 들어있는가요?…》

강의한 청년, 순진하고 담차고 또 말할수 없이 고집스럽기도 한 젊은이—은하가 사랑한 류성우는 그러했다. 그는 생활에서 언제나 《후보선수》로만 있기를 원치 않았다. 내심에서 끓어번지는 그 강렬한 열정이 바로 은하에게 사랑의 불길을 지펴주었다. 그러나 일은 어떻게 번져갔던가?…

바로 그때 따스하고 어쩐지 질척한 느낌이 손바닥에 닿았다. 그것은 진호의 작은 손이 그의 손을 더듬어쥔것이였다.

《왜 그래?》

은하가 물었다. 그러자 진호는 반쯤 몸을 일으키며 은하를 돌아보았다.

《나한테 맹세를 하지?》

《?…》

《그저 솔직히 다 말하문 돼.》

은하는 부지중 소년의 손을 꼭 잡아당겼다.

《응, 다 말할게.》

《좋아. 누난 인민군대지?》

그 애가 그토록 수월히 그리고 다정스럽게 《누나》라고 불러준데는 그럴만한 충분한 리유가 있을듯했다. 그러나 은하는 일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말없이 머리를 가로저었다.

《쳇！》

물론 은하는 자신에 대하여 말할 용기도 없었거니와 만약 이 꾀바른 소년앞에서 결단코 고집하기를 거듭한다면 그 애의 친절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것이며 그것은 곧 마지막 동맹자에 대한 희망조차 잃는것이라는 생각도 털어버릴수 없었다. 은하는 소년의 귀전에 바싹 머리를 수그리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럼 그렇다고 해두렴, 너 좋을대루.》

그러자 진호는 자기의 작은 손바닥을 별빛에 비치도록 펴보였다. 그 손바닥에 질벅하게 고여있는것이 온통 피빛으로 보인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고 다음엔 자기가 잡아쥐였던 손도 끈적끈적해졌다는것을 알아차리자 본능적인 불안과 애처로운 련민의 정이 은하를 흥분시켰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흥！》

진호는 꼬부렸던 허리를 펴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이봐, 지붕우로 올라가는건 나도 쥐새끼처럼 할수 있어. 쳇！ 녀자들이란 참… 양철지붕을 뜯다가 온 동네를 다 깨울랴구…》

《그럼 이건 뭐니, 왜 이렇게 됐어？》

가슴이 짜릿할 정도로 번개치는 기대와 예감에 사로잡혀 은하는 다우쳐물었다.

《난 들어오자바람으로 이 판자벽에 계속 오줌을 쌌거던. 널판지가 말라서 모다구를 뽑을 때 삐걱삐걱 소리를 낼수 있단말예요.》

진호는 자기의 손칼접이짬에 못대가리를 끼우고 밤새 그것을 뽑았던것이다. 그 애가 얼마나 많은 신고를 했으리라는것을 생각하자 다시금 누를길없는 련민의 정에 휩싸였다.

《애두 참, 진작 말할게지.》

어쨌든 소년은 소년이였다. 류랑걸식아동의 으시대기 좋아하고 당돌하기 짝이 없는 횡설수설로 유명한 진호였지만 한 녀성의 애처로운 목소리엔 어쩔수 없었던 모양으로 푸념을 늘어놓았다.

《맥이 빠져서 더는 못하겠어. 젠장, 이건 부민관에 뚫고들어가기보다두 더 힘들어!》

진호가 못다한 일에 달라붙었을 때 구석쪽에 웅크리고있던 늙은이가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그러자 진호는 밖에 총멘 경찰놈이 있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떠들기 시작했다.

《이보세요 령감님, 죽고싶지 않거들랑 좀 제때에 거들어주죠? 오늘 아침두 여기서 둘씩이나 대구로 끌어갔다는걸 못들었어요? 참 그런것도 모르니 셈판없구려. 알량한 〈학자님〉이라니까. 젠장!》

서울의 뒤골목에서 지껄여대던 본새대로 하면 이보다 더 걸죽한 욕설이 쏟아졌을것이다. 소년이 떠들어대는통에 잠에서 깬 경찰이 문틈으로 들여다보면서 소리를 꽥 질렀는데 그러자 그 애는 갑자기 고분고분해서 상냥스레 대꾸하였다.

《이 어르신네들말에요. 남의 잠자리를 뺏으려들거던요. 참 세월두 젠장!… 죄끄만 애녀석이 가마니 한장 가진걸 뺏겠다니 이놈의 세상을 어디 맘놓고 살아갈수 있겠어요?》

술에 고주망태가 된 경찰놈은 잠시 어둠속을 노려보았으나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물러가버렸다. 그놈이 물러가자 은하는 진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젠 제발 잠자코 있어.》

《쳇!》

어른들을 위해 널판자 한장을 더 떼내는데는 퍼그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게다가 늙은이의 기침소리때문에 은하는 노상 가슴이 한줌만해있지 않으면 안되였다.

…가슴조이던 그때의 불안과 념려는 모두 지나간 일로 되여버렸다. 그밤에 그들이 어두컴컴한 창고에서 수월히 빠져나올수 있은것은 진호의 영악스러운 노력과 깜찍한 타산외에 술에 만취된 경찰놈의 경각성이 무딘 결과였으며 거기에 더 첨부할수 있다면 죽더라도 모험을 하지 않을수 없었던 은하의 처지가 그 길에로 추동하였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촌락을 벗어나 산속으로 깊이 들어섰을 때 세사람은 멎어섰다. 모두 말없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있었다. 은하에게는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걸어갈 자기의 목표가 명백했으나 나머지 늙은이와 진호는 찬바람부는 골짜기와 어둠에 잠긴 산발 그 어데서도 갈길을

찾을수 없었던것이다.
　먼저 은하는 늙은이에게 물었다.
　《이젠 어떡하겠어요?》
　늙은이는 맹렬한 기침소리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저으기 초조했던 은하는 늙은이더러 어데 거처할데가 있는가고 또한번 물었다.
　《아니요.》 침통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늙은이는 대꾸했다. 《아무데도 거처할데가 없어 이 고생이지요.》
　계속하여 그는 비천한 한 산림학자였던 자기가 버림받고 걸식하게 된 운명에 대하여 중얼거렸다.
　《그래도 고향에 가면 입에 풀칠이나 하겠지 하구 길을 떠났지요. 내 어린시절의 산지기막을 찾아서말이지요. 그런데…》
　그는 배낭을 벗어놓고 주저앉아버렸다.
　《보매 먼길을 떠난것 같은데 이 늙은것일랑 내버려두고 어서 가보시오.》
　은하는 진호를 돌아보았다. 그 애만은 틀림없이 자기를 따라나설것이라고 믿고있었기에 소년의 의향을 알고저한것이다. 그러자 진호는 슬그머니 은하의 팔소매를 쥐여당겼는데 악동이 방랑소년도 늙은이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는지 내놓고 떠나자는 말은 차마 꺼내지 못한것이였다.
　허나 은하는 움직일수 없었다. 비록 그가 가야 할 길은 기약할수 없는 아득히 멀고 험한 길이였어도 기력이 진한 늙은이를 산중에 홀로 남긴채 떠날수는 없는것이다. 은하는 늙은이의 배낭을 들었다.
　《일어나세요. 제가 도와드리죠. 적당한 거처가 나지면 그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여기 홀로 남을수야 없지 않나요. 결코 그렇게는 할수 없어요. 저와 같이 가십시다.》
　늙은이의 얼굴엔 그 어떤 의혹의 빛과 함께 감동의 빛이 어리였다.
　《날 돕겠다구요? 뭣때문에 그런…》 그는 중얼거렸다. 《난 병든 늙은이웨다.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도 병든 페인이외다. 괜히 짐이나 될걸 뭣때문에 고생을 사서 하시려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하고 은하는 그를 부축하였다. 《그만 일어나세요. 이제… 이제 다 알게 될거예요. 제가 꼭… 돕겠어요.》

그리하여 그들 세사람은 지금 외로운 화토불을 마주하고 고달픈 한밤을 같이 보내고있는것이였다.

2

만물이 하품을 하고 술렁대기 시작할 때에야 비로소 은하는 무릎우에 머리를 고이고 깊은 잠에 들었다. 어데선가 꿩이 세차게 푸득이는 소리도 산림학자 조성길로인이 화토불을 다시 지펴주고 자기의 두루마기를 어깨우에 씌워주는것도 알지 못했다.

은하는 늙은이와 소년이 서로 다투고있을 때에야 잠을 깨였다.

인생의 량극에 서있는 두사람이 다툰것은 배낭때문이였다. 알고보니 진호가 배낭속에 들어있던 원고들과 낡은 문서들 그리고 소책자들을 쏟아던진것이였다. 진호는 배낭이 꼭 필요한건 자기인데 그까짓 종이뭉치며 알수도 없는 갖가지 잡동사니들때문에 고생할거야 없지 않은가, 그 대신에 먹을걸 채워야 하지 않는가고 대드는것이였다.

《먹을걸 얻어와야 한단말에요. 그래 령감님은 그까짓 휴지들때문에 굶겠어요, 그걸루 국을 끓이겠어요?》

그 보잘것 없는 종이 하나하나에 고심어린 로인의 한생이 깃들어있다는것을 알기엔 소년의 나이가 너무 어렸다. 은하는 진호를 나무랐다.

《진호, 그게 국거리는 아니야. 그러나 저분이 배를 곯으면서 연구한 귀중한거란다. 하나도 버릴수 없는것들이야.》

은하는 진호를 달래여 둘이 같이 개울가에 내버린것들을 모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성길로인은 쓸쓸한 미소를 띄우며 만류해나섰다.

《그애가 옳게 말했나보군요. 한갖 국거리도 못되는걸 찾아선 뭣하겠소.》

그 침통한 어조는 은하를 놀래웠다. 그는 허리를 펴고 한동안 쓰라린 련민의 정으로 로인을 지켜보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선생은 때식이나 에울려고 이

걸 연구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의 과학적신념까지 잃어버릴수 있어요?》

뜻밖에 벌어진 론전이 너무도 심각한것이여서 어지간히 기분이 상했던 진호는 두눈을 휘둥그래 떴고 로인은 마른기침을 하며 외면하고말았다.

진호가 쏟아던진것들을 모두 남김없이 찾아 은하는 배낭을 다시 정리했다.

《오늘부터 이 배낭은 내가 맡겠어요. 필요할 때 돌려드리죠.》

그러자 진호가 볼부은 소리를 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요? 배낭도 없이 난 어데다 먹을걸 얻어와요?》

누구도 감히 막을수 없는 이 유력한 근거를 가지고 진호는 배낭을 빼앗았다. 그때 묵묵히 앉았던 로인이 말했다.

《여보시오. 진정으로 그게 소용되리라고 생각하시오?》

《그럼요.》

은하는 조용히 미소했다.

《이 종이 한장도 이제 귀중한것으로 될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얼마후 그들은 은하의 작은 보퉁이에 들어있던 쉐기밥 두덩이를 나누어 먹었다. 그것은 수개월간 은하를 돌봐준 원소마을의 한 농가집며느리가 길량식으로 꾸려준것의 나머지였었다.

길을 떠나기에 앞서 약간의 론의가 있었다. 은하는 곧장 리화령쪽을 거쳐 북으로의 길을 잡으려 했으나 조성길로인은 우선 팔공산을 지나 태백산줄기에 붙을것을 권고했다. 비록 산세는 험하고 길은 멀어도 화전민들에게서 도움을 받을수도 있고 또 안전하리라는것이였다.

이 지방 지리에 도통한 늙은 학자의 권고를 은하는 기쁘게 받아들였다. 식량을 구하는 문제에 가서는 진호가 한마디로 선언했다.

《먹을건 내가 구할테니 제발 참견만 하지 말라요.》

물론 그것은 어데서 어떤 방법으로 구했는가고 꼬치꼬치 따져묻거나 의심을 품지 말라는 요구였다. 특히 은하를 할끔할끔 쳐다보는 그 애의 눈초리에서는 경계심이 나타나보였다. 은하가 무슨 말을 할지 불안스러웠던 모양이였다. 그러나 은하는 잠자코 있었다. 그리하여 한낮에 이르러 진호는 처음으로 맞다든 동네에 내려갔다.

그런데 웬일인지 한시간이상 기다렸어도 진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슴을 조이다 못해 두시간가량 흘러갔을 때 은하는 진호를 찾아 내려가려 했다. 허나 조성길로인이 기겁을 하며 막았다. 그때 마을쪽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순간 은하는 저도 모르게 《진호！—》하고 속삭이듯 부르짖고는 비탈을 뛰여내려갔다. 뒤에서 로인의 웨침소리가 울렸으나 은하는 멈춰서지 않았다.

생사를 알길 없는 소년을 두고 속절없이 가슴만 태우기보다 차라리 놈들의 소굴을 뒤져서라도 찾아낼수 있다면 서슴없이 그 편을 택할것이였다.

(진호,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널 죽을 고비에 빠뜨렸구나！)

순간 은하는 굵은 나무그루에 세차게 부딪친듯 흠칫하면서 멎어섰다. 바로 눈앞에 기다란 병사용외투를 걸치고 로인의 낡은 배낭을 둘러멘 진호가 서서 놀랜 눈길로 마주보고있는것이였다.

《진호！》

이렇게 부르짖으며 은하는 쓰러질듯 비청거렸다. 진호가 달려와 부축해서야 그는 나무기둥에 몸을 의지하고는 별안간 소년의 머리를 꼭 그러안았다. 진호가 무안해하건말건 어느덧 죽음의 골방을 함께 빠져나온 이 소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되였는가를 새삼스레 깨달으면서 은하는 눈물을 머금기까지 하였다.

《살았구나. 살았어.》

이 지나친 애무를 진호는 참을수 없는 모양이였다. 그는 은하를 약간 떠밀치면서 중얼거렸다.

《참 별일두 다 있네. 그럼 뭐 내가 죽은줄 알았어？》

별안간 골을 내는 진호를 바라보면서 은하는 더이상 소년의 궁지높은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로 작정했다. 얼마간 숨을 돌리고나서 은하는 물었다.

《그런데 웬 총소리야？》

진호는 입을 비쭉거렸다.

《놈들이 개를 쐈어, 자꾸만 쫓아다니며 짖어대니까.》

《여게두 놈들이 와있어？》

《오, 다리를 돌아보는놈들이래. 저 마을앞에 있는 다리말이야. 땅크가 지나가겠는지 하구 돌아본다나.》

진호는 얼핏 사방을 둘러보았다.

《참 그리구… 아까 그놈들이 말하는 소릴 들었는데…》

다시금 주위를 살피고나서 진호는 은하의 귀전에 소란스러운 숨결을 들씌웠다.

《인민군대가 나왔대. 머 굉장히 큰 부대라나…》

《？！…》

《아니 왜 그래？ 내 귀로 직접 들었는데…》

은하는 멀거니 그 애를 쳐다보기만 했다.

(인민군대라니？ 전선은 멀리 북으로 옮겨갔다던데…)

다음순간 은하는 진호의 눈동자에서 이 중대소식의 진실여부를 들여다보려는듯 그 애를 바싹 끄당겼다.

《다시 말해봐. 누가 그랬다구？》

《놈들끼리 말하는 소릴 들었다는데… 그래서 놈들이 다리도 돌아보는거야. 이제 여기서 전투를 할수 있거던.》

《그러니…》하고 은하는 가까스로 속삭이였다. 《거짓말은 아니란 말이지？》

은하는 진호의 성난 눈초리며 깔끔하게 쏘아붙이는 말도 미처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두볼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마저 감촉하지 못하였다.

한낮의 미풍이 은하의 흐트러진 앞머리칼을 가볍게 날렸다. 봄날의 그것처럼 부드럽고 훈훈하고 따뜻한 미풍… 살을 에이던 추위도 고달픈 잠자리며 끝없는 위구심도 다 고요한 그 미풍에 실려 가뭇없이 사라져버린듯하였다.

《아니 여보시오.》 뒤늦게 내려온 산림학자가 놀랜소리를 지르며 다가섰다. 《왜 그러시오. 예？…》

깜짝 놀래고 영문을 알수 없어 당황해하는 로인에게 은하를 대신하여 나어린 진호가 웨쳤다.

《인민군대가 나왔어요. 령감님！》

끝내 은하는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일행이 무어져서 두번째 밤이 왔다. 지긋지긋하던 간밤과 달리 잉걸불밑에서는 감자알들이 툭툭 터질지경으로 익고있었고 사람들의 마음도 한결 후더워져서 오손도손 이야기도 주고받았다.

늙은 산림학자는 태백산줄기의 한 이름없는 화전민부락에 거처하려던 종래의 계획을 바꾸어 은하와 같이 인민군대를 찾아가기로 작정하였다.

희망은 지척에 있었다. 그리하여 이름없는 골안은 아늑해졌고 화토불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깃든 은밀한 꿈과 념원을 덥혀주며 조용히 타올랐다.

은하는 진호의 기다란 외투를 칼로 잘라 몸에 맞도록 고쳐주면서 남반부에서 살아온 한 늙은이와 어린 소년에게는 신비로운 세계와도 같은 지난날의 생활을 펼쳐보이고있었다.

대학, 이웃들, 외가에서 보고들은 이야기들, 땅을 분여받은 농민들에 대한 이야기며 칠순로인이 성인학교에서 문맹을 퇴치하던 이야기 그리고 석탄생산에서 기록을 세운 어느 탄부가 장군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고 또 몸소 그이께서 부어주신 축배잔을 받아들던 이야기… 공화국북반부의 생동한 현실이 감동적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만약 이 화토불가에 돌연 낯선 사나이가 나타나지 않았던들 이 밤은 고요히 그리고 꿈결과도 같이 흘러갔을것이다.

문득 늙은 산림학자가 손을 들어 은하의 말을 중단시켰다.

《무슨 소리가 난것 같은데… 듣지 못하셨소?》

그는 자갈 밟는 발자국소리를 분명 들었던듯이 말하였다. 모두 귀를 강구고 들어보았으나 이따금 발밑의 마른 풀줄기를 흔드는 바람소리뿐 한적한 골안은 고요했다. 은하는 웃어버렸다.

《념려 마세요. 낮에도 인적없던 골안인데 무슨 일이 있을라구요. 무슨 짐승이겠지요.》

산속의 바람소리, 물소리는 물론 새들의 지저귐소리도 그들의 언어로 들을수 있다는 로인이였지만 무엇인가 착각한게 틀림없다고 은하는 단정해버렸다. 그는 여전히 귀를 강구고있는 진호의 어깨우에 외투를 씌워주었다.

《자, 꼬마병사, 군복이 몸에 맞나 입어보렴.》

진호는 잉걸불밑에서 잘 익은 감자알들을 디굴디굴 굴려내고서야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팔소매를 끼면서 고개를 돌리던 그는 급기야 얼어붙은것처럼 딱 굳어지고말았다.

《아니？…》

《왜 그러니?》

날카로운 예감에 흠칠하면서 은하는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어둠속 오리나무가지아래에 서있는 한 사나이를 발견하였다. 누군가 알지 못할 어떤 우악스러운 손바닥이 숨구멍을 틀어막는듯했다.

뒤따라 일어선 늙은 학자 조성길이 먼저 가릉가릉한 소리를 밸으며 가까스로 용기를 내여 물었다.

《뉘시오?》

《…》

심장이 경련을 일으킨듯 급작스럽게 꿈틀한것은 다음순간의 일이였다. 어둠속 사나이가 몇걸음 앞으로 나선것이였다.

《말씀 좀… 물읍시다.》

살집이 좋은 대머리였다. 사나이는 또 한걸음 나섰다. 너울거리는 불빛이 그 사나이의 풀어진 눈동자를 비쳐주었다. 염소울음소리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사나이는 다시 물었다.

《팔공산으루 가자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좀…》

확실히 사나이도 겁에 질려있다는것과 몸에 지닌 무기도 없으리라는것 그리고 중요하게는 어지러운 부인용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고르뎅바지까지 껴입었지만 덜덜 떨고있는 그의 몰골이 어쩐지 루추해보인다는 점이 우선 은하를 숨돌리게 해주었다.

조성길로인이 기침을 련달아 퍼붓고 나서 뜨직뜨직 물었다.

《이 밤중에 팔공산엔 웬일루 가시는거요?》

《예,거게 동화사라구…》

문득 사나이는 입을 다물고 자기를 지켜보는 세사람을 번갈아 훑어보았는데 그 순간 은하는 이 낯선 사나이가 살인자일수도 있지않을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웬일인지 낯선 사나이는 자기와 마주한 사람들중에서 유독 은하를 지목하면서 갑자기 물었다.

《당신들은 빨찌산이지요? 그렇다고 말해주시오. 그럼 내 다 말씀드리죠.》

은하는 손짓으로 진호를 약간 비켜서게 했다.

《추운데 이리 오세요.》

사나이는 조금도 주저없이 화토불곁에 다가와 퍼더버리고 앉았다.

《같이 가려구 왔습니다. 아무데건… 굶어죽지만 않는다면… 난

불을 지른 사람입니다.》
진호가 굴려냈던 감자알을 덥석 그러쥔 그는 껍질도 채 벗기지 않고 삼켜버렸다. 따거운 그것을 제대로 씹지 못하면서 그리고 진호의 성난 눈초리도 알지 못하면서 사나이는 또 한알을 움켜쥐더니 고르뎅바지에 문질러대고는 제꺽 입안에 밀어넣었다.
《불을 질렀지요. …》
마침내 입안의것을 마저 삼키자 그는 또 이렇게 자랑삼아 말했다. 그리고는 목깃으로 손을 넣어 꼬기꼬기 꾸겨진 신문을 꺼냈다.
《일두 참, 그게 하필이면 미군장교숙사에 번져갈건 뭐람! … 거길 좀 보시오. 범인의 용모파기라… 그럴듯합디다그려.》
사나이는 불꼬챙이를 들고 진호가 파낸 감자알들을 자기의 무릎가까이로 굴려가면서 자기가 불을 질렀다는것을 정탐군들의 접선암호처럼 거듭 내둘렀다.
점차 몸이 녹고 주린 창자도 얼마간 달래게 되자 그는 자기 이름이 리헌이라는것을 밝히고 피치못할 기화로 방화범이 되여 팔공산의 동화사에나 은신할가 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난바에야 뭣때문에 속세에서 해탈하는 고역을 치르겠느냐고 력설했다.
그는 어린시절 동화사의 승방에서 겪었다는 치욕이며 거렁뱅이시인의 처지에 대해서도 장황하게 늘어놓더니 다음은 세사람을 상대로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어찌나 끈덕지게 달라붙었는지 잠시후엔 이름으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모든것을 다 알아냈다. 그는 세사람이 그 어떤 빨찌산도 아니라는것을 듣고는 지극히 만족해하기까지 하였다.
《그러고본즉 당신들도 결국 나와 같은 수난자들이군요. 참 얼마나 극적인 사실입니까. 난 벌써 아까부터 당신들의 뒤를 밟으면서…》
그는 또 감자알을 집어들었다. 그러자 정 참을수 없었던 모양으로 진호가 매몰스럽게 쏘아붙였다.
《이젠 그만해요. 아침엔 굶겠어요?》
《진호가 있으니 무슨 수가 있겠지.》
《흥!》
진호는 감자알들을 모두 배낭속에 걷어넣고말았다.
《허 참!》

무안을 느낀 모양으로 리헌은 목도리를 둘둘 감으며 헛기침을 했다. 하는수없이 은하는 진호를 두둔하여 한마디 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어찌겠어요, 이 앤 래일끼니때문에 그러니까요.》

《물론이지요.》하고 리헌은 이기죽거렸다. 《보매 당신은 상당한 교육을 받았음직한데 그렇다고 별수 있습니까. 우리같은 지식분자들도 먹지 않고는 살아갈수 없으니까요. 래일이라… 오늘에 쫓기여 래일을 살고… 바로 이것이 두발가진 륙상동물인 인간의 한생이지요.》

은하는 불쾌감을 억지로 누르며 물었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면 그렇다는거죠. 아마도 〈두발가진 륙상동물〉이라고 했을 때 그는 허무한 인생을 념두에 두었겠지요. 공허한 그 무엇을 갈망하며 한생을 허둥거리는 가련한 인간들을말입니다.》

은하는 두무릎을 깍지껴안고 침착한 눈길로 그를 쏘아보았다.

《우릴… 잘못 아셨군요. 미리 말해두지만 결코 우린 쫓겨다니는 무리도 아니고 공허한 갈망때문에 인생을 매장하는 광신적인 신자도 아니예요. 알아두세요. 나에겐 신념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두눈을 흡뜨고 무슨 말인가 또 하려는 리헌을 제지하며 은하는 계속했다.

《이보세요. 당신은 이제라도 다른 길을 걸어갈수 있어요. 고대그리스학자까지 껴들이지 않고도말이예요.》

리헌은 맥풀린 눈자위를 데룩데룩 굴릴뿐이였다. 아마도 호화롭게 표지장정을 한 책들에서 인생에 무익한 숱한 말귀들을 기억해둔 보람도 없어서 거북스러워진듯했다.

《쫓아내는가요?》

《맘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아니요.》하고 리헌은 맥없이 중얼거렸다. 《난 갈데가 없는 신세입니다. 이미 다 말했지만… 난 어떤 고행도 다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함께 가게만 해주시오.》

은하는 잠자코 생각에 잠겼다. 진호는 물론 구치장에서 함께 빠져나온 늙은 산림학자의 경우와는 달라 어쩐지 께름직한 생각

이 들었다.
고르뎅바지를 입은 이 사설쟁이는 아직 은하의 목적지도 명백히 알지 못하면서 함께 가자는것이다. 단지 위험이 가셔질 때까지만 목숨을 부지하자는 심사일가. 아니면 은하 자기의 말에서 그 어떤 희망을 발견한것일가？…
《…다만 함께 가게만 해주시오.》
부지중 은하는 해방지구를 편력하면서 만나보았던 각이한 사람들을 그려보았다. 그들중에는 새로운 사상에 공명되여 주저없이 따라나선 지식인들은 물론 모든것을 랭담하게 주시하면서 선뜻 따라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인생의 쓰디쓴 허무감을 부르짖는 관조자들도 독설가도 정신착란자들도 있었다. 부르죠아적인 독소는 수다한 정신적기형아들을 길러낸것이였다.
그들중의 한 불우한 인간이 지금 의지할곳을 찾아헤매고있다. 어떻게 할것인가？… 길게 생각해볼것도 없었다.
《좋아요.》하고 은하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말하였다. 《그런데 고생할건 각오되여있어야 해요.》
《그럼요. 그렇구말구요.》
사나이는 아주 만족하여 중얼거렸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진호가 자기의 수확물도 들어있는 산림학자의 배낭을 베고 누운채 어떤 오라토리오의 곡조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노래는 전혀 유쾌한것이 아니였으나 어수선한 분위기를 눅쳐주는데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되였다. 세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노래를 들었다.
참으로 진호는 노래의 명수였다. 서울의 번잡한 골목길에서 그가 부른 노래인들 얼마나 많았으랴. 춥고 배고프고 녹초가 되였어도 진호는 유쾌한 고아였고 악동이 가수였다. 인민군대의 서울해방과 련락병이였던 꼬마병사와 친해지지 못했더라면 그는 어제날처럼 지금도 거리바닥을 쏘다니며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런 뜻도 알려고 않고 《그이의 무덤에는 눈물비 내리였네. 안녕히 가시오라 나의 비둘기》하고 목청을 돋구어 고관댁부인네들과 녀대생들을 놀래우고있을것이다.
지금 그 애는 먼 옛날 옛적에 달과 해가 부부되여 살다가 심술궂은 악한의 꾀임에 의해서 갈라졌다는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악한의

꾀임에 속아 성이 독같이 난 해—남신은 어린 자식들인 별들과 함께 달—녀신을 어두운 밤하늘에 영영 쫓아버렸노라고 했다. 가사는 달녀신의 애끓는 마음을 노래하는것이였다.

밤이 되면 달 녀신은
아버지 잃은 어린 별들 데리고
하늘가를 헤매이고

저녁이면 엷은 구름새로
창백한 얼굴 내밀고 해를 부르네

《돌아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린것들이 기다려요！》

가느다란 목소리였어도 그속엔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자라온 소년이 애절하게 그리는 그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이 들어있는듯했다. 특히 마지막에 《어린것들이 기다려요》 하는 구절에서는 저으기 목소리가 떨리기까지 하였었다.

모두 불더미를 마주하고 제나름의 생각에 잠겼다. 살집좋은 리헌의 출현으로 한동안 부산스러워졌던 화토불가에 고즈넉한 침묵이 깃들었다. 그러자 이런 침묵을 달가와하지 않는 진호가 머리를 비스듬히 쳐들고 은하에게 물었다.

《인민군대가 지금 어데쯤 왔을가？》

뜻밖의 이 말은 먼저 리헌을 놀라게 하였다.

《인민군대라니, 인민군대가 나온단말이시오？》

은하는 그를 눈여겨보았다.

《그래요.》

《아, 그런즉》 하고 리헌은 두눈을 잽싸게 굴렸다. 《당신들은 인민군대를 찾아가는 길이군요. 예？》

《그래요.》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하며 은하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게 그렇게 놀라운가요？》

《아니지요. 놀라운건 당신들이 어데로, 누굴 찾아가는가 하는

게 아니라… 저 거시키…》
여기서 리헌은 말을 더듬거리더니 그닥 자신없이 중얼거렸다.
《헌데… 항간의 풍문을 믿고 중대사를 결심한다는건 좀 가소로운 일이 아닐가요?》
이 말에 누구보다도 격분한것은 진호였다. 그는 리헌의 희멀긴 얼굴을 사납게 노려보며 터뜨릴길 없던 온갖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놓았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했단말예요? 놈들이 바빠맞아 떠들어대는 소릴 직접 이 귀로 들었는데두요? 그렇게 믿지 못하겠으면 도깨비같은 어르신네가 직접 마을에 가보라요. 가서 물어보란말이예요!》나어린 소년의 당돌한 공박에 잠시 어리둥절해있던 리헌은 쓰거운 미소를 그리며 중얼거렸다.
《똑똑은 한데 세상물정엔 아직 깜깜이구나. 하긴 숫구멍도 채 말라붙지 않았으니 그럴수밖에…》
그는 갑자기 은하쪽으로 고개를 홱 돌렸다.
《여보시오, 당신도 지금 부산항에 매일과 같이 미국과 서방나라군대들이 들이닥친다는 말을 들었겠지요?》
은하는 무엇인가 목구멍에 치밀어오르는것을 삼키였다.
《그래서요?》
《그래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온 세계를 맞서 이길수야 없지 않습니까. 어디 솔직히 말해보시오.》
《온 세계라니요?》 하고 은하는 침착하게 미소했다. 《온 세계가 아니라 세계의 강도들이예요.》
이때 늙은 산림학자가 참다못해 껴들었다.
《이젠 그만들 하구 하던 얘기나 계속합시다.》
은하를 바라보는 늙은이의 두눈엔 절절한 당부가 들어있었다.
《이 늙은게 지팽이삼아 의지하게 좋은 얘길 또 해주시구려.》
은하는 불무지우에 삭정이들을 올려놓았다. 어데선가 우—우!—하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좋아요.》 하고 은하는 시작했다. 《그럼 제가 만나본 우리 인민군대동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죠.》
지금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이제 만나게 될 인민군전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함을 말해주는것이라고 은하는 생각했다. 그것도 어떤 요란스러운 전투공적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그 전

사들이 어떻게 살며 싸웠는가를 보여주어야 했는데 은하에게는 그에 대한 자기의 충분한 체험이 있는것이였다.

하여 은하는 상냥하고 친밀하게, 벌써 오래전 쎄라복을 입고있던 그 시절의 은하처럼 시작했다.

《몇달전 일이예요. …》

전략상 일시적후퇴가 시작된 그 첫시기에 있은 일들이였다. 은하는 미소를 머금고, 그러되 지나간 나날의 지워지지 않는 인상들을 놓치지 않으려는듯 두눈을 반쯤 감으며 이야기했다. 후퇴가 시작된것도 모르고 남해기슭의 먼 어촌에 홀로 남아있던 일, 정치공작대지구책임자의 부탁으로 정찰병들이 그를 구출해주어서야 사태를 알고 깜짝 놀래던 일… 점차 은하는 흥분하면서 연신 무릎을 쓸어만졌고 조성길이나 진호 그리고 리현이라는 사나이도 불결에 바싹 붙어앉았다.

《정찰병들은 나를 가까운 보병중대에 맡기더군요. 그들은 또 어데론가 가야 했던거예요. 참 그때 난 그 동무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했어요. 어느새 떠나갔는지… 사방을 둘러보니 수많은 인민군전사들이 땅을 파고있겠지요. 밤이였어요. …》

3

…잊을수 없는 밤이였다. 푸르께한 밤, 하늘에서는 생기잃은 하현달이 전호굴설에 여념이 없는 전사들을 지켜보고있었다. 철갑모와 보병삽날들이 여기저기서 번들거리고 쟁기들이 돌에 마치는 소리들이 아프게 들렸다.

남해기슭의 여름밤은 괴롭고 더디게 흘러갔다.

이곳에서는 처음 련대가 다음엔 대대가 련합부대의 후퇴를 보장하였고 지금은 정원의 반수밖에 남지 않은 중대가 마지막 24시간을 지탱해낼 임무를 맡고있었다.

은하는 비로소 얼마나 엄혹한 시련이 조국앞에 닥쳐왔는가를 소스라치듯 깨달았다.

종국적승리는 이제 시간문제로밖에 달리 생각하지 않기에 습

관된 순진한 처녀의 가슴속에는 웅글게 울려오는 먼 포성의 여운이 파도치듯 밀려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의식이 아니라 쓰라린 아픔으로 가슴을 찢게 하는 괴로움이였다. 랭혹한 현실이 보여주는 그 정황의 준엄성— 이는 중대장의 눈가에 잡힌 깊은 주름마다에서 그리고 전사들의 붕대를 감은 얼굴에 떠오른 상냥스러우면서도 엄격한 미소에서도 읽을수 있는것이였다.

중대가 은하를 도울수 있는것이란 두가지뿐이노라고 중대장은 말하였다. 첫째로 그는 특무장을 불러 사흘분 식량을 공급할것과 둘째로 모터찌클을 수리하여 집결구역에까지 데려다 줄것을 명령하는것이였다.

특무장은 비상용 쌀미대까지 털어내서야 사흘분에 달하는 량식을 꾸려줄수 있었다. 그때 은하는 결사전을 앞둔 중대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한 길손에 불과한 자기가 전사들의 마지막 낟알까지 독차지해간다면 일생을 두고 가슴이 맺혀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조리없이 떠듬거리며 거절하자 입을 꾹 다물고 서있던 특무장은 거치른 손바닥으로 눈언저리를 아프게 문질렀다.

《동무, 우리 중대장동무가 왜 그렇게 지시했는지 동문 모르겠습니까? 우린… 중대란말입니다. 중대장도 있고 특무장도 있고 50명나마되는 전사들도 있는 중대말입니다. 그러나 동문 이제부터 혼자란말이요. 참… 아직 셈판이 없구려.》

후일 괴롭고 지친 걸음으로 산길을 걸으며 은하는 그 귀중한 쌀알들을 눈물과 함께 삼키군하였다.

얼마 안있어 땀이 즐벅한 얼굴에 기름칠까지 한 전사가 달려와 중대장에게 모터찌클을 다 수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아무말 없이 중대장은 은하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때 은하는 무엇을 생각했던가?!… 무뚝뚝한 그 중대장은 은하에게 마음속으로 언제나 그리워하던 류성우를 련상케 하였다. 그도 역시 지금 어느 이름모를 전호가에서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전호를 파고있을지 어이 알랴. 아니면 배밀이로 적의 땅크를 향해 기여가며 지나간 모든 생활의 단편들중에서 은하와 결부된 한가닥 추억도 더듬어보지 않을가?…

중대장과 악수를 나누고 그들은 떠났다. 보병중대장과 그의 전

사들이 말없이 서서 그를 바래주었다. …

모터찌클은 자주 고장이 났고 그때마다 전사는 땀을 들쓰며 무엇인가 떼고 붙이고 하여야 했다. 그렇게 그들은 거의 말없이 달렸다. 그들에게는 각자 자기의 근심과 불안이 있었으나 그것을 나누기에는 너무도 정황이 절박하였다.

날이 밝았다.

《이젠 다 왔습니다.》

모터찌클을 세우고 나어린 전사가 말했다.

《저길 보십시오. 저게 동무가 말하던 소학교 아닙니까?》

령밑에 자그마한 단층교사들이 보였다.

《예, 옳은것 같애요.》

은하는 모터찌클에서 내렸다.

수수한 학교였다. 경사면에서 넓지 않은 마당으로 내리는 층계, 두개의 돌기둥을 박은 정문과 담장… 보통의 산골학교였다. 그러나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가슴조이며 그려보던 소학교였다. 마치 그의 운명의 전환점에 세워져있는 리정표라도 발견한듯 기쁨에 넘쳐 부르짖었다.

《옳아요, 집결구역이에요!》

그러나 문득 와뜰 놀래며 멈춰섰고 고개를 홱 돌렸다. 모터찌클이 와당탕거리며 돌아선것이였다.

《?…》

은하는 달려가 무작정 모터찌클을 막아섰다.

《왜 그래요, 또 어델 가요?》

애되고 귀엽고 순진해보이는 그 전사의 대답은 간단했다.

《중대로 가야지요.》

《?…》

은하는 소스라치듯 놀랐다.

《중대라니요? 거젠 지금…》

순간 입술을 깨물었다. 자기가 못다한 그 말이 무섭게 생각되였다. 그가 가는곳에 중대는 없으리라. … 가슴이 덜컥 무너져내리는것 같았다.

《왜 또 가요. 돌아오라는 말은 없지 않았나요!》

은하의 온몸에 배기가스가 세차게 들씌워졌다.

《전사동무！》

《또 만납시다！》

퉁탕거리는 소리가 가슴을 쾅쾅 울려주었다. 은하는 마지막으로 전사가 싱긋 웃으며 손을 약간 들었다놓는것을 보았고 그 순간 얼굴을 싸쥐였다.

《전사동무！…》

마음속 부르짖음이였다. 가슴을 허비는듯한 애석의 정… 그것은 슬픔도 눈물도 아니였다.

배기가스의 파르스름한 운무가 멀리 사라져갔다. 언덕길우에 뽀얗게 서린 먼지구름이 서서히 갈앉고있었다.

전사는 보이지 않았다. 눈언저리에 손을 댄채 오래도록 서있었다. 언덕길너머에서 불그레한 화광이 솟구쳐오르고있었다. 그 속에서 섬광들이 번쩍거리는듯했다. 전사는 그 충천하는 불구름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은하는 얼마후에야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한걸음 걷고 돌아보고 또 몇걸음 내짚고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군했다.

이윽고 목적지인 소학교에 이르렀다. 그러나 어려운 후퇴시기의 많은 약속들이 그러했던것처럼 집결구역인 소학교는 텅 비여있었다. 더는 기다려내지 못할 리유는 허다했을것이다. 은하는 약속한 날자를 사흘째 넘기고있는것이였다.

텅빈 운동장이며 창유리가 깨여진 자그마한 교실을 들여다보고나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소학교의 토담에는 각종 화살표들이 가로세로 그어져있었고 강과 바다 그리고 산의 이름을 딴 대호들이 적혀있었다. 불현듯 심장을 찌르는듯한 기대에 숨길을 딱 멈추기까지 했다.

《태백산！… 저걸가？… 아니면 락동강 제2호로？…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제는 서로 더 깊숙이 파고들려고 다툼질이라도 하는듯한 글자들이며 서로 뒤엉켜진 선과 화살표들을 모조리 읽어보아야 했다. 은하는 벌떡 일어나 토담을 얼싸안을듯 돌아갔다.

《금강→ 월비산.》

《영춘아, 소양강으로 오라！》

《나는 간다, 형석.》
…
입술을 깨물었다. 그를 찾는 글자는 없었다. 설사 있었다 치더라도 덧쓰고 또 덧써놓은 그 표식들중에서 은하를 부르는 글발을 찾아낸다는것은 헛된 노릇이였다. …
은하는 잠시 말을 끊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주의깊은 눈길들이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그때 얼마나 안타깝고 억이 막히던지… 막 가슴이 뜯기는것 같았어요. 난생처음으로 난 고독감과 그때문에 무서운 공포를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때 불쑥 모터찌클을 몰고가던 그 나어린 전사동무가 생각되겠지요. 글쎄 그 전사동문 밤새 마지막 결사전을 하고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기 중대로 찾아간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웃으면서!…》
누구나 다 그러했지만 특히 가슴을 조이며 듣고있은것은 조성길로인이였다. 그는 기침이 나올 때마다 가슴을 움켜쥐고 한손으로는 옷자락을 입에 틀어막군하였다. 그다음 눈물이 글썽한 그의 얼굴에 죄스러운 미소가 떠올랐고 어서 하던 얘기를 계속해달라는 의미로 은하를 향해 머리를 끄덕이는것이였다.
은하는 깍지낀 두손을 힘껏 부르쥐였다.
《난 부끄러웠어요. 어느 산마루에선가 그 전사가 나를 지켜보는것 같애서 서둘러 길을 떠났죠.… 한참 걷다보니 높은 산이 막혀있더군요.…》
산에는 한가닥 오솔길이 나있었다. 은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 길에 접어들었다. 그것은 봄날의 원족과 음악, 과학탐구의 대물렌즈를 멀리 뒤에 남기고 작곡가의 딸 신은하가 걷기 시작한 새로운 생활의 두번째 페지였다.…

4

은하의 이야기는 계속되였다. 비록 그는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축소하여 말하였지만 마음속에는 곡절많은 행로의 전부가 다

시금 펼쳐지고있었다. 그는 자기앞에 우렷이 솟아난듯싶던 가야산을 그려보았다. 그것이 어찌하여 그토록 높고 험해보였던지… 아마도 남해가의 한 어촌에서 떠난 그의 발걸음이 이제야 겨우 경상남북도의 경계선에 이른때문이였는지도 모른다.

가야산마루를 물들이던 석양도 점차 스러지고 타는듯한 송진냄새가 풍기던 숲속에도 저녁의 장막이 고요히 내려드리우고있었다. 지치고 허기진 은하는 소나무에 머리를 기대고 잠시 숨을 돌렸다. 처녀의 눈앞에서는 산벌들이 붕붕 서둘러대며 하루의 마지막 수확물을 나르고있었다. 그것들에게는 일상적인 로동과 근심없는 잠자리가 있었으나 지금 은하에게는 끝없는 외로움만이 있었다.

커다란 긍지감을 안고 해방지구를 돌면서 선전공작을 하던 때가 벌써 아득한 옛일처럼 여겨졌다. 그때 은하는 저 부지런한 산벌들이나 다름없이 언제나 바빴고 벅찬 흥분과 달콤한 피로에 잠겨있었다. 아아! 이제 다시 대오에 들어서는 그날이면 잠을 모르고 뛰여다니련만…

(지금쯤 전선은 어데 있을가?)

이것은 한시도 그의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였다. 깊은 산중에 홀로 남으니 인생의 벅찬 흐름에서 떠밀려난듯하였다. 다만 바위를 감돌아흐르는 시내물소리만이 떠나온 생활과 이어주는 속삭임소리같았다.

은하는 한 젊은이가 사랑하던 시구절에서처럼 어느 흰바위에 걸터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 시내물은 어데서 떠났을가?… 그것도 어느 바위틈 모래알들이 퐁퐁 솟구치는 버드나무 그늘밑일가?…)

허나 그게 어느곳이든 굳이 알아선 무엇하랴. 정가로운 샘터에서 떠난 작은 물줄기는 자기의 흐름을 멈출수 없었으니 그것은 바다에 이르는 먼먼길을 흘러갈것이였다.

문득 은하는 정치공작대로 떠나던 그날, 새 생활의 첫페지가 펼쳐지던 그날의 역두를 생각하였다.

호각소리, 구령소리, 류량한 나팔소리… 병사들이 서둘러 정렬하였고 또다시 나팔소리가 울렸었다. 병사들이 군용렬차로 와— 밀려갔다. 이번엔 우렁찬 기적소리가 들끓는 역구내, 합성과 웨침소리며 나팔소리와 장구류들이 부딪치는 소리들에 포마들의 호기에

찬 투레질소리까지 간간이 울리고있는 역구내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장 강력한 어성으로 자질구레하고 보잘나위 없는 갖가지 소음과 혼잡을 짓누르며 《앞으로, 병사들 앞으로!》하고 웨치는듯 하였다.

그날 은하는 병사들을 따라 일행보다 먼저 군용렬차로 달려갔었다. 막상 열려진 유개화차의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직일관완장을 낀 한 젊은 군관이 서둘러 달려왔다. 지금도 은하는 그의 성난 모습을 잊지 못한다.

《뭐요… 동문 뭐요?》

《예?》

《이게 뭐 려객찬줄 아오?》

《예—》 하고 은하는 말꼬리를 길게 뽑았다. 《그건 저두 알고있어요.》

젊은 군관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은하를 바라보는 그의 눈길은 꿋꿋해있었다.

《동문 도대체… 누구요?》

《군관동무, 전 정치공작대원이예요.》

그러자 젊은 군관은 잠시 머밋거리다가 발뒤꿈치를 딱 소리나게 붙였는데 그것은 훌륭한 사죄의 표시였다. 호기심 가득히 바라보던 숱한 병사들이 유개화차안에서 일시에 손을 내밀었다.

《아하, 동무들.》 뒤늦게 따라오던 정치공작대지구책임자가 소리쳤다. 《그러다 처녀동무의 손목을 분지르겠소!》

그와 함께 당분조장, 배낭을 진 선전원들이 소리내여 웃고있었다.

세차게 내뿜는 증기발속에서 기적소리가 또 한차례 길게 울렸다. 숱한 병사들이 내밀어준 팔목에서 그중 억세여보이는 주먹에 매달려 은하는 화차에 올랐다. 떠들썩한 웃음소리, 미처 가려들을새 없이 퍼부어지던 질문과 롱담들…

덜커덩!—

육중한 쇠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어데선가 류랑한 나팔소리가 가슴을 짜릿하게 울려주었다. …

(허나 오늘 이렇게 맥을 놓고있는 나를 지구책임자나 그 순박하고 정열적이던 인민군전사들이 본다면!…)

은하는 용기를 내여 일어섰다. 심정을 유혹하던 시내물소

리가 류달리 들리는듯싶었다. 줄기찬 흐름, 거침없이 내달리는 그 물소리… 코마루가 날카로운 한 젊은이가 즐겨 읊던 시구절이 떠올랐다.

나는 대하가 되련다 바다가 되련다

바다로 가는 시내물, 그 길은 얼마나 멀고 또 먼것이랴… 쪽빛 물결우에 금빛태양이 반사광을 던지는 광대한 수면,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가는 흰 돛배 하나… 그것은 고향집 담벽에 붙어있던 바다의 그림이였다.

허나 시내물이 흘러흘러 바다로 감은 결코 평온과 안식을 바라서가 아니다. 노호하는 세찬 파도가 되고저, 거센 흐름이 되고저 끝없이 흘러가는것이다！…

그는 숲속으로 뻗어간 오솔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물황철나무들이 듬성듬성 널려선 공지가 나타났다. 그때 갑자기 벼락같은 고함소리가 지척에서 울렸다.

《섯, 누구야？！》

은하는 말뚝처럼 서버렸다. 심장이 금시 멎는듯하였다. 무서운 예감과 무서운 기대가 번개불같이 그의 머리를 때렸다.

그러나 다음순간 은하는 믿을수 없는 광경에 그만 두눈을 딱 감았다. 올망졸망 늘어선 다박솔가에 기관단총을 앞에 내든 인민군전사가 솟아올랐던것이다. 다시 눈을 떴으나 그것은 환영이 아니라 인민군전사의 성이 난 모습, 경계심이 잔뜩 어린 산 모습이였다.

은하는 급기야 앞으로 내달렸다. 그러자 다시금 날카로운 웨침소리가 그를 못박아 세웠다.

《섯！》

절컥, 격발기 당기는 소리까지 났다.

《누구요. 왜 우릴 밟아오는거요. 빨리 말하시오. 냅다 갈기기전에！》

다박솔우에 인민군전사들 여럿이 더 나타났을 때에도 은하는 돌로 깎은듯 굳어져있었다.

중사의 견장을 단 얼굴이 거무스레한 사람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재빨리 은하의 행색을 훑어보았다.

《증명서가 있습니까?》

《예.》 은하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헌데 저 동무더러 먼저 총을 내리게 해줄수 없을가요?》

중사는 고개를 퍼뜩 돌리더니 아직도 총구를 겨누어든채 위협하고있는 전사를 나무랐다.

《인식동무,이젠 그만하라구.》

그들은 한필의 말과 함께 45미리반땅크포를 끌고 부대를 찾아가는 7명의 포병전사들이였다. 남해가까운 전호에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던 보병중대처럼 그들도 적기계화부대의 진공을 완강히 저지시키면서 3일간을 버티고있다가 부대를 찾아떠난길이였다. 포 네문중 두문은 맨 첫날에,그다음 마지막전투에선 화력부관이였던 중위를 잃었다. 제2포장이였던 중사가 남은 6명을 지휘하게 되였다. 그들은 비록 자기 임무를 수행한 전사들이였고 다만 부대를 찾아떠나면 되였지만 아무도 포를 묻어버리거나 수류탄 한발로 적당히 처리할 념을 하지 않았다. 요행 살아남은 말이 앞에서 끌고 전사들은 바줄을 늘여 경사지에서 굴러나지 않도록 량옆에서 당기며 가고있었다.

《포장동무.》 은하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전 동무들과 같이 가겠어요.》

포장인 중사는 말없이 그에게 증명서를 돌려주었다.

《출발준비!》

포장은 전사들을 향해 나직이 구령을 내렸다. 여러 전사들과 함께 은하도 포가에 비끄러맨 바줄 하나를 어깨에 메였다. 말투레질소리가 은하의 단호한 결심을 고무해주는듯 요란스럽게 울렸다. 포장은 놀란듯 은하를 쳐다보았으나 인차 고개를 돌려버렸다.

《갑시다!》

은하는 이것을 거무스레한 포장이 자기에게 한 말이였노라고 믿었다.

행군은 힘겨웠다. 더우기 일행중에 처녀가 끼워있어 처음엔 몹시 거북스러움을 느낀듯했지만 누구도 그런 내색은 내지 않았다. 은근한 미소와 감사의 눈길들이 은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휴식때 은하는 병사들을 찾아 작은 손바느질감들을 맡았고 목달개도 갈아주었다. 그러자 풀밭에 드러누웠던 김인식이라고 부

르는 어린 포수가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이것참, 휴식두 못하게 해서 미안하군요. 제손으로 해야 하는건데.》

은하는 피로에 지친 여러 전사들을 바라보았다.

《휴식이 뭐 따로있나요? 전 동무들의 모습을 보니 힘이 배로 솟는것 같아요. 정말이예요.》

진정 은하는 천리 전선길을 포와 함께 가고있는 그 전사들에게 무엇인가 더 따뜻하고 고무적인 말을 하고싶었다.

《지금도 장군님께서는 우리들 한사람한사람을 기다리고계실텐데 포와 함께 마음도 밝게 가야 하지 않겠어요? 포신강도 번쩍이고 옷차림도 단정하고… 그렇게 장군님을 만나뵙고 새로운 전투명령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 전사들의 선망에 찬 눈길이 일시에 모여드는것을 마주보며 은하는 조용히 웃었다.…

이튿날 밤이였다. 그날은 포병전사들과의 마지막 밤이기도 하였다. 그 밤 전사들은 큰길로 가기로 결심했다. 두 전사가 도로기슭에 대한 감시정찰로 먼저 떠났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러갔다. 문득 도로쪽에서 괴이한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벼락같은 총성이 터졌다. 얼마후 알게 된바이지만 정찰로 나갔던 두 전사는 고장난 화물자동차곁에서 비를 맞으며 서성거리던 적병들과 조우하였다. 공교롭게도 비옷을 뒤집어쓰고 바위처럼 웅크린 적병을 건드려놓아 전투가 벌어진것이였다. 십여명의 적들을 쓸어눕혔지만 이 전투에서 정찰을 나갔던 김인식전사는 치명상을 입었다. 은하는 처음으로 한 전사의 최후를 목격하였다. 그 역시 나어린 전사였다. 전우들이 달려갔을 때 그는 안깐힘을 쓰며 일어서고있었다. 비줄기가 그의 얼굴에 묻은 흙물을 말끔히 씻어주었다. 포장이 그를 붙안자 전사는 《포장동무.》하고는 떨리는 팔을 뻗쳐 무엇을 더듬어 찾고있었다. 그는 포장의 손을 잡았다.

《비가 잘 오지요?… 참, 얼마나 시원한가요!…》

전사는 그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김인식전사가 피로써 열어놓은 큰길에 나섰을 때 대오는 다시 7명이 되였다. 그러나 새벽무렵에 벌어진 두번째 전투에서 그들은 또 말을 잃었다.

이번에도 역시 전투는 급작스럽게 벌어졌다. 그것은 난생처음 은하가 한 전투원으로서 기관단총의 방아쇠를 당기며 참가한 전투였다.

퍼붓는 비줄기속을 적의 자동차종대가 달려왔다. 포장은 총쏘시개로 말잔등을 후려치면서 포를 돌렸다. 그리고 전사 두명을 앞질러보내며 운전사를 쏘아갈기라고 명령했다.

《포주의!—》

포장은 배낭속에 들어있던 마지막 철갑탄을 꺼내여 옷자락으로 정히 닦기까지 했다. 그다음 은하더러는 먼저 산으로 오르라고 했다. 은하가 거절하자 기관단총을 내밀었다.

《쏠줄 아시오?》

은하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쏴보겠어요.》

비에 흠뻑 젖은 포장의 팔소매가 은하의 눈앞에서 쳐들리고 무어라고 구령을 웨치는 소리가 울렸다. 포탄을 발사한 반땅크포가 훌렁 뒤로 굴러나면서 동시에 말울음소리가 들렸다. 포탄이 명중된 적자동차에서 불길이 치솟고 총소리들이 터졌다.

은하도 총을 쏘았다. 너울거리는 불길을 향하여 거뭇거뭇한 형체들을 향하여 탄창이 빌 때까지 방아쇠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포장이 무어라고 소리치고 전사들이 포를 끄는것을 보았을 때에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포가에 비끄러맨 바줄을 잡았다. 아츠러운 총소리들이 뒤따라왔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불꼬치로 어깨를 쑤시는듯한 아픔을 느꼈다. 어깨죽지가 찢겨진것을 손으로 만져보면서 은하는 먹물속같은 어둠과 산비탈이며 다박솔우거진 경사지를 바줄을 메고 달려왔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때부터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새벽이 가까와오면서부터는 불덩이같이 달아오르고 눈앞이 자꾸 흐려지며 구역질이 나는것을 참으려고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지 않으면 안되였다.

끝내 심한 열병이 은하를 쓰러뜨리고말았다. 오랜 시일이 흘러서야 팔공산이 바라보이는 원소마을의 한 농가에서 일어난 은하는 그들이 남기고 간 편지를 눈물을 삼키며 읽었다.

《은하동무, 귀중한 전우를 두고 가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동무가 병을 이기고 다시 대오에 들어서

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부디 안녕히.》

그다음엔 군부대 공개대호와 6명 전사들의 수표가 있었다.

그후 원소마을의 한 농가에서 은하는 오랜 시일에 결친 병구완을 받게 되였다.

그동안 전선은 멀리 북으로 옮겨가고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날을 따라 먼 태백산줄기로부터 찬바람이 쓸어와 문풍지를 물어뜯을것처럼 날쳤다.

소생되기 시작한 기력은 처녀의 의지도 북돋아주었다. 은하는 다시금 이름없는 한 전사—모터찌클병이며 정든 포병들을 생각하였고 그들이 헤쳐간 험로에 자기자신을 세워보며 마음을 가다듬군하였다.

항간에서는 놈들이 쫓기고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러나 우뢰같은 진격의 포성도 은하의 귀전에 미치기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5

밤은 깊었다. 은하는 그만 한잠씩 자고서야 또 길을 떠날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자 진호가 하루밤쯤 밝히는게 무슨 대수냐고 하품을 하며 말해서 다들 웃었다.

모두 기분이 좋았다. 더구나 은하가 이제 조만간에 인민군대를 만날것은 틀림없다고 확신에 넘쳐 말하자 진호는 아침끼니로 감자 한알씩 더 차례질것이라고 선언했다.

활기를 띤 사람들을 새삼스럽게 둘러보며 은하는 오래 계속된 이야기의 결속처럼 이렇게 말했다.

《귀중한건 희망과 신념을 잃지 않는거예요. 만약 아무런 신념도 희망도 없이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내물에 비유해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끝내 바다에 이르지 못하는 물줄기나 같다고 할가요. 물웅뎅이로 고여서는 썩어버리는 그런걸말이죠. 허지만 우

리를 놓고보자요. 우리에겐 그 희망이 지척에 있어요.》
은하가 조용히 미소하자 조성길로인도 결달아 웃음을 지었다.
《우리 인민군대가 나왔다는것을 아는 이상 우리에겐 래일부터 가야 할 길이 명백하지 않아요?》
이윽토록 말이 없던 리현이 손으로 입을 막고 하품을 참으며 넌지시 말했다.
《당신의 인생철학은 서정적이군요. 그렇지만 하필 고달프게 흘러가는 시내물에 자기의 한생을 비길건 뭔가요. 그런건 시인들에게나 남겨두시죠. … 참, 이런 외국속담을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말꼬리에 붙은 하루살이가 하루밤에 천리를 간다!〉… 어떻습니까. 인생엔 이런 행운도 있는거죠.》
《그런즉》하고 은하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어보였다. 《당신은 지금도 행운을 믿고있군요. 아니면 간절히 바라던가… 그렇지만 하루살이를 부러워하지야 않겠지요? 말꼬리에 붙어 천리를 갔다한들 달라질게 뭐겠어요. 역시 하루살이에겐 말꼬리가 전부일것이고 하루밖엔 더 못사는거야 변함이 없으니말예요. 어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런 하찮은 존재로 생을 마치고싶진 않겠지요?》
리현은 눈을 흡뜨고 《오!—》하는 외마디소리를 길게 내뿜았다. 그다음 두손을 비비적거리며 외면하더니 《당신만 오세요》라는 류행가를 흥심없이 불러대는것이였다. 그는 북반부에서 대학을 다녔으며 정치공작대원으로 나온 이 처녀와 론쟁했댔자 쓰거운 참패만 겪는다는것을 깨달은 모양이였다.
이야기가 너무 까다로운 론리에 걸려있는것이여서 진호는 종시 적대적인 리현에게 공박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있었다.
마침 조성길로인이 언권을 청했다.
《제 좀 말합시다. 이젠 감명깊은 이야기로 되돌아갑시다그려. 제발!…》
그는 자세를 고쳐앉고 은하를 쳐다보았다.
《그러니 말씀해주시오. 이제 나같은것두 인민군대가 반겨 맞아줄가요? 이 쓸모없는 늙은이를말입니다.》
로인의 소박하고 진정어린 물음에 은하가 부지중 웃음을 머금는 사이 어느새 진호가 끼여들었다. 이제야말로 그가 뽐낼 차례였던것이다.

《그것두 모르나요? 이제 인민군대를 만나면 다 되는걸 가지구. 참, 령감님두…》

모두 어쩔수없이 웃고말았다. 이번엔 조성길로인이 기침을 막으며 진호의 머리 한끝을 쥐여박기까지 했다.

《그런건 나도 안단다, 녀석!》

은하는 기뻤다. 하루밤사이에 그들은 한결 친숙해졌고 스스럼없이 되였던것이다.

《진호가 옳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인민군대를 만나게 되면 다 알게 될거예요. 무엇을 위해 그들이 피흘려 싸우는지 보게 될겝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복을 지켜싸울뿐만아니라 남반부인민들모두를 다 행복한 조국의 품에 안겨줄 성스러운 임무를 지니고있어요.》

다음날 길을 떠나기전에 처음으로 조성길로인이 제가 앞서겠노라고 자청해나섰다. 은하가 미소를 지으며 수긍하자 그는 일행의 안내자된 권리로 리헌을 돌아보며 정중히 물었다.

《당신도 따라오겠소?》

리헌은 약간 당황한듯 말을 더듬거리며 중얼거렸다.

《그야 물론… 누가 앞섰든 내야 상관할바 아니죠.》

늙은 학자는 산속의 오솔길로 앞서 걸었다.

제 3 장

1

일기예보는 저녁부터 흐려서 다음날 새벽무렵엔 령남,령서 전지역에 비와 눈이 내릴것이라고 장담했다. 이것은 미극동군총사령부에서 파견되여온 고문대좌 엘든 스테이지를 몹시 서둘게 했다. 비록 그는 하늘을 점치는 그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어본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다. 그는 벌써 사흘째나 대구에 머물러있으면서 비행에 유리한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는데 겨우 날이 개일가 하니 밤에는 또 흐리겠다고 하는것이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이미 대기하고있던 미해군륙전대 제1공군련대의 《밴쉬즈》촬영정찰기를 타고 서리찬 상공에 날아올랐다.

비행에 적당한 시간은 불과 한두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밑으로는 기하학적인 세계가 흘러가고있었다. 마치 17세기 군사지도를 내려다보는듯 무수한 산봉우리들이 키를 낮추어 들어앉았고 군용도로며 얼어붙은 강들은 가느다란 댕기를 늘여놓은것 같았다.
정찰기는 한달나마 계속된 공산군련합부대의 남하를 최종적으로 막기 위해 치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태백산줄기의 남단 일월산과 청령산기슭의 저지선을 날아넘었다. 여기서부터는 있을수 있는 대공화력을 예견하여 점차 고공을 취했다.
하늘에 흐트러져있던 넝마같은 구름쪼각들이 머리우로 서둘러 지나갔다. 골짜기를 날아넘을 때마다 세찬 충동에 몸이 부르르 떨렸지만 스테이지는 말 한마디 없이 험한 산발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있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항법사인 애숭이 중위가 마침내 고개를 젖히고 발동기의 동음을 누르며 웨쳤다.
《대좌님, 〈케—3(포항)〉기지엔 10분후에 내릴수 있습니다.》
《…》
스테이지는 엷은 입술을 꾹 다물고 발밑에 흘러가는 미지의 땅을 노려보고있었다. 아니다! 그의 비행목적은 단순히 적아의 계선을 확정하기 위한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태백산줄기를 타고 한달여에 걸쳐 뚫고들어온 공산군이 이 지역을 목표로 정한 그 진의도를 가늠해보려는것이였다. 어쩐지 군사지도를 연구하면서 애매하게 느껴지던 점들이 직접 돌아보기만 한다면 단번에 풀릴것처럼 생각되였었다.
그리하여 지금 스테이지는 신의 계시를 기다리는 주교와도 같은 표정을 띠우고 참을성 있게 버티였지만 항법사인 애숭이 중위는 이 정처없는 비행에 드디여 짜증을 내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할가요, 대좌님?》 초조감을 숨기지 않고 그는 다시 소리쳤다. 《돌아가잡니까?》
스테이지는 랭담한 눈초리로 그를 노려보며 짧게 웨쳤다.
《한번 더!》
몹시 추웠다. 그러나 참고 견디내야만 했으니 그는 《유엔군사령부》 파견고문이였고 공인된 반유격전의 로련한 전문가인것이였다.
새로운 명예와 승진의 첫 출발점에서부터 희망을 포기해버린다는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비록 신의 계시와

도 같은 령감은 찾지 못할지언정 저지선에서 종적을 감춘 부대의 행적이라도 찾아야 했다. 그리하여 그는 빽빽한 목소리로, 상대방의 고막이 찢어질 지경으로 항법사의 귀전에 대고 침을 놓았다.

《중위, 다시한번 돌아야겠소. 잘 기억하오. 태백산에서부터 일월산, 령동산, 향로봉으로 코스를 정하시오. 난 발음하기 까다로운 이 산들에 흥미가 있단말이요. 중위야 드라이브를 하는 셈이지만 난 탐사를 해. 알겠소?》

자부심이 강한 스테이지였다. 비록 한산한 동방의 겨울풍경이였고 아직 목적한바로는 되고있지 않았어도 그는 결코 인생의 폐허를 부감하는 수도승같은 표정을 짓고싶지 않았다. 얼마전 도꾜의 데이고꾸호텔에서도 그는 작별인사를 나누려고 모여든 동료들에게 이렇게 부언했었다.

《어떤자들은 내가 뭐 〈뒤골목장관〉이 되였다고 비웃고있다는군. 참 귀엽고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작자들일세. 그 〈뒤골목〉에서는 전쟁이 아니라 절도범색출이라도 하는가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자들에게 나는 공산군의 2차서울공략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연구하라고 권고하고싶네.》

그것은 인민군제2전선련합부대들이 얼마전에 38도선의 방어진을 단숨에 밀고나와 배후타격을 가함으로써 전선서부 인민군련합부대들의 서울진공을 용이하게 하였던것을 의미한것이였다.

그렇다. 전선정황은 급변했다. 청천강, 장진호반일대 등에서 참패가 있은지 불과 얼마 안되여 이번엔 38도선이 무너지고 서울이 떨어져나갔다. 전선은 한강을 넘어섰다.…

패전의 책임을 둘러싼 심각한 분쟁속에서 맥아더는 새로운 군사적모험을 기도하였다. 그것은 전선을 될수록 북으로 들이밀고 공산군을 대량적으로 살상소멸하려는 작전이였다. 이것을 《제한공세》라고 불렀다. 왜 《제한공세》라고 하는가? 라는 질문에 맥아더는 대답했다.

《끊임없는 전투로 공산군이 적극적인 행동을 못하게 하는 한편 공산군부대들을 하나씩 소멸하자는것이다. 비행대와 땅크 및 포병을 총동원하여 공격하되 돌출부를 이루지 않는 일선형의 작전대형으로 전선을 올려밀자는것이다!…》

그리하여 전선서부에만도 맥아더는 미 1군단, 9군단, 영27, 29려단, 뛰르끼예려단, 괴뢰군 1군단, 3군단 등을 투입하였다.

남하해온 공산군 제2전선부대들은 어떻게 하는가?… 조선전쟁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진 군사전문가들이 물었다. 이에 대하여 맥아더는 미1해병사단과 괴뢰륙군본부직속구분대들, 현지의 경찰력량을 총동원하라고 하면서 《적임자가 있다. 반유격전의 전문가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맥아더가 선발한 전문가는 다름아닌 엘든 스테이지대좌였다. 도꾜에서 떠날 때 스테이지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있던 론문 《유격전과 신속반응책》의 원고도 잊지 않고 트렁크속에 밀어넣었었다.

일찍부터 맥아더를 부러워했고 또 그에 의해서 출세의 길에 오른 스테이지는 이 기회야말로 자기의 운명을 급변시키리라고 믿었다. 그는 서둘러 달려왔고 도착하자바람으로 공산군련합부대의 앞길에 함정을 준비하였다. 여기서 그는 공산군의 남하를 결정적으로 저지시키는 한편 포위섬멸하려고 타산했었다. 그런데 문득 공산군의 한개련대가 저지선을 돌파하고 감쪽같이 종적을 감추었다. 스테이지는 일순 당황했으나 곧 자기의 랭철한 의지를 회복하였다. 그는 자기가 맞다든 적수가 로련하며 완강하다는것과 이 싸움이 피투성이 혈투로 되리라는것을 깨닫자 일종의 야릇한 흥분을 체험했다. 좋다, 한번 겨루어볼만한 일이다.

…정찰기는 다시 지나온 항로를 돌았다. 눈아래에 펼쳐진 음울한 산줄기를 내려다보면서 그는 이 지역에서 《탐사》 하지 않은 곳이 어데일가 하고 곰곰히 궁리해보았다. 태백산줄기의 지맥으로 뻗어내린 죽령과 리화령쪽으로 날아갈 필요는 없었다. 공산군이 결코 호남의 평야지대로 진출하지는 않을것이기때문이였다.

(혹시?…)

종적을 감춘 공산군의 한 련대가 령남땅 깊숙이 들어섰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소스라치듯 놀랐다.

(포항쪽일가, 아니면 대구시를 목표로 했을가?…)

스테이지는 공산군이 겨우 한개련대무력으로 감히 미2사와 기갑사단, 5공군무력은 물론 괴뢰군 2사, 전투비행단들이 집결되여있는 지역으로 접근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올가미에 목을 거는것과 같은 자살행위인것이다. 그럴수 없다!…

죽음의 미궁과도 같은 골짜기를 내려다보면서 그는 불현듯 이

틀전에 나가보았던 전장을 그려보았다. 그것은 공산군의 한 련대가 포위환을 이루려던 미군공격서렬을 토막쳐버리고 어데론가 종적을 감춘 직후였었다.

스테이지가 나타나자 괴뢰군의 한 중령이 다가왔다. 그자는 통역조차 얼떠름해질 정도의 빠른 말씨로 공산군련대가 미군 한개 대대를 역습하여 괴멸시킨후 남쪽으로 깊은 수림속으로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 덧붙이려는것을 그는 밀막아버렸었다. 그의 싸늘한 시선에 질겁한 중령과 통역이 황겁히 물러가자 스테이지는 찢겨진 시체들이며 불타버린 자동차의 잔해들속으로 걸어갔다.

어데선가 뒤늦게 나타난 땅크들이 경사진 비탈면에 겨우 버티고 서서 수림어방에 대고 포탄을 쏘아댔다. 땅크포들이 꽈당꽈당 쏘아대기 시작하자 그에 용기를 얻은 괴뢰군 보병련대들이 반원형의 전투서렬로 수림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다.

스테이지는 싸늘한 랭소를 띄우고 그 부질없는 소동을 지켜보았다. 마른 풀줄기를 입에 물고 잘근잘근 씹으며 공산군련합부대가 도달하기전에 배후에로 잠입한 련대를 어떻게 소멸할것인가를 생각하였었다.

그때 키다리 미군대위가 눈앞에 나타났다.

《대좌님.》 하고 대위는 맥빠진 보고를 했는데 그자의 목을 감은 붕대에 피가 말라붙은것이 먼저 눈에 띄였다.

《무슨 일인가？》

《자비심을 베풀어주십시오.》

《뭘, 어떻게 말이요. 대위？》

미군대위는 위급한 중상자들을 싣고 갈 자동차가 없다는 하소연이였다. 자기부터 먼저 병원에 보내달라는 암시였을것이다.

스테이지는 길가에 세워둔 찦차를 얼핏 돌아보고는 동료들속에서 잔인한 미소로 알려진 그것을 입가에 그려보임으로써 대위를 놀라게 했다.

《자비심은 하느님에게 청하는거요. 대위… 그런데 공산군이 잘 훈련됐던가？ 그들이 어떻게 싸우던가말이요？》

《대좌님, 그들은 정규군입니다.》

스테이지는 가까스로 분노를 눌렀다.

《대위, 우리 미군은 200년전부터 정규군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스테이지는 불시로 뇌리를 치는 생각에 몸을 떨었다.
(정규군이라… 그 빌어먹을 대위가 지껄인 소리에도 일리가 있다!)
스테이지는 공산군이 엄청난 력량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개련대를 빼돌린데는 심중한 책략이 숨어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들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곳에서 급소를 찌르려 할것이다. 그런즉 여기서는 무모한 추격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군사적요충지들을 제때에 방비해야 할것이다. 자칫하면 선코를 떼울수 있다.
…항법사가 다시 고개를 돌렸는데 그의 우묵한 눈확에는 고통스러운 비난이 들어차있었다.
《인젠 비행장까지 갈 연료밖에 없습니다. 대좌님, 그래도 〈탐사〉를 계속하겠습니까?》
《우는소리 작작하오, 중위!》 스테이지는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이젠 끝났소!》
대구시북구의 산격동 산마루턱에 자리잡은 옛 도청건물에서는 미해1사의 작전관이 그를 맞이했다.
《8군사령부에서 또 독촉이 왔소.》
《흥!》 스테이지는 랭소했다. 《모든 일엔 다 때가 있는 법이요!》
《그래 공산군의 행적을 찾았소?》
스테이지는 복도에 멈춰선채 한동안 작전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난 정찰병이 아니요. 나의 기본임무는 분석하고 종합하고 제때에 필요한 결심을 내리는거요.》
《아, 물론!…》
《나는 오늘 〈탐사〉에서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였소. 그건 바로 유격전에는 유격전으로 대답한다는 리론에 기초하고있소. 무슨 말인지 알만하오?》
이쯤 되자 스테이지로서도 뜻하지 않던 장광설이 쏟아져나오게 되였다. 그는 작전관을 슬며시 끄당기며 중대한 비밀을 터놓는 배신자처럼 은밀하게 속삭이였다.

《생각해보오. 대좌, 공산군이 무얼 믿고 올가미속으로 들어올것같소? 그들 공산주의자들의 표현을 빌면 인민들을 믿고있단말이요. 그리구 그들식의 정신적인 무엇이 또 있기야 하겠지. 허지만 정신이라는거야 어쨌든 추상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단말이요. 때문에 나는 주타격방향을 적의 후방으로 정했소. 다시 말하면 모든 촌락과 민가들에 대한 공격이요. 알만하오?》

《적의 후방?》

작전관은 놀랐다.

《아니 대좌, 여기야 우리 후방이 아니요?》

스테이지는 상대의 우매성을 너그럽게 리해해주었다.

《게릴라전에서는 모든 군사상의 법칙들이 뒤죽박죽된단말이요. 유격부대를 쫓아다니는건 그물로 물을 뜨는것과 같소. 봉쇄와 차단, 이게 중요하오. 그다음 적아를 구별할수 없게 지금 산속에서 훈련을 받고있는 특수부대 즉 〈반유격대대〉를 적으로 가장시켜 민심을 소란하게 만들테요. 즉 공산군이 발붙일곳이 없게 하자는거요. 이젠 리해가 가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아파하는데를 골라가며 찌르는 자객의 역을 맡아할테요. 그런다고 누가 나를 시비하겠소? 만일 그런자가 있다면 나는 변소특별세를 시비한 자기 아들에게 한 로마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유명한 말을 상기시켜주겠소. 〈화폐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어떻소?》

그리고는 례의 그 엷은 미소를 선물하였다. 그러자 잠시 어리둥절해있던 작전관은 장진호반에서 동상을 입었다는 목덜미를 손톱으로 긁어대기 시작했다.

《어쨌든 나는 당신에게 워커중장각하의 비극을 상기시키지 않을수 없소. 대좌, 그도 공산군제2전선부대에 걸려들었소. 잊지 마시오.》

그다음 애처롭게 보이는 미소를 남기고 그는 가버렸다.

날은 빨리도 어두웠다. 어두운 복도 한구석에서 말라 비틀어진 가랑잎 하나가 어슬렁거리고있었다. 남달리 신앙심이 강한 스테이지는 별안간 몸서리쳤다. 복도를 굴러다니는 가랑잎이 그 어떤 불행의 전조처럼 느껴진때문이였다.

《우리에게는 구원해줄 신이 있나니…》

저도 모르게 마르첸 루텔의 찬송가 한구절을 중얼거리며 스테

이지는 급히 그자리를 떴다.

2

밤마다 불면증으로 시달리던 스테이지였지만 요즘 며칠간은 오히려 그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동방식의 층고가 낮은 자기 방에 들어선 스테이지는 먼저 창가로 가서 차광막부터 내리운 다음 원탁을 더듬어가서 탁상등을 켜놓았다.

원탁우에는 긴장한 사색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속이 비여있는 켄트표담배곽, 여러장의 군용지도, 꽁초로 찬 재털이, 낡은 《워싱톤포스트》지우에 뚜껑을 터쳐놓은 맥주통졸임… 그는 그것들을 한쪽에 밀어버리고 지도를 당겨놓았다.

공중탐색이 있은 직후여서 령남지역지도는 축소된 세계의 한 부분으로, 살아움직이는 생동한 화폭으로 안겨오기 시작하였다. 지도에 그려진 가는 선들은 점차 강철레루로 바뀌이고 굴통으로 석탄연기를 세차게 내뿜는 군용렬차의 기적소리도 들리는듯싶었다. 부산과 포항에 닻을 내린 합선들에서 부르짖는 고동소리, 군용비행장들에서 울리는 리착륙의 앙칼진 쇠소리 그리고 《유엔도로》에 꼬리를 문 자동차종대의 경적소리들… 령남땅은 6개의 군용비행장, 3개의 해군기지 및 군항 그리고 전선으로 통한 경부선, 중앙선 등 철도와 조밀한 도로망들이며 중앙탄약창을 포함하여 각 병창, 해군공창, 수리창들이 집결되여있었다. 즉 이곳은 전선에 이어진 전략적최후방보급기지였다.

공산군은 바로 전선으로 련결된 이 생명선을 끊어버리려는것이 분명했다. 그때문에 천리나 먼 남쪽으로 남하해온것이였다. 혹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침투한 별동대일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종적을 감춘 련대와 함께 저지선의 다른 련대들까지 진출한다면 맥아더의 《제한공세》는 목조르기를 당할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8군사령부는 병력과 장비의 부족, 보급의 완만성때문에 전선이 허리를 펴지 못한다고 우는소리를 하고있는터였다. 그런데 그 보급로까지 잘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별안간 얼마나 무서운 재난이 박두했는가를 예감한 스테이지는 미극동군사령부와 8군사령부에 보낼 긴급전문을 쓰려고 마음먹었다. 여기서 그는 박두한 위험에 대해서며 침투한 공산군련합부대를 전선에 못지않게 중시하도록 경고할것이며 정예부대들의 투입을 강력히 요청할것이다.

그러나 막상 종이를 펴놓자 그는 이것이 자기의 무능에 대한 고발장으로도 될수 있다는 생각에 그만 손맥이 풀리고말았다.

도꾜사령부에 앉아있는 어중이떠중이들이 무어라고 하겠는가, 이제야 북조선공산군과의 싸움이 쟝글속의 게릴라들과 숨박곡질을 하던것과는 근본 다르다는것을 깨달은게라고 쾌재를 부르지 않겠는가, 또 밤낮 병력의 부족을 느끼는 맥아더는 그 얼마나 분노에 질려 고함소리를 지르겠는가！…

잠시 우두커니 앉아있던 스테이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때 일본인들의 취미대로 사꾸라꽃무늬를 새긴 퇴색한 주단우를 거닐기 시작하였다. 쏘파를 지나고 침대를 지나고… 침대머리맡에 놓인 원고에 눈길이 갔다.

《유격전과 신속반응책》

기록된 력사문헌들에서 그대로 옮겨쓴 허다한 자료들, 루손도의 경험… 서두는 오페라의 서곡처럼 장엄하게 시작되였으나 아직 끝을 맺지 못한채 먼지를 들쓰고있는 론문이였다.

그 론문의 한페지, 한페지를 마음속으로 더듬던 그는 갑자기 쏘파곁의 소탁자로 걸어가 탄약상자를 모로 세운것 같이 키가 껑충한 《제네랄 모터스》 회사제 야전전화기를 끌어당겨놓고 발전자돌리개를 세차게 돌렸다.

먼저 수화기에서 찌륵찌륵하며 공명판을 울리는 소음이 나더니 술에 헝클어진것 같은 녀자목소리가 어데를 대라는가고 물었다.

《작전부통신보좌관을 찾소.》

아마도 통신보좌관은 대부분의 밤시간을 교환대에서 보내는 모양이였다. 즉석에서 송수화기를 바꾸는 소음과 숨죽인 속삭임을 들으며 금욕주의자로 알려진 스테이지는 눈살을 잔뜩 찌프렸다.

《대좌님, 작전부통신보좌관 대위 이노크입니다.》

스테이지는 잠간 자기의 머리속에 떠오른 생각을 곱씹어보고 입을 열었다.

《명령을 기록하고 즉시 번역하여 무선으로 해당 부대들에 전하시오.》

잠시 여유를 주면서 그는 자기의 머리속에 정리되여있는 명령문을 다시 더듬어보았다.

《첫째, 〈국군〉수도사단수색중대들과 〈특공대〉를 출동준비시킬것. 발령이 내리면 즉시 전투에 진입할수 있도록 수송기재들도 만전을 기할것.》

이것은 있을수 있는 정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방책이였다.

《둘째,》 하고 그는 계속했다. 《각 부대들은 위수구역관내에 들어있는 일체 교량들에 대한 경비대책을 세울것.

셋째, 화수동포탄창고경비에 〈국군〉2사 31련대중화기중대를 증파할것.

넷째, 〈반유격대대〉는 즉시 활동을 개시할것.》

송수화기를 놓자 불시로 피곤이 몰려들었다. 0시 15분에로 줄달음치고있는 시계를 들여다보고 그는 잠자리에 드러누웠다. 어렴풋한 꿈속에서 그는 자기의 출중한 지혜와 어떤 경우든 급소를 찌르는 강도의 솜씨를 익힌 동남아의 섬들을 한바퀴 날고있었다. 그의 첫 출세가 시작된 루손도… 여기서 시체로 된 한 동방처녀의 가슴을 짓밟고 찍은 사진이 신문에 게재되였을 때 사진밑에 《나는 무상의 쾌감을 느낀다. 아메리카합중국의 번영은 이 군화발밑에서 마련된다.》라는 스테이지자신의 글이 써있었는데 이때문에 그에 대한 상관들의 주의가 집중되였었다. 결단성과 침착성, 랭정한 판단과 군사적교활성으로 동료들속에서 두드러진 스테이지는 과달카날섬의 일본군패잔병들 숙청에서 명성을 얻었다. 얼마후 그는 자기의 전용기를 타고 헨다슨공군기지에 내린 맥아더에게 불리워갔다. 그리하여 태평양전쟁 전기간 미군내 표창기록을 깨뜨린 미1해병사단의 하트훈장들중에는 스테이지가 맥아더에게서 직접 수여받은것도 들어가게 되였다.

《중위, 나는 당신을 기억해두겠소.》 훈장을 달아주면서 맥아더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건 결단성과 지혜에 대한 표창이요. 다음번엔 무자비성의 공로로 표창하게 되기를 바라오.》

거칠고 커다란 파이프를 물고 신문기자들의 말로 《사자걸음》을 하는 맥아더, 쌀쌀하고 거만하고 일부러 조잡스럽게 군복을 입으

며 자기의 의사가 곧 법으로 된다고 믿고있는 그가 바로 이렇게 말하였고 축복해주었다. 한때 《운명의 인간》이라고 자기를 부른 그 신경쇠약환자의 얼굴은 이지러들어있었고 좁은 이마우에 오른쪽으로 빗어넘긴, 어느덧 성깃성깃한 머리칼은 흐트러져있었다. 그는 무표정하고 쌀쌀했으나 매서운 눈길은 그가 언명했듯이 잊지 않을것이고 기억해둘것이라는것을 뚜렷하게 암시하고있었다.

신앙심이 강한 스테이지는 이것이 자기에게 열려진 운명적인 출구라고 생각하였다. 해병대군가에 《우리는 몬테슈에서 시작하였네》라고 되여있듯이 《나는 헨다슨에서 시작하였네》라고 웨쳐대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무자비성! 스테이지는 그 말을 곱씹어보았다. 그것은 바로 야수성이라는 의미를 좀 달리 표현한것으로서 스테이지가 태여나자부터 줄곧 마셔온 공기나 물처럼 아메리카합중국의 생존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스테이지는 한명의 유격대를 잡기 위하여 300여명의 부락민들을 몰살시키는데서 일종의 희열을 맛보면서 그것이야말로 양키의 생리라는것을 확신하였다. 드디여 스테이지는 대위로, 소좌로 재빨리 승진의 사닥다리를 올라갔고 도꾜에서는 마침내 두번째로 맥아더의 부름을 받고 그에게서 직접 대좌의 칭호를 받았다.…

이 밤따라 스테이지는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허덕이지도 않았다. 아니 그것은 호화로운 꿈이였다. 그가 제일 즐기는 화염방사기의 불줄기를 감상하고있었는데 그때 전화종소리가 그를 두들겨 깨웠다.

처음엔 그것이 기관총의 련발사격소리로 들렸던것 같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 소리가 키낮은 탁자우에서 울린다는것을 깨닫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안은 여전히 탁상등의 파르스름한 등갓색갈에 잠겨있었다.

스테이지는 한순간 흥분을 억제하면서 눈섭을 쥐여뜯었다. 틀림없이 8군사령부의 독촉이다.

송수화기를 들자 성급한 고함소리가 귀청을 두드렸다.

《대좌님.》

《나요.》

《대좌님, 방금 공산군이 화수동포탄창고를 폭발시켰습니다.》

《？…》

별안간 급소를 찔린것처럼 스테이지는 흠칠했다. 수화기를 내려 들여다보기까지 했다. 손에 든 수화기에서는 징징거리는 목소리가 계속 《대좌님》을 소리쳐 찾고있었다.

가까스로 숨을 돌리고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

《폭발이라니 무슨 소리요？》

《방금 폭발이 있었습니다. 재가루만 남았습니다. 대좌님！》

그의 손에서 송수화기가 미끄러져내렸다. 귀전에서는 계속 《포탄창고》, 《폭발》 하는 웨침소리들이 되풀이되였고 흐릿해진 눈앞엔 황이 든 가랑잎이 너펄거리며 맴돌아치고있었다.

미8군의 작전적예비대들에 공급할 막대한 수량의 포탄들이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가버렸다는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허지만 벽력같이 울리던 그 목소리는？…

그는 무너지듯 쏘파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수 있는가？ 정예부대의 위수구역관내에서, 그것도 화력의 요새로 장비해놓은 그곳에 어떻게 감히 공산군들이 뚫고들어갈수 있었는가？

복도에서 어슬렁거리던 가랑잎이 이제는 침대우에서 훌쩍훌쩍 뜀질하는듯하였다.

그는 멍하니 두툼한 론문이 놓인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명성과 그의 승진을 담보해주리라고 믿고있던 론문…

《유격전과 신속반응책》

지금도 그는 모기떼 욱실거리는 헨다슨공군기지의 한밤에 써넣었던 글줄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게릴라부대들에 대한 공격에서는 아메리카독립전쟁시기에 반란군이 활용한 기습전들과 지난 대전의 력사적경험들을 자주 상기하는것이 유익할것이다. 그것은 소여전투에 앞서 누가 먼저 선손을 쓰는가 함에 따라 전투의 종국이 결정된다는 명백한 증거로 되는바…》

결국 스테이지는 자기가 언제나 주장해왔던 그 단순하고도 명쾌한 론리—즉 선손을 쓰는것이 전투의 종국을 결정한다는 귀중한 경험을 먼저 적이 사용했다는것을 깨달았다.

(선손을 썼구나. 그리도 날쌔게！…)

이렇듯 빨리 타격이 가해지리라고는 상상도 할수 없었다. 지

난 대전의 경험은 요새화된 진지를 기습할 경우 면밀한 정찰의 선행과 별동대의 조직 그리고 수십일에 걸친 모의훈련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틀전에 저지선을 뚫고나온 이 공산군이 언제 정찰을 하고 언제 공격을 준비했단말인가. …

별안간 스테이지는 벌떡 일어났다. 자기로서도 무엇을 하려는지 딱히 결심하지 못하면서도 하여튼 옷을 껴입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시 그대로 굳어지고말았으니 그것은 또다시 전화종소리가 울린때문이였다.

신경을 쥐여뜯기라도 하는듯 마디마디 끊어질듯말듯하며 몸부림치는 소리였다.

그는 엷은 입술을 악물고 줄에 매달린채 데룽거리는 수화기를 더듬어잡았다.

《대좌, 소식을 들었소?》

그것은 뜻밖에도 미해1사의 작전관이였다. 스테이지는 우정 졸음에 취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포탄창고말이요? 금시 전화를 받았소.》

《오, 역시 얼음장같군. 그래 8군사령부엔 보고했소?》

《이제 하지. 아니, 래일 해도 되오.》

스테이지는 천천히 숨을 돌려가며 목소리를 다듬었다.

《대좌, 위수구역관내 일체 부대들을 출동시켜야겠소. 포탄창고를 기습한 공산군이 빠질수 있는 모든곳을 봉쇄하시오. 일체 도로와 다리만 장악해도 놈들은 포위속에서 빠지지 못하오!》

이미 리성을 회복하고 랭정해진 스테이지는 그다음 통신보좌관을 찾아 주변의 경찰무력을 비상소집할데 대하여 명령하였다.

《차후임무는 내가 주겠소.》

송수화기를 놓자 급히 원탁을 마주앉아 지도를 폈다. 웬일인지 아까는 그처럼 생생한 화폭으로 안겨오던 지도가 낯설고 리해하기 어려운 설계도면처럼 느껴졌다. 그는 가까스로 화수동포탄창고 위치를 찾고 거기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려놓았다.

이제는 남하한 공산군의 목적이 그가 예견한것처럼 기본전선을 지원하기 위한 배후타격이라는것이 명백해졌다. 생명선과도 같은 보급로들을 장악함으로써 목조르기를 하려는것이다! 그러나 그렇게는 되지 않을것이다. 반대로 스테이지 바로 자기가 그들,

올가미속으로 들어온 공산군의 목을 조를것이다. 비록 선손을 빼앗기긴 했지만 결투는 이제 시작이다.

지도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공산군의 련합부대를 한개 련대씩 포위섬멸하기 위한 구상을 짜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또 전화종소리가 떨리듯 울어댔다.

《제길할!》

네모난 시계의 문자판을 얼핏 들여다보면서 그는 지금쯤 포탄창고폭발소식을 보고받았을 8군사령부의 전화일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짜르릉 짜르릉!… 쉴새없이 울부짖는 《제네랄 모터스》의 투박한 전화기를 노려보던 그는 천천히 송수화기를 들었다.

《대좌님!》

이번엔 포탄창고폭발을 알리던 아까의 목소리였다.

《포탄창고를 폭발한 공산군부대를 포위했습니다. 대좌님, 듣습니까?》

순간 그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대좌님!》

《듣고있소.》

《대좌님, 지도를 가지고계십니까?》

상대는 공산군을 포위한 위치와 부대들의 배치정형을 지도좌표로 알렸다.

《좋소. 날이 밝기전에 포위환을 바싹 조이시오. 한놈도 새나가지 못하게 하고 철저히 소멸해버려야 하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쏘파로 가서 앉았다. 조용히 사색하고싶었다. 자기의 머리속에서 번개치던 갖가지 생각을 세밀히 검토하고 정리하고싶었다. 그러나 얼마후 또 한바탕 전화종소리가 울렸고 나중엔 미해1사의 작전관이 달려왔다.

《대좌, 이게 웬일이요?》 작전관이 부르짖었다. 《공산군이 도처에서 기습하는데 이렇게 앉아있다니…》

《그래 또 무슨 소식이요?》

《방금 숙영중에 있던 〈특공대〉 두개중대가 공산군의 습격을 받아 몽땅 녹아났소. 또 저지선의 공산군련대들이 각기 방향을 달리하고 뚫고나왔다오. 통신보좌관이 지금 종합하고있소.》

스테이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해1사의 작전관에게 싸늘한 미

소를 지어보였다. 그 미소에 작전관은 어리둥절하여 한걸음 뒤로 물러서기까지 했다.

《대좌, 놀랄건 없소.》 스테이지는 여전히 미소를 지은채 말했다. 《이건 다 예견했던바요. 단지 생각했던것보다 더 빨랐을뿐이지…》

스테이지는 모자를 눌러쓰고 군복을 팽팽히 조여입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유격전엔 유격전의 형식으로 맞서는게 상책이요. 두고보오. 나는 그자들을 하나씩 각개격파할테요. 하나하나씩… 올가미를 걸어 매달것이요. 왜 믿어지지 않소? 벌써 올가미에 하나 걸려들었소. 자… 갑시다.》

3

《중대장동무, 우린 포위됐습니다.》

《뭐요?》

《…》

비로소 류성우는 련대장이 그처럼 강조하던것, 신속히 치고 그보다 더 빨리 빠져나오라고 한 명령을 어겼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말없이 엄기창을 노려보았다. 도수높은 그의 안경알이 먼 화광의 반사로 한순간 불덩이처럼 빨갛게 드러났으나 그가 고개를 돌리자 다시금 희끄무레해졌다. 류성우는 마음을 다잡으며 조용히 물었다.

《놈들의 력량은 얼마나 되오?》

《글쎄요… 총소리로 봐선 몇개중대 잘되는것 같은데… 허지만 계속 늘어나겠지요.》

예광탄의 불줄기들이 다투듯 날았다. 지나온 골짜기에서 무수한 전지불들이 번쩍거리며 무슨 신호를 주고받는것이 보였다.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시간이 흐를수록 위험은 더 커갈것이다. …)

시계는 1시 41분을 가리키고있었다.

《중대장동무.》 엄기창이 말했다. 《지금 놈들은 포위환을 크게 짓는것 같습니다.》

류성우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있었다. 놈들은 어느 한 고리라

도 끊어지지 않게 력량을 보강하면서 포위환을 서서히 조여 압착하려는것이였다. 어떤 로숙한놈이 이 포위전을 지휘하고있다는것이 명백하였다.

《정치부중대장동무, 후위를 맡아주오.》

류성우는 정면과 량옆에 경기사수들을 배치하고 척후를 강화하면서 중대를 전진시켰다. 먼저 유리한 지형부터 차지해야 했다. 추격해오는 적들에게 일제 사격을 퍼붓고 재빨리 숲을 나섰다.

그닥 가파롭지 않은 경사면을 내렸다. 무성한 잡관목을 헤치고 도처에 비쭉비쭉 솟아난 돌바위들을 타고 넘었다. 언제 꿰여졌는지 알수 없는 장화앞코숭이로 발가락이 내밀려있어 그것이 돌부리를 걷어찰 때마다 신음소리를 삼키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렇게 한동안 전진했다.

《련락병, 전지불!》

지도를 급히 펴들었다. 이미 수십수백번에 걸쳐 더듬어보았던 지형이였다.

갑자기 중대가 전진하는 산기슭에서 불빛이 번쩍번쩍하더니 뒤미처 사냥개의 울부짖음소리 같은 륙공포들이 짖어대기 시작했다.

캥—캥—슈—슈—

나무우듬지들이 중등무이로 잘라져 떨어지고 언땅이 파헤쳐졌다. 쪼각쪼각 흩어진 흙덩이들이 어깨를 때리고 무릎우의 지도를 찢어놓았다.

수류탄련발사격과도 같은 륙공포사격—이제 그것이 개활지대에 들어선 중대를 모두 쓸어눕힐수 있다. 류성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놈들을 짓뭉개버리고 맞은편 높은 산으로 오를것을 결심하였다.

전체 중대가 산개대형 그대로 산기슭에로 쓸어내려갔다. 그곳에는 금방 자동차에서 뛰여내리는 경찰들도 있었다. 산기슭 발경사지에 전개한 박격포중대와 경찰들을 향해 수류탄벼락을 들씌우고 중대는 계속 맞은편 산에 붙기 시작했다.

굵은 가지들을 맘껏 펼쳐든 활엽수들이 가득 들어찬 릉선에 올랐다. 여름 한철이면 해빛도 스며들지 못할 수림이 릉선에 펼쳐졌고 산턱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역시 키높은 소나무들이 자랐는데 바위벽으로 둘러막힌 산의 저쪽 사면만은 잡관목들이 들어차있었다.

성급한 구령소리들이 다시금 날아다녔다. 소대와 분대들이 지

형지물을 골라가며 진지를 차지했다.

2시 07분, 눈발은 점점 굵어졌다.

《중대장동지！》

방성화분대장이 달려왔다.

《문기가 위급합니다.》

그를 따라 달려가보니 문기는 다시 의식을 잃고있었다. 숨소리조차 없는듯했다. 그의 가슴에 손을 얹자 심장의 고동이 극히 미약하게 느껴졌다.

뒤미처 달려온 련락병 배다운이 전지를 비쳐주었다.

《위생지도원.》 하고 류성우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시작하오. 모든건 동무에게 달렸소.》

《？…》

한 위생병에 불과한 그가 무엇을 할수 있으랴. 허나 성우는 요구했다.

《왜 그러구 섰소？》

《알았습니다！》

《1분대장동무, 담가를 준비하오.》

류성우는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뒤따라 일어서는 배다운에게 그는 그대로 눌러앉아 도와주라는 의미의 손짓을 했다.

화락하니 젖은 군복이 점차 꽛꽛해지기 시작했다. 다시한번 전지불에 비추인 문기의 평온한, 마치 고요한 꿈결속에 잠겨버린듯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8분을 위하여 총탄의 불비속에 한몸 서슴없이 내댄 전사… 불시로 그의 고향 원소마을이 눈앞에 선히 그려지는것이였다. 매해 봄과 가을이면 기러기떼 무리지어 내려앉는다는 원소였다. 떼지어 날아오르고 날아내리며 나팔소리처럼 웨쳐대는 기러기들… 마치 성우는 그 푸른 원소며 그 기슭을 나란히 걷고있는 류문기와 애젊은 한 녀인의 자태를 보는듯하였다. 그것은 밤의 화토불가에서 문기의 이야기로 기억에 새겨진 장면이였다. 담담한 수채화처럼 그려진 화폭, 고향을 떠나는 목이 긴 의용군전사와 그의 뒤에서 다소곳이 머리를 수그리고 앞서가는 발자국을 따라걷는 애젊은 녀자… 밤의 화토불가에서 류성우는 그 녀자의 얼굴도 그려보았었다. 찬물로 씻어낸 어린 소녀처럼 발가우리하고 신선한 얼굴이였다.…

《저…》 하고 수집음 잘 타는 그 애젊은 녀인이 말했다 한다. 《이름을 뭐라구 지을낭기요?》

《무슨 이름?》

의용군전사는 얼떠름해서 되물었다.

《저… 애기이름말잉기요.》

《뭐?》

《…》

사람들은 가끔 자기의 가슴속에서 느닷없이 출렁이는 파도를 느낀다. 그것은 뜨거운 파도이다. 관자노리의 피줄에까지 밀려들어 툭툭 불거지게 하고 다치면 터질듯 용솟음쳐흐르는 억센 파도이다.

《아이, 왜 그렇게… 그렇게 자꾸 보지 마이소!》

《다시한번 말해보우.》 문기는 다급히 재촉했다. 《그게 정말이겨?》

《…》

난생처음 자기가 아버지로 된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 문기는 한동안 어리뻥해있었다.

《그럼 아들일가, 딸일가?…》

《아이 난 몰라!》

《모르긴! 아들이지, 나처럼 키가 크구 목이랑 쑥 빠진 아들이지뭐.》

《에그머니!》

이 모든 꿈과 사랑 아름다운 념원 그리고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 행복한 래일을 위하여 전사는 고향으로 가는 길을 열고 쓰러진것이였다.

불현듯 성우는 가슴이 옥죄여드는것을 느끼며 입술을 악물었다. 그는 여기서 중상당한 문기만이 아닌 백을 헤아리는 전사들의 귀중한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한것이였다. 중대와 더불어 빛나게 최후를 마칠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필요하단말인가? 그것을 위해 즉 개별적전사들의 영웅성이나 시위하려고 천리나 되는 적후로 온것은 아니다. 중대는 전선의 승리를 담보하는 한 디딤돌, 지탱점이다.

…그럼 어떻게 할것인가. 어떻게 력량을 보존하면서 포위를 뚫

을것인가?…

그때 산밀에서 탕탕거리는 기관총사격소리가 울렸다. 흔히 놈들의 비행기와 전차들에서 위력을 뽐내는 12.7미리 대구경기관총소리였다. 그것은 강력한 중화기 력량이 새로 나타났다는것, 그리하여 포위환의 고리는 12.7미리기총깍지처럼 억세게 이어졌음을 의미하였다.

《1소대장동무.》 그는 황히세를 소리쳐 불렀다. 《한개 분대를 좌측릉선에 더 돌려야겠소.》

황히세는 침울하게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했으나 례의 습관처럼 서둘러 달려가거나 성칼진 목청으로 어느 하사관을 웨쳐 부르지도 않고 잠시 지릅뜬 눈으로 마주보고있었다. 순간 성우는 《대원들이 헐치 않겠소…》 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은것 같이 여겨졌다. 아니 언젠가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스스럼없이 던진 그 말이 기억에 떠올랐다.

왜? 무엇때문에 그렇듯 지릅떠보는거요. 1소대장?… 나에게 아직 확고한 결심이 없고 결단성이 없다고 나무라는거요?… 이러한 생각이 그로 하여금 날카로운 어조로 말하게 했다.

《왜 그러구있소, 1소대장?》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같은 대답을 하고 황히세는 달려갔다. 그의 구부정해보이는 등어리를 바라보면서, 그가 암시해준것만 같이 생각되는 자신의 초조감에 빠진 무분별에 짜증을 내면서 성우는 중대배속중기분대장을 불러 1소대를 지원할것을 명령했다.

《탄통이 얼마 남았소?》

《없습니다. 탄띠에 물린게 전붑니다.》

《알겠소. 명령이 있을 때만 쏘시오.》

방성화분대장이 분대를 이끌고 달려가면서 부르짖었다.

《제길할! 아가릴 찢어놔야지.》

아마도 대구경기관총의 위혁스러운 웨침소리가 그의 분통을 터뜨린 모양이였다. 수류탄의 폭발과 함께 번쩍인 섬광이 방성화와 그의 대원들을 확 드러내보였다.

류성우는 기관총좌지엽에 웅크리고 앉아 열심히 전투정황을 살폈다. 흐트러진 연기기둥들이 솟아오르고 숲언저리로 도탄되는 탄알들이 날아갈 때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들을 고기비늘처럼

번쩍거리게 했다. 어데선가 또다시 박격포들이 포탄을 퍼붓기 시작하자 머리우에서 앙칼진 쇠소리들이 비명을 지르고 꽝—꽝! 하는 폭발음들이 고막을 찢었다. 가슴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치솟는 증오에 심장이 미여지는듯했다. 짓눌린 압박감과 금시 산산이 터져버릴것 같이 툭툭 몸부림치는 혈관의 경련이 머리를 들쑤셔놓았다.

(시간을 지체하면 전멸이다. 당장 포위를 뚫고나가야 한다. 당장, 당장!…)

또다시 도처에서 수류탄을 쥐여뿌리듯이 륙공포들이 캥캥거리며 섬광을 일으켰다. 그때마다 우듬지를 비좁게 맞대인 소나무들이며 키작은 떨기나무들은 영원한 화석처럼 어둠속에서 번쩍번쩍 찍혀지군하였다.

련락병 배다운이 달려왔다.

《중대장동지, 상처를 싸맸습니다.》

류문기에 대한 보고였다.

《의식은 차렸소?》

《아직 자고있습니다.》

아니다, 련락병! 그는 지금 생사기로에서 헤매고있다. 그를 구원할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수술을 하는것이다. 그런데 보다싶이 우린 포위속에 있다. 포위를 뚫지 못하면 문기는 물론 전중대가 최후를 맞게 될것이다.

(최후?!…) 별안간 성우는 뾰족한 송곳으로 머리를 찔리운듯 소스라쳤다. (최후라니, 중대장인 나에게는 그런 생각조차 할 권리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또 최후를?…)

갑자기 확 솟구친 불기둥이 주위를 밝게 드러냈다. 류성우는 그 순간 자기의 장화앞코숭이로 삐여져나온 터진 발가락에 눈길이 갔다.

《젠장, 이것도 기울새 없군.》

촉기빠른 배다운은 벌써 그것을 보고있었다.

《장화말입니까?》

《음, 판이 나거던… 아무때건 쇠줄같은게 눈에 띄거든 갖다달라구.》

《…》

련락병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둠속을 더듬어 꿰여진 장화를 살펴보면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중대장동지.》 그는 중얼거렸다. 《그럼 제가 이제 새걸루…》

《련락병, 무슨 소릴 하는거요. 됐소. 지금 그런걸 론할새 없소.》
젖은 눈발도 점차 맥이 진한듯했다. 가랑비로 시작된 그때로부터 눈발을 날리기에 이르기까지 불과 몇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시절의 온갖 재난은 다 겪는듯했다.
1소대가 차지한 우측릉선에서 드디여 전투가 벌어지자 류성우는 아마도 적의 포위환에서 제일 약한 고리라고 짐작되는 그곳에서 강한 타격을 가해보리라고 결심하였다. 그는 련락병과 같이 우측릉선으로 달려갔다.
《소대장동문 어데 있소?》
그는 벙끗벙끗 불꽃을 튕기고있는 전사들 곁을 달려갔다. 황히세는 진지 전방에 있었다.
《중대장동무, 여기 있습니다.》
류성우는 그가 의지한 바위곁으로 뛰여들었다. 그가 하는대로 련락병 역시 몸을 굴리며 엎드렸다.
《쥑일놈들!》 황히세는 이를 갈았다. 《교활하거던요. 시간을 얻어서 집게로 단단히 집어놓자는게지요.》
류성우는 그와 나란히 엎드려 산중턱까지 바싹 밀려온놈들이 무질서하게 총을 쏴대는것을 노려보았다.
《이건 놈들이…》 류성우는 말했다. 《력량의 일부를 공격에 내보냄으로써 우리의 위치를 확증하고 력량을 알아내자는거요. 시간을 끌면 위험한데… 소대장동무, 당장 뚫고나가야겠소.》
《중대장동무, 결심하십시오.》
황히세는 벌써 자동총을 거머쥐고 당장 달려나갈 태세였다. 그는 류성우를 향해 성급하게 머리를 돌리며 계속했다.
《우리가 주저하고있다니 될말입니까. 당장 쳐내려갑시다. 그걸 나에게 맡겨주시오!》
류성우는 그를 쳐다보았다. 비록 얼굴표정은 알수 없었어도 좀 과격하다 할 정도로 거칠고 위압적인 성격이 그 급격한 동작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아마도 그것은 중대의 기상일것이다.
《우리가 주저하다니 될말입니까?》
황히세의 그 부르짖음은 용감성과 위훈으로 긍지높은 중대의 웨침일것이다. 바로 이 사람들, 이 중대를 류성우는 포위속에 빠뜨렸다!… 포위, 포위!… 류성우는 입술을 악물었다.

《소대장동무！》

그러자 벌써 황히세는 눈내리는 하늘을 향해 자동총을 힘껏 추켜들었다.

《중대— 돌격준비！—》

그 고압적인 구령소리는 포위된 력량이 대대무력임을 적에게 알리는것이였다.

《돌격앞으롯！—》

전투원들은 일시에 함성을 지르며 키높은 나무들이 들어찬 비탈면을 뛰여내렸다. 이러한 총창부림을 제일 겁내는 적들은 숨어있던 나무그루나 바위결에서 일시에 뛰쳐나왔다. 사방에서 우지끈지끈 하는 소리와 몸서리치는 비명소리들이 총탄의 울부짖음속에서 간간이 들려왔다. 수류탄이 터질 때마다 충혈진 눈을 부릅뜬 적병들의 무섭게 질린 낯짝들이 환히 드러나군했다. 그러나 비탈진 경사면 아래에서 전투원들은 더 전진하지 못했다. 이미 대기하고있던 적들이 화력을 집중하여 총탄을 퍼부은때문이였다. 적들은 단지 중대가 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려는것이 최대의 목적인듯 무턱대고 총탄의 장벽을 만들고있었다. 돌파의 첫시도는 좌절되였다.

…중대가 차지한 산을 둘러싸고 수십개의 화토불들이 타오르고있었다. 적들은 야간의 부질없는 공격을 중지하고 중대가 빠질수 없게 포위환을 든든히 이어가면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고있는것이였다. 이따금 긴 련발사격소리로 적들은 신호를 주고받고있었다.

류성우는 적들이 한숨 돌리는새에 중대를 휴식시키면서 장기전을 준비하는듯한 인상을 주려고 령마루와 릉선마다에 적들처럼 불을 피우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어떻게 하면 한순간의 강한 타격으로 포위환의 한 고리를 끊어버릴가 하는데만 골몰했다.

3시 20분, 이제 두시간후면 날이 밝기 시작할것이다. 또다시 분과 초들이 살같이 지나가고있다. 그 순간 순간이 중대를 위기에로, 파멸에로 이끌어가고있음을 생각할 때 성우는 심장의 압박감으로 피가 멎는듯하였다.

칼날같은 새벽의 랭기가 꽛꽛하게 얼어드는 군복섶으로 스며들기 시작하였다.

어둠속에서 전투경계진지들을 돌아보는 황히세소대장의 투박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거게선 뭘 수군거리오？… 교대로 자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소대장동지.》
《무슨 못난 소리！… 누구요, 상필동무요？ 동문 벌써 신경이 약해졌어？》
《아닙니다, 소대장동지.》
《그럼 왜？ 중대가 포위됐다구？ 그런데 어쨌단말인가！》
그러자 상대는 낮은 목소리로 무어라고 중얼거렸는데 얼마후 여전히 퉁명스러운 황히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난 그런걸 질색해. 전쟁에선 마음이 바위돌같애져야 한단말이요. 알겠소？ 어서 잠이나 자라구.》
성급한 발자국소리가 가까와오더니 뚝 그쳤다.
《중대장동무, 경계근무를 더 강화할가요？》
성우는 그가 경계진지들을 다 돌아보며 필요한 모든것을 다 해놓았음을 알고있었다. 그가 묻는것은 다른것이였다. 그는 다만 류성우에게서 주저없는 대답, 명백한 지적 그리고 자기 력량을 믿는 엄격하고 날카로운 명령을 기다리는것이였다.… 허나 지금 류성우가 황히세나 그의 잠못드는 전사들에게 무엇을 명령할수 있으랴. 마지막 결사전을？ 아니면 또다시 확신이 없는 돌격명령을？…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돌격준비！》 하고 날카롭게 웨친다면 전사들은 등골로 흐르는 전률에 몸을 떨고 숨소리를 죽여가며 성급히 총자루를 거머쥘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전체 중대는 하나의 날창처럼 굳세고 서리차고 무자비하게 벼려질것이다. 이렇듯 가장 어려울 때나 절망적일 때나 지휘관의 엄격한 명령은 전사들을 각성시키고 분발시키는것이다.
《1소대장동무.》 하고 성우는 조용히 말했다. 《좀 쉬오. 내가 돌아보겠소.》
황히세는 거칠게 숨을 내뿜더니 별안간 아주 갈린 목소리로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가버렸다. 어쩐지 등어리가 굽을사해진것 같은 황히세의 뒤모습이 류성우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용맹한 소대장, 그 어떤 위험한 고비에서도 굴할줄 모르며 앞장서 돌격로를 헤쳐나가기에 준비된 그에게 아무런 명령도 주지 못한것이였다.
…어느 한 화토불에서는 정치부중대장 엄기창이 허리를 잔뜩 굽

히고 무엇인지 쓰고있었다. 류성우가 다가갔어도 머리만 약간 돌렸는데 그것은 늦어진 눈송이들이 책장우에 곧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것이였다. 그는 중대장을 향해 히쭉 웃고는 또 종이장에 안경을 바투 가져가면서 써나갔다.

어떤 쓰라린 허무감이 성우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순간이 생명처럼 귀중한 이때 중대장이 의탁할 유일한 정신적기둥이 되여주어야 할 정치부중대장이 무사태평하게 퍼더버리고 앉아서 글을 쓰고있는때문이였다.

화약가스처럼 쓰리게 그리고 숨막힐 지경으로 가슴속에 서려드는 야속함을 숨기려 하지 않고 성우는 물었다.

《뭘 쓰시오?》

퉁명스러운 목소리였다. 그러자 엄기창은 고개를 돌리며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보다싶이 전투기록장입니다.》

《?…》

엄기창은 다시 페니실린병의 먹을 찍었다. 꽁다리연필 뒤쪽에 펜촉을 대고 실로 찬찬히 매놓은 펜을 중대장에게 보이며 히죽 웃기까지 했는데 그것은 《보십시오. 이렇게 유치한 펜이긴 하지만 준엄한 력사를 기록하는데는 별로 불편이 없다니까요.》 하는 의미와도 같았다.

류성우는 거의 비애에 가까운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치부중대장동무, 그걸 지금 꼭 써야 하는가요? 좀 미루어도 되지 않을가요?…》

엄기창은 연필꽁다리 한끝을 잘근잘근 씹다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중대장동무?》

류성우는 말없이 그를 지켜보기만 했다. 그래 정치부중대장은 그걸 몰라서 묻는단말인가?… 그는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개의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쓰디쓴 환멸이였고 쓰라린 서글픔이였고 배반당한듯한 아픔이였다. 하여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정치부중대장동무, 지금 그게 무슨 필요가 있소? 그 무사태평함이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말이요? 중대가 포위에 들어 생사를 다투고있는 이때 그래 동무는 가슴이 뛰지 않는단말이요? 가슴이 터질지경인데도 동문 그렇듯 태연자약하단

말이요? 아니면 그저 그렇게 꾸미는거요?》
　마치 그의 마음속 이 부르짖음을 듣기라도 한듯 엄기창은 주의깊은 눈길을 그에게 돌렸다.
　《중대장동무!》
　이 한마디 부름이 다른 많은것을 대신하였다. 그것은 하던 말을 계속하라는 의미이기도 했거니와 중대장을 분개케 한 그 진정한 리유를 알고싶다는 뜻이기도 했다. 성우는 잠시 그를 마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시간이 없소. 당장 포위를 뚫고나가야겠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구?… 또다시 야릇한 반발감이 성우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그처럼 배포유하게 글을 쓰고있단말인가?… 그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엔 무거운 침묵이 한동안 계속되였다.
　《난 이렇게 결심했소. 내가 한개소대를 이끌고 돌파구를 열테니 정치부중대장동문 중대의 기본력량을 재빨리 빼돌려야겠소. 물론 한개 소대는… 그래서 만약의 경우 내가…》
　말이 잘되지 않았다. 엄기창의 손에서 종이장들이 발각거렸다.
　《가만 중대장동무.》 하고 그는 미안한듯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래일 마저 써야겠군요. 다 쓴담엔 중대장동무가 꼭 봐주십시오.》
　지그시 입술을 깨물면서 류성우는 가까스로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럼… 계속하십시오. 중대장동무, 만약의 경우엔?…》
　《…》
　왜서인지 성우는 그 말을 다시 꺼내기가 수월치 않다는것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자기와 한개 소대가 희생되는 경우를 의미하는것이였다.
　《만약의 경우…》
　문득 그는 입을 다물었다.
　(뭣때문에 나는 최후를 앞둔 사람처럼 비장한 감회를 기울여 이 말을 꺼냈는가?…)
　알수 없었다. 순간 무엇인가 명백하지는 않아도 기어이 시간을 앞당겨 포위를 뚫고나갈 이런저런 결심을 말하려던것들이 다 하찮은듯이 여겨졌다.
　이윽토록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있던 엄기창이 웅글게 말

했다.

《중대장동무, 결심하십시오. 중대장동문 어제 이렇게 말했지요? 우린 이제부터 하나로 숨쉬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한다구요.

중대장동무, 지금 우린 중대장동무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믿고있지요.》

다음 보다 절절한 음성으로 그는 계속하였다.

《믿고있습니다. 그럼은요. 우리에게 이 믿음조차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대는 중대장동물 믿고 또 중대장동문 우리를 믿고… 그래서 우린 막다른 궁지에 빠졌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것입니다. 보십시오. 중대전사들이 저렇듯 배심좋게 불을 피우는것도 다 그때문이 아닐가요? 나도 그래서 마음놓고 전투기록장을 정리할 생각이 다 났던게지요. 중대장동무, 아무리 위급한 정황이 조성된다고 해도 우린 중대장동물 믿고있습니다. 더우기 중대장동무야 경험 많은 정찰병이 아닙니까.》

거침없이 바라보는 엄기창의 눈빛엔 진정어린 믿음과 간곡한 당부가 들어있었다.

류성우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목덜미를 간지르며 눈송이 하나가 기여들었다. 머리를 들어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눈이 내리고있다. 푸실푸실 내리는 그 눈송이들로 하여 밤의 대기는 온갖 부드러운 음향으로 고요히 숨쉬는듯하였다. 류성우는 한껏 숨을 들이쉬였다. 불현듯 모든것이 단순하고 새롭고 수월하게 생각되는듯싶었다.

《중대장동무야 경험 많은 정찰병이 아닙니까!》

엄기창은 진정으로 자기의 절절한 심정을 말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여 나는 수십배에 달하는 적을 강타할 생각만 했는가?…)

《화력전?… 그래선 안되오. … 정찰병식으로 치시오!》

련대장의 말이였다.

류성우는 자기가 지금 정찰조를 이끌고있다면 의심할바 없이 가장 험한 비탈길로 벼랑을 내리는 길을 택하여 은밀히 빠져나갔으리라는것을 생각했다.

(이상한 일이다. 나는 왜 일찍 이 단순한 생각을 하지 못했을

가? 소수의 정찰병들은 수월히 빠질수 있어도 온갖 장구류를 가진 백여명 보병중대는 험한 벼랑길을 은밀히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미리 단정해버린때문일가?…)

불의적인 타격과 신속한 기동,때로는 전투를 기피할줄도 알고 은밀히 빠져나가기도 하는것이야말로 적후투쟁을 하는 보병중대의 전술적기초로 되는것이다.

그는 가방에서 지도를 꺼내자 불빛 가까이 꿇어앉았다.

《정치부중대장동무,이걸 좀 보시오.》 하고 그는 조밀한 등고선들로 그려진 지도의 한점을 꾹 찍었다. 《여긴 벼랑입니다.》

《좋군요.》

《몹시 험한데두요?》

《중대장동무가 있지 않습니까.》

《참,사람두…》

서로 마주보았다. 부둥켜안거나 감격적인 고무의 말은 비록 없었어도 그들은 말없는 침묵속에서 믿음과 신뢰를 서로 나누었다.

《엄동무,후위를 맡아주오.》

《그러지요.》

3시 30분이였다.

퍼붓는 눈을 가리며 가방속에 전투기록장과 먹단지 대용으로 쓰는 페니실린병이며 백절불굴의 싸움을 기록하는 사명을 지닌 꽁다리펜을 챙겨넣던 엄기창은 조금 서둘던 나머지 책짬에서 종이를 떨구는줄도 몰랐다.

《이건 뭐요?》

성우는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자 팔소매로 닦으며 불빛에 비춰보았다.

《무슨 편지같은데…》

《예.》

《집에서 온거요?》

《…》

류성우가 편지를 내밀자 잠시 물끄러미 그것을 들여다보던 엄기창은 조용히 말하였다.

《황히세소대장동무한테 온 편지입니다. 이미 중대전사들은 다 알고있습니다만… 가슴아픈 편지이지요. 누이한테서 보내온건데…》

류성우는 그가 불무지를 덮으려 하자 그것을 제지시켰다.
《놔두시오, 계속 피게.》
류성우는 소대장들을 불러 전투경계를 강화하면서 중대를 우측릉선의 비탈면에 은밀히 집결시킬것을 명령했다. 그것은 전체 중대가 바라던 그것, 엄격하고 타협을 모르는 명령— 그를 어길 때엔 가혹한 처벌도 있는 지휘관의 명령인것이였다.
화토불을 피울것, 담가와 부상병들은 보총수위치에 관계없이 대오의 중간에 세울것, 모든 분대들에서 칡줄 또는 배낭끈으로 바를 꼴것, 최대의 은밀성을 보장할것… 비록 사소한것 같지만 극히 중요한 갖가지 명령들이 소대와 분대들에 전해졌다. 모두 은밀히 그리고 서둘러 움직였다. 엄기창과 다시 둘이 남았을 때 류성우는 물었다.
《그래 어떤 사연이였습니까. 아까 그 편지말입니다.》
엄기창은 놀란듯했다.
《아니 지금이야…》
《왜요. 가면서 얘기합시다. 전 중대가 다 아는데 중대장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엄기창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물끄러미 그를 쳐다보았다. 류성우도 그를 지꿎게 마주보았다.
(왜 또 안경을 벗을 차빈가? 깐깐히 들여다보면서 입김을 불어 닦고… 아예 그놈의 안경을 멀찌감치 집어던지면 좋겠군. 버릇이 뚝 떨어지게!…)
그러나 엄기창은 단지 습관된 동작으로 안경을 바로잡았을뿐이였다.
《옳습니다. 중대장동무, 알아야지요.》
그들은 중대가 집결하고있는 험한 벼랑굽이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4

조강선련대장은 화수동포탄창고가 폭발되던 시각 3대대에 나가있었다. 그곳은 비록 포탄창고로부터는 멀리 떨어진곳이였지만 지형상 지대가 높아 폭발의 전경을 볼수 있었다.

폭발은 1시 17분에 일어났다. 처음 어둠에 잠긴 먼 구릉지대에서 물씬! 하고 불기둥이 솟구치더니 섬광들이 련이어 번쩍거렸고 잠시후엔 땅이 진동하면서 둔중한 폭음이 울려왔다. 버섯모양을 이루었던 불구름이 서서히 갈앉으면서 주변의 산봉우리들을 덮어씌웠다.

수천발의 포탄과 수백개에 달하는 휘발유도람통들이 일시에 폭발하여 솟구쳐오른 그 정경이야말로 거대한 화산의 분출에나 비길수 있을것이다.

《장하다!》 조강선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동무들, 장하다!》

련대장과 가까운곳에 있던 3대대 7중대전사들은 팔을 쳐들고 환성을 지르기까지 했다. 련대장 역시 소리내여 만세를 웨치고싶었고 류성우와 그의 중대원들이 가까이 있다면 허물없이 마구 얼싸안아주고싶은 심정이였다.

《련대장동지, 성공입니다!》 랭담하기로 유명한 참모장도 흥분을 못이겨 모자를 벗어들었다. 《우리 정찰병이 끝내… 날려버렸습니다!》

지진과 같은 진동, 섬광, 거대한 불구름!… 격렬한 폭발이 일으킨 이 모든 폭음과 걷잡을길 없는 땅의 몸부림이 그친후에도 화광은 사라지지 않았다. 산너머 저쪽 어느 골안에 용암의 호수가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어 불그레한 그 빛의 파도가 밤하늘에 비껴 일렁거리는듯싶었다.

바람에 내내가 실려왔다. 화약가스와 무엇인지 알수 없는 그을음내였다. 푸실푸실 내리는 눈송이들도 재티를 쓴듯이 여겨졌다.

흥분한 3대대장은 철다리폭파를 맡은 7중대도 당장 출발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일찍 있어보지 못한 장엄한 폭발전경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본 7중대전사들은 자기들이 맡고있는 대상물에로 한시바삐 가지 못해 안달아했다. 철다리는 멀지않고 또 새벽에야 거기로 군수렬차가 지나가게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몸이 꽁꽁 얼더라도 철다리가까이에 엎드려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였다.

《서둘지 말고 떠나오.》

련대장은 그들을 리해했다.

《성공을 바라오!》

충격적인 밤이였다. 얼마후 련대장은 1대대에서 《특공대》놈

들의 숙영지를 기습하여 단 몇분어간에 두개중대병력을 료정냈다는 보고를 받았다. 1대대에 나가있는 통신병을 통하여 대대장이 직접 보고한데 의하면 그들은 얼마전 진눈까비 퍼붓는 언덕을 기여올라 잠복과 순찰을 감쪽같이 제낀 다음 《수리개!》라는 구령과 함께 일시에 네개의 천막으로 달려들었다. 가장 날래고 대담한 병사들이 천막가운데로 뛰여들며 《기상!》 하고 부르짖었고 그 순간부터 잠결에 뛰쳐일어나는놈들을 무자비하게 족쳐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습격은 단 몇분어간에 300여에 달하는 주검을 남기고 끝난것이였다.

그러나 련대장은 이 모든 성공에 대한 기쁨이 아직 때이르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개별적 전사들,구분대들의 전투임무는 수행되였지만 련대장으로서 그는 이제 전투에 진입한것이나 다름없었다. 련대가 적후에서 활동하는만치 습격을 나간 구분대 혹은 소조들이 집결지점이나 정해준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엔 아직도 오랜 시간의 긴장한 사색과 엄밀한 작전이 요구되는것이였다.

특히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것은 화수동포탄창고의 폭발시간이였다. 포탄창고는 날아났어도 그것은 약속된 시간을 무려 17분이나 넘긴 뒤에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을가?… 어떤 우연이 지체시켰는가,아니면 예견치 못했던 정황에 부딪쳤는가?…)

심중의 불안은 무근거한것이 아니였다. 폭발이 있은후 한시간이 지났을 때 젖은 눈발이 날리는 어둠속에서 귀에 익은 말발굽소리가 울려왔다. 련대장은 이미 자기의 련락병을 차단조의 임무를 받은 9중대로 보냈었다. 그가 이렇듯 어둠속을 달려올 경우엔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것이 분명했다.

말투레질소리와 함께 말탄 기수가 익숙한 동작으로 뛰여내렸다. 련대장은 급히 그에게로 마주갔다.

《무슨 일이요?》

《련대장동지,8중대가 포위됐습니다. 지금 전투가 한창입니다.》

《뭣이?…》 련대장은 자기의 목구멍이 칼칼해지는것을 느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오!》

그러자 련락병은 손에 감은 말고삐를 풀면서 한걸음 더 다가섰는데 순간 어둠속에서 그의 작은 눈이 번뜩이였다.

《8중대는… 포탄창고로부터 4키로 떨어진 지점에서 전투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놈들은 중대와 전투를 벌리면서 한편으로는 일체 도로와 다리들을 다 차단하고 포위망을 좁히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련대장은 저도 모르게 입밖으로 스며나오는 신음소리를 씹어삼켰다. 어느새 놈들은 그처럼 많은 병력을 출동시켰는가? 마치 기다리고있은것처럼!… 어떻게 되여 놈들은 습격중대를 그리도 빨리 포위속에 걷어넣을수 있었는가?…련대장은 자기와 맞서고있는 스테이지란놈의 상판을 상상해보았다. 분명 그자는 교활하고 위험한 적수임에 틀림없었다.

《대대장동무!》 급히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련대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7중대를 곧 철수하시오!》

그다음 참모장을 불렀다.

《이 시각부터 예비대인 자동총중대와 3대대 7중대를 참모장동무가 직접 인솔하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날이 밝기전에 포위망을 뚫고들어가 8중대를 구원해야겠소. 3대대장동무가 9중대를 지휘하여 동무를 엄호할것이요!》

이것은 류성우가 포위된 중대를 제일 높은 산마루에로 급히 전개시키던 때의 일이였다. 그다음 포위를 돌파하려는 첫번째, 두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고 적아 쌍방은 도처에 불을 피우고 장기전을 준비하였었다.

…마음의 평온을 얻은 류성우는 엄기창과 나란히 걸으며 중대가 은밀히 집결하고있는 험한 비탈면으로 갔다. 엄기창은 지금 황히세에게 보내온 편지의 사연을 들려주고있었다. 단순한 편지의 사연이라기보다 소대장 황히세에 대한 자상한 소개이기도 했다.

광복전엔 목탄차의 조수, 광복후엔 어엿한 운전사로 된 황히세였다. 걸싸게 일한 결과 처음엔 표창장을, 다음엔 메달을 수여받았다. 남부러운것이 없었는데 단지 오붓한 가정만이 없었다. 그리하여 어머니나 다름없는 큰누이는 물론 동무들까지 어지간히 나이든 그에게 일욕심도 좋으나 이제는 가정을 꾸릴 때라고 권유했으나 왜서인지 황히세는 《그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키가 크고 좀 사납게 생긴 자기의 모양이 처녀들을 질겁시킬수 있다고 믿었던

때문에 애당초 선을 보러 가자는 권고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도 《일》은 닥쳐오고야말았다. 참다못해 누이가 견직공장 날염직장에서 일하는 처녀를 골라 선보인것이였다.
처녀는 옛말 그대로 달래각시같이 가리마를 곧게 타고 얼굴에는 약간 분까지 쳤다고 한다. 두손이 유별나게 빨갛던것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는데 후에 가서야 그것이 고운 물감을 천에 들이기때문이라는것을 알았고…
그날 처녀는 누이가 묻는 말에(황히세는 내처 입을 다물고있었기때문에) 대답하면서 한두번 고개를 갸웃이 들고 찌프린 그의 얼굴을 쳐다보고는 덴겁을 한듯 고개를 떨구군했다.
(내 어데가 잘못됐나?)하고 그는 당황하여 생각했다. (메돼지털같은 머리칼을 억지로 눕혀놨더니 또 들구일어났는가?…)
거울을 꺼내보고싶었으나 땀을 흘리며 참았다. 두툼하고 뚝살이 배긴 손바닥으로 쓸어보았으나 머리칼이건 손바닥이건 다같이 거치른것이여서 대중할수 없었다.
누이가 몰래 물었다.
《어떠냐, 마음에 드니?》
다시한번 그는 당황했으니 그에게는 땀흐르는 괴로움밖에 없는것 같았다.
《내가 어떻게 알우? 누이 좋다면 나두 좋은가 하는게지.》
《원, 성미두…》
한달후엔 결혼식이 있었다. 그처럼 얼빤하게 보낸 하루가 그의 일생에는 다시 없을 그런 날이였다.
그리하여 황히세는 가정을 꾸렸다. 그것은 광복과 함께 그에게 차례진 행복의 보금자리였고 작은 세계였다.
안해는 소비조합상점에서 새 와이샤쯔와 이불장은 물론 남편의 취미에 맞는 작은 유리잔들도 사왔다.
오래도록 황히세는 남편이라는데 습관될수 없었으나 어쨌든 저녁이 되면 휴게실벽에 걸린 벽시계를 자주 훔쳐보게 되였다.
《참게, 좀 참을줄도 알라구. 신랑!》
동무들이 놀려대면 그는 눈섭을 치켜들고 덤볐다.
《오늘밤 좋은 영화가 있대. 이 코막고 답답한 맹추야!》
커다란 입이 버룩해서 이렇게 소리쳤는데 《좋은 영화》를 어

제 동무들과 같이 보았다는것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었다. 그것도 꾸며댈 구실이 없어 따라갔던것을.

행복한 날들은 빨리 흘렀다. 1년후에도 그는 벽시계를 훔쳐보는 버릇이 남아있어 동무들로부터 놀림을 받았는데 돌연히 전쟁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길지 않은 그의 생애에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안해를 대신하여 써보낸 누이의 편지로 알려진것이였다. 미국놈들의 폭격에 의하여 빚어진 그 참상이 믿어지기까지엔 실로 많은 날들이 흘렀다. 마침내 그는 그지없이 온순하고 다정했던 자기 안해와 돌도 채 못된 어린것이 무참하게 살해되였다는 사실에 습관되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원쑤들에게 가차없었다. 전투시에는 그의 육체를 이룬 매개 세포가 증오로 불타는듯하였다.

…엄기창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우는 황히세가 그토록 사납게 《죽여라!—》 하고 부르짖으며 적진으로 달려들던 그 맹혹한 증오심과 결단성에 대하여 깨닫는듯하였다. 아마도 엄기창은 이런 지휘관,병사들로써 이루어진 중대라는것을 다시 강조하고싶어 말을 꺼냈을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어떤 난국도 헤쳐나갈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싶었을것이다.

전중대가 험한 비탈면에 집결하였다. 어둠속에서 긴장한 눈빛들이 번뜩이였다. 속삭임소리와도 같은 구령들이 사라지자 자동총을 거머쥔 황히세소대장이 류성우를 향해 걸어나왔다. 발소리를 죽이느라고 애쓰는것이 알렸지만 그래도 그의 발자국소리는 대렬검열때처럼 요란스레 들리는듯했다.

《중대장동무,전원 집결했습니다.》

류성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황히세를 잠시 지켜보다가 나직이 말하였다.

《용감한 대원 두명을 선발하시오.》

…류성우는 권총을 꽉 부르쥐고 지도에서 익혀두었던 지형지물을 골라가며 중대를 험한 벼랑에 면한 비탈길로 이끌어갔다. 떠나온 릉선들에서는 임자 없는 화토불들이 기괴한 옛이야기에서처럼 소리없이 활활 타오르고있었다.

발자국소리는 물론 숨소리도 크게 내지 않고 대오는 전진해갔다. 부상병들도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를 삼켜야 했다. 적들의 잠복

이나 전방경계초소를 알아내기 위해서만 잠시 머물러서군했다.

야광시계는 4시 15분을 가리켰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우듬지들에서 차디찬 물방울들이 젖은 눈송이들과 함께 휘뿌려졌다. 뾰족한 가시들이 목덜미를 할퀴였다.

정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지만 류성우는 어린시절 고향의 뒤산에서(고향의 산은 언제나 뒤산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도 말라버린 가시로 허벅다리 종아리를 허벼주던 살맹이나무숲을 문득 생각했다. 그때엔 그 가지를 꺾어 회초리를 만드는것으로 분풀이를 하군했었다. …

급작스럽게 머리우로 불줄기가 날아갔다. 적들은 포위된 중대가 감히 빠질념을 말라고 엄포를 놓군하는것이였다.

류성우는 잠시 멈춰서서 적의 기관총 좌지들을 확증할셈으로 예광탄의 불꼬리들이 시작되는 어둠속을 쏘아보았다. 대오는 좀더 전진하였으나 다시 멎어섰다. 멀지않은곳에 적의 잠복초가 있을것이다. 흰수건을 들어 신호하자 황히세가 두명의 대원과 함께 소리없이 다가왔다.

말없는 명령과 대답이 오고갔다. 류달리 숨결이 거치른 황히세는 입안에 무엇을 틀어박고있었다. 세사람은 류성우가 손을 들어 가리킨 어둠속으로 소리없이 사라져갔다.

지리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성우는 온 신경을 모아 귀를 기울였고 눈알이 빠질 지경으로 어둠속을 쏘아보았다. 캄캄한 그곳에서 벌어지게 될 그 모든것을 련상하느라니 심장이 터질 지경이였다. 괴롭고 숨막히고… 이러한 체험들이 정찰병이였던 그에게는 얼마나 많았으랴. 의학에서 말하는 면역이 심리에도 작용할수 있다면 벌써 이제는 무사태평해졌으련만…

신경은 전류계의 바늘처럼 예민하게 움직였다. 문득 《헉!—》하는 소리를 들은것처럼 생각되였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기의 심장에서 울리는 고동소리와 시계의 초침소리가 뒤엉켜들리는것만 같았다. 그러나 황히세소대장이 어둠속에서 불쑥 나타나 《제꼈습니다!》 하고 보고했을 때 그는 그 목소리가 그렇듯 엄청나게 크게 울리는데 놀랐을뿐 안도의 기쁨도 성공의 흥분도 알지 못했다. 순간의 기쁨을 누릴 마음의 여유조차 그들에게는 차례지지 않은것이였다.

《로획한 경기로 점발사격을 하오.》

적들은 경계진지마다에서 차례차례 짧은 점발사격을 하였는데 그것은 《이상없음》, 《이상없음》 하고 순차로 보고하는것과 같은것이였다. 이 단순한 규칙을 어긴 순번외의 사격이나 차례를 미루는것은 사고가 생겼음을 의미할것이다.

황히세는 지체하지 않고 경기를 배허벅에 대고 사격했다.

따다당！—

귀속말도 저어하던 그들의 귀전에 울린 그 소리는 거의 벼락같이 귀청을 두드렸다.

《앞으롯！ 신속히 전진하시오！》

대오는 적이 경계를 소홀히 한 벼랑턱으로 신속히 전진해갔다. 이렇게 또 10분간이 흘렀다. 불시에 일여덟개의 조명탄이 솟아올랐는데 그것은 기습당한 잠복초에서 규칙을 어긴 사격이 있은 이후 또한번 대답이 없었던때문일것이다.

잠꼬대같은 소리들이 구령을 되받아치고 중기관총과 소총들까지 합세하여 간간이 떠들었다.

그 모든 혼잡과 총성들은 말없는 경계초소에 《대답하라！》, 《대답하라！》 하는 악에 치민 욕설같은것이였다.

정황을 살피던 류성우는 방성화중사를 불렀다.

《수류탄이 몇개 있소？》

《두개뿐입니다.》

《더 걷소. 두개 더！》

잠시후 류성우는 방성화에게 맞은편 산기슭의 기관총좌지—벙끗벙끗 불빛이 번뜩이고있는 지점을 가리켰다. 먼거리다. 그러나 수류탄 투척에선 소문난 방성화였다.

《자신있소？》

《해보겠습니다！》

수류탄 하나가 먼저 날아갔다. 얼마나 세차게 팔을 휘둘렀던지 뼈마디소리가 우지직！ 하고 들렸다. 번쩍！ 섬광과 폭음… 이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정확한 시사이다.

《명중！… 계속 던젓！》

다음 세개의 수류탄이 연거퍼 날아갔다. 련속되는 수류탄폭발은 소규모의 기습전을 련상케 하였다. 바로 이것을 류성우는 노렸다. 인민군대의 기습조가 적의 외따른 전방경계진지를 습격한

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마침내 적의 기관총진지들마다 그리고 일체 저격무기들이 《습격당한》 초소에 집중사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산기슭을 온통 뒤집어놓을듯이 퍼부어대는 불줄기들로써 류성우는 적의 배치상태를 재삼 확인할수 있었다.

《바줄을 준비할것！》

무성한 잡관목을 헤치고 재빨리 벼랑턱으로 다가간 중대는 일제히 바줄을 걸고 적들이 미친듯이 총을 쏘며 떠들어대는동안 벼랑을 미끄러져내리기 시작하였다. 부상병을 업은채 굴러나기도 했지만 다행히 전원 내렸다는것을 알자 비로소 류성우는 목구멍을 비트는듯한 갈증을 느꼈다. 그러나 한순간도 지체할수 없다. 벼랑굽이를 에돌아가니 그들의 눈앞에는 지도에도 없던 다리가 있었다. 류성우는 속으로 왜놈들이 만든 낡은 지도를 그대로 쓰는 적들을 저주하였다.

어둠속 저아래 깊은 골짜기에서는 세찬 물결소리같기도 하고 수림이 바람에 흔들리는것 같기도 한 솨—솨— 하는 소란한 소리가 끝없이 들려왔다. 골짜기를 가로 건네놓은 콩크리트다리는 음산한 협곡에서 루각처럼 사치하게 보였다. 다리 건너 대안엔 화토불을 둘러싸고 적병들이 서성거리고있었다.

(순간이 중요하다. 한순간이！…)

지금 적들은 《습격당한》 경계진지에 달려갈것이다. 그다음… 놈들은 감쪽같이 속았다는것을 알게 될것이고 악에 받쳐 추격할것이다. 그러나 그까짓것은 벌써 문제가 아니다. 이제 100메터쯤 되는 다리를 단숨에 뛰여건너 그것을 폭파해버린다면 다시 얼마간의 귀중한 시간을 얻게 될것인즉… 중대는 이미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말할수 있다.

《돌격준비！》

전사들은 짧게 토막숨을 내쉬였고 다음순간 총을 부여잡으며 허리를 움씰거렸다. 바로 그때 난데없는 전조등의 불빛이 협곡의 다리를 환히 비추었다. 한번 또 한번 길다란 불의 막대기가 어둠을 휘저으며 음산한 계곡과 다리를 확 비치군했는데 그러자 저쪽 다리 건너 굽인돌이에서 자동차의 부르릉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러자 맞은편 대안은 왁자지껄하는 웨침소리로 소란스러워졌다. 자동차

에서 뛰여내리는 적병들, 진지를 차지하라고 고아대는 장교들의 왜가리청들… 놈들가운데 어떤 예견성있는놈이 있어 방비를 소홀히 했던 구간에마저 력량을 증강하는것이였다.

류성우는 눈앞이 아찔해지는것을 느꼈다. 결정적으로 포위를 뚫고나갈수 있은 이 순간에 정황은 급변한것이였다. 그러나… 그는 입술을 악물었다. 이 한순간, 새로 증강된놈들이 완전히 전투태세를 갖추기전에 다리를 뛰여건너 대안의 한쪼각 땅이라도 차지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영 포위를 뚫지 못할것이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권총쥔 팔을 힘있게 내뻗쳤다. 그러자 전중대가 와!—하고 다리로 뛰여들었다. 미처 적들이 정신을 차릴 여유를 주지 않고 한순간에 파도처럼 밀고나가는 가운데 황히세소대장은 벌써 다리우의 보초를 덮쳤고 가장 빨리 나간 전사들은 대안의 적들속으로 뛰여들었다.

그 다음순간부터는 백병전의 총창부림이 시작되였다. 몸서리치는 비명소리, 두개골이 깨여지는 소리, 무섭게 웨치는 성난 목소리… 황량하고 음산한 밤의 어둠속에서 처절한 울부짖음소리들이 파편처럼 날아다녔다.

문득 둔탁한 중기관총의 련발총성이 휩쓸기 시작했다. 등성이우의 적들이 네편내편 가림없이 휘둘러대는것이였다.

《엎드렷!》

류성우는 날카롭게 웨쳤다.

《중기관총!… 나에게로…》

그 순간 그는 비틀거렸다. 참을수 없이 뒤틀리는듯한 역스러운 감각을 느끼는것과 동시에 팔꿈치뼈가 으깨여지는듯한 날카로운 아픔이 손바닥을 죽— 찢으며 줄달음쳤다.

《중대장동지!》

련락병 배다운이 그를 부축했다. 그때 몇개의 조명탄이 서슬푸르게 떨면서 솟구쳐올랐다. 조명탄의 불빛에 비추인 련락병의 얼굴은 밤의 눈더미보다 더 창백하고 싸늘하게 보였다.

《중대장동지!》

배다운은 몸을 일으키려는 중대장을 꽉 붙안았다.

《안됩니다, 중대장동지.》

《중기, 중기가…》

벌써 중기사수는 적들과 맹렬한 화력충돌을 벌리고있었다. 중기와 경기들이 맞불질을 시작했지만 적들의 화력이 너무도 맹렬하여 중대는 한치도 전진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렇게… 이렇게 끝장난단말인가？ 여기서 끝내…)

류성우는 배다운을 떠밀고 몸을 일으켰으나 다시금 손바닥을 찢는듯한 아픔이 가슴에서, 어깨부위에서 줄지어 훑어내렸다. 그때 련락병 배다운이 그를 붙안고 웨쳐댔는데 난생 처음으로 그는 목이 갈린듯했다.

《중대장동지, 저걸 보십시오. 우리 부대가… 지원입니다！》

악마의 기침소리같던 미식중기관총소리가 뚝 끊어지고 요란한 수류탄폭발소리가 거듭되는 가운데 함성이 들려왔다. 류성우는 손에 쥔 권총을 놓지 않으려고 련락병의 어깨를 누르며 허리를 폈다. 펑끗펑끗하는 섬광속에서 돌격해오는 전사들의 자태가 드러나보였다.

…얼마후 류성우는 상처를 대강 싸매고 앞으로 걸어나갔다.

도처에서 전투의 열광이 식지 않은 전사들이 서로 붙안고 돌아갔다. 탄띠가 물린 미식경기를 둘러메고 달려가는 전사도 있었다. 류성우는 자기와 마주친 전사들에게 가끔 물었다.

《몇중대요？》

《7중대입니다.》

《몇중대요？》

《옛, 자동총중대 3소대…》

《누가 지휘했소？》

《련대참모장동지입니다.》

순간 성우는 걸음을 멈췄다. 련대참모장이 직접 중대들을 이끌고 달려왔다. 련대장이 그렇게 명령했을것이다. 급히 달려가 포위된 중대를 구원하라고！… 선뜻 걸음이 옮겨지지 않았다. 쓰라린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허비였다.

잠시후 그는 어깨를 감은 붕대가 드러나지 않도록 군복단추를 모조리 채우고 참모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벌써 그를 기다리고 또 찾고있은 모양으로 참모장은 서둘러 달려와 두손을 꽉 잡았다.

《수고했소, 중대장동무.》

지어 그는 상처의 아픔을 참느라고 연신 입술을 깨물고있는 성우의 팔을 마구 흔들기까지 했다. 잠시후엔 그도 시계를 보고 서둘

기 시작했다.

《부상병들이 많소?》

류성우가 수자를 불러가며 떠듬거리자 그는 팔을 내저으며 성급하게 말했다.

《즉시 후송하시오. 먼저 중상자들부터 후송해야겠소. 소대장을 한동무 붙이시오. 내 이제 지도좌표를 대주겠소. 깊은 골안에 밀영을 하나 꾸렸소. 그런데 누굴 책임지워보내겠소?》

류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마침 담가를 거들어주며 누구인가를 나무라는 황히세소대장이 보였다.

《황히세동물 보내겠습니다.》

참모장은 머리를 끄떡이며 동의의 뜻을 표시했다.

《이젠 빨리 철수해야겠소.》

그는 자동총중대장과 7중대장을 불러 신속히 철수할것을 명령하고 황히세에게는 부상병들을 위해 새로 꾸린 밀영의 위치를 지도에서 찍어주었다.

이렇듯 모든것은 다시금 평범하고 례사로와졌다. 피타던 격동도 류혈의 아픔도 단숨에 잊혀진듯하였고 그 누구도 비상한 사건들로 충만된 적후의 하루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듯했다. 이 모든것을 더듬으며 감회깊이 추억하기에는 아직 헤아릴수 없이 멀고 먼 싸움길을 더 걸어야만 했다.

출발구령이 울리자 대오는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흐르는 산기슭을 떠났다. 바쁜 걸음들이였다.

5

련대부로 꾸려진 반토굴집에 류성우는 앉아있었다. 사흘전 바로 이곳에서 그는 련대장에게 화수동포탄창고에 대한 정찰보고를 했고 보병중대장의 새 직무와 함께 전투명령을 받았다. 그때 여기 야전지휘처에서는 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표시되였고 제2전선련합부대의 사명과 결부된 무거운 책임이 어깨우에 지워졌었다. 그리하여 그는 세벽을 통나무로 쌓아올린 이 토굴을 나서서 자기의 무거운 책임을 수행하러 떠났다.

어려운 길이였다. 기관총들이 귀따갑게 울부짖고 섬광들이 번쩍번쩍하며 악에 받친 웨침소리와 파편의 앙칼진 쇠소리들이 얼어붙은 대기를 갈가리 찢어놓는 길이였다. 그러나 그는 중대와 더불어 폭발의 불기둥으로 첫 리정표를 세웠다. 그리고 돌아왔다.

사흘전에 보았던 그대로의 토굴…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는듯 하였다.

통나무벽에 걸린 가방, 네모난 나무틀안에서 식어가고있는 불더미, 한쪽 구석에 놓인 무선기와 거기에 코를 박고 세상모르고 잠들어버린 무선수… 말안장이 놓여있던곳엔 참모장이 자기가 전장에서 들고 온 로획한 자동총을 세워놓았고 벽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군용밥통속에서 똘랑똘랑 울리고있었다.

허나 많은것이 달라졌다.

사흘전, 훈훈하고 활기에 넘쳐있던 이 반토굴지휘처는 긴장하고 팽팽한 분위기로 바뀌였다. 련대장은 축척 1:10만의 군용지도를 펴놓고 연필을 돌려가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있었고 참모장은 규정의 보고와 인사가 끝난 그 시각부터 격분에 찬 강한 목소리로 류성우를 다우쳐대고있었다. 어느덧 포위를 뚫고나왔을 때의 흥분과 격동이며 《수고했소. 동무들, 장하오!》 하고 웨치던 그의 모습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타협과 에누리를 모르는 엄격한 상관이 류성우와 마주선것이였다.

《그래 동문 중대장이요, 아니면 보통병사요?》

맨처음부터 참모장은 우드득우드득 손마디를 꺾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끓어오르는 격정을 기관총의 련발사격처럼 퍼붓고싶어진 때문인듯하였다.

《누가 도대체 동무한테 그런 무모한 모험을 하라고 했소. 그런 권리를 누가 주었나말이요. 그래도 우린 동무가 훌륭한 지휘관으로서 중대를 이끌어가리라고 기대했소. 그런데 동문… 뭐요? 폭발시간을 왜 지체시켰소?》

어찌나 끈덕지게 쏘아보는지 그의 꺾을수 없는 위엄과 날카로운 분개의 시선앞에서는 견디지 못할것 같았다.

《그래 폭발시간을 지연시킨게 얼마나 엄중한 후과를 가져왔는지 알기나 하오? 시간을 지체해서 중대가 포위에 빠졌지 중대가 포위됨으로써 또 련대에서 계획했던 많은 전투행동들이 혼란되였단말이요!》

류성우는 느닷없이 밀려드는 절망의 충동을 애써 누르며 참모장의 두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참모장동지, 저는 놈들의 중포를 그대로 두고 올수 없었습니다.》

류성우는 이것을 자기 방위의 목적이 아니라 총쥔 병사의 의무를 걸고 말했었다. 다음순간 류성우는 련대장이 지도에서 눈길을 들고 자기를 유심히 바라보고있다는것을 느꼈다. 무엇때문인지 알수 없으나 련대장은 말없이 일어섰고 다시한번 그를 눈여겨보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러자 별안간 뒤끓어오르는 심정에 사로잡힌 류성우는 열렬한 항변의 말을 쏟아놓고싶은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참모장동지, 만약 그걸 그대로 두고 나온다면 그 포가 어데로 가겠습니까. 과연 참모장동지라면 그대로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참모장동지라면 눈앞에 놈들의 중포를 보면서도 그대로 돌아섰겠습니까?… 바꿔놓고 생각해보십시오. 그가 누구든 그런 경우에 맞다들면 포를 까고야 돌아설것입니다. 비록 그자리에서 쓰러진다고 해도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지 마음속의 웨침이였으나 성우는 찌르는듯한 참모장의 눈길에서 자기의 끓어오르는 심정을 낱낱이 꿰뚫어보고있다는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불쑥 이렇게 말하였다.

《어쨌든 그건 까부셔야 합니다!》

《뭐라구? 그래서 포위됐는데도 응당한것으로 알고있소? 동문 적후활동에서 포위된다는것은 곧 죽음이라는것도 모르오?》

류성우는 숨결이 가빠져옴을 느꼈다.

(우리는 죽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포위를 뚫고 나왔다! …바로 참모장자신이 중대의 전사들을 부둥켜안고 《장하오, 장해!》 하고 웨치지 않았는가. 그리고 련대장 역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그의 심중의 목소리를 들은것처럼 참모장은 날카로운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동무가 한 보통병사였다면 표창을 받게 될거요. 허지만 중대를 책임진 지휘관이기때문에 동무에겐 처벌이 마땅하오!》

그 어떤 거센 손아귀로 심장을 죄여대는듯 뒤틀리는 아픔이 경련을 일으켰다. 이제야 상처가 발작을 일으키는구나 하는 생각이 성우의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저도 모르게 이미 토굴에 들어와있던 련대장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련대장은 참모장의 호된 추궁이

나 류성우의 말없는 항변도 전혀 느끼지 못한듯 탁자에 다가앉자 연필을 손에 들고 지도의 한점을 꾹 눌러대는것이였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그 한점에 찍혀있는것 같았다.

불현듯 류성우는 자기를 중대로 떠나보내던 련대장의 모습이며 그의 목소리를 상기했다. 믿음과 당부, 아버지다운 념려, 기대, 확신… 그런데 지금 련대장은 아무말없이 지도의 한점을 응시하고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있는지 다는 알수 없었지만 성우는 지금 련대장이 아픈 마음을 누르고있으리라는것만은 명백히 깨달았다. 그러자 못견디게 추워났다. 난생처음 겪어보는듯한 오한이 엄습해왔다.

참모장의 격분에 찬 강한 목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항변의 부르짖음도, 분개의 신음소리도 더는 지르고싶지 않았다. 맹렬한 흥분도 사라졌다. 남은것은 적막한 기분과 추위에 대한 감각과 불안한 예감뿐이였다. 그는 련대장을 바라보면서도 그가 머리를 쳐드는 순간 눈이 마주칠가봐 두려웠다. 그러나 눈길을 옮겨갈 용기도 생기지 않았다.

마침내 련대장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어두운 표정을 하고 류성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류성우는 아직 한번도 련대장의 그런 눈빛을 본적이 없었다. 아픔, 비애, 사랑, 질책, 실망… 그처럼 어둡게 질린 그의 얼굴에 비껴있는 그 모든 표정을 주저없이 바라볼수는 없었다.

《성우동무.》 갈린 목소리로 련대장은 시작했다. 그것은 자식을 꾸짖는 아버지의 준렬한 음성이였다. 《동문 련대에서도 제일 용감한 중대에 중대장으로 갔소. 그런데… 나는 예비대까지 보내여 동물 구원했소. 그들에게도 중요한 임무가 있었소. 아니, 그때문에 동물 추궁하는게 아니요. 동무를 중대장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했는가? 중대에 억센 날개를 달아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소? 왜, 새로 온 중대장을 좀 보라! 하고 으시대고싶었는가? 아니면 공훈을 세우고싶었소? 그래 포를 까지 않고는 돌아설수 없었다구?… 어째서 그 포뿐인가? 그런 〈화수동〉은 수십수백개나 있소. 그래 동무혼자서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 깨버릴수가 있어?》

류성우는 점차 숨이 막히는것을 느꼈다. 그것이 참을길 없는 상처의 아픔때문인지 아니면 미여지는듯한 가슴때문인지는 그자신

도 알수 없었다.

《동무가 그런것도 가려보지 못할줄은 몰랐소.》 련대장은 계속했다. 《우린 설사 더 싸우고싶은 때에도 필요하다면 제때에 물러설줄 알아야 하오. 지어는 놈들보다 우세한 때에조차 전투를 기피하고 퇴각할수도 있는거요. 항일유격대식이라는걸 알아야지. 적들의 깊은 소굴속에 들어와있다는걸 언제든 잊지 말아야 하거던.》

별안간 그는 아주 낮은 음성으로 류성우를 찌르는듯한 눈길로 마주보며 말했다.

《우린… 필요하면 죽어야 하오. 그러나 그런 때가 있는것이야. 아직은 결사전을 벌릴 때가 아니거던… 그런데 동문 중대를 벌써 포위속에 밀어넣었소. 8분에 쳤으면 그보다 더 빨리 빠져나오라고 했는데 어물거리다가 중대를 다 죽일번했어. 중대장의 객기가 어떤 후과를 가져왔소? 그런 무모한 영웅심이 누구한테 무엇때문에 필요한가?… 그렇게 다 한꺼번에 영웅적으로 죽고나면 무엇이 남는가. 제2전선이라는 무거운 임무는 누가 떠메겠소. 련대장 혼자서?…》

련대장의 어성은 비록 높지 않았으나 그 묵직한 쇠소리는 곧장 가슴속으로 뛰여들어 흉벽을 두드리는듯싶었다. 가슴은 세찬 진동으로 뒤흔들리다 못해 빠개여지는듯했다.

련대장의 이 말은 오늘 비로소 한것이 아니다. 어제 화토불가에서도 했었다. … 류성우는 자기가 지휘하는 전사들, 그의 구령에 따라 기여가고 엎드리고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는, 보통 대렬에서는 번호로 불리우는 그 전사들의 어깨우에도 제2전선의 임무가 꼭같이 지워져있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되새겨보았다.

《너는 지금 한 보총의 무게가 아니라 혁명을 떠메고 간다는걸 알아야 한다!…》

나어린 소년중대원에게 하신 장군님의 이 말씀의 참뜻, 그 깊은 의미가 새롭게 안겨오는것이였다. 그런데 그는 이처럼 거대한 책임을 걸머진 전사들 백여명을 포위속에 빠뜨린것이였다. 한 중대장의 무모한 영웅심때문에 제2전선의 한 지탱점이 무너져버릴번한것이였다. …

천정에서 물방울이 손등에 떨어져내리는것도 그는 느끼지 못했다. 싸늘한 안개가 사위에서 소용돌이치면서 그를 휘감아 어데론가 밀어던지는것만 같아 이발을 사려물고 앙버티였다. 문득 무서운

동통이 그를 휘여잡았다. 그는 누군가 토굴로 들어선것도 알지 못했다.

《련대장동지, 담가소대 부소대장… 명령대로 왔습니다.》

련대장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류성우를 가리켰다.

《이 동무요, 지난밤 포탄창고를 날려버린 8중대장동무요.》

어지간히 나이든 특무상사가 류성우의 곁으로 다가왔다.

《중대장동무, 떠납시다.》

《?…》

류성우는 놀란 눈길로 특무상사를 돌아보았고 다음 날카로운 의혹심을 품고 련대장에게 시선을 옮겼다.

《동무를 후송해야겠소.》

《예?!》

성우는 벌떡 몸을 일으키고싶었으나 이제는 마음대로 몸을 가누기는커녕 꼼짝하기도 어렵다는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러자 저도 모르게 힘껏 입술을 깨물면서 신음소리처럼 부르짖었다.

《련대장동지 전…》

《가만있소. 고집불통같으니.》

련대장은 짙은 눈섭을 잔뜩 찌프리며 특무상사와 같이 그를 부축하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이건… 처벌이요!》

침울한 눈빛들이 류성우를 바라보고있었다. 중대는 중대장의 뜻하지 않은 부상을 커다란 아픔으로 느끼는것이였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수 없으나 모든 전사들은 벌써 자기네 중대장이 호된 추궁을 받았다는것까지 알고있었다.

류성우가 후송되기전의 중대는 이렇듯 무거운 기분상태에 잠겨있었다. 전사들은 후송되여가는 중대장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있었다. 침울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류성우는 자기의 가슴속으로 송곳처럼 들여박히는 날카로운 아픔을 느끼였다.

불과 얼마전에 용맹한 중대장을 잃은 그들이였다. 그런데 불과 며칠후 그들은 또 새로 온 중대장을 어느 밀영으로 보내는것이였다.

(나의 부상은 그저 나 개인에 한한 문제만이 아니구나. 지금 중

대가 또다시 상처를 입고있구나！…)

류성우는 뼈저린 아픔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전사들을 둘러보았다. 다짐도 받았고 약속도 많았던 중대장과 병사들이였다. 그들의 의기를 북돋아주고 웃음을 짓게 할 무슨 말인가 하고싶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혼미해지는 의식을 가까스로 버티고있었다. 상처의 모진 아픔을 참으며 신음소리를 삼키기 위해서만도 혀를 깨물며 참고있는터였다.

련락병 배다운이 치료를 잘 받고 빨리 오라는 말을 속삭이더니 가는 쇠줄을 말아서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앞코숭이가 꿰여진 류성우의 장화를 작은 손바닥으로 재여보더니 가느다랗게 한숨을 내쉬였다.

《발이 영 작군요.》

실망에 잠긴 그의 표정과 영문을 알수 없는 그 말에 류성우는 나직이 물었다.

《련락병, 왜 그래？》

《아닙니다. 중대장동지.》 하고 그는 쓸쓸하게 말하더니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어쨌든 무슨 수가 있겠지. …》

류성우의 부상에 대하여 제일 괴로와하는것은 취사원 만복아바이 같았다. 그는 담가곁으로 다가와 중대장의 두손을 잡고 한동안 말없이 쓸어보더니 문득 목멘 음성으로 《나때문에 그만… 다 나때문에…》 하는것이였다.

류성우는 그의 주름 가득한 얼굴에 떠오른 형언할길 없는 고통의 그림자와 함께 눈가에 맺힌 한점 이슬을 보았다. 이것이 또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만복아바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요？》 하고 그는 가까스로 말을 이었다. 《그런 말 마시오. 우린… 끝내 성공하지 않았소！…》

담가소대의 특무상사가 시간이 급하다고 재촉해서야 그는 물러섰다. 마지막으로 가까이 다가온것은 엄기창정치부중대장이였다. 그가 내여민 손을 더듬어잡자 그 어떤 짜릿한 느낌이 온몸으로 파문지어갔다. 중대에 온 첫날 그에 대하여 품었던 불만과 련민의 정, 애석함과 같은것들이 상기되였고 포위속에서, 화토불앞에서 풀떡풀떡 뛰고있던 중대장을 태연히 마주보며 웃음짓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였다. 유별나게 굵은

목청만 아니라면 체소하고 지어 병약해보이기까지 하는 그의 모습은 전혀 알리지 않을것 같았다. 하여 류성우는 처음 만났을 때 앞으로 돌격구령은 정치부중대장이 맡아줘야 할것 같다고 우스개소리로 말했었다. 우스개소리였다.… 그때 류성우는 몸이 가늘고 턱도 뾰족한 이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마다 전사들의 마음속에, 중대장인 자기의 마음속에도 억센 구령을 불러주리라는데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중대장동무, 걱정 말구 어서 떠나십시오.》 엄기창은 근심스러운 낯색으로 류성우를 까근까근 뜯어보았다. 《안색이 좋지 않군요. 어서 떠나시오. 가서 치료를 잘 받아야겠습니다. 조급해말구…》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 어떤 형언할길 없는 뜨거운 애정이 치밀어올랐다.

《정치부중대장！》 하고 성우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동문 귀중한 사람이요. 나와 중대에 동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동문 알기나 하오？… 젠장, 아무것도 모르지. 도수높은 광학렌즈를 끼고있으면서도 고작 본다는게 뭐 안색이 좋지 않다구？… 내가 지금 무얼 생각하는지 알기나 하오? 어린애처럼 붙안고 꼬집어대면서 〈이 안경낀 바보야！〉하고 말해줘야만 알겠소？…》

가슴속에서 뒤끓는 뜨겁고 격렬한 물결이 목구멍으로 치솟아올랐다. 그럴수록 말은 한마디도 나가지 않았다.

《자 중대장동무,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손을 빼려는것을 류성우는 서둘러 꽉 잡았다.

《부탁하오. 엄동무！…》

류성우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념려 마시오. 중대장동무, 완쾌해서 돌아오십시오！》

담가는 떠났다. 련락병 배다운이 따라오면서 또 무슨 말인가 그의 귀전에 대고 재게 속삭였는데 그것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상처입은 자기의 상관과 아픔을 나누기 위한 시도인듯싶었다.

류성우는 눈을 감았다. 구역질과 비슷한 담가의 흔들거리는 충동, 가슴까지 압박하고있는 붕대, 가슴과 어깨쪽에서 끊임없이 흘러오는 진통… 얼마후 의식을 차렸을 때 그는 먼저 《물, 물！》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의 마음속 웨침일따름이였고 그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있었다.

얼굴 한쪽이 차츰 따뜻해지고 두눈은 무수한 바늘끝으로 침질하는듯했다. 가느스름하게 눈을 떠보니 벌써 태양은 머리우에 솟아있었다.

온통 눈의 세계같았다. 하늘에도 눈, 땅우에도 눈, 전나무가지에도 눈…태양의 눈부신 빛살과 등등 실려가는 흰눈의 세계는 바라보기에도 눈이 아플 지경이였다. 눈더미를 한아름씩 떠이고 서있는 소나무가지들사이로 솔새들이 깡충깡충 뜀박질을 하며 솔씨를 까고 있었다. 그것들은 이 아늑한 고요와 눈이 시도록 황홀한 설경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직 저네들의 드바쁜 일에만 열중하고있는 것이다. 결국 대오에서 떨어진 류성우, 그자신만이 고통스러운 자책과 착잡한 상념에 여념이 없는듯하였다.

《물, 물！…》

타는듯한 입술을 추기며 이번엔 나직이 부르짖었다.

담가가 멈춰섰다.

《좀 참으면 안되겠소？》

《참지요. 그렇지만…》 하고 류성우는 애원하듯 속삭였다. 《눈덩이 하나만 빚어주시오.》

경험많은 특무상사는 눈덩이 대신 그의 입가에 물통을 기울여주었다.

《조곰만 하오다. 조곰만！…》

몇모금의 물을 들이키니 가슴이 확 열리는듯했다. 좋다！ 견디여 보자. 내 어쨌든 오래있지 않을것이다.

6

범골이라고 부르는 깊은 골안에 임자 없는 산막이 하나 있었다. 류성우를 후송해온 담가대의 나이 많은 특무상사는 여기서 한때 벙어리포수가 살았노라고 말해주었다. 벙어리포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지방 사람들속에서 옛말처럼 전해지고있었는데 아주 오래전 그가 왜놈순사를 반주검이 되도록 때려눕힌 일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부터 생의 끝날까지 벙어리로 살아왔으나 신기하고 무시무시한 많은 일화들을 남겼다 한다.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이 골안에 무서운 범새끼들이 자라고있었다느니 포수의 사냥개는 승냥이 새끼를 길들인것이라느니 하는 등 보는대로 듣는대로 저마끔 덧붙이군해서 보채기 잘하는 아이들을 혼내우는 전설만도 무려 열한가지나 된다고 한다.

벙어리포수가 종적없이 사라진 때로부터 여러해가 지났으나 그가 살던 산막은 그대로 남았다. 크지 않은 살림방과 가죽을 이기는 작업대가 놓인 칸 그리고 창고로 씌였음직한 방까지 있었는데 이 훌륭한 산중의 초막이 지금은 중상자들을 위한 밀영으로 되였다.

부상병들을 위한 치료가 극히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고있어 련대장 조강선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경험을 살려 으슥한 골안들에 밀영을 설치하기로 결심하였는데 그 첫번째가 바로 범골에 자리잡은것이다.

류성우는 벙어리포수의 산막이 비교적 잘 꾸려지고 안착되였을 때 여기로 실려왔다.

쓸쓸하고 적막한 골안에 어스름이 깃들고있었다. 시인들과 가수들이 사랑하는 저녁노을도 뾰족한 산봉우리너머로 사라져가고 하늘에는 그것이 남겨놓은 어줍은 미소만이 흐트러져있었다.

류성우는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문기와 나란히 누워있었고 그의 머리말에는 중대장의 도착으로 출발을 연기한 황히세가 앉아있었다.

고통스러운 침묵이 계속되던 끝에 먼저 황히세소대장이 입을 열었다.

《참, 일두 더럽겐 됐지… 글쎄 상급준의동무가 뭐랍디까. 출혈이 심해서 중대장동무가 더 위독해졌다는게 아닙니까.》

벌써 세번씩이나 거듭된 말이였다. 황히세소대장은 중대장이 부상을 감추고 얼마나 더 견딜상싶었는가고 분개한 어조로 나무랐었다. 그는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분격을 다 쏟아버리고서야 떠날 태세였다.

《젠장, 내가 청맹과니였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야 미처 몰랐다 해도 중대장동문 뭣땜에 그런 쓸데없는 용기를 내나말이요. 그래서 얻어진게 뭐가 있소? 제때에 출혈을 멈췄어도 이 지경이야 안될게 아니우?… 내 정 그런줄 몰랐소. 사람이 그렇게 곧은목인줄은 몰랐다니까. 젠장!…》

그것은 거의 욕설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거칠고 투박한 황

히세의 그 《욕설》에서 자기의 전우, 자기의 상관을 아끼는 그 진정어린 마음을 느낄수록 류성우는 눈굽이 뜨거워졌다. 이런 사람들, 이처럼 솔직하고 순박하고 진정에 넘친 사람들을 그는 처음 어떻게 보았으며 어떻게 대했던가? 황히세뿐만아니라 류문기와 같이 자기 생명을 서슴없이 내던지기에 준비된 그런 전사들을 단지 겉으로만 보지 않았던가. 그리하여 만복아바이와 많은 전사들을 전투에서 떼여놓을 생각까지 하지 않았던가?…

《중대장동무.》 황히세의 말이였다. 《이제부터라두 고분고분 치료를 잘 받으시우.》

《걱정 말구 가보오.》

날은 빨리 어둡고있었다. 위생가방을 멘 상급준의 안혜순이 들어왔다. 그는 황히세소대장을 보자 약간 주춤거렸다.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황히세가 아무 대답없이 찌프린 얼굴을 돌려 외면하자 그 녀자는 위생가방에서 수류탄등잔과 성냥을 먼저 꺼냈다.

불이 켜졌다.

《중대장동무, 눈을 좀 붙이세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례사로운 인사말에 불과한것이였다. 안혜순은 청진기와 체온계 그리고 주사기까지 꺼내놓으면서 황히세쪽엔 전혀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류성우는 며칠전 중대로 가는 길에서 배다운이 들려준 말이 생각났다. 맵짜고 도고한 상급준의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황히세소대장이라는것이였다. 그런데 뭣때문에 무서워하는가에 대해서는 련락병도 황당한 소리를 했었다.

지금 상급준의 안혜순은 이 범골밀영의 책임자였다. 군의일군들이 부족한 실정에서 그는 단 한명의 간호원과 함께 11명의 위독한 상병자들을 치료하고있다.

(무엇때문에 무서워할가?…)

그러나 류성우는 이제 뜻밖의 오해가 생겨 이 과감한 상급준의에게 황히세가 무섭게 성을 내리라는데 대해서는 전혀 예상도 할수 없었다. 그것은 안혜순이 류문기의 체온과 맥박을 재고나서 무거운 안색으로 주사기를 가방속에 넣을 때 생긴 일이였다.

문득 황히세가 갈퀴같은 손을 뻗쳐 주사약암풀을 덥석 그러쥐였다.

《상급준의동무, 이걸 봐주시우.》

안혜순은 약간 놀라며 그의 팔을 밀어버리려 했다.

《지금은 필요없어요.》

순간 안혜순은 손을 쳐들며 움츠러들었고 저도 모르는새에 그 손을 입에 가져갔다. 류성우조차 그렇게 돌변한 황히세의 모습을 상상조차 못했었다. 좁은 이마우에서 언제나 실룩실룩하며 꿈틀거리던 숱진 눈섭이 잔뜩 꼬리를 치켜든채 까딱하지 않았고 그 눈길에서는 날카로운 적의가 번뜩인것이였다.

꽉 다물린 커다란 입이 점차 비뚤어져갔다. 그는 힘겹게 그 입을 놀려 속삭였다.

《상급준의동무, 이 동문 어제 전투때 경기를 어깨에 올려놓고 놈들의 기관총앞에 나섰습니다. 정면으로 화력충돌을 했단말입니다. 그런데 동문… 그걸 애꼈다가… 에익!》

암풀은 그의 손아귀에서 부스러지고말았다. 황히세는 번뜩이는 눈길로 그것을 내려다보았고 다음 손가락짬으로 줄줄 흐르는 물기를 씻어버리고는 벽에 세웠던 자동총을 집어들고 힁하니 걸어나갔다.

《소대장동무!》

두사람이 동시에 소리쳐 불렀다. 성우가 반쯤 허리를 펴는 순간 방등대에 세운 수류탄등불을 가로막으며 상급준의가 먼저 일어섰다.

《소대장동무.》 하고 그는 문곁에 멎어선 황히세를 향하여 입을 열었다.

《주사약이라고 아무때나 놓는건 안예요. 물론 저도 리해할순 있어요. 헌데… 가슴아픈건 소대장동무가 군의일군들보다 주사약을 더 믿는다는데 있어요.》

황히세는 입을 비뚤사하게 악문채 고개를 돌려 흘낏 쳐다보고는 그대로 나가고말았다. 돌쩌귀소리만 달그닥거릴뿐 방안은 짓눌린 적막속에 잠겨버렸다. …

한밤중이였다. 갑자기 머리끌에서 발끌까지 내려꽂히는듯한 전률에 류성우는 몸을 떨면서 깨여났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속에도 서서히 흐르는 뜨거운 물줄기가 감촉되였다. 이어 열병과도 같은 오한이 급격히 달려들었다.

그는 모포로 몸을 감싸고 귀를 기울였다. 밖에서는 횡포한 겨

울의 심술궂은 파괴행위가 진행되고있어 든든한 산막을 어떻게 하나 분질러놓을 태세였다. 상급준의와 간호원이 낡은 신문을 붙여놓은 문창지가 부릉부릉 떨면서 산바람의 위협에 항거하고있었다.

점차 어둠에 눈이 익기 시작하자 머리우의 서까래들도 하나하나 셀수 있게 되였다. 간벽건너 저쪽— 벙어리포수가 짐승가죽을 벗겨 손질했다는 넓은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은 살림방으로 쓰이던곳이다. 가마를 걸었던 자리에 넓다란 돌을 엎어놓고 방등대우엔 광솔가치들이 꽂힌대로 있다. 벙어리포수가 남긴 유일한 살림도구는 땜질을 하도 많이 해서 돌절구 모양이 된 질동이뿐인데 얼마전에 간호원처녀가 거기에 물을 채워넣었었다.

곁에 누운 문기가 여전히 아무런 기척도 없는것을 알아차린 류성우는 아픔을 참으며 돌아누웠다. 목과 옆구리,배허벅과 다리등에 무수한 총탄이 박힌 문기는 범골밀영의 제일 위독한 중상자였다.

성우는 귀를 도사려 그의 미약한 숨소리를 가늠해듣자 다시금 온몸의 근육을 움직여 자세를 바로 가지느라고 얼마쯤 신고했다. 그러자 그는 점차 역스러운 감각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출입문이 삐걱소리를 낸것 같았다. 캄캄한 어둠속에서 소년시절의 구슬픈 추억과 결부된 그을음냄새가 코를 찔렀다.

문밖에서는 또다시 호령소리같은 산바람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어둠과 추위는 한덩어리 구름처럼 쓸어들었고 뒤뜰에서는 나무가치를 뚝뚝 부러뜨리는 무거운 발자국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펑끗! 섬광이 눈을 때렸다. 아무런 폭음도 총성도 없었으나 사위는 온통 불길속에 휘감긴듯했다. 불길… 뜨거운 불길이다. 그 속에서 번개불이 펑끗거리자 무수한 불찌들이 쏟아져내리기 시작했다. 돌연 누군가 《포위다!》 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질렀는데 그것이 출입문밖에서 울려왔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성우는 벌떡 뛰쳐일어나 출입문으로 달려가며 부르짖었다.

《허튼 소리요. 누가 소리쳤어?》

출입문이 걸려있는것을 알자 손더듬으로 돌쩌귀에 비끄러맨 노끈을 풀다가 그만 발길로 차고말았다. 날카로운 아픔이 뼈속을 줄달음치는 순간 다시 놀라며 눈을 떴다.

《괴로와요?》

그 목소리는 섬광들이 번쩍이는 먼 하늘가에서 날아온듯싶었다.

방등대우에서 수류탄등불이 밝게 비쳐오고있었다. 그 불빛은 그를 마주앉은 상급준의 안혜순의 얼굴을 깎아지른듯 엄격하게 만들었고 그 녀자가 들고있는 주사기며 유리암풀에 빛을 모아 갖가지 빛의 파편들을 뿌려놓고있었다. 그것은 황히세소대장의 주먹속에서 산산이 깨여져나간 유리쪼각들처럼 서리차게 보였다.

류성우는 지금 몇시인가고 묻고 상급준의가 새벽 4시라고 대답하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안다. 군의복무일군들의 습관된 질서, 례사로와진 관심 그리고 항시적인 관심과 식솔 많은 가정의 어머니다운 근심, 코를 찌르는 소독수냄새며 채 아물지 않은 상처들에서 나는 냄새에 젖어있듯이 억눌린 정숙과 시름겨운 고달픔 속에서 자신을 잊고 살아가는 이들의 평범하고도 영웅적인 하루… 이것들을 떠나 군의일군들을 생각할수는 없는것이다.

폭! …암풀 깨치는 소리가 또 들렸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안혜순의 이 물음에 류성우는 핼쑥하니 여윈것 같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꾸했다.

《첫째로 군의일군들에 대한 생각을 했구 다음 둘째는 역시 같은 의미이지만 상급준의동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약간 주름잡힌 그의 입가에 가벼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주사를 놓으며 물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상급준의동무도 잘못을 저지르고 울 때가 있을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내가 독한 녀자여서 눈물도 없겠다는 말이겠지요?》

《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많지요.》

상급준의는 말없이 머리를 끄덕이더니 무릎우에 턱을 고이고 극성스럽게 그을음을 피워올리는 등불을 견주어보았다.

《이런 일이 생각나는군요.》 하고 그는 피로에 잠긴 목소리로 말하였다. 《금강도하전투때였는데… 문화부중대장이였던 한 중위동무가 전쟁판에 나선 군의일군의 첫째 무기는 랭정한 의지

이구 두번째 무기가 메스라고 하질 않겠어요. 그날 그 동문 복부에 심한 중상을 입구 쓰러졌댔어요. 내가 달려갔을 때엔 거의나 가망이 없더군요. 그런데 기막히게두 내가 파편을 뽑아내는새 위생가방이 직탄을 맞구 없어지지 않았겠어요. 글쎄 상처는 위독한데 소독약 한통, 붕대 한쪼박 없으니 어떡하겠어요. 중상당한 그 동무 앞에서 그만 눈물을 보였던것 같애요. 그러자 그 중위동무가 하는 말이 〈준의동무, 부상병들에겐 약보다도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준의동무가 됐소, 싸우시오 하면 그들은 정신없이 나가 싸울게구 준의동무가 눈물을 보이면 그들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더니 내의를 찢어서라도 처매달라지 않겠어요. 그 동문 그렇게 기여나가 끝까지 싸웠어요. …》

주사기등속을 챙겨넣으며 상급준의는 덧붙였다.

《그때부터 전 눈물을 경멸했어요. 전우들의 생명을 책임진 우리에겐 온순하고 무른 마음씨가 아니라 강하고 굳센 믿음만이 필요한것입니다. 난 지금도 그 중위동무의 말을 가끔 생각하지요. 〈준의동무가 눈물을 보이면 그들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옳은 말이예요.》

류성우 역시 그것은 옳은 말이라고, 믿음에 대한 훌륭한 표현이라고 말하고싶었으나 부지불식간에 입을 꾹 다물고말았다.

믿음! … 웬일인지 강직한 안혜순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한쌍의 검은 눈동자가 그려졌고 그러자 마음속 추억의 수평선에서 가슴아프던 지난날의 기억이 밀물처럼 파도쳐왔다. 그날, 그날! … 어떻게 되여 그날 그런 일이 생겼을가? 포장돌우를 찍어가던 여무진 구두발소리와 청높던 은하의 웃음소리가 귀전을 쳤다. 어떻게 되여 그런 일이 있었을가? 혹시 그것은 믿음이 없었던탓이 아닐가, 은하에게조차 변함없고 굳건한 믿음을 주지 못한 그때문이 아닐가?…

상급준의 안혜순이 나간 다음에도 그는 오래동안 뒤척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은하의 편지구절들이 떠올랐다.

《우리는 반드시 벗으로서…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 지금도 은하는 그를 믿고있는것이다. … 이상한 일이다. 돌이켜보건대 류성우 역시 믿고싶었다. 가슴속에 서려있던 불안과 의혹을 깡그리 털어버리고싶었던 그런 날이 있었다.

성우는 지금도 그날의 정거장을 생생히 기억한다. 준엄한 전선길로 떠나던 그날… 무수한 기발이 휘날리고 취주악대가 연주

를 했다. 우렁찬 기적소리조차 나팔소리와 한데 어우러졌다. 그날 성우는 가슴을 조이며 기다렸고 손을 흔들고 소리쳐 웨치는 무수한 군중속에서 정든 얼굴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렸다. 이제 은하가 먼저 류성우 자기를 발견하고 바삐 달려올것이며 무슨 편지와 몸조심하라는 등 당부의 말을 다급히 속삭이리라는것을 의심치 않았다. 그리하여 출발을 알리는 기적소리와 더불어 지난 며칠간의 의혹과 불신, 가슴아프던 기억들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릴것이였다. …

그러나 기적소리가 두번씩이나 울릴 때까지도 은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는 조급해진 시선으로 서둘러 사람들의 물결을 헤집어 살피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느덧 렬차는 세찬 증기를 내뿜으며 떠나기 시작했다. 이제 한순간이면 기차는 벌써 역구내를 멀리 벗어져나가고말것이다.

성우는 승강대의 맨끝에 나섰다. 저멀리 뒤늦게야 홈으로 뛰여나온 은하가 사람들속을 헤치며 어푸러질듯 달려온다. 안타깝게 팔을 내저으며 무어라고 소리치건만 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오직 그 녀자의 커다란 두눈, 샘물처럼 맑고 시원한 두눈만이 그리고 흩날리는 머리칼만이 확대되여 안겨온다. …

성우는 눈을 꽉 감았다. 다음순간 다시 눈을 번쩍 떴다. 있을수 있는 마지막 기대도 헛된것이였다. 그것은 다만 환영일뿐이였다.

승강대의 손잡이를 꽉 틀어잡으며 떠나온 역두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기발, 기발… 취주악대의 북소리와 차륜의 동음소리가 한데 뒤섞여 엇박자로 쿵쿵 가슴을 울려주었다. 원방신호기가 쏜살같이 지나가고 조차장을 가로지른 다리도 멀어져갔다.

은하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순간일망정 손을 내저으며 어푸러질듯 달려오는 그 처녀를 볼수 있었더라면…

그날의 서운하던 심정 그리고 자기의 의혹과 불신을 확증하기에 이른 그 아픔은 오래도록 가셔지지 않았다. 군용렬차에서, 습격을 앞둔 전호속에서, 위문편지를 고르던 수류탄등불밑에서…

그런데 뜻밖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편지를 받게 되였다.

《…우리는 반드시 벗으로서…》

타는듯한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심장은 뜨거운 아픔에 죄여들었다. …

7

한밤중이였다. 어데선가 지심을 흔드는 진동에 이어 웅글은 폭음이 쿵！— 하고 울려왔다. 동굴속에서 잠들어있던 은하는 소스라치듯 놀라며 밖을 내다보았다. 푸실푸실 젖은 눈발이 흩날리는 어둠속 저 먼 하늘가에 불그레한 화광이 비껴있었다. 지진과 같은 진동이 다시 또다시 굴벽을 흔들어놓았다. 잠에 취했던 진호마저 엉거주춤해서 굴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저게 뭔가요？》

그러자 불더미를 마주하고 몸을 웅크리고있던 리헌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무슨 화재겠지.》

은하는 덤덤히 화광이 비껴있는 하늘가를 바라보면서 그 어떤 포성도 전투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몸이 나른해짐을 느꼈다. 눈을 비비고 젖은 눈발속에서 점차 희끄무레해지는 하늘가를 다시 눈여겨보다가 굴간의 안쪽구석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늙은 산림학자가 보이지 않는다는것을 알았다. 처음엔 잠간 밖으로 나갔으려니 했지만 배낭까지 없어졌다는것을 알았을 때 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것 같았다.

《진호, 어데 간다는 말 없었지？》

진호는 없어진 배낭때문에 독이 올라있는 참이였다.

《내가 알게 뭐야.》

이번에는 불더미를 거의 혼자서 독차지한채 굴벽에 기대여앉은 리헌에게 물었다.

《글쎄요. 령감님이 아무리해도 사회주의에 정붙지 않던가보군요.》

또렷하게 번뜩이는 눈망울에서나 잠에 취했던것 같지 않게 다듬어진 목청으로 미루어 이 사나이가 한잠도 자지 않았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은하는 안타까운 음성으로 로인이 어델 갔는가, 왜 가는걸 알면서도 그냥 두었는가고 물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리헌은 그렇다면 내가 령감님을 감시해야 할 임무라도 있었단말

인가고 들이대면서 아무 말없이 나가버리는걸 잠결에 짐작하긴 했는데 그쯤한 일로 해서 돌멩이를 들어 령감의 골통을 바수어야 할 특별한 리유도 없지 않는가고 하였다. 일행이 무어져서 처음으로 있은 충돌이였다.

일이 이쯤 되자 잠에 취해있던 진호가 발딱 일어났다. 그 애에게는 연약한 녀성을 지원해야 할 남성적인 의무감과 일행의 책임자를 옹호해야 할 부하로서의 책임감이 다같이 작용한것 같았다.

《아니 이봐요. 누가 령감님의 골통을 바수라고 했나요? 하다못해 나를 깨워서라도 알려줄수 있지 않나요!… 별 싱거운 사람 다 보겠네. 제풀에 화를 내면서… 그런다고 누가 무서워할줄 알아요?》

원체 진호가 대들면 잠자코 묵새기군하던 리헌이였다. 그런데 이번에만은 그도 참을수 없는듯했다. 진호를 건드린건 아닌데 왜 버릇없이 야단이냐, 어른들의 말참견을 들면 못쓴다고 핀잔을 주었다. 그러자 진호는 어른들의 일에 일체 참견을 안하겠으니 빌어먹겠으면 먹고 굶어죽겠으면 죽고 마음대로 하라고 자기의 마지막 무기를 휘둘렀다.

다툼은 이것으로 끝났다. 자주 있군하는 일이여서 은하는 별로 큰 싸움까지는 예견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일행의 의사이며 목적으로 되군하였던 은하 자기의 말에도 짜증을 부린 리헌의 행위가 내려가지 않았다.

리헌은 얼마후에 로인의 행위를 두고 부르죠아지들의 식탁에서 위를 채워온 늙은이기때문에 불고기냄새를 찾아갔다느니 인정도 피요, 배신적인 탈가라니 하면서 욕을 했지만 그도 로인이 적측에 가붙었다고는 감히 말하지 않았다.

한생을 탐구에 바쳐온 사람들이 흔히 그러하듯 진중하면서도 일견 어리숙해보이기까지 하던 로인이 종적을 감춘것으로 하여 은하는 마음이 쓰라렸다.

(거처할데도 없다던분이 왜 말없이 사라졌을가. 이 추운 때 어데 가서 홀로 헤매일가?… 지난밤에도 기침을 심하게 했는데…)

은하가 걱정하는것을 도저히 리해할수 없었던 모양으로 리헌은 혀를 내둘렀다.

《아니, 그런 부르죠아밥버러지따위를 다 생각해줄 겨를이 있습니까. 빨리 안전한곳으로 떠나야 하지 않을가요? 례하면 저 거

시키… 동화사라도…》
은하는 적의에 가까운 시선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는 밥버러지가 아니다!》 이렇게 은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말꼬리에 붙은 하루살이는 더욱 아니다. 힘들긴 했으나 그는 자기의 걸음을 걸어왔다. 그리고 말년에나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게 되였노라고 그리도 기뻐하지 않았던가!…》
틀림없이 로인의 도주를 기뻐하고있는상싶은 리헌에게 은하는 말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겨 이 근처에 있을수도 있지 않을가요? 찾아보자요.》
《아니 뭐라구요?》
리헌은 말꼬리를 길게 뽑으며 놀랍기 그지없다는 몸짓을 했다.
《도망친 사람을 뭣때문에 찾는단말이요? 그런 늙은이가 당신이나 당신네 그 사람들한테 무슨 소용이 되겠기에 아득바득 찾아헤매야 하는가요. 예?》
《소용이 돼서만이 아니라 구원해주려고 찾는거예요!》
은하의 이 말엔 리헌을 념두에 둔 명백한 암시도 들어있는것이여서 즉석에서 리헌은 수그러들었다.
《좋습니다. 나 역시 구원을 청한 몸이니…》
로인은 그 어데도 없었다. 가까운 골안막바지까지 샅샅이 뒤지며 소리쳐불렀으나 찾지 못했다. 까닭을 알수 없으나 로인이 분명 도주한것으로 인정되였다. 이것은 일행의 걸음을 무겁게 했다. 저녁무렵 산골짜기에서 외딴집을 만나자 거게서 하루밤 묵기로 했다. 외딴집의 동정을 살피면서 리헌은 지붕높이까지 돌담을 높이 쌓은것으로 보아 이 외딴집이야말로 수상한데가 많노라고 불안해했다. 그는 무시무시한 어느 옛말에 이처럼 돌로 담장을 두른 산골짝 외딴 주막집에서 천하절색인 미녀가 길손들을 맞아들이군하였는데 한밤중이면 그 미녀가 술에 만취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각을 뜬 시체들은 담장너머에서 기다리는 굶주린 승냥이들에게 던져주었다는 등 지꿎게 수선을 떨었다. 은하는 귀찮아하면서 제발 입을 좀 쉬라고 하였다.
일행이 들이닥치자 토방마루에서 제일 먼저 고양이가 두귀를 발딱 세웠고 다음 낡은 문짝을 벌컥 열면서 로파가 나섰다.

《할머니, 먼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댁에서 하루밤 묵어갈수 없겠는지요？》

로파는 말없이 은하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시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어디루 가능기요？》

때맞추 리헌이 한발 나서며 얼굴생김만 보아도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주려는듯 허리를 굽히고 로파와 키를 맞추었다.

《피난민 가족이와요. 할머니.》

《…》

《할머니, 하루밤만 묵어가게 해주이소.》

리헌은 령남사투리까지 섞어가며 불행을 당한 사람의 애처로운 표정을 짓느라고 번듯한 이마에 주름을 모았다.

《이 앤 제 조카와요. 미국놈들한테 부모를 잃고 이 꼴이 됐능기요. 얘,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응？》

《흥！》

진호는 리헌을 얄밉게 흘겨보았다.

《뭐 조카라구요？ 쳇！…》

로파는 그들의 다툼질엔 아랑곳하지 않고 떨리는 손을 들어 은하의 한팔을 어루만졌는데 그때 흐릿해진 그 눈에 물기가 어리는듯이 은하에게는 느껴졌다.

《할머니！》

로파는 맥없이 팔을 내리고 한동안 우두커니 섰더니 다시 은하가 청하자 서둘러 방문을 열었다.

《걸버지(거지)꼴이락꼬 나무람하지나 마이소.》

예로부터 길손을 맞아들이는것은 이 나라 가난한 사람들의 미덕의 하나이다. 순박하고 의로운 그들은 밤늦은 길손을 맞으면 루추한 노전바닥이라도 쉬여가라고, 보리밥 한술이라도 나누어들자고 사심없이 진정으로 권하는것이다.

방안에 들어선 은하는 웃방에서 쿨럭쿨럭하는 기침소리를 듣자 이 집에 또 한사람 골병든 늙은이가 있는게라고 짐작했다. 원소마을에서 여러달 지낸 생활경험에 의하여 은하는 먼저 진호에게 웃방을 눈짓하며 여느때처럼 《령감님》이라 하지 말고 《어르신네》라고 불러야 한다고 침을 놓으며 인사를 하자고 했다.

그러자 화로를 가까이 당겨주던 로파가 은하를 꿇어앉히며 만류하였다.
《날래 몸이나 녹이소.》
로파는 모든 관심을 은하에게만 돌려 화로도 당겨주고 자리도 아래목에 잡아주었고 귀여운 살붙이라도 만난듯 하이얀 손등도 쓸어만지는것이였다. 로파의 이 친절에 마음이 풀렸는지 리헌은 방구석에 퍼더버리고 앉아 붕어대가리 모양의 낡은 자물쇠를 꽂은 농짝의 의미없는 문양을 들여다보더니 반짇그릇을 밀어던지고 구석에 놓인 목침을 끄당겨 길게 자리를 잡았다.
다시 웃방에서 쿨럭거리는 기침소리와 괴로운 가르릉소리가 울리자 로파는 손가락으로 화로불을 헤집는 진호에게 부저가락을 쥐여주고는 웃방을 눈짓하면서 시름겹게 중얼거렸다.
《사망문전에 이르렀능기요.》
《?…》
《옛말에 사람이 늙기를 맨첨 이발이 빠진닥했늬더. 그게 일망이요, 눈이 멀어지문 이망이구 귀를 듣지 못하문 삼망이락하더구마. 저 어르신네사 말귀가 어두운데다 어제 몹쓸놈들한테 행패질까지 당하다보니 그만 사망문전에 이른기요.》
그러자 지금까지 상대가 없이 무료하게 누워있던 리헌이 몹시 분개한 표정으로 몸을 일으키더니 어성을 높여 물었다.
《할머니, 그게 어떤놈들잉기요. 늙은이한테 행패질하는게?》
그의 기세로 보아서는 어떤놈들인지 알기만 하면 당장 늙은 내외의 원한을 풀기 위해 식칼이라도 거머쥐고 달려갈것 같았다. 그러나 로파는 헌신적인 그의 동정엔 아랑곳하지 않고 줄창 은하만을 물끄러미 바라보는것이였다. 은하는 로파가 광솔가치에 불을 다는척 돌아앉으며 옷고름으로 눈굽을 찍는것을 보았다. 웬일인지 그 순간 미제침략군놈들에게 무참히 학살된 시체들을 붙안고 비통하게 울음을 터뜨리던 원소마을사람들이 떠올랐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은하가 몇번 속삭이듯 묻자 로파는 불현듯 파리한 어깨를 떨며 흐느꼈는데 그 목메이는 흐느낌속에서 은하는 겨우 시집갈 나이의 막내딸을 어제 어떤 놈들이 끌어갔다는것을 분간해들었다. 그때부터 누이를 잃은 올배(오빠)가 이틀째 산속을 헤매고있다

는것이였다.

비로소 은하는 맨처음 집에 찾아들어왔을 때 로파가 문을 벌컥 열고 나오던것이며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상히 알려고도 않고 은하 자기만을 눈여겨보면서 무랍없이 맞아들인 리유를 깨닫게 되였다.

이때 로파의 하소연을 듣고 누구보다 더 분개한것은 리헌인듯하였다. 그는 마치 신파극의 배우처럼 팔을 뻗쳐 손가락을 곧추 찌르며 소리질렀다.

《할머니,그게 도대체 어떤놈들잉기요. 예？！…》

눈물을 훔치고 돌아앉은 로파는 어느새 잠들어버린 진호를 바로 눕히며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인민군대락 하늬더.》

은하는 누군가의 억센 주먹이 그의 귀통을 후려친것처럼 멍해졌다.

부지불식간에 머리를 쳐들자 맥풀린 리헌의 눈길과 마주쳤다. 금시 뻑뻑한 목청으로 조용한 방안을 휘저어놓던 그도 입을 딱 벌린채 굳어져있었다. 은하는 잘못들은것이 아니였다.

《할머니,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잘못 아셨겠지요. 예？！… 인민군대는 절대 그럴수 없어요.》

그러자 로파는 은하를 놀란듯 쳐다보았고 은하의 팔을 밀어치우며 약간 물러앉기까지 하였다.

《요새 인민군대가 또 나왔닥하는 소문을 못 들었능기요？》

오무라든 로파의 입술에 경련과도 비슷한 전률이 스쳐지났다.

《우리 집에두 넷씩이나 왔더구마. 밥까지 해먹구는 백주(공연히) 트집을 걸어 저 어르신을 두들겨패구 막내딸까지 끌어갔늬더.》

은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것을 느꼈다. 구역질과도 같은 어지러운 충격이 골수에 쓸어들어 아찔해진 은하는 간신히 벽에 머리를 기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수 있는가? 혹시 이 할머니가 잘못 본게나 아닐가. 늙은이여서 인민군대라는 말만 듣고 그러는게 아닐가?…)

얼마후 로파를 따라 부엌에 내려간 은하는 솔가치를 꺾어 아궁에다 불을 지펴주면서 의문시되는 점을 물었으나 로파는 자기 귀로 똑똑히 들었고 자기 눈으로 똑바로 봤노라고 우겼다. 그래도 우리 인민군대는 절대로 그럴수 없다고 하면서 인민군대에 대하여 안

타까운 심정으로 말을 꺼내자 로파는 눈살을 찌프리더니 그때에야 비로소 어데로 가는 사람들인가, 저 앤 뉘기고 저 이마가 번들거리는 머시마(사내)는 누구냐고 캐여묻기 시작하였다. 만약 이때 말주변이 능한 리헌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은하는 거침없이 솔직히 모든것을 터놓았을것이고 그 대가로 쫓겨나고말았을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뜻밖의 오해로 하여 그들자신이 그 집을 뛰쳐나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것은 무서운 의혹과 쓰린 아픔으로 뒤채이던 은하가 겨우 잠에 들었던 새벽의 일이였다.

갑자기 문짝을 들부시는 소리와 함께 리헌의 빽한 소리가 《진호, 뛰라! ―》 하고 부르짖었고 뒤미처 진호가 은하의 손목을 와락 잡아당겼다. 너무도 의외의 일을 당하여 미처 잠도 깨지 못했던 은하는 진호에게 끌려 어떻게 골짜기에 이르렀는지 알수 없었다.

랭랭한 별빛이 리헌의 넓은 이마빡에 맺힌 땀방울을 흔들어줄 때에야 그들은 멎어섰다. 리헌은 자꾸만 미욱한 웃음을 터뜨리면서 자기의 결단성이 세사람의 생명을 구원했노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분명 빼앗긴 동생을 찾아 산속을 헤맨다던 그 사나이가 새벽에 들어섰는데… 하고 리헌은 시작했다. 헌데 그 사나이의 손엔 굵다란 몽둥이가 쥐여있었고 광솔불에 비치인 그의 눈빛은 이상스럽게 번뜩이였다. 그가 손에 쥔 몽둥이로 말하면 살집좋은 자기까지도 단매에 죽탕을 만들 그런 큼직한것이였노라면서 리헌은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였다.

이미 잠에서 깨여 지켜보고있던 리헌은 몽둥이를 쥔 그 사나이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사이 광솔불을 불어끄고 동시에 문짝을 걷어차면서 《진호, 뛰라! ―》 하고 고함쳤던것이다.

비로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가를 은하는 깨달았다. 그렇게 소란을 피우며 빠져나온 세사람은 물론 동생을 뺏아간놈들과 맞설 경우를 생각하여 몽둥이도 들었음직한 그 사나이나 밤늦어 들어온 아들에게 물을 떠주던 그 로파는 또 얼마나 놀랐으랴.

다시 찾아들어가 사과하자는 은하의 말에 리헌은 펄쩍 뛰면서 막아나섰다. 딸과 동생을 빼앗겨 극도로 격분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것이였다.

그때부터 그들 사이엔 의견상이가 표면에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리헌은 총쥔 사람이라면 다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고 시간이 흐를수록 황당한 궤변으로 그것을 보충했다. 총쥔 사람의 리성은 총구멍처럼 비좁다느니 칼쥔 강도와 총쥔 사람이 다른점은 무기에 있는것이지 살인의 목적은 동일한 법이라고 주절거렸다.

이러한 리헌에게 은하는 거침없이 쏘아붙였다.

《그건 총쥔 사람 일반을 두고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미국놈들이나 괴뢰군놈들에 한해선가요?》

《글쎄요.》

이튿날 그들은 오래된 싸움의 흔적을 보았다. 여기서 리헌은 자그마한 병을 하나 얻어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위스키요!》하고 날카롭게 부르짖었다.

마개를 비틀어 냄새를 맡아보고 혀끝으로는 감미를 맛보고 다음 두눈을 지그시 감더니 환희에 넘쳐 중얼거렸다.

《60도짜리요. 아—참!》

잠시후 그는 목구멍에까지 빨병을 틀어박고 몇모금 꿀꺽꿀꺽 들여마셨다. 또다시 냄새를 맡으며 코를 벌름거리고 입이 헤벌쭉해진채 《당신만 오세요》라는 류행가를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정오였다. 따스한 해별이 리헌의 넓은 이마를 쬐여주고있었다. 얼굴이 불그레해진 리헌은 저멀리 마을쪽으로 뻗어간 한줄기 오솔길을 오락가락하면서 《륙상동물》의 마지막 발걸음이 이 오솔길에서 끝날수도 있구나 하고 건드러지게 웨쳤다.

은하는 놀란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고 진호는 또 저대로 옛싸움터(지난 남진때의 전장이리라.)를 돌아보고있었다.

문득 리헌은 걸음을 멈추고 은하에게 묻는듯한 시선을 던졌다.

《왜 마음에 싸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

그는 유쾌하게 부르짖었다.

《나를 두고 비난합니다만 물론 나는 당신들의 정신도덕적우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함께 나누는것이 아닌가요. 과연 낡은 세계의 인테리인 내가 당신에게 구원을 청하고 따라오지 않았단말입니까?… 좋습니다. 인정하겠지요. 물론!… 그렇다면 왜 온 세계를 개조한다는 당

신들이 나 하나를 개조할 결심은 나서지 않는가요?》
　여기까지 듣고서도 못들은척할수는 없는 일이였다. 은하는 마뜩지 않게 그를 쏘아보았다.
　《그건 무슨 말이예요. 누가 어쨌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왜냐구요?》 하고 리헌은 부르짖었다. 《당신들의 그 사회를 대표하는 당신이 바로 그렇게 대하지 않았단말입니까? 왜서 말끝마다 그렇게 경멸적인 눈총을 쏘군하는가요? 내가 무슨 비루스따위나 아니면 악마이기라도 하단말입니까?》
　은하는 서서히 머리를 들고 또박또박 찍어 말하였다.
　《걱정 마세요. 개조해드릴테니.》
　《오!—그렇다면 나를 개조할 결심을 가진 당신에게 나의 간단한 자서전을 읽어드릴가요? 소용되실테니까요. 나의 부모는 전형적인 소자산계급의 대표자들이였습니다. 하나는 장사군 다른 편은 작은 출판업자… 덕분에 어릴 때 숱한 책들을 뒤져보았지요.
　이것이 자서전의 첫줄입니다. 그런데… 이보시오. 부모되는 두사람이 리혼했습니다. 나를 절간에 맡겨놓고말입니다. 어머니켠의 먼 친척이 저 팔공산의 동화사에 있었는데 거게다 밀어던졌지요. 그때부터 나의 비극이 시작되였습니다. 생각해보시오. 얼마나 처참하고 구슬픈 나의 소년시절이였겠습니까. 한줌의 당콩밥을 놓고서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수십번씩 머리를 조아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죽어도 난 중이 되고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 끝내는 도망쳤지요. 이것이 자서전의 두번째 페지입니다. 어떻습니까. 계속할가요?》
　여기서 그는 잠시 말을 끊고 목도리를 조금 늦추어가면서 먼 숲속의 어둠을 주시하는것이였다.
　《한때는 도망쳐나왔던 그 절간으로 나는 다시 찾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때문일가요? 전쟁때문이지요. 이 가증스러운 전쟁을 피할길은 그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지요. 나는 증오합니다. 총쥔 사람들을 증오하고 모든 폭력을, 모든 전쟁을 증오합니다.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경우만 놓고보더라도…참, 말이 좀 빗나갔댔군요. 그럼 계속합시다. 나는 절간에서 교활하고 검질기고 악착스럽기까지한 사내로 자랐는데 이것이 후날 나를 도왔지요. 나는 자식을 버린 그 사람들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기 찾아다니며 돈

을 요구했습니다. 돈!…모든것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옛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다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시작되고 끝나는 길은 돈이 결정합니다. 나는 량쪽을 찾아다니며 돈을 타내여 취직도 하고 술도 마시군했지요. 이따금 짤막한 련애시들도 써냈지만 세상을 놀래우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해전에 갑자기 아버지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사의 한편은 나도 써냈지만 아무도 그 진짜리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슨 백금횡령사건의 비밀로 독살됐다고도 하고… 또 전쟁이 겹쳤습니다. 이 전쟁은 부르죠아식탁의 한 귀퉁이에서나마 나를 영영 쫓아내였습니다. 왜냐면 한 장사군이였던 어머니가 후엔 큰 광산주의 처가 되였는데 전쟁 며칠후엔 벌써 일본으로 날아가버렸더군요. 이것으로써 부르죠아지들과의 접촉도 그만 끝장이 났습니다. 그런즉 생후의 내 팔자는 훔쳐먹고 빼앗아먹는것이였다고 할가요. 불상의 손바닥에서 훔쳐낸 콩밥, 부르죠아지들의 식탁에서 절취한 술병들… 당신들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표현을 빌면 〈수탈〉해먹은 셈이죠, 하하…》

은하는 불현듯 돌담을 둘러친 집에서 보았던 수고양이가 떠올랐다. 만약 그 고양이가 웃어댈수 있다면 저 리헌의 토막치는듯한 웃음소리나 별반 차이 없을것 같았다.

지긋지긋한 그 메마른 토막웃음을 내던지고나서 리헌은 나팔주둥이처럼 입술을 오무려 무슨 소리를 내려다가 잘 안되는지 팔을 내젓고말았다.

《이렇게 되여 나는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과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당신도 신문에서 보신것처럼 미군장교숙사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지요. 왜냐구요?… 뭐 특별한 주의주장이 있어 그랬던것은 아니지요. 그건 다만 순간적인 충동이 낳은 히스테리였습니다. 그자들은 나에게 생을 의탁한 한 녀자를 끌어다 모욕하고…》

여기서 그는 문득 입을 다물어버렸다. 잠시 멍하니 은하를 바라보고는 부지불식간에 맥빠진 어조로 다시 이었다.

《난…복수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형수의 올가미를 피해 도망쳤구요. 그러니 여보시오. 난 어느편에 가 붙어야 하는지요?》

웬일인지 은하는 껍진껍진한 무엇이 손바닥에 묻은것 같은 느낌을 참을수 없어 진저리를 치면서 손을 문질러댔다.

뜻밖에 알게 된 이 사나이의 경력이 놀랍고 께름직했다. 그의 말을 믿는다 해도 그는 어두운 저 세계의 한 파편이였다.

가까운 수풀속에서 주먹만한 새 두마리가 호들갑스럽게 무슨 노래곡조인가를 뽑아보고는 그닥 시원치 않은듯 덤불속으로 숨어버렸다.

《보십시오. 당신은 끝내 나를 믿지 못하는군요. 저 애조차 나를 경원하고 타매하고있으니 〈사랑을 빼앗긴 그에겐 무덤이 제일 좋은곳이란다.〉 이렇단말이지요. 그럼 살아있는동안 나는 어느편에 붙을가요. 절간에 가서 은신하려다가 혹시 인생의 참된 이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줄것 같아 따라섰는데 결국은 역시 고행과 수난의 길이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봐요. 며칠전 밤을 새우던 화토불가에서 전 이미 다 말했어요. 기억나세요?》

리헌은 빨간 얼굴을 뻔뻔스럽게 쳐들고 툭 불거져나온 눈알을 굴리였다.

《시말인가요?》

《그렇다고 해두죠.》

《오!—썩은 물, 웅뎅이…그런걸말이지요?》

그는 코웃음쳤다.

《재치있는 서정시죠!》

은하는 일어섰다. 눈속에서 긁히고 나무그루터기들에 찢긴 발목과 종아리가 쓰리고 아파났다.

바로 그때 진호가 달려왔다. 그는 손에 보총탄 세알을 들고 있었다.

《이봐, 인민군대 탄알이야.》

은하는 말없이 머리를 끄덕였고 리헌은 유난스럽게 코를 울리며 비웃었다.

《그 탄알에 죽지나 말지.》

《뭐라구요?》

진호는 발끈 성을 내더니 주머니속에서 수류탄을 하나 꺼내들었다.

《맛을 봐야 알겠어?》

돌연 리헌이 달려들어 우악스럽게 그것을 빼앗아 멀찌감치 집어던졌다. 우습강스러운 일로 리헌은 수류탄이 저아래 오솔길이 구

부러져내린 비탈면에 떨어졌을 때 납작 엎드리기까지 했었다.

성이 나고 무안해진 그는 인생행로를 펴그나 더 멀리 걸어온 년장자의 권리로 소년의 방자함을 비난했고 쓸데없는 일로 목이 날아날수 있기때문에 던져버렸노라고 중얼거렸다.

발끈해진 진호가 수류탄을 찾아오겠다고 뛰여내리자 리헌은 그를 다쫓아가며 빽—하고 소리질렀다.

《진호！—》

그는 허둥지둥 소년을 따라 뛰여내려갔다.

《진호！—》

문득 비탈면에까지 내려갔던 리헌이 기괴한 소리를 내지르며 펄썩 주저앉는것을 은하는 보았다. 진호를 향하여 다시한번 기겁한 소리를 지르며 리헌은 엉금엉금 뒤로 물러났다.

앞서 갔던 진호가 놀래여 돌아서고 은하 역시 달려갔다. 그러자 그들은 소스라치듯 놀라며 말뚝처럼 굳어져버렸다.

처참한 정경이 눈앞에 벌어져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칼, 산산이 찢어진 옷자락…한 처녀의 시체가 묘지옆 마른 잔디풀우에 얼어있는것이였다.

8

엉금엉금 뒤걸음치던 리헌이 급작스럽게 몸을 떨며 저도 모르게 손에 쥐였던것을 내던졌다.

《모자요, 인민군대모자！》

《？…》

예리한 창끝이 은하의 심장을 쿡 찌른듯하였다. 그는 화닥닥 뛰던 심장이 멎는 싸늘하고 강렬한 충격을 느끼며 가까스로 부르짖었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뭐라구요？》

리헌의 충혈진 두눈이 이상스럽게 번뜩이였다. 그는 모자를 찾아들고 은하의 코앞에 흔들어댔다.

《이걸 봐요. 이래두 거짓말이라구？》

갑자기 눈알을 빼간듯 캄캄해졌다. 심장은 모진 충격에 화닥닥 뛰였고 참을길 없는 아픔이 뼈마디속을 찔러대였다.

(이게 웬일일가. 걸음마다 이게 웬 변이람?…)

리헌의 툭 불거져나온 눈알이 가까이에서 사납게 번뜩이였다.

《이젠 보았지요. 보았지요?》

(거짓말이다. 이건 거짓말이다. 난 아무것두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코구멍으로 물을 들이켰을 때와 같은 역스러운 느낌을 털어버리려고 애쓰며 은하는 분명 틀림없는 인민군대모자를 바라보았다.

《이래두 거짓말이요?》

별안간 은하는 리헌의 두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이자는 왜 이리 기광이 나서 야단인가?…)

멸시에 찬 증오의 눈길을 떼지 않고 은하는 말하였다.

《거짓말이예요. 이건… 다 거짓말이야!》

《흥, 두눈을 뜨고 똑바루 보시오. 우리가 들었던 그 집 처녀란말입니다. 인민군대가 끌어갔다는…》

흐릿해진 눈을 들어 은하는 고름을 뜯어던진 저고리며 찢어진 치마자락, 흐트러진 머리칼을 다시 보았다.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우정 보란듯이 헤쳐놓고 찢어놓고 모자를 떨구고… 악착스러운 이 만행… 이건 우리 인민군대의 고상한 이름을 더럽히려는놈들의 작간이다. 더러운놈들, 흉악한 악당들!…)

은하는 가증스러운 심정을 숨기지 않고 히멀건 리헌의 낯짝을 쏘아보았다.

《이건 놈들의 작간이예요. 틀림없어요. 놈들만이 이런 짓을 할수 있어요. 똑똑히 알아둬요. 감히 우리 인민군대의 이름을 모욕했다가는…함부로 그랬다가는…그가 누구든지 절대 용서치 않을거예요.》

《뭐라구요? 이젠 위협을 하는군요. 내가 그런 꼬임수에 속을줄 알구… 흥! 시내물?…내 이제 이걸 가지구 다 폭로할테요. 내 천분이 원래 그러니까.》

은하는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속을 뒤집는듯한 역스러운 감각에 구역질이 울컥 치밀어올랐다.

《비렬한!》

입을 앙다문 속삭임소리였다.

《그걸 내놔. 벌레같으니.》

사납게 변모된 은하의 모습에 질겁했던지 리헌은 몸을 흠칠했다. 게다가 그는 돌멩이를 틀어쥔 진호가 은하를 막으며 다가서자 손에 쥔것을 던져버리고 몸을 홱 돌리더니 내리막길로 냅다뛰여갔다. 하여 떨거지맥고모를 눈두덩우에 눌러쓰고 생의 틈바구니를 찾아헤매던 사나이, 낡은 사회의 온갖 독소에 오염되여있던 그는 자기에게 열려진 한가닥 구원의 길을 버리고 달아나버렸다. 그에게 재생의 길로 이끌어줄 손길이 뻗쳐있었건만 한순간의 동요로 그것을 뿌리쳐버렸다. 그러한 심리적충격이 없었더라면 이럭저럭 끝날까지 즉 자신의 눈으로 진리와 정의를 발견할 그날까지 따라왔을는지도 모른다. 허나 그에게는 의지도 없었고 신념도 없었고 자기를 위해주는 은하에 대한 믿음도 적었었다. 그리하여 그는 단 한순간에 희망의 곧은길로부터 비참한 파멸만이 기다리는 운명의 내리막길로 줄달음쳤다.…

이제는 둘만이 남았다. 그들은 오래도록 말없이 걸었다. 그것은 벌어졌던 일이 너무도 뜻밖의 일이고 충격적인것이기때문이였다. 인민군대로 가장한 그 참혹하고 비렬한 만행이 무엇때문에 빚어졌는가에 대하여 은하는 줄곧 생각하였다.

분명 놈들은 인민군대의 급속한 진출에 겁을 먹고 악선전을 하기 위해 발악하는것이였다. 남녘땅 인민들이 그처럼 목마르게 기다리는 인민군대의 숭고한 이름을 더럽히려는짓이였다.

그런데… 가증스러운 이 만행에 속은 한사람은 벌써 은하의 눈앞에서 질겁하여 달아나버렸다. 혹시 진호마저 동요한다면?… 느닷없이 떠오른 이 생각에 은하는 몸을 떨었다. 그는 날카로운 위구심을 품고, 그러되 자기의 목소리가 태연하게 울리도록 애쓰며 진호에게 나직이 물었다.

《진호, 넌 어떻게 생각하니?》

《뭐요? 그 번대머리가 달아난거?》

《아니, 아까 본 그 시체말이다. 너도 달아난 그 사람처럼 생각하니?》

오래동안, 실로 오래동안 진호는 고집스레 입을 다물고있었다.…

진호는 자기가 만났던 인민군전사들을 그려보고있었다. 한결

같이 소탈하고 꾸밈없고 맘씨 후한 사람들이였었다. 그의 입대를 거절한 그것만 아니라면!…

그가 사귄 첫사람은 나어린 련락병이였다. 기관단총을 둘러멘 꼬마병사가 진호를 붙잡고 동대문구의 경마장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그때 그 전사의 보송보송한 솜털이 진호의 눈을 즐겁게 끌었다.

《아하—꼬마군대!》

이 말이 나어린 병사의 마음에 들리는 없었다. 병사는 대뜸 눈살이 꼿꼿해졌다.

《뭐라구?…야 누구더러 함부로… 뭐라구?…》

병사는 꼬마라는 말을 제입으로는 도저히 옮길수 없었던지 입술을 떨며 말을 더듬었다.

진호는 대뜸 《꼬마병사》의 팔을 잡았다.

《같이 가요. 내가 대줄게!》

태도를 일변하여 공손히 존대하자 련락병도 마음이 누긋해진것 같았다.

《거게 탄알이 있소?》

《그럼!》

《총을 쏠 때 어깨가 날아난다는게 정말이요?》

《너같이 단단한 애들은 견딜수 있어.》

《내가 단단한 앤지 어떻게 아오?》

《보면 알지. 인민군댄 다 알아!》

《쳇!…》

《흥!…》

《군대에 나가려면 대렬부라는데서 허가를 받는다는데 그것도 사실이요?》

《그럼, 거게 가면 대렬참모동무가 있어. 〈대렬참모동무, 전사 아무개!…〉 하고 척 보고하고나서 …아니야, 넌 전사가 아니니까 별수 없구나. 가서 떼질하는수밖에. 가만 너 몇살이야?… 안되겠어. 14살이라는게야 코흘리개지 뭐야.》

그러나 《꼬마병사》는 경마장까지 데려다준 진호를 고맙게 생각한때문인지 의용군대렬편성을 하고있는 자기 상관에게 그를 데리고 갔다. 대위의 견장을 단 군관이 진호를 곁눈질해보았는데 마치도 눈이 쓰린듯했다. 그는 바라보기에도 후련할 정도로 목을 뒤

로 잔뜩 젖히고 크게 하품을 했다.

《16살이라구？…못써, 이녀석！… 어디 바른대로 말해봐. 거짓말이지？》

《예. 거짓말이예요.》

《음 괜찮아. 그래 뭘 할줄 아니？》

이 물음에는 인차 대답할수 없었다. 그가 할수 있는 일이란 너무도 많았는데 그것을 무엇부터 어떻게 꼽아야 할지 미처 궁리가 떠오르지 않는것이였다.

노래를 잘 불렀다. 달음박질에서나 헤염을 치는데서도 진호를 당한 애들이 없다. 게다가 자맥질의 명수인데 그것은 폭파된 한강다리에서 물속에 구겨박힌 구형 《코로나》승용차를 뒤져 니켈도금을 한 스위스제 박절기를 회중시계인줄 알고 꺼낸것만으로도 명백하다.

한때는 《슈사인 뽀이》로 불리우는 구두닦이소년이였고 여의도비행장에까지 몰래 숨어들어가 외국기자의 미젤카메라에 염산을 부어넣은 일도 있었다. 서울의 뒤골목에서 먼지구름같이 떠도는 결말과 외래어 범벅말을 숨도 쉬지 않고 번질줄 알았고 날카로운 회파람소리로 녀대학생들을 질겁하게도 했다. 믿을수 없다면 그의 자그마한 두주먹을 펴보라！ 미술가들은 두손을 합치면 자기 얼굴을 전부 가릴수 있다는 인체비례의 개념부터 설명하나 유쾌한 이 고아의 두손을 펼치면 그의 기구하고 곡절 많은 인생행로가 다 그려져있는것이다！…

진호는 인민군대군복을 입게 만 해준다면 경무대의 쥐새끼라도 잡아낼 태세였으나 그의 이야기를 건성 듣고있던 인민군대위는 갑자기 등뒤에 서있는 《꼬마병사》를 고함쳐 불렀다.

《련락병！…이 앨 데리구가서 식사를 시키오. 그다음 당장 집으로 쫓아버릴것！…》

대위는 바쁜 사람이였다. 진호는 그에게 자기한테는 쫓아보낼 집도 없으며 그런 엄포쯤은 귀등으로 흘러보낸다는것을 직접 보여주어야 했으나 그런 기회는 차례지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나이 어리다는 한가지 리유로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부당하게도 쫓겨난 첫번째 사건이였다.

《차라리 전투복장을 하고 올걸 그랬어. 지금은 애… 어리광대같단말이야.》

취사병한테 졸라서 고기통졸임까지 타낸 《꼬마병사》가 자기도 웃주머니에서 숟가락을 뽑아들며 동정하듯 말했다.

진호는 전투복장이라는게 어떤 모양의것인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그날 밤중, 아니 다음날 새벽 왕십리역에서 떠난 군용렬차의 차량안에서 대위는 자기앞에 불쑥 나타난 진호를 보고 깜짝 놀래였다. 온갖 종류의 장구류들중에서 특히 소년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준것은 단도 대신으로 허리춤에 꽂고 온 나이프였다.

노발대발한 대위는 소년을 《무장해제》시킬것을 명령하고 다음 한쪽구석에서 특무장과 마주서서 웃어대고있는 련락병에게 호된 욕을 퍼부었다. 공교롭게도 군용렬차는 거의 7시간이상을 내처 달렸으므로 오랜 시간 노해있을수도 없고하여 대위는 마음을 늦추었고 몇마디 롱말까지 건네였는데 그 덕분에 진호는 하사관들과 아직 군복이 몸에 붙지 않아 어리둥절해보이는 의용병들에게 둘러싸여 이 세상의 온갖 희떠운 수작질을 다 늘어놓을수 있게 되였다. 가물거리는 남포등밑에서 오라토리오의 곡조들이며 새로 배운 인민군군가들을 목이 쉬도록 불렀고 덜퉁스럽고 의협심 많은 사람들과 인민군대의 서울해방전투정경을 누가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알고있는가 다툼질도 하였다. 드디여 떠들썩하던 청중이 지쳐버리고 엉뚱한 소년에 대한 호기심과 조롱도 싫증도 났을 때에야 그도 잠들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깨여났을 때 그를 기다리고있은것은 에누리를 모르는 대위의 《추방령》과 인심후한 전사들이 꾸려준 건빵과 통졸임꾸레미였다. 특별한 노염이 없이 《추방》당한 소년은 막대기에 꿴 꾸레미를 어깨에 메고 도중역에 내렸으며 먼지이는 신작로를 타박타박 걸어갔다.

여름날 점도록 방아를 찧고
방아는 달밤에 잠을 잡니다

자기가 혼자 있을 때거나 자기를 어른스럽게 혹은 당돌하게 보여야 할 특별한 리유가 없을 때마다 그가 즐겨부르는 동요였다. 방자한 소년으로 자란 오늘에 이르도록 마음속에 다정하고 은밀한

추억을 불러주는때문에 특별히 사랑해온 노래였다. 더우기 방아는 잠을 자고있지만 그는 쌈터로 가고있다는것이 유쾌하고 즐거웠다.

뒤숲에 반디불 춤을 추건만
방아는 고단히 잠을 잡니다

서울로는 결코 되돌아가지 않을것이다. 소년의 어린 가슴에 쓰라린 눈물이 차도록 그를 구박하고 멸시하였으며 쓰레기통에 짓밟아넣었던 그곳, 그 도시에 활기를 가져오고 웃음과 노래만을 들끓도록 한 인민군전사들이 가고있는곳으로 가야만했다. 《꼬마병사》며 맘씨 후한 특무장이며 박정해보이나 무던히도 솔직한 대위며가 모두 가고있는 그곳에서는 즐거운 노래와 웃음과 비상한 사건들이 그를 기다리고있을것만 같았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자 이번엔 그에 맞는 노래를 불러야 했다.

나가자 인민군대 용감한 전사들아

작은 거리의 행인들은 보짐을 꿰지고 발을 구르며 걸어가는 소년을 두눈이 휘둥그래서 바라보았다. 남들이야 어떻게 보던 무슨 상관이랴! 서울 장안에서도 그렇게 으시댔던것을!…

인민군대의 화물자동차를 얻어타고 담가대의 마차우에 비위좋게 올라앉기도 했다. 상냥스럽고 깜찍스럽게 생긴 한 간호원처녀는 베개통같은 빵의 절반을 잘라주면서 늙수그레한 담가대장이 당장 소년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에 저으기 슬퍼하기까지 하였다.

땅크에도 기여오른적이 있었다. 푸접좋은 소년이 닥치는대로 이것저것 쥐여당기는것을 보고 옛날 장수들의 투구같은 모자를 쓴 땅크병은 엄중히 경고했다.

《얘, 다치지 말아. 그러다 밥숟갈 놓으려구 그래?》

이따위 엄포쯤에 겁을 집어먹을 진호가 아니였다.

《걱정 말아요. 난 숟갈로 먹지 않으니까요.》

《야, 이녀석 봐라. 그래 뭘루 먹나?》

진호는 두손가락을 곧추 펴드는것으로 대답했고 그 명랑한 롱질의 덕분에 뒤통수를 한대 단단히, 그러나 전혀 아프지 않게 얻어맞았다.

소년은 어데서나 떠들썩한 웃음속에 《환송》되였다. 왜냐 하면 그애가 마음에 들었고 깨물어주고싶을 정도로 귀엽고 기특하고 사랑스러웠기때문이였다.

만약 전선이 북으로 옮겨가기전에 갑자기 그의 키가 늘어났던가 아니면 좀더 나이들어보이기라도 했더라면 지금쯤 그 련락병처럼 멋지게 팔을 휘저으며 뛰여다닐것이고 가능하다면 총탄이 쏟아지는 싸움터에서 그는 자기를 쫓아버린 그 대위, 그렇다. 바로 그 대위를 향해 총탄이 날아들 때 서슴없이 막아나설것이였다. 그러면 그 대위는 눈물을 흘리며 소년을 쫓았던 일을 두고 용서를 빌것이고 진호는 상냥하게 웃으며 《대위동지》 하고 부를것이였다. 사실은 바로 그러했다. 그의 입대를 거절한것 이외에 인민군대를 나삐 생각할 리유란 손톱눈만큼도 없는 진호였다.

그는 자기의 이 생각을 은하에게 말하였고 다음은 조심스러운 어조로 외딴집 처녀를 끌어다 죽인게 어떤놈들일가고 물었다. 은하의 대답은 간단하고 명백했다.

《미국놈들이다. 그리구 괴뢰군놈들이지. 더러운짓으로 인민군대를 헐뜯자는거야.》

진호는 자기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고 정중하게 말하였다. 그리하여 나어린 소년은 은하의 친근한 길동무로 다정한 벗으로 둘도 없는 전우로 되였다.

그러나 진호는 굶주림과 추위를 더는 이겨낼 힘이 없게 되였다. 노래도 웃음도 다 잊고 휘청거리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허사였다.

《빨리 인민군대를 만나야 한다. 진호를 살리자!》

다음날부터 진호는 헛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은하는 진호를 업었다. 어데로 갈것인가?… 두셋이 있을 때는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길들앞에서 결심을 지체할수가 없었다. 그러나 홀로 남으니 다시금 끝없는 절망과 쓰라린 외로움과 등골을 스치는 공포에 가슴이 조여드는것이였다.

어데로 갈가?… 왜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가?!…

은하는 새벽까지 방향없이 걸어갔다. 진호를 내려놓고 이마를 짚어보고 몹시 아픈가, 내가 누군지 알겠는가 하는 등으로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고는 또 걸어가군했다. 새벽녘에 그는 화토불을 발견하고 무턱대고 그곳으로 찾아갔다.

손발이 다 얼어들었다. 귀바퀴를 문지를수도 없고하여 그것도 이미 감각을 잃어버린듯했다.

(저 화토불은 인민군대가 피운것이다. 인민군대가！…)

은하는 별다른 근거나 확실한 단서도 없이 이렇게 자신을 강박했다.

(놈들은 산속에서 맘놓고 불을 피우지 못한다！…)

그것이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덫으로도 될수 있다는 생각은 꼬물도 없었다. 마지막 마음의 기둥인 진호가 앓고있는 이상 그는 앞에 깎아지른듯한 심연이 있다해도 그대로 걸어나갈것처럼 완고하고 끈덕지게 불빛을 향해 걸어가고있었다.

무거운 발걸음소리를 들었는지 화토불곁에 있던 사람이 와뜰 놀래며 허리를 쭉 펴더니 다시 발걸음소리가 울리자 어느새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은하는 그것도 몰랐다. 등에 업힌 진호의 몸무게에 눌려 사위를 가려볼수 없었던 그는 오직 불빛만을 가늠하고있었던것이다.

화토불 주인이 남긴것은 희한한 선물이였다.

돌멩이들을 고여놓고 그우에 철갑모를 올려놓았는데 그속에서 하도 구수하고 감미로운 냄새가 흘러나오는것이여서 머리가 핑 돌 지경이였다.

진호를 내려놓았다. 재빨리 손발과 팔다리,가슴부위를 문질러주고 귀에 대고 속삭였다.

《진호！ 진호,정신차려！ 누나가 이제 밥을 줄게,응？》

그다음에야 은하는 화토불 주인이 어데로 갔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철갑모속에 들어있는것은 통강냉이알들이였는데 툭툭 터질 지경으로 익혀놓고 어데로 갔으랴 하는 생각… 다음순간 혹시？！…하는 무자비한 의혹심과 번개불같은 기대가 그의 심장을 꿰고 지났다.

허리를 펴고 일어서자 문득 등뒤에서 《여보시오！—》 하는 석쉼한 목소리가 울렸다. 은하는 와뜰 놀래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믿을수 없는 광경이 나타났는데 나무덩굴속에서 넝마를 뒤집어쓴 조성길로인이 벌렁벌렁 기여나오다싶이 하는것이였다.

《왜 그날밤 몰래 나갔어요？ 얼마나 속이 탔는지 아세요？》

반가운 상봉에서 의례 있기마련인 놀라운 부르짖음과 감격의 눈물이며 두서없는 인사말들이 오고가고 통강냉이 삶은 물로 목을 추기고 속을 덥힌 진호가 눈을 뜨고 반가운 미소로 로인을 맞이했을 때 은하는 이렇게 물었다.

《우린 꼭 어데서 잘못된줄만 알았어요.》

로인은 쿨쩍쿨쩍 눈물을 흘렸다. 토막토막 끊기군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보니 사실상 그는 도주한것이 아니라 은하와 진호를 위해 그들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낮에 보아두었던 산기슭 강냉이밭을 찾아 떠났던것이다. 산속에서 한생을 살아온다고는 하지만 로년과 여러날에 걸친 행군으로 하여 지칠대로 지친 그가 목적한곳까지 이르렀을 때엔 벌써 날이 완전히 밝았다.

《용서하시오! 나를 기다려주시오!》

이렇게 로인은 일행에서 떨어졌다. 그러자 가슴속엔 일찍 체험하지 못한 절망감과 쓰라린 애석의 정이 그들먹이 고여들었다. 마지막 희망의 별빛이 꺼진듯하였다.

한생을 수모받아온 조성길이였다. 학계에서는 그가 산지기의 아들이였다는때문에 그리고 중절모 하나 새것으로 갈아쓰지 못하는 가난뱅이라는때문에 《산림속에서 나온 정신병자》라고 비웃었으며 고심하여 준비한 저작은 《라마르크의 표절》이니 《원시적신비론이 전도된 생물학적좌파의 잠꼬대》라고 악평을 하는가 하면 《사멸하는 산림기슭에 새기는 비문》이라고 야유하기도 했다. 학계에서 버림받고 직업을 잃고 더우기 전쟁의 소용돌이속에서 지치고 굶주리다 못해 병든 로인이였다. 그는 죽더라도 고향에서 숨을 거두리라 생각하고 산지기의 옛초막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사랑과 꿈이 깃든 숲이 불타고 산기슭의 작은 마을들까지 미국제 《셔만》전차가 짓뭉개는것을 보았을 때 그의 가슴은 터지는듯했다.

병든 가슴에 울분과 저주만이 그득차올랐다. 로인은 처참한 파괴와 살륙을 가져온 이 전쟁을 증오하였고 전쟁을 일으킨 미국놈들과 매국노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그때문에 구치장신세까지 맛보았고…

만약 정치공작대원인 은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로인은 굴욕과 비탄에 잠긴채 저승의 문지방을 넘어서고야말았으리라. 허나 한줄기 구원의 빛을 잡았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그것도 자신의 불찰로 놓쳐버렸다고 생각할 때 가슴이 터지는듯하였다. 아, 이 땅에 무

성할 산림을 꿈꾸던 어리석은 숲의 애호가, 산림을 잃고 자기의 생활을 잃고 누르께한 원고뭉치들이 들어있는 낡은 배낭을 걸머지고 정처없이 떠돌던 가련한 방랑아！… 늦게나마 더위잡았던 구원의 손길을 놓쳐버렸으니 이제 다시 어느 구치장에서 싱그러운 숲의 향취도 모른채 쓰러져버릴지 어떻게 알랴. 아니면 설한풍이 휩쓸어드는 철도역의 대합실 콩크리트바닥에 구겨박혀 티브스에 걸려죽어버릴지… 떨리는 가슴을 부둥켜안고 로인은 정처없이 헤매고 또 헤매면서 귀중한 한 처녀를 목메여 부르군했다.

《참, 그런걸 우린…》 은하는 부르짖었다. 《어쨌든 잘됐어요！》

은하는 로인을 위로하고 로인은 끝없이 울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는 기력을 회복한 진호까지 어린애들만이 가질수 있는 그 심각하고 사심없는 감사의 눈길을 들어 로인을 쳐다보게 되였을 때 조성길로인은 뒤늦게야 생각난듯 리헌에 대해 물었고 그가 도망쳤다는 말을 듣자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리고는 문득 무릎을 치면서 자기가 동굴에서 나온 그날밤 폭음소리를 듣지 못했는가고 물었다.

《우리도 들었어요. 하늘이 뻘겋게 비치더군요.》

《참,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시오？》

로인은 숨죽인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는데 어느새 그의 두눈엔 눈물이 핑 도는것 같았다.

《인민군대가 미국놈들의 포탄창고를 터뜨렸다오.》

《예？…아니 그게 정말이세요？》

《원, 이런！》

로인은 팔소매로 눈굽을 찍었다.

《벌써 소문이 쫙 돌더라니까요. 수천발이나 되는 포탄을 인민군대가 단숨에 날려보냈다구요.》

은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언젠가 무심히 바라보았던 그곳, 이제는 벌써 지척인 산봉우리너머를 바라보았다. 목터지게, 눈물겹게 소리쳐부르고싶었다.

《동무들！》

희망은 지척에 있었다.

9

문기는 이틀후에야 의식을 차렸다. 그는 자기와 나란히 누워있는 중대장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리해할수 없는 모양이였다. 그의 모든 기억은 포탄창고습격 특히는 철조망으로부터 적기관총까지의 거리에 귀착되여있었으므로 그후에 계속된 폭발과 포위와 돌파 등 시간의 흐름은 의식밖으로 영영 지나가버린것이였다.

류성우는 그에게 8분동안에 진행된 기습공격과 그후의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특히 포탄창고가 폭발하던 광경을 세세히 그려보였다. 그는 잠자코 들었고 그때부터 깊은 생각에 잠기군했다. 가끔 소스라쳐 놀라며 귀를 기울이군했는데 이 새로운 면이 성우를 몹시 놀라게 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는 류성우를 향해 이렇게 물었다.

《중대장동지, 왜 이리 조용합니까. 여기서 멀지 않다는데 왜 이렇게 아무 소리도 없을가요?》

그가 간절히 바라는것은 총소리였다. 혹은 중대가 웨치는 돌격의 함성이나 노래소리였는지도 모른다.

사실상 온몸을 붕대로 감다싶이 한 문기로서 자유롭게 움직일수 있는것은 혀바닥뿐이라고 그가 말했지만 가장 자유롭고 예민한것은 청각이였다. 그러나 그처럼 밝은, 밖에서 솔개미 나는 소리까지 듣는다는 그 귀전에 아무런 총성도 함성도 들리지 않는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확실히 그에게서는 급격한 심리적 및 육체적 변화가 생긴것이 분명하였다. 한번은 상급준의가 상처를 처치하고 돌아설 때 그 녀자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져있는것을 성우는 놓치지 않았다.

《왜 그럽니까, 상급준의동무?》

물론 상급준의는 명백한 답변을 피하려고 하였다.

《아무것도 안예요.》

그러나 성우는 다시 혼수상태에서 헤매는 문기를 내려다보면서 단호하게 물었다.

《몹시 위독합니까?》

상급준의는 눈길을 떨구었다.

《한시간만 빨리 왔어도… 그런데…》

안혜순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폭발적인 감정이 치밀어올랐다. 그런데 어쨌단말인가, 왜 그이상 대답을 회피하는가? 이젠 늦었다는 말인가? 그렇게 쉬이 속단할수 있단말인가?

《상급준의동무.》 류성우는 터져나오려는 분노를 가까스로 억눌렀다.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겠지요. 예?… 왜 대답이 없습니까?》

그것은 간절한 애원도 야속한 심정의 호소도 아니요 다만 그 어떤 박절한 인정의 문을 두들겨부시는듯한 격렬한 울부짖음이였다.

안혜순의 눈가에 한점 눈물이 번뜩이는것 같았다. 눈길을 떨군채 그 녀자는 입술을 깨물며 청진기를 감아쥐더니 《중대장동무, 절 욕해주세요. 전… 아직…》 하고는 뛰쳐나가고말았다.

끝없이 긴 겨울밤이였다. 성우는 상처에서 오는것보다 더 뼈아픈 마음의 자책때문에 잠들지 못하고있었다. 《한시간만 빨리 왔어도…》 하던 안혜순의 말을 상기할 때마다 신경을 톱질하는듯한 전률에 몸을 떨군하였다. 그 한마디야말로 류성우를 무섭게 질책하는 준엄한 비난과도 같은것이였다. 네가 시간을 지체시켜 중대를 포위에 빠뜨리지 않았느냐. 그리하여 귀중한 전우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았느냐!…

고통스러운 겨울밤은 더디게 흘러갔다. 혼미해지는 의식속에서 그는 광차바퀴 굴러가는 소리를 들었다. 간데라를 입에 문 소년광부 류성우가 도갱속으로 광차를 밀고들어가고있었다. 발파가스가 꽉 들어찬 굴간, 숨이 막히고 머리가 흐려진다. 경사진 레루길을 따라 하나, 둘, 셋 하고 한걸음한걸음 옮겨짚느라면 덜컥— 하고 광차바퀴가 이음짬을 넘어가고 뒤미처 삐익— 삐익— 하는 성가신 쇠소리가 신경을 쥐여뜯는다. 소년광부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였다. 그것은 주린 창자까지도 허벼대는듯하였다. 간데라불에 비추인 어둑스레한 돌벽, 끈적끈적한 바닥, 삐죽삐죽 모가 난 돌천반… 지난날 어린 가슴을 무섭게 압박하던 굴간마구리속을 허척지척 걸으며 그는 시달리고있었다.

문득 그는 누군가의 지꿎은 시선에 놀라며 눈을 떴다. 방안은 어둑컴컴하고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진흙을 매질한 천정과 우불

꾸불 가로지른 서까래를 겨우 가늠해보면서 그는 생각했다.
(참 이상한 일인걸, 누군가 분명 나를 살펴본것 같은데…)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어데선가 바람벽을 뚫고들어왔음직한 그 지꿎은 시선의 근원을 찾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워보았다. 그러자 이상한 일로는 그 타는듯한 시선이 마치도 팔을 내뻗치면 손에 잡힐듯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는것이였다. 그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광솔가치에 불을 달았다.
《문기, 자지 않소?》
대답이 없었다.
《왜 그러오?》
《…》
《괴롭나?》
《아니요.》
《그럼 왜?》
《중대장동지!》
이렇게 속삭이듯 불러놓고 문기는 눈을 감았다. 그 어떤 불길한 예감이 성우의 뇌리를 찔렀다.
상병자들이 제일 싫어하는것은 정적이다. 성우조차 지긋지긋한 한밤을 괴롭게 보내고있는터이니 온몸을 운신하지 못하는 문기야 말해 무엇하랴.
《중대장동지.》 하면서 문기는 다시 눈을 떴다. 순간 성우는 가슴이 서늘해지는것을 느꼈다.
《전… 압니다.》
《뭘말이요?》
《전…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요, 문기?》
《절 욕하십시오. 그렇지만 제 말만은 다 들어주십시오.》
《?…》
의외의 일에 당하여 성우는 말을 꺼낼수 없었다. 가슴속에서는 세찬 풀무질이 시작된듯하였다.
《이미 얘기한것처럼》 하고 문기는 또렷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저의 고향 원소마을은 멀지 않습니다. 집엔 늙은 아버지와 부끄럼 잘타는 그 사람이 있구요. 이제 금방 난 꿈속에서인지 하여

튼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가요? 같이 마주서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도무지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군요. …무슨 말을 했던지는 다 모르겠지만 아들애소식을 물었던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중대장동지, 생각나지요? 습격전투를 앞두고 중대장동진 편지를 공개하고 난 그 애길 했지요. 그때 말한것처럼 나처럼 키가 큰가고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훌떡 집안으로 뛰여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난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것 같았습니다. 헌데… 조금 있더니 〈그녀석〉을 안고 나온단말입니다. 아직 이름도 없는 그녀석을요…》

류문기는 점차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 시작했다. 그더러 이젠 말을 그치고 안정하라고 말하고싶었으나 웬일인지 성우는 그 말을 차마 꺼낼수 없었다.

《참 우스운 일두…》 하고 문기는 마른 입술을 혀끝으로 추기며 속삭였다. 《갑자기 아들녀석이 나만큼 컸거던요. 손에는 파란 신호등을 들고 나를 향해 저어준단말입니다. 중대장동지도 파란 신호등이 무얼 가리키는지 알겠지요? 한때 난 경부선철도에서 처음엔 급사로 일하다가 김천역의 전철수가 됐습니다. 밤낮 전철기를 제끼면서 원방신호기의 파란 불을 보느라면 원소마을이 떠오르고 낡은 초가집이 보이군했지요. 그때부터 난 파란 신호등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나만큼 자란 아들녀석이 파란 신호등을 저어주는걸 보자니까 가슴이 막 찌르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나를 부르는 소리거던요. 잠시도 멎지 말고 곧추 오라는 소리지요. 그래 막 달려갔습니다. 헌데 정신없이 막 뛰다보니 그 파란 신호등이 아직도 까마득히 먼 산봉우리에서 흔들리는게 아니겠어요. 왜 그럴가요. 아마 끝내 난 거기까지 가보지 못할게 뻔하니… 아니, 중대장동지, 내 말을 마저 들어보십시오. 나를 욕할줄 압니다. 죽음과 싸워 이길 생각은 않고 졸장부가 됐다고 하겠지요. 그러리라는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전… 제가 얼마나 심한 상처를 입고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런 아픔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이게 무슨 징조인지 갑자기… 알리더군요. 중대장동지!…》

쓰라린 련민의 정을 씹어삼키며 성우는 그의 어깨를 조심히 그러안았다.

《용기를 잃지 마오. 문기동무, 방금 동무가 말한것처럼 고향에서 손꼽아 기다리고있지 않소. 그렇게 기다리는 고향을 지척에

두고 그게 무슨 나약한 소리요？》
허나 문기의 얼굴은 고요했다. 그처럼 신랄하고 예민하던 문기였지만 지금은 평온했다. 그것은 명상에 잠긴 얼굴이였고 야밤의 선창가에서 파도너머로 사라져가는 배의 고동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얼굴이였고 참을길 없던 온갖 고통을 다 이겨내고 이제는 고요히 잠들고싶어하는 얼굴이였다.
《문기！》
《…》
뭉툭한 손가락으로 심장을 쿡 찔러대는듯한 충격에 성우는 흠칠 몸을 떨었다. 다음순간 그는 자기로서도 알수 없는 힘으로 자리에서 뛰쳐일어나 문을 차고 나섰다.
상급준의 안혜순과 나어린 간호원처녀는 벙어리포수가 창고삼아 쓰던 비좁은 칸을 손질해 들었었다. 성우가 세차게 문짝을 두드리자 상급준의는 물론 코를 박고 잠들었던 간호원이 벌떡 일어났다.
《상급준의동무, 문기가 위험하오！》
성우는 키낮은 문틀에 부딪쳤다. 그는 맨처음 상급준의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고 자기를 부축해 끌어들이는 간호원의 팔을 감촉했다. 유리그릇이 쨍그랑！ 하는 소리와 누군가의 덤벼치는 소리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됐어요. 여기 잠간 앉아계셔요.》 하는 말을 분간해들었고 이어 다시금 찬바람이 몰려들어 등불이 꺼진것을 알았다. 그을음냄새와 누기찬 곰팡이 냄새, 의료일군들을 묻어다니는 소독약냄새까지 분간해낼수 있게 되자 그는 어둡고 랭랭한 이 방안에 왜 홀로 남았는가 하는 의혹에 사로잡혔다. 다음순간 문기의 미소를 그린 얼굴이 떠올라 문을 열어젖히며 밖으로 나섰다.
어둠속에서 눈더미들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어데선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오고 가까운 계곡에서는 물흐르는 소리도 들려왔다. 아니, 아니다！ 그는 이 겨울에 시내물이 소리쳐 흘러내릴수 없다는것을 안다. 그것은 이 밤도 잠들지 않고 골안을 휩쓸어내리는 바람소리다. 자연계의 온갖 생물들을 끊임없이 위협하며 그것들은 기나긴 겨울 한밤을 날치고있는것이다.
성우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상급준의와 간호원은 문기의 머리말에 우두커니 서있었고 간막이너머에서 건너온 부상병들도 묵묵

히 둘러서있었다. 두개의 수류탄등불과 광솔불들이 승벽내기로 키돋움을 하고있었는데 그 불빛에 비추인 상급준의의 얼굴은 퍼그나 늙고 추연해보였다. 간호원은 지혈겸자로 분홍빛 가제를 꽉 집은채로 까딱않고있었다. 이발들이 든든한 지혈겸자는 지금 그 처녀의 사고력까지 꽉 물고있는듯했다.

숨막힐듯 무거운 침묵과 정적이 깃든 방안에서 중상자가 마지막숨길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거기에다 또 하나 얼음쪼각들이 부딪치는것 같이 단조로운 소리가 끼웠는데 그것은 여러 사람이 쓸어들면서 흔들어놓은 돌쩌귀소리였다. 정적속에 울리는 단조로운 그 음향이 부상병의 마지막 남은 생명을 토막치는듯 아프게 들려 성우는 얼결에 그것을 꽉 부르쥐였다.

순간 그는 상급준의와 눈길이 마주쳤다. 안혜순의 두눈엔 사무친 애원의 빛이 들어있는것 같았다. 성우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러자 마지막 생존의 점패가 류성우에게 쥐여있기라도 한듯 모두 조용히 비켜섰다.

문기는 눈을 감고있었다.

《문기！》

성우는 조용히 불러보았다. 아니,이렇게 시작하는것이 아니였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지금 문기를 그가 방황하고있는 먼 환각의 세계가 아니라 류성우도 있고 김만복,배다운,황히세소대장이며 방성화 등 전체 중대가 기다리고있는 현실세계로 불러오는것이라고 성우는 생각하였다.

《문기,눈을 뜨오. 상급준의동무가 여기 다 불러왔구만. 여기 배다운 련락병도 왔구,방성화분대장두 있소. 모두 동무가 깨여나기를 기다리고있단말이요.》

그는 문기의 귀전에 바싹 머리를 숙이고 그와 가깝던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불러내기 위해 애썼다.

《황히세소대장이 성을 내고있소. 동무가 약속하지 않았소？ 그래 김만복아바이가 담가를 가져왔다누만. 자,파란 신호등이 켜지면 중대로 떠날것,어떻소. 문기동무,보이오？ 파란 신호등이 켜져있소.》

이것은 실로 비상한 효과를 가져왔다.

성우는 문기의 입술에 떠오른 가벼운 미소와도 같은 감촉을 느끼였다. 그러자 전률과도 같은 억제할수 없는 공포와 기쁨이

머리속을 스쳐지났다. 이 한 순간에 모든것이 결정될것 같았다.
《문기, 나 중대장이요.》
그것은 속삭임과도 같은것이였다. 헌데… 부지중 문기의 두눈이 떠졌다. 순식간에 방안은 진공상태처럼 먹먹해졌다. 무자비한 의혹심과 랭혹한 기대가 숨길을 짓눌렀다. 성우는 목구멍이 꽉 메이는것을 느꼈다.
문기는 둘러선 사람들을 의아쩍게 쳐다보았다. 그러나 다음순간엔 벌어지는 일에 대한 명백한 리해가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는 상급준의 안혜순에게 시선을 멈추고 말없는 눈길언어로 그를 가까이 불렀다. 안혜순은 모포깃을 여미여주었고 목을 감은 붕대에서 무엇인지 가볍게 털어주었다.
문기는 상급준의의 손을 더듬어 찾았다. 안혜순이 그의 손을 꽉 감싸쥐자 그는 안심한듯 미소를 그리며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모두 일시에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숨막힐듯한 정적속에서 류성우는 저도 모르게 흠칫했다.
(무슨 의미일가?… 혹시 그것은 상급준의며 전우들이 기울여준 헌신적우애에 대한 고마움일가 아니면 그의 꾸준한 한생이 총화될 때 남기고싶었던 인사였을가?…)
아무도 그 진정한 의미를 다 알수 없었지만 그것이 한 병사의 가슴속에 불길처럼 타번지던 그것—생과 투쟁에 대한 값높은 지향이였다는것만은 명백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대장을 서둘러 찾았고 속삭이듯 말했다.
《중대장동지, 부탁합니다.》
다시금 날카로운 아픔이 성우의 가슴을 찔렀다.
《전… 끝까지 싸우고싶었습니다.》
《동문 잘 싸웠소. 동문 중대의 기습공격에 귀중한 8분을 찾아주었소.》
문기는 알릴듯말듯 손을 들었다. 성우는 그 손을 꼭 감싸쥐였다.
《전… 중대와 같이 가고싶었습니다. 승리하고 다같이…》
《그렇게 약속했지. 문기, 우린 꼭같이 가게 될거요.》
《몸은 비록 못가도… 난 꼭…》
갑자기 경련이 일어난듯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그는 류성우의

손을 힘겹게 더듬었다.
《동무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참된 길을 찾았으나 승리를 못보고가는… 저를 대신해서…》
《문기!》
어데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집게처럼 성우의 손을 틀어잡으며 그는 두눈을 동그랗게 떴다. 생의 바통을 놓지 않으려는 필사의 노력은 창백한 그의 얼굴을 이지러지게 했다.
《나는 비록 가지만… 떳떳이 살았다고 고향에 가면… 꼭…》
그의 머리는 저절로 들리고있었다.
《내 아들애에게도 다… 말해주십시오. 그 앤… 내가 못다한 걸… 꼭 할겝니다. 그리구— 그 애 이름을 남해라고… 지었다는 것도 꼭… 전해주십시오. 남해라고…》
문득 그의 머리는 맥없이 떨어졌다. 억세게 틀어쥐였던 손이 천천히 감각을 잃고 굳어져버렸다. …
성우는 그를 반듯이 눕히고 공허하게 한점을 응시한채 굳어진 두눈을 감겨주었다. 그리고 까딱하지 않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정든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남해! … 아마도 그는 남녘해방의 념원을 담아 그렇게 이름했을것이다. 아직 보지도 못했고 한번 안아보지도 못한 그 애의 이름을 오래도록 궁리하면서 자기의 모든 희망을 깡그리 담았으리라…
숨막힐듯한 정적을 깨뜨리며 누군가 헉!—하고 흐느끼자 간호원처녀는 피뜩 몸을 돌이켜 문을 열고 뛰여나갔다. 열려진 문으로 쓸어든 찬바람에 수류탄등불이 길게 넘어지면서 몸부림쳤다. 문이 닫긴 다음에도 불길은 허우적거리며 계속 흔들렸고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토막토막 찍어가는 돌쩌귀소리까지도 한동안 계속되였다.
류성우는 불빛이 너울거리는 문기의 얼굴, 싸늘하고 평온하고 온갖 고통을 잊은 그의 얼음장같은 얼굴을 이윽토록 내려다보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그 말, 참된 병사로 살다가 떳떳하게 떠나간다던 그 말을 되새겨보았다.
고향을 지척에 두고 떠나간 전사… 첫인상에 그는 몹시 까다로와만보이던 전사였다. 신랄하고 조폭하고… 새로 온 중대장에게조차 그는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에게서 류성우는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침울한 눈길을, 친밀한 정보다 경원하는 기색을

보았었다. 어떻게 되여 그는 그처럼 뜨거운 전사의 심정을 그처럼 꿈많은 마음을 일찍 보지 못했는가? 그의 마음뿐만아니라 이처럼 그가 균형잡히고 순진한 얼굴을 가졌다는것을 왜서 일찍 알지 못했던가? 쓰라린 후회와 애석의 정이 비통한 슬픔에 더해졌다.

류문기, 그는 자기가 연 지름길로 자신은 가지 못했다. 애젊은 안해와 아직 한번도 보지 못한 아들과의 상봉이며 해방된 원소마을을 고향사람들과 함께 걷는 그 모든 기쁨을 눈앞에 두고 그는 떠나갔다. 그는 그 모든 소원과 기쁨을 우리의 어깨우에 얹어주었다.

《문기동무!》 하고 성우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우리는 동무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할것이요. 안심하고 고이 잠드오. 동무가 넘겨준 그 념원을 이 어깨우에 걸머지고 동무의 몫까지 합쳐 싸울것이요!》

류성우는 괴롭게 높뛰는 심장을 움켜쥐고 그로부터 물러났다.

…밖에서는 흉포한 겨울의 변덕이 계속되고있었다. 목갈린 짐승의 울음소리, 얼음쪼각들이 깨여지는 소리, 진정할줄 모르는 앙상한 숲의 흐느낌소리… 류성우는 아름드리 참나무기둥에 머리를 기대고 겨울밤의 이 모든 혼잡과 캄캄한 어둠속을 묵묵히 노려보았다. 그는 한시바삐 중대로 돌아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있었다.

수림도 신음하고 흐느끼며 뒤설레였다. 구름장새에서 삐여져나온 별들이 안타깝게 눈짓을 하자 가까운 벼랑굽이에서 얼음장들이 서슬푸르게 번뜩이였다.

(앞당기자!)하고 성우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마음다졌다. (문기의 몫까지 싸우기 위하여 전투적으로 앞당기자!)

이때부터 류성우는 자유로이 걷기 위한 엄격하고도 고된 훈련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진저리나던 치료의 나날은 가혹한 훈련의 나날로 바뀌였다.

10

어느덧 류성우의 병실에도 상병자들이 꽉 찼다. 그리하여 련대는 물론 련합부대적인 전투소식도 늘어가는 부상병들과 같이 더 많아졌다.

문기가 누웠던 자리엔 다른 대대의 한 전사가 자리잡았는데 그는 자기가 대대장련락병이라고 했다. 련락병이라는 부름만이 아니라 나어린 전사라는 의미에서도 배다운을 련상시키는, 목이 길쑴하고 머리에 붕대를 잔뜩 감은 그 전사는 여러가지 전투소식들로 이미 밀영생활에 넌덜머리가 나기 시작한 상병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3대대에서 포탄창고를 폭발한 다음 련달아 우리 1대대에선 〈특공대〉놈들의 숙영지를 습격해서 두개중대를 요정냈어요. 헌데 소문을 들으니까 다음날 〈특공대〉를 찾아왔던 대대장이란놈이 글쎄 두개중대나 되는놈들이 싹 뒈진걸 보자 그만 기절했다나요. 이건 이미 다 아는 얘기지요?》

성우는 포탄창고습격과 동시에 여러 대상들을 타격한다던 련대장의 말이 생각났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3대대의 전과는 8중대의 포탄창고습격외 아무것도 없는것이다. 그러나… 이상할것도 없다. 그는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였다. 8중대가 포위속에 빠짐으로써 련대의 작전은 혼란되였던것이다.

《나는… 예비대까지 보내여 동무를 구원했소. 그들에게도 중요한 임무가 있었소…》

련대장의 말이였다. 아, 한 지휘관의 실수로 얼마나 큰 후과가 빚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은 우연한 실수였는가?!… 처벌을 받아야 마땅했다. 처벌!…

쓰라린 마음으로 그는 이렇게 곱씹었다. 바로 그 순간 성우는 귀전에서 《중대장동지.》 하는 부름에 머리를 돌렸다. 목이 길쑴한 전사, 대대장련락병이 웃고있었다.

《우리 대대에 오춘섭이라는 소대장동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병소대장인 그에게 정찰임무가 나섰거던요.》

그는 매번 자기가 하는 말이 조금도 과장이 없으며 실지 있은 그대로를 전달한다는 의미로 소리없이 웃다가도 별안간 심각해지기도 하였다.

《그 소대장동진 대원 두명을 데리고 의성시가에 들어가 적대대장놈의 생일연회에까지 참가했어요. 그게 바루 〈칠혈〉부대에서 제일 악질적이라는 대대였는데 글쎄 거기에 떡 들구앉아서 술까지 마셨다나요.》

전사는 또 웃었다. 어쩐지 비웃는것처럼 느껴지는 그 웃음도 알

고보면 무척 귀염스러운것이였다.

《그런데 미국고문놈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영어라군 단 두마디밖에 모르는 그 소대장동지가 얼마나 침착하고 대담했으면 놈들을 얼려넘기고 끝내 군용지도까지 탈취했겠어요.》

그가 진지하고 소박하게 그리고 아주 귀엽게 이야기를 해가니 간막이 저쪽에서도 걸을수 있는 부상병들이 넘어와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이 친구 보통내기가 아닌걸. 배다운 찜쪄먹겠군…)

그러자 불시로 중대가 그리워졌다. 배다운이며 방성화, 김만복 등 여러 전사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가운데 류성우는 밀영에 와서 처음으로 미소를 머금고 자기의 련락병과 마음속 대화를 나누었다.

《련락병, 어떻게 하면 빨리 중대로 갈수 있을가, 무슨 좋은 수가 없나?》

《아니 중대장동지, 그런 궁리도 안난단말입니까?》 하고 배다운은 앙증스럽게 눈짓을 할것이다. 《별게 있습니까. 슬쩍 빽소니치면 될걸 가지구…》

《그럼 그렇지… 빽소닐 쳐야지!…》

그동안 목이 길쑴한 전사는 보병소대장의 정찰자료에 근거하여 의성에서 시가전을 하던 광경도 아주 그럴듯하게 펼쳐보이고있었다.

《의성에서 400여명이나 죽고 한개대대가 쫄딱 녹아나게 되자 급해맞은놈들은 16대의 자동차에 증원부대를 보냈어요. 헌데 얼마나 앙큼한놈들인가 보라요. 놈들은 도중에서 자동차를 세워놓고 시내에서 불이 다 꺼질 때까지 6시간동안이나 기다리구있겠지요. 제편이야 죽겠으면 죽고 제놈들은 체면이나 세우면서 살구보자는거지요. 드디여 우리가 다 철수했으려니 하고 날이 밝은 다음에야 다시 차를 몰아대는데 제놈들끼리 제법 수기신호까지 하면서 달려오지 않겠나요. 이런게 허장성세라는거죠. 중대장동지, 그렇지 않습니까?》

류성우는 먼저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럼!… 잘 말했소.》

조급해진 상병자들이 독촉했다.

《그래 어떻게 했나?》

《가만 두진 않았겠지?》

전사는 또 소리없이 웃었다.
《그럼은요. 그때 우리 4중대가 길목을 지키고있었거던요. 마음놓고 달려오던놈들을 몽땅 잡았지요. 한놈도 살아가지 못했답니다.》
《아주 멋들어진데!》
《놈들이 미칠지경이 됐겠구만.》
부상병들이 기분 좋게 떠들었다.
《그런즉 련합부대적으로 전과를 종합하면 기맥히게 많겠구만.》
《그렇구말구요.》
목이 길쑴한 전사는 능청스럽게 두눈을 쪼프리고 주의를 모았다.
《그동안 다른 련대들도 도착하자바람으로 많은 전투를 했는가봐요. 비학산에서도 큰 전투가 있었는데… 참, 그 얘기도 들어보면 멋있게 해치웠두만요. 놈들이 공격할 때 허수아비에 괴뢰군군복을 씌워 기만해가지곤 뒤통수를 쳤다나요.》
련락병들이란 중대나 대대의 《우편함》이기도 하다. 하기에 중대나 대대에서는 련락병들을 통해 작전참모가 어제밤 뭣때문에 꿈을 꾸면서 웃었는가 하는 엉뚱하면서도 론리정연한 주해표도 받군한다.
《참, 이틀전엔말이예요.》 목이 길쑴한 전사가 또 말을 이었다. 《답동에 있는 〈반유격대대〉놈들을 추격했는데…》
《〈반유격대대〉?… 그건 또 뭘하는 놈팽이들인가?》
전신화상을 입어 두눈에까지 붕대를 감은 하사관이 구석쪽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여 물었다. 모두 일시에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반가운 시선을 던졌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한마디 말도 없었기때문이였다. 여러날째 계속되여온 침묵끝에 처음으로 입을 열게 된 하사관의 표정은 가늠할수 없었으나 모두 활기를 띠였다. 전사들은 서로 눈짓해가며 그가 한마디라도 더 꺼내기를 바라며 목이 긴 전사를 다우쳤다.
《그래 어떤놈들인가, 그 〈반유격대대〉란게?…》
《그놈들은…》 전사의 말이였다. 《원래 유격대를 대상한다고 조직했다는데 요즘은 미국고문놈이 직접 틀어쥐고 우리를 반대하는 무슨 심리전을 한다나요. 악당들이예요. 인민군대로 가장해가지고 마을을 습격하지 않나, 처녀들을 끌어가지 않나… 온통 더러운짓들만 하지요. 게다가 놈들에겐 우리 부대 지휘관들에 대한 현상금까지 걸어주었다나봐요. 그래서 밤낮 산속으로 쏘다니는놈들

도 있어요.》
《저런 죽일놈들!》
《그것들을 단매에 쳐죽이지 못해?》
여러 상병자들이 떠들어대는 가운데 성우는 중대에 처음 갔을 때 류문기와 김만복이 사살해버렸던놈들의 시체가 떠올랐다. 비로소 그는 《특수부대》를 운운했다던 그놈들의 정체에 대하여 알게 되였고 련합부대의 남하와 동시에 그처럼 비렬하고 악착스러운짓을 준비한 적들의 악랄한 교활성에 이가 갈리는것이였다. 전사의 이야기는 계속되였다.
《…놈들을 추격했는데… 교활한것들이 다 뿔뿔이 달아나지 않겠어요. 한개소대나 될지 하는 놈들만 잡았어요.》
전사는 입가에 주름을 모았다. 악당들을 모두 족쳐버리지 못한 군사적인 책임을 직접 감당하는듯한 그 무거운 인상에서 류성우는 부대와 련합부대가 겪고있는 헤아릴수 없는 간난신고의 일면을 보는것 같았다. 그때 상급준의가 나어린 간호원처녀와 같이 들어섰다. 비로소 사람들은 오늘따라 상급준의의 엄정한 아침일과가 늦어진것이며 그 녀자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에 주의가 미쳤다.
《마침 다 모였군요.》 안혜순은 간호원처녀에게 눈짓했다. 《제가 뭘 가져왔나 좀 보세요!》
간호원처녀가 목도리로 감싼 소형라지오를 꺼내놓았지만 다들 의아해했을뿐이였다. 그 어떤 약품을 싼것으로만 보았던때문이였다. 그러나 짧은 한순간이 지나자 걷잡을길 없는 격동이 그들을 일으켜세웠다. 저마끔 공책너비만한 그것에 손을 뻗쳤고 어떻게 이 귀한것이 생겼는가고 물어댔다.
안혜순은 련대장의 지시로 이 전리품 라지오가 범골밀영에 차례진 경위를 간단히 설명했다. 그러는 가운데 류성우는 라지오를 들어 익숙한 솜씨로 건전지를 검열하고 전원을 련결시켰다. 주파수를 돌리자 먼저 바람새는듯한 소음이 울리더니 삐익—삑!—하는 예리한 금속성이 가슴을 찌르르하게 울려주었다.
류성우는 천천히 숨을 몰아쉬면서 한눈금사이에서 수천키로의 광대한 지역을 포괄하는 주파수를 조절했다.
불현듯 광막한 공간을 헤가르며 서로 부딪치고 번개처럼 내달리던 온갖 전파세계의 잡음들이 사라지면서 은은한 선률이 부드

럽게 파문을 지으며 가슴속으로 흘러들었다. 그것은 공화국의 창건과 더불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친근해진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였다.

행복한 날들에 대한 그리고 벗들이며 귀중한 사람들에 대한 추억처럼 파도쳐오는 선률속에서 방송원의 목소리는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인민군장병 및 빨찌산들과 애국렬사들의 유자녀학원설치에 관한 내각결정 제192호의 발표에 즈음하여 각계층 인민들,유자녀들과 가진 중앙방송기자와의 문답을 보내드리겠다고 소개하였다.

《그럼 말씀해주십시오.》 하고 방송원이 시작했다. 《할아버지,지금 년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일흔한살이웨다.》

석쉼하고 웅글은 목소리로 로인은 병든 자식들이 죽어갈 때마다 거적때기에 싸서 내다묻던 지난 옛시절의 이야기부터 꺼냈다. 그리고 이 전쟁판에서 이런 꿈같은 일이 생길줄이야 어떻게 상상인들 했겠느냐면서 애비 잃은 두손자녀석의 이름도 오늘 적어가더라고 울먹울먹 말하였다.

계속하여 나어린 소녀들의 목소리가 울리고 미국놈들에게 일가친척을 다 잃은 한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투리도 많았고 말끝을 맺지 못하는 일은 더 많았다. 비록 수수하고 평범한 목소리들이였으나 그것은 장군님께 감사드리는 뜨거운 인민의 마음이였다.

방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했다. 전쟁이 일어나기전까지 필시 대장간이나 아니면 철공소에서 함마를 잡고 철판을 두드리다가 그 억센 주먹으로 불구대천의 원쑤들과 겨뤄보기 위하여 싸움판으로 달려나왔을 한 전사는 떡살이 굳어진 두툼한 손바닥으로 눈언저리를 씻었다. 그리고 흥분으로 얼굴이 벌거우리해진 한 부상병은 저도 모르는새에 아직 수염이 돋지 않은 코밑을 연방 문지르고있었다.

문답은 오래 계속되였지만 누구도 그것이 얼마동안 계속되였는지 또 언제 끝났는지 알지 못했다. 우뢰같은 박수소리가 별안간 터졌을 때에야 그들은 그것이 끝났음을 짐작했다. 이번엔 오래 계속된 박수소리에 이어 목청을 돋군 외국말이 터졌는데 잠시후 방송원은 세계도처에서 벌어지는 조선에서의 미제침략자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군중집회소식들이라는것을 공포했다.

비좁은 방안에 홀연 광대한 대륙들의 수백만 선량한 인류가 들어차기 시작했다. 한때 사로잡힌 짐승이나 덫에 걸려, 혹은 산탄에 죽은 짐승가죽을 벗기던 벙어리포수의 초막에서 지금은 미제승냥이들의 인두겁을 벗기고 흉악무도한 죄행을 단죄하는 세계의 웨침이 울리고있었다. 범골밀영은 세계의 량심과 한덩어리되여 숨쉬였다. 이렇게 한동안 시간이 흘렀다.

문득 성우는 시계를 보면서 한손을 약간 쳐들어 주의를 환기시켰다.

《가만, 시작되오.》

그러지 않아도 모두 숨을 죽여가고있었다. 눈을 싸맨 하사관은 통나무벽에 머리를 기댄채 까딱하지 않았고 떡메같은 주먹을 부르쥔 전사는 어느덧 엉거주춤 일어서기까지 하였다.

취주악으로 연주된 힘찬 군가가 초막안을 뒤흔들면서 역시 그보다 못지 않은 무게있고 과단성있는 방송원의 목소리가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말씀드리겠다고 선포한것이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그것은 장엄하고 환희에 찬 례포처럼 흉벽을 쾅쾅 울려주었다.

《최근 미제침략자들은 전선서부에서 미제침략군 1,9군단, 영29려단, 뛰르끼예려단 등 방대한 무력을 집결하여 한강도하를 시도하였지만 서울지구인민군련합부대들은 완강한 방어와 강력한 반타격, 반돌격으로 단3일간에 적장병 8,927명을 살상하고 땅크 37대, 각종 포 114문, 비행기 29대를 격파하였다.

특히 수리산에서 인민군용사들은 한개대대의 력량으로 20여대의 땅크를 앞세운 미제침략군 25보병사단의 42차례에 걸친 공격을 물리치고 적병 4,500여명을 살상포로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한편 전선동부에서는 미제침략군 10군단과 괴뢰군 1,3군단이 공격하였으나 아군련합부대들은 전반적계선에서 반타격으로 넘어가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겼다. 그리하여 놈들은 원주—정선계선으로 황급히 퇴각하였다.

이상으로 오늘부 최고사령부보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또다시 힘찬 취주악이 울리기 시작했다. 서리찬 날창처럼, 폭발의 굉음처럼 그리고 벅찬 환희로 뒤바뀌면서 가슴을 쾅쾅 울려주었다.

불시로 누군가 두손을 번쩍 쳐들었는데 그러자 여럿의 갈린 목청들이 일시에 만세를 웨쳤다.

《만세！—》

《만세！—》

떡메같은 주먹이 제일 높이 쳐들려있었고 그아래 붕대에 감긴 팔뚝이며 간호원처녀의 하얀 손이 솟구쳐올랐다.

류성우는 전신화상을 입은 전사가 통나무벽을 짚으며 비틀거리는것을 보자 그를 부축해 세워주었다. 두눈을 칭칭 감은 붕대우로 벌거우리하게 피가 슴새여나오는것이 보였다. 그것은 앞을 못보는 그였지만 천리전선에서 벌어지는 격전과 장쾌한 승리를 바라보며 터치는 뜨거운 눈물때문이였다.

《누굽니까, 중대장동집니까？》

《그렇소, 나요.》

《중대장동지！》

그는 손더듬으로 류성우의 어깨를 붙안았다.

《이걸 위해 우리가 여기서 싸우지요, 예？ 중대장동지, 그렇지 않습니까？》

《옳소, 옳은 말이요.》

성우는 그 순간 희생된 중대장이며 류문기를 비롯한 이름없는 많은 전사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것을 소리높이 웨치고싶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본전선의 승리에 비하여 자기들의 성과란 극히 적은 한부분에 불과하며 이제 비로소 첫걸음을 뗀것이라는것도 깨달았다.

(그런데 너는…) 하고 그는 쓰라린 의식으로 자문했다. (병원에 드러누워있다니… 목숨이 붙어있는 이상 전투에서 물러설수는 없다！)

그는 자기가 두눈을 꽉 감고있는줄도 몰랐다. 어찌된 일인지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차오르며 서서히 끓어번지는것이였다.

…다음날이였다. 류성우는 련락병 배다운이 찔러준 쇠줄로 장화를 깁고 군복차림을 단정히 하자 상급준의 안혜순을 찾아갔다.

하늘엔 쪼각구름이 점점이 흩어져있었다. 눈더미들이 녹아버려 거뭇거뭇하게 드러난 뜨락과 둔덕의 갈래길에서는 갈가마귀들이

점잖게 산책을 하고있었다. 이따금 그것들은 날카로운 부리로 꿋꿋한 땅을 쪼아보기도 하고 날개죽지를 활 펴들어 옆구리 어덴가를 극성스럽게 쑤셔대기도 했다.

모든것이 이날의 기분에 알맞았다. 귀바퀴를 침질하는 추위는 물론 어둑침침한 숲속에서 급작스럽게 나래를 푸득이는 소리도 상급준의 안혜순의 놀란 눈초리도 다 류성우의 때이른 결심을 강조하는듯싶었다.

두겹으로 접은 종이를 안혜순에게 내밀면서 성우는 말했다.

《이번 주일에 하려던 학습내용입니다. 그리고 써클도 준비시켰는데 여기에 그 종목들이 있습니다.》

안혜순은 종이를 받아들었으나 펴볼념도 않고 단지 성우의 때이른 결심을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할지 아니면 말없는 침묵으로 긍정하는 편을 택할지 망설이는듯하였다. 미심쩍은 그의 눈길은 벌써 몇번째나 류성우의 상처부위를 살피고있었다. 누구도 감히 엇서려고 하지 않는 도고한 상급준의였지만 코날이 날카롭고 얼굴이 약간 거무스레한 이 중대장의 고집을 꺾기는 그닥 쉽지 않다는것을 생각하는것 같았다.

목이 길쑴한 대대장련락병이 머리우의 붕대를 조심히 어루만지며 뒤뜨락을 돌고있었다. 그는 아들 삼형제를 전선으로 떠나보내면서도 눈물없이 바래주는 어머니에 대한 시를 따로외기에 여념이 없었다. 팔을 쭉 뻗쳐보기도 하고 갖은 고초를 다 겪어온 늙으신 어머니의 심정을 그려보려고 반쯤 눈을 감으며 귀엽스러운 얼굴을 잔뜩 찌프리기도 하였다.

격조높은 서정시의 행진곡으로 반주된 전사의 걸음은 갈가마귀들을 놀래워 쫓아버렸다.

> 웨 이 나라의 어머니들은
> 눈물없이 아들을 싸움터로 보내노?
> …

마침내 안혜순이 눈길을 높이 들었다.

《헐치 않을거예요, 중대장동무.》

《병원에 있기는 더 어렵습니다.》

《…》

안혜순은 잠자코 고개를 돌려 열정적으로 시를 외우는 전사를 바라보았다.

문득 성우는 피로에 잠긴 안혜순을 보면서 사납게 찌프렸던 황히세의 얼굴이며 그의 주먹안에서 바스라져버린 유리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서리찬 그 파편들이 비록 강한 녀성일지라도 그의 마음속상처로 오래도록 남아있을는지도 모른다.

성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상급준의동무, 내 한가지 얘기할게 있습니다.》

안혜순의 눈길엔 야릇한 의혹심이 비껴있었다.

성우는 먼저 포위된 고지에서 정치부중대장 엄기창이 들려준 이야기며 그의 책갈피속에서 떨어졌던 편지를 더듬어 생각했다. 그것은 황히세에게 보낸 누이의 편지였다.

성우는 안혜순을 똑바로 마주보면서 저으기 갈린 음성으로 말을 떼였다.

《얼마전에 나는 우리 중대 황히세소대장에게 보내온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미국놈들 폭격에 녀인과 돌도 채 못된 어린애가 쓰러졌습니다. 녀인은 가까스로 마지막 숨을 몰아쉬였는데 그가 안고있는 애기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꽉 붙안고 사람들에게 사정했답니다. 제발 애를 살게 해달라구요. 금시 쌔근쌔근 잠을 자던게 숨을 쉬지 못하니 어찌된 일인가구 하면서 주사를 놔달라고 했다는겁니다. 주사 한대를요!…》

성우는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였다. 그 처참한 정경이 그의 눈앞에 벌어지고있는듯하였고 몸부림치는 녀인의 눈물겨운 호소를 듣는듯했다.

《그 녀인은 주사기를 든 간호원이 달려온걸 보고야 숨을 졌답니다. 애기를 살릴수 있게 됐으니 마음놓고 갔겠지요. 마음놓고…》

안혜순이 거의 비통한 표정에까지 이른것을 성우는 보았다. 그 눈빛에는 가슴을 에이는듯한 절절한 련민의 정과 사무친 비애가 깃들어있었다.

오래 계속된 침묵끝에 성우는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중대로 떠나면서 제가 왜 이 말을 해야 했는지 상급준의동무도 리해할겝니다. 상급준의동무와 같이 우리 1소대장동무도 약한

성격을 경멸합니다. 사실말이지 우린 그저 온순한 사람이 될게 아니라 강하고 굳센 사람이 되여야 합니다. 더구나 우린 피어린 싸움터에 나선 사람들이니까요.》

《알겠어요.》

안혜순은 입속말처럼 속삭였다.

《그러니 제가 그때 그 동물 더 아프게 했군요. 모욕적으로…》

《아니, 아무도 모욕하지 않았고 또 모욕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

안혜순은 두손을 힘껏 깍지끼더니 다음순간 류성우를 향해 거의 미소를 그린 얼굴을 돌렸다.

《고마와요, 중대장동무.》

…해묵은 새둥지가 걸린 고목밑에서 성우는 상급준의와 간호원 그리고 남아있는 상병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상급준의는 《잘 싸워주세요!》 하고 속삭였다. 그 순간 웬일인지 하얀 위생복자락으로 눈굽을 찍고있는 나어린 간호원처녀를 바라보면서 성우는 생각했다.

나어린 저 처녀나 동구길에서 바래주던 고향의 어머니나 그리고 무수한 기발들이 나붓기던 환송의 역두에서 손저어주던 그 사람들이나 모두 한결같이 부탁한것은 잘 싸워달라는것이였다. 그것은 전사의 어깨우에 감히 수자로 부를수 없는 숭고한 임무를 지워주는 조국의 목소리인것이다!…

11

류성우가 아직 범골밀영에 있던 어느날 벙어리포수의 초막으로부터 북쪽으로 수백여리나 되는 군단사령부에서는 그의 동창생인 로병수가 련락군관으로서 제2전선련합부대를 향해 떠나게 되였다.

그날 군단장은 참모부에서 선발한 련락군관을 직접 만나 임무를 주겠다고 했으므로 로병수는 출발준비를 완전히 갖추고 그를 찾아갔다. 그때 군단장은 어느 농가의 뜨락에서 웃동을 벗고 장작을 패고있었다.

수수한 초가집 작은 뜨락이였다. 도끼날이 번뜩일 때마다 하이얀 도끼밥이 파편처럼 날았고 통나무가 쩍쩍 갈라져나갔는데 군단장은 이 성수나는 일에만 해종일 전념하고있는듯했다.

처마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져 토방아래 얼음판에 극성스레 구멍을 뚫었고 군단장의 목덜미에서는 김이 문문 솟아오르고있었다.

이런 때의 그를 보고서야 누가 감히 왜놈들이 치를 떨던 유격대 련대장이나 《38도선의 호랑이》로 전쟁직전에 벌써 미국놈들이나 괴뢰군놈들속에 공포를 일으켰던 인민군장령의 모습을 찾을수 있으랴. 그것은 분명 평화로운 농가의 수더분하고 근면한 한 주인의 모습이였다.

로병수를 안내한 부관이 그에게 다가가 나직이 무슨 말인가 하자 군단장은 도끼를 놓고 부관이 내밀어준 수건을 받았다. 그리고 한순간 병수를 흘끔 훑어보았는데 억세고 사나운 그 눈빛은 《련락군관인가？ 그런데 왜 그렇게 꼴기가 없이 서있나？》 하는듯했다. 병수는 정보행진때처럼 그에게 다가가 규정의 보고를 했다.

군단장은 아무말도 없이 그를 바라보고있었다. 군모에서 발끝까지 훑어보고 다시 병수의 얼굴에 시선을 멈추었다.

찌르는듯한 눈빛이였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심중한 사색도 들어있었다.

어느덧 몸도 마음도 긴장해진 병수는 군단장이 부관에게 몸을 돌려 무어라고 나직이 말하는것도 듣지 못했다. 부관은 잽싸게 거수경례를 붙이며 《알았습니다！》 하고는 어데론가 달려갔다.

군단장은 천천히 옷을 입었다. 마지막 단추까지 정히 채우고 나서야 병수에게 다가왔다. 병수는 차렷자세를 한 그대로 군단장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제 동문 먼길을 가게 되오. 어렵구 또 매우 중요한 임무요.》

물론 병수는 자기가 적후에 있는 부대들에 군단의 새로운 명령을 가져가게 된다는것을 이미 알고있었다. 하여 그는 군단장을 마주보며 다시금 허리를 꼿꼿이 펴는것으로써 맡겨진 임무를 기어이 수행할 결의를 표시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단장은 계속했다. 《적후에서 싸우는 부대들에 최고사령부의 제4차작전방침에 따르는 명령들과

그곳 전사들에게 자신께서 보내시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씀하시였소. 동무는 바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적후부대전사들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해야 하오.》

《!…》

순간 병수는 자기가 예상했던바와는 비할수도 없이 무겁고 책임적인 임무를 지니게 되였다는것을 깨달았다. 숨막힐듯한 격동속에서 몇순간이 지났다.

그때 부관이 신문지 크기만한 지도를 가져와 토방마루에 펴놓았다.

《자, 그럼》 하고 군단장은 병수에게 지도를 가리켰다. 《우선 이걸 연구하오. 5분후에 구체적인 지시를 주겠소.》

그때에야 병수는 몰아쉬였던 숨을 내뿜으며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할수 있었다. 그리고는 이미 부관이 펴놓았던 지도우에 천천히 머리를 수그렸다.

그것은 흔히 참모부들에서 작성하는 최근의 군사정세를 개괄한 지도였다. 거기에는 맥아더의 《제한공세》에서 주타격방향을 이루는 전선서부의 격전지들, 거기에 투입된 놈들의 군단과 사단들, 배비경로와 날자, 제2제대 적들의 배치정형들과 지어 비행장들에 보유된 비행기, 항구들에 정박한 군함, 기갑부대전차들의 수자까지 적혀있었다.

병수는 그것을 연구하였다. 광대한 전선이 각종 대호들과 수자들로 그의 머리속에 옮겨지기 시작하였다.

전선서부에서 놈들은 서울로 통하는 길을 열려고 미1군단관하의 미25보병사단, 영29려단, 뛰르끼예려단, 미9군단 무력에 매일 수백대의 비행기, 땅크, 포병무력을 투입하고있었다. 격전은 수원서북쪽의 수리산—광덕산일대에서 특히 처절하게 진행되였다. 이미 잘 알려진 수리산전투만 해도 놈들은 사흘동안에 무려 42차례에 걸친 악랄한 공격을 감행하고있는것이였다.

전선중부와 동부에서도 미10군단, 괴뢰군 3군단, 1군단 등에 괴뢰군 및 추종국가군대 12개사단이 공격을 감행하고있었다. 여기에 미제침략군8군의 제2제대병력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난 이래 최대규모의 대병력으로 필사적인 모험에 매달리고있다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었다.

병수는 지도에 적혀진 모든 수자들과 대호 및 지명들을 기계적으로 기억의 광주리속에 다져넣었다. 그리하여 5분후에 군단장이 그를 불렀을 때에는 눈을 감고도 지도의 매 지점, 매 구간에 들어있는 적들의 병력과 화력, 지원포와 항공기, 땅크들에 대하여 상세히 렬거할수 있었다. 그러나 병수가 비상한 기억력을 시위할수록 군단장의 이마에 수풀처럼 돋아난 어마어마한 눈섭이 자주 꿈틀거렸다. 마침내 병수가 입을 다물자 그는 두툼한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려댔다.

《머리는 좋은데 쓸줄은 몰라!…》

물론 군단장은 자기말에 주석을 다느라고 하지 않았다.

《여기서 뭘 봐야 하는가?》 하고 그는 손바닥을 세워 그것으로 지도를 쭉 훑어내렸다. 《놈들은 새로운 〈북진〉을 노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주력부대들을 하나하나 떼여먹자는 수작이요. 이게 맥아더의 〈제한공세〉라는거요. 알만한가?… 그래서 우린 이미 차지한 계선을 방어하면서 적극적인 반타격전, 반돌격전을 벌리자는거요. 그러자면 놈들의 피줄을 끊어놔야 돼! 뿌리를 잘라버려야 한단말이요. 그걸 누가 하는가?… 최고사령부에서는 그 중대한 과업을 바로 적후에 나가있는 우리 부대들에 맡겼소. 큰 기대를 걸고있단말이요!…》

군단장은 자기앞으로 지도를 돌려놓고 한동안 묵묵히 들여다보았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는 알수 없었으나 적구종심에 뚫고 들어간 련합부대를 생각하고있으리라는것은 분명했다. 얼마간 침묵이 있은 끝에 그는 연필을 꺼내여 동해남부지역으로 가져갔다. 그러자 령남땅의 여기저기에 빨간 동그라미들이 하나둘 그려지기 시작했다.

《여긴 련합부대 근거지니까 여기서 다시 쑥 내려가면… 그렇지, 여기 팔공산쪽엔 조강선이 나가있지… 그리구 보현산, 보현산엔…》

마침내 련대들의 활동구역까지 그려놓고 군단장은 그 동그라미들을 여러 대각선으로 련결시켰다.

《보라구,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소?》

병수는 적후부대들을 가로세로 련결한 그 붉은 선들이 대구— 포항— 영천— 안동— 끝으로는 전선으로 련결된 중요철도(중앙선)와 도로들을 도처에서 토막내고있음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군단장이 말하던 《뿌리를 잘라버리는》 선들이였다.

《군단장동지, 알겠습니다. 적후부대들의 활동이 이렇게 뻗어나가

면 전선으로 통한 적들의 철도와 도로들은 모두 차단될것입니다.》
《물론이지.》 군단장은 긍정했다. 하면서도 굵은 눈섭을 치켜들었다. 《여기엔 철도와 도로만 있는게 아니요. 그래서 미리 지도를 연구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보라구, 미국놈들이 이 급한 대목에 와서까지 왜 여기에 1해병사단을 꿍쳐두고있는가? 또 여기엔… 괴뢰군수도사단 미1기병사단과 2보병사단이 눌러있소. 이놈들이 단순히 부대정비가 채 안되여있는줄 아오? 이게 바로 미8군의 작전적예비대요!… 적후에 나간 련합부대의 기본임무는 첫째, 이 예비대가 전선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얽어매는것이고 둘째는 여기 〈유엔도로〉를 비롯한 철도와 도로들을 차단, 파괴하는거요. 내가 왜 동무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이젠 짐작이 가오?》
그는 지도우에 연필을 놓았다.
《이게 기본임무요. 지금까지는 군단이 수행했지만 이제는 세개 련대가 맡고있는 제2전선이란말이요!… 어려운 임무지.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명령은 꼭 수행해야 돼. 거기서 주저앉으면 기본전선의 작전이 흔들린단말이요!》
군단장은 등뒤로 급히 다가온 부관을 돌아보았다.
《무슨 일이요?》
《군단장동지, 방금 전선계선에서 괴뢰군3군단이 두개사단을 횡성방면으로 기동시키고있다는 정찰보고가 왔습니다.》
군단장은 부관이 내민 무선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의 어깨너머 어덴가 먼 산봉우리쪽을 묵묵히 쏘아보고있었다.
《그럴수밖에…》 마침내 그가 한 말이였다. 《그럴수밖에 없어… 부관, 차를 준비시키오!》
얼마후 위장을 빈틈없이 한 승용차는 수차의 격전이 벌어졌던 전장을 달려갔다. 딱히는 알수 없으나 병수는 군단장이 전선을 넘을 경계선까지 그를 태워가겠다고 한것으로 미루어 최전방구분대로 가는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못다한 이야기를 계속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차가 출발한 그 시각부터 군단장은 한마디 말도 없었다.
승용차는 자주 세차게 들추군했다. 운전사가 그처럼 고심하며 애를 썼지만 포탄에 파헤쳐진곳들은 도처에 있었다. 그래도 군단장은 마치 잠든듯 바위처럼 앉아있었다. 장령외투의 목깃을 올리고

등받이에 몸을 기대여앉은 그는 지나가는 전사들, 도로를 수리하던 공병들 그리고 새로 초소를 정한 도로정리원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거수경례를 붙이는것도 알지 못하고있었다.

눈부신 해빛이 성에 비낀 차창유리에서 춤추듯 뛰놀았다. 눈덮인 둔덕들이 지나갔다. 거뭇거뭇하게 드러난 밭이랑, 해묵은 짚더미들, 지나가다 우뚝 멎어선 병사, 앞서달리는 포차, 포차의 바퀴밑에서 날리는 눈가루, 또 밭이랑, 둔덕, 시내가의 얼음판들… 흰별을 그린 열바퀴 자동차가 꽁무니를 우로 쳐들고 구겨박혀있는가 하면 미처 치우지 못한 적병들의 시체가 길섶에 얼어붙어있기도 했다.

승용차가 강기슭을 돌아갈 때 문득 자고있는줄 알았던 군단장이 차를 세우라고 말했다.

《부관, 저기… 지휘관을 찾소.》

공병들이 폭격에 끊어진 다리앞에 정렬해있었다. 군단장은 잠시후 숨이 차서 달려온 대위에게 끊어진 다리는 그대로 두고 멀찍이 강폭이 좁아진곳에 땅크와 포차들이 넘어다닐수 있는 다리를 새로 놓으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그 다리는 얼음면보다 더 높아서는 안되겠소.》

그것은 적기의 공습으로부터 도하장을 은폐하려는것이였다.

《몇시간이면 되겠소?》

대위는 5시간이면 할수 있다고 대답했으나 군단장이 눈섭을 찌프리는것을 보자 땅크와 포차들의 하중을 견딜만한 다리를 놓자면 얼음을 까고 교각을 세워야 하는데 얼음을 까는 일만도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할것이라고 조심조심 설명했다.

《포가 있지 않아!》 군단장이 거쉰 소리로 퉁을 놓았다. 《포를 쏴서라도 얼음을 까고 세우란말이요!》

주눅이 들어있던 대위는 그 말이 끝나자바람으로 날쌔게 모자채양에 손을 올렸다.

《알았습니다, 군단장동지!》

《시간이 없소. 한시가 새롭단말이요!… 두시간안으로 다리를 놓고 보고하시오!》

차는 다시 떠났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렇게 얼마간 달렸을 때 문득 군단장이 입을 열었다.

《시간이 귀중해,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놈들의 대규모적인 공세를 저지시키는 한편 제때에 강한 반타격, 반공격을 가하는거요. … 이를 위해선 적구에 나가있는 우리 련합부대가 그만큼 판을 더 크게 벌려야 해. 놈들을 미칠지경으로 만들어놔야 한단말이요. 시간이 없소. 지금 정세는 모든것을 최대한 앞당길것을 요구하고있소. 최대한으로! …》

마지막으로 작별의 악수를 나눌 때 웬일인지 군단장은 병수의 손을 잡은채 한동안 먼 남쪽하늘가를 눈길로 더듬고있었다.

《이미 말했지만 동문 기어이 거기에 가닿아야 하오! 그래서 적후깊이에서 싸우고있는 전사들에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보내시는 격려와 인사를 전해야겠소. 이것이 기본임무요. 제일 중요한 임무요.》 그의 음성은 절절하게 울렸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적후에서 싸우는 전사들에게 두툼한 솜옷 한벌도 제대로 입히지 못하고 무거운 임무를 맡긴것이 늘 마음에 걸려있다고 하시면서 항상 위험이 뒤따르는곳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그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시였소.》

군단장은 북받쳐오르는 격정을 달리는 더 표현할길 없는듯 병수의 손을 더욱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한순간 병수 역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자기의 가슴속으로 강렬하고 뜨거운 어버이사랑이 흘러드는것을 느꼈다.

부모들은 언제나 멀리 떠나있는 자식들을 더 마음쓰는 법이다. 하물며 적의 후방 깊이 적들의 포위속에서 한시도 발편잠을 자지 못하며 엄동의 추위를 무릅쓰고 간고한 싸움을 벌리고있는 전사들임에랴! …

《군단장동지!》 병수는 목이 메여 이렇게 부르짖었다.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후부대에 도착하여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떠나시오!》

로병수는 련락군관으로서 제2전선부대를 찾아가는 자기의 임무가 순수 군사적인것에만 있지 않는다는것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겼다. 제일 주되며 또 책임적인 사명 그것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는데 있었다.

그리하여 병수는 최전방구분대에서 선발된 3명의 끌끌한 자동총수들과 함께 적후의 험한 길을 밤이고낮이고 쉬임없이 걸었다.

불과 며칠사이에 그들의 군복은 터슬터슬 찢겨졌고 예비로 넣었던 신발마저 밑창이 나서 칡으로 얼기설기 얽어매야 했다. 불을 피워 몸을 녹일 여유도 밥을 끓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드디여 제2전선련합부대지휘부에 도착한 그들은 비록 극도로 지치긴 했어도 벅찬 나날을 보내게 되였다. 가는곳마다에서 병수는 자기들이 얼마나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였는가를 뜨겁게 느끼군 했다.

이번의 강력한 배후타격전에서 《유엔도로》를 습격차단할 임무를 받게 된 조강선련대에서도 그러하였다.

그동안 초연에 그을리고 추위에 터갈려서 바위처럼 표정이 굳어진 조강선련대장은 로병수가 도착보고와 함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보내시는 인사의 말씀을 전하자 말없이 그를 그러안았다.

《고맙소. 련락군관동무, 정말 고맙소! …》 그는 목메여 말했다.

《저는 다만…》

《아니요. 우리 전사들이 동무를 통해 무엇을 받아안게 되였는지 그걸 생각해봤소?》

련대장은 즉시 련락병을 띄워 각 구분대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을 불렀다.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보내시는 인사가 전달되였다. 그들, 격려와 인사를 받은 사람들의 무쇠빛 얼굴에 줄지어내리는 눈물에서 병수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철석같은 맹세를 읽었다.

감격의 소식은 순식간에 모든 전사들에게 전달되였다. 이 크나큰 격동을 안고 련대는 곧장 《유엔도로》에 대한 전투에 진입하기로 했다. 비록 전투와 행군의 나날에 극도로 지친 병사들이였지만 시간을 앞당겨 임무를 수행하려는 열의에 충만되여있었다.

여러 지역에 분산되여 활동하던 대대와 중대들이 《유엔도로》라는 목표를 지향하여 재빨리 기동하기 시작했다. 병수는 련대를 떠나기에 앞서 조강선련대장과 같이 밤의 행군길을 걸었다. 련대지휘부와 같이 행동한 1대대의 이 한개중대는 낮동안에만도 80리길을 기동해왔는데 이제 또 밤중으로 60여리 험한 산길을 가야 했다. 이 기동전에 대하여 련대장은 이렇게 말해주었다.

《지금 스테이지라는 미군고문놈이 기를 쓰고 우리에게 달려들고있소. 교활하고 악착스러운놈이요. 그놈은 계주식으로 우리를

추격하고있소. 고정된 〈토벌대〉를 조직하여 쫓아다니는게 아니라 요소요소에 부대들을 배치해놓고는 계주봉을 넘겨주는 식으로 추격한단말이요. 제놈들은 맥을 뽑지 않고 우리는 극도로 지치게 한 다음 덮쳐보자는 술책이지. 그래서 우린 구분대단위로 분산되여 활동했소. 놈들이 정신을 차릴수 없게 오늘은 소부대, 래일은 대부대… 이렇게 놈들을 골탕먹이군했소. 그런데… 이런 기동전에서는…》

병수는 련대장이 다 말하지 않은것을 리해했다. 전투가 계속되고 행군이 거듭될수록 전사들은 지칠대로 지쳤고 부상병들과 환자들도 늘어갔다. 산간마을사람들이 상병자들을 맡아주군했지만 그것은 극히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많은 구분대들에서는 그들을 담가에 싣고 부축하며 싸우는 일이 태반이였다. 지금도 병수는 그것을 자기눈으로 보고있었다. 부축되여 걷는 상병자들이 이 한개중대에만도 여럿이 되였고 련대장은 자기의 가라말에 눈을 싸맨 부상병을 태우고 그자신은 고삐를 잡고 걷는것이였다.

찬바람이 채찍처럼 얼굴을 후려쳤다. 병수는 캄캄한 어둠속 얼어붙은 비탈길을 걷고있는 전사들을 몇번이고 돌아보면서 이제 충분한 휴식도 없이 어떻게 또 《유엔도로》전투에 나설수 있겠는지 자기의 걱정되는바를 솔직히 말했는데 그러자 련대장은 히죽이 웃는것 같았다.

《어디 그뿐인줄 아오? 동무 우리쪽의 어려운 사정은 보면서도 상대적인 위험성은 고려하지 못하고있소.》

군사지휘관으로서의 련대장은 단 몇마디로 이제 치르어야 할 싸움의 위험성과 간고성을 보여주었다.

《우린 이제 〈유엔도로〉에서 포병대와 땅크, 비행대를 상대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되오. 벌써 스테이지란놈이 위험을 느끼고 숱한 포병무력과 전차대대 그리고 포항의 비행대를 엄호에 붙여놓았소. 그러니 반땅크총을 내놓고는 중무기란 거의 없는 우리의 처지에선 보총과 대포와의 결투라고 할수 있지 않겠소?》

병수는 불현듯 자기를 떠나보내면서 군단장이 《힘겨울거요.… 몹시 힘겨울거요.…》라고 무겁게 말하던것을 회상했다. 비로소 그는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단순하고 천진했는가도 깨달을수 있었다. 그는 《유엔도로》라는 괴이한 이름을 가진 도로의 전투를 극상해야 자동차수송대를 습격하여 길을 막는것으로만 알고있었

다. 명령서에 《〈유엔도로〉를 차단할것》라고 씌여있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만 해석한것이였다.

《그러나 걱정할건 없소.》 련대장은 병수를 돌아보았다. 《어쨌든 〈유엔도로〉는 차단될것이요！…》

그 어떤 비장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 이 전투는 결사전으로 되겠구나！…)

별안간 목이 갈리는것을 느끼며 병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련대장동지, 그러니 육탄이 되여 싸운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육탄？！…》

련대장의 얼굴표정은 비록 볼수 없었지만 그 특이한 어조로 미루어 병수는 그가 눈살을 찌프리는것이라고 짐작했다.

《어려운건 사실이요. 희생도 적지 않을거요. 그러나… 우린 결사적으로 싸울뿐아니라 또 끝까지 싸워야 할 사람들이요.》

련대장은 말잔등에 앉아가는 눈을 싸맨 부상병을 가리켰다.

《아까 이 동무도 그 비슷한 말을 했소. 수류탄 한알만 주고 남겨놓으면 피값을 하겠다고말이요！》

그러자 지금까지 말잔등에 얼어붙은듯이 웅크리고있던 부상병이 무슨 신음소리같은 소리를 내였다.

《결국 용감하게 죽겠다는 소리지. 헌데 죽기는 그리 힘들지 않소. 죽기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전쟁판에선 얼마나 많겠소？…》

련대장이 말고삐를 늦춰준 모양으로 말주둥이가 병수쪽으로 돌려졌다. 그러자 누누하고 후더운 입김이 병수의 얼굴에 들씌워졌다.

《난 이 동무에게 말해줬소.》 련대장의 목소리는 준절해졌다. 《우린 끝까지 싸워야 한다, 용감하게 죽고싶어도 그럴 권리가 없다는걸 알아야 한다, 그건 우리에게 제2전선이라는 무거운 짐이 지워져있기때문이다, 참기 어려운 고통도 많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긍지를 잃지 말라,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기본전선은 허리를 편다고 말이요！…》

병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군단장도 그런 의미의 말을 했었다는것을 생각했다. 하여 병수는 자기가 지금 함께 걷는 이 적후부대전사들의 무겁고도 힘겨운 걸음이 전선의 진격에 얼마나 긴밀히 이어져있는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였다.

날이 밝아서야 목적지에 도착했다. 팔공산기슭의 작은 화전

민마을, 언젠가 련대가 처음 남하해왔을 때 배낭을 푼곳이라고 련대장은 말했다. 그때 련대부로 급히 꾸려놓은 반토굴집도 그대로 있었다.

《이것보오. 불더미도 아직 식지 않았소!》

남먼저 반토굴에 들어선 련대장이 이렇게 놀랜 소리를 질렀다. 참모장과 련락병, 무선수 등 저마끔 뛰여들었다. 이곳을 떠난지 한주일이 넘는데 아직 잉걸불이 살아있는것이였다!…

《아니 그럴수야 있습니까?》

병수의 물음에 이윽토록 불더미를 내려다보고있던 련대장이 조용히 말했다.

《마을사람들이요. 이렇게 불을 갈아대면서… 우리를 기다렸소!》

모두 한동안 덤덤히 서있었다. 네모난 나무틀안에 담긴 불더미는 그들 모두에게 따뜻한 온기와 함께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었다. 여기서 병수는 적후투쟁부대전사들을 위해 바치는 말없는 사랑, 식을줄 모르는 뜨거운 인민의 정을 보았고 지지와 성원의 무궁무진한 힘을 느낄수 있었다.

련대장은 불더미를 헤집어 시뻘건 잉걸불이 드러나게 하면서 병수를 이끌었다.

《자, 어서 몸을 녹이오. 먼길을 또 가야 할텐데…》

련대지휘부는 즉시 사업을 시작했다. 련락병은 5사람분의 아침식사로 강냉이 두홉을 밥통에 쏟아넣었고 무선수는 안테나를 늘이기 시작했다. 련대장은 참모장과 《유엔도로》전투를 앞두고 진행해야 할 문제들을 심중히 토의하고있었다. 간고한 적후투쟁의 또 하루가 시작된것이였다.

12

만약 류성우가 범골밀영에서 좀더 일찍 나왔더라면 병수는 둘도 없는 학창의 벗을 만날수 있었을것이다. 또 병수가 만약 련대부에서 벌어지는 대화들에 좀더 귀를 기울였더라면 부대에 편입된 은하의 소식도 더 빨리 알았을것이다.

만약 어떻게 했더라면, 만약 그때 무엇을 알았더라면 하는 일들이 생활에는 얼마나 많은가. 더우기 전쟁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은 리별과 상봉과 우연을 가져오는것이였다.

련대장이 부상병들 문제로 참모장에게 무슨 지시를 주고있을 때 병수는 적후에 와서 받은 이러저러한 인상들과 군단에 가서 보고할 내용들을 머리속에서 정리하고있었다. 그때 련대장의 말에 얼핏 고개를 돌려본 일이 있었다.

《…즉시 군의소로 후송하시오. 그리고 정치공작대원동무도 당분간 군의소에 소속시키시오.》

만약 그때 련대장이 말한 정치공작대원이 은하였다는것을 알았더라면 병수는 좀더 일찍 그를 만났을것이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것이다. 그러나 병수는 정치공작대원이라는 말에 한순간 의아해했으나 곧 자기의 생각에 묻히고말았다. 그가 은하를 만난것은 3명의 자동총수들과 같이 련대부를 나서서 일여덟채의 토막집들이 둘러앉은 작은 화전민부락을 막 벗어날 때였다. 먼저 병수가 상병자들을 실은 발구와 나란히 걷고있는 은하를 발견하였다. 병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걸었다. 이름할수 없는 어떤 충격이 다시 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 순간 병수는 저쪽에서도 놀래여 바라보는것을 느꼈다.

《은하동무 아니요？》

솜동복을 졸라입은 그 녀자는 흠칫했다. 병수가 《은하동무！》하면서 달려가자 그는 두손을 가슴에 모두어쥐면서 《어마나！—》하고 비명소리처럼 내질렀다.

《은하동무,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응？！…》

《병수동무, 정말 여기서 동무를 만날줄은！…》

뜻밖의 상봉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흔히 그러듯이 그들은 서로 상대방이 미처 대답할새도 없이 숱한 질문들을 련달아 퍼붓는것으로 적게 차례진 시간을 턱없이 랑비했다.

《정말 뜻밖이요.》 병수는 자기가 은하의 손을 계속 붙잡고 있는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헌데 어떻게 된 일이요？ 적후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적후에 있지 않나요！》

《참！… 난 아직 적후라는데 익숙되지 않아서…》

《언제 입대했어요?》 이번엔 은하가 물었다. 《한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군요.》

이렇게 그들은 전쟁이 일어난후의 갖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묻고 대답하느라고 금방 물었던것을 또 묻군하였다.

《난 며칠전에야 부대를 만났어요. 그동안말예요? 두루 고생두 했지요. 그런데 지금 어데로 가는길이예요?》

《군단으로 가오. 참 난 지금 련락군관으로 왔는데…》

《그럼 이 부대가 안예요?》

《물론 련대는 아니지. 헌데 동문 지금 어델 가오?… 같이 온 사람들도 있소?》

거대한 사변들로 충만된 전쟁8개월간의 일들을 한꺼번에 요약하기는 헐치 않았다. 별로 중요치 않은 문제들까지 서둘러대며 조급히 묻고 대답하는새에 상병자들을 실은 발구가 멀찌감치 숲속으로 들어가고있었다. 그쪽에서는 한 나어린 간호원처녀가 안타까운 손짓을 했다. 그때에야 두사람은 자기들에게 얼마나 짧은 시간밖에 없는가를 깨달았고 급기야 가장 긴요한 질문을 생각해냈다.

《성우동무를 만났소?》

《성우동무 소식을 아세요?》

이것은 두사람이 거의 동시에 물은것이였다.

《그가 어데 있어요?》 재차 은하가 물었다. 《어느 부댄지 알고있어요?》

《아니 그럼 여적 그것두 모른단말이요?》

《…》

《참, 이게 도대체 웬일이요? 그것두 모르다니…》 병수는 떠들었다. 《그 친군 동무와 지금 한부대에 있소. 한부대에 같이 있단말이요!》

《예?》

《지금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있소… 아니 중하진 않다오. 나도 만나진 못했는데 알고보니 범골이라는 어덴지 깊은 골안에 밀영이 있다누만. 지금 거게 가있소.》

《…》

문득 병수는 전쟁이 일어나기 며칠전의 일들을 생각했다. 그러자 마음이 불안해졌다. 은하의 침묵이 그를 더 불안하게 했다.

지금도 이들은 까닭없이 침묵을 지키고있는것일가? 한때 그처럼 숫된 열정으로 사랑을 나누던 그들이 지금은 판판 남다른 사이로 된것일가?… 아니, 그럴리는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되여 그들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이로 버그러진것일가. 이런것이야말로 책에 씌여있는 그 《서정시의 전쟁》이라는것일가?…

《은하동무.》 하고 병수는 조용히 말했다. 《성우는 지금… 동무를 몹시 그리워할거요.》

《그럴가요?》

속삭임같은 소리였다.

《정말이요. 그건 내가 장담하오.》

《모르겠어요…》

은하의 목소리는 저으기 떨리는듯했다. 쓰라린 심정의 아픔을 느낄 때라야만 그처럼 애달픈 어조로 말할수 있는것이다. 병수는 마른침을 삼켰다. 성난 류성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송수화기를 들고 《난 시간이 없소. 후보선수신세를 면하자니…》 하고 말할 때의 그 쌀쌀하던 모습이 상기되였다.

아, 《후보선수!》… 얼마나 미욱한 일이였는가. 그래도 제딴엔 진실한 사랑의 기초는 믿음이라고 얼마나 자주 력설했던가. 상대방의 마음을 저울질하려는 어떤 시도조차 그는 얼마나 경멸했던가. 그것은 비렬한 일이라고!… 그러던 그가 무엇때문에 발길을 끊었는지 병수는 알지 못했다. 은하를 찾아가 자기의 땅고집이며 격한 성격을 두고 용서를 빌겠다고 스스럼없이 떠났던 그날 성우는 창백한 얼굴로 돌아와 다시는 그 녀자에 대한 말을 비치지 못하게 했다. 왜? 무슨 연고로?… 이처럼 솔직하고 진지한 은하인데도?…

엑스, 와이로 시작된 공식이라면 그 무엇도 겁내지 않으련만 인간심정의 비밀을 푸는데서는 전혀 깜깜인 병수는 지금도 무슨 말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가까스로 그는 말을 짜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소?》

《안요. 그저… 정말이지 난 그 동물 가끔… 리해할수 없어요!》

《…》

침묵, 침묵… 그것은 숨막힐 정도로 가슴을 짓눌러댔다. 그때 숲가에서 나어린 간호원처녀가 소리쳐부르지만 않았던들 그들은 계속

그렇게 서있었을것이다.

《은하동무.》 병수는 서둘러 그와 악수를 했다. 《피로와 마오. 이제 알게 되겠지만… 그 친구 사실은… 영 좋은 동무요!…》

은하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다음 《고마와요!》 하면서 밝게 웃어보였는데 그것은 변함없는 우정에 대한 진정어린 감사의 표시였다.

은하가 멀리 달려가 손을 쳐들 때까지 병수는 그자리에 서있었다.

좋은 동무들, 귀중한 나의 벗들!… 다시 만날수 있을가, 우리 다시 만나 선수권을 다투며 못다한 학과를 다시 계속하게 될가?… 불현듯 가슴이 쓰라려났다. 그는 이제 얼마나 간고한 싸움이 그들을 기다리고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있는것이였다. 생사를 판가리할 엄혹한 싸움은 바야흐로 시작되고있는것이였다.…

제 4 장

1

《유엔도로》전투는 분초를 다투며 준비되고있었다. 련대장으로부터 마지막 전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생각, 그들이 주고받는 말은 모두 《유엔도로》와 결부되여있었다. 련대장과 참모부군관들이 펴놓은 지도에도 《유엔도로》, 무선수가 두드리는 전건도 《유엔도로》, 련락병이 갈라터진 입술을 놀려 부르짖는 말도 《유엔도로》였다.

《유엔도로》— 그것은 어떤 길인가? 어떻게 생겨먹었기에 그렇듯 요란스러운 이름이 붙어있는가? 보통의 달구지길이나 자동차길이 아닌 비행기활주로이기라도 하단말인가, 아니면 《유엔》이 팔을 걷고나서서 《내 길이다!》 하고 우겨댈만큼 진주보석이라도 쭉 깔려있단말인가?!…

추위에 얼고 꺼칠해진 병사들은 얼음쪼각이 부시럭거리는 바지가랭이를 툭툭 털고 모여앉았다. 지휘관들, 정치일군들, 초급선동원들이 언 주먹을 입김으로 불며 최고사령부의 작전적의도를 해설해주고있었다.

《유엔도로》전투는 왜 시간을 다투는가? 그것은 기본전선의 작전에 어떤 의의를 가지는 전투로 될것인가?…

전사들은 흔히 보아오던 신작로, 매복의 밤에 그리도 자주 보아왔던 길들, 별빛아래 번뜩이는 얼음 깔린 구배길이며 불타버린 자동차의 잔해가 도랑채기에 구겨박혀있던 언덕길들을 그려보면서 묵묵히 듣고있었다. 하루의 끼니로 통강냉이 몇알 혹은 언감자알을 우려낸 물을 마시고 밤새 백여리길을 달렸고 이제 또 수십리길을 가야 할 전사들이였다. 목적지에 이르러서는 불도 피우지 못하고 얼어붙은 땅바닥에 웅크린채 2월의 차디찬 새벽을 매복해있어야 할 그들이였다.

추위, 모닥불결의 쪽잠, 행군, 전투!…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또 래일도 다를바없다. 그런데 이번엔 불도 없다. 단 한점의 온기조차 없다!…

전사들은 보총을 세워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혹은 나무그루터기에 혹은 이끼가 말라붙은 바위에 등을 붙이고 꺼시시해진 입술을 꽉 앙다문채 지휘관, 정치일군, 초급선동원들의 말을 주의깊게 귀담아듣고있었다. 행군, 추위, 피로, 굶주림… 새삼스럽지도 놀랍지도 않다. 그것은 이미 이겨왔고 습관되였고 또 앞으로도 각오가 되여있는것이였다. 중요한것은 제4차작전에 기여할 이 전투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유엔도로》를 차단하고 파괴하는가 하는데 있었다. 그러므로 지금은 피로와 추위와 참기 어려운 고통에 대하여 생각해볼 여가도 없는것이다. 모닥불두리에서, 반토굴에서, 행군길에서 지휘관들과 전사들은 오직 한가지만을 생각하였고 말을 주고받았다.

모든것을 단 하루동안에 준비하여야 했다. 무기와 탄약을 정비하고 지뢰와 반땅크수류탄 등을 공급하거나 보충해야 했다. 《유엔도로》 전구간에 대한 지형정찰, 반땅크총, 공병들을 배속시키는 일, 놈들의 주의를 끌지 않으면서 강행군으로 구분대들을 기동시키는 일, 지휘관의 결심, 임무의 수립 등 모든것을 이 하루동안에 끝내야 했다. 그리하여 련대장의 명령으로 여러 구분대들은 벌써 강행군으로 목적지를 향해가고있었다. 범골밀영에서 나온 류성우가

처음 맞다든것도 바로 이러한 중대들중의 하나였다.

칡으로 꽁꽁 묶은 신발들이 눈더미와 락엽을 짓이기며 터벅터벅 지나가고있었다. 어깨에 멘 총들은 어느덧 칼빈, 엠원 등 미식소총들이거나 11.43미리 기관단총들이 태반이였고 신발도 목다리가긴 전리품들이 적지 않았다. 군복만은 조금도 변함없어 이제는 원색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귀덮개 달린 솜모자를 눌러쓴 피로에 잠긴 전사의 얼굴이 지나가는가 하면 목깃을 잔뜩 올리고 허리가 구부정하여 걷는 나이지숙한 병사도 지나갔다. 무겁고도 바쁜 걸음들이였다. 그들의 외양이나 입을 꾹 다물고 바삐 걷고있는 모습을 보고있노라니 불현듯 가슴이 찌릿해지는것을 느꼈다. 그의 중대, 그가 밀영의 나날에 단 한시도 잊어본적이 없는 그리운 전우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보는듯했다. 그들도 지금 이 전사들과 마찬가지로 힘을 아껴가며 어데론가 급히 달려가고있을것이였다.

류성우는 자기를 눈여겨보며 걷고있던 한 소대장에게 물었다.

《몇중대요？》

《4중대요！》

《8중대가 지금 어데 있는지 모르오？》

《…》

소대장은 대렬에서 나와 고개를 길게 빼들고 중대장을 소리쳐 불렀다.

《우리 중대장동무요. 혹시 알수 있겠는지…》

중대장이 다가오자 그는 자기 위치로 뛰여갔다.

《누굴 찾소？… 아, 이거 오래간만이요.》 하고 4중대장은 손을 내밀었다. 《병원신세를 졌소？》

그는 류성우를 여전히 정찰소대장으로 알고있는 모양이였다. 류성우가 8중대의 위치와 지금 어떤 전투임무를 받고있는지 알고싶다면서 자기가 8중대장임을 소개하자 그는 기뻐했다.

《아, 가까운 친척도 몰랐군그래. 3대대를 만나기도 이번이 처음이지. 참 3대대가 이번 〈유엔도로〉전투에선 주력이요. 우리 대대는 놈들의 〈토벌대〉를 멀찌이 유인해갈 임무를 받았소. 자, 그럼 후에 다시 만나기요！》

벌써 앞서간 대오를 따라 그는 달려갔다. 류성우는 잠시 우두커니 서서 그가 하던 말을 곱씹어보았다. 무엇인가 중대한 사변이

준비되고있다는것을 그는 감촉하였다. 《유엔도로》, 《토벌대》… 련관이 되지 않는듯한 이 두마디를 거듭 곱씹어가며 그는 불편을 참고 걸음을 빨리 했다.

화전민부락으로 가는 길은 험했다. 도저히 인가가 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는 험준한 산턱아래 병풍바위를 에돌아 들어가야만 모두 여덟번째까지 손꼽아볼수 있는 토막집들이 보이는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화전민부락을 가까이 할수록 류성우는 초조감과 야릇한 불안에 휩싸였다. 4중대장을 억지로라도 더 붙잡아세우고 구체적인것을 알아봤어야 했다. 지금 모두 어데론가 떠나버린 텅빈 토굴집에 들어선다면 일은 아주 난감해질것이다. 너무 서둘던 나머지 그는 어느 바위기슭에서 총알처럼 튕겨나온 보초의 웨침소리에 와뜰 놀라기까지 했다.

경계근무로 나와있는 전사들은 모두 셋이였다. 어떻게 되여 화토불까지 피우고있는 그들을 알아볼수 없었는지 이상스러울 지경이였다. 7.62미리반자동칼빈총을 둘러멘 전사만이 바위기슭에 몸을 숨기고있었고 나머지는 멀찍이 떨어진 개울가에 불을 피워놓고있었다. 그런즉 보이지 않는 어느 산마루턱이나 바위틈에는 그들이 교대해주어야 할 감시병들이 몸을 숨기고있을것이다. 류성우는 우선 마음의 안정을 느꼈다. 경계근무 감시초들이 철수하지 않았다는것은 아직도 골안에 구분대들 혹은 련대지휘부가 출발하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먼 화토불가에는 병사용모직외투를 가뜬히 졸라입은 한 소년도 있었다.

류성우가 범골밀영에서 퇴원해나온 8중대장임을 확인한 보초는 친절히 화토불에 몸을 녹여가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류성우는 그럴 경황이 없었다.

《지금 가면 련대장동지를 만날수 있소?》

《예, 지휘부는 아직 골안에 있습니다.》 전사는 골어귀를 눈짓했다. 《그렇지만 이제 곧 떠날겝니다.》

《떠나다니 어데말이요?》

류성우의 급한 물음에 전사는 아주 멋지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거야 물론 〈유엔도로〉지요!》

《유엔도로》!… 류성우는 벌써 두번째로 《유엔도로》와 맞다들었다. 모든것이 《유엔도로》와 결부되고있는것이다.

류성우는 보초에게 《알겠소. 수고하오.》 하고는 급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보초병은 다시 그를 불러세웠다. 그는 화토불결에 서있는 소년을 가리켜보이며 좀 미안해하는 어조로 지휘부에 데려다줄것을 부탁했다.

《반땅크총소대를 따라 도주하는걸 붙들었습니다. 망종같은게 어찌나 코집이 센지…》

《도—주?》

그러나 벌써 보초병은 화토불쪽을 향해 날카로운 회파람소리를 지르며 소년을 끌고오라는 의미의 손짓을 열심히 하고있었다. 그쪽에서 한 전사가 소년을 끌고 길가로 다가왔다. 소년은 비록 파리하게 여위였으나 고집스러운 눈매로 미루어 록록치 않을상싶었다. 그는 류성우를 재빨리 훑어보더니 자기를 붙들고 온 전사를 흘겨보았다.

《됐어요. 돌아갈테니 맘 놓으라요.》

소년을 끌고온 전사는 붙들고있던 팔을 놓으며 히죽이 웃었다.

《허튼 생각은 아예 하지두 말아. 얘,또 한번 붙드는 날엔 나무에다 비끄러매겠어.》

《흥!》

소년은 외투주머니에 두손을 찌르며 류성우를 할끔 쳐다보았다.

《가자요!》

그 스스럼없는 명령조의 말투에 어처구니없는 느낌을 받았으나 아무말없이 걸음을 옮겼다. 지금 그의 머리속에 꽉 들어차고있는것은 《유엔도로》라는 아직 의미가 뚜렷하지 않은 생각뿐이였다. 그는 이 낯선 소년이 뭣때문에 보초소에 잡혀있었으며 어데로 도망치려 했는지 하는것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다. 군인들이 가는곳엔 어데서나 특별한 총애를 받는 귀염둥이 혹은 수닭처럼 싸움잘하는 장난꾸러기들이 있는 법이다. 보나마나 이 애녀석 역시 심심산골 화전민부락의 소년 소녀들 가운데서 특별히 똑똑하거나 세찬놈이여서 전사들의 애무를 독차지하고있을것이였다.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군관동지.》 소년이 불렀다. 《이거 숨이 차서 따라가겠어요?》

류성우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오돌차보이는 소년의 얼굴에서 치째져가는 눈초리며 나팔주둥이처럼 뚜해진 작은 입이 먼저 눈에

띄였다.
《난 바쁜 사람이야. 빨리 오렴！》
다시 걸었다.
《군관동지！… 군관동진 무슨 일을 하나요？》
《일？》 하고 성우는 시들하게 반문했다. 《넌 우리가 미국놈들과 싸우는걸 모르니？ 다 큰 애가！…》
별안간 소년은 하하 하고 마치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것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며 소리내여 웃었는데 그것도 문득 시작했던것처럼 뚝 끊어버렸다.
《내가 말한건요 저… 군관동지가 어떤… 저…》
직무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것이라고 류성우는 생각했다.
《난 중대장이다！》
《그래요？》
소년은 종종걸음으로 류성우와 보조를 맞추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그러면서도 이것저것 재빠른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나도 그쯤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암만 봐야 대렬참모는 아니거던요！》
소년의 목소리는 비로소 그 나이또래의것으로 즉 챙챙한것으로 되였다. 지금까지 그 애는 자기가 본따고싶었던 어떤 어른의 말투를 흉내내본것이였다.
《그럼, 중대장동지！》 소년은 작은 두눈을 잽싸게 굴리며 성우의 팔소매를 쥐여당겼다. 《날 련락병으로 받아주지 않겠어요？ 난 련락병이 뭘 하는지 죄다 알고있어요. 그리구 뜀질도 잘하구… 한번 보시겠어요？》
어데서 이런 괴짜가 나타났을가？ 제법 군관동지라고 부르는것도 그렇거니와 령남지방의 강한 억양이라고는 전혀 없는 말씨만 보아도 숨막힐듯 비좁은 화전민골안에서 자라난 애 같지 않았다.
《헌데 참 딱하구나. 련락병은 있으니말이다.》
류성우가 흘끔 내려다보니 소년의 작은 입이 또 나팔주둥이처럼 되였다. 그리고 형언할길 없는 실망의 빛과 노여운 기색이 그 쬐꼬만 얼굴에 가득하니 실려있는것이였다.
《그 련락병이 나보담 날쌔요？》

《너보다？…》
성우는 망설였다. 분명 나이보다 앞질러 컸을 소년의 긍지높은 자부심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 슬쩍 말머리를 돌리려 했다.
《너두 꽤 날쌔보이는구나. 그런데 넌 어데서 왔니. 이 외투는 누가 만들어주고？》
소년은 자기 몸에 꼭 들어맞는 외투를 슬쩍 훑어보았다.
《난 정치공작대와 같이 며칠전에 부대로 왔어요. 우린 정말 죽을 고생을 다했지요뭐. 그런데두 련대장동진 날 군대에 받지 않겠대요. 나이가 어리다나요. 쳇！…》
(정치공작대？…)
왜서인지 그 말이 무심히 들리지 않았다. 은하의 편지구절이며 언젠가 병수를 만났을 때 그가 하던 말들이 떠올랐다.
《그 동문… 적후에 떨어졌네…》
아니 괜한 생각이다. 성우는 쓰겁게 웃었다. 그러나 자기로서도 뜻밖의 일로 이렇게 물었다.
《그가 누구니？》
《예？…》 소년은 눈꼬리를 치뜨며 올려다보았다. 《내가 말하지 않았나요. 련대장동지가 딱 자른다구요.》
《참 그랬지.》
《혹시 아저씨가 말해주면 되지 않을가요？ 아저씬 중대장동지니까 들어줄수도 있지요뭐, 예？》
《중대장동지라…》
성우는 소년의 어깨를 잡아돌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자 빨리 가자. 난 지금 바쁜 일이 있어.》
《그럼 난 바쁘지 않은줄 알아요？ 오죽하면 도망했겠어요？ 련대장동진 날더러 군의소에 가래요. 내가 뭐 군의소에 있어본 일이 없는줄 아는가봐. 쳇！… 뭣때메 내가 인민군대가 못되나말이예요！ 중대장동지두 생각만있다문야 련락병을 두사람 쓸수 있지않나요！…》
《련락병？！… 그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건 그렇구… 너 정치공작대원한테 잘 말해서 련대장동지에게 부탁하게 할걸 그랬구나. 정치공작대원의 말이라면 련대장동지도 무턱 막진 않을테니까.》

《누나한테요?》
《누나라니?》
《정치공작대말이예요.》
《뭐?…》
가슴이 선뜩해졌다. 번개불같은 기대가 심장을 찢어발기는것이였다.
《왜 그래요?》
《응?…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우리가 무슨 얘길 했더라?… 음 그렇지, 누나얘길 했지. 그래 이름이 뭐라구?》
《진호예요.》
《진호?》
《예.》
《가만 그러니 그건… 네 이름이지?》
《?…》
소년은 치째진 눈꼬리를 들어 빤히 올려다보았다.
《그럼 아저씬 누구 이름을 물었어요?》
《나?… 응, 내야 물론 다 알구파서 그랬지. 네 이름두, 그담 누나이름두…》
《누나이름은 은하라구 해요, 신은하.》
《!…》
심장이 흠칠 떨렸다. 숨막힐듯한 충격, 목타는 갈증, 아픔!… 경련과도 비슷한 감각이 온몸을 전류처럼 스쳐지났다.
《왜 그래요, 아저씨?》
《응?!…》 그는 소년의 어깨를 꽉 그러쥐였다. 참을수 없는 아픔에 소년이 신음소리를 지른것도 알지 못했다.
《아저씨?!…》
《아니 그저 좀… 그래 지금 어데 있지? 그 누나말이다.》
《여겐 없어요. 지금 군의소에 가있어요!》
《?…》
소년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있었다. 잠시후에야 성우는 그 눈빛에서 공포에 가까운 의혹심과 함께 이상야릇한 련민의 빛까지도 알아볼수 있었다.
《참 아저씬…》 소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좀 별나

군요. 몹시 다쳤나요?》

목깃을 헤치고 나온 붕대에 지꿎은 시선을 쏘는것으로나 저으기 가엾어하는 표정을 숨기지 않는것으로 보아 《어데 잘못된거나 아니예요?》 하는 의미로 소년이 묻고있음을 류성우는 깨달았다. 그리고 언제부터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걸음을 멈추고 한적한 골어귀에 멍하니 서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나어린 소년앞이지만 성우는 쑥스러워졌다. 그는 쓰거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좀 다쳤다…》

《그럼 군의소에 가야지요. 어덴지 병원두 있대요!》

《음, 있지… 난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길이란다 애.》

성우는 처음으로 소리내여 웃었다. 그러자 소년은 그 웃음소리에 되게 놀란듯했는데 어깨를 옴츠러뜨리며 약간 물러서기까지 했다. 류성우는 또한번 소리내여 웃으며 소년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댔다.

《자, 이젠 빨리 가자!》

반토굴집에 이르기까지 크고작은 두사람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각기 자기들의 희망과 기대, 날카로운 의혹심과 불안이 있었고 그에 골몰해버린때문이였다.

2

반토굴집앞에서는 가라말과 절다말이 의좋게 머리를 마주한채 건초를 씹고있었고 양지쪽에서는 련대장련락병이 무기소제를 하고있었다. 류성우를 발견한 련락병은 서두르며 일어섰다. 규정의 인사를 하고싶으나 분해한 무기때문에 그저 엉거주춤 서있는 련락병에게 미소를 지어보이며 류성우는 낮게 물었다.

《련대장동지 계시오?》

《예.》

바로 그때 반토굴에서 련대장이 나왔다. 그는 재빨리 거수경례를 붙이며 보고하는 류성우를 실눈을 짓고 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드디여 왔구만.》

비록 그에게서는 그 어떤 감동적인 포옹이나 반색하는 표정도

없었지만 류성우는 그의 음성만으로도 련대장이 자기를 한 중대장으로서만 기다리지 않았다는것을 느꼈다.

《그래 다 나왔소?》

《그렇습니다!》

련대장은 재차 유심히 뜯어보았다.

《조급하게 나왔구만. 지내 서두른게 아니요?》

《아닙니다. 이젠 다 나았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지… 하여튼 잘 왔소!》

그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때마침 왔단말이요!》

마치 당장이라도 명령을 받을것처럼 류성우가 차렷자세를 하며 그를 따라 몸을 돌리자 련대장은 가볍게 미소했다.

《덤비지 마오.》

련대장은 련락병을 돌아보았다. 그새 분해했던 무기를 조립하고 마지막으로 탄창을 끼우고있던 련락병은 《련대장동지, 다 준비됐습니다!》 하고는 급히 달려가 말의 배띠를 조이기 시작했다.

비로소 그때에야 련대장은 두필의 말 저쪽에 몸을 숨기고있던 소년을 발견하였다. 대뜸 그는 엄엄한 얼굴을 돌리며 소리질렀다.

《이녀석, 왜 아직 거게서 우물거리구있어. 엉?!》

소년은 입이 뚜해서 땅바닥에 발끝으로 자기의 야속한 심정을 그림문자로 벅벅 긋기 시작했다. 련대장은 짐짓 두눈을 부릅뜨고 고집스럽기 짝이 없는 소년을 질겁시켜보려고 했으나 그것이 영 통하지 않으리라는것을 깨닫고 류성우를 돌아보며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애, 진호! 공급소대에 가있거라. 네 문젠 이따가 따로 좀 봐야겠다. 알겠니?》

군의소에 가라던 련대장이 이만한 양보를 한것만도 대단히 기뻤던지 진호는 제법 군대식으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두손은 무릎쪽에 곧추 세워붙였다.

《알았습니다. 공급소대로 가겠습니다.》

진호는 휘딱 돌아서 달려갔다. 련대장은 그의 뒤모습을 이윽토록 바라보았고 류성우는 련대장의 얼굴만을 물끄러미 지켜보고있었다.

이상한 일이다. 시간은 촉박한듯한데 왜 련대장은 지금 련대

가 준비하고있는 전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것일가? 《유엔도로》며 또 4중대장이 말하던 《토벌대》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가? 중대가 지금 어떤 전투임무를 받고 어데로 떠났다는것쯤은 말해줄수도 있을법한데 왜 잠자코 있을가?…

《기특한 애요!》 련대장은 아직도 멀어져가는 진호를 바라보고있었다. 《며칠전 한 처녀정치공작대원이 데리고 왔소. 저 애하고 또 늙은 산림학자를 데리고 왔더군. 그 정치공작대원동무는 적후에서 열병을 앓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자 천리나 되는 전선을 넘어 당의 품을 찾아갈 결심을 했소. 마침 우리 부대를 만났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그 처녀동문 우리 전사들을 만나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쓰러지더라는거요. 나도 만나봤는데 참 좋은 동무였소.》

성우는 문득 《련대장동지, 그 동문 제가 잘 아는 동무입니다!》 하는 말이 나오는것을 참았다. 무엇때문인지는 그도 알수 없다. 말하고싶었으나 아직은, 아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처녀동문 적후의 어려운 길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았소. 저 진호나 산림학자를 삶의 길로 이끌어온것만 봐도 알수 있거던. 그 동무의 말을 통해서 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제2전선방침이 가지는 생활력의 한 측면을 볼수 있었소. 남반부 인민들이 우리 인민군대를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리고있는가 하는것도 그 동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었소.》

반토굴지붕에서 고드름 하나가 털썩! 떨어져 부서졌다. 발치에까지 굴러온 얼음쪼각 하나를 손에 들고 련대장은 그 차디찬 얼음이 녹아내리는 모양을 내려다보았다.

《지금 놈들은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간의 련계를 끊어보려고 별의별 악착한짓을 다 하고있소. 그 정치공작대원동무도 인민군대로 가장한 〈반유격대대〉놈들이 마을처녀를 끌어다 강간하고 죽인걸 봤다오. 놈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발판을 허물어버리자는거요. 사실상 적의 소굴에 들어온 우리가 무얼 믿고 싸우겠소. 우리 군인대중의 힘 그리고 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믿고 싸우거던. 헌데 악착한놈들은 우리 인민군대의 이름을 더럽히려 하고있단말이요. 그래서 나는 모든 대대와 중대들에서 악당들의 꼬리를 잡게 되면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놈들을 추격하여 소탕하라는 명령을 주었소.》

다시한번 련대장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초조한 기색이 피뜩 나타났다.

《자, 그럼 가면서 얘기하지. 그래 밀영형편이 어떻소? 약품도 부족하니 몹시 곤난할테지?…》

류성우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였다. 그가 바라는것, 그가 가슴을 조이며 기다리는 전투와 임무에 대해서는 끝내 말하지 않으려는가?… 안달이 났고 야릇한 불안도 커갔다. 포탄창고습격과 포위때의 일들이 다시금 생생히 떠오르면서 이제 다시는 자기에게 중요한 임무가 차례지지 않을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과오를 범한 중대장!… 중대를 포위에 빠뜨리고 련대의 작전을 혼란에 빠뜨렸던 네가 아니냐?… 어떻게 감히 또 중요한 임무를 맡겨달라고 할수 있으랴… 련대장이 《이건 처벌이요!》 하고 말했을 때 그것은 한동안 중대를 지휘할 자격을 상실했다는 명백한 지적일수도 있는것이였다. 그때문에 아직 그에게 전투임무에 대해서는 말도 비치지 않는것이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목구멍이 타드는듯 답답해졌다. 그러나… 그렇지만!… 바로 련대장은 그와 악수를 하면서 《잘 왔소. 마침 왔단말이요!》라고 하지 않았던가?!…

《왜 그러오?》

련대장이 물었다. 류성우는 황급히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그와 보조를 맞추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을 더듬어가며 범골밀영과 상병자들의 치료, 생활조직에 대하여 그리고 문기의 죽음 등을 상세히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자비한 채벌의 흔적만이 남은 벌목터를 지나갔다. 얼마간 사이를 둔 뒤에서는 련락병이 두필의 말을 끌고 따라섰다. 류성우가 말을 마쳤어도 련대장은 계속 잠자코 걷기만 했다.

어데선가 통나무를 쪼아대는 딱따구리의 울림소리가 들려왔다. 기관총의 련발사격처럼 급격히 때리는가 하면 재치있는 목관악기의 트레몰처럼 기묘하게 두드려대고는 한동안 그 음향의 메아리를 감상하는듯 사이를 두군하였다.

마침내 련대장이 입을 열었다.

《중대에 어떤 전투명령이 내렸는지 궁금하겠지?》

류성우는 급기야 고개를 피뜩 쳐들며 《그렇습니다!》 하고 속

삭이듯 대답했다. 어떤 경우든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과묵한 련대장은 또 얼마간 말없이 걸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침착하고도 무거웠다.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였소. 지금까지의 전투들은 우리가 놈들을 놀래운데 불과하다는걸 알아야 하오. 군단에서 련락군관이 왔다갔소.》

이 말을 듣자 류성우는 온몸의 근육이 긴장해지는것을 느꼈다.

(군단에서？… 련락군관이？…)

그 어떤 커다란 기대가 그를 흥분시켰다.

련대장은 전선형편과 이와 관련하여 최고사령부에서 군단에 준 임무, 특히는 제2전선련합부대에 내린 무거운 전투임무들과 8중대도 포함한 3대대가 주력이 되여 진행할 《유엔도로》전투임무에 대하여 천천히 이야기하였다.

놈들은 전략적후방의 중요거점들인 부산— 대구— 포항을 련결해주는 영천— 안동사이의 큰길을 《유엔도로》라고 선포하고 《유엔군》의 전용으로만 리용했다. 이 길을 따라 전선으로 수송되는 군수물자는 하루에도 수천톤, 자동차는 수백대에 달하였다. 최근 제2전선부대들의 활동이 적극화되자 스테이지는 도로의 매 50메터구간에 보초를 세웠고 도처에 경비초소를 내오고도 땅크, 포병대, 비행대의 엄호를 조직하였는데 보병대대를 수송대에 달아보내군하였다.

《전투는 필경 치렬해질거요.》 련대장은 계속했다. 《게다가 우린 전체 련대를 여기에 투입할수도 없소. 스테이지란놈이 우리 련대부터 노리고 〈토벌대〉를 출동시켰소. 야간전투를 싫어하는 놈들이니 래일새벽엔 들이닥칠거요. 그러니 그놈들도 맞이해야지. 우린 스테이지란놈을 산속에 붙들어두고 동무네 3대대를 주력으로 〈유엔도로〉를 치자는거요. 〈유엔도로〉를 죽음의 도로로 만들어야겠소！》

련대장은 말을 끊고 잠시 류성우를 눈여겨보았다. 아마도 그는 밀영의 넉넉치 못한 약품냄새를 묻혀가지고 온 그를 그대로 가혹한 싸움에 떠나보낼수 있겠는지 가늠해보는듯했다.

《어떻소, 당장 중대로 달려가고싶을테지？》

《그렇습니다！》 류성우는 재빨리 대답했다. 《전 밀영에 있으면서 한시도 중대를 잊은적이 없습니다！》

《중대에 애착이 크니… 반갑소!》
련대장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힘겨운 싸움이 동무를 기다리고있소! 하지만… 이제 중대에 가보면 알겠지만 전체 련대, 모든 전사들의 열의는 하늘에 닿을듯 높소. 난 동무가 혹시 밀영에서 못나오지나 않을가 몹시 가슴을 조였소. 이런 시각에 동무가 없다고 생각하니… 서운하더군.》
류성우는 숨길을 딱 멈추었다. 무슨 뜻일가? 무엇을 말하려는것일가? 그는 련대장의 말뜻을 미처 깨닫지 못한채 어정쩡한 얼굴로 서있었다.
련대장은 묵직한 손을 어깨에 얹었다.
《중대장동무, 동문 전쟁전에 집을 떠나 멀리 가있은적이 있었소?》
《예, 대학에 다닐 때…》
《음… 그래도 방학이면 집에 가군했겠지?》
《그랬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류성우는 고향과 어머니와 정든 산판이며 광산역을 그려보았다. 어떻게 되여 준엄한 싸움을 눈앞에 둔 이때 그러한 전경들이 떠오르게 됐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부지중 가슴속으로 따뜻한 훈풍이 목메이게 흘러드는듯했다. 민들레, 어린 녀동생의 도라지바구니, 정거장으로 마중나온 어머니…
《우리 어머닌…》 하고 성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대학에 다니는것을 못내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전보를 쳐서 알리면 정거장에 나와 맞아주군했습니다. 늦은 밤차인데도 집에서 먼 역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닌… 아버지가 없은후 나 하나에 의지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니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겠소?》
《예, 저를 위해 애쓰던 일들을 들자면…》
련대장은 아무 말도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멀리 아슴푸레하게 바라보이는 산발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키높이 자란 소나무우듬지들에서 눈가루가 푸실푸실 흩어져내렸다. 침묵이 흘렀다. 또 침묵… 어째서 련대장동지는 아무 말도 없는가, 가슴을 에이는듯한 향수때문일가?… 아니면 내가 쓸데없는 말을 지껄인걸가?… 소리쳐 묻고싶었으나 말은 못했다. 숨소리마저 죽여가며 그가 말을 떼여주기만을 조바심치며 기다렸을뿐이였다.

《성우동무.》 마침내 련대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난 어머니의 얼굴도 아버지의 손길도 모르고 자랐소. 나에겐 집도 없었소.…》

《？…》

《철이 들어서야 난 유격대에서 내 집을 알았고 부모의 사랑도 알게 되였소. 장군님께서 나의 부모가 되여주셨소！》

그 어떤 짜릿한 격동이 류성우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바위같은 이 련대장의 목소리가 저으기 떨리기까지 하는것을 감촉하였을 때 그는 눈굽이 뜨거워 저도 모르게 두손을 꽉 움켜쥐였다. 세찬 격정에 목이 칵 메였다.

《장군님의 품에 안겨서 나는 혈육의 사랑도 알고 혁명도 배웠소. 꼴단이나 메고다니던 머슴소년이 혁명가로 자라게 되였소… 장군님께서는 나를 안아 키우시던 그 사랑으로 오늘은 우리 인민군전사들을 다 한품에 안아 키워주시고계시오. 성우동무, 장군님께서는 련락군관의 편으로 우리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보내주시였소！… 이 험한 적후에서 그이께서 보내주신 인사를 받게 되니 말보다 먼저 눈물이 앞서더구만…》

류성우는 련대장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그 억척같은 심장에 간직된 깨끗한 이슬이 자기의 가슴속으로 흘러드는듯싶었다. 그리고 그 한방울한방울이 쇠물처럼 뜨거운 피의 용솟음을 불러일으키는듯했다. 가슴은 세차게 뛰놀았다.…

《난 지금도 생각하오.》 련대장은 차츰 굵은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짐을 걸머지겠는가, 어떻게 하면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겠는가 하고말이요. 성우동무, 우리 련대가 다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전선의 놈들을 우리한테 다 끌어올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우린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그렇게 해야만 하오！…》

류성우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몰라 《련대장동지！》 하고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바람이 세차졌다. 태백산줄기의 높고 험한 봉우리들에서 아우성을 지르던 칼바람이였다. 사나운 겨울은 바야흐로 그 절정에 이르고있었다.

얼마후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련대장은 문득 생각난듯이 물었다.

《희생된 그 동무 이름이 류문기라고 했지？》

《그렇습니다. 원소마을이라구… 지척에 고향을 두고 그만…》

《희생된 동무들의 부탁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겠소.》

잠간 사이를 두었다가 련대장은 평소의 그 엄엄한 얼굴을 들며 말했다.

《거듭 말하지만 전투가 힘겨울수 있소. 이건 단숨에 치고 빠져나오는 기습전도 아니요. 뜻하지 않은 정황이 많을수 있소. 그럴수록 전사들을 믿고 단호하게 행동하오. 모든 전사들을 자기자신처럼 믿게 될 때 중대는 하나의 총창처럼 될수 있소!》

《명심하겠습니다, 련대장동지!》

련대장은 언젠가 류성우를 처음 중대로 떠나보내던 때처럼 그의 두손을 꽉 잡아주었다.

한줄기 오솔길이 숲속으로 뻗어있었다. 류성우는 급히 걸었다. 굽인돌이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는 가라말의 고삐를 잡은 련대장의 모습, 엄하고도 인자한 상관의 모습을 다시한번 더 돌아보았다.

3

대대의 지휘관들에게 보고하고 중대로 갔을 때엔 날이 어두워졌다. 멀리 《유엔도로》가 희끄무레하게 내려다보이는 숲속에서 중대는 싸늘하게 얼어든 주먹밥을 먹고있었다.

제일 선참으로 맞다든것은 취사원 김만복이였다. 그는 주먹밥 몇개를 배낭우에 펴놓고 무엇인가 속구구를 하고있다가 별안간 눈앞에 나타난 류성우를 보자 엉거주춤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돌아왔군요.》

류성우는 그와 악수를 나누며 그의 얼굴표정을 가늠해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어둠속이여서 아무것도 알수 없었다. 김만복은 손을 꽉 잡고 잠시 아무 말도 없이 멍하니 서있기만 했다.

《돌아왔군요, 중대장동무!》

그가 두번째로 이 말을 했을 때 성우는 웃으며 말했다.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동안 무고했습니까?》

흔히 이웃들끼리 건네는 수인사처럼 류성우가 이 말을 하자 김만복은 그제야 생각이 난듯 서둘러댔다.

《아, 이런 변이라구야. 글쎄 너무 뜻밖이여서 인사두 변변히 못했군요. 중대장동무, 그래 다 나았습니까? 그렇게 빨리 나와도 일없겠습니까?》

김만복이 떠드는통에 모두 중대장의 도착을 알고 모여들었다. 그를 맞아준 전사들의 행동은 모두 각이했다. 그리고 아무도 수선을 떨지 않았다. 서로 말없이 악수만 나눈 사람들이 태반이였는데 오래도록 꽉 틀어잡은 손을 놓지 않고있는 그 전사들을 뜨거운 감동없이는 바라볼수 없었다.

엄기창정치부중대장은 맨 나중에야 다가왔다. 그는 스스럼없이 류성우를 포옹하며 《기다렸습니다!》 하고 속삭이였다.

반가운 상봉들에서 의례히 있군하는 두서없는 말들, 숱한 질문과 인사말들이 퍼부어졌고 다음은 류성우의 물음에 숱한 전사들이 일시에 대답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전사들은 문득 말을 끊고 네가 먼저, 네가 먼저 하면서 점잖게 양보도 했다.

류성우는 친밀한 가족적분위기에 잠겨 생각했다.

중대장으로 임명되여온지 범골밀영의 나날까지 합쳐도 아직 보름이 채 못된다. 그는 중대의 상관이였고 그들은 그의 부하들이였다. 그는 명령을 했고 규정의 요구로 호된 꾸지람도 했다. 병사들은 언제나 그앞에서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되였다. 별로 다정한 이야기를 나눌 때란 드물었다. 아니, 돌이켜보건대 거의 없은것 같다. 전투, 행군, 명령 또 명령… 처벌도 있다. 그보다 더 혹독한것도 그들은 받을수 있다. 그러나 류성우를 맞이한 그들은 꾸밈없이 과장없이 자기들의 기쁨을 쏟고있다.

류성우는 백여명 전사들과 골고루 악수를 나누었고 례사로운 인사말, 그러나 더없이 중요한 말들을 나누었다.

…전쟁은 많은것을 순식간에 결정한다. 평상시엔 수년 혹은 수십년이 걸려야 하는것도 전쟁은 때로 순간에 결정하는것이다. 운명도 사랑도 념원도…

이야기도중에 류성우는 어째 배다운을 본것 같지 않다고 불쑥 생각나서 물었다.

《련락병이 어데 갔소?》

언제나 중대장에게서 다섯발자국안에 서있다는 련락병… 성우는 둘러보았다.

참으로 뒤늦게나마 그를 부른것은 다행이 아닐수 없었다. 배다운은, 자기의 중대장을 누구보다 더 그리워했을 이 련락병은 담벽을 쌓은 전사들의 뒤켠에서 슬픔에 잠겨있은것이였다. 모두 두리번거리다가 그를 앞으로 밀어냈을 때 중대에서 제일 나어린 이 련락병은 《중대장동지！》 하고는 그만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말았다.
류성우는 불시로 눈굽이 찌르르해지는것을 느꼈다.
《배다운！》
조용히 불렀다.
《내가 그만…》
그는 일어서서 배다운의 어깨를 그러안았다. 어쩐지 그는 몹시 추운듯 몸을 옹송그렸다.
《잘 있었소？》
그러자 배다운은 고개를 들어 중대장을 돌아보았고 다음순간 싱긋 웃으며 가까이 있던 황히세소위를 팔굽으로 슬쩍 건드렸다.
《이거 보라요. 내 꿈이 맞았지요？》
황히세소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대자 금시 조용해졌던 전사들이 영문도 모르고 덩달아 웃어대며 소리쳤다.
《련락병동무, 공개하라구.》
《우리도 다 들어야 알게 아닌가？》
배다운은 처음으로 중대장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축이 간듯한 얼굴과 눈가에서 번뜩인 한방울 눈물이 또다시 류성우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류성우는 말없이 머리를 끄떡였다.
《꿈을 꿨는데말이예요.》
그는 소리없이 웃음을 머금었다. 아마도 중대장도 도착했고 모처럼 많은 청중이 모인 이자리에서 주역을 놀아보는것도 괜찮을것이라고 여긴듯했다.
《중대장동지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글쎄 중대로 가겠으니 련락병의 배낭속에 있는 새 장화를 가지고 당장 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런！》
방성화가 혀를 차는 소리였다. 몇사람이 키득키득 웃어대자 류성우도 따라웃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

은 후송되여가던 그날 련락병이 자기의 터진 장화를 손뼘으로 재여보며 한숨짓던 모양이 떠오른것이였다.

배다운은 계속했다.

《그래서 배낭에서 새 장화를 꺼내 잘 닦아서는 거기에 발싸개를 두어컬레 더 밀어넣어가지고 길을 떠났죠.》

《아니 발싸개는 웬걸 그리 많이?》 하고 방성화가 놀랍다는듯 물었다.

문득 배다운은 자기의 중대장을 흘끔 쳐다보았고 어두워서 잘 알수는 없으나 분명 난감한 기색으로 갑자르더니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대짜배기장화가 돼놔서 중대장동지발에 맞으려면 발싸개를 두어개는 더 해야 하거던요. …》 하고는 또 중대장쪽을 흘끔 바라보았다.

《장화가 그렇게 크다보니 어찌나 무겁던지… 그래 차나 하나 얻어탈가 해서 산속을 다 뒤졌는데 어디 있어야죠.》

《산을 뒤지면 되나? 미국놈들거 뺏어야지.》

다시 방성화가 튕겨주었다. 이 지나친 간섭이 결코 배다운의 기분에 좋을리 없었다. 그는 방성화를 향해 힐끗 고개를 돌렸고 그다음 정중히 책망했다.

《그러게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대장동지.》

《계속하라구. 그래 어떻게 했나?》

이제는 본래 그대로의 배다운이다. 그는 어둠속에 둘러선 청중을 한바퀴 휘 둘러보았다.

《가다가다 보니까 달구지 한채가 있겠지요. 볼게 있습니까. 옛다 모르겠다! 하구서 냅다 소를 때려모는데 아, 글쎄 난데없는 할아버지 한분이 헐레벌떡 쫓아오면서 〈에그 이 문둥아, 늬 어째작꼬 남의 달구질 채가노!〉 하고 소리지르지 않겠습니까.》

웃음이 터졌다. 잠시 계속된 웃음이 멎기를 기다려 방성화가 또 껴들었다.

《그래 그담엔 어떻게 됐나, 정다운 친구?》

《뭐 어쩔거 있습니까? 잘못하다간 인민군대명예를 훼손시키겠는걸. 그래서 달구지구 뭐구 다 줴버리구 냅다 도망쳤지요.》

이번엔 오래 계속된 웃음속에서 정 참을수 없었던 모양으로 황히세소대장이 그의 귀바퀴를 아프게 비틀어놓았다.

《죽여주거던 이 친구가! …》

아픔때문에 배다운은 소리질렀다. 왜 비트는가, 가을철 배추떡잎처럼 시들어빠지는걸 봐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해서 황히세는 귀염둥이는 울 때가 더 곱더라는 식으로 다시금 배다운의 귀바퀴에 손을 뻗쳤다. 그러자 배다운은 재빠른 동작으로 그의 팔을 붙잡더니 그의 혁띠에 밀어넣었다.

《소대장동지, 이 팔건사를 잘해줄것을 부탁합니다. 정식으로!》

황히세는 남은 한팔을 자꾸만 앞으로 내두르면서 자기가 하고 싶던 한마디 말을 끝내 하지 못하고 마는것이였다.

이 웃음판이 왜 마련되였는가, 이들의 유쾌한 웃음은 왜 시작되였는가?… 류성우는 전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더듬어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것이 나의 중대이다!… 친 혈육보다 더 견고한 전투적우의로 뭉쳐진 중대!…

《고맙소, 동무들!》

그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내 언제나 동무들의 가장 친근한 벗으로, 전우로 되여 끝까지 싸울것이요. 우리 다같이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들로 영예를 떨치자구!…》

취사원 김만복이 저녁이 늦어진다고 (가뜩이나 늦은것을)소리쳐서야 모두 둘러앉아 언 쾌기밥을 먹었다. 이발이 덜덜 떨렸다. 그래도 좋다. 돌덩이 같은것을 깨물며 류성우는 자기의 한생에서 이 추운 겨울밤의 쾌기밥처럼 맛있는 음식은 다시 알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엇이 있는지 알수 없지만 취사원 김만복이 자꾸만 옆구리를 찌르는것도 우정 모른척하고 류성우는 이발을 떡떡 맞쪼으며 중얼거렸다.

《이거 백리길이나 거— 걸었더니 출출한걸!…》

대대는 밤이 깊어서야 진지를 차지했다.

4

대대와 중대의 지휘관들이 직접 도로상의 적정과 지형을 정찰하였다. 류성우는 도로에 면한 홈타기에 엎드려있었다. 그는 굽인돌이 저쪽에 있는 경비초소로부터 도로순찰병들이 걸어오는것

을 바라보면서 련대장의 말을 곱씹어보았다.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였소！…》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도랑을 따라 도로순찰병놈들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소리없이 몸을 숨기며 기여나갔다.

길목에 커다란 표말이 꽂혀있었다. 그것은 영어와 우리 글로 쓴 경고문이였다.

경　　고！

본도로는 유엔군전용이므로 유엔군과 그의 차량만 통행한다.

불법통행자들과 차량은 예고없이 발사한다！

류성우는 망두석처럼 음울하게 서있는 표말과 투덕투덕 언땅을 밟으며 걸어가는 순찰병놈들을 이윽토록 쏘아보았다.

목다리가 긴 미국제군화발들이 어둠속에 갈앉은 길바닥을 걸어가고 있다. 투덕투덕… 어데서나 흔히 볼수 있는 보통의 자갈길이다. 모래와 자갈, 석비레와 산턱을 긁어내린 흙무지로 다져진 길, 아마도 이 길의 첫 개척자는 상투를 머리에 튼 지게군이거나 아니면 모지랑호미를 들고 나선 늙은이일는지도 모른다. 한걸음, 두걸음이 오솔길을 내였고 기르마를 진 하늘소나 달구지바퀴가 그것을 넓혔을것이다.

고역의 길, 설음에 찼던 수난의 길… 눈물에 젖은 이 길을 따라 류랑의 보짐을 둘러멘 사람들이 먼먼 북쪽으로 흘러갔었다. 말탄 군사들이 코수염을 비틀며 달리기도 하였고 서라벌의 왕궁에서 떠난 호화로운 수레들이 자갈을 휘뿌리며 굴러가기도 하였다.

그것은 력사의 길이기도 하다. 승전의 력사, 비탄의 력사가 이 길을 따라 멎음없이 흘러왔다.

한때 이 길을 따라 《공훈 없이 내 어이 죽을손가》라고 목메이게 군가를 웨치며 행진해간 《황군》정예사단들도 있었다. 허나 황토먼지 휩쓸어올리며 걸어간 그들은 장검을 빼들고 겨누어보던 《대동아》의 끝까지 가닿지 못하고 백두밀림에서 피투성이 된채 눈속에 영영 파묻히고말았다.

오늘은 력사의 교훈을 망각한 미제침략자들이 이미 전유럽대륙을 횡단했다는 《셔만》전차를 몰고와 이 길우에 표말까지

박아놓았다. 그러나 이제 놈들은 여기서 그 위엄있는 표말이 무덤의 십자가로 바뀌는것을 보게 될것이다！…

이러한 생각들과 함께 특히 류성우의 마음을 짜릿하게 울려주는것은 어데서나 볼수 있는 이 수수한 길을 해방의 길로 열어놓은 이름없는 전사들에 대한 생각이였다. 그들중에는 고향에로의 큰길을 열고 쓰러진 류문기도 있다. 그리고… 은하와 그가 손잡아 이끌어준 나어린 소년과 한 산림학자도 이러한 길을 걸어 부대를 찾아왔을것이다. 길아닌 길들은 또 얼마나 많았으랴. 그러나 모진 시련도 다 이겨내며 은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하기에 련대장도 참 좋은 동무였다고, 적후의 어려운 길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잃지 않았다고 말했던것이다. 한편 성우는 련대장이 하던 말,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인민군전사들을 만나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쓰러졌다던 그 말도 잊지 않고있었다.

은하, 열병을 앓고도 천리나 되는 전선을 넘어가려고 적후의 위험한 길을 떠난 은하, 눈발 날리는 태백산줄기에로 지친 걸음을 옮겨가던 때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가？ 그의 마음속에 함께 걸으며 신심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주고 떠밀어준 사람들속에 이 류성우도 있었을가？… 그 녀자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여온 성우여서 어둠속에 잠긴 길을 바라보는 그의 심정은 쓰라려났다. 그 자갈길우에도 그 녀자의 고달픈 발자국들이 찍혀있는듯했다. 지금은 차디찬 눈바람이 그 발자국들을 지워버릴것이고…

순찰병놈들이 굽인돌이로 사라지자 류성우는 길바닥으로 달려나갔다. 놈들이 돌아올 때까지 길바닥에 찍힌 무수한 그림문자들을 읽고 판별해내야만 했다.

그는 겨우 알아볼수 있는 자동차바퀴의 흔적들 가운데서 유난히 뚜렷하게 찍힌 생생한 궤도자국을 발견했다. 바람에 불린 먼지도 적은것으로 미루어 얼마전에 장갑차가 지나갔다는것이 명백했다.

류성우의 보고를 들은 대대장은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가 공병소대장에게 지뢰매설조를 준비시키되 차후지시를 기다리라고 했다. 통보에 의하면 적들의 긴급수송대가 날이 밝을 때 이곳을 지나게 되여있으므로 기동순찰로 장갑자동차나 땅크가 다닌다 해도 그것이 지나간 뒤끝에 지뢰매설을 할수 있다는것이였다.

공병소대장과 매설조를 도로연선에 남기고 그들이 산중턱에

올랐을 때 마침 기동순찰대를 태운 장갑차가 그닥 서둘지 않고 나타났다. 대대장은 얼핏 류성우를 돌아보았다. 그 의미가 《동무의 판단이 맞았소.》 하는것임을 성우는 알았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이미 예견되여있었고 또 정찰에 의하여 확증된것이므로 별로 새삼스러운것이 아니였다.

장갑차가 멀리 사라져가도록 눈길로 쫓고있던 대대장은 급히 팔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렇지, 이제 저놈이 돌아설 때까지는 구뎅이를 파야겠소. 그걸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다시 돌아서 지나간 다음에 지뢰를 묻지.》

그는 재빨리 기동차의 속도와 주행거리를 계산한것이였다.

《공병들의 작업을 중대장동무가 엄호해주어야겠소.》

《알았습니다!》

희한하게도 모진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류성우는 웬일인지 자기가 중요한 전투임무를 받고 떠날 때마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던것을 생각했다. 그 뒤끝에는 꼭 비나 눈이 내렸던것 같다. 해가 쨍쨍 내려쪼이거나 별이 총총한 밤에 수행한 전투도 많으련만 비를 맞거나 눈속을 기여가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아마 어려운 임무에 따르는 마음속 각오에는 사나운 일기조건이 알맞는때문인지도 모른다.…

순찰병놈들이 초소막에로 들어가버리자 류성우는 공병들을 향해 손짓을 했다. 8명의 공병들이 4개조로 나뉘여 길바닥에 달려나갔다. 이윽고 언땅을 찍어내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분명 소리를 죽이려고 애쓸것이지만 돌에 마치는 쇠붙이소리까지 죽일수는 없었다. 그 하나하나의 음향은 골수를 찔러대는듯했다.

성우는 경비초소를 노려보며 숨을 죽였다. 경비초소의 한점 불빛은 어둠속에서 졸음을 참아가는 고양이의 눈알처럼 깜빡깜빡하였다. 불현듯 길에서 《쩡!—》 하는 소리가 났다. 날카롭게 울린 쇠소리가 바람에 불려가자 길바닥에 웅크린 검은 형체들이 돌연 바위돌처럼 굳어져버렸다. 숨길이 딱 멎고 심장의 고동도 일순 멎어버린듯했다.

경비초소에서 적병 한놈이 부지깽이에 쫓긴 도적놈처럼 튀여나왔다. 길바닥에 웅크리고있던 공병들은 미처 어쩔새 없어 그대로 엎드렸다. 성우는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초소막뒤로 돌아간 그놈이 엉거주춤해 서서 몸을 부르르 떠는

것을 보았다. 그놈은 바지춤을 추슬러올리며 또다시 바람에 불린것처럼 뛰여들어갔는데 모자도 없는 맨머리바람이였다. 조금전에 순찰을 끝내고 들어가 교대한놈일것이다. 공병들의 작업은 다시 맹렬해졌다. 산바람만이 길바닥을 계주장처럼 휩쓸며 오불꼬불 비꼬이기도 하고 훔타기로 쓸어내리기도 하였다.

성우는 시계를 보았다. 이제 얼마 안있어 《유엔도로》는 《죽음의 도로》로 될것이다. 놈들이 벌린 《제한공세》의 강철이발들은 전선에 닿기전에 벌써 여기 얼어붙은 길우에서 태반이 부러져나갈것이다.

공병소대장이 돌아와 류성우의 귀가에 대고 황소숨을 퍼부었다.

《제대로 흙을 묻었습니다. 얼음쪼각들까지 고루 펴놓았지요.》

《수고했소.》

시간은 빨리 갔다. 성우는 공병소대장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있는것을 보면서 틀림없이 그의 손바닥은 피투성이로 되였을것이라고 짐작했다.

마침내 기동순찰장갑차가 되돌아왔다. 장갑차는 경비초소앞에서 잠간 멎어있었는데 미제침략군장교놈이 그속에서 내려와 한바탕 닥달질을 해대는것 같았다. 지어 그놈은 도로에 면한 경사면이며 산봉우리들을 연신 가리키기까지 하였다. 긴급수송대가 곧 도착하리라는것이 명백해졌다.

장갑차가 떠나고 경비초소놈들의 깐깐한 수색과 순찰이 있은 다음 공병들은 지뢰를 매설하였다. 그와 동시에 전체 대대가 도로 가까이 진지를 차지했다.

허나 면밀히 준비한 이 매복전은 뜻밖의 일로 하여 탄로나게 되였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날이 어슴푸레 밝기 시작할 때, 수송대에 앞서 승용차 한대와 화물자동차 석대가 달려왔는데 지뢰매설구역에서 승용차는 무사히 지나갔으나 화물자동차 석대는 박산이 나서 날려가버린때문이였다.

경비초소의 놈들이 뛰쳐나와 사방에 대고 어림짐작으로 총을 쏴댔다.

솔가지를 입에 물고 잘근잘근 씹고있던 대대장이 팔을 홱 내저었다.

《저 시끄럽게 구는놈들을 소멸하오!》

악에 받친 공병들이 달려나갔다. 초소쪽에 자동총의 련발사격이 휩쓸어가더니 뚝 그쳤다. 굽인돌이 너머 6중대쪽에서도 한바탕 총소리가 울렸다.

대대장은 박산난 자동차들이 불타고있는 길 한복판에 버티고 서있었다. 그는 지휘관들을 길복판에 불러냈다.

《매복이 폭로된 이상 전투는 더 어렵게 됐소. 이젠 공개적인 싸움을 걸어야겠소. 어쨌든 우린 여기서 포탄 한발이나 수류탄 한개도 그대로 보낼수 없소. 우리는 여기서 항일유격대식으로 부단한 기습과 유인전을 벌려야겠소. 군관동무들, 나의 결심은 이렇소. 각 중대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는바 먼저 수송대의 앞뒤를 때리고 점차적으로 토막쳐야겠소.》

계속하여 그는 각 중대가 차지할 구간을 지적하였다. 그에 의하면 적수송대의 첫 선두를 기습하는것은 8중대, 수송대의 꼬리를 치는것은 맨 앞쪽에 진지를 차지할 6중대가 담당하고 7중대는 차후 명령을 대기하기로 되였다.

《반땅크총소대장은 6중대와 8중대에 각각 두정씩 배속시키시오.

군관동무들, 시간을 맞춥시다. 지금 시간은 5시 24분이요. 6시까지 전투준비를 끝내고 보고하시오!》

모두 《알았습니다!》 하고 힘차게 대답하자 각기 달려갔다.

류성우는 중대가 진지를 차지하고 위장하는동안 줄곧 생각했다.

첫 기습이 중요하다. 그러나 중대가 차지한 산에서 도로까지는 저격무기유효사거리를 넘는 먼 거리이다. 이것은 놈들로 하여금 도로에서 마음놓고 산개하여 공격해올 가능성을 주는것이다. 그는 정찰활동에서의 경험들에 근거하여 도로가까이 소수의 매복조를 위장하여둔다면 어떨가 하고 생각하였다. 물론 그렇게만 되면 가장 적절한 때 산에만 정신을 팔고있는놈들을 본때있게 족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숨기는가? 도로주변은 나무 한대 변변히 없는 개활지대이다. 매복할만한곳이면 도로에서 너무 멀었다.

이러저런 생각을 굴리며 진지를 돌던 그는 방성화분대장이 자기 대원들과 말하는것을 우연히 듣게 되였다.

《아주 그럴듯한 생각이야, 동무가 직접 가서 제기하라구.》

방성화분대장이 열에 뜬 목소리로 말하는것이였다. 그러자 중대오락회책임자인 김명국이 뒤더수기를 긁으며 그닥 좋지 않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제가 어떻게… 그까짓게 뭐라구…》

《챠 이런!》 방성화는 어성을 높였다. 《가서 말해보라구. 중대장동무가 얼마나 좋아하겠나. 그건 틀림없어. 중대장동진 정찰병출신이기때문에 원래 감쪽같이 치거나 벼락같이 치는걸 좋아하거던. 그래도 싫어?… 할수 없지. 분대장이 가서 칭찬을 받을수밖에…》

그러나 막상 나무그루곁을 나서는 중대장을 보자 상관한테 칭찬을 받으러 가겠다던 그도 주춤거렸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중대장의 낯색이 그로 하여금 주눅이 들게 한 모양이였다.

《무슨 일이요?》 하고 류성우는 시들하게 물었다. 《뭘 제기한다는거요? 분대장동무, 말해보오.》

《저…》 방성화는 잠시 머밋거리더니 용기를 내여 입을 열었다. 《중대장동지, 방금 우린 오늘 전투와 관련하여 이러저런 문제들을 토론하고있었습니다.》

《요점만 말하오!》

《알았습니다!… 우리가 토론한것은 도로가 산에서 지내 멀리 있기때문에 포탄창고습격때처럼 단숨에 칠수 없겠다는것이였습니다.》

류성우는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예, 그래 두루 궁리하더랬는데 저 친구가》 방성화는 김명국을 가리켰다. 《저 도로 가까이에 있는 물홈에 숨어있다가 냅다 치면 좋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홈?》

방성화가 가리켜보인 물홈은 도로에서 멀지 않았다. 여름에 장마비로 깊이 패운데다 겨울엔 물이 흐르지 않아 위장에는 더없이 좋은곳이였다. 그리고 개활지대인 그곳, 특히는 도로에서 150발자국쯤 되는 지점에 매복이 있으리라고는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것이다.

류성우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김명국을 쳐다보았다. 이 지혜로운 전사는 정찰병이였던 중대장조차 엄두를 내지 못한 대담하고 기발한 생각을 한것이였다.

《좋은 생각이요.》 성우는 얼굴이 붉어진 김명국을 향해 말했다. 《아주 좋아, 나도 그 생각까진 못했거던. …》

그 달음으로 류성우는 도로기습의 매복문제를 대대장과 토론하였다. 여기서 알려진바에 의하면 대대장 역시 그러한 문제로 머리를 짜내던중이였다는 사실이다. 대대장은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그러니 그 전사가 대대장과 중대장이 골머리를 앓던 문제를 풀어주었구만.》 하고 말했다. 그들은 매복조가 위장할 물홈을 돌아보고 결심했다.

《중대장동무.》 대대장이 말했다. 《8중대에서 매복조를 선발하시오! 조장은 특히 용감하고 책임성이 높아야 하오. 가능하면 소대장들 가운데서 누구 한사람 책임지울수 있소. 아주 중요하고 책임적인 임무라는걸 잊지 마시오.》

류성우는 생각했다. 누구에게 맡길것인가?… 그것은 강의한 의지, 기민한 정황판단, 대담성, 신축성 등을 요구한다. 명령이 없는 한 머리우에서 불이 붙어도 참고견디며 불에 타죽더라도 나오지 말아야 한다. 특히 대대에서 매복조의 활동과 그의 효과적인 기습을 전제로 하고 도로에서 먼 산봉우리에 전개하는만큼 그들은 무조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것은 단 한순간에 수십수백배에 달하는 적의 무리속에 뛰여드는것이다. 그들중 많은 사람들, 혹시 모두 살아남지 못할수도 있다. 누구에게 맡길것인가?…

지금까지 류성우는 거의나 이런 문제때문에 머리를 쥐여짠적이 없었다. 정찰소대장이였던 그에게서 어떤 어려운 임무라도 그것은 곧 그자신이 해야 할 임무였었다. 그는 다만 어떻게 하면 적을 더 효과적으로 타격하겠는가 하는것에만 골몰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포탄창고습격때와 같이 중대장인 그자신이 매복조를 맡아가지고 땅굴속에 들여박힐수는 없다. 그는 누구든지 자기자신처럼 믿고 선발하여 임무를 주어야 했다. 동무들, 어려운 임무가 제기되고있소. 길가에서 150발자국정도 떨어진곳에 매복조를 숨기려 하오. 매복조의 임무는 적의 수송대렬 한복판에 뛰여들어 땅크와 포병대 등을 요정내는거요. 여기서는 아무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오. 누가 가겠소?… 나서시오!…

아니, 아니다. 성우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었다.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다!

《동무들.》 하고 그는 자기의 마음속생각을 수정하였다. 《어려운 임무요. 그러나 매복조는 수십수백명 전사들의 피를 막게 될

것이요. 부대의 공격은 매복조의 배후타격과 동시에 진행되오. 누가 하겠소?… 누가 하겠소?》

누가 하겠는가, 누가 할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을 지금 류성우는 결정해야 했다.

전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그려보았다. 요란스러운 평판을 가졌거나 특별히 두드러지는 사람이란 하나도 없다. 평범한 보통 병사, 하사관, 군관들이였다. 그러나 가장 평범한 보통병사였던 류문기도 필요한 때에 가서는 자기 한몸 서슴없이 적탄앞에 내던지지 않았는가!…

우선 중요한것은 믿음이다. 이에 대해서는 얼마전 련대장도 거듭 강조했었다. 모든 전사들을 자기자신처럼 믿게 될 때 중대는 날창처럼 벼려진다고 했다.

얼마후 류성우는 방성화의 분대를 정렬시켰다. 중대에서 가장 날래고 용감한 전사들과 어느 소대장을 선발하려던 애초의 생각을 버리고 그는 대담한 발기를 한 분대성원들로 조직하려는것이였다.

어렵고 중요한 전투임무를 받게 된것을 안 그들은 흥분하고있었다. 비록 그것을 드러내보이려 하지 않았으나 김명국전사처럼 마른 침만 삼키는 전사들도 있었다. 매복조의 발기자 김명국— 그는 중대오락회책임자이다. 엄기창이 소개해준데 의하면 그는 중대의 합창이란 곧 중대의 전투력을 의미하는것이라고 오락회때마다 연설하기 좋아했다. 그러한 실례로 전쟁이 일어난 며칠후 서울해방이 있은 직후의 일화를 꺼내군하였다. 그때 수십만 서울시민들은 남으로 나가는 인민군대를 밤낮없이 환영했는데 부자놈들이 살고있는 어느 거리 (그 거리이름을 명국은 기억하지 못했다.)에서만은 덧창문들이 굳게 닫힌대로 있어 이것이 성미급한 어느 보병대대장의 기분을 잡쳐놓았다. 대대장은 그때만 해도 대대오락회책임자였던 김명국을 불러 대대4성부합창을 하도록 명령했다. 하여 우렁차고 조화로운 대대4성부대렬합창이 시작되였고 거리를 진감하였다. 그러자 덧창문들이 하나둘, 또 하나둘… 열리더니 나중엔 온 거리가 문을 활짝 열어제꼈다. 그리고 그 창문들에서는 명국의 표현대로 하면 《뽀마도를 잔뜩 바른 부르죠아지들》이 어리둥절하여 경탄의 눈빛을 번뜩이면서 《북한공산군이 4성부합창까지 하는가?! 무지한 농군들이라더니 이게 웬일인가!》했다는것이다.

그때 류성우는 이 비슷한 이야기를 어데선가 들은적이 있다는 것을 회상했다. 썩 후에 가서야 그는 중대의 전사들이 서울해방전투시엔 겨우 함경북도의 한 군사동원부에서 떼질을 하고있던 김명국에게 이 이야기를 붙여주었고 그것으로 자기네 중대오락회책임자를 장식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정렬한 방성화의 분대앞에서 류성우는 우선 전사들을 차례로 훑어보며 그들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있는 모든것을 상기해보려고 애썼다. 유감스럽게도 알고있는것이란 극히 적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명백한것은 이들이 바로 포탄창고습격에서 그다음 포위돌파전에서 다 방성화나 류문기처럼 용감했고 헌신적이였다는것이였다.

《동무들.》 하고 류성우는 시작했다. 《이제부터 동무들은 기습조로서 저 물홈을 파고 매복해야 하오. 신호가 나면 즉시 도로까지 150보거리를 달려가야 하며 대대의 공격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야 하오. 매인당 반땅크수류탄 2개,반보병수류탄 3개와 자동총으로 무장하시오. 그리고 명심할것은 명령이 있기전에는 움직이지 말것. 몸이 얼지 않도록 할것,신호는 돌격나팔,이상이요.》

그리하여 얼마후엔 매복조가 들여박힐 물홈안쪽을 파내고 위장을 철저히 했다.

날이 밝고있었다.…

5

장갑통신차의 기다란 문짝을 열어젖히고 통신보좌관이 소리쳤다.

《대좌님,8군사령부에서 전화로 찾습니다.》

스테이지는 입에 물고있던 풀줄기를 뽑아던지고 장갑통신차로 서둘러 갔다.

아직 해뜨기전이여서 사위는 서리찬 침묵속에 잠겨있었다. 팔공산의 산봉우리들은 소리없이 물러가는 어둠을 뚫고 침울하게 솟아오르고있었고 간밤의 온갖 재난속에서 시달리던 뭇짐승들이며 날새들은 아직 숲속에 웅크린채 움직이지 않았다. 결정적인 타격전의 서곡을 기다리는 팽팽한 긴장감이 이 아침의 정적으로 강조

되고있었다.
장갑통신차에 오른 스테이지는 통신보좌관이 넘겨주는 무선전화기를 받아들면서 낮은 소리로 물었다.
《누구요?》
《8군사령부 참모차장 몰간대좌입니다.》
참모차장은 잠에 취한 목소리로 《토벌》진행여부를 물었다. 뜻밖의 질문에 약간 당황한 스테이지는 넓은 지역에 흩어져서 활동하는 공산군련합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포위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한것이라는데로부터 시작하였다.
《공산군은 지금 부대단위로, 특히 중대나 대대이상의 무력을 집결하지 않고있다는것을 상기시킵니다.》
비록 상대가 자기와 같은 대좌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지는 그의 직급을 고려하여, 더우기 그의 배후에 있는 리치웨이를 고려하여 깍듯이 존대하여 보고했다.
《때문에 나는 열마리의 토끼를 다 쫓기보다 우선 한두마리를 잡아치울것을 결심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말하면 각개격파하자는것입니다.》
참모차장은 직업적인 참모장교답게 이러한 장광설에 기분이 언짢아진것 같았다. 갈린 그의 목청이 별안간 신경질적으로 공명판을 울렸다.
《무슨 소리요. 대좌?… 정확히 보고하시오.》
스테이지는 자기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있는 통신보좌관이며 무선수들을 재빨리 스쳐보면서 목소리를 낮추었다.
《나는 팔공산에 기지를 둔 공산군부터 포위소멸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현재 공격준비는 완료되고있습니다.》
스테이지는 공격서렬을 갖추고있는 부대들과 구체적인 병력 및 화력기재들에 대하여 재빨리 렬거하였다.
《비록 반수이상이 새로 모집한 신병이거나 경찰이지만》 하고 스테이지는 자기에게 차례진 병력이라는게 얼마나 보잘것없는것인가를 시사하였다. 계속하여 상대가 지원포에 대해서 묻자 그는 다시금 론박할수 없는 수자적인 증명으로 자기가 요청하고있는 포병화력지원의 극히 적은 일부만이 차례진것임을 까밝혔다. 때문에 자기는 한마리의 토끼만을 추격하고 포위하는 전술을 세웠

다고 했다.

《공군지원은?》 하고 또 상대가 물었다.

《윌리암 배커스소장각하자신이 〈케—3〉(포항)의 1공군련대를 출격시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나는 팔공산의 서쪽령마루 호도암에 위치하고있습니다.》

《대좌.》 하고 참모차장은 잠시의 여유를 둔 침묵끝에 입을 열었다. 《당신의 견해는 정당할수도 있소. 그러나 그 한마리의 토끼마저 바지가랭이로 빠져나간다면 유엔군사령부에서 특별히 파견한 당신 체면이 어떻게 될는지 의심스럽소. 당신의 대좌견장을 뜯어던질만큼 결단성있는 상관들이 적지 않다는것을 잊지 마시오.》

스테이지는 피나는듯한 모욕감에 전신을 부르르 떨었으나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몰간참모차장의 이 야유속에는 무서운 진실이 있다는것, 즉 포탄창고의 폭발후 완전포위속에 들었던 공산군이 몰래 빠져나간 전례로 보아 다섯개의 시와 군에 걸쳐 뻗어있는 팔공산의 무수한 봉우리며 골짜기들을 빈틈없이 봉쇄하고 참빗처럼 훑기에는 너무도 무력이 부족하다는것을 알고있기때문이였다.

《어쨌든 보고를 기다리겠소.》 하고 상대가 비꼬았다. 《그때에 가서 당신에게 어떤 훈장이 적절하겠는지 다시 론의할것이요.》

스테이지는 무선전화기를 던져주듯하고 달구지길이 끝나는데까지 더 깊이 차를 들이대라고 명령했다.

내장까지 뒤집는듯한 충격, 중유 타는 냄새… 차는 굴러갔다. 동시에 모멸감과 증오심에 충만된 스테이지의 악의에 찬 계획도 굴러들어갔다.

《됐소. 차를 세웟!》

스테이지는 명령했다. 그다음 자기로서도 딱히 알수 없는 충동에 의하여 묵직한 콜트권총을 꺼내들고 안전장치를 풀었다.

그리하여 팔공산에 대한 철과 불의 맹렬한 타격은 시작되였다. 스테이지는 이미 정찰에 의하여 공산군련대의 주력이 자리잡고있는것으로 알려진 팔공산의 주요한 뒤골목 금야동으로 몇대의 땅크에 괴뢰군련대를 달아 전진시키고 81미리박격포의 타격을 보충해주었다. 경찰무력은 차단초소들에 집중하였다.

만약 반유격전의 로련한 전문가인 엘든 스테이지대좌가 공산군련대의 주력중 하나는 《유엔도로》상에, 또 하나는 신령역으로

진출하고 팔공산에는 한개 대대만이 남아있다는것을 알았더라면 자기의 계획을 달리했을는지도 모른다. 허나 그는 언제든 자기의 성공을 믿기에 습관되여있었다. 믿을수 없는 일에는 애당초 손을 댈 필요가 없다고 그는 생각하고있었다.

얼마전 포탄창고를 폭발한 공산군을 포위했을 때도 그가 뒤늦게야 현장에 도착한탓으로, 괴뢰군장교들의 우매성으로 상부에 보고하였다.

이번의 팔공산공격을 앞두고는 특별한 연구와 세밀한 검토들이 거듭되였다. 그는 공산군제2전선련합부대의 련대들중에서도 특히 남먼저 저지선을 뚫고 나온 한 련대를 지목하였다. 그 련대장이 항일유격대 출신인 직업적혁명가라는것이며 그가 즐겨 적용하는 전법들은 상대의 주의를 어느 요충지에 모아놓고 전혀 예기치 않은 다른 대상물들을 타격하는바 그것도 일시에 여러곳을 기습한다는 것, 그리하여 상대가 속았다고 생각하고 진짜 요충지에서 병력을 옮기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잘 준비된 특공대로 쐐기를 박는다는 점까지 놓치지 않았다. 통털어 그의 수법은 기만과 기만의 련속으로서 생물학에서 말하는 《먹이사슬》과 같은것이였다.

때문에 스테이지는 이 《사슬》의 한고리부터 떼여버리기로 결심하였다. 이 공격전에서 그는 지나치게 많은 몫을 삼키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몇개중대(가능하면 한개대대)병력만 소멸하여도 서로 튼튼히 얽혀진 《사슬》은 저절로 풀리게 될것이였다.

이렇게 그는 공산군의 다른 련대들도 한고리한고리 떼여낼것이다.

비록 동남아의 섬들과는 자연도 상대도 다르지만 스테이지는 자기의 랭철한 판단력과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려는 완강한 노력 그리고 군사적경험으로써 천체 력학분야에서 새로운 행성을 발견한것이상의 명예를 획득하리라는것을 의심치 않았다.

그의 적수는 유격전의 전문가였다. 그리고 그를 타격하고 제압하고 영영 쓸어버릴 야망을 품고 대결에 나선 엘든 스테이지대좌—자신을 두고 말하면 공인된 반유격전의 로련한 전문가였다.

…점차 중요한 보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칠곡군 다부동 도로교차점에서 공산군 1개소대력량을 포위중.》

《신암동 산릉선에서 조우한 공산군소구분대 도주하기 시작. 추

격중임.》
《증원을 요함. 공산군이 반격을 시작. 경찰의 포위선이 돌파되고있음.》
괴이한 보고들도 없지 않았다. 괴뢰군 2사 31련대에서는 기계고지부근에서 공산군의 상병자들 일부를 발견한 이후 아직 아무러한 적정도 없다고 했다.
스테이지는 포위환을 좁히면서 단 한명의 공산군도 새나갈수 없게 모든 오솔길들과 골어귀들을 차단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전투의 총포성은 식어가기 시작했다.
스테이지는 엷은 입술을 악물고 지도를 펴들자 가까이에 서있던 통역관을 불러 빠른 말씨로 물었다.
《당신 여기 팔공산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소?》
몸집이 똥똥한 통역관은 그때 나무가지에 매달려 말라죽은 거미를 담배불로 지지고있던터여서 잠시 얼떠름해있었다.
《악당같으니!》
스테이지는 불에 그슬린 거미를 보자 이발새로 부르짖었다. 그는 거미나 쥐와 같은 동물들을 볼 때마다 진저리를 쳤을뿐아니라 구두발로 쥐를 밟아죽이는 잔인한 쾌락을 즐기는자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군했었다.
《대좌님.》 하고 어리둥절해진 통역관이 싸늘한 그의 눈길에 몸서리를 치며 서둘렀다.
《용서하십시오. 그만…》
스테이지는 안전장치를 풀어놓은 권총을 손에 잡은채로 그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야만같은짓은 그만두시오, 소령.》
참을길없는 증오를 감추지 않고 그는 미욱스럽게 사죄의 미소를 띠우는 통역관의 눈앞에 지도를 내보였다.
《이건 뭐요?》
팔공산지역도가 아직 영문으로 번역된것이 없었으므로 부득불 스테이지는 이렇게 묻지 않을수 없었다.
《대좌님, 동화사라구… 절간입니다. 여기 이쪽것은 파계사, 또 여기엔 제2석굴암이 있습니다.》
통역관은 스테이지가 고고학의 전문가나 아니면 력사유적에

취미를 가진 탐방기자이기나 한듯 열을 내여 설명했다.
《옛날 기록에 의하면…》
《그만하오.》
바로 그때 폭격기들이 우르릉거리며 산봉우리우에 나타났다. 스테이지는 몸을 홱 돌리자 방금 자기에게로 달려온 통신보좌관에게 소리쳤다.
《대위,부대들에서 신호포를 설치하라고 전하시오. 빨리!》
그것은 열십자의 거대한 천표식물로서 길이가 10메터,너비가 1.5메터에 다리 3개는 파란색으로,한개는 빨간색으로 된 유치하고도 효과적인 항공타격표식이였다. 이제 그 표식을 따라 항공대의 강한 타격을 배합하면 전투의 종국은 결정된것이나 다름없는것이였다.
《대위,왜 멍청하니 서있소?》
통신보좌관은 흐트러진 머리칼을 손으로 쓸어올리며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대좌님,공산군이 지금 〈유엔도로〉를 기습하고있습니다!》
《뭐이?》
일순 스테이지는 자기를 자제했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는 공산군이 《유엔도로》를 노리리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리하여 오늘도 미1기갑사단의 제3전차대대에서 6대의 땅크,해군륙전대,1공군련대의 항공기들로 어마어마한 엄호를 조직했다. 거기에 수다한 보병,박격포중대들… 피투성이가 되지 않고서는 감히 《유엔도로》에 범접을 못할것이다. 단지 분한것은… 그렇다. 피가 나도록 분하게 생각되는것은 팔공산의 공산군련대토벌이 하루가 늦었다는 그것이였다. 그러나 단 한개중대라도 한사코 소멸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좌님!》
통신보좌관은 그대로 서있었다.
《어떻게 하랍니까?》
그것은 토벌부대들을 《유엔도로》에로 기동시키라는 지시를 주겠는가 하는 물음이였다. 스테이지는 랭소를 띠웠다.
《뭘 그러구 섰소? 토벌은 계속될것이요. 공산군의 한개중대라도 소멸하는것이 나의 목적이요!》
천막처럼 드리워있는 전나무들 상공으로 폭격기들이 날아갔다. 으르릉거리던 폭음이 사라지자 이번엔 발작적으로 울부짖는 땅크포

들의 사격이 먼 골짜기어귀에서 사납게 웨쳐댔다. 랭랭한 바람결에 가랑잎 썩은 냄새가 실려왔다. 시내물이 얼어붙은 골안에서 땅크포들이 또 한바탕 울부짖기 시작하자 이번엔 릉선우에 전개한 81미리 박격포들이 승벽내기로 재채기소리를 퍼부어댔다.

이것은 팔공산에서 놈들을 견제하고있던 2대대전투원들을 괴롭힌 그 집중포격의 첫 포성들이였다. 사실상 이때부터 2대대와 군의소 및 직속구분대들은 힘에 부친 전투를 거듭하였고 릉선과 골짜기들을 넘나드는 여러시간의 공방전에서는 희생자들도 적지 않았다.…

땅크포들의 사격과 함께 스테이지는 콜트권총을 꽉 움켜쥔채 꾸둑꾸둑한 비탈면을 내려 전차들이 전진해간 골짜기로 내려갔다. 동남아의 쟝글속을 헤치던 일이 떠올랐다. 비장한 감회와 함께 혈관속에서 길길이 뛰여오르는 피의 분류를 감촉하였다. 그는 자기가 극도로 무모한짓을 한다는것,랭정하게 따져본다면 통신차에 앉아 정황을 분석하고 가장 적절한 공격방안을 세우는것이 현명한 처사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1.25키로의 무게를 가진 묵직한 콜트권총으로 가증스러운 적군을 직접 사살해보고싶은 강렬한 열망과 충동이 그를 계속 앞으로 나가게 했다. 탄창 하나에 들어있는 일곱발의 총탄을 아낌없이 퍼부을 기회가 생긴다면 면밀한 토벌준비를 해놓고도 또 하루라는 시간을 늦잡아 공산군으로 하여금 《유엔도로》상에 나타날수 있게 한데 대한 분풀이라도 될것이였다. 자기가 노리던 공산군의 련대는 고사하고 한개중대라도 사로잡아 꿇어앉힐수 있다면!… 그는 자기의 뜨거운 피를 식히기 위해서는 피가 요구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리하여 스테이지는 숲속에서 도망쳐나온 한 괴뢰군사병을 먼저 선택하였다.

《너의 중대는 어데 있어?》

어데서 얻어맞았는지 머리가 터져있는 괴뢰군사병의 턱을 권총총구로 쳐들며 스테이지는 독살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뒤늦게 달려온 통역관이 사병의 귀전에 대고 헐떡거리며 쏘아붙였다.

《중대가 어데 있나말이야?》

괴뢰군사병은 두눈을 꽉 감으며 중얼거렸는데 통역조차도 그 말을 가려들을수 없는 모양이였다.

사병이 허둥지둥 팔을 뻗쳐 가리킨 산중턱을 흘낏 바라본 스테이지는 통역관에게 물었다.

《저건 뭐야?》
《대좌님, 죽은 사병들이랍니다.》
《그럼 산놈들은 어데 있어?》
스테이지가 목소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통역관은 자기 음계의 배이상 되는 고음으로 웨쳤다.
괴뢰군사병은 후들후들 떨리는 두다리를 가까스로 벋디디고서서 공산군을 추격중이노라고 대꾸했다.
《그래 저게 공산군이야, 공산군이야?…》
이번에는 사병의 터진 머리를 내려치는 그 동작이 너무도 흉포한것이여서 통역조차 비명소리를 내질렀다. 두개골이 바스라지는 소리는 스테이지의 울분에 찬 심정을 어느 정도 가셔주었다. 그는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고 서서 쓰러진 몸뚱이에 총탄을 마저 쏘아박고는 피거품같은것이 달라붙어있는 권총을 통역관에게 던져주고 손수건을 꺼내여 손바닥을 깐깐히 닦은 다음 음달쪽 관목숲에 던져버렸다.
(이건 도대체 무엇때문인가? 또다시 선손을 떼운 분풀이인가? 아니, 아니다. 저따위 추접스러운 낯짝들은 필요없다. 미합중국엔 리성을 가진 총알받이가 아니라 미키 스필레인의 작품들에 그려진것 같은 미치광이들이나 인간기계들만이 필요한것이다!…)
스테이지는 말할수 없는 혐오감에 휩싸여 오래도록 전차를 타고 팔공산의 변두리를 굴러다녔다.
(어떻게 할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모욕을 보복할것인가?…)
눈앞이 흐려졌다. 이렇게 할것이 아니였다. 그는 팔공산의 산릉선을 따라 극소수의 공산군들에 대한 추격에 열중하는 괴뢰군사병들을 바라보며 쓰디쓴 환멸을 느꼈다. 허나 스테이지는 패배를 원치 않았고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고도싶지 않았다. 패배?… 내가 패배했다고?
《규정은 부정이다!》
쓰라린 현실에는 전혀 동닿지도 않는 스피노자의 이 말을 문득 상기하고 그는 이발을 갈았다. 피!… 무인도에서 도려내던 심장!… 그때부터 시작된 승진의 길이 이곳 팔공산의 달구지길에서 끝날수는 없는것이다. 승냥이가 이발이 부러졌다고 승냥이기를 그만두는 법은 없는것이다.
비로소 싸늘한 미소가 그의 엷은 입가를 뱀의 혀바닥처럼 재

빨리 스쳐지났다.

그는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까딱 않고 서서 이제 공산군이 몸서리칠 정도로, 아니 그 이상으로 보복을 가할 계책을 꾸미고있었다. 그것은 애초에 그가 계획했던 소극적인 차단과 봉쇄가 아니라 《반유격대대》를 통한 심리전과 함께 화염방사기들을 총동원하여 공산군이 발붙인 모든 수림과 주민지대를 불태워버리는 소각전으로 될것이였다.

그리하여 자기의 새로운 책략에 만족했던 스테이지는 얼마후 괴뢰군수색중대에서 공산군간첩을 숨겨준 동화사의 주지와 절간에 숨어있었다는 간첩— 희멀끔한 한 사나이를 끌고왔을 때 별로 생각지도 않고 대뜸 화염방사기로 태워버리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면도칼로 밀어버린것처럼 이마가 쭉 벗겨진 사나이가 부르짖었다.

《장교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때문에 그런 끔찍한 벌을 제가 받아야 한단말입니까, 예? 전 주의주장도 없는 한 방랑자에 불과합니다. 전쟁이 무서워 절간에 숨어있었습니다. 여기 이 주지한테 물어보십시오, 장교님!》

스테이지는 문득 고개를 돌렸다. 그를 멈춰세운것은 목메는 애원도 통곡도 아니고 단지 그 사나이의 류창한 영어때문이였다. 그는 놀란 눈길로 살집좋은 사나이를 쏘아보았다.

《방랑자?》

《예, 장교님.》

스테이지는 싸늘한 시선을 장삼입은 중에게로 옮겼다.

《이자를 왜 숨겼어, 바른대로 말해.》

자기에게 어떤 참혹한 종말이 다가오는지 알수 없었으나 분명 불행을 예감한 동화사의 주지는 가느다란 팔을 쳐들고 재빨리 념주알들을 주물러댔다.

《덕행을 베풀어주옵소서. 일찌기 석가모니부처께선 사라수나무숲에서 죽어 극락세계로 가면서 〈원컨대 자비로 인간을 구제하고 지혜로 인생을 도모할지어다!〉라고 하셨소이다.》

그러자 때국물이 오른 부인용목도리를 목에 감은 번대머리사나이가 황겁히 주지를 막아나섰다.

《장교님,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을 모르니 지금 념

불만 주절대고있습니다. 장교님, 제가 공산군간첩인지 아닌지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물론 스테이지도 그가 공산군간첩이 아니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꺾일지언정 굽히려들지 않는 그들과는 너무도 상반되는 인간인 것이였다.

《그래 이름은?》

《리헌이라고 합니다, 장교님.》

몸서리치는 공포와 절망의 애원만이 아닌 비굴한 순종의 빛까지도 사나이의 얼굴에서 발견한 스테이지는 잠시 망설였다.

6

스테이지가 무력을 집결하여 팔공산에 대한 《토벌》을 최종적으로 다그치고있던 그 밤에 은하는 련대군의소와 함께 팔공산의 약수터에 있었다. 부대에 편입된지 어느덧 닷새가 지났다.

이때부터 제2전선련합부대에서는 정규부대에 전례가 없는 새로운 집단— 유격대가족, 학자와 기사, 어린 소년들, 지어 배우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운명의 길을 걸어온 사민들의 부대편입이 시작되였다.

후날 북상할 때에 이 집단은 수십명에 이르렀으나 아직은 은하의 일행이 전부였었다.

은하는 군의소에서 상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자진하여 나섰다. 언제나 일손이 딸려 얼굴이 부석부석해있던 군의소장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듣더니 수첩을 꺼내여 그의 이름과 나이를 적고 괄호안에 《정치공작대원— 간호원》 하고 써넣었다. 그것은 은하의 군적을 밝혀놓은 대렬등록부와 일체의 후방물자를 공급받을수 있는 공급카드를 대신하는 수첩이였다.

…밤이 이슥해서야 은하는 간호원들과 같이 화토불곁에 자리잡았다. 이제는 마음 편히 잠들수 있다.

잠을 잔다는 그것이, 온갖 시름도 불안도 없이 누울수 있다는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했다.

눈섭이 살풋이 내려덮일 때 납덩어리를 목에 매단듯 머리가 절

로 떨어질 때 지치고 노그라진듯 맥이 쭉 빠진 팔다리를 펴면서 《아이 피곤해!》 하고 한마디 중얼거리고는 솜동복의 목깃을 올리고 팔베개를 하고 그대로 잠들수 있다는것은… 아, 이 얼마나 엄청난 행복이랴!…

이처럼 자기를 시름없는 행운아로 느끼게 되자 그는 멀고먼 적후의 길을 홀로 걷던 일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동무, 우린 중대입니다. 그러나 동문 이제 홀로 가게 되지요.》

푸르께한 밤의 어둠속에서 번쩍이던 철갑모들, 삽질소리… 소음을 피하려 애쓰던 중대, 마지막 결사전을 준비하던 중대!… 특무장이 하던 말의 의미를 그때엔 다 몰랐던것 같다.

(허나 오래잖아 난 그걸 뼈저리게 체험했지. 외롭다는게, 홀로 남는다는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그러나 지금 난 부대에 와있다. 부대, 부대!… 아아! 세상에 이처럼 아름찬 행복도 있구나!…)

돌바위를 핥으며 찬바람이 휘 불면서 발치의 화토불에서 무수한 불꽃들을 솟구쳐올리고 재티를 흩날렸다. 그러나 그까짓게 다 무엇이랴. 이제 소곳이 잠들어버리면 그만인걸. 그것을 방해할건 아무것도 없는것이다.

(아아, 피곤해. 빨리 자야지…)

눈앞에서 맴돌이치는 불꽃들이 점차 커지며 차겁고 령롱하고 또 희미하게 엇갈려돌았다.

잠결에 은하는 불결으로 자꾸만 움직여갔다. 타들어가는 나무등걸에서 씩!— 물기가 내솟더니 순식간에 바글바글 끓어번지며 없어지는것이였다. 미소를 그린 은하의 입술이 방싯 열려졌다. 꿈결에 그는 류성우를 보았다.

푸름푸름 날이 밝고있었다. 잎떨어진 가래나무가지끝에 데룽데룽 매달려있던 물방울들이 소리없이 떨어져 은하의 코잔등을 때렸다. 화토불에서 나는 연기인지 화토불가에 피여난 흰 김인지 아니면 설핀 새벽안개인지 어둠을 간신히 헤치며 흘러왔다. 그것은 정든 사람들의 상봉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아늑하고 다정한 정원과도 같은 곳이였다.

어데선가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뜻모를 예감과 공포와도 비슷한 압박감에 가슴이 졸아드는듯하였다.

《그 동무이다, 그 동무!…》

돌아보고싶었으나 움직일수 없다. 발자국소리는 가까와왔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그러자 또다시 가슴은 짓눌리는듯했다.

그 순간 갑자기 모든것이 돌변해버렸다. 한사람의 발자국소리는 무수한 발자국소리들로 소란스러워졌고 구령소리들이 돌멩이처럼 날아들었다.

은하는 벌떡 뛰여일어났다. 코잔등에 떨어진 물방울도 이번엔 아프게 느껴졌다. 허둥거리며 사람들이 밀려가는 그쪽으로 달려갔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째서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가는지 묻고싶었다.

은하는 기를 쓰고 달려가며 앞서가는 사람에게 소리쳐 물었다.

《무슨 일이예요. 왜 그래요. 예？》

앞서가던 사람이 고개를 홱 돌렸다. 순간 은하는 숨길이 콱 막히는듯싶었다. 그 사람은, 무섭게 성이 난것 같은 그 사람은 바로 류성우였던것이다.

《저예요！》

은하는 우뚝 멈춰섰으나 다시 쫓아가면서 가느다랗게 부르짖었다.

《저예요. 은하예요！》

성우는 다시 돌아보았다. 그랬으나 아무것도 리해하지 못하는듯 하였다. 여전히 성난 눈초리로 그 녀자를 흘겨보고는 그대로 달려갔다. 달려가면서 다시한번 고개를 돌려 흘겨보았다.

포성이 쿵！ 울렸다. 가까운데서 폭발이 일어났다. 땅이 흔들렸다.

은하는 그대로 주저앉아버렸다. 세찬 폭발에 온몸이 부르르 떨려났다. 이 폭발은 어떻게 시작된것인가？… 류성우는 멀리 사라져갔고 난데없이 밀려왔던 숱한 사람들도 가뭇없이 사라져버리고말았다.

불시에 마음을 쓰리게 하는 그 성난 눈초리가 어데선가 자기를 쏘아보는듯했다. 은하는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질렀다.

또다시 좀더 가까운데서 폭발이 일어났다. 돌멩이같은 흙덩이가 은하의 무릎을 세차게 때렸다. 은하는 와뜰 놀라며 뛰쳐일어났다. 역시 두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해 머리를 흔들어대는 숙경이를 보았다. 새벽어스름이 퍼지고있는 산릉선우에서 감시병의 날카로운 웨침소리가 분명해지는 의식속에 파고들었다.

《전투로구나!…》

끊임없는 기동으로 군의소는 고정된 숙영지를 가질수 없었다. 위독한 중상자들은 인적없는 골안에 설치된 밀영으로 후송하였다. 어떤 상병자들은 산간마을에서 치료를 맡아주기도 했다. 이날,숙경이와 함께 부상병을 어느 산중부락에 후송하고 돌아오던 은하는 밤의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 숙경이는 총부혁을 꽉 그러쥐고 은하는 또 위생가방멜끈을 어깨가 아프도록 쥐여당기며 무시무시한 숲속을 헤매였다.

달빛도 없다. 초저녁부터 몰려들던 구름장들이 밤하늘에 얼어붙어있었다.

오래동안 두 처녀는 아무 말도 없이 무턱대고 걷기만 했다. 다만 군의소장이 지적해준 지점은 기계고지라는것과 낮에 보아두었던 뾰족한 봉우리에 대한 기억만이 있었다.

사실상 나어린 숙경이는 물론 은하도 군사적인 상식의 범위는 너무도 협소했다. 있다면 부상병들이 엄청나게 과장해서 들려준 전투담에서 얻은 좌우명과 같은것들,례하면 총창으로 적의 배때기를 찔렀을 때에는 발로 드립다 차야 한다느니,땅크와 맞섰을 때 기관총사격은 3메터안에서 피할수 있다느니,미국제 콜트권총은 11.43미리 자동총 총탄구경과 같기에 버리지 말라고 하는 등 도대체 언제 가야 써먹게 될지 알수 없는것들뿐이였다. 또한 방위판정의 초보적인 지식마저 이처럼 눈알을 빼가도 모를 야밤산중에서는 거의 무익하였다.

《언니!》

숙경이가 불렀다.

《우린 또 길을 헷갈렸지요?》

은하는 대답할수 없었다.

《서요. 좀 생각해보자요.》

멈춰섰다. 이마언저리에 매달렸던 땀방울이 굴러내렸다.

《약수터가 있는 골안은 이보담 더 넓었어요. 언니도 기억나지요?》 그는 숨을 할딱거렸다. 《그런데 여긴… 이렇게 좁구… 무시무시할가요,예?… 또 잘못들었지요?》

길을 잃기전만 하여도 숙경은 정식 군인선서를 하고 군복을 입은 자기가 사민인 은하보다 상급에 해당된다는 뚜렷한 궁지가 있었다. 그러나 인적없는 숲속에서 길을 잃게 되자 그는 손우인 은하가 두사

람중의 책임자까지는 몰라도 웃사람으로서의 권리는 죄다 가질수 있다고 인정한듯하였다. 은하는 자기에게 부여된 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숙경이, 난 이렇게 생각해. 우린 오직 동쪽으로만 가면 된다고말이야. 약수터는 동쪽에 있었거던. 안그래?》

숙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성있게 부르짖었다.

《옳아요. 동쪽으로 가자요.》

그들은 동쪽을 정하고 떠났다. 다시 숙경이는 앞에 나섰다.

《떨어지지 말아요.》

그다음 무슨 생각이 났던지 이렇게 첨부했다.

《대렬이 행군해 갈 땐 이렇게 말해요. 〈뒤로 전달. 떨어지지 말것!〉》

《알겠어. 떨어지지 않을게.》

은하는 나어린 그 목소리에서도 힘을 얻었다. 아직 변성되지 않은 가느다란것이긴 하였지만 그 목소리엔 변함없는 혁명의 요구가 있는것이였다.

하여 그들, 크고 작은 두 처녀는 알수 없는 숲속으로, 끝없는 어둠속으로 끝없이 걷고 또 걸었다. 여전히 숙경은 앞에서 걸어갔다. 그가 휘청거리지 않으려고, 일행의 지휘관답게 자신있게 걸으려고 애쓰는것을 바라보며 은하는 부지중 눈굽이 짜릿해지는것을 느꼈다.

전쟁은 숙경이와 같이 이제 책가방을 들고 즐거운 노래와 함께 동뚝길을 나비처럼 걸어가야 할 소녀에게도 무거운 짐을 걸머지웠다. 평화로운 시절이라면 그가 장대한 부상병은커녕 할머니의 보짐도 주저했을것이다. 허나… 이것은 전쟁이였다. 필요하다면 인생도 앞당길것을 요구하는 시절, 믿을수 없는 일이 례사로운 일로 되는 시절, 숙경이 또래의 딸을 가진 군의소장이였지만 애어린 그의 어깨우에 무거운 담가를 서슴없이 메워주는 시절, 참을길없는 고통을 말없이 이겨내야 함을 자각한 숙경이와 같은 소녀들이 조국의 존엄과 함께 커가는 시절, 바로 이것이 승리를 믿어의심치 않는 이 나라 사람들에 의하여 세기적인 위업이 수행되고있는 전쟁이였다…

갑자기 어둠속 멀리 어느 골어귀에서 총성들이 울려왔다.

반가운 불안이 가슴을 엄습했다. 깊은 숲속에서, 무시무시한 밤의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들에게 총소리는 적들과 교전하고있는 어느 구분대 혹은 전사들을 만날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가자요, 빨리！》

숙경이가 먼저 달렸다. 총소리는 격렬하게 그리고 가끔 동정을 엿보는듯 몇방씩 들리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그것은 멀리서, 혹은 가까운데서 울리는듯했다.

불현듯 숙경이가 푹 고꾸라졌다. 은하가 와락 달려들어 부둥켜안자 입술을 악문 신음소리가 새여나왔다.

《숙경이, 다치지 않았어？》

《아— 니.》

《어데 좀… 아니 왜？》

《일없어, 괜찮아요.》

숙경이는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자기를 사정없이 넘어뜨린 나무뿌리를 발로 툭툭 건드렸다.

《아유, 이런！》

그리고는 깔깔 웃어댔다. 은하는 마음이 놓였다.

《됐어. 이젠 갈수 있지？》

숙경은 보이지 않는 군복섶을 마구 털었다.

《저봐요. 또 났어요！… 그러니 계속 싸우는가부죠？》

《응.》

수류탄 튀는 소리까지 들렸다. 이제는 숲을 흔드는 바람소리가 아닌, 분명 적들의 비명소리일것이 틀림없는 괴이한 부르짖음소리도 분간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좀더 여유있게 나무뿌리나 돌부리에 걸채이지 않도록 조심하며 달려갔다.

어느새 골어귀에까지 달려나왔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어둠속에서 높다란 바위벼랑이며 장마비에 무너져내렸음직한 흙무지우에 굵은 뿌리를 드러내놓고 비스듬히 자빠진 나무를 보았다. 발밑에서 뿌적뿌적 깨여져나가는 얼음소리가 웬일인지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갑자기 조용해졌다. 귀를 도사렸으나 바람소리뿐이였다.

문득 숙경이가 은하의 팔을 붙들었다. 멀지않은곳에서 몇방의 총소리가 울린것이였다. 그리고는 또 잠잠해졌다.

《어디예요？》

두 처녀는 동시에 몸을 떨었다. 총소리는 더 울리지 않았다. 모든것이 끝나버린것 같았다.

두 처녀는 불시로 어둠속에 사라진 그 마지막 총성의 여운을 더위잡으려고, 길잃은 그들을 남긴채 어데론가 가고있을 전사들을 따라잡으려고 맹렬히 달려갔다.

《동무들!—》

누가 먼저 소리쳤는지 알수 없다.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절망과 불안이 새된 고함소리를 지르게 했다.

《동무들!—》

《동무들!—》

얼마후 발밑에서 뭉클하게 밟히는 느낌에 은하는 몸서리치며 펄쩍 뛰여넘었고 다음순간 몸을 홱 돌이켰다. 이번엔 뒤따라 오던 숙경이가 또 《어야나!—》 하고 기겁한 소리를 치며 뒤걸음쳤다. 도처에 적들의 시체가 널려있었다.

소란스런 태동이 숲속에서 시작되고있었다. 얼음장이 갈라지는 소리인지 굴러내린 바위돌이 부딪치는 소리인지 불길스러운 소란이 일어나고있다. 떨기나무가지들이 휘파람소리를 질러댔다. 두드러진 바위조차 웅크린 적병의 잔등처럼 보였다. 그들은 연신 발을 걸채이며 구원을 바라고 달려갔던 그곳에서 뒤걸음쳤다. 무릎과 종아리가 몹시 아파나기 시작할 때에 이르러서야 은하는 소란스럽게 숨을 내쉬고 다시금 사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아니다. 그들은 되돌아나온것이 아니라 어덴지 알수 없는 벼랑턱아래 돌밭에 서있는것이였다.

별안간 숙경이가 이발을 떡떡 맞쪼으며 부르짖었다.

《아이 추워!》

그 순간 은하는 그를 꽉 그러잡았다.

《가만!…》

어데선가 조심스럽게 중얼거리는 말소리들이 들려왔다. 두 처녀는 서로 꽉 잡고선채 귀를 도사렸다. 무엇때문이라고 딱히 찍어 말할수는 없으나 그 중얼거리는 말소리는 귀에 선것 같았고 위험을 예고하는듯했다.

《빨리!》 하는 소리가 멀지않은곳에서 들렸다. 《이쪽이다, 자식들!》

순간 아무 구령도 약속도 없었으나 두 처녀는 뒤걸음쳤다. 얼어붙은 돌쪼각 밟히는 소리가 엄청나게 큰소리처럼 들렸다.

《놈들이야.》 은하의 속삭임이였다. 《조심해. 어서 피해야겠어.》

그들은 좀전에 지나온 골짜기로 뒤걸음쳐갔다. 캄캄한 어둠속에서 무엇인가 희끗희끗 날리고있었다. 그것이 하늘을 메우며 쏟아지기 시작한 눈송이들이라는것을 깨닫기까지엔 적지 않은 시간이 또 흘러갔다.

7

《유엔도로》에서의 전투는 매복이 폭로된 극히 불리한 정황속에서 시작되였다. 류성우는 혹시 놈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찌하랴 하는 위구심을 품고 도로와 가까운 둔덕에 반땅크총수들과 같이 엎드려있었다. 그런데 날이 완전히 밝았을 때 땅크를 앞세운 적의 수송대가 도로를 가득 메우며 굴러오기 시작했다. 아마도 적들은 인민군대가 매복이 폭로된 이상 공개적인 접전을 포기했으리라고 믿는 모양이였다.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는 제2전선부대인만큼 대낮의 공방전을 하려고 기다리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을것이다. 그래도 기다린다면 땅크와 포화력 및 비행대로 초토화하면서 뚫고나갈 심산일것이였다. 이 전략적인 《유엔도로》에서 매복이 있었다고 하여 수송을 포기한다는것은 사실상 놈들의 견지에서는 자살행위와도 같은것이였다.

수백대에 달하는 수송대렬이 먼지구름을 말아올리며 밀려오는것을 보자 류성우는 느닷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것은 간고한 전투를 예감하는 긴장감과 통쾌한 보복을 갈망하는 억제할길 없는 흥분이였다.

적땅크들은 포신을 빙빙 돌려가며 보이지 않는 상대를 위협하였고 보병들과 박격포병들을 가득 태운 자동차들이 중간에 늘어섰다. 그리고는 또 땅크의 포신들이 내뻗쳐있고 꼬리가 보이지 않게 수송차들이 잇대여졌다.

적들도 사실상 옳게 타산한것이였다. 도로상에서의 공개적인 싸움은 수적으로, 화력으로 대비가 안되는 아군에 불리했다. 류성우는 온몸의 긴장으로 손에 땀이 쥐여졌다.

《요란스러운걸！》 하고 가까이 엎드려있던 반땅크총사수가 말했다. 《꼬리가 보이질 않는군요.》

류성우는 그를 흘깃 쳐다보았다.

《탄알은 넉넉하오？》

《넉넉한가구요？ 중탄 5발,경탄이 12발밖에 없습니다. 그것두 눈알처럼 아껴온건데 저렇게 많은 차들이 밀려오니 이거 어떡하문 좋습니까.》

배포유한 사람같았다. 방성화처럼 얼굴이 너부죽한데 귀밑에서부터 턱밑에 이르기까지 수염뿌리들이 빽빽하게 움튼것으로 치면 황히세소대장과 내기를 걸어도 지지 않을것이다. 그것들을 맘껏 자래워 위풍당당한 구레나룻으로 꼬아튼다면 민족가극극장에서 강감찬장군역을 맡기자고 할는지도 모른다. 그는 맨앞에서 굴러오는 땅크를 겨누었다.

《기관부를 명중해야겠는데… 한방도 허탕치는 일이 없어야지.》

온갖 발동기들로 연주되는 무질서하고 사나운 전주곡이 가까이 들려왔다. 어느덧 수송대는 1대대의 두개 중대가 매복한 골안을 가득 채우고도 벌써 선두땅크는 3대대의 7중대와 류성우의 8중대 린접에까지 굴러왔다. 비좁은 골안으로 뻗은 길을 무사히 지나온 적땅크는 한결 거드름을 부리는것 같았다. 7중대와 류성우의 8중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복한 9중대로부터 도로까지에는 넓은 개활지대가 놓여있는때문이였다.

아츠러운 무한궤도소리들이 귀청을 파고들었다. 성우는 권총을 힘껏 틀어쥐였다. 이제 곧 신호가 오를것이다.

새벽에 폭발한 자동차들의 잔해앞까지 먼저 굴러온 적땅크는 잠시 주춤거리더니 별안간 릉선쪽으로 포신을 돌려대고 꽝！ 하고 도발을 걸어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기척도 없자 마사진 자동차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뒤이어 따라선 차들에서는 보병들과 박격포병들이 침묵에 잠긴 릉선을 둘러보려고 목을 길게 빼들었다. 자동차의 잔해들을 밀어버리느라고 지체하는 사이 뒤따라오던 차들이 몰키기 시작했다. 박격포병들,포탄차들 또 땅크,포탄차들… 마침내 신호탄이 올랐다.

《사격！》

구령소리와 함께 중탄 한발이 《텅！》 하고 날아갔다. 거만

스레 휘두르던 포신이 멎고 불길이 확 달리는것이 보였다.

《명중입니다. 중대장동지!》

《잘 쐈소. 이번엔 포탄차!… 뭘 꾸물거리오?》

《가만, 그거야 경탄으루 갈겨야지요.》

도로에서는 벌써 악을 쓰는 웨침소리들로 악마구리 끓듯하였다. 반땅크총의 첫사격과 함께 일제사격이 퍼부어지자 홀연 대기는 날카로운 쇠소리들로 차버렸다. 어느새 포탄차도 공중 날아올랐다.

《피하오!》 류성우는 반땅크총사수에게 웨쳤다. 적보병들이 산개하여 둔덕에 올려붙는것이였다. 비발처럼 총탄이 날아다녔다. 그러나 나무그루에 몸을 딱 붙인 반땅크총사수는 또 한방 갈기고나서야 허리를 폈다.

《중대장동지, 저것들은 다 어떡합니까?》

《그걸 제낄 사람들은 또 있소.》

《알았습니다. 부사수, 날 따랏!》

그들이 둔덕에서 철수하자 대기를 찢어발기는 쇠소리들이 경사면을 따라 올라왔다. 어느덧 도로기슭에 전개한 적의 박격포병들도 극성스럽게 포탄을 쏘아대기 시작하였다. 이때 류성우는 발버둥치는듯한 박격포탄의 파렬음들속에서 문득 어마어마한 발동기들의 동음소리를 분간해들었다. 첫 한순간에는 그것이 무슨 영문인지 미처 알수 없었으나 다음순간 반사적으로 머리를 뒤로 젖히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수십대에 달하는 폭격기들이였다. 요란한 폭음이 대기를 짓눌러 고막을 터뜨릴듯했다. 초연에 덮인 상공에서 섬광이 번쩍거리자 로케트탄들이 쏟아졌고 뒤따라 가슴을 섬찍하게 하는 새까만 반점들이 줄지어 내렸다.

(폭격이다!)

앙칼진 쇠소리와 기관포의 둔탁한 떨림소리가 울리는속에 성우는 몸서리쳤다. 전혀 예기치못한 정황이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철수?!… 철수한다면 어데로 물러선단말인가? 진지를 버리고 적의 수송차대렬을 눈앞에 두고 물러선다고?!…)

비행하는 포탄의 새된 소리, 파편의 흐느낌소리, 땅을 뒤집어엎는 폭발의 거센 진동… 세상에 알려진 온갖 비명과 발작적인 울부짖음소리들이 거품처럼 끓어번지는 불도가니속에서 부딪치고

튕겨나오고 휘말려 돌아갔다.
철수, 철수?!… 맹렬한 두 감정이 류성우의 마음속에서 뒤엉켜 돌아갔다. 죽어도 고수하느냐, 일단 철수하느냐?… 놈들은 아직 수송차대렬을 전진시킬 여유가 없다. 폭격이 끝날 때 또 한바탕 족쳐대면 되지 않는가?…
모든것이 불길과 재구름 속에 파묻혀버리기 시작했다. 미친듯 뒤번지고 태질하는속에서 전중대가 전멸할수 있다! 성우는 뿌리채 뒤번져지는 나무들사이로 뛰여가며 목청껏 부르짖었다.
《철수하시오. 산뒤로 철수하오!》
그러나 지동치는 폭음속에서 그것은 거의 부질없는 일이였다. 중둥무이로 부러져나간 나무그루들이 튕겨나고 화염은 기관차의 증기발처럼 몰아쳤다. 홈타기와 허리부러진 나무그루아래에 혹은 바위뒤에서 흙을 뒤집어쓰고 엎드린 전사들의 어깨를 사정없이 쥐여당기며 그는 팔을 뻗쳐 산뒤쪽을 가리켰다. 그 험상궂은 모습과 팔을 내뻗치는 격렬한 동작으로 중대장의 의도를, 아니 그의 명령을 알아챈 소대장들과 하사관들이 자기 대원들을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무엇인지 상처를 입었던 왼쪽 어깨죽지를 호되게 후려치는통에 류성우는 그만 풀썩 주저앉았다. 초연이 코구멍에 쓸어들며 역한 느낌으로 골수를 휘저어놓았다. 그 순간 보총의 격발기를 당기고있는 김만복을 보았다. 류성우는 그의 어깨를 와락 당기며 소리쳤다.
《뭣하오?》
《?…》
김만복은 주름투성이 얼굴을 잔뜩 찌프리고 류성우를 돌아보았다. 그는 이 폭격속에서 자칫하면 산산쪼각이 나서 흙더미와 같이 날려버릴수도 있다는것은 애당초 생각지 않는듯했다. 무엇인가 목표를 제대로 가늠할수 없게 하고 총을 면바로 쏠수 없게 하는 이 소용돌이와 발버둥치고 아우성치는 이 혼잡에 짜증을 내는듯하였다. 류성우는 그의 귀구멍에 대고 소리쳤다.
《왜 철수하지 않소. 명령을 못들었소?》
《철—수—요?》
류성우는 그의 입놀림으로 이렇게 되묻는것을 알아보았다.
《빨리 피하오. 젠장! 산뒤쪽으로 빨리!…》
범골밀영에서 마음다진대로 한다면 이 아바이전사에게 소리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그는 저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었다. 《굼벵이같이 젠장!》 하고 욕설을 퍼부었으면 속이 시원할것 같았다. 《어쩌자구 멍하니 있소? 어째서 제때에 명령을 듣지 못하오? 또 접때처럼 속을 바질바질 태울 작정이요?》… 허나 류성우는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격정을 흙모래와 함께 씹어뱉으며 김만복의 잔등을 와락 떠밀었다. 《빨리 가시오. 빨리!…》

사실상 그는 자기의 격노한 감정이 어느 아바이전사의 멍청한 행동때문이 아니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분노!… 이번 전투는 왜 첫시작부터 이처럼 피를 끓게 하고 머리칼이 아파날 정도로 치를 떨게 하는것인가!… 명치끝을 아프게 쥐여박는듯 숨막히는 분노!… 그것은 가혹한 폭격의 후과때문이였다. 그는 벌써 폭발의 검붉은 기둥과 함께 사라졌거나 형체를 알아볼수 없이 된 전사들을 여러차례 보았던것이다.

《중대장동지!—》

누군가 정신없이 뛰여다니고있었다. 련락병 배다운이였다. 아마도 련락병이 된 이후 처음으로 자기의 지휘관을 놓쳐버렸을 이 전사는 류성우가 달려가 솔개미처럼 덮칠 때까지 그리고 산너머로 끌고갈 때까지 제정신이 아닌것 같았다.

다행히 산너머에는 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대신 박격포탄들이 굶주린 승냥이떼처럼 짖어대고있었다. 놈들은 폭격과 포격의 위력으로 상대를 정신차리지 못하게 하는 한편 영영 파묻어버릴 심산이였다. 산마루에서 폭탄이 터질 때면 산이 통채로 무너지는듯 사태가 밀려내리고 뒤미처 와르르 굴러내리는 돌멩이들우로 재개비가 휩쓸군했다. 땅의 진동으로 온몸이 경련을 일으킨듯 후두두 떨리며 내장을 벌컥 뒤집어놓는것이였다. 대기는 암갈색의 구름속에 잠기고 그속에서 섬광들이 번쩍거리며 무엇인가 갈기갈기 찢어 발가놓는 아츠러운 쇠소리들과 위력을 다투었다.

아, 저 폭탄 하나하나를 수류탄처럼 던질수만 있다면 그것을 메고다니는 고생쯤은 달게 받으련만!…

《련락병, 정신차려!》

《중대장동지, 이젠… 됐습니다!》

《그래, 그래… 이젠 됐어. 이젠… 한바탕 복수를 해야지. …》

문득 성우는 싸늘한 충격에 흠칫 놀랐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

는가, 누가 나에게 중대를 철수시킬 권리를 주었는가?… 전선으로 가는놈들의 수송대를 코앞에 두고 철수하다니… 놈들의 명줄을 끊어야 할 내가 잠시나마 물러서다니?… 허나 그것은 순간의 일이였다. 그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한시바삐 중대를 폭격에서 건져내고 다시 전투에 준비시켜야 한다는것을 깨달았다.

《련락병!》 그는 웨쳤다. 《중기분대장에게 뛰여가오. 폭격이 멎으면 먼저 진지를 차지할것!》

련락병이 명령을 복창하고 달려가자 그도 홈타기에서 달려나왔다. 그리고 폭발의 불길속을 달리며 웨쳤다.

《3분대요?… 분대장, 대원들을 점검하오!》

산너머에서 제때에 철수하지 못한 전사라도 있을가봐 그는 조바심쳤다. 그리고 놈들의 집중적인 폭격과 포격으로 중대가 순간이나마 정신이 흐려있을가봐 두려웠다. 전투에서는 단 한순간이라도 심리적인 타격을 견디지 못하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빚어내는것이다.

《2소대장동무요? 뭐라구?… 어데 있소?》

류황이 타는 냄새가 쓸어들고 공기의 세찬 진동으로 귀가 멍해졌다. 성우는 눈앞에서 번쩍이던 섬광과 태질하듯 구겨박히던 기억이 났다. 무엇때문인지 알수 없으나 눈앞이 뿌예졌고 참을수 없이 가슴이 답답해났다. 커다란 바위에 짓눌린듯한 압박감, 먼 하늘가에서 가까스로 날아온듯한 석쉼한 목소리…

《중대장동무!》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움씰하자 그는 자기 몸을 덮고있던 전사가 허리를 펴는것을 보았다. 그는 김만복이였다. 폭발의 섬광과 함께 언제 어느새 그가 자기를 덮고 넘어졌는지 아무리해도 알수 없었다.

《다친데는 없습니까?》

그는 류성우의 어깨를 잡아일으켜주었다.

《원 중대장동무두.》 김만복은 중얼거렸다. 아니 사실은 웨쳐대고있었다. 《그러다 또 상하문 어쩔랴구 그럽니까. 여기 어디 중대장동무뿐인가요?》

《무슨 소리요, 아바이?》

《중대장동문 한가지만 알구 다른건 모르우다. 중대장동무가 상하문 온 중대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너무도 의외의 일이여서 류성우는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주름투성이 그의 얼굴에 그을음과 재티가 덮여있었다. 그러나 보다 놀라운것은 중대의 마지막 보총수나 다름없는 이 아바이전사가 중대장에게 화를 내고있는것이였다. 그리고 그 마디마디에 지극한 사랑과 진정한 념려가 너무도 절절히 울리는것이여서 류성우는 숨을 죽이기까지 했다.

《제발 부탁이우다, 중대장동무.》 김만복은 눈을 슴벅거리며 부르짖었다. 《너무 몸을 내대지 마시우다. 중대장동문 구령만 치우다. 우리 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귀청을 째는 앵—소리가 날아온것은 그 순간의 일이였다. 폭발과 함께 채찍으로 후려치는듯한 쇠소리들이 신경을 쥐여뜯고 온갖 돌멩이며 쇠붙이들로 범벅이 된 흙의 무더기비가 쏟아져내렸다.

《아바이!》

두사람은 얼결에 서로 꽉 그러안고있었다. 그 순간 류성우는 자기가 전사들속에 또 한걸음 깊이 들어섰다는것을, 그리하여 더욱 튼튼히 어깨겯고있게 되였다는것을 깨달았다.

이번엔 류성우가 아바이전사를 일으켜주었다.

《아바이, 조심하시오.》

《원, 내같은기야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까운 사람들때메 속이 쓰립지요.》

암갈색의 장막이 걷히고 그에 뒤따라 하늘중천에까지 솟구쳐 올랐던 흙과 돌모래의 비말들이 서서히 갈앉기 시작하자 류성우는 소대별로 인원을 점검하고 전투태세를 속히 갖추라고 명령했다.

어느 한 바위곁에서 류성우는 등어리가 구부정한 김만복을 다시 보았다.

《어데 상했나?》 하고 그는 흙에 묻힌 전사에게 물었다. 《왜 그러구있나? 빨리 일어나게!》

《힘을 쓸수가 있어야지요. 아바이, 다리가 없어진것 같은데… 좀 보라요!》

김만복은 그의 어깨를 당겨주었다.

《다리가 없긴?! 성성한 그대로일세.》

비록 김만복은 굼뜨고 기민하지 못했지만 그는 성실한 전사였다. 지난날 로동에서 근면했듯이 전쟁이라는 준엄하고 가혹한 싸움

에서 그는 꾸준하고 성실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이러한 생각이 한번도 떠오르지 않았을가? 류성우는 가슴을 조이며 이렇게 생각했다. 어째서 나는 굼뜨게 움직이고 멍청하니 있는 아바이전사만을 보았을가? 그의 꾸준하고 성실함은 왜 보이지 않았을가?…
애당초 류성우는 그와 같은 전사들을 믿으려 하지 않았었다. 선발된 전사, 눈에 띄게 특출한 전사! 그가 바란것은 이러했다. 김만복아바이와 같은 전사들이 지켜주고 받들어주고있어 세상에 소문난 영웅도 자기같은 중대장도 있다는데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것이였다.
그는 마음이 후더워졌다. 그윽한 감동의 눈빛으로 아바이전사를 바라보았다. …
비행대가 사라지자 한결 숨쉬기가 편해졌다. 아직 박격포탄들이 무질서하게 여기저기서 터지군하였지만 중대는 재빨리 전투준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인원들을 점검하고 기관총들은 철수하기 이전의 좌지들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황히세는 다른 소대장들이 인원점검을 다 끝내고 보고할 때까지도 아직 대원들의 이름을 큰소리로 불러가며 이따금 격한 웨침소리도 지르군했다. 그는 소대의 인원손실로 하여 극도로 흥분하고있었다. 총 한방 쏘아보지 못한채 쓰러진 전사들을 볼 때 치밀어오르는 쓰라린 아픔과 분노는 갑절 더 큰것이다. 더우기 황히세는 끌끌하던 2분대장과 또 용감한 싸움군들인 4명의 전사들을 폭격에 잃은것이였다.
어느 한 바위곁에서 류성우는 눈을 감고 잠든듯 앉아있는 반땅크총사수와 앞에 서있는 부사수를 보았다. 류성우를 보자 부사수는 팔소매로 눈굽을 씻었다. 용감한 반땅크총사수도 희생된것이였다. 희생자들이 많았다. 류성우자신이 어느 한 나무등걸밑에서 배를 움켜쥔 3소대 부분대장을 끌어내기도 했다.
《중대장동지.》 그는 애원하듯 속삭였다. 《난… 중상입니다. 이대로… 가만있게 해주십시오.》
류성우는 그가 배를 움켜쥔 손을 놓는 때면 모든것이 끝장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이럴 때 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가질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 심대한 고통을 지켜보기란 가슴 찢기는 노릇이였다. 류성우가 위생병을 소리쳐부르자 그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분하군요, 중대장동지.》

《걱정 마오. 이제 다… 잘될거요.》
류성우의 팔에 기댄 그의 온몸에 경련이 일었다.
《내몫까지… 동무들！…》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위생병이 달려와 그의 군복앞섶을 북북 찢을 때 류성우는 그것을 막았다.
《다치지 마오！》
그는 언젠가 문기가 남긴 말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자기의 전우들에게 꼭같은 부탁을 남겼다. …
류성우는 입술을 악물고 달려갔다.
《안된다. 여기로는 통과하지 못한다. 우리가 있는 한 절대로 안될것이다！…》
보병들이 산에 붙자 다시금 박격포들이 짖어대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쏟아져내리는 앙칼진 음향에 피뜩 눈길을 옮기던 류성우는 가까이 달려오는 련대장을 보았다. 그 뒤를 대대상급부관과 련락병이 따르고있었다.
《잘했소.》 련대장은 성우의 어깨를 누르며 묵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아주 제때에 철수했소. 전술적인 퇴각은 공격이나 같소.》
비로소 성우는 자기의 어깨죽지뼈가 몹시 쑤신다는것을 깨달았고 동시에 지금까지 귀를 먹먹하게 하던 온갖 소음들이 사라져버린듯이 느껴졌다.
《문제는…》 련대장이 계속했다. 《어떤 수단을 다해서라도 놈들의 전선수송을 파탄시키는데 있소. 한놈도 통과시켜선 안되오. 그러자면 끝까지 력량을 보존하면서 계속 타격해야 하오.》
무슨 말인가 한마디 더했으나 그것은 포탄의 파렬음속에 휘말려 들어갔다.
《련대장동지, 위험합니다.》
《아니 괜찮소. 위험한건 내나 동무가 아니라 저놈들을 통과시킬 경우에 전선에서의 진격이 어렵게 되는거요.》
련대장은 경사면에 붙은 적들을 쏘아보면서 계속했다.
《적보병들을 도로에서 멀찍이 달고가야겠소. 중대장동무, 전투를 하면서 퇴각하란말이요. 대대는 그 틈을 타서 수송대를 공격할것이요.》
별안간 아주 낮은 목소리로 성우는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놈들이 돌아서지 못하게 해야 되오. 돌아서면 쫓아가 치고 쫓아오면 퇴각하시오. 전투의 승패는 저 수백대의 수송차들과 보병을 떼여놓는데 달려있소.》

순간 류성우는 이것이 바로 항일유격대식으로 싸우는것이구나 하고 경탄에 잠겨 생각하였다.

《련대장동지, 도로옆에 방성화의 매복조가 있습니다.》

련대장은 그에 대한 보고도 받은 모양이였다. 머리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물었다.

《누가 책임졌소?》

《옛, 1소대 1분대장 방성화동무입니다. 용감한 분대장입니다.》

《방성화! …》 누군가의 얼굴을 기억해보며 련대장은 실눈을 지었다. 《용감한 분대장이란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을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덧붙였다. 《매복조는 전원 그의 분대원들로 구성되여있습니다!》

《잘했소!》

련대장은 이렇게 거침없이 말했는데 그 어조에서 류성우는 자기의 상관이 매복조의 구성에 대해서만 치하한것이 아니라는것을 깨달았다. 이 순간 련대장은 자기가 아끼는 한 지휘관의 성장을 못내 기뻐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가 무엇보다 만족스럽게 생각한것이 있다면 그것은 류성우의 자기 대원들에 대한 믿음, 뚜렷한 확신을 보았기때문일것이다.

련대장은 중대에 배속되였던 반땅크총을 7중대에 보낼것을 명령했다.

류성우는 반땅크총부사수를 불러 임무를 주었다. 서로 눈길이 마주친 그 순간에 두사람은 희생된 전우들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

8

매복조는 5명이였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흘러갔다. 깊숙한 홈타기의 안벽을 파내고 허리를 잔뜩 굽히고있는데다 머리우에 들씌운 덤불과 잡관목으로 하여 성가시기가 그지없었다.

중대오락회책임자인 김명국은 인류의 초창기에 이런 땅굴집들이 흔했을것인즉 지금 자기들이야말로 백만년의 력사를 거슬러올라가 최초의 인류가 얼마나 불편스레 살았는가를 직접 겪어보는셈이라고 그닥 자신없이 말했다.

처음엔 방성화의 요구대로 《군말을 삼가》하려고 애썼으나 어지간히 오랜 시간을 맹랑하게 말없이 틀어박혀있다는것은 참을수없이 고달픈 노릇이였다. 그리하여 방성화는 약간정도의 《군말》은 허가한다고 했다.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갔으나 무엇보다 몸이 얼고 초조했던 그들은 줄곧 텅빈 도로에서 그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눈이 아플 지경으로 쏘아보군하였다.

한가지 우연한 일이 화제를 만들어주었다. 그것은 도로우에 적들이 나타나기전의 일이였다. 머리우의 잡관목가지에 주먹만한 새 한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짧은 꼬리를 달싹거리며 노란 주둥이로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열심히 쫏다가도 맞은편 덩굴에 앉아있을 짝패를 향해 저네들의 숨넘어가는 언어로 짹짹짹짹 승강이질도 하였다.

모두 숨을 죽이고 그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아득히 흘러가버린 소년시절을 상기시켰다. 벼짚오리에 주런이 메뚜기를 꿰여들고서 논두렁을 뛰여다닐 때 머리우에서는 시샘이 난 새들이 안타깝게 우짖으며 날치군했었지.… 방성화는 베잠뱅이 소년시절을 더듬어보았다. 그때 김명국이 그의 팔소매를 건드렸다.

《저게 지금 말을 할가요 아니면 노래를 할가요?》

이것은 그가 좋아하는 화제였다. 노래에 대한 말만 꺼내면 종일이라도 계속할수 있었다.

《노래하는것 같애요.》 하고 명국은 또 시작했다. 《참 노래란 얼마나 좋은가요. 공기나 물처럼 어데서나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싸움에선 탄알처럼 필요하구요. 공병들에겐 지뢰처럼, 정찰병들에겐 단도처럼…》

《가만 가만.》 하고 방성화가 밀막았다. 《도대체 노랠 하나 시를 읊나?》

방성화는 갑자기 포르릉 하고 날아가버린 새를 아쉽게 생각하면서 혀를 찼다.

《괜한 소릴 지껄여서 날려버렸군.》
《예?》
《명국이, 그런 말은 나도 할수 있어. 들어보겠나?… 우리 정치부중대장에겐 안경처럼 그리구 나한텐 수류탄처럼.》
여러 전사들이 키득키득 웃어대자 방성화는 엄하게 침을 놓았다.
《이젠 됐어. 그만하자구.》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 얼어드는 팔다리를 서로 주물러댔다. 그러나 또다시 김명국은 말을 꺼냈다.
《우리 중대장동지가 바이올린을 기막히게 켠다는 말 들었어요?》
《바요링을 켜다니, 그게 무슨 톱이란말인가? 탄다구 하겠지.》
《아니 바이올린은 활로 긋는것이기때문에 켠다고 해요. 그래 그런 말 들은적이 있는가요?》
함북도에서 입대하여 서울까지 오는데 꼭 열흘이 걸리더라고 곧잘 우기던것처럼 명국은 끈덕진데가 있었다.
못들었다면 이제 중대한 얘길 끄집어낼 잡도리인가? 그래야 바요링을 잘 타서 소문을 낸적이 있다는 그런 뜬소리일테지… 하고 방성화는 시들히 생각했다. 그는 좀체로 큰길쪽에서 눈을 뗄수가 없는것이였다.
《정치부중대장동지가 말해주더군요.》
명국은 몸을 떨면서도 계속했다.
《나도 한번 봤는데… 참 우리가 훈련하고 쉴 때 노래를 한적이 있지요? 그때 중대장동지가 바위돌에 대고 이 손가락들을 훑는데말입니다.》
명국은 실지 동작으로 보여주려 했으나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 방성화의 널직한 잔등을 손가락으로 날래게 두드렸다.
《난 이런 습관이 어데서 생기는지 압니다.》
방성화는 이상스럽게 그를 돌아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대대에까지 소문난 이 오락회책임자가 무슨 연고로 음악에 정열을 쏟게 됐는지 놀라와했을뿐이다. 음악이라면 노래를 생각하는 방성화로서 볼 때 명국은 유감스럽게도 완전한 쐑소리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어째선지 군대에 나와 첫 전투에 참가한 다음부터 목소리가 탁성으로 변했다 한다. 그래서 오락회때에도 자기가

노래하는것만은 한사코 사양했는데 그것은 한때 사람들을 놀래우던 기억이 생생한 그로서 지금의 자기 목청을 참고견디기 어려운때문인듯하였다.

《그런데 손가락만 보고서 어떻게 알아? 잔치집에선 누구나 다 상을 두드려대두만.》

《물어봤지요. 〈중대장동지, 몇해나 악기를 켜봤습니까?〉 했더니 아주 당황해서 손가락장단을 뚝 그치더니 〈동무, 그런건 왜 물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야 중대오락회책임자 아닌가, 그리고 후날에도 음악을 전공할 생각이라고 했더니 그제야 마음이 풀렸는지 〈하긴 음악이란 아주 좋은거야. 지금도 가끔 바이올린을 켜보고싶은 때가 있거던.〉 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대장동지가 한쪽 어깨를…》

잠시 말을 끊고 무슨 생각에 잠겨있더니 가벼운 한숨을 내쉬였다.

《그때 날더러 이런 말도 하더군요. 정찰소대에 무섭게 생긴 사람이 하나 있는데 분대장동지와 비슷하다나요. 헌데 그 사람이 정찰병에겐 음악이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기때문에 필요없다구 말한다면서…》

방성화는 명국의 코앞으로 주먹을 내밀었다.

《다시 말해보라구. 그래 내가 그런 엉터리하구 같단말이야? 내가 언제 음악이 필요없다구 했어. 정신을 녹인다구말이야, 응?》

《가만, 이거 왜 이래요?》

김명국은 방성화의 주먹을 공손히 밀어놓았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중대장동지가 그랬다고 했지…》

방성화는 쓰겁게 입맛을 다셨다. 바로 그때 먼곳에서 우르릉 소리가 들려왔다.

《놈들입니다!》

명국은 낮게 부르짖었다. 방성화는 벌써 도로에서 말아올리는 먼지구름을 보고있었다.

《전투준비!》

그러나 방성화는 아직 기습에 나서려면 기나긴 시간을 참고견디여야 한다는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이때부터 기습조는 말한마디 없이 오직 습격신호만을 기다리며 고통스러운 분과 초

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비행대의 폭격, 고지에서 드물게 울리는 총성, 눈앞에서 돌아치는 적들…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습신호는 오래도록 내려지지 않았다. 혹시 매복조에 대해서 다들 잊지 않았는가 생각될 지경이였다.
특히 고통스러워한것은 방성화였다. 눈앞에서 돌아치는놈들을 빤히 보고만 있으려니 더욱더 참기 어려웠다. 축구장에서도 남이 차는걸 보기 바쁜데 싸움판에서 구경만 하고있을적에야 말해 무엇하랴!…
적들은 산병선을 지어 고지로 기여오르고있었다. 산밑 경사지에 바싹 붙여 세워놓은 박격포들에서는 재채기를 하듯 연방 연기가 솟구쳐올랐다. 게다가 《홱!》 《홱!—》 하는 소리들이 대기를 찢으며 날카롭게 울렸다. 흑인고용병들이 손가락을 입에 넣고 자동총은 배허벅에 걸고서 허리도 굽히지 않고 달려가고있는것이였다. 무지와 몽매와 노예적순종의 멍에에서 헤여나지 못한 이 고용병들의 무모한 발악에는 이가 갈렸다. 마치 돌멩이를 깨물어 바수기라도 하듯이 부득부득 이발을 갈고있는 방성화의 피발이 선 두 눈을 보고 명국은 저도 모르게 총가목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매복조에 기습신호가 전해지기까지엔 옹근 한세기가 지나간듯했다.
마침내 기다리던 때는 왔다. 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을 위하여 그들은 총 한방 쏘지 않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여왔던것이다.
방성화는 저려들다 못해 거의 마비되다싶이 한 팔을 놀려 우두우두 뼈마디소리를 내였다. 대원들에게 무릎을 펴고 서로 주물게 하였다. 남의것이나 다름없이 되였던 다리관절들을 마음대로 움직일수 있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방성화는 조심성도 잊고 마치 중대나 대대의 진지를 굽어보는 지휘관처럼 큰소리로 구령을 쳤다.
《돌격준비!》
그가 제일 좋아하는 구령이다.
화선에서 이 구령을 웨칠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한마디 짧은 구령이 판가리싸움을 앞두고 총탄처럼 가슴에 장탄될것을 원한다. 평범하고 단순하면서도 비상한 힘으로 심정을 울려주는 이

구령, 그것은 죽을지언정 승리를 향해 과감하게 뚫고가려는 용사다운 갈망이며 각오이기도 하다.

《돌격준비!》

방성화는 다시한번 웨쳤다.

《홈타기를 타고 1분내로 도로까지 뛰여갈것. 목표는 먼저 적의 륜전기재들이요. 상필동무, 장갑차의 고사기관총을 뺏을것. 하나두 상하지 않게 닭알 굴리듯해야 돼!》

《알았습니다!》

《명국이, 차를 몰줄 알지?》

《예?…》

《괜찮아. 그런 정도면 돼. 아무거나 올라타구 막 밀어던지라구. 알겠소?》

몇달전 폭격에 무너진 작은 학교를 새로 세워주던 때였다. 명국은 후방부의 자동차가 멎어있는것을 보자 누를길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슬그머니 올라앉은 일이 있었다.

몇번 눈에 익혀둔것이 있어서 스위치열쇠를 돌리고 쎄루를 밟고 꺅꺅… 말을 듣지 않는 변속을 강다짐으로 밀어넣었는데 그만 자동차는 몸체를 떨면서 후닥닥 앞으로 나갔다. 그렇듯 넓은 운동장이였건만 자동차운전칸안에서는 그 유리창 크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어쩔 사이 없이 롱구대를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제동기를 밟는다는것이 가속답판을 힘껏 밟아버려서 중대가 대단한 공수를 들여 복구한 교사의 벽체를 들이받았다. 그안에서 한참 흙매질을 하던 방성화가 머리를 싸쥐고 뛰쳐나왔고 나오자바람으로 무섭게 성을 내며 팔을 내둘렀다.

고무바께쯔에 물을 담고 오던 운전사는 달려오던 길에 반반한 운동장 한복판에서 무엇에 걸렸는지 꼬꾸라졌다.

그날 좋은 식사를 차려놓았건만 운전사는 마사진 전조등이며 쭈그러진 라지에타때문에 종시 입맛을 돋구지 못한채 가버렸다. 그런 정도의 운전술도 기억해둔 보람이 있어 방성화는 기습전투에 써먹으려는것이였다.

《신속하게 행동할것. 대상물을 파괴하고 차후임무는 적 박격포병들을 소멸할것. 수류탄을 잘 써먹으라구. 과업을 알만하오?》

이 마지막 말은 련대와 중대의 두 지휘관을 본딴것이였다.

머리우의 검불이며 잡관목들을 조심히 밀어던졌다. 도로의 적들은 자기네 보병을 지원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앞으롯！ㅡ》

기습조는 물홈을 따라 맹렬한 기세로 달려나갔다. 한순간！… 도로의 적들이 그들을 쳐다보았다. 아니, 그저 무심히 고개를 돌렸을뿐인듯하였다. 적들은 다시금 제일에 매달렸다.

그러나 몇놈의 적들이 다시 고개를 돌렸다. 아마 불안한 예감이 그렇게 주의해 보도록 꼬드겼는지도 모른다.

이건 또 뭐야？… 그 한순간, 고지에 포사격을 하던놈들도 불시에 고개를 빼들었다. 아뿔싸！ 적들은 눈알이 뒤집혀졌다.

《공산군이다！ㅡ》

웨침소리는 기관단총의 련발사격에 묻혀버렸다. 벌써 사나운 증오에 충만된 인민군전사들의 이글거리는 눈이 확대되여 달려들었다. 육중한 무한궤도가 사슬을 풀어헤치고 열바퀴차가 허궁 들려서는 마치 머리를 고이고 자고싶은듯 도랑채기에 구겨박히는것이였다.

방성화는 장갑차에로 뛰여갔다. 모두들 한가지씩 목표를 뒤집었다. 벌써 김상필이 고사기관총을 그러안고 죽어넘어진 미군병정을 발길로 차던지는것이 보였다.

뛰여가는 길에 방성화는 차바퀴밑에서 권총을 내민 미군장교놈의 손목을 걷어찼다. 높다란 차바퀴가 움씰움씰하고 배기가스가 까맣게 쓸어나오는것으로 보아 김명국이 자기의 들이받기솜씨를 자랑하는것이 분명했다. 차가 후닥닥 앞으로 나가자 그밑에서 몸서리치는 비명소리가 순시에 멀어져갔다.

《잘해, 명국이 잘해！》

명국은 앞의 차들을 힘껏 들이받아 밀어냈다. 산산이 짓뭉개지는 쇠붙이소리며 멱따는듯한 비명소리들이 한데 어우러졌다. 방성화중사가 수류탄을 뿌린다.

수류탄이 터지는 그쪽에선 박격포병들이 숨을데를 찾아 허겁지겁 달려온다. 그까짓 마사진대서 아까울것 없는 자동차！…

명국은 마치 제 어깨힘으로 밀어내듯 안깐힘을 쓴다.

(분대장동무가 아주 묘한 생각을 했거던. 언제는 발을 구르며 무섭게 성을 내더니 오늘은 그쯤한 기술도 쓸모가 있다？… 그래 분대장동무, 내 운전기술이 얼마나 늘었나 좀 보라구요.)

머리우의 운전칸지붕에서 갑자기 우당탕탕탕하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도로앞뒤로 밀고다니는 명국의 차를 리용할 생각으로 경기관총을 올려놓고 쏘아대는것이다.
명국은 흐뭇했다. 이 세상 그 어느 운전사도 이처럼 마음놓고 힘자라는껏 가속답판을 밟아대지는 못할것이다. 불도젤을 대신하는 열바퀴자동차!… 하고 그는 줄곧 미소를 띠였다.
순간 유리창이 짱! 하며 명국은 고개를 푹 떨구었다. 머리우에서는 기관총의 발통이 천정을 구르고 굴러내린 탄피들이 깨여진 시창으로 떨어졌다. 호기롭게 울리는 기관총소리는 그 어떤 가락맞는 장단처럼 률동적으로 울리고있었다. 눈앞에 갖가지 색조로 물들은 불꽃들이 흩어져내리고 검붉은 연기가 그의 머리속에 쓸어드는듯하였다. 기관총소리, 기관총소리… 뚝 그쳤다.
《명국이!》
누가 부르는가. 정말 나를 부른 소리인가?
《명국이!—》
어서 쏠게지, 어서… 기관총을 쏠게지 난 왜 부르는가? 그 소리, 총소리가 어서 울렸으면… 정말이지 이렇게 훌륭한 음악이 어데있을가. 총소리, 기관소리, 만세소리, 폭음!… 장엄한 음악이야 이건!… 내 이제 꼭 이걸 악보에 적어서 중대장동지한테 보일테야.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라지, 중대장동진 꼭 다시금 바이올린을 켤수 있어. 중대장동지도 들어있는 그런 관현악단으로 연주하면 얼마나 좋을가. 방성화분대장도 그 음악을 듣고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전우들이 생각나고 총포탄이 벼락치던 싸움터가 생각날것이니…
그런데 왜 이리 조용할가, 왜 이리 조용하고 숨막힐가?… 아, 어서 총소리가 울렸으면… 어서!…

9

끈덕진 퇴각과 공격이 계속되였다. 류성우는 어느덧 두개의 릉선을 내여주며 퇴각했다. 놈들이 멎어서면 맞받아나갔고 악에 받

친 적들이 공격서렬을 편성하여 달려들면 또 물러섰다. 한번은 지내 추격에 열중한 적들과 한데 범벅이 되여 창격전을 벌리기까지 하였다. 작달막하나 박격포신처럼 단단한 3소대장의 총창이 부러지고 중기1분대장이 수류탄에 명중된것은 바로 그때였다.

중기사수 김상도의 한쪽 입귀에는 언제 불이 꺼졌는지 알수 없는 담배꽁다리가 풀피리처럼 비스듬히 물려있었다. 그는 두눈을 부릅뜬채 숨져있었다. 그가 죽은것을 알자 부사수인 오리준하사는 수류탄을 뿌린 적병에게 달려들어 함께 딩굴었다. 비탈에서 굴러내리며 필사적으로 살몀을 조여대고있는 그앞에 권총을 빼든 적장교놈이 나타났다. 권총을 겨누고 금시 방아쇠를 당기려던 그놈은 허리를 꺾으며 비틀거렸다. 두방의 총성이 동시에 울렸는데 하나는 류성우의 총구에서, 다른 하나는 황히세가 쏜것이였다. 황히세는 그달음으로 오리준과 딩구는 적병의 골통을 사정없이 걷어찼는데 그러자 적병은 비명소리도 없이 그대로 땅바닥에 코를 박고말았다.

숨을 쉴 때마다 매캐한 초연이 목구멍으로 쓸어들었다. 나무가지들이 중둥무이로 잘라져나가고 소총사격의 총성들이 불타는 관목숲에서 자지러지게 터졌다.

한손에 모자를 구겨쥔 오리준하사가 신음소리처럼 웨치며 나무사이를 뛰여돌고있었다.

《분대장동무! ―》

쓰러진 중기사수를 찾아헤매는것이였다.

《분대장동무! ―》

자지러진 총성과 수류탄의 폭발도 아랑곳 않고 헤매다가 중대장의 무섭게 성난 모습을 보자 손에 구겨쥔 모자를 막 비틀어 짰다. 그것은 참을길 없는 아픔과 그 무엇으로써도 표현할수 없는 끓어오르는 증오가 그의 마음을 그렇게 비틀어대는것 같았다.

《모자를 쓰오.》 성우는 거칠어진 목소리로 웨쳤다. 《자기 위치롯!》

《…》

허나 그의 위치가 어데 있는가? 중기를 잃은 그에게 이제는 변함없던 좌지도 없어졌다는 생각이 떠오르자 성우는 그의 어깨를 잡아돌려 미친듯 투닥거리고있는 적브로닝기관총을 가리켰다.

《단단히 봐두오. 중대가 돌격할 때 제껴야겠소. 절대 놓치지

마오.》
　마침내 악을 쓰는 고함소리와 함께 적들이 솔밭에 뛰여들자 수십정의 보총,기관단총들이 일시에 화약가스를 내뿜었다. 수류탄을 던지려던 적의 공격서렬이 밑둥 잘린 울바자처럼 넘어가자 중대는 돌격구령과 함께 무서운 함성을 지르며 솔밭에서 달려나갔다. 전사들의 해진 군화발들이 짓이겨진 락엽무지를 걷어찼다.
　그때 도로에서는 7중대와 9중대 전투원들이 1대대의 두 중대와 함께 무려 3키로에 늘어선 적수송대를 요정내고있었다.
　《유엔도로》는 죽음의 도로로 되였다.

　처절한 풍경이였다. 지금까지 살아 숨쉬고 미칠듯 짖어대던 모든것들이 시체로,파철로 딩굴었다. 100여대의 자동차들이 박산이 났고 불타고있었다. 굽이마다 벼랑이 통채로 무너져내렸다. 무너져내린 어느 돌바위무지우에서 성우는 땅크포신이 비죽이 내밀려있는것을 발견하였다. 헌데 놀라운것은 그 구멍속에서 누런 연기가 느물느물 쏟아져나오는것이였다. 대양건너에서 주조되여 《제한공세》의 위기를 막아보려고 굴러가던 그 강철아구리에서는 포탄이 아니라 단말마적인 고통이 서린 최후의 입김이 쏟아져나오는것이였다.
　《안된다！》 하고 성우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우리 제2전선부대 전사들이 있는 한 여기로는 통과할수 없다！》
　불현듯 그는 방성화의 가슴에 안겨있던 김명국,눈한번 깜박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던 중대오락회책임자의 모습을 생각하였다. 방금 있은 일이였다.
　《몹시 다쳤소？》
　성우가 물었으나 방성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성우는 그가 안고있는 전사의 창백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미소를 머금은듯 가느다란 주름이 패워진 입가 그리고 그의 두눈은 거침없이 또렷하게 성우를 올려다보고있었다. 그것은 처음 만났을 때 중대오락회책임자라는 자기의 직무를 은밀한 자랑을 담아 부르던 때의 눈빛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그때,《전사 김명국,중대오락회책임자입니다！》라고 웨쳤을 때 류성우는 전사의 마음속에 간직된 소중한 노래를 무시해버렸었다. 전중대가 사랑하는 오락회책임자에게 무안을 주었고 그의 아픈 마음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쓰라린 심정으로 성우는 그의 두눈을 들여다보았다. 사실상 그것은 이미 공허하게 굳어진것이였건만 왜서인지 류성우에게는 그 눈빛이 무엇인가 자꾸만 속삭이는것처럼 생각되였다.

《중대장동지, 분하겐 됐군요. 우리 중대 4성부대렬합창을 한번 보여주고싶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압니까? 저음의 절반은 정치부중대장동지가 맡고있지요. 그런데 이젠… 그만 이렇게…》

아래로 드리운채 굳어져버린 그의 팔을 거머쥐고 류성우는 마음속으로 절절히 부르짖었다.

《명국이, 나두 이젠… 그 노래를 듣구있어. 중대의 4성부대렬합창을… 듣구있어. 이제야 그 훌륭한 합창을 알게 됐지만… 걱정 말라구. 명국이, 중대의 합창은 계속될거요! …》

치밀어오르는 격정을 씹어삼키며 그는 전사의 두눈을 감겨주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와 결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명국동무, 노래는… 살아있소! 그 노래속에 동무도 살아있소! …》

그는 평범한 적후투쟁부대의 전사였다. 노래를 사랑했고 그만큼 꿈도 많았다. 그리고 그는 가장 아름답고 참된 노래, 병사의 노래란 무엇인지 잘 알고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비록 여기에 아무런 글발도 남기지 않았고 아무런 표말도 박지 않았지만 사슬을 풀어헤친 땅크며 100여대 자동차들의 잔해와 수다한 시체들로써 병사의 영예를 새겨놓았다. …

전장을 수색하던 병사들중에서 누군가 중대장을 소리쳐부르고있었다. 김만복이였다. 그는 쓰러진 적장교의 가죽가방에서 무슨 서류뭉치를 꺼내들고있었다.

《중대장동무, 이게 뭡니까?》

그것은 군용지도, 각종 명령서, 부동산 발매허가증, 유가증권따위들이였는데 마지막으로 성우는 그 무슨 《G－2(지－투)》계렬인원들과 《반유격대대》성원들에 대한 보호, 군수품공급에 대한 명령서를 보았다. 모든 명령서마다 《고문, 미합중국 대좌 엘든 스테이지》라고 한 수표와 독수리도장을 찍은것들이 특히 눈에 띄였다.

성우가 읽는것을 묵묵히 듣고있던 김만복이 사연많은 주름살들을 이마에 모으며 《음… 알만한놈이군. 한번 만나게 되겠지.》하고 중얼거렸다.

전장에서 속히 벗어나기 위하여 다들 서두르고있었다. 로획한 자동총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탄약상자를 둘러메고 달려갔다. 아직도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도로 한복판에서 무엇인지 찾고있는 병사들을 향해 하사관들이 성급하게 독촉하였다.

적들에게서 직접 탈취한 브로닝기관총을 어깨에 멘 오리준하사가 류성우앞에 나타났다. 탄띠까지 어깨에 걸치고있어 그는 마치도 《유격대행진곡》의 선률속에서 뛰여나온 북만원정대오의 기관총수처럼 보였다. 그는 말없이 충혈진 눈길로 중대장을 쳐다보기만 했다.

《좋소. 자기 위치롯!》

그는 피로써 자기 위치를 다시 찾았다. 제2전선부대의 전사는 어떤 경우든 자기 위치를 잃어서는 안되며 더우기 분쇄되여서는 안된다. 적후부대의 전사—그는 비록 홀로 남는다 할지라도 전선의 승리를 위한 한 지탱점으로 자기의 위치를 고수하여야 하는것이다.

보통키에 몸이 좀 여윌사한 오리준이,여느때엔 어리무던해보이고 좀체로 눈에 띄지 않던 그가 요란스러운 차림새로 그닥 서둘지 않고 뛰여가는것을 보자 성우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비록 오늘전투에서 유명한 중대오락회책임자와 침착한 명사수 중기분대장 등 여러 전사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대오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던것이다.

성우는 문건들을 접어쥐고 지휘관들이 서있는 산기슭으로 달려갔다. 포탄이 찍어넘긴 참나무그루옆에서 두필의 말고삐를 잡고있는 련대장련락병이 먼저 눈에 띄였다. 련대장은 그 뒤쪽에서 대대장과 마주서있었다. 얼핏 보건대 그의 얼굴에서는 아무런 표정도 분간할수 없었다. 그는 3대대장으로부터 실무적인 보고를 듣고있었다. 그 자신도 잘 아는 전투경과시간,파괴한 기술기재들,살상한 적의 수효,포로,희생자들… 그속에는 방성화기습조의 김명국의 장렬한 최후도 들어있었다. 가슴아픈 많은 보고들도 련대장은 굳어진 표정으로 묵묵히 듣고있었다.

그를 바라보면서 류성우는 자기가 무엇때문에 왔는지조차 모르는듯 우두커니 서있었다.

《무슨 일이요. 중대장동무?》

련대장이 이렇게 물어서야 그는 흠칫 놀라며 뒤늦게 차렷자세를 하고 보고했다. 그리고 손에 접어쥐였던 문건들을 넘겨주었다. 련대장이 문건들을 주의깊게 읽는동안 그는 전투의 열광이 식지 않

은 전투원들이 도로에 줄지어서는것을 보았다. 그의 가슴은 에이는 듯했다.

(저 대오엔 오늘도 많은 전사들이 자리를 비웠구나！…)

련대장이 다시 그에게 물었다.

《이게 어데서 났소？》

《죽어넘어진 적소령놈의 가방속에 있었습니다.》

《음— 좋은 자료요！》

련대장은 다시금 문건들을 훑어보고는 대대장을 향해 말했다.

《오늘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운 동무들에 대해서 훈장을 내신하시오！》

그리고는 급격히 몸을 돌려 무선수를 찾았다.

《련합부대에… 전투결과를 보고하시오. 〈유엔도로〉에서 적의 군수물자 수송을 완전히 파탄시켰음. 전과는…》

무선기의 주파수를 돌리는 예리한 금속성이 성우의 가슴을 찌르르하게 울려주었다. 그와 함께 전과를 알리는 수자들이 불려졌고 전건을 두드리는 소리가 흙벽에 쾅쾅 메아리쳤다.

《적보병 600여명 살상》, 《자동차 120여대 파괴소각》, 《저격탄 1만 4천발 로획》, 《포탄 2천 7백여발…》, 《땅크…》.

그렇다. 또다시 새로운 승리의 보고가 전파를 타고 저 험준한 태백산줄기를 날아넘어 군단으로, 최고사령부로 날아가는것이다.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보내주신 인사에 대한 충성의 대답이였다！…

련대장은 대대의 차후행동방향에 대하여 지시하고 련락병을 불러 말했다.

《동문 이제 련대군의소로 곧장 가시오. 거게 가면 정치공작대로 나왔던 녀성동무가 있소. 동무도 알던가？》

《알고있습니다. 진호와 산림학자를 데리고 온 신은하동물 저도 만났습니다.》

《그 동무를 급히 부르시오.》

류성우는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그대로 굳어져있었다. 그는 련대장련락병이 천생 타고난 재주처럼 절다말의 잔등에 납작 엎드려 비탈길을 질러 달려가는것을 바라보면서 또 대대장이 적들의 추격을 예견하여 대대를 각 중대별로 분산하여 신속히 기동시킬데 대하

여 지시하는것을 들으면서 꼼짝않고있었다.

은하!… 그가 이토록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은적 없다. 폭격의 불길속에서 지어 육박전을 벌리던 그때에조차 잊은것 같지 않았다. 잊을수 없는 그 눈동자, 그 미소를 그려보았고 그와의 상봉에 대한 가지가지의 꿈같은 상념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다.

경련과도 비슷한 감각, 심장을 스쳐지나는 짜릿한 기대… 은하, 우리는 이렇듯 가까이 있소. 이것을 동문 알기나 하오? 내가 이렇듯 동무와의 상봉을 간절히 바라고있는줄 알기나 하오?…

언젠가 격하기 잘하고 우쭐렁거리기도 잘하던 《후보선수》가 전투의 불길속에서 새로 달구고 두드리면서 달라지듯이 그 녀자 역시 몰라보게 됐을는지도 모른다. 얼마나 변했을가. 얼마나 고생했을가?…

《8중대는》 하는 말에 류성우는 흠칫하였다. 대대장이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있었다.

《래일아침까지 하동마을에 도착하여 차후지시를 기다리시오. 그러되 놈들의 정찰기들이 돌아치는만큼 어두울 때까지 산속에서 휴식하고 밤에 기동하오. 부대의 행방을 놈들이 알아내지 못하도록 특히 주의해야 하겠소.》

《알았습니다!》

적의 정찰기들이 날아와 나무우듬지들을 스칠듯 돌아치기 시작할 때 대대는 벌써 중대단위로 분산되여 각기 깊은 산속에 들어서고있었다.

씁쓸한 소나무의 향취를 마음껏 들이키며 류성우는 숲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10

새벽녘부터 눈이 퍼붓기 시작하였다. 령남지방에 나와 처음으로 맞게 되는 본격적인 함박눈이였다. 대렬속에서 누군가 컴컴한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의 사절들을 손으로 받아들며 중얼거렸다.

《함박눈이 내리면 풍년이 든다더니 올해도 고향에선 몹시

바쁘겠군…》

대오는 불현듯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류혈과 증오로 굳어졌던 그 가슴들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함박눈의 청신하고 다정한 속삭임으로 하여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부드러워지는듯했다.

굵다란 가지들을 사방에 뻗쳐 밤하늘을 묵묵히 떠받들고있던 나무우에도, 웅크린 짐승같은 바위우에도 그리고 전사들의 군모우에, 배낭우에, 총신강우에도 대자연의 거룩한 축복은 아낌없이 내려쌓이고있었다.

아마 이 대오속에 중대오락회책임자 명국이가 있다면… 하고 류성우는 불시에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을 느끼며 생각하였다.

그가 만약 이 대오속에 있다면 틀림없이 목을 길게 빼들고 중대장을 넘겨다볼것이며 어둠속에서 안타깝게 눈짓을 하고있을것이다.

《중대장동지, 시작하랍니까？》

비록 목적지까지 먼길을 은밀히 기동해야 하는 정황이지만 승리를 축복해주는 함박눈을 맞으며 노래 없이야 어떻게 걸어갈수 있으랴. 하여 성우는 서슴없이 허락할것이다.

《좋소, 선창을 떼오！》

그러면 곱지 못한 목소리일망정 명국은 목청을 돋구어 《태백산줄기에 눈내린다—시작！》 하고 부르짖을것이다. 그리고 그가 즐겨 자랑하는 4성부합창—중대전투력의 일단을 과시하는 우렁찬 노래를 들으며 《얼마나 좋습니까, 중대장동지.》 하고 속삭일것이다. 아마 이런날에는 대렬앞뒤를 노려보며 고음과 저음 성부가 잘 맞지 않는다고 눈을 흘기지 않아도 될것이며 지나치게 목청만 돋구는 황히세소대장때문에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좋을것이다.

김명국！… 마치 그가 대렬가운데 어데선가 쿵쿵 목청을 가다듬고있는듯하여 류성우는 사시나무숲속에 비켜서서 지나가는 대렬을 한동안 지켜보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것이다.…

문득 가슴을 에이는듯한 쓰라린 심정을 누르며 류성우는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그는 없어도 그의 노래는 살아있다. 그것은 중대의 위훈과 더불어 언제나 살아있을것이다！…

엄기창정치부중대장이 다가왔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중대장동무？》
《…》
류성우는 잠시 묵묵히 걷기만 했다. 오늘따라 그는 이 정치부중대장앞에서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싶어졌다. 괴롭고 더디게만 흘러가던 범골밀영의 밤들에 그를 괴롭히던 후회, 고민, 자책들로부터 오늘의 가슴저미는 갖가지 상념들에 이르기까지 죄다 털어놓고싶었다. 그러나 불쑥 입밖으로 나간 말은 너무도 짧았다.
《난… 지금 생각하고있습니다. 전투지휘란 곧 전사들의 의지와 힘에 대한 지휘라고말입니다. … 피로써 찾은 교훈입니다. …》
엄기창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음미하는듯 잠자코 침묵을 지켰다. 혹은 류성우가 말을 계속하기를 기다리는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눈덮인 나무가지를 조심스레 밀어치우며 류성우에게 길을 내주었다.
커다란 배낭을 둘러멘 김만복이 몹시 서두르며 그들을 앞서갔다. 그뒤를 따라가던 전사가 어지간히 큰 목소리로 취사원을 나무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바이, 그놈의 〈도깨비자루〉인지 뭔지 인주시우.》
《안돼！》
《쳇, 그렇게 무거운걸 계속 혼자 지구갈려우？》
《걱정 말라구.》
《좋도록 하시우. 헌데 제발 떨어지진 말구요.》
그들이 멀찍이 어둠속으로 나가자 엄기창이 말했다.
《만복아바이 〈도깨비자루〉가 오늘 꽤나 커졌군요.》
류성우 역시 그 생각을 했었다. 그속에 어떤것들이 또 보충되였는지는 아직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다 전우들을 위한 아바이전사의 지성으로 가득찼으리라는데 대해서는 누구나 다 서슴없이 말할것이다.
류성우는 오늘 하루만도 얼마나 많은것을 새롭게 보았으며 새롭게 깨달았는가를 다시 생각해보았다.
《정치부중대장동무.》 성우는 엄기창과 걸음을 맞추었다. 《내가 처음 중대로 임명되여올 때 련대장동지가 하던 말이 생각나는군요. 련대장동진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겠는데 그럴수록 자기곁에 용감하고 지혜로운 전사들이 있다는걸 잊지 말라고 했지요. 그

런데… 지금에 와서야 난 그것을 깨닫고있습니다. 오늘 전투에서만도… 김명국전사는 참 대담한 발기를 했지요. 그리고 그 매복전에 나가… 희생적으로 싸웠구요. 그 전사한테서 그런 대담한 생각이 나오리라고 난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듯 용감한 전사였다는것도 미처 몰랐구요. 용감성, 령활성, 대담성… 이러한 기질들은 결코 겉으로 알리는게 아닙니다. 몹시 뒤늦게야 깨달았지만 그래서 난… 전사들의 지혜와 그들의 힘을 믿는 지휘관은 꼭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만복동무만 해도… 난 오늘 참 많은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야 중대에 몸을 잠근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나무가지들이 휘청거리며 그우에 덮인 눈송이들을 털어버리자 목덜미속으로 기여든 한줌의 눈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들은 베여놓은 솔가지들이 무더기로 쌓인 비탈길을 걷고있었다. 솔단들로 미루어 멀지않은곳에 인가가 있는 모양이였다. 눈에 덮여 알릴듯말듯 가로질러간 오솔길도 있었다.

문득 엄기창이 입을 열었다.

《중대장동무, 한가지 부탁할 일이 있는데…》

류성우는 걸음을 늦추고 그가 안경을 눌러붙이는 모양을 참을성있게 지켜보았다.

《오늘 〈유엔도로〉전투에 대해서는 중대장동무가 기록해줬으면 합니다.》

그다음 엄기창은 중대의 모든 관심과 애착이 들어있는 야전가방을 옆구리쪽으로 돌려놓았다. 그가 말하는것은 전투기록장이였다.

《좋습니다.》 하고 류성우는 쾌히 대답했다. 《제가 쓰지요. 꼭 쓰겠습니다.》

《이거 그러다 중대장동무한테 영 떼울게 아닙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우는 웃으며 그의 가방을 곁눈질했다. 수수한 가방, 그속에 들어있는 수수한 공책… 허나 전사들은 그보다도 더 현란하고 요란스러운것은 바라지 않았다. 그들은 거기에 적힌 글줄들에서 조국에 바치는 자기의 량심을 엿보면 충분하였던것이다.

바야흐로 함박눈은 한창이였다. 고즈넉한 정적속에 묻혀 잠들

어있는 숲속에서 오직 쉼없이 움직이는것은 눈송이들과 총멘 전사들뿐이였다.

대오는 산기슭을 돌아갔다. 얼마 안있어 날이 밝을것이다. 목적한 하동마을도 멀지않았다.

그러나 얼마후 류성우는 언덕너머 마을쪽에서 미약하게 울리는 총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귀를 강구어들으니 그것은 몇방씩 동안뜨게 울리는 소총사격소리들이였다. 그때 첨병분대의 한 전사가 급히 달려와 그 수를 알수 없는 적들의 한무리가 마을에 달려들고있다는것을 보고했다.

혹시 팔공산에 대한 《토벌》에 나갔던놈들이 아닐가?… 류성우는 련대의 적지 않은 구분대들이 적의 《토벌대》를 견지하며 하루종일 힘겨운 전투를 벌렸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류성우는 첨병분대의 전사와 함께 대오를 앞질러 달려갔다.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작은 등판우에서 그는 척후를 책임진 2소대장을 만났다.

《중대장동무, 놈들이 고아대는걸 들어보니 어덴지 대고 인민군부상병들 나오라고 소리치고있습니다.》

순간도 지체할수 없었다.

《전투준비!》

성우는 신속히 마을을 포위하고 얼어붙은 개천으로 통하는 달구지길도 차단했다. 악당놈들이 선손을 씀으로 하여, 구원될수 있었던 마을과 인민군부상병들이 습격당하고있다는것으로 하여 전투원들은 구령이 울리기 바쁘게 신속히 움직였다.

작은 마을이였다. 산기슭을 따라 약 20여호가량 되는 농가들이 널려있었다.

총소리는 마을앞의 개바닥너머 맞은편 산기슭에서 울리고있었는데 인민군부상병들이 그쪽에 있는듯하였다. 마을에서는 집집을 돌아치며 놈들이 웨쳐대고있다.

류성우는 황히세로 하여금 마을에 접근하여 놈들을 생포하라고 명령했다.

《마을사람들이 상하지 않게 될수록 총격전을 피하시오. 단번에 달려들면서 함화를 들이대오.》

나머지는 포위를 좁히고 놈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한 다음 한

개 분대와 오리준하사를 데리고 류성우는 총소리가 울리는 개바닥쪽으로 달려갔다.

마을로부터 경사진 밭뙈기들이 개울가에 잇대여졌는데 얼어붙은 개울 건너 산기슭에 한개분대가량의 적들이 엎드려 산중턱에 총질을 해대면서 고함을 쳤다.

《공산군 나오라！》

《나오면 살려준다. 안나오면 불을 지를테다！》

산중턱에 동굴이 있는것이였다. 동굴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다. 눈을 뒤집어쓴 적병 한놈이 돌연 용기를 내여 경사면을 따라 뛰여오르자 맵짠 점발사격이 터져나왔다. 경사면에 뛰여오른 적병은 배를 그러안고 풀썩 주저앉더니 천천히 모로 나가넘어졌다. 그러자 놈들이 수류탄을 던지며 악에 받쳐 부르짖었다.

자지러진 총성도 멱따는듯한 웨침도 관계없이 눈은 계속 쏟아져내렸다. 잔등에 눈더미를 들쓴 적들이 뒤발을 자꾸 맞쪼아대는것으로 보아 적지 않은 시간을 엎드려있은것 같다.

《사격！—》

오리준은 로획한 브로닝기관총을 떡 뻗쳐놓고 개울 건너 적들을 향해 골고루 탄알을 퍼부었다. 엉겁결에 뛰쳐일어난놈들은 개울을 건너 뛰여간 전사들이 코앞에서 총탄을 쏘아박았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정황이 전사들을 죽어넘어진 적병들가운데 엎드리게 했으니 그것은 영문을 알지 못한 동굴속의 부상병들이 위협사격을 한때문이였다.

《이크, 이건 또 뭐야！》

류성우가 달려가자 누군지 머리를 눈속에 틀어박으며 바싹 엎드리라는 손짓을 했다.

《중대장동지, 조심하십시오.》

누군가 성난 목소리로 동굴에 대고 웨쳤다.

《아군이요. 동무들, 인민군대요！》

그 전사는 자기의 총대끝에 모자를 씌워 쳐들었으나 동굴속에서는 또 한방의 총성으로 대답해왔다.

날은 서서히 밝기 시작했다. 눈송이들과 속절없이 다투던 어둠도 기진하여 사라져가고 비죽비죽한 바위벽에 휑하니 뚫린 동굴구멍이 바라보였다. 마을쪽에서는 황히세와 그의 대원들이 포로한 적들

을 몰아세우는것까지 알렸으나 동굴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지 여전히 기척이 없었다.

류성우는 죽어넘어진 적병의 가슴팍에 붙은 군패를 눈여겨보았다. 틀림없이 《토벌》에 동원된놈들이였다. 그것도 패잔병들의 무리였음을 알아보기는 그닥 어렵지 않았다. 어쨌든 다행이다. 동굴속의 부상병들이 패잔병들과 조우했으니…

전사들은 벌써 증이 나서 웨쳐대였다.

《그만하구 나오란말이요!》

《도대체 동무들은 어느 부대요?…넨장 까막눈들 같으니.》

무던히도 오래동안 반응이 없더니 문득 새된 녀자의 부르짖음소리가 총알처럼 튕겨나왔다.

《거기서 먼저 말해보라요!》

《?…》

다음순간 얼드려있던 전사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올랐다.

어떤 즐거운 유희에서나 들어봄직한 그 소리에 어지간히 마음이 너누룩해진 전사들은 저마끔 목청을 돋구어 떠들어댔다.

《우린 3대대 8중대요!》

《동문 군의소 간호원이요? 련대군의소요 사단군의소요?》

《이제 나오면 혼낼줄 알우. 제편두 몰라보다니.》

《내 모자를 구멍냈다니까. 제길, 당장 나와 기워놓소!》

잠시동안 동굴속에서는 의논이 있은것 같다. 아주 놀라운 일로서 새된 녀자목소리가 이번엔 누구 한사람 일어서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뜻밖의 롱질에 기분이 좋아진 전사들은 그런 무리한 요구는 그만두라고 대꾸했다. 모자를 쳐들었던 전사가 특히 신명이 나서 떠들어대였다.

《또 쏠려구 그러지. 난 싫소. 내가 뭣땜에 제편에 맞아 죽겠나말이요. 제편 총알에 맞으면 별루 더 아프다누만.》

떠들썩한 웃음과 기탄없는 롱담을 믿지 못할 근거란 없을법한데 그래도 아주 조심성 많고 깜찍스러운 상대는 별안간 크지 않은 목소리로 그리고 좀 미안해하는 어투로 대대장이나 중대장의 이름을 대라고 했다.

류성우는 허리를 펴고 일어나 경사진 둔덕으로 올라섰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시무룩하니 웃으며 보이지 않는 상대를 향해 가

볍게 손짓했다.

《나요. 내가 중대장이요!》

한순간 정적이 흐른 뒤에 돌연 가느다란 부르짖음소리와 함께 동굴속에서 자동총을 든 숙경이가 구을듯이 달려나왔다. 나어린 처녀는 부끄럼도 잊고 류성우에게 달려들며 신음소리같이 부르짖었다.

《중대장동지!—》

울고있는지 웃고있는지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알아들을수 없는 말을 한바탕 퍼부었다.

《아유 이런!… 우린 정말 어쩌문!… 이런 변이라구야!…》

마침내 눈속에서 일어선 전사들에게 또 달려가자 그는 귀덮개 달린 자기의 솜모자를 벗어들고 전사들의 어깨와 잔등에 덮인 눈을 털어주기까지 하였다. 그 살뜰한 행동으로 숙경은 좀전의 어리석은 총질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셈이였다.

《미안해요. 우린 그런줄 모르구… 정말 큰일 날번 했네에.》

나어린 이 처녀와 이미 상종한바 있는터여서 한 전사는 숙경의 팔을 끄당겨 얼마나 축갔나 들여다보더니 지어 오똑한 코잔등까지 튕겨주려고 했다.

《에— 참 간호원동무, 그저 냅다 쏠줄만 알지… 꼭 꿀벌이라니.》

류성우가 물었다.

《부상병들은 몇이나 되오?》

《예?》

김숙경의 얼굴은 금시 익어터지려는 앵두알과도 같았다.

《어야나!…부상병들이라니요. 우린 둘밖에 없는데?…》

숙경은 고개를 피뜩 돌리며 《언니!》 하고 새된 소리를 질렀다. 그를 따라 성우도 고개를 돌렸다.

《?!…》

불현듯 심장이 흠칫 떨렸다.

솜동복을 입고 목에 목도리를 감은 처녀가 빨간 십자표식이 또렷한 위생가방을 메고 한손엔 자동총을 든채 동굴입구에 서있는 것이였다. 무시무시하게 시꺼먼 아구리를 벌린 전설의 동굴속에서, 옛말속에서 소리없이 나온게 아니라면 그 녀자는 틀림없는 은하였다.

저도 모르게 불쑥 한걸음 나선 성우는 다시한번 심장이 흠칫

떨리는것을 느꼈다. 그것은 숨막힐듯한 충격이였고 모진 아픔이였다.

《은하!》

《…》

그 순간 모든것이 정지되고말았다. 하늘을 메우며 내리던 눈송이들은 희끄무레한 공간에 얼어붙었고 전사들의 눈길도 급기야 굳어졌다. 숨죽인듯한 한순간이 지나자 전사들은 그만 얼굴을 싸쥔채 맥없이 동굴벽에 기대여서는 처녀에게서, 다음은 한팔을 권총집에 가져간채 분명히 적수가 아닌 녀성을 쏘아보고있는 류성우에게서 눈길을 돌려 눈송이들로 꽉 찬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비로소 함박눈이 내린다는것을 깨달은듯싶었다. 대자연의 이 훌륭한 축복을 경탄에 잠긴 눈길로 바라보며 팔을 내뻗쳐보기도 하였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놀래고 당황한것은 숙경이였다. 그는 급작스럽게 달려가 은하를 막아나서며 쌈군으로 알려진 보병중대장에게 의심쩍은 눈총을 쏘았다.

《이 동문 우리 군의소에 있습니다. 중대장동지!》

《…》

허나 다음순간 숙경은 다시한번 놀라고 당황했으니 그것은 숱한 전사들이 그를 향해 안타까운 눈짓과 괴상하기 짝이 없는 손짓을 연방 해대는때문이였다. 마침내 그는 어정쩡해서 한걸음 물러서고 또 두걸음 물러서면서 중대장과 은하를 번갈아 쳐다보고는 별안간 전사들속으로 구을듯 뛰여내렸다. 그렇듯 숙경은 질겁을 하여 숨어버렸으나 이상하게도 그의 눈에서는 깜찍스러운 광채가 불꽃을 날리고있었다.

전사들과 어우러져 개울건너로 뛰여간 숙경은 눈물이 나도록 깔깔 웃어댔다.

《아유! 이런변이라구야.》

솜모자의 귀덮개를 올리고 자동총을 둘러메자 또 한바탕 웃어댔다.

《정말 멋적겐 됐지요?》

그러자 전사들은 나어린 간호원처녀를 가운데 세우고 걸어가면서 허구많은 인생경험과 나이와 함께 성숙되는 복잡다단한 감

정들에 대하여 한꺼번에 어찌나 많이 주입시켰던지 대뜸 이 총기빠른 처녀를 얼떠름하게 만들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아직 서너살은 더 먹어야 한단 말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머니 몰래 베개를 눈물로 흠뻑 적신 다음에야 깨닫는 법이요. 그쯤되여야 진짜 처녀라고 할수 있거던.》

그러자 숙경은 지난밤 자기가 직접 쏘아잡은 적병만해도 세놈이나 된다는것으로 자기를 무게있게 변호하였다.

전사들은 입을 딱 벌렸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헌데 어떻게 돼서 그 굴속에 숨게 되였소?》

숙경은 눈살을 찌프렸다.

《숨다니요?》

《아, 정말 그렇지.》 미식중기를 둘러멘 전사는 대뜸 자기 말을 시정했다. 《그럼 어떻게 돼서 동굴속에 자리잡았소?》

그것은 숙경이가 못내 터놓고싶었던 영웅적인 사변이였다. 그의 한생에서 지난밤의 시련과 투쟁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한페지로 기록될것이였다.

그는 길을 잃고 헤매던것으로부터 하염없이 내리던 함박눈이며 갑자기 나타난 적들과 조우전을 벌리던 《장엄하고》 《비장한》정경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펼쳐보이기 시작했다.

《…가만 보니까 추격해오는놈들이 많지 않아뵈더군요. 하지만 우린 두사람이니 어떡허겠어요. 일단 전술적으로 퇴각했죠. 그러다 마침 저 앞에서 동굴을 발견했던거예요. 우린 동굴속으로 들어가 맹세했어요. 끝까지 싸우되 마지막 탄알 한알은 꼭 남겨두자구요. 왜 그랬겠어요? 자기자신을 위해서죠.》

《마지막 탄알 한알》과 《자기자신을 위해서》라는 말에 특히 력점을 찍었다.

얼마나 엄숙하고 비장했던가!… 동굴밖엔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려쌓이고 가증스러운 원쑤들은 손들고 나오라고 고아댔지만 처녀들의 가슴속엔 불덩이같은게 치밀어올랐었다. 총알 한알한알을 헤여가며 그 총알의 수효만큼 맹세를 거듭했으니 아! 준엄했던 그 시각의 장엄한 정경을 여러 동지들에게 직접 보여줄수만 있다면!…

눈송이들이 뜸해졌다. 작은 마을에 한개 중대나 들어차니 온통 들끓었다. 굴뚝이 미여지게 연기가 솟구쳐올랐고 도끼질소리가 텅텅 울리고 물황철가지에서는 새벽까치가 깍깍거리며 저대로 흥에 겨워 잔가지들을 꺾어던졌다.

마을에 들어서자 전사들은 아직 숙경이의 이야기가 채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저마끔 뿔뿔이 흩어져갔다. 브로닝기관총을 메고 오느라고 이마가 축축해진 한 어리무던한 사람만이 《그럼 간호원동무, 후날 또 들읍시다.》 하였을뿐이였다.

숙경은 실망했고 지어 노엽고 분하여 슬픔에 잠겼으나 그것도 오래가진 않았다. 그에게도 일감은 많았으니 찰과창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전사들을 쫓아다녀야 했고 발뚝까지 눈을 쳐내는 전사들을 찾아다니며 찢어진 군복을 깁자고 눈을 흘기고 《규률》과 《병사의 외모》등 군대생활에서 배운 짭짤한 말들을 골라 퉁을 놓기도 했는데 여기에 마을녀인들의 드바쁜 일손까지 도우려면 손이 열둘이라도 모자랄것이였다.

그는 다시금 《영웅적인》일에 몰두했으며 금시 놀랄 차비가 되여있는 올롱한 눈으로 벌어지는 사변들을 남김없이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기억의 책갈피속에는 새라새로운 인상의 페지들이 또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니 그 많은 페지들을 하나하나 펼쳐가며 감동적인 영웅서사시로 엮어보이려면 전쟁의 끝날까지 아직도 얼마나 오랜 시일을 참고 견디야 하는것이랴!…

얼마후 숙경은 토담을 둘러친 집앞을 뛰여가다가 정치부중대장과 부딪쳤다.

《어야나! ―》

정치부중대장의 손에서 먹병과 펜대가 떨어졌다. 그는 옆구리에 삐여져나온 가방과 두툼한 책을 가까스로 붙잡으며 숙경이를 나무랐다.

《원, 그렇게 덤벼치다니. 꼭 염소 한가지라니까.》

아마도 이 중대의 사람들은 숙경이가 마치 동화에 나오는 요술모자라도 가지고있는것처럼 아는 모양이다. 아까는 꿀벌이라더니 이젠 또 염소로 보이는가?

《그거나 좀 쥐여주오.》 정치부중대장의 말이였다.

숙경은 방금 눈을 쳐낸 땅바닥에 펜촉을 박고있는 펜대(연필 뒤쪽에 펜촉을 실로 매놓은)와 역시 실로 모가지를 처맨 먹병을 집어들자 팔소매로 흙물을 닦았다.

《그래 무슨 일로 뛰여댕기오?》

숙경은 웃기만 했다. 딱히 무엇때문이라고 찍어 말할수는 없으나 이 소탈하고 목청 굵은 사람이 전날의 자기 학교 경리선생 같아보였던것이다.

《바쁘지 않으면 날 따라오우. 중요한 일감을 하나 맡길테니.》

《정말입니까?》

《그럼.》

열려진 부엌문에서 흰김이 쏟아져나오는 집으로 정치부중대장은 앞서갔다. 열려진 문을 들여다보니 나이 지숙한 녀주인이 활달한 몸가짐으로 부엌이 좁다하게 돌아치고 취사원아바이는 아궁이에 장작을 쓸어넣고있었다.

정치부중대장이 숙경이를 떠밀었다.

《자, 여기서 좀 기다리오.》

그러자 숙경이를 돌아본 녀주인은 두손을 모아쥐면서 부르짖었다.

《에구마, 곱기두 할낭기요!》

녀주인의 황홀해진 눈길에 퍼그나 당황한 숙경은 저로서도 알지 못할 입안소리로 인사를 했다. 마침 정치부중대장이 취사원아바이에게 비상용전리품까지 아끼지 말고 진수성찬을 차리라고 분부하는동안 숙경은 얼마간 마음을 다잡을수 있었다. 그는 정치부중대장에게 물었다.

《저… 정치부중대장동지, 중요한 일감이란 뭡니까?》

정치부중대장은 소리내여 웃더니 숙경이의 귀에 대고 역시 엄청나게 굵은 목청으로 소곤거렸다.

《중요한 일이란 첫째, 식사가 준비되는동안 아궁이에 불을 때면서 몸을 녹일것. 그다음…》

그는 막상 입을 열려는 숙경이의 눈앞에 손가락을 쳐들었다.

《가만 있소. 그담 둘째는 우리 같이 멋들어진 식사를 하는것이요. 참, 동무랑 같이 온 그 녀성동무 이름이 은하지? 신은하!…》

《아니 그걸 언제 다?!…》

정치부중대장은 식솔 많은 가정의 아버지다운 미소를 띄우고 녀주인을 돌아보았다.

《아주머니, 이제 귀한 손님이 또 오게 되여있습니다.》

녀주인은 약간 흐트러져내린 앞머리를 젖은 손으로 쓸어올리며 호합지게 웃었다.

《우리께야 다 귀한 손들이 아닌가베?》

《그렇지만 두고보십시오. 이제 우리 중대장동무와 같이 알뜰한 녀자손님이 척 나타날텐데 그러면 우리 이 간호원동무랑 아주머니랑 다 모여앉아 푸짐한 한때를 보내잔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이구, 난 구경만 해두 그저 좋기만 할능기요.》

상쾌하고 즐거운 아침이였다. 동굴속에서 보낸 절망적인 지난밤이 이처럼 호화로운 아침으로 바뀌리라고 어찌 상상인들 할수 있었으랴.

숙경은 물을 긷고 불을 때면서 가느다란 가지끝까지 눈을 함뿍 들쓰고 서있는 대추나무를 바라보군하였다. 거기엔 아까부터 줄창 숙경이만 쫓아다니고있는듯한 까치 한마리가 꽁지를 달싹거리며 깍깍 울어대고있었다. 숙경은 《아침까치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까치》 하고 바라보면서 은근한 미소를 그렸다.

《저 내가에나 가보렴. 거게 가서 은하언니에게 무슨 즐거운 사연이 벌어지고있는지나 알아봐주렴.》

불현듯 한 전사가 《베개를 흠뻑 적셔야》한다던 말이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소리내여 웃었다. 웬걸!… 내가 그걸 모를라구? 천만입니다 동지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제야 생각나서 하는 말이지만 하필 《어머니 몰래》 무엇을 적실건 뭔가요? 나는 그런 꽁한 성미가 아니죠. 나갈으면 죄다 털어놓고 말할걸요. 그게 무슨 군사비밀인가요, 아니면 범죄행위인가요?…

중대장련락병이 대문을 열고 뛰여든것은 바로 그때였다. 안경낀 정치부중대장과 련락병은 한동안 수군거리더니 한사람은 분개한 표정으로 다른편은 침통한 표정으로 뒤미처 들어서는 중대장을 바라보고있었다. 정치부중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럴수 있습니까, 중대장동무. 아무리 급하기로서니 그대로 떠나보내다니요?》

《그 동문… 가야 했소!》

이렇게 대답하는 중대장의 얼굴은 컴컴해보였다. 그는 권총집을 꽉 움켜쥐면서 사람들을 노려보았다.

…그렇다. 그는 노려보고있었다. 그는 이제 자기가 얼마나 힘든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지칠대로 지친 병사들, 수백리에 걸친 기동, 강행군, 《유엔도로》에서의 장시간에 걸친 전투, 또 행군, 굶주림… 지금 그 전사들은 아주 드물게 차례지는 휴식을 받았다. 따뜻한 온돌방, 상상도 할수 없던 훌륭한 식사, 마을사람들의 친절한 환대… 이 모든것을 버리고, 눈앞에 두고 눈내리는 험한 산길로 또 달려가야 한다면 그 전사들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중대장동무, 무슨 일입니까?》

참다못해 엄기창이 물었다. 그때 열려진 대문밖에서 신음소리가 났다. 이어 한 전사의 부축을 받으며 턱수염에까지 하얗게 성에가 불린 늙은이가 들어섰다. 그 늙은이는 토방에까지 이르는데 세번씩이나 비틀거렸다. 늙은이의 강마른 주름투성이 얼굴을 보면서 성우는 말했다.

《〈반유격대대〉 악당들이 중동마을을 불태웠소!》

류성우와 엄기창의 두눈이 서로 마주쳤다.

《련대에서는 이미 놈들의 꼬리를 잡는 경우 어떤 일이 있어도 추격소멸하라는 명령이 있었소.》

열려진 부엌문으로 쏟아져나오는 흰김… 창자를 뒤집어엎는듯한 밥냄새… 그러나 중대의 전사들은 그 어떤 유혹도 이겨낼것이다. 류성우는 그것을 의심치 않았다.

《중대를 비상소집해야겠소.》

류성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잠시후 《폭풍》을 알리는 구령소리가 마을을 뒤흔들었다. 중대는 떠들썩한 웃음과 환대와 푸짐한 식사며 못견디게 그립던 온기와 세상모르고 곯아떨어지고싶던 그 휴식과 사랑하는 처녀와의 즐거운 상봉까지도 깡그리 남겨두고 《반유격대대》악당들의 추격에 나섰다.

제 5 장

1

눈덮인 동구길에 들어서기까지 은하는 무려 세번이나 엄한 단속을 받았다. 그때마다 매번 은하는 자기가 얼마전에 부대에 편입한 정치공작대원이라는것과 지금은 련대군의소에 있다는것 등 많은것을 설명해야 했고 또 련대장동지가 급히 불렀다는 사정을 믿음성있게 납득시켜야만 했다.

마을앞에 있는 한 경계초소에서는 나이 지숙한 한 하사관이 대원 한명을 붙여 련대지휘부까지 안내하라고 했다. 은하가 진심으로 만류했지만 하사관은 막무가내였고 병사는 벌써 앞서가고있었다.

그들은 아무말없이 마을로 들어섰다. 밤새 련대부가 이동해온 이 마을은 비교적 큰 동리로서 처음 은하가 부대에 편입되던 날 보았던 화전민부락의 숨막힐듯 비좁던 골안과는 정 반대였다. 무엇때문에 넓은 평지대로, 적들의 눈에 곧 띄울수 있는 큰 마을에 자리잡

았는지 은하로서는 도저히 그 까닭을 리해할수 없었다.

련대지휘부는 마을의 맨 끝쪽에 자리잡고있었다. 하얗게 눈을 들쓰고 우습강스러운 자세로 약간 비뚤사해서 서있는, 마치 동화책의 그림을 그대로 옮겨놓은것 같은 솟을대문이 달린 농가였다. 여기서 은하를 안내해온 병사가 처음 입을 열었다.

《여기 서서 기다리시우.》

그는 대문안으로 들어갔다. 그때에야 은하는 경계초소의 하사관이 자기를 굳이 안내하도록 한것이나 병사가 줄곧 침묵을 지키며 함께 온것 등은 다 이른아침의 낯모를 길손을 무턱대고 신임할수 없어 사실여부를 확정해보려는 의도였음을 깨달았다. 이제 누군지 엄격한 군관이 나타나 까근까근 캐물을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잠시후 자기를 안내한 병사와 함께 련대장련락병이 나오는것을 보자 은하는 부지중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련락병도 그를 알아보았다.

《정말 뜻밖입니다.》 련락병은 놀란 눈길로 그를 재빨리 훑어보았다. 《이렇게 나타나다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 련대장동지가 급히 부른다기에…》

《아, 그럼요!》

련락병은 은하를 데려온 병사에게 눈짓하고 먼저 대문가로 앞서들어갔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군의소에선 동무가 저… 나어린 간호원과 같이 후송임무를 받고 간뒤로 소식을 모른다면서 야단이던데… 놈들의 〈토벌대〉와 맞다들지 않았나 해서 련대장동지도 여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길을 잃어서…》

마당에 들어섰을 때 먼저 은하의 주의를 끈것은 토방아래에서 돌로 깎은듯 까딱않고 서서 마주보는 한 녀성군관의 모습이였다.

《길을 잃다니요?》 련락병이 물었다. 《놈들과 맞다들진 않았습니까?》

《한번은…》 은하는 입을 다물었다. 주의깊은 시선을 자기에게서 떼지 않고있는 녀성군관의 깔끄러운 눈길을 느끼며 그는 말을 돌렸다. 《길을 잃고 우린 밤새 헤맸어요. 팔공산이 다섯개의 시와 군에 펼쳐있다는건 알았어도 그렇게 넓게 자리잡은줄은 미처 몰랐죠.》

《그래서요？》

《그래 밤새껏 어느 알지 못할 골짜기를 헤매다가 오늘 새벽에야 우연히 8중대를 만났어요. 마침 그…》 여기서 은하는 약간 말을 더듬었다. 《그 중대장동무가 대주더군요. 련대장동지가 급히 찾는데 가보라면서 이리로 오는 길까지 알려줬어요.》

《참 다행입니다.》

련락병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신통히도 련대장이 그러는것처럼 눈섭을 찌프렸다.

《그럼 좀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련대장동진 회의중이여서…》

《예, 알겠어요.》

그러자 불시로 진호와 조성길로인 생각이 났다. 은하는 어데론가 가려는 련락병을 불러세웠다.

《저… 진호말예요. 그 애가 지금 어데 있는지 모르세요？》

《예, 그 앤 정찰병들이 데려갔습니다. 너무 떼질을 해서 련대장동지가 보내주고말았지요.》

《그래요？》

몹시 서운했으나 짐짓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이번엔 늙은 산림학자에 대해서 또 물었다.

《예, 그분은…》 련락병은 웬일인지 꼿꼿한 자세로 서있는 녀성군관을 피끗 바라보았다. 《지금 밀영에 가있습니다.》

《？…》

은하는 항일유격투쟁실기를 수록한 신문이나 소책자들에서 그 의미를 익힌 《밀영》이라는 말을 이처럼 적후에서, 즉 백두밀림과 수천리 떨어져있는 이곳 팔공산의 한 변두리 촌락에서 듣게 되는것이 무척 놀라왔다. 그게 어딘가고 묻고싶었으나 련락병은 몹시 바쁘거나 혹은 잠시도 한자리에 붙박혀있지 못하는 성미인듯하였다. 그가 굴뚝옆의 장작가리로 가서 장작 몇가치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버리자 은하는 지친듯한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갈하게 다듬어진 마당가였다. 장작가리, 개우리, 무너진곳을 고쳐쌓은 축담… 알뜰한 손길들이 품을 들여 손질한것이 알렸다.

눈을 쳐낸 마당 한구석에서는 그쯘하게 생긴 두필의 말이 코

김을 불어가며 건초를 골라 씹고있었는데 가끔 물기에 젖은 눈을 무료하게 굴리면서 은하를 바라보기도 하였다.

토방우에 놓인 대여섯컬레의 장화를 바라보면서 은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게라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단정한 녀성군관이 가까이 다가오며 은근히 물었다.

《조성길이라는분에 대해서 물었지요?》

《예.》

은하는 저도 모르게 큰소리로 대답했다.

《그분을 알아요?》

침착한 미소를 짓고있는 녀성군관에게서 병원냄새와도 같은것이 느껴졌다.

《저하고 같이 온분인데… 지금 어데 있어요? 혹시 밀영이라니 그건 병원이 아닌가요?》

《예, 병원이기두 하죠.》

《그럼 그분은 앓고있어요?》

《안예요.》 녀성군관은 머리를 저었다. 《련대장동지 지시로 제가 있는 범골밀영에 거처를 정했어요. 참!…》

그는 위생가방에서 학모양으로 접은 종이를 꺼내였다.

《군의소로 이 편질 전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여기에 다 써있을거예요.》

은하는 편지를 받아 풀어보았다. 활달한 필체로 늙은 산림학자는 은하의 안부를 묻고 이렇게 계속하였다.

《…나는 지금 범골이라고 부르는 으슥한 골안에 와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늙은것이 짐이 되니 쫓아버리는것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래서 용기를 내여 부대장어른을 찾아가 사정을 했더니…그일로 어른을 성나게 했군요. 그분의 말이 밀영에 가서 연구사업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꿈같은 일이지요. 그것도 믿어지지 않습디다그려. 그러나 종당에는 부대장어른의 친절한 말을 곱새겨보고 나도 깨달았습니다.

…내 일생의 소원은 산림과 결부되여있었습니다. 하지만 늘그막에 와서는 그마저도 영영 잃었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러던것이 오늘은… 한 녀성의 친절한 손길에 이끌려 다시 숲에 들어섰고 그

것을 수호하는 참된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인생말년에 유일무이한 지상의 진리를 찾게 된 셈입니다. 이제 나는 이 땅의 숲이 어떻게 자랐는지 꼭 쓰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 숲의 력사라고 할는지요. …》

편지의 구절구절은 은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 글줄마다에서는 잃어버린 숲과 사랑과 희망을 다시 찾은 한 인간의 기쁨과 참된 삶에 대한 값높은 지향이 절절하게 울리고있는것이였다.

은하가 편지를 다 읽기를 기다리고있던 녀성군관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분은 동무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은하는 미소했다.

《알고 지내자요. 전 신은하라구 해요.》

《상급준의 안혜순이예요.》

은하가 보기에 안혜순은 무척 지친 기색은 있어도 탄력있고 윤기나는 녀성이였다. 서로 악수를 나누면서 그들은 서로 눈을 들여다보았고 그 한순간에 부대에서 극히 적은 녀성들 호상간의 친밀한 우애를 느꼈다. 오래전부터 알고있은듯했고 서로의 마음까지도 털어놓은 일이 있었던듯이 느껴지자 뜻밖에 약속이라도 한듯이 두 처녀는 소리없이 웃었다.

《지금 스물둘이지요?》

안혜순이 묻는 말이였다.

《작곡가의 딸이구 대학을 다니다가 정치공작대로 파견됐구요. 봐요. 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있는가. 난 은하동무의 애인이…》

《예?》

《왜 놀라요?》

《아니 그저…》

《그 산림학자가 죄 말해주더군요. 그 동무도 어느 부댄지 군대에 있다구.》

부지중 은하는 안도감을 느끼며 조용히 웃었다.

《그런데 난 동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 이건 좀 불공평하군요.》

《그래요?》

안혜순은 약간 차거운듯 하면서도 결패있는 녀성이였다. 그것은 약냄새 이상으로 몸에 젖어있는 군사적절도는 물론이고 좁은 이

마아래에서 주저없이 번뜩이는 눈길로도 알수 있었다.

《그럼 요구하세요. 무어나 다 대드릴테니.》

안혜순이 이렇게 선언하자 은하는 그를 스스럼없이 마주보며 웃었다.

《좋아요.》

은하는 녀성적인 깨끗함과 남성적인 과단성을 다 가지고있는 이 상급준의와 견고한 매듭이 이루어지는것을 느꼈다.

마치 녀자들끼리의 우애는 단 한마디의 정찬 말로써 시작되고 역시 이지러진 한마디때문에 당장 앙숙이 되는듯이 말하면서 남자들만이 종심깊은 우정을 나누는듯이 주장하는 견해들이야말로 얼마나 편협하고 속된것이랴. 어느때든 전우를 위하여 자기의 팔에 손수 주사기를 찌르기에 준비된 전선처녀들의 우정은 전선의 종심 못지 않게 깊은것이다.

부엌문이 열리면서 련락병이 나오고 뒤따라 연기가 밀려나왔다. 련락병은 문을 열어 연기가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은하더러 아직 시간이 걸려야 할것인즉 부엌이라도 사양말고 들어가있기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아래방엔 주인아주머니와 어린애가 앓고있어 약품을 가지러 밀영에서 온 상급준의도 그때문에 지체되였다고 꽤 길다란 설명을 달았다.

은하는 이 표정이 굳은 련대장련락병이 자기들을 생각해서 우정 장작가치를 안고 들어갔었다는것을 알게 되자 저으기 감동되였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고마와요. 부엌이야 원래 녀자들의 세계인걸요.》

그러자 상급준의 안혜순이 그 말을 군사술어로 바꾸어말했다.

《녀자들의 위수구역이죠.》

부엌아궁이로는 장작불이 활활 타들어가고있었다. 어느덧 친숙해진 두 처녀는 아궁이를 마주하여 쪼크리고앉았다. 그러자 녀자들의 이 자그마한 세계는 그들을 아늑한 기분속에 잠기게 하였다.

두서없는 생각들 가운데서도 특히 은하는 꿈결처럼 스쳐지났던 류성우와의 짧은 상봉을 그려보았다.

온통 눈의 세계였었다. 개울 건너 백양나무가지들에도 돌각담우에도 은하와 류성우의 어깨우며 머리우에도 흰눈이 소복이 쌓였었다. 그것은 아직 먼지도 끼지 않은 정결한것이였고 먼 하늘

가에서 시작된 기나긴 려행길에서도 녹지 않은 순결한것이였고 그들사이의 심장을 부드럽고 살틀하게 가리워준 흰 막과도 같은 것이였다. 그것을 들어 조심히 열어젖히면 그들의 심장에도 청신한 그 눈송이들이 소리없이 쌓일것만 같았다.

《무슨 생각을 해요?》

불현듯 은하는 몸을 떨면서 안혜순을 돌아보았다. 다행히 은하가 변명으로 자기를 난처하게 할 기회를 주지 않고 안혜순이 또 물었다.

《8중대와 만났다고 했지?》

《응.》

그들은 어느새 스스럼없이 깍듯한 존대를 싹 집어던졌는지 그 자신들도 알지 못했다.

《그럼 중대장동무 만났겠군요?》

《응.》

은하는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으나 안혜순은 자기 생각에만 골몰해있은것이 분명했다. 상처가 채 아물기전에 밀영을 떠나간 류성우에 대하여 혼자말처럼 중얼거리더니 이번엔 황히세라고 부르는 1소대장이 잘 있던가고 물었다.

《키가 크고 좀 무섭게 생겼어.》

그 순간 은하는 녀성의 특유한 감각으로 그 어조에 비낀 쓸쓸한 음영을 감촉하였다.

《왜?》 하고 안혜순은 놀란듯 물었다. 《왜 그렇게 봐?》

《그저…》

《참 등불같애, 그 눈이…》

은하는 못들은척 잠자코 있다가 문득 조용한 목소리로 그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별안간 안혜순은 몹시 피로하고 지쳐버린듯 머리를 가로젓는데 그 깔끄럽던 얼굴에 서글픈 비애의 그늘이 질어가는것이였다. 의외에도 수척해지고 시름에 싸인 안혜순을 바라보면서 은하는 정녕 말로써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살틀한 련민의 정과 애무의 충동이 북받쳐오르는것을 느꼈다.

《중위동무도 사랑하는분이 있을테지? 약속한대로 솔직히 말해봐요. 응?》

안혜순의 두눈에 한점 섬광이 빛을 뿜었으나 다음순간 그는 머

리를 수그러뜨렸다. 하여 은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남성적인 과단성을 지닌 이 처녀도 자기의 은밀한 마음속 비밀을 터놓기엔 용기가 부족되는것일가?…

마침내 안혜순이 머리를 들고 입을 열었을 때 먼저 은하는 그 살틀한 속삭임과 같은 어조에 놀랐다.

《이봐요. 은하, 우리들끼리야 뭘 감추겠어. 별로 감춰야 할것도 없는거구…》

그는 이야기했다. 동해기슭의 어촌, 그것이 혜순의 고향이였다. 정든 작은 포구였었다. 조가비와 굴깍지로 쌓아올린 동요의 작은 탑도 있었고 바다가 모래불에 가지런히 찍어간 우정과 사랑의 발자취도 있었다.

그것은 어느 초여름날부터 시작된 일이였다. 새로 개발되는 광산의 측량기수와 우연히 렬차에서 알게 되였다. 허름한 솜옷을 걸치고 무릎우엔 쥐가 귀퉁이를 쏠아놓은 트렁크를 놓고있었다.

《멀리 가십니까?》 하고 그가 물었다.

《안요. 쌍암까지예요.》

《그래요? 저도 그리 가는데… 거게 광산이 새로 생긴다지요?… 첨 가는 길이 돼놔서…》

《역에서 한 십리 들어가면 돼요.》

《앉으시죠. 비좁지만…》

《이젠 다 왔어요.》

군에서 공급받아오는 약품보퉁이를 든 혜순은 그대로 서있었다. 그다음 역에 내릴 때까지 그들은 말이 없었다.

《저기 골안으로 곧추 들어가세요.》

《예예, 저… 그럼…》

헤여질 때 측량기수는 어떤 리유에서인지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나 혜순은 약간 머리숙여 인사하고는 총총히 걸어갔다. 그가 일하는 진료소는 정거장에서 멀지않은 청석기와집이였었다.

한달가까이 흘러간 어느날 뜻밖에 측량기수가 진료소에 나타났다.

《안녕하십니까?》

그때 혜순은 웬일인지 그가 이렇게 나타나리라는것을 예견하고있었던처럼 생각되였다.

《출장을 갑니다. 그래 지나던 길에 잠간 인사차로…》

쥐가 쏠아놓은 트렁크대신에 새것이나 다름없는 가죽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왔었다. 버릇되지 않은모양으로 목을 조른 와이샤쯔깃으로 땀이 철철 흐르는것이 무척 가엾어보일 지경이였다.

《땀이나 좀 들이세요.》

혜순은 그에게 범나비가 그려져있는 부채를 내주었다.

《아니, 인차 가야 합니다.》

몹시 무뚝뚝하고 성급한 말이였다.

《차시간은 아직 멀었어요.》

《그런게 아니라 수산협동에 좀 들릴 일이 있습니다.》

그날도 별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였다. 측량기수는 산뜻하고 정갈하며 엄엄하기까지 한 진료소에 앉아있기가 괴로운 모양이였다. 연신 창밖을 내다보고 아무 의미없이 가방을 뒤적거리군하였는데 누가 강요한것도 아닌 이 고통을 끝장내기로 결심하는데는 또 적지 않은 땀을 흘리게 되였다.

《또 들릴가요?》

입속말같은 이 짧은 한마디속엔 단호한 결심도 두려움에 가득찬 청원도 다 들어있었다.

《온 참! 여긴 누구나 다 들릴수 있어요.》

그는 와이샤쯔목깃을 풀어헤치고 알아들을수 없는 무슨 인사말을 중얼거리더니 성급하게 문을 열고 나갔다. 그날 창가에서 위생솜으로 소독담봉을 만들고있던 혜순은 수산협동이 있는 방향과는 정반대쪽인 정거장으로 스적스적 걸어가는 측량기수를 소리없는 웃음속에 바래주었다.

그때부터 측량기수는 허다한 《출장》리유를 만들어 들리군했고 들려서는 또 고통스러운 침묵에 모대기기도 했는데 혜순은 철기에 따라 범나비가 그려있는 부채로 혹은 화독의 불구멍을 열어주는것으로 그의 고통을 덜어주려 했다.

겨울이 가고 봄이 가고 다시 여름이 시작되였다. 그동안 측량기수는 공화국 국장이 찍힌 표창장을 받았고 혜순은 준의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날 두사람은 바다가모래불로 나란히 걸었다. 저녁이였다. 도래굽이까지 가서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 오군하였는데 이제는

광산과 진료소에 대해서 더는 할말이 없었으므로 묵묵히 걷기만 했다. 이제는 비상한 사변들로 차버린 생활과 서로를 떼여 생각하기 어려운 래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가 되였음을 별안간 깨달았으나 그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둘다 알수 없었다.

바다는 황홀했다. 큼직큼직한 파도들이 끊임없이 흔뎅거리며 밀려오고 기슭을 씻어갔다. 바다에로 빠져들고있는 태양은 눈부신 광선과 형용하기 어려운 빛발을 뿌려던져 어데나 광채나는 물결과 얼룩얼룩 흔뎅이는 불빛들뿐인듯하였다. 가벼운 해풍에 물고기냄새와 싱그러운 해초냄새를 머금은 시큼하고 알싸한 냄새가 실려왔는데 그것도 바다의 그 저녁에는 특별한것으로 느껴졌다.

문득 측량기수가 걸음을 멈추었다.

《사실 난… 아까부터 계속 생각했는데 난…》

말이 되지 않는 모양이였다. 혜순은 가볍게 몸을 떨었다. 피할길 없는 그리고 이제껏 기다려왔던 그것—다시없이 중대한 말 한마디를 그가 꺼내리라는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무서워졌다.

《내가 하려는 말은… 난 동무를 위해서라면…》

마침내 측량기수는 숨이 막혀 말을 멈추었는데 숨도 미처 돌리지 못한채 혜순의 어깨를 잡아돌렸다. 그러자 끓는 가마속에서처럼 씩씩—단김이 쏟아져나왔다.

혜순은 처음으로 겁에 질려 그처럼 낯설고 무섭게 변한 그 사람의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가 혜순을 파도속에 밀쳐버린대도 꼼짝하지 못하고 빠져죽을것처럼 생각되는것이였다.

《나와 함께 일생을… 그렇게 약속해주시오!》

마침내 이 한마디의 어마어마한 말로 측량기수의 고통은 끝장이 났다.

혜순은 웬일인지 주먹을 깨물며 흐느꼈다. 얼마후 큰 광산과 작은 진료소에서 대표들이 선발되여 《쌍무회담》을 가지게 약조되였는데 바로 그날은 전쟁이 터진 일요일이였다.

먼저 측량기수가 전선으로 떠났다.

《부디 몸조심하세요.》

《잘 있소!》

기적소리가 울리고 차바퀴들이 덜컹거렸다. 기차는 씩씩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거세차게 증기를 내뿜었다. 눅눅하고 후덥고 뽀얀

증기발속에서 혜순은 손등으로 눈언저리를 씻었다. …
안혜순은 말을 끊고 격동된 자기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는듯 깍지낀 두손을 펴들었으나 다음순간 고개를 수그리며 이마를 문질렀다.
은하는 잠시 말없이 그의 흥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그 동무가 아까 말하던 황… 뭐라던 그 소대장동무예요?》
《아니.》
혜순은 머리를 저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주의깊은 은하의 시선을 피하듯 문쪽을 흘끔 바라보았다.
《그 동무와 어쩐지 비슷한데가 많아. 키두 성격두…》
《그럼 그 측량기수동문?…그 동문 지금 어데 있어요?》
《그 동문… 전사했어.》
《…》
은하는 혜순의 손을 꼭 잡았다. 불현듯 치밀어오른 격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묵묵히 차겁고 딴딴한 그 손을 쓸어만지기만 하였다.
아마도 다기찬 이 녀성군관은 자기의 소중한 추억과 함께 고요한 슬픔이 간직되여있는 마음의 문에 쇠를 잠근채 말없이 지켜왔으리라. 그리고 오늘에야 비로소 자기와 동갑년배인 처녀를 만나 애끓는 심중의 추억을 더듬게 되였으리라. …
은하는 자기의 가슴속에서 서서히 끓어오르는 뜨거운 물줄기를 감촉하였다. 허나 무엇을 말하랴?… 그에게 무슨 말을 해줄수 있으랴?…
훌륭한 사람에 대한 추억은 보다 훌륭한 생활의 창조로써만 더욱 아름다와지는 법이다. …
얼마후 련대장련락병이 회의가 끝났다는것을 알려주어서야 그들은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두필의 말이 엉뎅이를 비벼대고있는 마당가에 련대장과 부직간부들이 둘러서있었다. 이미 련락병에게서 보고를 받았던 모양으로 련대장은 무척 반갑게 은하와 악수를 나누었다.
《얼마나 고생했소?》
웬일인지 선뜻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과묵한 련대장의 이 한마디 물음에서 따뜻한 인정을 가슴후덥게 느끼며 불현듯 좀전에 련락병이 《련대장동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압니까？》 하던 말이 떠올랐다.

《어데 다치진 않았소？》

《아닙니다, 련대장동지.》 하고 은하는 자기의 용기를 과장하려하지 않으면서도 힘있게 대답했다.

《그저 길을 잃고 헤맸을뿐입니다.》

화제가 자기의 일신상문제에 머물러있는것이 은하로 하여금 면괴스러움을 느끼게 했다. 사실말이지 적후에서 매일 수십리씩 기동하며 싸우는 전사들에 비한다면 그까짓게 다 무슨 고생이랴… 하여 그는 무슨 일로 자기를 불렀는지 알고싶다고 조용히 말했다.

《우린…중요한 임무를 맡기자고 동물 불렀소.》

《그럼 련대장동지.》 하고 은하는 서둘러 말했다.

《어서 임무를 주십시오！》

련대장은 잠시 은하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오늘은 안되겠소.》

아직 젖은 그대로인 은하의 신발을 눈여겨보면서 련대장은 별안간 무뚝뚝한 어조로 말했다.

《우선 식사를 하고 푹 쉬시오. 이제 련락병동무가 알려줄거요.》

《련대장동지, 전…》

그러나 어느덧 련대장은 본래의 자기로 돌아갔다. 과묵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은하는 휴식도 식사도 다 명령이라는것, 자기는 여기서 한전사라는것을 새삼스럽게 상기하였다.

벌써 련대장은 상급준의 안혜순에게 몸을 돌려 실무적인 말투로 지시하고있었다.

《동문 밀영으로 급히 돌아가오. 이제 련대는 새로운 기동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한동안은 련계가 없을수 있소. 그러니 밀영에서는 경계근무를 특히 강화하면서 련락이 있을 때까지 절대 외부출입을 금하시오.》

안혜순은 절도있는 동작으로 규정의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은하와 작별했다. 그들은 련대장과 부직간부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특별한 애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오랜 벗들처럼 다정하고 뜨겁게 악수를 나누었다.

《수고해요.》

《응, 또 만나요.》

초면의 두 처녀가 별안간 오랜지기들처럼 되여 작별하는것을 련대장과 부직간부들은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고있었다.

2

스테이지의 발악적인 《토벌》로 하여 동화사근처에 꾸려놓았던 군의소의 초막은 재더미만 남았다. 군의일군들은 2대대장이 보내준 전사들의 힘을 빌어 하루종일 상병자들을 위한 새로운 숙영지를 꾸려놓았다.

련대장과 련락병이 말을 달려 군의소의 숙영지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넓은 초막안에 불더미가 이글거리고있었고 거기서는 얼마전 군의소에 도착한 숙경이가 지난밤 길을 잃고 헤매던것으로부터 동굴속의 비장한 결의와 전투 및 8중대와의 상봉 등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소개하는중이였다. 그는 자기가 은하와 같이 군의소를 떠난 이후 이곳에서도 가렬한 전투들이 있었다는데는 전혀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련대장이 군의소장과 같이 초막에 들어섰을 때 숙경이의 이야기는 마감페지를 번지고있었다.

《… 알고보니 〈반유격대대〉놈들이 건넌마을을 불태운거예요. 그래서 8중대장동진 중대를 비상소집했지요. 참!… 죽도록 피곤한 전사들이였어요. 그런데두 또 놈들을 추격하거던요. 마을사람들은… 울더군요. 왜 그렇지 않겠나요. 나두 막 눈물이 나오던데… 신발은 다 꿰졌지, 몸은 얼었지, 게다가 밥한술 뜨지 못하구 또 가는걸보니…》

그것은 련대장도 아는 일이였다. 류성우는 비록 놈들을 놓치고말았지만 그놈들이 기동수단으로 가지고있던 여러채의 발구들을 로획하였다. 로획한 식량은 집 잃은 마을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두채의 발구에 실은 각종 무기와 탄약 기타 전리품들을 김만복에게 맡겨 련대지휘부로 보냈다. 그리고 《놈들을 추격하고있음. 기어이 소멸하겠음.》 하는 보고만을 아바이전사에게 복창시켜 보냈다. 그

런데 뜻밖에도 숙경이의 말을 듣고 그들이 치렬했던 《유엔도로》 싸움과 수십리행군끝에 지쳐 쓰러질 지경이였으련만 밥 한술도 뜨지 못하고 다시 《반유격대대》놈들의 추격에 나섰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장하오, 중대장！》 하고 련대장은 마음속으로 치하를 아끼지 않았다. 《놈들을 한놈도 남기지 말고 소멸하오！ 놈들은 우리 인민군대의 고상한 이름을 더럽히며 인민들과의 련계를 끊어보려고 날뛰고있소. 그놈들을 무자비하게 소탕하시오. 이건 적 한개사단을 소멸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요！》

방안의 상병자들이 련대장을 발견하고 서둘러 인사를 시작하자 숙경이는 발딱 일어나 거수경례를 붙이였다.

《오, 우리 기마간호원！》 련대장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어제밤 아주 용감하게 싸웠다면서？》

《뭐 우린 그저…》

숙경이의 동실한 얼굴은 구운 가재빛으로 물들었다. 그새 나어린 처녀는 몰라보게 숙성한듯했다. 꼿꼿한 자세, 담찬 눈빛, 꽉 다물린 작은 입…

《그래 동무들과 맞다든건 어떤놈들이였소？》

《옛, 그건… 패잔병들이였습니다.》

《패잔병？》

《옛, 8중대장동지는 우리 부대를 〈토벌〉왔다가 녹아난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음…》

지금 련대장의 모든 관심은 스테이지휘하에 집결되고있는 적들의 부대명과 무력에 있었다. 스테이지는 어떤 부대들을 그러안고있는가？ 혹시는 기본부대들에서 다문 얼마간의 병력이라도 지원받기 시작하지나 않았을가？… 그의 최대의 관심은 이것이였다. …

련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숙경이에게 앞으로 더 잘 싸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다음 여러 상병자들의 치료상태를 알아보고 군의소장에게는 지난 남진때 이 근처에서 약수터를 리용했는데 물이 더워서 쓸모가 많을것이라는것도 일러두었다.

돌아오는길에 련대장은 어제 스테이지의 《토벌》대와 맞서싸운 2대대장을 만나 구체적인 전투보고를 받았다.

여기서 명백해진것은 아직 스테이지가 정예부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있다는 사실이였다. 그러나 《유엔도로》전투와 다른 련대들이 벌린 철도분기점공격, 괴뢰군훈련소습격 등은 적들을 바싹 긴장시켰을것이다. 이제는 제2전선련합부대의 맹렬한 공세앞에서 적들도 비명을 지르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 군단장이 명령한 미제침략군8군의 작전적예비대들을 얽어매놓는 좋은 기회를 가져올것이다. 그러나 적들이 여전히 예비대를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만은 한사코 그러쥐고있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놈들을 끌어당길것인가?…

군단장이 말한것처럼 적들을 미칠지경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조강선련대장은 깊은 산속을 떠나 구분대들을 보란듯이 개활지대로, 주민지대로 기동시키기 시작했다. …

다음날 은하는 련대장의 호출을 다시 받았다. 그는 련대장이 자기에게 까닭없이 휴식을 주지 않았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분명 련대장은 은하에게 어떤 긴요한 임무를 줄것이였다. 이러한 생각이 은하로 하여금 가슴을 울렁거리며 그앞에 나서도록 하였다.

련대장은 주의깊은 눈길로 은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동무가 병치료를 했다는 마을이 어데라고 했던가?》

《원소마을입니다.》

《그 마을을 찾아보오.》

련대장은 그에게 지도를 내밀었다. 은하는 야릇한 흥분에 휩싸여 눈에 익지 않은 군용지도를 들여다보았다. 온통 등고선으로 짝 들어찬 지도에서 크지 않은 마을을 단번에 찾기는 어려웠다. 마침내 먼저 원소를 찾고 부락을 표시한 까만 점들에 손을 짚었을 때 련대장은 생각깊은 눈길로 그것을 묵묵히 들여다보았다. 은하는 련대장의 심중을 알수 없어 잠자코 기다렸다. 련대장자신이 더 쉽게 찾을수 있었던 그곳을 굳이 은하더러 짚게 한것은 무슨 까닭일가?…

《음— 그러니 이 간이역과는 아주 가까이 있구만.》

《예, 십리미만입니다.》

다음순간 은하는 자기가 부질없는 말을 했다는것을, 련대장은 벌써 지도를 통해 어김없는 리수를 계산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

나 련대장은 여전히 무슨 생각엔가 잠겨있었다.

《정확하오. … 헌데 정치공작원동무.》

련대장이 지도를 밀어놓고 은하더러 편히 자리잡고 앉도록 했을 때 은하는 마음을 조이며 기다렸다. 그가 은하동무라고 부르지 않고 《정치공작원동무》라고 강조했을적엔 기필코 중대한 말을 꺼내려는 뜻이라고 생각되였다.

《원소마을에서 동무가 치료받았다는 집말이요? 그 집 형편과 주인들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해줄수 없겠소?》

은하는 부지중 한숨을 내쉬였다. 기다리던 엄엄한 명령이 아니라 이름없는 한 농가의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였다. 어째서 그것이 필요할가? 언젠가 간단히 말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도록 요구하는것은 무엇때문일가?…

원소마을과 맘씨 후한 늙은이며 생금이라고 부르던 그 집 며느리를 생각할 때면 먼저 대학시절에 읽은 어느 시집에 《어느때, 어느곳에서 배부르게 먹었는가 함은 잊을수 있어도 다같이 배를 곯아본 이 땅은 결코 잊을수 없다.》고 한 구절이 특별히 기억에 떠오르군하였다.

류할배라고 부르던 고령의 로인… 그의 악마디진 손이 떠오르고 애젊은 생금이의 수집어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하여 은하는 그 집에서 병구완을 받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 의식을 차렸을 때 포병전사들과 헤여진 뒤로 그처럼 많은 날과 달들이 흘러간것을 알고 놀라던 일이며 그동안 친자식, 친동기처럼 애써준 류할배며 생금이에 대한 감사의 념으로 가슴을 적시던 일들… 은하가 고마와하는 마음을 짐작한 로인은 자기들이 바치는 지성을 이렇게 말해주었었다.

《걱정 마이소. 우리 아들도 인민군대에 갔능기요. 우리 아들이나 꼭같은 그 사람들이 맡기고 갔는데 그렇게 쉬이 저바릴수가 있는가베?》

애젊은 며느리 생금이도 남달리 각별한 애정을 부어주었었다.

《몸을 추세는데는 녹두죽물이 제일 좋닥하더꾸마. 자, 동네내인들이 모아온건데 날래 들낭기요.》

정신을 차린 이후 닷새만에 은하는 다시 끝없는 혼수상태에 빠져들어갔다.

후에 은하는 주인인 류할배가 산에 옹노를 놓아 노루 한마리를 메고왔으며 그것으로 중태에 빠진 그에게 마지막 수단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은하에게 노루피를 먹이고 다음 노루가죽으로 온몸을 감쌌다. 이 모든 일들을 맡아하느라고 생금이는 바빴다.

옹근 하루동안이나 은하는 노루가죽이불속에서 땀을 뽑았다. 그리고 다시금 단지속의 노루피를 먹이고 얼마후엔 꿀을 탄 녹두죽물을 마시게 했다.

선조들이 물려준 치료법이 은을 냈는지 아니면 시골농가의 맘씨 착하고 동정심 많은 주인들의 지성이 하도 뜨거워서인지 다시 은하는 의식을 차렸고 그때부터 급격히 건강을 회복할수 있었다.

소생되기 시작한 기력은 그의 의기도 북돋아주었다. 그는 지금쯤 전선이 어데 있을가 하고 간절히 그려보군하였다.

은하의 마음을 짐작했는지 어느날 부엌에서 일하던 며느리 생금이가 몰래 다가와 이렇게 물었다.

《거게 가문 애아버지두 만날수 있지 않는가베?》

《그럼 찾을수 있을거예요.》 하고 은하는 자신있는 어조로 말했다. 《꼭 찾아보겠어요.》

《정말 그렇게 했으문!…》

《애아버지 이름을 류문기라고 했던가요?》

생금이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다음 급히 고리짝을 열어 광목천에 싼 수첩을 꺼내였다.

《이보이소. 애아버지 사진!》

낡은 철도모자를 비뚜름히 쓴 스물두셋에 났을 청년이 빙그레 웃음을 띠우고 은하를 쳐다보고있었다. 목이 쑥 빠진데다가 턱까지 긴 그의 얼굴은 쾌활해보였고 가느다랗게 쪼프린 두눈에서는 그 어떤 악의없는 조롱이 번뜩이고있었다.

《내 잘 봐둘게. 이제 꼭 만나게 될거예요. 그때 내 잊지 않고 편지하겠어요.》

《에그 창피하게. 나같은 촌뿍디기한테 다 체부가 올락꼬.》

은하가 다시금 전선을 넘어서기 위하여 류할배의 집을 나선 그날 령남지방에서는 세번째로 성긴 눈발이 바람에 흩날리고있었다.…

련대장은 지도의 한점, 원소마을에 계속 동그라미를 그리고있

었다. 과묵한 그의 얼굴에 한줄기 고통스러운 전률이 스쳐지나는것처럼 은하에게는 보였다.

《음… 류문기！》

동그라미는 점점 더 커지더니 나중엔 하나의 커다란 붉은 원으로 많은 지역을 뒤덮어버렸다.

《잘 싸운 동무였소.》

부지불식간에 은하는 숨을 죽였다.

《그럼？…》

《그 동문 포탄창고습격전투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그만… 희생되였소.》

순간 은하는 목구멍이 꽉 메이는것을 느꼈다. 류문기라는 그 전사는 비록 사진에서 한번 낯을 익혔지만 그의 이름은 류할배며 생금이의 정든 얼굴과 그들의 희망과 기쁨과 소중한 추억으로써 은하의 마음속에 자리잡고있은것이였다.

《이보이소, 애아버지 사진！…》

별안간 생금이의 그 목소리며 그 눈빛에 들어있던 소박한 자랑과 애절한 그리움이 눈물겹게 떠올랐다. 그리고 자식을 기다리던 아버지, 먼 포성에도 가슴을 조이며 전선으로 떠나간 아들과 남편의 신상을 념려하던 그들의 모습도 가슴저미게 안겨오는것이였다.

은하는 련대장이 무슨 말인가 물었을 때에야 머리를 들었다.

《？…》

《아들이 있는가고 물었소. 문기동무에게 아들이 있던가고말이요.》

《아들이라니요？》

《그럼 없소？》

《아니, 있습니다. 젖먹이가… 헌데… 딸입니다, 련대장동지.》

《…》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동문》 하고 련대장은 이윽고 입을 열었다. 《희생되는 마지막순간 자기 중대장에게 아들의 이름을 남기고 갔소. 남해라고！… 그는 이렇게 남녘해방의 념원을 그 이름으로 남겼소.》

쓰라린 아픔이 은하의 가슴을 찔렀다. 허나 그것은 숨막히는 비애나 비통한 슬픔만이 아닌 무엇인가 강렬한 충동을 불러일으키

는 경건한 아픔이였다.

오래 계속된 침묵끝에 마침내 련대장은 지도우에 연필을 놓았다.

《은하동무,이제 가게 되면 전사한 류문기동무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이름을 전해주시오. 그의 중대의 이름으로 그리고 련대의 이름으로… 남해라는 그 이름은 아마 딸애에게도 꼭 맞을거요. 그 앤 우리 제2전선련합부대의 딸이요.》

은하는 자기의 흥분을 억제할길 없어 저도 모르게 불쑥 물었다.

《련대장동지,우리는 그 마을에 언제 가게 됩니까？…》

《…》

다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은하는 자기가 한 철부지처럼 쓸데없는 질문을 했다는 자책으로 입술을 꼭 옥물었다.

《은하동무.》 마침내 련대장은 평소의 묵직한 어조로 말을 떼였다. 《우리는 그 마을에 먼저 동무를 보내려 하오.》

《예？ 저를말입니까？》

은하가 저도 모르게 허리를 펴고 일어서려는것을 련대장은 손짓으로 제지했다.

《그렇소. 동무를 보내려 하오. 그러나 이건 어려운 임무요. 동무는 이제부터 해방지구에서가 아니라 적들의 통치구역에서 정치공작대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오. 다시말하면 동문 사람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묶어세워 우리의 투쟁을 적극 성원해나서도록 해야 하오.》

은하는 련대장의 말 한마디한마디를 귀담아듣고 새기고있었다.

《그리고 동문 철도에 선을 뻗쳐 놈들의 병력과 군수물자의 수송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해야 하오. 정찰병들의 활동과 함께 동무를 이 사업에 인입하려는것은 다름아니라 적들의 철도기관내에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지자는거요. 어떻소,감당해낼수 있겠소？》

《해보겠습니다！》 하고 은하는 조용히 입을 열었으나 즉석에서 머리를 곧추 들며 말을 고쳤다. 《알았습니다,련대장동지！》

은하는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련대장의 주의깊은 시선을 주저없이 마주보았다. 그러나 그는 지금 련대장이 멀고도 험한 길을 허위단심 헤쳐온 그를 적들이 살판치는곳으로 다시 보내기를 얼마나 마음 쓰려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끝으로 련대장은 부대가 수행하게 될 임무와 조성된 정황 등을 요약하면서 이제 피어린 결사전이 있으리라는것, 그것을 앞당기는데서 은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몫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말해주었다.

《우린 어떻게 하던지 놈들의 정예부대들을 우리와의 결투에 끌어내자는거요. 코뚜레를 꿰듯이 끌어당겨서 결사전을 벌리자는거요.》

군사적관례에 의하면 임무의 료해가 끝난 즉시 명령을 주어 떠나보내면 되겠으나 련대장은 또 한동안 시간을 지체하였다. 은하는 련대장의 그 심중이 리해되였다. 무엇인가 못다한것이 있는듯싶어 은근히 윈심을 쓰고있는 그가 고마왔다.

《련대장동지, 그럼 떠나겠습니다.》

《믿겠소.》 은하의 두손을 힘있게 잡으며 그는 말했다. 《수고하시오!…》

이렇게 정치공작대원인 은하는 남녘해방의 지름길을 개척하는 한 전사로서 적후에서 더 깊은 적구로 떠나게 되였다.

3

아침까지 개울의 물웅뎅이를 덮고있던 살얼음이 뿌적뿌적 신음소리를 지르며 꺼져내리고 전나무가지에 하얗게 불려있던 성에들도 가뭇없이 사라졌다. 이틀째나 해볕은 상냥스러운 미소로 눈더미를 녹여버렸다. 그리하여 두터운 흰눈의 포단속에 드러누웠던 마른 풀줄기들은 다시금 거뭇거뭇하게 드러난 땅바닥우로 엉거주춤 허리를 펴며 술렁술렁 바람이 부는대로 휘친거렸다.

겨울치고는 류달리 잠풍한 날씨였다. 어느덧 태양이 산봉우리우로 떠오르고 하늘이 높다랗게 치받쳐오르자 숲속을 빠금히 들여다보던 여우볕은 살얼음을 뚫고 솟구쳐오르는 개울물에도 상냥한 미소를 던졌는데 이무렵 찌그덕찌그덕 하는 굴대소리와 밤추위에 얼어붙은 땅을 투덕투덕 구르는 말발통소리가 숲속의 발구길을 따라 가까와왔다. 눈더미와 진흙덩어리들을 버석버석 한데 짓뭉개면서 말발구 하나가 미끄러져오는것이였다.

고삐를 잡은 사람은 세상풍파를 다 맞은듯 얼굴이 꺼멓게 탄 8중대취사원 김만복이였고 그뒤에 북데기를 깔고 다소곳이 앉아 있는것은 은하였다.

험한 발구길은 숲을 끼고 굽이굽이 돌아갔다. 길이라기보다는 보통의 산기슭이여서 말라죽은 엉겅퀴들이 덤불을 이루고있었다.

삐걱거리는 발구우에 앉아 따스한 해별을 쪼이면서 은하는 련대장이 준 임무며 다시 만나게 된 류할배일가에 대하여 생각하고있었다. 그 집을 떠난지 비록 얼마되지 않건만 오랜 세월이 흘러간듯 싶었다.

문득 어데선가 찌르륵! 하는 소리에 이어 날개를 세차게 퍼덕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알수 없는 불안에 은하는 몸을 옹송그렸다.

《안심하시우. 여긴 완전히 우리 부대 위수구역입지요.》

늙수그레한 마사원(어제까지는 취사원이였다고 한다.)이 고개를 돌려 은하를 위로했다. 맘씨 후한 그의 념려에 대하여 은하는 가벼운 미소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다시금 나이든 병사의 어깨에서는 기다란 보총이 가락맞게 흔들거렸으며 고요한 숲속에서는 무사태평한 침묵이 권태롭게 갈앉기 시작했다.

《허—이놈의 말이 영 늑장을 부리는걸? … 쩌!… 빌어먹을것 같으니.》

그는 전혀 서둘지 않으면서도 걸음이 늦는탓을 말에게 돌리는것이였다.

《잔뜩 늘어빠진게 쓸모가 없는놈이라우. 〈반유격대대〉놈들이 어찌나 혹사했던지 페물이 됐다니까요.》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을듯하나 몹시 걸늙어보이는 그의 얼굴에서 특히 놀라운것은 얼굴을 전부 덮고있는 주름살들이였다. 거무스레한 그 얼굴에 줄곧 느슨한 미소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마도 좀 무서워보일것이였다.

은하는 다시금 머리를 한쪽으로 숙일사하고 앉아 따스한 볕을 즐겼다. 찔광이,살맹이의 가시발을 넘어 소나무들이 빼곡 들어찬 숲속에서 흰옷입은 봇나무 몇그루가 고요히 명상에 잠겨 대낮의 행인들을 묵묵히 바래고있었다. 길녘을 따라 굽이쳐간 개천의 음달진곳에서는 독기품은 살얼음이 번뜩이고 잡관목이 제멋대로 뒤엉킨

덤불속에서는 꾸구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발밑에서는 눈석임물이 고여있는 웅뎅이며 짓이겨진 마른 풀줄기들이 끊임없이 흘러갔다. 문득 은하는 해여진 신발틈바귀로 비죽이 내밀려있는 풀줄기를 발견하자 그것을 잡아당겼는데 한뽐이나 실히 되는 속새풀이 신발창에서 끌려나왔다.

맥빠진 말의 잔등에서 비릿한 땀냄새가 흘러왔다. 잊을수 없는 지난 가을에 은하는 포병전사들과 같이 이틀간의 행군길에서 그 냄새에 습관되였었다.

숲은 점차 설피여지고 구름나무의 검은 가지들이 굴대에 끼워부러졌다.

《먼길을 가야 할텐데 좀 눈을 붙이시우.》

아바이전사의 정중한 권고였다. 은하는 부지중 미소를 그리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바이전사는 또 입을 열었다.

《참, 일두 별나게 됐지. 내가 중대를 떠나 말발구를 몰게 되리라군 통 짐작두 못했수다.》

김만복은 늘어빠진 말과 고적한 숲을 끼고가는 이 느린 걸음에 어지간히 갑갑해졌던 모양으로 이야기가 시작된것을 몹시 기뻐하는 눈치였다. 은하는 그의 마음을 짐작하고 넌지시 물었다.

《어떻게 돼서 중대를 떠났어요?》

《일이 그렇게 됐습지요. 우리가 〈반유격대대〉놈들을 추격했는데 그 악당들이 바빠맞게 되니까 이 발구들을 다 줴버리구 도망쳤지요. 우리가 길이란 길은 다 차단하니까 산으로 뛴거라우. 그런데 발구마다 별의별게 다 있지 않겠소. 무기, 탄약, 쌀, 군복… 게다가 략탈한 물건들도 많았구요. 그때 중대장동무가 날더러 말합디다. 〈만복동무, 우린 놈들을 계속 추격해야겠으니 여기 이것들을 다 처리하시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마을사람들에게 나눠줄건 주고 부대에 보낼건 따로 발구에 실어가는데 그걸 바루 내가 하라지요. 혼자서 마을사람들두 다 돌봐야 한다면서 부대에 전리품두 보내래니 참… 난 그저 어리둥절해 있는데 중대장동문 이렇게 말합디다. 〈이건 책임적인 일이요. 그럼 만복동물 믿고 우린 가겠소!〉… 그렇게 된 일이지요. 그런데 부대에선 또 련대장동지가 그 비슷한 말을 합디다. 〈만복동무, 책임적인 일이요. 적후공작을 맡은 녀성동무를 잘 돌보시오. 이 일은 전적으로 만복동무에

게 달려있소!〉 이러더군요.》
《돌보다니요?》 은하는 웃었다. 《제가 뭐 어린앤가요?》
《련대장동지가 걱정합디다. 부대를 떠나 혼자서 싸우는데 어떻게 하나 내가 잘 도우라나요.》
잠시 침묵한 끝에 또 말을 이었다.
《이제 녀성동무한테 날쌘 련락원이 또 붙는다나봅디다. 내야 오고갈 때 지휘부까지 무사히 데려다주는게 일입지요. 지휘부가 자꾸 이동하니까요.》
《그래서 이 발구도 필요했군요?》
《그럼은요. 바쁠 때에야 이런 발구도 단단히 한몫 합지요.》
은하는 웃으며 그런걸 자기는 날파람있는 정찰병들과 자주 만나게 되는줄만 알았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바이전사도 따라 웃었다.
《그럼 나를 정찰병으로 아시구려.》 하면서 김만복은 팔꿈치를 들고 언제 붙었는지 알수 없는 달락개비를 쥐여뜯으며 자기가 일생에 얼마나 많은 직업을 가졌는가를 꼽아가면서 은하를 놀라게 했다.
《군대에 나와서만두 벌써 네번째 직무라오. 어제는 공병, 취사원에다 오늘은 마사원, 래일은 정찰병!… 허허… 하긴 우리 중대장동무 말이 나에겐 만가지 복이 있는가 하면 만가지 재간두 다 있은즉 뭐 학문상으로 하는 말루 〈백과전서〉라나요.》
그는 한손에 고삐를 감아쥐였다. 이제는 느릿한 걸음이나마 재촉하고싶지 않은때문일것이다.
《말이 그렇지 내까짓게 무슨 정찰병이겠소. 그저 뒤받침이나 하는게지. … 우리 중대장동물 보자니 정찰병두 그쯤 돼야 할가봅디다. 하긴 사단에서도 소문난 정찰병이니까.》
《정찰병?… 그 중대장동무가 정찰병이였어요?》
《그럼은요. 아니 그런데… 아직 그것두 모르시오?》
무엇때문에 아바이전사가 고개를 돌리며 의아스레 바라보는지 아직 단정할수 없었으므로 은하는 시치미를 떼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제가 어떻게… 그것까지 다 알수 있겠나요.》
《원 저런!》
김만복은 혀를 끌끌 찼다.

《그런 말두 안하구 그럼 무슨 얘길 한담. 참 중대장동무두…》
비로소 이 아바이전사 역시 모든것을 (그렇다. 모든것을!) 알고있다는것을 깨닫자 은하는 부지불식간에 눈을 감으며 소리없는 웃음속에 입술을 꼭 물었다.
찌그덕찌그덕 발구채에서 울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니 성냥긋는 소리가 났다. 눈을 치떠보니 아바이가 담배불을 붙이는것이였다.
길건너 숲변두리에서는 겨울철의 유난스레 상냥한 해볕을 더 많이 쪼이려고 미끈하게 자란 나무가지들이 키돋움하며 솟아올랐다. 그 한들거리는 우듬지 한끝에서 새 한마리가 꽁지를 달싹거리며 보이지 않는 다른 짝패들과 숨박곡질을 하는 모양으로 들까불고있었다.
담배연기를 느물느물 뿜어올리며 아바이전사가 은근하게 말했다.
《온 중대가 다 알고있지요.》
《…》
《얼마전엔 우리 중대장동무한테 보낸 녀성동무의 편지를 받구 다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우다. …》
잠시 말없이 있었다. 은하는 주름살들이 가득 잡혀있는 이 작달막하고 텁텁한 아바이전사를 눈여겨보면서 지난날 별로 인상을 크게 받지 못했던 그의 이웃집아저씨를 생각했다. 아침 일찍 마당을 쓸고 울타리 어덴가를 고쳐 손질하고 은하가 학교에 나갈 때면 점심곽을 끼고 나서던 그 사람도 정작 속을 터놓고 마주앉으면 얼마나 훌륭했으랴!…
《사람들이 군복을 입게 되면 또 달라진다우.》
마치도 은하의 마음속 생각을 읽기라도 한듯이 아바이전사는 또 말을 꺼냈는데 극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생각해낸 모양이였다.
《사랑을 소중하게 여길줄 알게 되거던요. 전쟁판에 나와보면 옛날에 하찮게 여기던 일들까지 다 얼마나 귀한것이겠소.》
은하는 두무릎을 깍지껴 안으며 아바이를 향해 돌아앉았다.
《내 한가지 얘길 할가요?》
《예, 어서 하세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때 일이였지요. 그게 우리 부대가 소양강을 건너간 날 밤이였으니까 아마 10월 열이렌가 되겠수다.》
고삐를 풀고 또 고삐를 감아쥐며 김만복은 자기의 이야기를 엮

어나갔다.

《깊은 밤이였지요. 천리길을 헤쳐오느라고 다들 지친 몸들이여서 마을에 들자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에 곯아떨어졌다우. 그날 우린 기본부대와 만났거던요. 그런데 한밤중에… 아마 그게 첫닭이 울기전인가본데… 글쎄 우리가 든 집문을 누군가 두드리는게 아니겠수. 나이 많은 내가 먼저 깨여났지요. 〈게 뉘시우?〉 하고 물었수다. 했더니 웬 녀자의 목소리가 딱한 일이 있어 그러는데 말좀 물읍시다 합디다. 아닌밤중에 군대들이 자는 집을 녀자가 찾아와 두드릴적엔 무슨 곡절이 있는게 아니겠수. 그래 나가봤지요. 헌데 퇴마루앞에 서있는 사람은 군대체네였다우. 상사였는데 그때엔 보기드문 옷차림으루 아주 깨끗한 군복이라는게 알립디다. 적십자완장두 새것이구요.

〈상사동무, 누굴 찾으시우. 아니면 무슨 청할 일이 있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동무 하는 말이 새로 도착한 부대에 리호석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런 말이 있기에 찾아왔노라지 않겠수. 리호석이라… 생각했지요. 그때루 말하면 별의별 일로 부대와 떨어졌던 사람들이 다 있었지요. 그러니 새로 들어온 우리 부대에서만도 자기 중대 사람이나 겨우 알 정도였으니 그걸 어떻게 압니까.

〈도대체 무슨 연고루 이 밤중에 찾아나섰소? 필시 꼭 만나야 할 일이 있긴 한가분데 상사동무와는 어떻게 되시는가요?〉 하고 물었더니 인차 대답을 못합디다.

〈안됐소만 좀 자세히 말해주시우. 꼭 찾아야 하는가요?〉

또 물었수다. 그랬더니 주먹을 입에 대고 깨물다가 겨우 하는 말이 리호석이란 그 사람이 약혼한 사이라지 않겠소. 누군가 그런 이름을 부르는걸 들었는데 생김생김을 물어보니 비슷하드라지 않수. 자기는 새벽으로 군의소와 함께 떠나야 할 사정이니 어떻게 미안하지만 아바이가 꼭 찾도록 힘써주십시오— 하지 않겠소. 참 이런 변이라구야. 그 밤중에 어델 가서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을 찾는단말이요. 그렇다고 딱한 사정을 들이대는 그 체네앞에서 모르쇠를 하지도 못하겠구… 그래 방안에 들어와 동무들을 깨웠지요. 일어날게 뭡니까. 모두 죽도록 피곤했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먼길을 걸어왔겠소. 밤낮없이 싸우면서 변변히 잠도 못자봤으니 부대를 만난김에 노그라졌지요. 팔을 뽑아가도 모를 지경이

였수다. …》
이야기가 끊어진것은 담배불이 꺼진때문이였다. 엎어진김에 쉬여간다고 마사원은 주머니에서 담배쌈지를 꺼내여 불꺼진 담배를 풀고 거기에 엽초를 더 섞어 큼직하게 새로 말았다. 둘둘 감은 종이에 침을 바르고 천천히 성냥불을 켜든 다음 입에 물고 불을 붙이도록 기다릴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그 이야기의 전말을 빨리 알고싶은 초조감이 은하를 휘여잡았다. 찌그덕―찌그덕―
발구채의 단조로운 신음소리도 이제는 귀찮게 들렸다. 마침내 물씬！ 연기를 내뿜었다. 후유！― 담배맛이라는게 그리도 구수할가？…
《한참만에야 투덜거리는 사람들을 깨워놓구 사정을 말했지요. 그랬더니 아―글쎄 어쨌는지 압니까. 콩나물처럼 빼곡빼곡 들어차 누웠던 사람들이 하나둘 련달아 일어났수다. 미처 한마디가 끝날새 없이 또 묻고 또 대답을 곱씹느라구 한동안 걸렸지요. 그담엔 다들 문을 열고 그 체네더러 이것저것 물어도 보고 안심시키기두 하면서 법석댑디다.
〈상사동무, 걱정마시우.〉
〈간호원동무, 우리 같이 찾아봅시다.〉 참 사람들이란… 얼마나 좋은 동무들이겠소. 생판 낯모르는 사람을 찾겠다고 온 동네집 문을 다 두들겨대우다. 그러다보니 또 숱한 사람들을 깨웠지요. 처음엔 경보신호나 해서 뛰여일어났다가도 짜증을 내고 불평을 부리더니… 정작 그 녀성동무를 보고는 다들 말없이 일어나 저마끔 돌아다니며 리호석, 리호석하고 떠드는것이였지요. 일이 이쯤 되니 그 동문 나를 붙잡고 사정합디다. 제발 잘못했으니 이젠 다들 자게 해달라는거지요. 허허… 첨엔 이야길 듣고 너무 반가운김에 정신없이 뛰여온게니 제발 그만두게 해달라더군요. 그렇지만 일이야 벌어진걸 낸들 어떡헙니까. 그래 〈잠자코 있으시우. 저 사람들두 다 생각이 있어서 뛰여다니질 않소.〉하고 말해줬지요.
온 마을을 다 깨워놨수다. 한개중대도 넘는 전사들이 아직도 리호석이란 사람을 찾지요. 허허… 끝내는 그 사람을 붙잡아냈수다. 아직 잠도 채 깨지 않은 그 사람을 붙잡구 막 밀려오는데… 참 그때 일을 생각하문…》
또다시 죽어버릴번한 담배불을 있는 힘을 다해 빠는것 같았다.

파르스름한 연기가 몇번씩이나 물씬물씬 나오더니 바람에 날려 흩어졌다. 마사원은 구수한 담배연기와 함께 지나간 추억의 뜻깊은 감회를 가슴 가득히 들여마시는것이였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간호원동문요.》

은하는 이야기의 계속을 꼬드겼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사람이 아니였지요. 붙들어온 사람인즉 이제 스무살난 총각이였수다.》

《？！…》

《간호원동문 얼굴을 싸쥐고 울더군요. 참 그땐 또 얼마나 마음이 이상하던지… 우리 남정들끼리도 마주보기가 민망해지더라니까요. 가슴은 또 왜 그리 쓰리던지… 원 참！…》

은하도 깊은 한숨을 내쉬였다. 돌변한 이야기는 그의 마음도 저리게 하였다.

《그때 리호석이라고 이름이 같은 친구가 참다못해 말을 뗐지요. 〈상사동무,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승리하고 꼭 만나게 될겝니다.〉 했더니 그 동문 더 크게 울겠지요. 차… 일이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애당초 찾지나 말걸… 하는 생각이 다 나겠지요. 헌데 그 동무가 갑자기 눈물을 씻으며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아는가, 이렇게 훌륭한 동무들과 지금 그 사람도 싸우고있겠거니 생각하니 그저 눈물이 나도록 기쁘고 행복하다는겝니다. 정말 고마와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운 동무들！… 그리고는 또 웁니다. … 그렇게 날이 밝았수다. 그 동무가 인사를 하고 떠날적엔 숱한 전사들이 배웅했지요. … 우리 전사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우. …》

《이웃집 아저씨》의 이야기는 총멘 전사들의 심중에 간직되여있는 그 살틀하고도 열렬한 정신— 그들이 《인민의 조국을 지키자 목숨으로 지키자》 하고 목청껏 부르는 노래에서 소박하게 표현하고있는 불꽃같은 정신에 대한것이였다.

다시금 은하는 마지막 결사전을 앞둔 중대에서 그와 함께 떠났던 어린 전사— 모터찌클을 몰고 다시는 찾지 못할수도 있는 중대를 찾아 스스럼없이 달려가던 그 전사며 무뚝뚝한 포장 그리고 류성우와 그의 중대에서 만났던 전사들을 생각하였다. 그들은 다같이 별로 뛰여나지도 못했지만 굳센 정의감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할줄 아

는 진실한 사람들이였다. 뜨겁게 사랑할줄 알기에 무섭게 증오할줄 아는 사람들이였다.

찌그덕, 찌그덕… 발구는 여전히 단조로운 푸념소리를 내며 미끄러져갔다.

김만복도 은하가 생각에 잠겨있는것을 보고 방해할 생각이 없었던지 비스듬히 돌아앉아 지금까지 엮어놓았던 그 이야기처럼 손에 팽팽히 감은 고삐를 천천히 풀었다.

4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은하는 생각에 잠겼다. 그의 가슴속에서도 무엇인가 팽팽히 엮어두었던 은밀한 사연이 소리없이 풀리는듯 하였다.

《성우동무, 우리가 만난건 어제 일이였군요. 불과 하루전인…》

마치도 상봉의 그 순간엔 너무도 충격이 커서 뒤늦게야 가슴속에 엮어두었던 은밀한 사연을 하나하나 풀어보는듯한 심정이였다.

《참 뜻밖이였어요, 성우동무. 처음엔 금시 심장이 멎는것 같더군요.》

그러나 그것은 유정한 공상으로 그려보던 그 상봉과는 웬일인지 너무도 판이한것만 같았다. 그것이 너무 돌발적이고 어찌면 맹랑하게 끝나버린 일이여서 마치 그 누군가 먼 후날에 있게 될 상봉의 시간을 앞당기려 력서의 날들을 찢어던진것과도 같았다.

《이 동문 우리 군의소에 있습니다.》

동굴벽에 기대여선 은하를 막아나서며 새해에 잡혀 겨우 17살이 되는 숙경이가 헌신적으로 보호해나섰던 그때로부터 은하는 많은것을 기억해내지 못한다. 전사들과 어우러져 개울 저쪽에서 깔깔 웃어대는 숙경이의 류달리 쨍쨍한 목소리를 분간해들었을 때 벌써 성우는 그의앞에 와있었다.

《은하！》

《성우동무！》

아마 그것도 그의 마음속에서만 울린 목소리일는지도 모른다.

누가 먼저 나섰고 누가 먼저 손을 잡았던지 아무리 해도 그것 역시 기억해낼수 없다.

《난 알았소. 이렇게… 이렇게 만나리라는걸…》

무엇을 어떻게 알았다는것일가. 바로 그 동굴속에서 은하 자기가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있는줄 미리 알고 달려왔다는 말일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참 그동안이면 반년나마 되는데 얼마나 고생했소？》

날이 밝았다. 웬일인지 눈송이들도 숨죽여 내리는듯하였다. 은하는 성우의 어깨우에, 그의 군모우에 눈이 한벌 덮여있는것을 보았다.

《얼마전에야 난 편지를 받았소. 동무가 정치공작대로 떠나기전에 쓴 편지말이요.》

《그래요？》

비로소 은하는 입을 열었다.

《정치공작대로 나왔다가 그만… 병에 걸려 앓다보니 전선은 멀리 옮겨갔더군요.》

은하는 고개를 돌렸다. 한손으로 흐트러진 앞머리를 쓸어올리고 그만 불시로 치미는 격정에 입술을 옥물었다.

《왜 그러오？》

《안예요.》 하고 은하는 다급히 속삭이였다. 《아무것도 안예요.》

다음 순간 은하는 처음으로 성우를 그리고 그의 찌르는듯한 눈길을 주저없이 마주보았다. 역시 그 순간 은하는 깨달았다. 아니다！ 기대했던것은 다만 지금까지 은하가 머리속에서만 그려보고 상상했던 모습일뿐이였다. 검실검실한 얼굴… 더욱 날카로와진, 그때문에 사납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이 젊은 군관을 전날의 광산민청지도원이나 대학생과 비할수는 없는것이였다. 찌르는듯한 그 눈길이 다소 불손하게 느껴질 정도로 거침없이 자기를 쏘아보았을 때 다시는 그를 잠든 동생을 들여다보듯할수 없으리라고 은하는 생각했었다.

《왜 웃소？》

《무척 변했군요.》

《동무도 그렇소.》

《몹시요？》

《응.》

지금의 은하로서는 그 말이, 몹시 변했다는 그 말이 어느정도 마음에 들었다. 물론 그때엔 약간 놀랐지만…

아마도 그는 은하를 자기가 알고있는 훌륭한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게 상상했을는지 모른다. 왜냐면 은하 자기가 그에 대하여 그렇게 그려보았던것이다.

사실 자기의 애인이 훌륭한 천품이나 비상한 두뇌 아니면 억센 기질이거나 하다못해 착한 마음씨라도 가지고있다고 믿지 않는 처녀가 어데 있으랴. 무엇인가 남보다 더 훌륭하고 더 굳세고 더 인정깊은 면을 찾아내며 조금이라도 남보다 두드러진것을 발견하는데서 애정어린 처녀의 눈이상 더 밝고 더 용의주도하고 더 정확한것이 어데 있으랴. 게다가 멀리 떨어져있거나 오래동안 헤여져있는 사람을 그릴 때면 실지 있는것보다 더 많은것을 덧붙여 상상하며 그렇게 믿는 법이다.

그러나 은하는 자기가 상상했던바와는 전혀 다른 보통의 수수하고 극히 평범한 군복입은 사람을 보게 되였고 그리하여 처음엔 뜨아해하고 어리둥절했으나 다음 순간엔 그가 아무런 특별한 면도 없고 남보다 더 두드러져보이지도 않는다는 그것으로 하여 웬일인지 안도감을 느꼈고 지어 기뻐하기까지 하였던것이다. 아마도 준엄한 전쟁은 오직 하나의 론리 즉 진실과 정의만을 인정하는 모양이다. 그것은 지어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랑의 상상이 씌워놓은 허물마저도 서슴없이 벗겨버리며 그 진정한 인간의 진속만을 드러내보이는것이다.

《부대에 온지는 오랬소?》

또다시 성우가 묻는 말이였다.

《안요. 오늘까지 엿새째예요.》

또다시 침묵… 별안간 은하는 그 어떤 비상한 사건이라도 회상해낸것처럼 마음이 개운해지고 즐거워짐을 느꼈다. 그는 성우가 몹시 놀랬으리만큼 스스럼 없는 목소리로 주저없이 말을 꺼냈다.

《참, 이런 일이 생각나는군요. 전쟁이 일어난 얼마후였어요. 대학당위원회결정으로 전선수송을 보장하기 위한 선전공작에 나간 일이 있었죠. 그때 난 어느 탄광엘 갔는데 이틀후에야 오게 되지 않았겠어요. 헌데… 성우동무, 그날 내가 탄 기차가 전선으로 나가는 군용렬차와 어느 역에서 어기게 됐지요. 그런데 참 어쩌면 신

통히도 꼭같은지… 글쎄 승강대를 잡고 가는 한사람이 꼭 성우동무와 갈질 않겠어요.》

《나였을수도 있지, 그래서？》

《그래 수건을 흔들며 막 소리쳤죠. 그런데도 동문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버리더군요.》

《그럼 내가 아니였구만.》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스스럼없이 웃으며 천천히 경사지를 내려갔다. 어깨가 맞대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두손이 마주치지 않도록 저어하는 조심스러운 걸음이였다.

《왜 아무 말도 안하세요？》

이번엔 은하가 물었다.

《나도 한가지 일을 생각했소.》

문득 그는 걸음을 멈추고 빙그레 웃는 얼굴로 은하를 바라보았다. 허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건대 그 얼굴엔 야릇한 미소가, 마치도 쑥스럽거나 면구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와 같은 미소가 어려있었던듯 은하에게는 생각되였다.

《어서 얘기해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건말이요…》

선뜻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였다. 그는 머밋머밋 갑자르더니 다시금 야릇한 미소를 입가에 그렸다.

《내가 생각한건 전쟁이 일어나기 며칠전의 일이요. 〈후보선수〉 신세를 면한다면서 발길을 끊은 다음… 그렇지. 그담… 대엿새 지났을가… 참, 어처구니없는 일두 많았지. … 그날 난 동무를 만나 이러 저런 일들은 아예 없었던것처럼 하려구 작정했소. 그래서 찾아갔지… 헌데…》

《…》

《왜 가만있소？》

《전 듣구있어요.》

《그런데… 저녁때였는데… 문득 난 동무가 소비조합상점앞에서 누굴 기다리는걸 보지 않았겠소. …》

별안간 성우는 갑절이나 체중이 무거워졌는지 안타까울 지경으로 못박혀버렸다. 참다못해 은하가 물었다.

《그래서요？》

《그담… 보기드문 옷차림을 한 웬 젊은이가 와서 둘이… 나란히… 가더구만. 난…》

《그래 동문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긴? 바보처럼 멍청하니 서있었지.》

《아니,뭐라구요?…》 하고 은하는 부르짖었다. 《그래 소리쳐부르지도 않았단말예요?》

《소리치다니?》 하고 성우는 자기를 과장하여 놀랜 표정을 했다. 《뭐라고 소리친단말이요? 다정하게 웃으며 걸어가는 저 두사람을 붙잡아주오!— 하고 소리치란말이요? 그러지 않으면 은하동무 가지 마오! 하란말이요?》

《그만하세요!》

은하는 그가 갑자기 발길을 끊어버린 이후 그렇듯 영영 되돌아서지 않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전쟁전의 일들을 쓸쓸히 회상했다. 그리고 류성우가 비록 롱조로 말하고있긴 하지만 남달리 자존심이 강한 그로서 그러한 일을 겪은후 영영 침묵해버린것은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라는것도 생각했다.

《그때엔 말못하고 이제 와서야 묻고있군요.》

《그렇소.》

《그때하고 지금은 왜 사정이 다른가요?》

《지금은… 전쟁이 아니요?!》

《…》

은하는 잠자코 생각에 잠겼다. 전쟁!… 그것은 모든 개인적이고 사말적인것들을 거대한 사변의 회오리바람으로 흩날려버리는것이다. 그것은 용암처럼 끓어번지는 그 불도가니속에 속되고 자질구레한것들을 깡그리 태워서 날려버리는것이였다. 류혈과 상실의 아픔에 비해볼 때 그리고 가슴에 사무친 원한과 피타는 증오에 비해볼 때 그 모든것들이야말로 얼마나 보잘나위 없고 하찮은것들이랴.…

《그런 일이 있은것 같애요.》

은하는 눈을 함뿍 떠이고 조심스럽게 가지를 수그러뜨린 떨기나무를 다칠가봐 조금 비켜섰다.

《그때쯤 해서 외국에서 금방 돌아온 4촌오빠와 같이 시내구경을 돌았어요. 그날 4촌오빤 어머니한테서 무슨 얘긴지 듣고 자꾸만 동물 한번 만나보자고 조르지 않겠나요. 남의 딱한 사정은 알지도 못

하구. …》
은하는 입을 다물었다. 웬일인지 성우의 두눈이 자못 심각해졌음을 발견한때문이였다. 은하는 재빨리 물었다.
《왜 그래요?》
잠시후에야 성우는 속삭임같은 음성으로, 그러나 매우 심각한 어조로 얼굴을 찌프리며 말했다.
《은하, 난… 몹시도 이날을 기다려왔소.》
《…》
은하는 고개를 수그렸다. 머리우에서 떨어진 눈송이들이 목덜미에서 서서히 녹아내렸지만 그는 숨을 죽인채 까딱않고있었다. 그는 자기 역시 그 말을 하고싶었다는것을 깨달았으며 그리고 무엇인가 좀더 의미깊은 말을 나누고싶었다는것을 부지중 생각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온것은 저로서도 뜻밖의 말이였다.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을 했던지…》
그것이 은하, 자기의 생각을 두고 한 말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류성우는 잠자코 있었다. 여전히 고개를 수그린채 은하는 생각하였다. 분명 이러한 상봉의 날에 하게 될 말들은 여분의것까지도 죄다 생각해두었었다. 허나 그게 무엇이였을가? 무슨 말이였을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별안간 은하는 류성우가 무엇인지 물은것처럼 느껴졌다.
《예?!…》
머리를 들자 류성우의 주의깊은, 심각하고도 부드러운 눈빛과 마주쳤다. 순간 은하는 그가 아무것도 묻지 않았거니와 또 많은것을 묻기도 했는데 그것은 단지 뜨거운 숨결로만 전달되는 물음과 대답이였다는것을 알았다.
《…》
《…》
이번에는 무척 오랜 침묵이 흐른끝에 서로 약속이나 한듯 뜨직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발걸음소리는 눈속에 묻혀버렸다. 눈, 눈… 발뚝에 남아있던 거뭇거뭇한 땅들도 죄다 흰눈속에 가리워졌고 가느다란 나무줄기들도 무겁게 눈을 들쓴채 고즈넉한 정적속에 취한듯 잠겨있었다.
그들은 얼어붙은 개울을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그때 불현듯 눈

덮인 얼음우에서 미츠러지며 은하는 약간 비틀거렸다. 어느새 성우가 그를 재빨리 부축했는데 은하로서도 겁을 집어먹을만큼 무던히도 뜨거운 손으로 어깨를 꽉 움켜잡은것이였다.

심장이 흠칫 떨렸다. 뜨거운 입김이 그에게 퍼부어졌다. 다음 순간 은하는 세차게 울리는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은것처럼 여겨졌고 그 시각 무엇보다 필요한것은 그 어떤 정겨운 속삭임이나 약속이 아니라 지난 수개월동안 그들의 심장이 쉬임없이 울려온 그 고동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것뿐이라는것을 깨달았다. 심장의 고동소리만이 그 눈덮인 세계에 울리는 유일한 음향이였다.

《은하！》

《예？！》

겁먹은 시선으로 별안간 낯설게 느껴지는 성우를 쳐다보면서 은하는 무딘 칼날에 찔리운듯 가슴이 저려드는것을 느꼈다. 그러자 그 아픔과 숨막히는 고통을 가져온 한순간의 침묵에 형언할길 없는 위구를 느꼈고 그것을 단 한마디의 평범한 말로 깡그리 부셔버리고 싶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망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부여잡은 그 뜨거운 손의 감촉이며 가슴의 압박으로 목이 칵 메인채 혀가 굳어져버리는것이 참을수 없게 느껴졌다.

《이러지 마세요！》

…눈에 뒤덮인 밭뚝이며 달구지길 그리고 개울가의 버들숲들이 점차 선명하게 드러나보였다.

또다시 침묵… 은하는 가까스로 숨을 몰아쉬였다. 왜 이럴가. 무엇때문일가？… 아무 말이나 해주었으면！ 아무 말이나！…

별안간 은하는 와뜰 놀랬다. 두려울 지경으로 가까이 다가왔던 류성우의 타는듯한 두 눈빛도 달라졌다.

《무슨 소리예요？》

《…》

두 사람은 동시에 부르르 몸을 떨며 고개를 홱 돌렸다. 누군가의 웨침소리를 분명 들었던때문이였다.

《나를 찾는것 같소.》 류성우의 말이였다. 《자, 갑시다.》

버릇처럼 군복옷깃을 잡아다리고 버들숲을 뒤덮은 눈더미를 마구 흐트러뜨리며 길가로 걸어나가는 류성우를 은하는 당황한 눈길로 좇았다.

키가 작달막한 한 소대장이 눈사람모양의 늙은이를 부축해오며 중대장을 소리쳐부르고있었다.

백양나무들이 늘어선 달구지길로 달려나간 성우는 마주온 사람들과 재빨리 무슨 말인가 주고받더니 피끗 은하를 돌아보았다. 그다음 성급한 걸음걸이로 되돌아온 그는 별안간 갈린듯한 음성으로 말하였다.

《좀전에 〈반유격대대〉놈들이 산너머 중동마을을 불태웠소.》

그는 몸을 돌려 몇걸음 급히 달려갔으나 급기야 다시 은하를 돌아보았다. 은하는 재빨리 그에게 다가갔다.

《은하, 한가지 잊을번했소. 련대장동지가 동물 급히 찾더구만. 헌데…》

《알겠어요.》 은하는 주저없이 말하였다. 《곧 떠나겠어요.》

《지휘부가 어덴지 아오? 이 길을 따라 곧추가면 큰 마을이 나지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럼… 몸조심하세요!》

웬일인지 성우는 약간 주춤거렸다. 부지중 그의 얼굴에 떠오른 놀램의 기색을 보면서 은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야말로 은하의 마음속 속삭임을 대신하는것이였다.

《왜 그러세요. 제가 좀 달라보여요? 허지만 동무자신이 무척 변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딴딴하고 억센 성우의 손이 은하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그이상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숲변두리를 끼고 나가던 발구길이 좀 널직한 달구지길과 합쳐지는 골어귀에서 김만복은 발구를 세웠다.

《이제부턴 혼자 가야겠수다.》

은하는 마차에서 내려 머리수건을 다시 감았다.

《수고하셨어요.》

《조심하오다.》

눈석이때와 같이 어데선가 누기찬 흙냄새가 풍겨왔다. 관목숲가운데 성글게 늘어서있는 소나무들너머 장마비에 패운것처럼 좁다랗게 늘어진 골짜기 한끝에까지 해빛이 스며들고있었다.

은하는 발밑의 축축하고 차거운 눈석임물의 감촉을 느끼며 아

바이전사와 악수를 나누었다. 주름투성이 얼굴을 약간 돌리며 김만복은 강조하였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걸 언제든 잊지 마오다.》

《고마와요, 아바이.》

로년에 이른 늙은이들이 먼길을 떠나는 손주애를 배웅하듯이 은근한 애정과 다심한 념려의 빛을 띠우고 자기를 지켜보는 아바이전사에게 다시금 가벼운 눈인사를 남기고 은하는 골짜기를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5

스테이지의 명령으로 리헌은 《반유격대대》에 넘겨졌다. 결핵환자같이 창백한 얼굴에 드문드문 불그레한 꽃돋이가 나있는 키다리중령이 그를 심문하였다.

노전바닥을 깐 방 한구석에 리헌은 앉아있었고 중령은 그의 맞은편 앉은뱅이책상우에 기다란 미국제 군화발그대로 올라앉아 부저가락을 들어 화로를 헤집고있었다.

《제 말은 다 끝났습니다, 장교님.》 하고 리헌은 어지러운 부인용 목도리에 손바닥을 문지르며 숨이 차서 중얼거렸다.

《이렇게 돼서 절간에 숨어있었습니다. 보다싶이 제가 무슨 공산군간첩이겠습니까. 한 피난민이죠. 살길을 찾아 헤매던 한 지식분자입지요.》

키다리중령은 천식증에 걸린 늙은이처럼 기침을 퍼붓더니 별안간 매서운 눈초리로 그를 쏘아보았다.

《넌 내가 누군지 들었지, 응? 유명한 〈반유격대대〉대장이야. 미군고문각하는 쓸모가 있겠다고 봤을수도 있지만 난 너같은것들을 소금에 절군 명태 한마리 값으로도 안친단말이야. 알겠어? 이 수돼지같은놈아.》

《장교님.》 하고 리헌은 안타까운 어조로 부르짖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미국고문도 통역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흥!》

중령은 부저가락을 들어 리헌의 눈앞으로 가까이 가져다댔다.
《여게선 주둥이가 아니라 피로써 맹세를 하는거야. 네놈을 통역으로 쓰겠지만 먼저 〈불고기〉맛을 보게 하겠단말이야. 알겠어?》
키다리중령이 말하는 《불고기》라는것이 무엇인지 딱히는 알수 없었지만 그것이 끔찍스러운 일이라는것만은 명백하였다. 저도 모르게 몸서리치면서 리헌은 알겠노라고 중얼거렸다.
《그럼 여게서 꼼짝 말고 기다려.》
중령이 문을 차고 밖으로 나가자 리헌은 불현듯 맥이 쑥 빠져 벽에 머리를 기대였다.
밖에서 어떤 늙은이의 울부짖음소리가 몸서리쳐지게 들려왔다. 리헌은 눈을 꽉 감으며 급작스럽게 몸을 떨었다. 절간에서 붙잡힌 때로부터 하루반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악몽과 같은 시간들이였다.
어덴지 알수 없는 이 작은 마을에 끌려왔을 때에야 그는 《반유격대대》라는 말을 들었고 그것이 그 어떤 정규군이라기보다 비적패와 다름없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놈들가운데서 인민군대복장을 한 놈을 얼핏 본 기억도 났다. 비로소 리헌은 언젠가 산중의 오솔길에서 보았던 처녀의 시체도 이자들이 저지른것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아,이 무슨 운명의 희롱이람!》 하고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왜서 난 그 녀성의 말을 믿지 않았던가.》
나이 30을 퍼그나 넘기도록 가정도 모르고 살아온 나그네,부질히 생의 틈바구니를 찾아 허우적거리던 인생의 방랑아!… 낡아빠진 고르뎅바지를 기워입고 너 지금 어데로 가는것이냐? 네가 그토록 소원했던 그것,그 모든 인생의 쾌락은 다 어데 갔느냐?…
문득 은하가 시내물에 비유하여 말하던것이 떠올랐다. 북반부에서 정치공작대로 나온 그 녀자는 줄기찬 생을 포기할 때 중도에서 웅뎅이에 고인물처럼 썩거나 말라버린다고 했었다. 그 녀자는 마치 그 서정시의 바다를 조국의 의미인듯이 암시하였다.
별안간 리헌은 자기가 조국이라는 개념에서 너무도 멀리 떨어져 살고있었음을 깨달았다.
조국이라… 저 18세기에 유명하던 당똥은 옥중에 갇혔을 때 탈주를 설복하는 벗들에게 선언하기를 발바닥에 조국을 묻혀가지고 갈순 없노라고 했다. 그럼 나에겐 발바닥에 묻혀가지고 갈 조국

의 한 쪼각이나마 과연 있는가?… 그마저도 없다면 나란 인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와 같이 울부짖고 버둥거리고 무엇인지도 모를 것을 찾아헤매던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은 무엇이란말인가. 그들도 나처럼 끝내 틈바구니를 찾지 못하고 태질을 당하리란말인가?…

허나 리헌은 자기에게 한가닥 구원의 빛이 던져졌던것을 기억했다. 그것은 은하라는 리지적이고 굳세고 아름다운 한 녀성으로 나타난 다른 세계, 그가 아직 볼수 없었고 그때문에 믿기가 어려웠고 선뜻 손을 내밀기엔 용기가 부족했던 그 세계가 비쳐준 빛이였었다.

리헌은 그 빛에서 벗어나 도망을 쳤다. 왜?… 공포, 의혹… 그리고 몸에 밴 술냄새처럼 쉬이 털어버릴수 없는 지난 생활에 대한 미련때문인지도 모른다.

《아, 이 무슨 운명의 희롱이람!…》

때국물이 오른 부인용목도리에서 취할듯한 옛 향기, 기만과 간계로 사들였던 한점 향수내라도 찾고싶었지만 거기서는 외양간의 두엄냄새만이 풍겼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면서 키가 작은 사병 하나가 미식소총을 겨누고 녀자목소리처럼 부르짖었다.

《나왓!》

리헌은 벌떡 몸을 일으키자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짐승처럼 목을 잔뜩 옴츠리고 허둥거렸다.

어데선가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울려왔다. 가슴은 세차게 방망이질을 하고 귀전에서는 때아닌 모기소리같은것이 울리기도 하였다. 마치 캄캄한 어둠속을 더듬어가는듯 리헌은 비틀거렸다.

바람은 극성스럽고 위엄있게 불어쳤다. 지금이 어느때쯤 되였는지조차 리헌은 분간할수 없었다. 불현듯 째지는듯한 웨침소리가 울렸을 때에야 리헌은 눈앞의 우물가에서 드레박줄을 붙잡고 발버둥치는 한 소년과 두셋의 건장한 사병들이 달려들어 그 애를 붙잡자 땅바닥에 멧다치고는 팔을 잡아 질질 끌고가는것을 보았다. 어깨가 다 드러나도록 찢어진 웃도리며 몸부림치는 소년의 얼굴에서 무섭게 희번뜩이는 두눈의 흰자위를 보자 리헌은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것을 느꼈다.

《빨리 걸엇!》

이것은 키가 작은 사병이 리헌의 잔등에 대고 웨치는 소리였다. 순간 리헌은 어데선가 잔뜩 짓눌려있다가 세상에 나온듯 뒤더수기가 일직선을 이룬 사병을 바라보면서 그에게서 한가닥 동정의 빛이라도 찾아내고싶었다.

《여보시오, 나를 어데로 끌고가는지 좀 알려주시오. 예?》

《잔말 말앗!》

도대체 이 사병은 세상에 나와 단마디 구령소리들밖엔 더 배운것이 없는 모양이였다. 그러나 피투성이 된 소년이 끌려가는것을 보았던 리헌으로서는 앙버티지 않을수 없었다.

《여보시오.》

《빨리 걸엇!》

마침내 사병은 총끝을 그의 가슴팍에 겨누었다. 그리고 전혀 뜻밖의 일로 입술을 실룩거리며 한마디 더 했다.

《값을 물라는거야, 이 뚱보야.》

어데선가 총소리가 울렸다. 리헌은 와뜰 놀래며 다시 허둥지둥 걸음을 옮겨갔다. 불현듯 페병쟁이같은 키다리중령이 하던 말, 주둥이가 아니라 피로써 맹세를 해야 한다던 그 말이 생각났다.

그것은 무엇일가. 피를 바쳐 대가를 지불하라는것일가. 허나 무슨 대가를?… 죽음기판이 울부짖던 다방에서 마신 꼬냐크값을? 육욕의 감미로운 향기를 노래한 몇쪼각 시편의 대가를? 아니면 협박으로 빼앗아낸 몇푼의 돈에 대한 대가인가?…

키다리중령이 어깨를 잡아돌려서야 그는 눈을 번쩍 떴다. 어떻게 눈을 감고 걸어올수 있었는지 도저히 알수 없다.

《저 봐.》 하고 중령이 기침을 참아가며 가까스로 입을 놀렸다.

《공산군을 동정한놈들이야. 공산군부상병이 찾아오니까 제꺽 숨겨뒀거던.》

중년나이의 한 녀인과 종전에 끌려가던 소년이 외양간기둥에 꽁꽁 결박되여 의식을 잃고있는것을 리헌은 보았다. 그곁엔 인민군대부상병으로 차린놈이 히죽거리며 서있었는데 가장한 그자를 잘못알고 숨겨준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이봐 통역.》

별안간 고막을 울리는 중령의 목소리에 리헌은 흠칫 놀랐다.

《성냥은 있겠지？》
《저… 장교님.》
《대장님이라구 불러！》
《예, 대장님. 보시다싶이 저에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리헌은 고르뎅바지주머니까지 털어보였다.
중령은 《일등병！》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자 부상병으로 가장했던자가 급히 다가왔는데 그자의 두손엔 커다란 말뚝이 쥐여있었다.
《이게 뭔지 알아？》 하고 중령은 마른 기침을 련발했다. 《지경패말이란거다. 알겠어？》
그러나 여전히 두눈을 흡뜨고 서있는 리헌을 쏘아보던 그자는 일등병의 손에서 말뚝을 나꾸어챘다.
《자, 모르겠으면 읽어봐. 소리내서 읽으란말이야！》
리헌은 흠칠 놀래며 한걸음 물러섰으나 그 말뚝에 아무런 위험도 없다는것을 깨닫자 두눈에 초점을 모았다.
《고분녀.》
《그래 그래, 계속 읽어봐！》
《논 2,300평, 밭 2,700평…》
《그래 이젠 알겠어？》 하고 중령은 부르짖었다. 《작년 여름 공산군이 나왔을 때 땅을 받았다는거야. 감히 제땅이라고 박았던 패말이란말이다. 저걸 감춰두고 공산군이 또 나오기만 기다렸거던.》
그 순간 날카로운 녀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래 그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내 땅을 다시 찾자구 했다. 이놈들！》
《내 땅？》 하면서 중령은 으드득 이발을 갈았다. 《안돼, 이년！ 저승에 가서나 네 땅을 찾아봐라.》
또다시 련달아 마른 기침을 깇으며 중령은 일등병에게 손짓했다.
리헌은 어느새 그자들이 지경패말에 짚검불을 감아놓았는지 그리고 라이타로 불을 단 그 말뚝을 언제 자기 손에 쥐여주었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아니 이건？…》

중령의 사나운 눈빛이 리헌을 쏘아보고있었다.

《불을 달앗！》

뜨거운 불길이 머리칼을 그슬었다. 그 불길속에서 리헌은 밤도깨비같은 환영들이 춤추는것을 보는듯했다. 소름끼치는 비명소리와 함께 피자국이 랑자한 소년이 달려드는가 하면 술잔들이 깨여져나가고 피빛으로 물든 검붉은 술이 불길속으로 쏟아져내리며 무수한 불꽃을 휘뿌리기도 했다.

《넌 어느편이냐？》 하는 중령의 새된 웨침소리가 고막을 찢었다. 《불을 달지 못하겠다면 대신 네놈을 태워버릴테다.》

저도 모르게 한발 앞으로 나서자 별안간 날카로운 웨침소리가 그를 멈춰세웠다. 머리를 번쩍 쳐든 녀인이 무섭게 두눈을 번뜩이는것이였다.

《이 악당들아, 천벌을 받을 악귀같은놈들아, 이제 우리 인민군대가 네놈들을 모조리…》

녀인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연거퍼 울린 총성과 함께 리헌은 《자식, 빨리 던져！》 하는 웨침소리를 들었다. 발밑의 땅이 꺼져내리는듯 한팔로 허공을 그러쥐고 비틀거리면서 리헌은 불붙는 말뚝너머에서 피투성이가 된 녀인과 어린 소년을 보았다.

불길이 활활 솟구쳐올랐다. 피가 불타오르는것이였다. 매캐한 연기뭉치가 숨구멍을 틀어박고 너울거리는 불길이 머리칼을 태워버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리헌은 불붙는 말뚝을 내던지고 《아！－》 하는 미친듯한 울부짖음소리와 함께 허둥지둥 달아나기 시작했다.

불타는 피… 몸서리치는 웨침소리… 다시금 눈앞에서 무서운 환영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어데선가 《서라, 개자식！》 하는 웨침소리도 불붙는 구름장새에서 내려꽂힌 벼락소리처럼 들렸다. 누군가 그의 따귀를 후려갈기고 어떤 괴이한 털짐승이 이발을 사납게 드러내며 달려드는것 같았다.

문득 그는 세찬 몽둥이질에 어깨죽지뼈가 바스라져나가는듯한 감을 느꼈다. 저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두팔을 벌려 허공을 그러쥐였다.

《아, 이 무슨…》

끝내 리헌은 자기의 마지막 이 말을 이을수 없었다. 얼어붙은 땅우에 그는 머리를 구겨박으며 쓰러졌다. …

6

중대는 《반유격대대》놈들을 완강하게 추격하고있었다. 류성우는 여러 소집단으로 갈라져 도망치는놈들을 앞질러 먼저 한개 소대를 범골쪽으로 우회시키고 강행군을 들이대였다.

악착스러운놈들이였다. 성우는 얼마전 어느 한 마을의 참경을 잊을수 없었다.

불타다 남은 서까래들이 무너진 벽체우에 엇가로 놓였고 넘어진 담장밑엔 박산이 난 장독쪼각들이 널려져있었다.

황량한 페허를 덮으며 그날 눈이 내렸다. 인적 없는 길우에, 토방밑에, 죽어넘어진 북술개의 시체우에 그리고 파괴와 략탈이 남겨놓은 온갖 잔해우에 수북이 눈이 쌓여있었다. ㄲ물거리며 연기를 말아올리던 외딴집벽체도 눈을 들쓰고있었다. 그러나 강산을 덮는 흰눈도 악행의 흔적을 죄다 덮어버릴수는 없었다.

불타버린 어느 집 대문앞에서 성우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서있었다. 집은 불탔으나 대문만은 참경의 표말처럼 서있는데 눈을 들쓴 그 대문에 빨간 고추타래가 매달려있는것이 먼저 눈에 띄였다. 그것은 이곳 령남지방에서 《금삭》이라고 부르는 새 생명의 출생을 알리는 표식이였다. 어린애가 남자일 경우엔 왼새끼에 빨간 고추를, 녀자일 경우엔 솔잎을 단다고 한다. 그 빨간 고추는 한지에 나앉은 사람들이나 재더미보다도 더 아프게 그의 가슴을 찔렀었다.…

새벽이였다. 서리발이 덮인 수림은 어스레한 새벽빛을 받아 창살처럼 날카롭게 드러났다.

류성우는 시계를 들여다보고 잠시 지형을 확인한 다음 중대를 멈춰세웠다.

《휴식!》

소대장들이 구령을 되받아 부르자 전사들은 나무에 기대여 소란스럽게 숨을 몰아쉬였다. 며칠간의 추격전에서 지칠대로 지친 전사들이였지만 치를 떨며 복수를 맹세한 그들이여서 돌연히 울린 휴식구령에 몹시 놀랜듯하였다.

《련락병!》

류성우는 전사들의 의문어린 눈길을 전혀 느끼지 못한것처럼 가까이에 서있는 배다운을 소리쳐 부르고 정치부중대장과 각 소대장들을 모이게 했다.

련락병이 달려가기전에 벌써 정치부중대장은 류성우가 서있는 곳으로 오고있었다. 그 역시 묻는듯한 시선을 던졌지만 성우는 벌써 세번째로 꿰여진 장화를 묵묵히 내려다보고있었다.

초조감, 조바심 그리고 안타까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이 말들을 다 합쳐도 지금 그의 끓어번지는 심정은 표현하지 못할것이다.

그는 놈들을 또 놓쳐버렸다는것을 분한 마음으로 생각하고있었다. 이제는 놈들을 앞질러 우회시킨 3소대와 만날 지점에까지 이른것이다.

(어데로 빠졌을가?)

피가 나도록 입술을 악물었다. 며칠간의 추격전에서 꼬리를 붙든적이 두번씩이나 있었지만 그때마다 놈들은 뿔뿔이 흩어져달아났고 달아나서는 다시 모이군했다. 불과 십여명의 놈들만이 분노한 전사들의 총창세례를 받았을뿐이였다.

소대장들이 모였다. 그들을 둘러보며 류성우가 입을 열려는 순간 웅성거리는 전사들속을 헤치며 3소대장이 나타났다.

류성우는 작달막하나 다부진 3소대장이 미처 보고도 하기전에 가슴이 뜨끔해지는것을 느꼈다. 중대씨름선수권보유자, 씨름은 물론 전투에서도 유명한 안걸이치기명수인 그가 허둥지둥하는것을 보자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져버렸다.

(3소대만이라도 놈들과 조우했더라면…)

3소대장은 잠시 머밋거리다가 급기야 보고했다.

《중대장동무, 놈들이 빠져나간것 같습니다. 우린 놈들을 앞질러 갔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도중에서 우린…》

《?…》

한순간 긴장한 침묵이 흘렀다.

《도중에 우린… 범골밀영이 불탄자리밖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뭐요?》

순간 성우는 누군가의 드센 주먹에 가슴을 떠박질리운듯 숨길

이 꺽 막히는것을 느꼈다.

《그래 사람들은… 어떻게 됐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헌데… 웬 늙은이 한사람이 숨어있는걸 붙잡았는데 도무지 수상한 소리만 하고있습니다.》

거치른 숨소리들만 내뿜는가운데 류성우의 지시로 수상한 늙은이를 끌어왔다. 어둠속에 나타난 늙은이의 기괴한 차림이 먼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무릎까지 올라오는 미국제군화, 삼바로 허리를 동인 반외투, 등에 진 배낭… 그는 누가 자기의 말허리를 끊을가봐 겁내는듯 늙은이답지 않게 재빨리 말하였다.

《나를 수상하게 보시는것 같은데 난 범골밀영에 있던 산림학자웨다. 제발 끝까지 들어만주신다면 내가 이제 다 해명해드리리다.》

인적없는 깊은 산속에 숨어있는 늙은이를 리정결소대장이 수상하게 본것은 응당한 일일것이다. 그는 로인에게 제대로 차근차근 설명할 여유도 주지 않은 모양이였다.

《나로 말하면…》 늙은이는 서둘렀다. 《나는… 사실 한 산림학자로서 떠돌아다니던중… 그러다가 난…》

류성우는 로인앞에 바투 다가섰다.

《됐습니다.》 성우는 우선 늙은이를 안심시키려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련대장과의 담화에서 은하가 구원해온 두사람중 한사람은 늙은 산림학자였다는것을 들은 기억이 났던것이다.

《안심하십시오. 우리도 알고있습니다.》

《아니 뭐라구요?》 예상외로 로인의 목소리는 입속말처럼 낮아졌다. 《군관어른이 어떻게?…》

《알고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선 여기 일이 어떻게 되였는지나 말해주십시오. 우린 시간이 급합니다.》

그리하여 로인은 안도감을 느꼈고 조금히 서두르거나 요점을 빠뜨리는 일 없이 벌어진 일을 설명하게 되였다.

중대의 추격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도주하던 놈들이 범골밀영에 이른것은 불과 얼마전의 일이였다. 때맞추 놈들을 발견한 보초병이 앞질러 사격을 함으로써 상병자들이 피신할 시간적여유를 얻게 되였다. 그러나 위독한 중상자들이 절대다수인 그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가기는 헐치 않았다. 좀 경한 부상병들이 적들과 결사전을 벌리는동안 그들은 캄캄한 어둠속으로, 더 깊은 산속으로 피해

갈수 있었다. 그런데 뒤늦게야 로인은 부상병들을 돕느라고 자기의 배낭을 잊고나왔음을 알았는데 거기에는 언젠가 그를 이끌어준 한 정치공작대원이 말한 《전생애》가 들어있었으며 련대장이 강조한바 있는 《연구를 계속》할 임무도 들어있는것이였다. 그는 창황히 벙어리포수의 낡은 초막으로 되돌아왔다. 그리하여 그는 놈들이 불을 지른 초막에서 이미 불에 달렸던 배낭을 가까스로 건져내기도 했거니와 류성우와 그의 중대에는 더없이 귀중한 자료를 엿듣게 되였다.

《바위짬에 몸을 숨기고 듣자니 대장인듯한 키다리놈이 말합디다. 험한 산발을 넘어가기엔 때가 늦었고 또 공산군이 여기로 들이닥칠테니 우린 오던 길로 감쪽같이 되돌아서 중동마을로 가야 한다— 이러더군요.》

이제 와서 성우는 중대가 추격하는놈들이 여러 패당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놈들로서 잔인한짓이나 교활성으로 미루어 그속에 《반유격대대》 대장놈이 있으리라는것을 의심치 않았다. 그는 다시 중대에 출발준비구령을 내렸다.

전체 중대가 재빨리 그앞에 정렬하였다. 《출발준비!》 하는 류성우의 짧은 한마디외엔 아무런 웨침소리도 없었으나 전사들은 여러날에 계속된 추격으로 지친 사람들같지 않게 순식간에 자기 위치를 차지했고 총부혁을 꽉 틀어쥐는것이였다. 이때 반나마 불에 탄 배낭을 꿍쳐서 등에 진 로인이 한발 나섰다.

《군관어른, 나도 같이 가게 해주시오, 예?》

목소리는 비록 낮았으나 그것은 부탁도 애원도 아닌 늙은이다운 무게있는 요구처럼 들렸다. 성우도 나직이 말했다.

《험한 길입니다.》

그러자 로인은 고집했다. 그는 성우가 이제 로인을 찾으러 상급준의가 틀림없이 사람을 보낼것이라고 했으나 자기가 산림학자라는것을 재삼 상기시키면서 산마다 손금보듯 알고있는 저로서 악당놈들을 추격하는 중대를 지름길로 안내해주겠다고 나섰다. 과학의 길, 인생의 새 길을 개척해준 인민군전사들에게 그쯤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자기를 이끌어준 그 녀성정치공작대원앞에 무슨 면목이 서겠는가고 했다. 그의 완강하고도 검질긴 요구는 군사 규정과 명령도 통하지 않는것이였다. 적들을 신속히 추격소멸해야 할 중대에 그가 도움을 줄수도 있다는것을 생각한 류성우는 잠시후

그에게 함께 갈것을 허락한다고 했다. 그리고 3소대의 한 하사관과 두명의 전사를 떼여 피신한 상병자들을 찾을것과 그들을 련대군의소가 있는곳까지 안내하라고 명령했다.

로인은 기뻐했다.

《내 이름은 조성길이웨다. 그럼 나한테도 명령을 주시우.》

성우는 조용히 《갑시다.》 하고 말했다. 그리하여 다시 중대는 릉선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강행군을 계속하였다. 어수선한 소음과 가쁜 숨소리들이 밝아오는 수림속을 바삐 흘러갔다. 시간은 그들로 하여금 최대의 속도를 요구하고있었다. 시간,시간… 또다시 분과 초를 다투며 긴장과 초강도의 의지력이 태엽처럼 팽팽히 감기는것이였다.

류성우는 자주 시계를 들여다보며 련속 구령을 내렸다.

《뒤로 전달,속도 빨리!》

나무그루터기들이 사정없이 부러져나가고 얼어붙었던 돌들이 경사지로 굴러내렸다.

《뒤로 전달,속도 빨리!》

어깨에 총을 멘 그날부터 아직 신발끈을 풀어보지 못한 전투와 행군의 련속이다. 그들은 력사앞에서 한생을 달리며 살아야 할 무거운 책임을 걸머지고있는것이다.

…놈들은 방어에 유리하며 또 임의의 시각에라도 산속깊이 도망칠수 있는 자루목고개를 차지하고 마을에서는 10여명의 적들만이 분주히 돌아치며 굶주린 창자를 채우기 위하여 략탈을 감행하고 있었다. 아무런 총소리도 없는것으로 보아 추격이 있기전에 다시 도망치려는것이 분명하였다.

류성우는 골어귀에 있는 개천뚝 높다랗게 치솟아오른 백양나무아래에서 적정을 감시하고있었다.

서뿔리 건드려서는 안된다. 추격중대를 기만하여 교묘하게 따돌렸다고 잠시나마 마음놓고있는 이 틈을 리용하여 단숨에 섬멸해버려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골안 깊숙이 들어간끝에 있는 자루목고개였다. 단 몇분어간에 놈들은 울창한 수림속으로 사라져버릴수도 있고 만약의 경우엔 필사적인 저항을 할수도 있다.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안되겠소.》

그는 소대장들을 돌아보며 재빠른 말씨로 말했다.

《마을사람들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놈들을 철저히 소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 자루목고개를 봉쇄해야 하오. 그런데 보는것처럼 앞에는 넓은 골안 즉 개활지대인데다 마을이 있고 놈들 뒤에는 깊은 수림이 있소. 교활한놈들은 공개적인 전투를 피하고 무작정 도망치려고만 할것이요. 전번에도 그때문에 놈들을 놓쳐버렸소. 이런 정황하에서 나의 결심은 이렇소.》

그것은 자루목고개의 적들로 하여금 주의를 딴데로 쏠리게 하거나 가능하면 골어귀의 개뚝까지 끌어내면서 순식간에 돌격전으로 섬멸하려는 계획이였다.

《1소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루목고개부터 탈취하여 놈들이 도망칠 길을 차단하시오. 2소대는 마을 뒤산에서 전투가 개시되면 먼저 마을을 차지하고 놈들을 접근시키지 말아야겠소. 3소대장동무는 유인조를 인솔하오.》

흐릿한 날씨였다. 절반이상이 불타버린 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황량한 페허를 뒤덮고있던 흰눈은 그새 가뭇없이 사라져버리고 개바닥과 음달진 비탈들에만 희끗희끗한 눈더미들이 남아있을뿐이였다.

잠시후 3소대장이 준비가 끝났다고 보고했다. 류성우는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다시한번 주의를 주었다.

《모험은 하지 마오. 적들과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무모한 희생을 낼수 있소.》

《알았습니다.》

류성우는 손짓으로 행동을 개시하라는 신호를 내렸다.

그리하여 여라문명의 전사들이 담가를 들고 마을앞 개천뚝에 올라섰다. 그나마도 어깨를 부축하고서야 걸을수 있는 부상병이 넷이나 되였다.

류성우는 가슴을 조이며 적의 동정을 살폈다. 적들의 견지에서 본다면 이것이 적정을 알지 못하는 부상병들의 응당한 행동으로 될것이다. 예견한것처럼 마을에서도 자루목고개에서도 적들은 아무런 기척도 내지 않았다.

먼저 세명의 전사들이 총을 겨누어들고 마을어귀에 들어섰다. 그들의 걸음은 불안스러웠고 개바닥으로 숨어들어가는 행동에는 극도의 조심성이 엿보였다.

앞서들어간 세사람중 3소대장이 개뚝을 향해 신호를 하자 담가가 움직이고 부축을 받고있는 전사들이 뜨직뜨직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다음순간 뜻밖에 다시 신호가 오자 그들은 멈춰섰다. 앞서간 전사들과 뒤따르던 부상병들이 일시에 개바닥과 발뚝에 엎드렸을 때 돌연 맹렬한 총성이 골안과 자루목고개에서 터졌다.

담가와 부상병들이 도로 밀리는동안 척후로 나갔던 세명의 전사들이 서둘러 사격을 퍼부었다. 그리고는 줄지어 서있는 백양나무들에 의지하면서 짤막짤막한 급사격으로 엄호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극소수의 인민군부상병들을 생포할 야망에 사로잡힌 《반유격대대》의 살인자들이 마을에서, 자루목고개에서 달려나왔다. 이제와서 여라문명의 인민군《부상병》들이 전멸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은 명백한 일로 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필사적인 저항》을 계속하였다. 개천뚝에 엎드린 그들의 총구에서는 안타까울 지경으로 짤막짤막한 점발 혹은 단발총성들이 울렸는데 이 유인전의 조직자인 류성우조차 가슴이 서늘해질 지경이였다.

《투항하라！》

놈들은 기승이 나서 포위태세를 취하며 고함을 질렀다. 놈들중에서 한놈은 발두렁우에 벌떡 일어서서 자기의 담찬 위세를 뽐내기까지 하였다.

《쏘지 말아. 투항하면 살려준다！—》

벌써 수십명의 적들이 산개하여 발뚝으로, 개천으로 약진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슴을 조이며 사태를 주시하고있던 류성우는 그때에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고 한아름이나 실히 잘될 백양나무에 기대여서서 하늘높이 가지들을 추켜세운 그 끄트머리를 바라보았다.

누군지 그의 발치에서 중얼거리고있었다. 돌아보니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안전한곳에 남겼던 조성길로인이 기여와 있는것이였다.

《죽일놈들, 더러운 짐승같은놈들, 어데 혼나봐라！》

그는 류성우가 자기를 나무랄수도 있다는것은 생각지도 않는듯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소. 그것도 우리 인민군대로 가장해서 치떨리는짓을 한다우. 악귀같은것들！》

그는 이를 갈았다.

《제발 한놈도 살아남지 않게 해주시오. 우리 인민군대를 목마르게 기다리던 그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오!》

그것은 한 늙은이의 절규로써 표현된 남녘인민들의 간절한 념원이였다.

그를 바라보면서 류성우는 광명한 새 길을 찾고 꿋꿋이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듯하였고 이 모든 크고 작은 인민의 힘과 성원도 다 통찰하시여 제2전선의 방침을 제시하신 최고사령관동지의 비범하신 예지에 크나큰 격동을 느꼈다.…

대기를 써는 아츠러운 총탄의 울부짖음소리에 그는 머리를 돌렸다. 머리우에서 나무가지들이 뚝뚝 부러져내렸다.

류성우와 린접한 개뚝뒤의 백양나무아래 엎드려있던 오리준하사가 떠듬거리며 부르짖었다.

《중대장동지, 빨리 저놈들을!…》

벌써 코앞에까지 기여든 적들이 일제 사격을 퍼붓더니 와!—하고 달려들었다.

《쏴!》

오리준하사가 틀어쥔 브로닝기관총이 급격히 울부짖기 시작하자 사방에서 일제사격의 총성이 귀가 멜듯이 터졌다. 불시로 터진 일제사격은 기광이 나서 달려들던 적들의 일선을 순시에 잘라던졌다. 그러자 비로소 유인전술에 걸려들었다는것을 깨달은 적들은 급기야 방향을 돌려 마을로, 자루목고개로 마구 밀려갔다. 그러나 다시금 우뚝 서버렸다. 마을에서, 자루목고개에서 맹렬한 사격이 퍼부어지는때문이였다. 어느새 황히세소대장이 유인조에만 정신이 팔린 자루목고개의 적들을 덮쳐버린것이였다.

불의의 기습에 놀랜 짐승들이 흔히 그러듯이 적들은 무턱대고 앞으로 앞으로 정신없이 뛰여갔다. 그러나 벌써 놈들을 포위하고 돌격에 나선 중대는 언젠가 포위돌파전에서 그랬듯이 총창부림으로 적들을 꿰지르기 시작하였다. 무섭게 성이 난 전사들은 악당들에게 총탄을 쏘아박는것도 원치 않았다. 총창으로 총개머리로 그들은 닥치는대로 찔러눕히는것이였다.

…이날 군중심판에서 준엄한 판결을 받은자들중에는 악명높은 《반유격대대》 대장인 중령놈도 있었다.

7

서리찬 아침, 바람 한점없이 맵짠 날씨였다. 지난밤 간이역과 여러 마을들을 돌아온 은하는 집으로 가고있었다.

집!… 그것은 원소마을 산기슭의 작은 초가집이였다. 언젠가 은하를 인민군전사들이 맡기고갔던 집, 지하공작임무를 받은 은하가 다시 자리잡은 집, 희생된 인민군전사 류문기의 고향집이였다.

집집의 굴뚝마다에서 하얀 연기가 꾸역꾸역 피여오르고있었다. 바람 한점없는 하늘가로 하염없이 기여오르는 그 연기를 바라보면서 은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이제는 집이 멀지 않다. 산기슭에로 뻗은 길을 따라내려가 삽짝문을 열고 들어서면 순박하고 어질기만 한 생금이가 부엌문을 열면서 마주달려나오는 정든 집…

《아이구, 웨 이리 늦어오낭기요?》 하고 생금이가 반색할 때면 은하는 쓰라린 심정의 아픔때문에 목이 칵 메이는것을 느끼군했다.

부대를 떠나 원소마을에 처음 이르렀던 그날도 그러했다.… 삽짝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침 가시물을 안고나오던 생금이가 은하를 보고 토방우에 오지그릇을 놓으며 황황히 달려나왔다.

《아이구, 이게 웬일인가베?》 생금이는 부르짖었다. 《이렇게 살아있었꾸마, 에?》

애젊은 그 녀인은 젖은 손을 문질러대며 말보다 앞서 눈물을 쏟는것이였다.

《그런걸 우린… 잘못됐는줄만 알구…》

은하는 자기보다 나어린 생금이의 가느다란 어깨를 그러안고 저도 모르게 눈굽을 적시였다. 그것은 반가운 상봉에 따르는 기쁨과 더불어 이 순진하고 티없는 마음에 남편의 희생을 알려 못을 박지않으면 안될 가슴찢기는 아픔의 눈물이였다.

《어떻게 된 일잉기요, 예? 그새 어데 가 있었능기요?》

그때 방안에서 늙은이의 기침소리가 나서 은하와 생금이는 손을 잡은채 집으로 들어갔었다. 그날 류할배도 다시 나타난 은하를 보자 어지간히 놀랬는데 그것은 가던길을 되돌아왔다고 해서가 아니

라 항간에 떠돈 불길한 소문때문이였다. 은하가 집을 나선후 어떤 낮모를 처녀가 체포되여 경찰놈들에게 끌려갔다는 풍문을 듣고 속을 태웠다는것이였다.

은하는 몸서리치는 그날의 기억을 더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집을 떠난 다음날 놈들에게 잡혔댔는데 요행 빠져나왔어요. 그리구 인차 인민군대를 만나 지금까진 부대에 있었어요.》

《!…》

놀래여 바라보는 두사람— 늙은이와 애젊은 녀인의 눈가에 일순 섬광과도 같은것이 번뜩이였다. 은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민군대는 곧 아들과 남편이였다.

그날 은하는 인민군적후투쟁부대들의 소식을 끝없이 계속하면서도 간절한 기대와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고있는 그들에게 차마 희생된 전사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저도 모르는 새에 가끔 그들의 타는듯한 눈빛과 마주치기를 저어했는데 아닐세라 다음날 류할배는 은하를 불러 물었다.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게 아닝기요? 숨기지 말고 날래 말해주이소.》

로년에 이른 사람들은 눈으로 다 볼수 없는 많은것을 인생행로에서 터득한 자기의 경험과 늙은이다운 예감으로 알아내는 법이다. 류할배는 무엇인가 예감하였고 또 그것을 각오하고있은것이였다.

지금도 은하는 뻐금뻐금 담배를 태우며 바위처럼 웅크리고 앉았던 로인의 모습을 잊지 못한다. 하얗게 서리덮인 머리우로 피여오르던 한줄기 연기만 아니라면 그대로 굳어져버린것으로 생각될 지경이였다. 한숨도 눈물도 없었다. 로인의 마음속 유일한 한점 등불이 꺼져버린것이였다.…

오랜 시간이 흐른뒤에야 그는 은하에게 이 비통한 소식을 젖먹이를 키우는 며느리에게만은 당분간 알리지 말자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로인은 아무 말 없이 은하의 일을 도와나섰다. 은하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찰에서는 어떤 묘령의 녀성이 지하조직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 그에 대한 현상금까지 내붙였을 때엔 거듭거듭 몸조심하라고 당부하였고 가끔 불편한 몸으로 은하의 걸음을 대신하기도 했다.

드바쁜 날들이 흘렀다. 은하는 전선의 소식과 적후투쟁부대의

전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인민군대로 가장한 악당들에게 딸을 잃은 외딴집 로파도 찾아가 진상을 밝히고 시체를 찾아주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원소마을에서 멀지않은 간이역에로 침투한것이였다. 먼저 희생된 류문기의 소꿉동무였던 운전조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철수, 검량원, 나중엔 늙수그레한 역장도 인입하였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철도를 통한 군수물자와 병력의 이동은 날날이 장악되기 시작하였다. 벌써 두차례나 은하는 아바이전사와 련계를 가졌다.

…은하는 뽀야니 서리를 들쓴 가랑잎들을 밟으며 산기슭의 집으로 걸어갔다. 곧장 사립문을 열고 들어설수도 있었으나 그때 마을앞 원소 저쪽의 철뚝에서 울리는 기적소리에 흠칫 멎어섰다. 지금 은하는 그 어떤 기적소리도 무심히 지날수 없었다. 그의 귀전에는 언제나 련대장이 강조하던 말들이 울리고있는것이였다.

철뚝쪽을 유심히 바라보던 은하는 철길을 따라 걷고있는 괴뢰군놈들을 발견했고 먼 굽인돌이까지 갔다가는 되돌아서는것으로 미루어 순찰병들이라는것을 확인했다. 무엇때문일가？… 저쪽 산기슭을 돌아가면 경계초소가 철다리가까이 있었다. 그러나 철뚝길에까지 순찰을 편 일은 아직 없었다. 무엇때문일가？…

정찰병의 기질도 군사전술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가지고있지 못한 은하였지만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원소가까운 집쪽에서 어느 게으름뱅이 수닭이 목구멍이 터질 지경으로 늦어진 기상구령을 내질렀다. 이상하게도 은하에게는 그 소리가 무심히 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자기를 각성시키는 웨침소리인듯이 은하는 생각하였다. 그래 각성해야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은하는 자기가 간밤에 거의 눈을 붙여보지 못했다는것을 가뭇 잊고있었다.

부엌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궁이에 불을 넣고있던 생금이가 《아이, 이제사 오능구마.》 하면서 다가섰다.

《왜 무슨 일이 있어요？》

《부대에서 귀한 손님이 왔능기요. 무슨 지하공작련락원이락 하더구마.》

《그래요？》

순간 무던하고 순박한 《이웃집아저씨》 김만복의 주름많은

얼굴이 떠올랐다.

《오신지 오랬어요?》

안방문을 급히 열었다. 그 순간 부엌에서 쓸어든 뽀얀 증기발속에서 은하는 군복차림을 한 사람이 등을 돌려대고있는것을 보았다.

《아니?!》

그만 말끝을 삼켜버리며 은하는 두손을 가슴에 모두어쥐였다.

《어마나, 이게 누구야?》

벽에 걸려있는 사진틀을 점잖게 올려다보고있던 그 사람이 고개를 돌리고 히쭉 웃었는데 그는 바로 진호였었다.

《진호!》

누군가의 알뜰한 솜씨로 군복을 줄여입은 진호는 키가 더 커보였다.

《언제 왔어, 진호?》

《정치공작대원동무.》 하고 진호는 군대들이 하는 식으로 차렷자세를 하고 엄숙히 말했다. 《당신의 명령대로 련락원 진호는…》

은하는 그만 주춤거렸다.

《당신?… 그리구 뭐 내가 명령을 했다구?…》

다음 순간 은하는 불시로 치미는 기쁨의 충동에 못이겨 소년을 붙안았다.

《진호, 네가 왔구나. 네가 련락원이란말이지?》

헌데 진호는 웬일인지 얼굴을 붉혔고 약간 비켜서려고 했다.

《왜?… 왜 그러니?》

뜻밖의 이 매정한 태도에 은하는 마치 그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듯 고개를 피끗 돌렸다. 그 순간 열려진 문사이로 두사람의 기이한 상봉을 웃음 가득 바라보는 생금이를 보았다.

그런들 뭣때문에 면괴스러워한단말인가. 그렇듯 오만하던 진호가?…

은하는 소년의 어깨를 눌러앉히며 서둘러 물었다.

《넌 누나를 만난게 반갑지두 않니, 응?…》

《반갑지요.》

다시한번 은하는 속이 뜨끔하였다.

(뭐 초면인 어른에게 하듯 《반갑지요》?… 가시에 찔린것처럼 몸을 도사리면서도 《반갑지요》?…)

《그래두 난…》 하고 은하는 진정 서글픈 눈매로 그를 견주어보았다. 《널 보구싶어 막 죽을지경이였어.》

《쳇, 보구싶다구 뭐 죽기야 할가?》

이기죽거리는 진호의 입가에 교활하기 짝이 없는 한점 미소가 나타났다. 비로소 은하는 깨달았다. 아마도 진호는 이 집에 들어선 그 순간부터 한 지하공작원처럼 의젓하고 정중하게 처신했으리라. 헌데 갑자기 들이닥친 그의 《책임자》는 어린애마냥 함부로 취급하였으니 그야말로 미욱한 일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나어린 소년의 긍지 높은 자존심을 감히 손상시켜서야 될말인가?!…

《넌 달라졌구나.》

은하는 정색하여 말했다.

《어른스러워지구… 그래 무슨 련락을 가져왔니?》

진호는 지하에서 한생을 살아온 경험많은 공작원처럼 부엌문쪽으로 경계하는 빛을 던졌다.

《원, 애두 참… 어서 가져온게 있으면 내놔. 아무 일 없으니.》

《내놓건 없어.》

《?…》

《그저 책임자동무를 잘 도와주라는거야. 련락도 다니구.》

은하는 얄궂은 미소를 띠웠다. 그동안 몸에 익히고 입에 올린 군사적관습이며 군사술어들을 뽐내보이려는 지꿎은 그 행세가 귀엽다기보다 오히려 우습강스럽게 느껴졌다.

《얘, 이젠 그런 말투를 버려라. 그게 뭐니, 〈책임자동무〉, 〈당신의 명령〉 하면서… 넌 제 입으로 지하공작원이라면서 계속 그럴테냐?》

그리하여 진호의 고집스러운 자기방위는 무너져버렸다. 그는 무안해했고 저으기 당황해했다. 드디여 본래의 자기로 돌아간 진호는 투미하게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난 동생이구 누난…》

《누나지.》

《응, 그저 누나가 시키는대로만 하라고 했어.》

《그래?》

비로소 안정되고 누긋해진 마음으로 은하는 진호의 손을 꽉 잡으며 이미전부터 벗으로 전우로 되여있는 자기의 이 살틀한 동생을

뜯어보았다.

《그새 몸도 좋아졌어. 난 첨에 웬 군대동무가 왔나 했구나. 헌데 군복을 줄여입어서 일없겠니? 눈에 띄울거야.》

《저기 위장복이 있어.》

벽에 진호의 《위장복》인 허름하고 커다란 솜옷과 여러군데를 헝겊으로 기운, 흔히 잠뱅이라고 부르는 람루한 바지가 걸려있었다. 이때 은하는 철뚝길을 걸어가던 순찰병들의 군화발을 생각하였다.

《이건 당장 벗어야겠다.》

《쳇, 그럼 난 뭐가 돼요?》

《뭐가 되긴? 〈지하공작련락원〉이지.》

《흥!》

《진호!》 하고 은하는 목에 감은 목도리를 풀어 개면서 낮게 말했다.

《이건 명령이다. 알겠니?》

물론 그에게서 당장 알겠다는 대답이 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진호는 군대들중 어느 누구한테서 본딴것인지 손톱으로 코밑을 박박 긁어대면서 무던히도 갑자르더니 문득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명령이문 할수 없지.》

바로 그때 부엌에서 생금이가 들어와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버님은 어데 가셨어요?》

은하의 물음에 생금은 진호를 향해 생긋 웃으며 옹노에 걸린 토끼를 손질한다고 대답했다.

진호를 위한 특혜이다. 어느새 산에 올라 한바퀴 돌고 내려온 모양이였다.

그리하여 아침식사는 거의 호화로울 정도였다. 토끼고기로 차려진것외에 유명한 령남의 짠지, 식혜며 뜸북장과 고추장까지 올랐다. 여기에다 진호의 거칠고 조잡하면서도 귀여운 익살이 또한 양념으로 가미되였다. 그 애는 새라새로운 부대생활의 인상들과 자기가 겪은 《봉변》들이며 엉뚱한 모험들로써 줄곧 어른들을 웃기였던것이다.

그러나 막상 식사가 끝났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남먼저 숟갈을 놓은 진호가 점잖게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벽에 걸린 사진틀을 쳐다보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먼저 진호는 시들한 호기심을 품고 도포를 입은 한 늙은이의 사진을 손으로 가리켰다.

《이건 누구나요? 이 중같은 사람말예요.》

어처구니없는 그 물음에 다들 웃어버리려 했지만 생금이만은 소년의 멋부린 말투에 끌려들었다.

《그건 저 애 외할배잉기요.》

《예.》

이렇게 되여 젖먹이를 중심에 둔 일가족의 사진소개가 시작되였다.

《헹, 무슨 령감님들이 이리 많을가.》

은하는 진호의 횡설수설에 놀래여 말을 돌려보려고 했다.

《진호, 오늘중으로 또 부대에 가야 해, 전할게 있으니까.》

《내야 련락원인데 뭐라나. 열번이래두 가겠어.》

그러자 류할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그것은 먼길을 온 애를 또 어떻게 보내겠는가 하는 념려였다.

《쳇, 걱정 마시라요. 나만한 련락원이 있는줄 알아요? 정찰병동무들이 날보구 서울갈 하늘손 눈통보면 알린다구 했어요. 내 눈통을 보니까 서울갈 하늘소라나요.》

은하가 웃으며 《눈통》이 아니라 《발통》이라고 소년이 인용한 속담을 시정시켜주었으나 그는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라고 고집했다. 그리고는 대뜸 어른들의 주의를 사진틀에 집중시키는것으로 자기의 실수를 은폐하려고 했다.

《그런데 여기 애아버지 사진두 있어요?… 암만 봐야 없는것 같애.》

순간 가슴이 뜨끔해진 은하는 진호의 바지가랭이를 끌어당겼으나 벌써 생금이가 웃는 소리로 군대에 나갔으니 빼놓았다고 말해버렸다.

《군대? 인민군대 나갔어요?》

《응.》

그러자 진호는 유독 군사에 밝은 사람으로서의 틀진 자세를 하고 부대공개대호를 아는가고 물었고 뜻밖에도 의용군으로 입대하던

날 남편을 배웅하러 찾아갔던 생금이의 기억에 의해 그것마저 밝혀지자 그만 입을 딱 벌렸다.

《아니 그럼 우리 부대에 있단말이예요?》

그는 스스럼없이 그리고 못내 자랑을 담아 《우리 부대》라는 것을 재삼 강조하여 묻더니 대뜸 은하를 향해 부르짖었다.

《맞아요. 우리 부대가 맞아요! 누난 몰라요? 우리 부대 공개대호가…》

《진호!》

이때 누구보다도 더 놀래고 격동된것은 생금이였다. 그는 허둥지둥 말을 더듬으며 자기의 기억과 진호의 증언을 대비하였고 그것이 확실한것으로 되자 그만 신음소리같이 속삭이는것이였다.

《아니 그럼?!…》

어질고도 순진한 생금의 격동된 눈길이 자기에게 던져졌을 때 그리고 이미 엽초를 말고있던 류할배가 《어험!》 하면서 희슥희슥한 머리를 돌려 외면했을 때 그만 은하는 찌르르해지는 눈굽을 손으로 가렸다.

기쁘고 즐겁던 이자리에서 불현듯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어야 할 그 비통한 심정이 가슴을 메웠다.

이자리에 용감한 그 전사도 함께 있다면 저 로인이나 애기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했으랴!… 아프고 분한 마음을 가까스로 누르고 있으려니 생금이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귀전을 울리였다.

《말 좀 하이소. 애아버지소식을 알고있능기요. 예?》

《…》

류할배의 부탁으로 당분간 젖먹이를 키우는 생금이에게만은 알리지 않기로 한것이 너무도 뜻밖에 돌변하였다. 은하는 혀가 굳어지는듯하였다.

(어떻게 말해주랴. 그것은 애젊은 녀인의 가슴에 못을 박는것으로 될것이다. 아니,그러나 이제는 더 늦잡을수 없게 됐구나.)

찌르는듯한 아픔을 누르며 은하는 머리를 돌려 《생금이!》 하고 부르짖었다. 그다음 공포에 질린 생금의 두눈을 보자 저로서도 알수 없는 충동에 의하여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놀라지 말아요. 생금이,일전에 아버님한테는 다 말씀드렸는데… 애아버진 훌륭한 인민군전사였어요. 그는 원쑤들과 용감

하게 싸우다가 그만…》

《예？》

류할배의 석쉼한 음성이 끊어진 은하의 말을 이었다.

《제집 문턱까지 왔댔구나. 그 녀석이 제 구실을 한가부다.》

해쓱해진 생금이의 얼굴에 참을길 없는 경련이 파도치듯 흔들렸다. 한동안 멀거니 은하와 류할배를 번갈아보던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치 허탈상태에 빠진듯 손더듬으로 벽을 짚어가더니 부엌문을 여는것이였다. 그 순간 은하는 그의 한손을 꽉 잡으며 《생금이！》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그는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흑！－》 하고 흐느꼈다. 동그스름한 그의 어깨가 경련적으로 떠는것을 바라보는 류할배의 주름잡힌 눈가에도 후들후들 떨며 비켜섰던 진호의 두눈에도 이슬이 번뜩이였다. 비통한 슬픔과 누를길 없는 아픔이 사람들을 뒤흔들었다.

돌연히 젖먹이가 소스라치듯 놀래며 울음을 터뜨리자 모두 일시에 몸을 떨었다. 다음순간 무너져앉았던 생금이가 와락 달려들어 어린것을 가슴에 부둥켜안았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젖먹이의 볼우에 줄지어 떨어졌다.

그때 류할배가 준렬한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말했다.

《울지 말아. 새아기가 그렇게 울락끄 그 사람들이사 목숨걸구 싸우는줄 아느냐？》

이것이 이 나라 아버지들의 바위처럼 굳은 마음인것이다.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들의 억척같은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것이다.

생금은 더욱더 북받치는 오열을 참느라고 어린애의 볼을 마구 비벼대였다.

은하는 먼저 생금이의 어깨를, 다음은 전사한 인민군용사의 후계자를 함께 껴안으며 절절하게 속삭이였다.

《생금이, 울지 말아요. 아버지의 뒤를 이을 이 어린것을 눈물로 적시면 되겠어요？… 애아버진 마지막으로 이 애 이름을 남해라고 불러달라는 말을 남겼어요. 애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남녘해방의 념원을 담아 남해라고 지었어요. 자, 남해 어머니, 눈물을 닦아요.》

그러자 생금은 애써 흐느낌소리를 삼켜가며 은하의 한손을 으스러지게 꽉 잡았다. 그것은 용감한 인민군전사의 안해로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갈 미래의 용감한 영웅전사의 어머니로서 가슴이 미여

지는듯한 비애를 이겨내고 떳떳이 그리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굳은 약속과 같은것이였다.

8

세찬 바람이 검은 구름장들을 몰고다녔다. 그것은 분명 무시무시한 재난의 징조라고 철도역의 늙은 선로순회원은 중얼거렸다. 그가 레루망치와 가스등,궤간자를 메고 철뚝길에 나설 때면 그를 감시할 괴뢰군사병이 호위병처럼 쫓아다니군했다. 역장은 물론 급수공,전철수,검량원들은 밖으로의 출입이 금지되였다. 사실상 역은 봉쇄되여있는것이였다. 크지 않은 보통 간이역이였으나 여기서는 엄청난 사변이 일어날듯하였다. 게다가 산바람은 채찍소리처럼 아츠럽고 새되게 울부짖었다. 그것들은 벌거숭이 야산을 반반히 훑어내리고 역구내에로 밀려들어서는 오래동안 치우지 않고 버려두었던 짐짝들과 가마니짝들우로 온갖 잡다한 꼬리표며 지난해의 쓰레기들,버려진 문서쪼각들을 덮씌워놓군하였다. 심술궂은 산바람은 서리찬 호령소리를 지르며 역무실의 깨여진 유리창에도 사정없이 날아들었는데 거기서는 대짜배기사람이나 입을 커다란 솜옷을 걸친 진호가 발뒤꿈치를 들고 가까스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금 진호의 눈에 비친 역무실천정은 그을음이 잔뜩 끼였고 한여름철엔 그 수를 헤아릴수 없이 많은 파리떼가 비좁게 붙어있던 흔적들이 소름끼칠 정도로 가득 찍혀있었다.

그다음 낡은 연통,한쪽 벽엔 페색전화기가 걸려있고 다른쪽엔 늙은이들이 《소화 13년에…》 하고 외이던 때에 만들었음직한 부엉이모양의 벽시계가 눈에 띄였다.

창턱에 턱을 걸고 발끝까지 세워서야 겨우 옻칠이 벗겨진 책상이며 이글거리는 화독과 그 앞에 쪼그리고앉아 구리로 만든 상호등에 불을 달아보려고 애쓰는 죄꼬만 계집애를 발견할수 있었다.

그는 휘파람을 한번 휙— 불어대고 담장을 훌렁 뛰여넘었다. 그리고 다시금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았음을 확인하자 역무실문을 벌컥 열어제끼며 들어섰다.

《엄마！—》

가느다란 부르짖음소리와 함께 계집애의 손에서 상호등이 떨어져 마루바닥을 쾅 울렸다.

《놀래긴！ 내가 뭐 도적인가？》

진호는 유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늙은이들이 두루마기 앞자락을 펼 때처럼 무릎아래까지 내려온 솜옷깃을 활 열어젖혔다. 그리고는 마치 주인처럼 전화기앞에 있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하하… 너 꽤나 놀랬구나, 잉？》

계집애도 조심스럽게 따라웃었다. 그러나 경계심은 잃지 않고 진호를 연신 훔쳐보면서 마루바닥에 떨어뜨린 상호등을 집어들었다.

낡은것이긴 하지만 그 애의 온몸이라도 감아놓을것 같은 털실목도리가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감겨있었다. 오목한 두눈이 잽싸게 깜박거리는데다 목도리를 감아 더욱 작아진 얼굴은 인형같기도 하고 옛말에 나오는 요술할미같기도 했다.

《왜 내가 무섭니？》 하고 진호는 벌쭉 웃었다. 《걱정 마. 난 쬐꼬만 계집애따윈 다치지도 않는다.》

진호는 날쌔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남쪽구배선 철뚝길엔 괴뢰군순찰병놈들이 오락가락하고있었고 원방신호기쪽에서는 등어리가 굽을사한 역장이 머리를 수굿한채 천천히 오고있었다.

진호는 화독앞으로 의자를 당겨앉으며 기다란 솜옷팔소매속에서 크지 않은 주먹을 꺼내였다. 그것을 계집애의 눈앞에서 쥐였다폈다하면서 괴뢰군놈들쪽을 흘끔흘끔 바라보았다.

《그럼 얘.》 하고 계집애가 말을 꺼냈다. 《너만큼 큰애들은 때리니？》

《그럼！ 민하게 굴 땐 사정없이 때린다.》

《그 애들은 널 때리지 않니？》

《걔들두 때리지.》

《그럼 너두 맞겠구나.》

진호는 손우벌답게 머리를 끄덕거리며 관대한 미소를 지었다.

《나두 맞지. 그렇지만 내 주먹이 더 세단다.》

《너보담 더 큰 애들두 때리니？》

《그렇지 않구. 난 미국놈들두 막 때린다！》

《거짓부리！》

《정말이야.》

《안야. 거짓부리야! 분이 아버진 너보담 더 큰데두 매맞았어.…》

코집이 드센 계집애였다. 원래 《오목눈》은 고집불통이라는 《인생경험》을 진호는 상기해보았다.

《너 참 똑똑한 애구나. 그래 이름이 뭐니?》

《쌍가매야.》

《쌍가매!… 그럼 쌍가매야, 뭘 줄가?… 옳지, 나한테 군밤이 있어. 너 그런거 먹어봔?》

그때 돌연히 자전거종소리 같은것이 벽에서 울렸다. 고개를 홱 돌린 진호는 그것이 전화종소리라는것을 알자 대뜸 벽에 걸린 고리짝 손잡이와 같은 송수화기를 들었다.

《다치문 안돼. 아부진 전화가 오문 소리치라구 했어.》

《일없다, 쌍가매야. 나두 전화할줄 알어. 잉?!…》

전류가 흐르는 소리며 무엇이 뚝뚝 끊기는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괴이한 목소리가 귀청을 울렸다. 그것은 흔히 둔덕우에서 갑갑증을 못이겨 발버둥질하는 염소의 울음소리와 비슷한것이였다.

《왜 대답이 없어. 거기 누가 없나말이야?》

알지도 못할놈이 역정부터 내는데 진호는 화가 났다.

《나말이야, 역장 조카야.》

《뭐?… 빌어먹을놈의 새끼!》

《뭐라구?》

《야, 이놈새끼 너 빨갱이 아니야?》

《빨개가 뭐야. 역장 조카라는데.》

《이 백당놈의 새끼, 역장 어데 갔어, 응?》

진호의 팔소매를 쥐여당기던 쌍가매가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넌 나쁜애야. 다 대줄래!》

계집애는 문을 열고 뛰여나갔다. 아버지를 소리쳐부르는 그 애의 목소리가 밖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처럼 들려오자 진호는 애당초 일이 글러먹었다는것과 이제 누나가 눈을 빨며 욕하리라는것을 생각하자 부아통이 터져올랐다.

수화기에서는 악에 받친 코멘 소리가 계속 지릉지릉 울리고있었다.

《젠장!…》

진호는 증을 내며 소리쳤다.

《좀 가만있어요. 쌍가매가 나갔다는데두 자꾸 소리치네.》

《야, 이놈새끼 역장을 바꾸라는데 쌍간나가?… 이 쥐새끼같은놈!》

《첫, 네놈이나 쥐새끼다. 쌍!…》

진호는 송수화기를 동댕이쳤다. 줄에 매달려 데룽거리는 수화기에서는 여전히 징징거리는 코멘소리가 계속되고있었다.

나이가 지긋한 역장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진호를 쏘아보더니 벽에다 화풀이를 하듯 대가리를 연방 쪼아대는 송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시오, 예, 제가… 여보시오, 말씀 좀 삼가시오. 여긴 쥐새끼가 없소이다.》

역장은 눈꼬리를 치뜨며 진호를 흘겨보았다. 그가 그렇게 얼마간 더 흘겨본다면 진호의 눈알이 비뚤어지든가 뒤집혀질것 같았다. 뒤이어 들어선 쌍가매마저 진호를 향해 입을 오무려 비쭉거리면서 무어라고 종알거렸다. 그러건말건 진호는 전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역장은 무슨 욕설인가 더 듣고있더니 수화기를 걸고 화독결의 각의자에 주저앉았다. 낡은 의자는 괴롭게 숨을 톺아올리는 역장의 신음소리를 받아 삐걱거렸다.

《역장님.》

진호의 부름에 역장은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진호의 투미한 목소리가 그를 언짢게 했는지 아니면 나어린 소년이 《역장님》이라고 부른 말이 비위에 거슬렸는지 알수 없었다.

《넌 누구냐. 여긴 왜 왔니?》

《역장님.》

진호는 고집스럽게 되풀이했다.

《난 중요한 일때문에 왔어요.》

그리고는 창밖에 시선을 주어 괴뢰군놈들의 거동을 살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맡은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했는데 역장은 우그러든 가슴을 두드리며 기침을 깇느라고 그런것에는 주의도 돌리지 않았다.

《그래 뭐라구?》 역장은 또 물었다.

《빨리 말해라. 내쫓기전에…》
《원소마을 누님이 소식을 기다려요.》
《…》
화독은 뜨거운 열기를 확확 내뿜었다. 깨여진 유리창으로 찬바람만 쓸어들지 않는다면 이 자그마한 역무실에서 땀을 흘리고야말았을것이다. 진호는 그 뜨거운 열을 솜옷속에 잔뜩 저축해가려는듯 불결에 완강하게 버티고 서있었고 역장은 반대로 그 화독이 자기 육신의 남은 열마저 죄다 빼앗은듯 몸을 떨었다.
마침내 역장은 창밖을 흘끔 내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럼 네가 거게서 온 그…》
그가 말끝을 얼버무리는것을 보자 진호는 의젓하게 자기의 신분을 밝혔다.
《련락원이예요.》
《…》
아무리해도 역장은 미덥지 않았던지 오래동안 늙은이다운 엄엄한 눈초리로 바라보기만했다. 저으기 속상해난 진호는 재빨리 창밖을 내다보고 속삭이듯 말했다.
《역장님, 이건 비상수단이래요. 갑자기 놈들의 경계가 너무 심해서 우리 책임자누나가 나를 보냈어요.》
《음-》
역장은 우그러든 가슴을 펴며 진중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래, 알겠다. 그럼 내 말을 똑똑히 새겨둬야 한다. 이제 세시간후 괴뢰군 한개련대 천명을 실은 군용렬차가 여기 도착한다. 어덴지 인민군대를 〈토벌〉하려구 온다더라. 알겠니?》
그는 창밖을 눈짓했다.
《저놈들도 그때문에 나와있다. 이젠 빨리 가봐라. 놈들 눈에 띄였다간 큰일 난다. 그러지 않아도 네가 전화로 뭐라구 했는지 놈들이 널 빨갱이새끼라구 야단치더라. 빨리 모다카가 들이닥치기전에 떠나라.》
진호는 이렇게 중대한 정보를 얻었으나 어쩐지 더 욕심을 부리고싶었다.
《인차 오나요?》
《뭐가말이냐?》

《그 모다카말예요.》

《음, 그건 철길을 순회하느라고 다닌다. 어서 떠나라니까.》

《알겠어요, 역장님!》

진호는 노래부르듯 웨쳤다. 그리고 문을 차고 뛰여나갔으나 다음순간 다시 고개를 쑥 들이밀며 소리쳤다.

《쌍가매, 자!》

그의 손엔 군밤 몇알이 쥐여있었다.

역장은 키대가 늘씬하였으나 세월의 비바람을 홀로 맞고있는 언덕우의 고목처럼 등어리가 구부정했다. 철도제복만 아니라면 환갑을 지낸지도 오랜 늙은이처럼 보일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는 이제 겨우 쉰고개에 올라서는 나이였다.

역장은 강철레루가 뻗어간 홈타기를 바라보고있었다. 아마도 한팔만 쳐들고 섰다면 원방신호기로 착각할수 있을 정도로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한생을 철도에서 선로원의 궤간자와 곡괭이를 메고 걸어와서 지금은 역장이라는 허름한 마지막 표말을 박고 멎어섰다. 뿌리가 깊지 못한 그 표말이라야 군용렬차가 일으킨 회오리바람에도 넘어질것이였다. 결국 그의 한생은 어깨우에서 내려보지 못한 궤간자로 잴수 있는 한기장의 길이—렬차에서 흘러내린 오물로 더럽혀진 침목의 한기장이였다.

발차시간을 1분만 지체시켰다가는 모가지를 바칠줄 알라고 미국놈들이건 괴뢰군놈들이건 무턱대고 권총을 들이대군하였다.

머리에, 혹은 가슴에 총구를 겨누고 역무실의 문턱이나 홈에 버티고서서 팔목시계를 들여다본다. 매 1분마다 세번이상은 더 죽을수도 있는 그런 기회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생명과 바꾸는것으로 선언된 그 1분간은 지나간 인생의 모든 고초를 훨씬 능가하는것이였다. 1분이 3분이 되고 5분이 넘으면 땀흐르는 귀전에서 탕—탕! 총소리가 울리고 구두발이 날아들군했다. 운전조역의 주선으로 그가 한 인민군 녀전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비참한 운명의 마지막 갈림길에 꽂힌 허름한 표말은 영영 진흙속에 묻히고말았을것이다.

순회곡마단의 광고판에 그려져있던 정신 나간 순례자처럼 목적없이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인생의 마감 걸음이 그 처녀로 하여

희망을 안게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그앞에 나타났던 당돌한 소년처럼 인민군대를 돕는 일에서 그는 지나간 한생과 구별되는 새로운 표말을 든든히 박게 될것이다.

《텅, 텅, 텅！…》

남쪽 구배선에서 흰줄박이 철갑모를 쓴 한무리의 《헌병》들을 만재한 모다카가 원방신호기로 들이닿고있었다. 모다카앞에 걸어놓은 기관포가 으시시하게 목쉰 재채기를 퍼붓는것이였다.

《텅, 텅, 텅！…》

위혁적인 기관포소리는 그를 저승의 문지방으로 몰아가려고 사납게 웨치는듯하였다.

《오냐, 맘껏 짖어대려무나. 그러나 이젠 안된다.》

모다카가 멎고 철갑모를 쓴 놈들이 와르르 뛰여내렸다.

괴뢰군장교가 다가와 선로검열을 했는가고 묻고나서 특별렬차가 들어설 때까지 《헌병》들이 역을 통제한다고 선언했다.

《맘대루 하시우.》

괴뢰군 《헌병》들이 사방으로 뛰여다녔다. 역장은 여전히 한자리에 말뚝처럼 박혀있었다.

《아부지！》

별안간 오한이 나는듯 역장은 어깨를 흠칠 떨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쌍가매가 곁에 와서서 작은 손바닥에 놓인 군밤을 내밀고있었다.

역장은 천천히 무릎을 꺾고 앉으며 딸을 그러안았다. 그는 흐릿해지는 눈을 들어 멀리 산굽이로 달려간 강철레루를 바라보았다. 새로운 표말을 박고 시작한 인생의 참된 길은 그처럼 곧게 뻗어있는것이였다. …

9

진호가 가져온 소식은 비록 몇마디였지만 은하는 그것이 부대의 활동에 엄중한 후과를 끼칠수 있으리라는것을 직감하였다. 산간마을근처의 한 간이역에 적의 련대무력이 갑자기 도착한다는것으로 보나 특별히 적들의 경계가 심해진것으로 보나 무엇인가 심상치 않

은 일이 벌어질듯하였다.
그리하여 은하는 자기가 직접 부대를 찾아가 련대장에게 정황을 보고하는 한편 차후행동에 대한 지시를 받기로 결심하였다.
그때 누구보다도 안절부절하지 못하고있은것은 생금이였다. 그는 진호가 말하던 《3시간후에 놈들의 한개 련대가 비밀리에 도착》한다는것이 어떤 위험으로 되는지는 다 알수 없었지만 무엇인가 커다란 일이 벌어지리라는것만은 짐작한것 같았다.
불안과 념려의 눈빛으로 은하를 바라보면서 그는 놈들이 욱실거리는 이때 큰길에 나섰다가 무슨 화단이 생기지 않겠는가고 몹시 걱정하는것이였다.
《일없어요.》 하고 은하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다. 《진호가 길을 잘 아니까요. 저녁은 갔다와서 먹겠어요.》
그러나 막상 진호와 같이 길을 떠났을 때 은하는 다급히 뒤따라오는 생금이를 보았다.
《왜요. 무슨 일이예요?》
은하의 물음에 생금이는 가쁘게 속삭이는것이였다.
《내가 지름길을 대줄락 하능기요. 자,어둡기전에 날래 따라 오이소.》
젖먹이를 업은채로 어두워지는 산길로 앞서 걷는 생금이를 바라보면서 문득 은하는 순박하고 어질기만 하던 이 애젊은 녀인이 지금 남편이 걷던 그 참된 길에 자기의 발자국을 잇기 시작했다는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은하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다. 비록 지금은 수수한 보통걸음에 불과하지만 이제 그 어떤 험하고 어려운 길도 서슴없이 맞받아나가는 큰걸음으로 되리라는것을 은하는 의심치 않았다.
그들은 철뚝이 내려다보이는 산중턱에까지 함께 걸었다. 여기서 은하는 더는 걱정말고 돌아가라고 그를 떠밀었다. 그러자 생금이는 어둠에 잠겨든 산발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당부하는것이였다.
《부디 조심할낭기요.》
지어 그는 진호의 두루마기같은 솜옷단추까지 채워주고서야 돌아섰다. 그러나 얼마후 은하는 그가 그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는것을 보았다.
어느덧 날은 어두웠다. 철뚝너머로부터 가랑잎들이며 지푸래

기들이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두루마리처럼 비꼬이며 날아오르는 것이 아슴푸레 바라보였다.

은하는 진호를 재촉하여 걸음을 빨리 했다. 그렇게 얼마간 걸었을 때 한산한 수림너머쪽에서 우울한 기적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술취한 늙은이의 통곡소리와도 같은 먼 기적소리를 들으며 웬일인지 은하는 가슴이 조여드는것을 느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다시 그 음울한 기적소리가 들려오나 귀를 기울이기까지 하였다.

《왜 그래?》

진호가 묻는 말이였다.

《저게 그 군용렬차가 아닐가?》

자기로서도 그닥 믿지 않으면서 은하는 가슴속에 갈마든 불안과 초조감을 이렇게 드러내였다. 그러나 진호의 생각은 단순하고 명백했다.

《이제 3시간후에야 온다구 했는데뭐.》

《아니,이젠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

걸음을 빨리하면 할수록 더 조급해졌고 알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옥죄이군했다. 초조할 때면 흔히 그러한바와 같이 은하는 극히 드물게만 말을 꺼냈으나 진호는 부대로 간다는것과 이제 본때나는 싸움을 직접 체험하리라는 기쁨에만 취한듯하였다.

《어쨌든 그놈들을 치겠지요?》

《…》

《기차를 뒤집어엎으면 좋겠는데…》

《이젠 늦었어.》

그때 둔탁한 기관포소리가 떠나온 역쪽에서 울리더니 잠시후 모다카 한대가 나타났다.

은하는 덤불속으로 진호를 잡아끌었다.

《무슨 일이 생겼을가?》

《그저 선로검열을 하는거야. 역장님이 그렇게 말했어.》

말라버린 나무가지사이로 흰줄을 띠운 철갑모들이 내다보였다. 아무 목표도 겨냥함이 없이 단지 위세를 뽐내볼양으로 모다카는 발작적인 기관포사격을 또한번 퍼붓고 굽인돌이를 돌아갔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극성스럽게 불어치는 산바람에 날씨는 한결 추워졌다. 하늘에서는 찢어진 구름장들이 하루밤의 은신처를

찾아내려는듯 정처없이 밀려다녔다.
은하와 진호는 바람 세찬 등성이를 내려 바삐 걸었다. 이제 나지막한 둔덕 하나를 지나면 깊은 골안으로 들어설것이며 거기서는 반쯤 무너진 산막에서 련락위치를 알리는 쪽지나 혹은 더 잘되는 경우 늙수그레한 아바이전사(김만복)를 직접 만나게 될수도 있는것이였다.
은하는 연신 발을 결채이며 걸음마다 마음속으로는 분과 초를 재여가며 등성이를 내려섰다.
어둠은 빨리도 사위를 덮고있었다. 산기슭 가장자리를 돌아가느라면 또 시간을 허비할것이므로 그들은 어두워지는 길에 나설것을 결심했다.
바로 그때 그닥 멀지 않은 산기슭에서 꽥！— 하는 기적소리가 울려왔다. 알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혀 은하는 가까와오는 기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잠시후 무수한 불꽃을 굴통으로 뿌려던지며 기차대가리가 먼저 나타났고 이어 유개화차들이 철뚝길에 주런이 끌려나왔다. 들리는것은 오직 덜컹거리는 바퀴소리며 씩씩거리는 거세찬 소리, 찌걱찌걱하는 소리 등 육중한 쇠덩어리괴물의 위세찬 소리뿐인듯하였다.
다시한번 꽥！—하는 흉포하고 사나운 웨침소리가 그 누구를 위협하면서 멀어져갔다.
은하는 슬그머니 진호의 어깨를 잡아돌렸다.
《빨리 가자. 괜히 우린…》
다음순간 은하는 불시로 혀가 굳어져버렸다. 어둠이 깃든 숲가장자리를 따라 두명의 괴뢰군놈들이 돌자갈을 저벅저벅 밟으며 뒤따르는것을 보았던것이다.
숨막힐듯한 한 순간이 지나자 은하의 팔굽을 찌르며 갑자기 진호가 낮게 부르짖었다.
《뛰자요！》
허나 은하는 그 애의 손을 꽉 잡았다. 그러기에는 벌써 때가 늦었다. 부대를 찾아오던 마지막 걸음에서도 그처럼 멋모르고 행동한탓으로 위기에 맞다들번하였었다.
은하는 진호의 손을 잡은채로 걸음을 옮겼다.
《모른척해.》

바삐 서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걸음은 자꾸 허둥거리는것이였다.

등뒤에서 묵직한 군화발소리들이 빨라지더니 사나운 어성이 귀전에 날아들었다.

《서라！》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리면서 벌써 가까이 다가온 놈들에게 어떻게 하면 태연히 맞설수 있을가 하고 생각하면서 은하는 목도리를 풀어 머리에까지 천천히 둘러감았다. 가슴은 숨가쁘게 조여들었지만 선뜻 입을 열었다.

《왜 그러능기요？》

너무도 태연한 그 목소리에 금시 덮칠것처럼 달려오던 놈들이 약간 주춤거렸다.

《웬 사람들이야. 어딜 가？》

그러자 이번엔 커다란 솜옷을 무릎아래까지 늘어뜨린 진호가 주머니에 손을 찌른채 이런 경우를 생각하여 이미 약속해두었던 여러 대답들중의 하나를 제꺽 던져보았다.

《우리 큰할배가 노점병(페병)에 걸려 다 죽게 됐닥꼬 하니더. 그래 누나랑 같이 저 중동마을로 가능기요.》

아마도 놈들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령남사투리엔 전혀 습관되지 않은 모양이였다.

《무슨 소리들이야, 이건？… 그래 어데서 왔어. 바른대로 말해！》

진호가 한발 나섰다. 이미 자기가 미끼처럼 던져본 그 대답이나 그럴사한 령남사투리나 다같이 흡족한 결과를 가져다주었고 또 놈들의 어리둥절해진 모양에 성수가 난 모양이였다.

그는 지어 기다란 솜옷 팔소매를 쳐들어 보이기까지 하면서 되는대로 마구 지껄여댔다.

《우린 저쪽 원소마을에 사능기요. 아레(그저께) 거기서 불이 난걸 보지 못했낭기요？… 에고, 모르능구마！… 우리 마을 종친회장댁에선 송아지가 다 타죽었당께로.》

《됐어, 됐어. 그만 지껄여.》

놈들중 한놈이 진호의 기다란 솜옷팔소매를 나꾸채듯 당기며 투덜거렸다.

《꼭뒤에 피도 안마른 녀석이 다사하긴 젠장！…》

그놈은 진호의 커다란 솜옷을 뒤지며 마구 헤집어보았다. 순간 은하는 속이 한줌만해졌다. 군복을 뜯어 몸에 맞게 고쳐지은 옷이 한순간 펄쩍 드러났는데 겉에 입은 두루마기같은 솜옷과는 너무도 판이한 그것이 단서가 될수 있는것이였다. 그가 어느새 그것을 껴입었는지는 은하도 알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어둠이 그것을 가려주었는지 아니면 위법자를 색출하는데서 특별한 감각을 가진 형사들과는 달리 피와 화약내에만 습관된 놈들이여서 그런지 그자들은 다행히도 거기에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여긴 통행금지구역이야. 알겠어? 저쪽으로 돌아가!》

한놈은 우정 은하를 떠밀치면서 윽박질렀다.

《빨리 가!》

《아니 그럼?!…》

마지막 순간까지 은하는 촌처녀의 역을 다하려고 말을 뗐으나 불현듯 금시 튀여나오려던 말을 꿀꺽 삼키며 얼핏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사투리를 고르느라고 혀를 깨물었다. 때맞추 꾀바른 진호가 제꺽 은하가 못다한 말을 내쏘았다.

《그 먼길을 돌아간단말잉기요? 제발 여기로 가게 해주이소.》

《안돼,여긴 안돼!… 길목마다 다 특별경계란말이야. 빨리 가 빨리!》

은하를 떠밀치던놈이 시끄럽다는듯 총을 추슬러올리더니 땅바닥에 침을 탁 뱉고 돌아섰다.

그리하여 각기 서로 갈라져갔다. 은하는 진호의 손목을 꼭 잡고 가슴속에 짓눌려있던 무거운 숨을 활 내뿜으며 지친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건 왜 말도 없이 입었니? 무슨 일을 치자구 그래,응?》

《그럼 어떡해요?》

역시 가쁜숨을 내뿜으며 진호는 우겼다.

《부대에 가는데도 잠뱅이를 입어요?》

《참 넌 정말!…》

그다음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듯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은하는 그때에야 자기들의 부주의를 뼈아프게 깨달았다. 놈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던 참이였던것이다. 놈들이 수군거렸다. 별안간

고개를 홱 돌렸으나 은하는 자석에라도 붙은듯 인차 발걸음이 떼여지지 않았다.

《어－이！》

놈들이 소리쳐 부르는것이였다.

《꼬맹이 이리 와！》

짜릿한 전류가 심장을 찔렀다. 부지중 몸을 떨면서 본능적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뒤돌아 언덕으로 뛰여오르기에는 벌써 늦었다. 앞에는… 개바닥너머 어스레하게 드러난 밭고랑들… 그너머는 멀리 어둑침침한 릉선으로 이어져있다.

《진호！》

구령과도 같은 짧은 한마디와 함께 돌연 모든것이 소용돌이치고 곤두박질하기 시작하였다. 어데선가 날아온 지푸래기가 얼굴을 후려쳤다. 고함소리가 날아오고 뒤따라 몇방의 총소리가 터졌다.

어느새 개바닥을 건넜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여 울퉁불퉁한 밭가운데를 넘어지지 않고 뛰여갔는지 알수 없었다. 총소리가 사방에서 발작적으로 터진다는것을 느낀것은 얼마후의 일이였다.

후에 가서야 은하는 놈들이 《토벌》을 앞두고 마을과 마을로 갈라진 길목마다 그리고 산으로 통하는 모든 요소마다에도 경계를 펴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빨리, 빨리！》

고양이처럼 날쌔게 돌각담을 뛰여넘은 진호가 손을 내밀며 소리쳤다.

어느덧 키높이 자란 소나무들이 눈앞으로 달려왔다. 조국땅 한기슭에 씨를 박고 자란 그 소나무들은 어마어마한 우듬지를 넓게 펴들어 그들을 가리우며 굵다란 기둥으로 총탄을 막아주려고 어둠속에서 서둘러 마주나오는것이였다.

(됐다. 이젠 됐어！…)

은하는 눈앞에 달려온 굵은 소나무밑둥아리를 쓰러질듯 다가안으며 가쁘게 부르짖었다.

《진호, 빨리 와！》

진호는 뒤늦게야 생각이 났던지 커다란 솜옷을 벗어던지느라고 잠시 주춤거리더니 다시 날쌔게 뛰여왔다. 은하는 그를 향해 팔을 내뻗쳤다.

《빨리, 빨리！》
《누나！》
진호가 내여민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이상한 흐느낌소리와 함께 은하는 허리를 꺾으며 무너앉았다.
《누나？！》
세찬 바람에 솔가지들이 휘청거렸다. 앙상한 풀대들이 쓰러질듯 나가누우며 몸부림쳤고 어데선가 날아온 매운 눈가루들이 눈을 때렸다.
《누나, 왜 그래, 응？！》
《진호, 날 좀… 일으켜줘.》
우중충한 산봉우리너머에서 하늘의 온 변두리가 땅으로 꺼져내렸고 컴컴한 령마루쪽 하늘가에서는 차거운 한점 별빛이 바르르 떨더니 구름장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진호의 부축을 받으며 희끄무레한 나무가지를 더듬어잡으며 은하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으나 그자리에서 비틀거렸다.
《진호.》
《응？》
《안되겠어. 너 혼자서도 부대를 찾아갈수 있지？》
《…》
그 애는 우는것 같았다. 그러나 즉시 소년은 모지름을 썼고 숨이 막혀하면서 작은 어깨에 은하의 팔을 감아얹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안돼. 진호, 그래선 안돼！》
《…》
커다란 나무들이 서서히 비켜섰다. 언제부터였는지 알수 없으나 끝없는 어둠속에서 총성도 사라지고 바람도 잦아들고 한겨울치고는 일찍 있어본적이 없는 무덥고 숨막히는 정적이 깃든것 같았다. 하늘의 구름장들이 꺼져내려 골안을 가득 채웠다. 사방에서 고함소리와 성급한 총소리들이 울리고있었지만 은하에게는 다만 진호의 가쁜 숨결만이 들려오고있었다.
《누나.》 하고 진호가 속삭였다. 《내가 잘못했어.》
《？…》
《내가 잘못했어. 다 나때문이야.》

《진호, 넌 병사답게 행동했어. 넌 병사야! …》
《병사! …》
《그래, 넌 병사야. 네가 그렇게 바라던 군복을 입지 않았니? 그런데 그만 이 누나가 네 마음을 다 몰라줬어. …》
눈가루들이 날아와 얼굴을 때렸지만 은하는 아무런 추위도 알지 못했다. 줄지어 흐르는 땀방울이 입으로 스며들었고 한손으로 부여안은 옆구리쪽에서는 뼈를 갉는듯한 전률이 줄달음쳐왔다. 별안간 은하는 모지름을 썼고 숨이 칵 막혀 팔을 허우적거렸다.
《부탁한다, 진호.》 이윽고 은하는 신음소리를 삼키며 속삭이였다. 《날 혼자 있게 해줘. 넌 어서 부대로 가야 해. 진호, 내 말을 알겠지?》
진호는 그의 팔을 꽉 그러잡았다. 귀언저리로 퍼부어지는 소년의 짧고도 급한 숨결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
《난 누날 버리고 가지 않을테야.》
떨리는 목소리였다.
《내가 죄꼬말 때 엄마가 날 버렸어. 남의 집 문앞에다 버렸대. 그런데 그 집에서도 날 버렸어. 난… 버림받은 고아야. 다들 그렇게 말했어. 그래두 누나는 날 버리지 않았지. 헌데 내가 어떻게 누날 버리구 가? 난 못해, 못하겠어요. 누나하고 같이 있겠어요!》
갑자기 경어로 맺은 그 애의 애원에 은하는 가슴이 조여들었다.
《진호, 우리 병사들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다. 그래 대답해봐. 너도 병사지? 부대가 위험에 빠졌는데도 나때문에 못가겠다고? 병사라면 내 명령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썩 사라져! 알겠니? … 가서 버림받은 고아가 또 되란말이야.》
진호는 그만 은하의 가슴에 머리를 구겨박고 울음을 터뜨렸다.
《누나, 누나!》 하고 그 애는 흐느끼더니 별안간 벌떡 일어섰다.
《누나, 그럼 내 인차 갔다올게. 그럼… 응?!》
마치 돌팔매질한 조약돌처럼 소년은 즉시 어둠속으로 날아갔으나 다음순간 어둠속에서는 《악!》 하는 그 애의 부르짖음소리와 욕지거리소리가 터졌다. 세찬 바람이 은하의 머리우에 가랑잎들을 쥐여뿌렸다.
묵직한 발걸음소리들… 덜미를 잡힌 소년의 가는 신음소리… 어

수선한 소음을 날려버리며 바람이 몰아쳤다. 바야흐로 밤의 수림속에서는 거센 태동이 시작되고있었다.…

10

련대장은 화토불을 마주하고 앉아 낡은 신문들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밤은 깊었다. 갑자기 추위가 시작되여 밤이면 눈가루를 쥐여뿌리는 바람소리가 상처입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리군했다. 그러나 흉포한 이 겨울밤의 아우성소리도 련대장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듯 주의깊게 신문을 읽고있었는데 참모장이 다가와 보고를 했을 때에야 비로소 머리를 들었다.

《정치공작원인 그 녀성동무가 보내온겁니까?》 하며 참모장은 솜동복깃을 내리고 불결에 다가앉았다.

《그렇소. 적들거요.》

련대장은 읽고있던것을 불빛 가까이 가져다대며 참모장을 눈짓했다.

《이놈들 수작질을 좀 보오.》

마치 그는 신문을 읽어주기 위하여 우정 참모장을 부른듯했다.

참모장은 불꾀챙이를 들어 잉걸불을 모아놓으며 멸시에 찬 표정을 지었다.

《구역질 나는 수작질이지요.》

《그러나 적을 치자면 적의 무기를 알아야 하오.》 련대장은 주의깊은 눈길을 참모장에게 옮겼다.

《화력기재만이 무기가 되는건 아니지 않소. 지금 놈들은 너절한 거짓말도 무기로 삼고있소. 허튼 수작질을 하면서 교활한 목적을 추구한단말이요.》

그는 다시 신문을 눈앞에 가까이 가져갔다. 그것은 미제침략군 8군공보처에서 조선어로 발행한 《세계뉴스》였다.

《내 읽을게 듣소. 〈상기한 유엔상주 미국대표 오스틴씨의 새로운 〈정전안〉은 전선에서의 일시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유익한

국면을 가져오게 될것이라고 한국정세에 우려를 품고있던 〈제네랄 엘렉트릭〉회사의 사장인 윌손 산업동원국장도 어제 가진 인터뷰에서 주장하였다.〉… 이건 놈들이 기만적인 무슨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시간을 얻어 패전을 수습하고 맥아더에게 재공격의 기회를 마련해주자는거요.》

《놈들이 바빠맞게 됐지요.》 하고 참모장은 동감을 표시했다. 《앞뒤에서 얻어맞으니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렇소.》

련대장은 손에 펴들었던 신문을 접어 불속에 던져넣었다. 그는 비록 평상시나 다름없이 과묵한 성미그대로 침착하게 자료들을 연구하고 정찰의 보고 등을 종합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극도의 긴장을 느끼고있었다.

긴박한 정세였다. 전선에서는 철과 불의 강력한 결투가 시작되였다. 후일에 가서 명백히 증명된바와 같이 그것은 거의 전쟁의 종국을 판가름하나 다름없는 대결전으로서 막대한 유생력량의 소멸이 벌어진것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후일의 일이였다. 지금은 전선서부는 물론 중부와 동부 할것없이 발동기들의 강력한 우르릉소리로 소란하였고 전례없는 병력의 투입이 벌어지고있었다. 이제와서는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하나의 작은 예비대라도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줄것이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적의 전략 및 작전적 종심에서 활동하는 제2전선련합부대의 임무가 특히 무거워졌다. 이미 전전선에 결쳐 아군의 강력한 반타격전이 개시된 오늘 그들은 이미 군단장의 명령에 지적되여있는 미제침략군 8군의 작전적 예비대를 얽어매며 배후타격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야 했다.

엄동의 추위속에서 변변히 먹지도 못하고 미처 잠자리도 마련할새 없이 기동하고 전투를 벌리는 전사들이였다. 희생된 전우들을 묻고 떠나면 또다시 총포탄과 추위와 병마가 뒤를 따랐다. 대오는 나날이 줄어들고 옷은 찢기고 총탄은 떨어졌어도 무거운 임무는 나날이 더 늘어갔다. …

잠시 침묵이 있은 끝에 련대장은 적들의 기동정형을 종합했는가고 참모장에게 물었다. 참모장은 어깨에 메였던 가방을 벗어 뚜껑을 열었으나 고쳐 생각하고 도로 닫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적들은 우리 련대의 활동지역에만도 방대한 무력을 증강

하고있습니다. 정찰의 보고와 간이역에서 정치공작대원동무가 종합한 자료를 놓고보면 현재 2천여명의 무력을 집결했는데 그외 5개중대 이상의 박격포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은 스테이지란놈이 새로운 〈토벌〉을 곧 시작하리라는것을 말해주고있습니다.》

련대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리고 놈들의 기동에서 주목되는 점은…》 참모장은 계속했다. 《전선지구, 특히 원주 횡성계선에서 괴뢰군 2사 및 7사의 일부 구분대들이 배비변경하여 후방으로 기동하고있다는것입니다.》

《옳소, 바로 그거요!》 련대장의 어깨에 걸쳐있던 외투가 미끄러져내렸다. 《전선으로 떠나려던 미해병1사의 분견대까지 우리 련합부대를 목표로 끌어왔소!…》

련대장의 두눈에서 납빛이 튕겨나는듯했다. 부지불식간에 두주먹을 불끈 쥐면서 련대장은 쇠소리가 나는 음성으로 말했다.

《드디여 때가 왔소. 이제 와서 놈들은 작전적예비대까지 우리에게 들이밀지 않을수 없게 되였소. 마침내 놈들이 끌려나왔단말이요!》

보이지 않는 어둠속 어덴가를 황황 불타는 눈으로 쏘아보고있던 련대장은 외투를 걸치고 결연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분대지휘관들이 다 모였는지 알아보시오. 우린… 시간이 없소.》

골어귀쪽에서 말투레질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참모부의 위치를 알려주는 소리였다. 참모장이 어둠속으로 사라지는것을 바라보면서 련대장은 다시금 주먹을 불끈 부르쥐였다. 돌덩이같은 그 주먹에서 뼈마디가 부러지는듯한 소리가 났다.…

얼마후 골어귀의 화토불에서 열린 지휘관참모부회의에는 각 대대장들, 독립중대와 소대 구분대장들 그리고 《반유격대대》기본집단을 소멸한 이후 예비대로 돌려진 3대대 8중대 중대장 류성우 등 10여명의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적후에 들어와 극히 드물게 있는 이런 회의들에서는 모든것이 신축성있게 론의되였고 결정되군 하였다. 조성된 정황에 대한 분석, 주타격대상, 지휘관의 결심, 임무의 료해… 이것이면 충분하였다.

여기서도 그것은 례외로 되지 않았다. 적들의 기동배치정형에 대한 참모장의 개괄이 있은후 련대장은 준엄한 어조로 말하였다.

《적들은 이제 하루이틀내에 우리를 〈토벌〉하려고 달려들거요.

정예부대들로 증강된 이 〈토벌대〉는 우리 련대들을 하나하나 압살해버리려고 꾀하고있소. 그러나 동무들, 우리는 오늘까지 이 시각을 기다려왔소. 병력에서나 화력에서나 수십배에 달하는 이 정예부대들, 다시말하면 적들의 작전적예비대가 우리에게 쏠리게 될 이때를 기다렸고 그렇게 하도록 놈들을 피롭혀왔소. 이것을 위해 피를 흘렸고 간난신고를 다 겪으며 놈들을 타격했던것이요.》

련대장의 묵직한 어조는 고르롭게 울렸으나 그 마디마디는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류성우는 이 평범한 말속에 들어있는 흥분과 억제할수 없는 격정을 숨막히게 느끼고있었다. 비록 범상하게 들릴수도 있는 그 말속에는 포탄창고의 폭발도, 문기의 마지막 부탁도, 《유엔도로》에서 희생된 전사들의 념원도, 명국의 노래도 다 들어있는것이였다.

《결사전을 할 때가 드디여 왔소!》 련대장은 계속했다. 《그러나 우린 놈들이 끌려나왔다고 해서 기다리고있어서는 안되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적당한 기회를 노려 선제공격을 하여야 하오. 그것은 어느때인가?… 놈들이 〈토벌〉 준비를 완전히 끝낸 시간 즉 집결을 끝내고 출발을 앞둔 때에 타격하자는것이요!…》

이어서 련대장은 각 대대들의 기동로정, 타격대상들을 지적하고나서 이렇게 말했다.

《판가리요!… 동무들, 최고사령부의 작전적방침을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판가리싸움이요!…》

랭철하고 단호한 련대장의 이 말을 들으며 류성우는 얼어드는 귀바퀴를 아프게 문질렀다.

바로 그때 덩굴숲을 헤치는 발걸음소리들이 가까와왔다. 련대장련락병과 김만복을 알아보자 류성우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먼저 련대장련락병이 낮게 말했다.

《련대장동지, 정치공작대원동무가 급한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련대장은 서둘러 차렷자세를 취하고있는 김만복을 자세히 보려는듯 불빛을 피해섰다.

《보고하시오.》

《보고하겠습니다, 련대장동지!》 김만복은 흥분한 목소리로 웨치듯 말했다. 《지금 원소마을과 린접한 간이역에 전선에 기동

하던 정예련대가 내린다는 정보입니다!》 석쉼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신은하동무가 보낸 정보에는 천명의 기동련대가 벌써 2시간전에 도착한것으로 되여있습니다.》

련대장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뜻하지 않은 소식에 바싹 긴장해졌다. 잠시 김만복의 가쁜 숨소리와 밤의 수림을 휩쓸어대는 눈바람소리를 들으며 모두 일시에 숨을 죽이고 서있었다. 엄중한 위험이 다가오는것이였다. 이 기동련대가 배후에서 달려든다면 사태는 결정적으로 전변될것이였다. 그것은 파멸을 예고하는것이였다.

《그런데…》 하고 련대장은 김만복을 향하여 낮은 소리로 묻고있었다. 《왜 소식이 늦었소?》

《련대장동지, 그건…》

김만복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련대장련락병이 그가 못다한 말을 대신해주었다.

《련락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왔습니다.》

그제서야 김만복이 말을 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대전사였던 류문기동무의 처가… 젖먹이까지 업구오는걸… 제가 만났습니다.》

《?…》

젖먹이의 목쉰 울음소리가 울린것은 그 순간의 일이였다. 웬일인지 그 울음소리는 류성우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자기로서도 뜻밖에 어둠속에 서있는 애젊은 녀인에게로 달려갔다. 무엇때문인지 약간 비칭거리는 녀인을 부축하자 입술을 깨문 신음소리처럼 고통에 사무친 흐느낌이 녀인의 입에서 새여나왔다.

《왜 그럽니까. 이젠 안심하십시오.》

류성우는 녀인이 무서운 밤길을 달려온때문이려니만 생각하고 목쉬게 울어대는 젖먹이를 들여다보았다.

《남해!…》 그의 마음속 부르짖음이였다. 《네가 벌써 우리와 함께 이 길에 나섰구나!…》

그때 련대장과 참모장 등 많은 사람들이 녀인에게로 다가왔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련대장이 조용히 물었다. 《은하동문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구 진호는?…》

무엇인가 가슴을 에이는듯한 불안이 스쳐지났다. 성우는 그대로 굳어져버렸다.

은하？！ 진호？！… 그들이 오게 되였었단말인가？…

련대장의 말소리를 귀결에 들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글쎄 놈들이…》 애통한 흐느낌소리와 함께 녀인은 간신히 말을 더듬어갔다. 《총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그놈들이…》

문득 누군가의 우악스러운 손이 성우의 명치끌을 쥐여박은것 같았다. 김만복이 다가와 비통한 목소리로 《중대장동무！》 하고는 팔을 붙잡는것을 멍하니 보면서 가까스로 녀인의 떨리는 말소리를 분간해들었다.

그것은 은하와 진호를 지름길로 안내해준 생금이가 얼마후 집으로 돌아가던 때 있은 일이였다.

갑자기 어둠속에서, 그것도 은하와 진호가 사라진 그쪽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한방, 두방 또 련달아 총소리가 났고 다음은 전투라도 붙은듯 맹렬히 울리기 시작했는데 간간이 웨침소리들도 들려왔다.

생금이는 정신없이 그쪽으로 내달렸다.

가슴을 찌른 불길한 예감은 틀림없었다. 얼마후 그는 철다리근처에서 놈들에게 끌려가는 두사람을 분간해본것이였다.

너무도 뜻밖에 당하는 무서운 일로 그는 심장이 얼어붙는듯 했다. 왁자지껄하는놈들의 말소리가 멀어져갈 때까지도 그는 철뚝가까이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그가 드디여 부대를 찾기로 결심하기까지, 은하와 진호가 그토록 서둘러대던 일이며 그들이 주고받던 이야기들에서 애 아버지가 싸우던 부대에 무엇인가 커다란 위험이 다가온다고 느끼던것을 상기하기까지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는 주먹을 부르쥐고 걸음마다 발을 걸채이며 어둠속을 달렸다. 어떻게 깊은 산속으로 서슴없이 들어설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민군전사들을 만날수 있었던지 그에 대해서 생금이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은하와 진호를 한시바삐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청으로 자기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끝냈고 다시금 어깨를 떨면서 흐느꼈다.

련대장은 련락병에게 녀인을 군의소로 안내하라고 이르면서 중요한 소식을 알려주어 고맙다고 몇번이고 말하였다. 그는 거듭

시계를 들여다보았고 《3시간후, 3시간후란말이지. … 그런즉 벌써 놈들은…》 하면서 긴장한 사색을 이어나가고있었다. 이 모든것을 성우는 귀결에 들었다. 참모장이 《공격시간을 앞당겨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 말도 《그렇소, 분초가 새로와지고있소.》 하는 련대장의 말도 먼 우뢰소리처럼 들렸다.

은하!… 그들은 멀고도 험한 길을 걸어오면서 한시도 잊은적이 없는 소중한 사랑을 단 몇분밖에 나누지 못했었다. 지어 성우는 그 녀자의 얼굴도 자세히 들여다본것 같지 않았다. 고생속에 해쓱하니 여위였던 은하, 그가 붙안았을 때 두눈을 꽉 감던 은하, 남자들끼리처럼 선뜻 손을 내밀던 은하… 이러한 기억의 파편들이 눈앞을 스쳐날았다.

심장을 갈가리 찢는듯한 아픔, 등골로 흘러내리는 차디찬 전률… 놈들에게 은하가 잡혀갔다!…

얼음판에 미츠러지는 은하를 더위잡았을 때, 머리우에 내려앉은 그 눈송이들을 뜨거운 입김으로 불어주고싶은 생각이 치밀어올랐을 때 그리고 그 녀자의 가슴속에서 울리는 그 힘찬 사랑의 박동소리가 흉벽에 쿵쿵 마쳐왔을 그때에는 한순간의 뜨거운 포옹으로 오늘과 래일의 그 모든것이 결정된것으로 믿어졌었다. 그러나… 지금 은하는 기약할수 없는 먼곳 아득한 구름너머로 사라져간듯싶었다. …

《류성우동무!》

련대장의 단호한 목소리였다. 순간 류성우는 허리를 꼿꼿이 펴며 그를 향해 돌아섰다. 순식간에 그의 마음은 쇠덩어리처럼 굳어졌고 사나와졌고 날카로와졌다.

《동무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겠소.》

다시한번 성우는 힘차게 가슴을 펴면서 숨을 크게 내쉬였다. 눈가루들이 아프게 그의 눈두덩을 때렸다. …

제 6 장

1

류성우가 중대에 도착하자 화토불가에 둘러앉았던 엄기창정치부중대장과 소대장들이 다급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랭혹한 의혹의 눈빛들이 어둠속에서 번뜩이고있었다. 순간의 침묵이 있은후 먼저 엄기창정치부중대장이 굵은 목청으로 물었다.

《전투명령입니까?》

《그렇소.》

성우의 대답은 너무도 짤막했다. 무엇인가 불안한 예감을 느꼈던 모양으로 황히세소대장은 중대장의 발뒤꿈치에 바싹 붙어서있는

련락병 배다운에게 찌르는듯한 눈길을 던졌는데 그 순간 련락병은 불빛을 피하여 류성우의 잔등뒤로 들어서버렸다.

《동무들, 우선 중대를 기상시켜야겠소. 시간이 급하오.》

전투비상소집구령이 내리자 화토불가에서 잠들어있던 전사들이 화닥닥 뛰쳐일어났다. 별안간 사전 예고도 없이 내린 구령이였지만 그들은 일어나자바람으로 총을 들고 장구류와 수류탄들이 손가까이에 불편없이 바로잡혔는가를 살피며 바삐 서둘렀다.

다시 군관들이 모여 이번엔 일렬횡대로 엄숙하게 정렬했을 때 웬일인지 류성우는 심한 갈증을 느끼며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지금도 그는 심장의 떨림이 없이 그 명령을 그대로 되새길수 없다.

《…기동련대를 차단할것… 체포된 정치공작대원과 련락원소년을 구원할것…》

어찌 그뿐이랴. 부대에 련락을 가져온 녀인, 전사한 류문기의 젊은 안해는 체포된 두사람중 한사람은 벌써 희생되였거나 중상을 입었는지 놈들이 질질 끌고가는것을 보았다고 한다. 어둠속이여서 그것이 누구인지 분간할수 없었다고 했다.

류성우는 랭혹하게 마디마디에 력점을 찍어가며 중대에 맡겨진 명령을 전달하였다.

《동무들, 래일중 적들의 대대적인 〈토벌〉이 예견되므로 부대에서는 공격시간을 앞당기기로 하였소.

중대의 전투임무는… 새로 투입된 적기동련대가 주력과 합세하지 못하게 유인하는것이요. 우리가 놈들을 따돌리지 못하면 련대는 배후에서 타격을 받게 되므로 엄중한 위험에 처할수 있소.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이놈들을 차단해야 하오. 시간이 급하기때문에 구체적인 임무는 차후에 주겠소. 목적지는 최단거리 12키로지점에 있는 간이철도역이요.》

사실상 류성우로서는 그밖에 더 할말도 없었다. 부대의 상관들은 한때 령활성과 대담성으로 자기의 정찰병다운 기질을 한두번만 보여주지 않은 류성우에게 이 임무를 특별히 맡기게 된다는것을 암시하면서 이렇게 말했었다.

《…모든것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심하시오. 그러되 명심할것은 날이 밝고 놈들이 기동을 시작하면 벌써 늦는다는것이요. 놈들이 출발하기전에 타격을 가하여 혼란에 빠뜨린 다음 유인하

여야겠소.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진 그 다음말을 생각할 때, 즉 《체포된 정치공작대원과 련락원소년》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성우는 날카로운 충격에 심장이 멎는듯하였다.

별안간 류성우는 등뒤에서 《중대장동지!》 하고 부르는 목소리에 흠칫 놀랐다. 귀에 익은듯한 그 녀자목소리가 너무도 뜻밖에 그의 귀청을 아프게 울린것이였다.

《상급준의 안혜순외 4명 중대에 배속되여왔습니다.》

상급준의와 대대위생소의 긴장한 위생병들이 서있었다.

짤막하고 성급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류성우는 문득 포탄창고습격을 앞두었을 때 부대에서 경험있는 공병들을 보냈던것을 생각하였다. 《유엔도로》전투를 앞두고는 반땅크총수들이 배속되였고… 그런데 오늘은 상급준의와 위생병들이 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것인가?… 보충수순서대로 번호를 부르는 대렬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가며 그는 이제 있게 될 전투의 가혹성을 느꼈다.

성우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다시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시간!… 시간을 넉넉히 가진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데 있으랴. 푼푼히 쓰고 푼푼히 랑비해버리는 그 귀한 시간을 그대로 남김없이 자기에게 넘겨준다면!… 하고 그는 심장을 치는 초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생각하였다. 시간이 남아돌아가는 사람처럼 불행하고 가련한 사람은 없다는데 대하여 지금 그는 가뭇 잊고있었다. 살같이 달리는 시간을 저주하고 심장을 조이며 한초한초를 깨물어 세워버릴듯 입을 꽉 악물고 들여다본다. 새벽 2시였다.…

언제였는지 알수 없으나 눈앞에 안혜순이 나타나있었다.

《중대장동무, 대렬에 들어설수 있습니까?》

《…》

판가리를 앞둔 이 시각에 하필 녀성군인을 보낼건 뭐란말인가?!… 류성우는 체험에 의하여 녀성군인들의 부상이나 희생을 대할 때 특히 가슴이 쓰라려나던것을 잊을수 없었다. 그들이 고통을 겪을 때에는 아무리 비통한 희생앞에서도 눈물없이 억척같이 버티여내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돌려 외면하지 않을수 없는것이였다.

《동문… 련대에 있을걸 그랬소.》

이번엔 안혜순이 입을 꽉 다물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낮고도

맵짠 어조로 말하였다.

《전 보통 위생병으로서가 아니라 한 군의일군으로서 왔습니다. 중대장동무, 부대에 위험을 알려주고 체포된 사람들중에는 군의일군들의 도움을 기다리는… 생명이 위급한 사람도 있어요.》

불현듯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치 귀속말처럼 그는 덧붙였다.

《저도 명령을 받았어요. 또… 정치공작대원은 저의 벗이예요, 중대장동무.》

어떻게 그가 은하를 알고있으며 지어 벗으로 부를수 있게 되였는지 전혀 짐작조차 할수 없었지만 류성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러한것들은 이 마당에서 아무런 의의도 없는것으로서 다만 그들은 모두가 귀중한 전우들이라는 자각이면 충분하였다. 마음은 일순 뜨거워났지만 성우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고 싸늘한 명령조로 말했다.

《상급준의동무, 위생병들과 같이 대렬좌익에 들어서시오!》

《알았습니다!》

중대는 캄캄한 어둠속, 얼어붙은 수림속에 정렬하였다. 눈을 퍼담아 덮어버린 화토불에서 끄물끄물 피여오르던 연기도 바람에 날려버렸다.

불현듯 처음 중대에 와서 전사들과 마주섰던 일이 생각났다. 역시 수림속이였었다.… 거기에서 류성우의 첫 인사말, 웬일인지 종잡을수 없이 길어만져서 화가 나던 인사말이 있었고 다음… 그들 중대장과 전사들은 전투에로 나아갔다. 바람 세찬 수림속에서는 가랑잎들이 날아올랐고 포탄창고습격의 길에서는 처음 비줄기가, 다음 진눈까비에 이어 젖은 눈발이 흩날리면서 4계절의 온갖 재난을 다 퍼부었었다.

그날 함께 떠났던 많은 전사들이 지금은 이 대오속에 서있지 않다. 대오는 줄었고 소대와 분대들에는 많은 보충수자리들이 비워졌다.…

그는 전중대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는 대렬중간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아직 아무런 전투명령도 전하지 않았건만 전사들은 야밤의 이 전투비상소집이 얼마나 가혹한 싸움을 의미하는가를 예감한듯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있었다.

그는 어둠속에 정렬한 병사들을 차례로 더듬어보았다. 그날,

중대에 처음 왔을 때에도 이렇게 둘러보았었다. 그때엔 모든 전사들의 생김새며 군복어깨의 총탄자욱을 깐깐히 기운 바느질솜씨까지 알아볼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만은 다 볼수 없었다.

고집스럽고 신랄한 문기의 가슴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꿈이 들어있는지, 언제나 찌프려뜨린 사나운 인상으로 파격하게만 느껴지던 황히세에게 얼마나 뜨거운 심장이 뛰고있는지, 체소하고 병약해보이는 안경낀 엄기창이 얼마나 굳건하고 믿음직하게 중대를 떠받들고있는지, 중대오락회책임자 김명국이 얼마나 새로 온 중대장과 목청을 합쳐 우렁찬 4성부합창을 부르고싶어했는지 알지 못했고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낯선 병사들이였고 중대는 생소했다. 그러나 지워진 임무는 더없이 무거웠다. 그는 오직 8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초조해하고 성급하게 뛰고 구령을 웨쳤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투명령으로써만 결합된 중대장과 병사들이였다.

무모한 결심, 돌이킬수 없는 파오, 중대의 포위… 그와 더불어 치밀어오르던 증오와 피타는 분노, 고민, 자책… 이러한 나날에, 즉 포위와 돌파의 나날에, 《처벌》의 나날에, 가혹한 《유엔도로》 싸움의 나날에 그들 중대장과 병사들은 하나의 피줄로 이어지고 하나의 총창으로 결합되였다. …

지금 류성우는 자기앞에 정렬한 중대, 《나》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나의 중대》를 보고있다. 비록 캄캄한 어둠속일망정 그는 황히세로부터 김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사들의 표정, 그들의 마음속 굳은 각오를 읽을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전사들의 위치와 그 빈 공간들을 메우며 들어선 새 보총수들의 이름도 부를수 있다.

이 대오속에서 떠나간 그들의 모습을 다시 볼수만 있다면!… 다시한번 그들과 같이 결사전에로 나갈수만 있다면!… 랭혹한 아픔이 가슴을 쥐여뜯었다. 그는 숨을 크게 내쉬며 입을 열었다.

《동무들, 이제 우리는 적의 기동련대를 유인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린접도 없이 지원도 없이 단독으로 합니다. 나와 동무들의 힘만으로 천여명 적의 기동련대와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동무들, 이것은 우리가 바라던 일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놈들은 드디여 끌려나왔습니다. 이제는 마침내 결사전을 할 때가 왔습니다.》

말을 끊었다. 어둠속에 정렬한 미더운 자태들을 다시금 둘러보았다. 거친 숨결들이 전해져왔다. 그러자 무엇인가 좀더 말하고싶어졌다. 포탄창고습격으로부터 함께 걸어온 싸움에 대하여, 가슴아픈 희생들을 다 이겨가며 오늘의 이 결정적인 판가리에까지 이르른 기쁨에 대하여 말하고싶었다. 그러나 무슨 말을 또 더 하랴. 그들— 중대의 전사들모두가 그것을 알고 느끼고 각오하고있는것이였다.

류성우는 지금 이들에게는 그 어떤 감동적인 웅변도 필요없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지금은 오직 엄숙한 명령만이 필요한것이였다. 그리하여 류성우는 별안간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목적지는 간이역입니다. 거리는 12키로. 강행군으로 가닿아야 합니다. 차후임무는 소대장들을 통해서 주겠습니다. 동무들, 잊지 맙시다. 이 싸움은 우리에게 결사전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판가리에로 부르는 엄숙한 명령이였다. 그 명령은 또다시 전사들의 가슴을 세찬 충격으로 뒤흔들어놓았다. 어둠속에 정렬한 전사들의 두눈에서는 비장한 결의가 번뜩이고있었다.

그리하여 출발구령이 내리자 중대는 신속하게 골안을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 역시 장구류를 완전히 갖춘 보병중대들이 어둠속으로 사라져가고있었다. 전체 부대가 이 밤 공격시간을 앞당겨 판가리싸움에로 달려가고있는것이였다.

…중대는 강행군으로 예견한 시간안에 목적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간이역까지는 많은 거리를 두고있었다.

류성우는 적의 기동련대가 숙영을 편 간이역으로 가까이 접근하기가 몹시 어렵다는것을 알았다. 역을 중심으로 적들은 반경 2키로까지 경계근무를 세웠고 집에 들지 못한 많은 적들은 도처에 화토불을 피워놓고있었다.

멀리 작은 간이역이 내려다보이는곳, 철길을 사이에 둔 야산둔덕에 중대를 은페시키고 류성우는 초조한가운데 적정을 감시하고있었다.

벌써 새벽 4시를 15분나마 넘기고있었지만 그는 아직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있었다. 포탄창고습격에서는 모든것이 예견되여있었고 훈련되여있었다. 철조망으로부터 감시대까지의 거리도 정확한 거리로, 지어 발걸음수로 계산되여있었다. 전사들은 전투에 들어가기전에 자기들이 달려야 할 구간, 까부셔야 할 대상물 그리고

자기를 겨눈 총구들의 수자에 이르기까지 알고있었다. 전투준비는 이미 련대장의 지도에서부터 구상되였고 24시간의 실전과 같은 모의훈련으로 그 성과여부가 검증되였다. 그러나 지금은 단지 적들이 불과 몇시간전에 기동해왔으며 한개 련대 1,000명 이상에 달한다는것, 이제 날이 밝으면 주력과 합세하기 위하여 기동하리라는것밖에 아무것도 없는것이였다.

《타격하고 유인하시오!》

명령은 짧은 이 한마디였고 모든것은 중대장인 류성우, 그의 결심에 달려있었다. 기껏해야 이제 시간반의 여유만이 남아있다.

어떻게 타격할것인가?… 타격하되 급소를 찔러야 한다. 그것은 곧 적의 지휘체계를 마비시켜야 함을 의미하는것이나 지금 중대는 간이역까지 접근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있다.

팽팽하게 조여진 신경선들을 무자비하게 재깍재깍 찍어가며 시간은 흘러갔다. 그 분과 초들에 중대의 운명, 나아가서 련대의 공격성과가 좌우되고있으며 귀중한 사람의 생사가 판가리되고있었다.

그때 산굽이를 돌아 모다카 한대가 달려오고있었다. 순간 황히세소대장이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저놈을 빼앗아 타고 쳐들어갔으면 제길!…》

한때 자동차운전사였던 황히세로서는 그럴만한 일이다. 그러나 모다카는 자동차가 아니다.

《그건 위험하오. 그리고 놈들을 깨워놓을수 있소.》 하고 류성우는 말했다.

밤은 차고도 음산했다.

황히세의 세찬 코김소리가 울려왔다. 그것은 조바심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심정이 나팔통처럼 거칠게 울리는것이였다. 마치도 그것은 《중대장동무, 그럼 빨리 공격명령을 주시오!》 하는 웨침소리인듯싶었다.

공격?… 안된다. 무모한 공격은 중대를 전멸시킬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셈인가, 중대장?… 중대는 명령을 기다리고있다.

모다카는 중대가 은페한 야산밑을 지나 역쪽으로 달려가버렸다. 잠시후 역구내에서 거밋거밋한 형체들이 부산스럽게 뛰여다니기 시작했다. 류성우는 세찬 심장의 압박으로 숨이 막혀버리는듯했다.

(끝내 기회를 놓치고마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역구내에서 벌어지고있었다. 역무실에서 불빛이 쏟아져나오고 뒤따라 몇놈이 쓸어나오더니 모다카에서 내린놈과 같이 도로 들어갔다. 문이 닫기자 서리찬 어둠속에서 역무실 창문만이 벌거우리하게 바라보였다.

황히세소대장이 얼어든 몸을 급격한 동작으로 주물러대며 속삭였다.

《저놈들이 기동을 시작하자는게 아닐가요. 모다카에서 내린 놈이 혹시 련락장교라면…》

그럴수도 있다. 아니면 어떤 큼직한놈이 왔을수도 있고… 벌거우리한 저 창문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을가?…

문득 그는 손가락들이 저려나는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짜릿한 모험에 들어갈 때나 혹은 기발한 생각이 머리속에서 번뜩일 때 흔히 생겨나는 날카로운 흥분의 경련이였다.

(분명 저 창문안에 기동련대지휘처가 자리잡고있다. 모다카에서 내린놈을 서둘러 맞이해 들어가는것을 보면 그것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류성우는 적지휘부를 습격한다면 놈들이 커다란 혼란에 빠질것이고 지휘체계가 마비된 적들을 유리한 지형에 유인할수 있을것이라는것을 생각하였다.

바로 그 순간 그의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해줄 한가지 소식을 가지고 철뚝 가까이 잠복해있던 방성화분대장이 소리없이 나타났다.

《중대장동지, 방금 순찰병들과 전투경계놈들이 군호를 주고받는것을 들었습니다.》

아픔과도 같은 예리한 기쁨이 머리를 찔렀다.

《뭐요?》

《지게, 방아다리!》

류성우는 비로소 자기의 가슴이 쭉 펴이는듯했다.

《좋소, 1소대장동무, 소대장동무들을 모이게 하시오.》

소리없는 발걸음들이 다박솔사이로 급히 달려왔다.

《동무들, 놈들이 전투준비를 갖추고 기동을 시작하면 우리가 자기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것을 동무들도 잘 알것이요.》

류성우는 자기와 마주한 사람들을 둘러보며 흥분을 억제하느라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나의 결심은 이렇소. 날이 밝기전에 우리가 먼저 적들을 기습하되 기본은 적지휘부를 치자는거요. 이렇게 되면 적들은 벌써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잃게 되고 혼란에 빠질것이요. 눈알이 빠진 미친 황소를 생각해보시오. 비록 그놈이 힘은 세고 사납게 뿔로 덤빈다 해도 그때는 별로 무섭지 않소.

동무들, 지금 시각은 4시 40분이요. 습격은 내가 지휘하겠소.》

모두 흠칫 놀랜듯하였다. 말없는가운데 전류처럼 찌른 충격은 류성우로 하여금 이것이 모험적인 충동에서 나온 무모한 결심이였는가를 다시 돌이켜보게 하였다.

아니다, 비록 포탄창고습격이 있은 이후 련대참모장앞에서 호된 추궁도 받았지만 지금은 전혀 사정이 다르다. 그는 적으로 가장하여 들어가지 않고서는 적지휘부로 접근할수도 없고 체포된 사람들의 행방도 알아낼수 없다는것을 깨달은것이였다.

《나의 대리인은…》

류성우는 엄숙하게 군관들을 둘러보았다.

《정치부중대장동무요.》

전투를 앞둔 때 흔히 지휘관들은 자기의 대리인을 정해둔다. 그것은 두말할것 없이 희생을 예견하는, 그것도 자기자신의 희생을 념두에 둔 명령인것이다.

허나 준엄한 시각, 모든 명령지시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시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황히세는 《제기할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고 자기를 습격에 보내달라고 하였다.

잠시 그의 눈빛을 마주보던 성우는 이윽고 지금까지의 랭혹하던 목소리와는 달리 조용히 말했다.

《지금 저속에 놈들 손에 체포된 두사람이 있소.》

문득 황히세가 부르쥔 주먹속에서 뼈마디소리를 내면서 거칠게 말했다.

《중대장동무, 알고있습니다.》

《?…》

《전중대가 다 압니다. 중대장동무, 그들을 구원하는것도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중대장동문… 왜 이제야 그 말을 합니까?…》

비로소 류성우는 지금까지 자기곁에서 초조해하고 성급하게

안달아하며 중대장이 결심을 늦잡는데 참을수 없는듯 줄곧 사나운 눈길을 던지던 그의 심정이 리해되였고 불시로 목구멍이 뜨끔해지는것을 느꼈다. 그 순간 엄기창정치부중대장의 웅근 목소리가 울렸다.

《중대장동무, 그 임무를 1소대장동무에게 맡기는것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황히세는 이미 결정된 문제이기라도 한듯 제가 먼저 서둘러 대답하였다.

《알았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그리하여 적지휘부를 기습할 습격조의 행동이며 체포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책들이 토의되였다. 그에 의하면 먼저 기습조는 철뚝계선의 적전투경계초소를 소리없이 덮치고 적들의 군복으로 갈아입는다. 동시에 전투경계초소엔 황히세소대장이 지휘하는 돌격조가 차지하며 지휘부에 대한 기습이 시작되자 공격을 개시한다. 잠에서 미처 깨지 못한 적들이 일대 혼란에 빠져있는동안 모든 기습과 공격은 결속되여야 하는바 특히 문제로 되는것은 체포된 사람들이 어디에 갇혀있는가 하는것이였다. 적으로 가장한 기습조는 행동을 개시하기전에 적지휘부를 확증하고 체포된 사람들의 행방도 알아내야 하였다. 이에 대한 련락과 기습신호에 이르기까지 합의되였을 때 류성우는 자기와 함께 행동할 습격성원들을 꼽았다.

5명으로 구성할 습격조에 먼저 분대장 방성화를 선발하고나서 류성우는 잠시후 련락병 배다운, 중기사수 (로획한 미식기관총) 오리준을 꼽았고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김만복동무… 이렇게 선발하겠소.》 하고 말을 끊었다.

아마도 김만복에게 소대지휘를 맡긴다고 했어도 그처럼 놀래지는 않았을것이다. 그들은 자기 귀를 의심하였고 중대장의 입에서 이제 다른 말이 나오리라는것을 의심치 않는듯 일시에 류성우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류성우는 그 순간 밀영에서 나왔을 때 련대장과 있은 담화며 련대지휘부에 전투임무를 받으러 갔을 때 아바이전사의 침울하고 맥빠져있던 모습을 생각하고있었다.

그때 김만복은 은하와 진호가 체포된것이 자기의 불찰에서 생긴것처럼 통분해하고 가슴아프게 후회하면서 마치도 아까운 사람들만 자꾸 잘못되고 자기같이 굼뜨고 불편만 주는 사람들은 늘쌍

다친데 하나 없이 있는듯한 맥락없는 말을 중얼거렸었다. 그러자 류성우는 격한 어조로 그를 나무랬었다.

《만복동무, 이제부턴 중대에서 동무를 아바이로 부르는걸 금지하겠소. 그리고 만복동무도 자기가 아바이라는 생각을 싹 버리시오. 만복동무, 동문 전사요!》

그는 성실하고 근면하며 완고하다 할만치 인내성이 있는 아바이전사의 마음에 그늘이 지기를 원치 않았고 적후의 어려운 싸움길에서 그의 성실성이 자기 중대의 한 전투적측면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마지 않았던것이다.

《방성화동무, 습격조를 정렬시키시오.》

선발된 4명의 병사들이 재빨리 달려왔다.

2

중무장한 모다카를 타고 간이역에 달려온것은 스테이지였다. 미해1사의 작전관은 공산군들의 활동이 극히 맹렬한 이때 장갑차를 타고갈것을 권고했다.

《대좌, 다시 상기시키는데 워커중장각하도 공산군 제2전선부대에 걸려…》

그러자 스테이지는 대뜸 그의 말허리를 끊으며 신랄한 야유조로 쏘아붙였다.

《워커중장은 중땅크를 타고 비극의 주인공이 됐은즉 난 허술한 모다카를 타고 영웅서사시의 주인공이 돼볼가 하오.》

사실 스테이지는 장갑차야말로 공산군들이 노리는 기습목표로 될것이나 보잘것 없는 모다카를 전복시키려고 새벽까지 꽁꽁 얼고있을수는 없다고 생각한것이였다.

그가 서둘러 역에 나갔을 때 모다카에서는 괴뢰군 《헌병》들과 통역관이 기다리고있었다.

새벽이였다. 어데선가 사나운 바람이 휘—익! 하고 불어치면서 지푸라기들을 취여뿌렸다. 밤은 차고 음산하였고 또 남달리 신앙심이 강한 스테이지에게 그 어떤 알수 없는 불안도 일으켰지만

그는 이 밤이 자기의 생애에서 하나의 운명적인 전환점으로 되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바로 나흘전 인민군련합부대들은 한강좌안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미1군단관하부대들의 종심깊이 들어와 습격전을 벌려 막대한 손실을 주고 사실상 전선서부에서 미8군이 더는 공격할 능력을 잃게 하였다는것을 스테이지는 알고있었다. 뿐만아니라 전선중부와 동부에서 미10군단,괴뢰군3군단 부대들이 또한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맥아더사령부 및 리치웨이의 8군사령부는 전선의 공격부대들이 충분한 전쟁물자를 받지 못한때문이라고 아우성을 질렀다.

(그래 그것이 뉘탓이란말인가?) 하고 스테이지는 우박처럼 퍼부어지는 힐난과 위협을 받으며 이발을 사려물었다.

철도수송의 마비,《유엔도로》의 차단,전략적군수품저장고들의 폭발… 기습과 혼란… 경찰과 공무원들은 공산군의 보복이 무서워 도망치거나 태공하고있다. 이게 다 스테이지의 탓이란말인가?…

《나에겐 욕설도 친절한 충고도 필요없습니다. 당신들은 나한테 단도를 쥐여주면서 사냥군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따위것으로는 뿔도 자르지 못합니다.》

이것은 스테이지가 8군사령부참모차장에게 한 말이였다. 그러나 도꾜사령부에 보내는 전문에서는 간단히 이렇게 언급하였다.

《공산군 제2전선부대들은 잘 훈련되고 전투경험이 많은 정규군임을 다시한번 상기시킨다. 그들을 대적함에 필요한것들은 이미 수차 요청한바 있다.》

결국 맥아더사령부는 늦게나마 스테이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예부대들을 투입하였는데 그것은 전략적인 최후방이 완전히 전선으로부터 차폐되는 경우 공산군이 벌리고있는 공세앞에서 기본전선의 타격부대들이 전멸되리라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던때문이였다.

(이제 공산군은) 하고 스테이지는 생각하였다. (전선에서 일대 공세를 취할것임에 틀림없다. 다만 그것이 전선서부인지 아니면 중부나 동부에서 주타격이 개시될지 그것을 모를뿐이다. 그런즉 이제 와서야 공산군2전선부대들을 《숙청》 하라고 정예부대들을 빼여돌리게 된 맥아더나 리치웨이의 처지는 얼마나 가긍한가!…)

8군사령부에서는 직접 스테이지에게 변화된 정황에 따라 자체로

결심하고 행동하라고 권고하면서 한주일이라는 말미를 준다고 선포했다. 한주일, 그것은 엘든 스테이지대좌에게 요란스러운 명예와 승진의 길을 약속하는 한주일이였고 또 반대의 경우엔 비참한 파멸을 예고하는 한주일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스테이지는 어수선한 이 밤길, 희망과 절망의 쌍곡선을 이루어 줄달음치는 이 밤길에서 이미 오래전에 동료들속에서 잘 알려진 랭정한 침착성을 유지하려고 애써보았다. 한때 동료들은 그것을 《죽은 사람과 같은 침착성》이라고 불렀었다.

《대좌님.》 하고 통역관이 조심스럽게 불러서야 그는 생각에서 깨여났었다.

《그냥 밖에 계시겠습니까?》

스테이지는 개우리같은 비좁은 칸에라도 들어가고싶었으나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를 생각했다.

《난 여기가 좋소.》

그는 한시바삐 새로 이동해온 기동련대로 달려가고싶은 마음뿐이였다. 그 련대야말로 지금 스테이지에게는 마지막 주패장과도 같은것이였다.

(왜냐면?…) 하고 그는 자문자답하면서 자기의 계획을 다시 검토해보기 시작하였다.

그가 선차로 타격하게 될 공산군의 한 부대로 말하면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물론 그들도 자기들을 겨누고있는 금야동지구의 《토벌》력량에 대하여 알것이며 그에 맞설 준비를 갖추고있을것이다. 그것은 적아쌍방이 상대를 알고 하는 공개된 싸움이다.

야릇한 미소를 입가에 그리며 그는 자기와 맞서고있는 공산군의 련대장들, 특히 지금 자기의 예봉이 겨누어진 팔공산주변에서 활약하는 련대장을 그려보았다.

아마도 그는 몸집이 가늘고 허약하면서도 몹시 령리할것이다. 지금 그는 《토벌》의 낌새를 채고 지난날 그러했던것처럼 선손을 써서 타격할 준비를 할것이다.

《그래, 선손을 쓰라지.》 하고 스테이지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령리하게 꾀를 부려보라지. 그러나 일단 전투가 붙고 서로가 맥빠졌을 때 갑자기…》

여기서 그는 엷은 입술을 꽉 앙다물었다.

그렇다. 이번엔 결코 빠져나지 못할것이다. 이제 그들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정예의 한개 련대가 배후에 달려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것이다.

그리하여 스테이지는 공산군의 련대들을 따로따로, 돌발적인 기습으로 소탕해버릴것이다.

스테이지가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 기동해온 괴뢰군련대에 달려가게 된 주요목적은 바로 이 추를, 즉 저울판의 한쪽을 완전히 기울어뜨릴 결정적인 추를 극히 필요한 때 즉시적으로 던지기 위한데 있는것이였다.

점차 추위가 참을수 없이 괴롭혔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을 때 마침 통역관이 그에게 가만히 속삭였다.

《대좌님, 위스키를 좀 드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팔공산《토벌》때 스테이지의 잔혹성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한바 있는 통역관은 어떻게 하든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조심스레 눈치를 살피고있었다.

스테이지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그가 품속에서 꺼내주는 병을 받아들자 두세모금 련달아 꿀꺽꿀꺽 들이켰다.

어둠속을 달리는 모다카, 세찬 바람소리와 차바퀴소리, 밤의 랭기에 몸을 떨면서 병나발을 불고있는 반유격전의 전문가… 스테이지는 자기가 살아남게 된다면 후날 회상록에서 이 밤의 정경을 특히 감동적으로 서술하리라고 생각했다.

문득 머리속에 떠오른 이러한 생각은 그로 하여금 또한번 위스키병을 거꾸로 들게 하였다.

성공은 틀림없는것이다. 지난 대전의 경험은 그에게 전투에서의 승패는 한순간에 내리는 결단성이 늦었는가 빨랐는가에 달려있다는것을 확증해주었었다.

비록 지금까지는 그가 매번 선손을 떼웠고 그의 《유명한 창안품》이며 자객의 손에 쥐여진 비수와도 같던 《반유격대대》조차 괴멸되였지만 이번의 작전만은 비상한 성공을 가져다줄것이였다.

그리하여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만 하면 피다고라스가 자기의 정리를 발견하고 신에게 100필의 소를 바친것처럼 자기도 반유격전의 경험을 서술한 저작을 신에게 증정할것이다.

그는 세번째로 병을 거꾸로 쳐들었다.

《참 훌륭하십니다.》 하고 통역관이 발라맞추었다. 《주량이 도량이라는데 대좌님이시야말로…》

《뭣이?》

문득 스테이지는 고개를 홱 돌려 통역관을 노려보았다. 반유격전의 《로련한》 전문가로서, 더우기 면밀하게 타산된 작전을 앞둔 때 겨우 병나발이나 부는것으로 치하를 받게 된것이, 그처럼 눅거리로 치부된것이 그를 분개케 한것이다.

어둠속이였지만 스테이지의 그 급격한 동작은 통역관을 몸서리치게 하였다.

《통역관!》 하고 스테이지는 자기의 위력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부질없이 참견하지 말고 잠자코 있소!》

모다카는 산굽이를 돌고있었다. 스테이지는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해 비틀거리는 통역관에게 병을 던져주듯하고 다시 몸을 돌이켰다.

속을 덥히니 야릇한 불안도 말끔히 가셔지는듯했고 모든것이 단순하고 수월하게 생각되였다.

성공은 틀림없는것이다. 지어 스테이지는 자기가 떠나기전에 8군사령부는 물론 극동군총사령부(《유엔군사령부》) 제3국 (작전전투 및 군사훈련관계사무국)에 보낼 전문을 미리 써두지 못한것을 후회하기에 이르렀다.

훌륭한 밤이였다. 달빛도 별빛도 없는 캄캄한 밤, 서리찬 새벽의 랭기가 사정없이 쓸어드는 밤이였지만 비상한 사변을 앞둔 이 어둠이 불현듯 스테이지에게는 만족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모다카가 간이역에 도착하자 전화를 받고 대기중에 있던 괴뢰군련대장과 참모장교들이 급히 역무실에서 뛰여나왔다. 그리하여 어데가나 스테이지를 둘러싸는 례절차린 인사들이 퍼부어지고 아첨기 어린 미소들이 감촉되였다.

스테이지는 건성 되는대로 손을 내젓고 대뜸 랭담한 어조로 물었다.

《련대전투비상소집을 몇분에 할수 있겠소?》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문관님.》

《숙영지들 배치는?…》

《옛, 역을 중심으로 2키로반경내에 집중했습니다.》

《음…》

비록 짧은 한두마디였으나 여기서 스테이지는 후방에서 새로 정비하던 구분대들이나 경찰따위들과는 근본 다른 전투부대다운 면을 발견하는듯싶었다.

《그새 다른 징후는 없소?》

그러자 소령의 직급을 단 장교가 공산군과 내통하는것으로 짐작되는 한 녀자와 소년을 체포했다고 보고했다.

《그게 다요?》

《그렇습니다, 고문관님.》

소령은 마치 고문관의 행차에 바치는 례물이기라도 한듯 직접 고문관님이 심문해보시지 않겠는가고 수선을 떨었다. 그러자 남달리 자기과신이 강한 스테이지는 다시금 모욕감 비슷한것을 느꼈다.

《소령, 난 고문관이요. 한시간후 소령이 직접 나한테 심문결과를 보고하오. 쓸모없으면 총살해버리고… 알겠소?》

그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역무실쪽으로 급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뒤따르는 무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빠른 말씨로 명령했다.

《이제 곧 독립중대장들도 포함하여 참모장교들을 집합하시오. 그리고 주변엔 누구도 얼씬 못하게 경비를 세우시오.》

통역관이 그 말을 받아넘기느라고 지체하는동안 스테이지는 먼저 역무실의 열려진 문으로 급히 들어갔다.

3

류성우는 어둠속을 헤쳐 기습조를 이끌고 철뚝 가까이에 자리잡고있는 전투경계진지로 은밀히 기여갔다. 한순간에 감쪽같이 해제끼지 못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것이다. 배밀이로 기여가는 긴장된 순간들이 하염없이 걷잡을새없이 흘러갔다.

문득 류성우는 뒤따르는 방성화에게 손짓으로 신호했다. 가까운 적경계진지에서 거치른 욕설이 들려오고있었다.

《바로 네놈들같은 청맹과니들만 있기때문에 내가 잠도 못잔단말이야. 련대장님이 마음을 놓지 못해 자꾸 돌아보게 하는게 우연치 않거던. 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 여긴 공산군들이 활동하는

지대란말이다.》

전투경계진지를 돌아보기 위하여 나온 장교놈이였다.

《가만, 무슨 소리가 나는게 아니야?》 하고 장교놈이 기여들어가는 소리를 했다.

류성우는 숨소리조차 멈추며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등골로 무엇인가 차겁게 흐르는듯했다. 다시 적들이 수군거렸다.

《중위님.》

잠에 취한 목소리였다.

《레루가 울리는 소리군요.》

《음, 이제 기차가 하나 지나가게 돼있지. 그런걸 괜히 놀랬군… 제길할!…》

뜻밖에도 절호의 기회가 닥쳐오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류성우는 거침없이 권총을 꺼내여 안전장치를 풀었다. 때맞추 기적소리가 산굽이너머에서 울렸다. 류성우가 고개를 돌리자 어둠속에서 번뜩이는 눈들이 그의 의도를 알았다는 대답을 했다.

초조한 가운데 레루이음짬을 울리는 바퀴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오더니 마침내 언땅이 진동하기 시작하였다.

《주의! 장교놈은 내가 맡을테니 동무들은 단숨에 뛰여드오.》

쇠붙이소리가 사납게 찌걱찌꺽하였고 바퀴소리가 덜컹거리는 가운데 세찬 바람이 잔등을 휩쓸며 먼지를 날렸다.

《앞으롯!》

구령소리는 거의 귀속말처럼 낮았지만 기습조를 일시에 뛰쳐일어나도록 하기에는 충분하였다.

기차를 따라, 어둠속에서 사납고 새되게 소용돌이치는 온갖 소음들을 따라 그들은 철뚝결의 경계진지로 달려들었다.

바람과 함께 바람처럼 나타난 인민군전사들의 기습에 놈들은 미처 비명소리도 지를새 없이 코를 박고 쓰러져버렸다. 기차가 지나가고 황히세의 돌격조가 달려왔을 때 벌써 류성우는 적장교복을 껴입고 대원들을 독촉하고있었다.

《빨리 하오!》

그는 황히세에게 전철기가 있는곳으로 대원들을 은밀히 접근시키고 신호를 기다리라고 했다.

《다 됐소?》 하고 그는 네명의 기습조를 검열했다. 《자, 이젠

가면서 군패를 암기하오.》

5시가 가까와왔다. 시간의 흐름은 점차 더 빠른 가속도로 막다른 위기에 그들을 재촉해몰아가는듯했다.

뚜걱, 뚜걱, 뚜걱… 로반을 따라 걷는 그들의 발걸음소리가 서리찬 새벽공기를 흔들고있었다.

뚜걱, 뚜걱, 뚜걱…

《다시 강조하지만 적병으로 가장했다는것을 잊지 마시오.》

뚜걱, 뚜걱, 뚜걱…

《나는 련락장교 〈중위님〉, 배다운은 련락병 그대로이고 기타는 군복앞섶에 달린 군패에 적힌것을 기억해두시오.》

아직 류성우는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과 적구에 들어가본적이 없다. 훈련된 정찰병들도 적들과 직접 맞설 때에는 혀가 굳어져버리는 일이 적지 않다. 배심 좋은 방성화를 제외하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이럴 때 《헌병》대위로 가장할수 있었더라면 한결 자유로울것이건만… 전투경계 근무를 돌아보던 중위놈의 팽팽한 군복은 그를 불편하게 했다.

뚜걱, 뚜걱, 뚜걱…

《조심하오. 마음을 푹 가라앉히고…》

첫번째로 맞다든 화토불에서는 적병들이 깨여나앉아 무엇때문인지 티각질을 하고있었다. 목소리를 낮추어 되도록 떠들썩하지 않으려는것으로 보아 상관들의 눈에 뜨일가봐 저어하는것이 분명했다. 맨 먼저 그들을 발견한 적병 하나가 건방진 어투로 소리쳤다.

《누구야, 여겐 뭣때메 오는거야？》

류성우는 아무말없이 곧장 적병들앞으로 다가갔다. 4명의 조원들 역시 위협적인 거동으로 말없이 화토불주위의 적들을 둘러쌌다. 그러자 금시 티각태각하던 적들이 모두 엉거주춤 일어섰다.

《누가 소리쳤어. 돼먹지 않게！》

맵짠 어조로 한마디 쏘아붙이고 류성우는 스스럼없이 불결에 쭈그리고앉았다. 그리고 이제껏 적들이 비난과 욕설을 퍼부으며 서로 더 많은 몫을 가지려고 다투던 범죄의 증거물—미국제 소고기통졸임을 손에 들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이건 어데서 훔쳐낸거야？》

이 한마디 말로써도 놈들을 질겁시킬수 있었다. 사병들에게까지 그것이 차례지지 않는다는것이야 너무도 명백한 일이여서 칼끝처럼 시퍼런 눈길로 쏘아볼만했다. 적병들은 급기야 자라목처럼 기여들어갔다. 그런데 이때 얼굴이 얽은 적병 한놈이 자기에게 몰려드는 연기를 피해 목을 돌려 류성우를 넘겨보면서 중얼거렸다.

《중위님, 우린…본적이 없는데요?》

사병들속에도 악질적인 륙군첩보대의 눈알들이 박혀있거나 출세를 꿈꾸는 교활한자들도 있을수 있는것이다. 대뜸 류성우는 단도를 뿌려던지듯 홱 고개를 돌려 그자를 쏘아보았다. 얽음뱅이적병은 그 서리발같은 눈길에 고개를 돌렸다. 이때 김만복이 나서며 그자의 엉뎅이를 툭 걷어찼다.

《야, 임마. 너 장교님이 묻는 말엔 대답 안하구 무슨 버르장머리야. 이 퉤질놈의 간나새끼!》

그러자 얽음뱅이는 김만복을 아니꼽게 흘겨보았다.

《묻긴 뭘 물었소. 내가 말했지.》

《뭐라구?》

《글쎄 우린 한번도 본적이 없다지 않소.》

록록치 않은 적병의 짜증어린 반발은 모두 숨을 제대로 못쉴 정도로 긴장하게 하였다.

《됐어, 그만둬.》

모든 사람들중에서 유독 그는 태연하게 소고기통졸임을 빙빙 돌려보는척했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킨것은 적아쌍방이 모두 동시에 했다.

《좋아, 내버려두라구. 통졸임도 1등품을 훔쳐낸걸 보니 솜씨있는 자들이야. 그런데 임마! 의심스러울 땐 군호부터 물어야 하는거야.》

여기까지 관대하게 말하고나서 그는 갑자기 벼락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지게!…》

순간 얽음뱅이적병은 전기에라도 감전된것처럼 화닥닥 물러났다.

《방아다리!》

《좋아, 좋아!》

류성우는 그자를 도로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애초에 예견했던 그의 적군직무가 바뀐것은 이 순간의 일이였다.

《그래 련대정찰에서도 우릴 본적이 없단말이지. 너흰 몇대대야?》

《중위님, 우린 중화기중대입더.》 하고 키꺽다리 하사가 재빨리 대꾸하는데 어투로 보아 적지 않게 안도감을 느낀듯했다. 때를 놓치지 않고 류성우는 자기 《사병》들에게 소리쳤다.

《야, 뭣들 꾸물거리는거야. 불을 쪼여!… 야, 너희들은 좀 자릴 내주란말야.》

괴뢰군중하층 장교들의 오만무례하고 악착스러운 행동거지를 본따다가는 오히려 사병들의 적의를 불러일으키기가 일쑤라는것을 경험에 의해 알고있는 류성우는 적사병들을 마주할 때면 악의없는 우격다짐을 더 낫게 여겼다. 여기에 욕설과 우스개소리까지 양념한다면 적들의 호기심과 선망의 빛을 모을수 있는것이다.

비좁게 둘러앉았다. 특히 주의를 끈것은 김만복이였는데 그는 류성우가 내던진 통졸임통을 집어들고 자꾸 냄새를 맡는것이 어쩌면 신통히도 굶주린 적병들과 흡사했던지 적들조차 자기들이 주먹질까지 할수 있었던 그 로획물을 그가 탐내는 모양을 우습게 바라보는것이였다.

류성우는 아직도 미심쩍은 눈초리를 조심스럽게 굴리고있는 얽음뱅이를 넌지시 바라보며 물었다.

《너희 장교들은 어데 갔어?》

《중위님, 미국고문관님이 방금 도착했어요. 장교님들이 다 모여가더군요.》

《장교들이 다?…》

또다시 키꺽다리 하사가 아첨에 습관된자의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중대장들만 갔음더.》

얽음뱅이가 거짓말을 한것으로 미루어 확실히 그자는 의심이 덜 풀린것이였다.

《그래?…》 하면서 성우는 어떻게 저자를 구슬릴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럼 회의가 끝날 때까지 좀더 몸이나 녹이지.》

그러자 얽음뱅이가 《중위님.》 하고 류성우의 칼끝같은 눈초

리와 부딪치기를 저어하며 소심히 물었다.

《정찰을 갔댔습니까?》

《그래, 한번 해보고싶은가?》

《아니, 뭐…》

《임마, 겁이 나?… 야, 배다운, 이자식 정신이 들게 해줘!》

배다운이 손써볼새 없이 얽음뱅이는 냉큼 키꺽다리하사뒤에 숨어버렸다. 정찰이라면 의례히 격술, 유도 등의 장기를 가지고있으리라고 믿기때문일것이다.

이 일은 적아쌍방의 긴장을 말끔히 풀어주었다. 적들은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듯 키득거리며 팔공산에 공산군 한개 련대가 있다는데 사실인가, 사실은 더 많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공산군련합부대는 다 어데로 흩어졌는가 하는 등 겨끔내기로 묻기 시작했다. 화제가 지극히 곤난한 문제로 번져갈 우려가 있었으니 이제 류성우가 알아내야 할것은 은하와 진호에 대한것이였다.

류성우는 김만복의 손에서 소고기통졸임을 빼앗아 얽음뱅이놈에게 던져주면서 급히 화제를 돌렸다.

《옛날 도이췰란드에 그런 녀석이 있었어. 많이먹기시합에 가서 불에 구운 황소 한마리를 한달동안에 다 먹어치웠단말이야.》

《아이구.》 김만복이 능청스럽게 곁들었다. 《그렇게 배가 큰 녀석이 있을랴구요.》

둘러선 적병들도 모두 눈알을 굴리는것이 놀라운 그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주기 바라는듯하였다.

《세상엔 대식가들이 아주 많단말이야. 그래서 많이먹기시합이라는것도 나왔거던. 며칠전에 미국잡지를 보니까 미국에선 통닭먹기시합이란것도 했는데 한근반짜리 암닭을 27마리나 처먹은 녀석두 있드란말야.》

예견했던바와는 달리 이 늘어빠진 한담을 제일 참기 어려워하는것은 방성화였다. 그는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가, 이거야 간이 말라 견디겠는가 하는 의미의 눈짓을 열심히, 그것도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여 전하는것이 이제 더는 참지 못하고 《중대장동지!》 하고 소리쳐부를것만 같았다.

(아니다, 방성화!)

적병들이 먹는문제를 놓고 떠들썩하는 가운데 류성우는 이렇게

생각했다.

여기선 사소한 의심도 돌이킬수 없는 파멸을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중요한 자료를 쉽사리 얻고있지 않는가. 미국고문관놈이 와있다는것, 중대장급이상 장교들이 모였다는것, 이것은 다시없이 중요한 자료이다.

류성우는 급수탑옆에 세워둔 모다카며 창고와 역무실 등의 거리를 눈여겨보고나서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자, 이젠 가볼가?》

그리고는 고개를 홱 돌려 얽음뱅이적병을 쏘아보았다.

《야, 고문관님이 있는곳으로 네가 안내해.》

순간 두눈길이 맞부딪쳤다. 싸늘한 적의로 번뜩이는 류성우의 눈빛 그리고 공포에 질린 얽음뱅이적병의 눈빛이였다.

《뭘 얼뜬해서 그래? 상관앞에서 돼먹지않게 군 네놈을 그냥 둘줄 아는가. 너희 중대장앞에 가서 기합맛이나 좀 봐라.》

《아니 중위님?!》

《잔말 말앗!》

겁에 질린 얽음뱅이는 목구멍이 꺽꺽 막혀 가까스로 넉두리를 하면서 앞서걸었다.

《중위님, 난…난 정말 본일이 없어 그랬습니다.》

《그러니 똑똑히 봐두란말야.》

화토불에서 멀리 벗어져 어둠속에 잠기자 적병은 걸음이 떠졌고 사방을 힐끔힐끔 살피는것이 도주할 기회라도 노리는듯하였다. 그 어떤 알수 없는 륙감으로 류성우는 이자가 여전히 의심스럽게 생각한다는것을 깨달았다.

《똑바로 걸엇!》

그 소리가 어찌도 서리찼던지 적병은 몸서리를 쳤다.

《중위님, 용서해주십쇼. 날 놔주지 않으면 저기 우리 소대장님을… 소리치겠어요.》

《그럼 어디 소리쳐봐라.》 하고 성우는 그자의 급소를 힘껏 타격했다.

순시에 혀를 깨무는듯한 짧은 신음소리와 함께 로반우에 쓰러진 적병을 그들은 개처럼 질질 끌면서 홈쪽으로 급히 걸어갔다.

다시 하나의 화토불을 지나게 되였다. 새벽추위에 잠들지 못하고

웅크리고있던 적병들이 고개를 길게 빼들고 저희들끼리 쑹얼거리는 것이 보였다.

문득 김만복과 같이 적병을 끌고가던 방성화가 걸음을 늦추면서 류성우를 돌아보았다. 지금까지 숨가쁠 정도로 태연하게 늦장을 부리는가 하면 너무도 돌발적으로 나오기도 한 중대장의 행동에 어리둥절해진것 같았다.

《중대장동지, 이건 왜 끌고갑니까?》

《가만 있소.》 하고 성우는 번뜩이는 눈길을 돌렸다. 《바싹 정신을 차리오.》

순간 《중대장동지.》 하고 배다운이 입속말처럼 속삭였는데 그것은 지나가던 순찰병인가 하는 두놈이 피끗 돌아보았기때문이였다.

웬일인지 등골로 소름이 끼치는것을 느끼며 류성우는 숨소리도 없는 얽음뱅이를 좀더 앞으로 끌어가라는 손짓을 하고는 지나쳐간 놈들을 향해 몸을 홱 돌렸다.

《야, 누구 성냥 가진거 없어?》

적병 한놈이 무릎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들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재빨리 수첩갈피에 끼워두었던 담배를 꺼내여 입에 문 그는 성냥을 받아들자 대뜸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임마, 너 손은 왜 떨어?… 이자 뭐라고 수군거렸어, 응?!》

이것은 급소를 찌른것이였다. 적병놈은 얼결에 손을 움츠러뜨리며 당황하여 중얼거렸다.

《아닙니다. 중위님, 우린 경계초소에 나간 위병장인가 했는데 아니구… 그래서 웬 사람들일가 하구 그저…》

《음, 그래?… 경계초소에 나간 위병장이 중위지?… 우리도 만났어.》

천천히 성냥불을 켜들고 담배를 붙이며 자기 얼굴을 밝게 비치도록 했다.

《똑똑히 봐둬. 사단정찰에서 〈암파중위〉라면 모르는자가 없을텐데… 이래도 정 모르겠어?》

《아, 아닙니다. 우린 그런줄 모르구 그만…》

두번째 적병놈도 다가와서 죄송스럽다는 몸가짐을 하고 섰다.

《중위님, 혀를 잡았습니까?》

《음.》

류성우는 다 타들어간 성냥가치를 들어 다시한번 얼굴을 비쳐 보이고는 손끝으로 튕겨버렸다.

《듣자니 여기서도 녀자빨찌산을 잡았다면서?》

《예, 잡았습죠. 애새끼하구.》

《그래 그것들은 어데 있어?》

《…》

《저것두 같이 가둬야 하겠단말이야.》

《예ㅡ》

한놈이 말을 길게 뽑더니 다음 그보다 더 길게 목을 빼들었다.

《저ㅡ기 급수탑에 있습죠.》

《아, 그래?》

급수탑쪽을 흘끔 바라본 성우는 그쪽 인입선결에 세워둔 모다카와 유개화차들 그리고 불결에 모인 경비병들로 미루어 체포된 사람들의 구원이 몹시 어렵겠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아무런 내색도 없이 그는 적병들에게 말했다.

《밤새 눈속에 엎드려있었더니 성냥이 누기차서 그러는데 이건… 내가 써야겠다.》

《예, 예, 좋습니다.》

《그럼 너흰 가봐.》

적병들이 경례를 붙이고 돌아서자 비로소 소란스럽게 숨을 내뿜으며 방성화가 중얼거렸다.

《이거야 숨이 차서…》

아무리해도 정찰병의 기질과는 어울리지 않는 방성화였다. 그토록 용맹하고 데설궂은 그였지만 적으로 가장한 연극에서는 고통을 참아내기가 무던히도 괴로운 모양이였다.

《동문 여기 남소.》 하고 류성우는 나직이 명령했다. 《잘 기억해두오. 습격이 시작되면 황히세소대장에게 급수탑쪽을 공격하게 하시오. 그러되 무엇보다도 모다카를 놓치면 안되겠소.》

《아니 그럼 중대장동진?…》

《걱정마오. 동무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오. 1소대장동무의 돌격조가 제때에 빠져나가자면 신속하고 대담하게 행동해야 하는데 적정을 잘 아는 동무가 그들을 도와주어야겠소. 돌격분대장솜씨를 보이라구.》

마지못해 돌아서는 그의 잔등을 밀어보내고 그는 쓰러진 적병을 철길홈타기에 구겨넣었다. 마침 김만복이 꿰여진 가마니장을 얻어들고 그것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좀더 앞으로 나갔다. 이제는 적지휘부의 창문불빛이 환히 바라보였다.
《잘 기억해두오. 지휘부와 창고들, 거기서부터 유개화차들까지 거리, 놈들의 불무지들… 다 살펴봤소?》
그는 걸음을 늦추며 뒤따르는 세 전사를 재빨리 돌아보았다.
《오리준동무, 만복동무와 같이 저 창고주변에 위치를 잡소. 습격이 시작되면 엄호하시오. 혹시 순찰병들과 맞다들면 같이 온 련락장교를 기다린다고 하시오. 물을게 없소?… 좋소. 무엇보다 침착해야 하오. 행동하시오.》
류성우는 다시 불빛을 목표로 배다운과 같이 걸어갔다. 이제 얼마후이면 날이 밝기 시작할것이다. 날이 밝으면 모든 은밀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것이다. 밤! 그들에게는 지금 밤이 필요하였다. 달빛도 없는 밤, 캄캄한 어둠이 필요하였다.
점차 사방에서 발걸음소리들이 늘어나고 무엇인가 쇠붙이 부딪치는 소리며 투덜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급수탑곁의 인입선에 들어서있는 유개화차에서는 어떤자가 잠꼬대같은 소리로 화식병을 소리쳐부르고있었다.
문득 급수탑쪽을 바라보자 성우는 가슴이 쓰라려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지금 그 랭랭한 어둠속 콩크리트벽체속에서는 그의 은하와 한 소년이 죽음을 각오하고있는것이였다.
《정지!》
열발자국나마 앞쪽에서 지휘부의 보초가 소리친것이였다. 군호를 댔어도 망두석처럼 버티고 선 보초병은 한걸음도 옮기지 못하게 위협하고있었다.
《짜식, 왜 그래?》
《누구도 접근시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뭣이? 야, 난 련락장교야. 시간이 급하단말이야!》
무작정 걸어들어가자 시커먼 망두석이 총부리를 겨누며 격발기를 절컥 당겼다.
《정지, 정지!》

사납고 새된 그 소리에 지휘부(역무실)의 출입문이 벌컥 열리며 한 장교가 밖으로 나왔다. 순간 류성우는 그 장교가 보는 앞에서 보초병의 총부리를 밀어치우며 따귀를 세차게 후려갈겼다.

《개자식, 어따 대고 총을 겨누는거야. 미군고문관님한테 급한 련락을 가지고왔다고 하질 않아? 콩알맛을 봐야 알겠어?》

그러자 열려진 문으로 여러 장교들이 머리를 내밀었다.

《뭐야?》

벌거우리한 석유등불빛을 정면으로 받고있는 류성우의 앞으로 소령의 계급장을 단 장교가 다가왔다. 그는 성우의 호된 타격에 비틀거리는 보초병을 흘낏 쳐다보면서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무슨짓인가, 중위?》

순간 성우는 열려진 문쪽을 흘끔 쳐다보면서 그속에서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한 장교들로 미루어 방금 작전모의가 끝났다는것을 깨달았다.

《중위, 어느 부대가?》

《옛, 2사 31련대 련락장교입니다. 소령님.》

《그래 무슨 련락을 말하는거요?》

류성우는 천천히 품속으로 손을 밀어넣었다. 벌써 지휘부에서 장교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정면으로 비친 불빛이 한번 또 한번 련달아 나오는 장교들의 잔등에 가리워지기 시작하였는데 순간 마주선 소령이 이상한 낌새를 챈듯 입을 벌리는것과 동시에 성우는 그자의 귀구멍에 총탄을 쏘아박았다. 뒤미처 련락병 배다운이 보초를 쏘는것을 느끼며 성우는 선자리에서 밖에 나선채 굳어져버린 장교들을 연거퍼 쏘아눕히며 소리질렀다.

《배다운, 수류탄! …》

수류탄의 폭발과 함께 어느새 땅바닥에 엎드려있던 성우는 쓰러진 보초병에게서 자동총을 와락 나꾸어채자 문쪽으로 달려갔다. 석유등이 엎질러져 불이 활 당긴 역무실에서 이상한 신음소리를 지르며 기여나오는 한 중령의 면상을 발길로 걷어찼다. 잔등에 불이 달린 한 장교가 눈을 싸쥔채 또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가 장교의 가슴팍에 자동총을 들이대자 그자는 깨여진 창턱에 머리를 짓쪼으며 맥없이 구겨박히고말았다.

깨여진 창문으로 찬바람이 쓸어들며 널려진 장교들의 시체우에

불길을 번져놓았다. 미군고문놈은 어디에도 없었다.
(도망쳤구나！…)
배다운이 자동총을 들고 역무실에 뛰여든것은 그 순간의 일이였다.
《중대장동지, 놈들이 쓸어옵니다.》
어데선가 브로닝기관총의 둔탁한 떨림소리가 울리자 역무실쪽을 향하여 달려오던 적병들이 중둥무이로 잘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회오리바람처럼 휩쓴 한순간의 기습은 드디여 격렬한 전투로 번져가기 시작하였다.
류성우는 널려진 장교들의 시체를 짓밟으며 출입문가에 선 배다운에게 달려가 그를 창문쪽으로 떠밀치였다.
《저쪽을 맡소！》
열려진 문짝에, 콩크리트바람벽에 그리고 지붕우의 기와장들에 총탄이 쏟아졌다. 창문으로 날아든 총탄에 벽에 걸린 시계가 쨍그랑！ 하고 부서져내리고 방가운데로 휘여든 화독의 연통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다.
그때 급수탑쪽에서 수류탄의 폭발이 연거퍼 일어났다. 몸서리치는 비명소리들이 짤막짤막한 소총사격과 뒤섞였는데 이번엔 유개화차에서 폭발의 섬광이 펑끗거렸다.
《잘하오. 1소대장！》
자동총을 휘두르며 인입선의 모다카와 급수탑쪽에로 연신 눈길을 옮기면서 성우는 부르짖었다.
《모다카를 탈취하라. 모다카！》
그것이 없이는 은하와 진호를 구원한댔자 무익한 일로 될것이다.
1소대장, 동무야 아까부터 모다카를 탐내지 않았는가. 자동차운전사였던 동무가 왜 모다카를 먼저 치지 않는가. 모다카의 기관포부터 뺏어야지. 제길할！…
철길너머에서 홈우에서 갈팡질팡하던 적들이 급수탑쪽으로 밀려가기 시작하였다. 엎드리고 기여가고 뛰다가는 쓰러지면서 어데서 나타났는지 알수 없는 숱한 적들이 떼를 지어 하나는 급수탑으로, 다른 한 무리는 역무실쪽으로 밀리기 시작하였다.
《배다운, 수류탄이 몇개 있어？》

《둘밖엔…》

배다운은 벌써 탄창을 갈아끼우던중이였다.

《괜찮아. 배다운, 덤비지 말라구.》

창가로 또 뛰여간 성우는 그에게서 수류탄을 덮치듯 빼앗아쥐고 소리쳤다.

《창문틀을 부셔!》

배다운이야말로 전우들이 《정다운》, 《사과다운》, 《꾀돌이다운》 등의 이름으로 격변화하여 불러준것이 리유없는 일이 아니였다. 그는 날쌔게 창문접철에 대고 사격을 퍼붓고 총탁으로 세차게 후려쳤는데 작은 창문틀 두개가 단번에 부서져나갔다. 다음순간 홈에서 쓸어내리는 적들에게 연거퍼 수류탄 두개를 던지고 성우는 창턱을 뛰여넘었다.

《배다운, 날 따랏!》

그들은 수류탄벼락에 납작 엎드린 적들이 미처 사태를 분간하기전에 바람벽을 따라 오리준의 기관총소리가 울리고있는 창고쪽으로 내달려갔다.

어둠과 펀뜩거리는 화광속에서 누가 편이고 어느쪽이 적인지 도저히 알수 없었던 적들은 총격전이 벌어지는곳이면 무작정하고 총탄을 퍼부어댔다.

어떤 알지 못할 짐짝들이 가득 쌓여있는 창고에 뛰여간 성우는 숨을 헐떡거리며 뛰여온 배다운을 와락 잡아끌었다. 오리준은 지붕만 있는 창고의 한 기둥옆 산더미같은 포대들우에 편히 올라앉아 이번엔 급수탑쪽으로 밀려가는 적들을 쏘아눕히고있었다. 그 무사태평한듯한 침착성은 바로 중대장인 류성우에게도 안도감을 불러일으켰다.

《만복동문 어데 갔소?》

오리준은 사격을 멈추지 않고 또 침착한 시선을 급수탑쪽 홈우에서 떼지 않으면서 방금전까지 있었노라고 대답하였다.

《?…》

철길너머 산기슭에서 그리고 뒤에서는 역무실을 돌아간 담장너머에서 또다시 새로운 적들이 꼬리를 물고 밀려오고있었다.

(급수탑에서는 어떻게 되였을가? 그리고 이 굼뜬 아바이는?…)

바로 그 순간 모다카에서 기관총의 급사격과 함께 텅텅텅… 하는 기관포소리가 위력한 위협사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모다카가 움직이기 시작한것이다. 움직이기 시작하자 맹렬한 사격을 퍼부으며 점차 속력을 놓아 달려가는것이였다.

(성공이다. 구원됐구나！…)

어깨죽지가 아프게 느껴진것은 다음순간의 일이였다. 밀영에서 붕대를 감은채 뛰여나왔던 전날의 그 묵은 상처가 어데선가 부딪쳤던것 같다. 허나 뼈를 갉는듯한 아픔이라 한들, 백날 천날이 계속되는 아픔이라 한들 그까짓게 다 무에랴. 목적한 지휘부는 소탕되였고 은하와 진호도 구원되여 떠나는것이다！ 비록 성우는 그들을 눈으로 볼수 없었지만 훌륭한 전우들인 황히세나 방성화가 어떤 위급한 정황에 부닥친다 해도 임무를 수행함이 없이 떠나지는 않을것이라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동무들, 수고했소. 장하오！…》

허나 이것도 순간의 기쁨이였다. 전철기쪽으로 멀리 달려가는 모다카를 향해 부질없이 총질을 해대는 놈들에게 한바탕 급사격을 퍼붓던 기관총이 뚝 멎어버렸다.

《왜 그러오？》

《탄알이 떨어졌습니다！》

《？…》

최후란말인가？… 아니 괴뢰군복장을 한 그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수단은 아직 남아있다. 헌데 김만복은？…

철길너머앞에서 담장너머뒤에서 악에 받친 고함소리와 총소리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있었다. 담장을 뛰여넘는 적병들을 쏘아넘기느라고 배다운은 결눈 한번 팔새 없었다.

《옛소！》

오리준에게 자동총을 던져주고 성우는 다시 권총을 빼들었다.

(이 아바이는 어데 가서 헤매는가. 아니면 어데서 쓰러져있는가？)

이제는 극히 탄알을 아껴야 했다.

(내가 공연히 그를 습격에 망라시켰는가？)

바로 그때 펑끗！ 하는 섬광속에서 성우는 창고앞 철길홈타기에 구겨박혀 필사적인 격투를 벌리고있는 두사람을 얼핏 보았다.

순간 목멘듯 부르짖었다.

《오리준, 날 엄호하오. 그담 둘이 같이 따라올것!》

창고지붕에서 기와장들이 부서져내리고 짐짝을 쌓은 한구석에서 무엇인가 탁탁 튀더니 무서운 불길이 솟구쳐올랐다. 그러나 어느새 철길홈타기로 달려간 류성우는 악을 쓰며 딩구는 두사람을 타고 누르고 무작정 머리부터 더듬었다. 순간 우에 올라탄것이 김만복이라는것을 알아차리자 그를 소리쳐 밀어던지고 권총쥔 손을 번쩍쳐들었는데 그때 창고에서 솟구쳐오른 불길이 사위를 확 밝혔다.

몸서리치는 감각, 번개같은 생각이 동시에 그의 뇌리를 쳤다. 그는 세상에 나서부터 갈망해온 보물이라도 발견한듯 그리도 날카로운 목청으로 웨쳤다.

《대좌님!》

조선말발음으로 웨친 이 한마디 영어야말로 그들 습격조와 포로의 생명을 구원해준 가장 확실한 동기로 되였다.

류성우는 포로 (그는 다름아닌 스테이지였다)의 목덜미를 꽉 움켜쥐고 방패처럼 앞세우며 목청껏 부르짖었다.

《쏘지 말아. 미군고문관님이 상했다!》

그러자 스테이지는 미칠것처럼 눈알을 희번뜩이며 수닭울음소리를 내질렀다.

《중위 빨리, 빨리!》

오리준과 배다운이 따라섰을 때 성우는 그들에게 창고로 뛰여드는 적들만 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는 철길을 넘어 쓸어온 적들에게 포로한 스테이지를 군호처럼 내대며 《개자식들, 어따 대구 총질이야. 미군고문관님이 부상당했단말이야!》 하고는 창고쪽으로 팔을 힘껏 뻗쳤다.

《돌격하라. 공산군이다!ㅡ》

불길속에서 용약 미군고문을 《구원해 내온》 《국군중위》의 말을 누가 믿지 않으랴. 미처 말끝도 맺기전에 적들은 창고를 뒤집고있는 저희편을 향하여 몰사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비켜라, 개자식들.》 하고 이번엔 아바이전사 김만복이, 바로 반유격전의 로련한 전문가인 미합중국대좌 엘든 스테이지를 포로로 잡은 취사원 김만복이 적들의 무리속을 앞질러가며 분연히 소리쳤다. 《비켜라. 미군고문관놈이 상했다.》

아무도 그가 《고문관놈》이라고 소리지르고있다는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스테이지는 인민군기습조원들의 위장물과 총알받이로 되는줄도 모르고 바로 자기와 생사를 판가리하던 김만복의 뒤를 따라 류성우의 손에 덜미를 잡힌채 정처없이 끌려가고있었다.

4

송림이 우거진 야산너머 검푸른 하늘가에 희끄무레한 빛발이 한줄기 엷게 비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새벽노을의 첫 빛살이 어둑스레한 그리고 벌써 밝기 시작한 하늘의 두터운 장막을 찢어발기는것과 같았다.

중대가 차지한 릉선에 이르자 먼저 류성우는 3소대를 엄호에 남기고 전체 중대는 신속히 철수하도록 명령했다.

더는 방패로 쓸모없게 된 스테이지는 김만복에게 포승줄을 쥐여 철수하는 대렬을 따라보냈다.

밝아오는 야산들과 밭뚝이며 철길로 지휘부를 잃은 적기동련대전체가 자기들끼리 맞불질한 화풀이까지 겸하여 맹렬한 기관총사격과 박격포를 쏘아대며 추격하고있었다. 이따금 발작적으로 울부짖는 총탄의 소나기속에서 흐트러진 검은 연기기둥들이 둔덕에 솟구쳐올랐다.

릉선을 내려 철수하는 중대에 눈길을 돌려 누구인가를 서둘러 찾으며 류성우는 이제는 거의 아무런 초조감도 일으키지 않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때 《중대장동무.》 하고 정치부중대장 엄기창이 10년이상 헤여졌던 혈육이라도 찾은듯이 방어진지앞코숭이에서 다급히 달려왔다. 그는 류성우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무슨말인가 할듯 하면서도 입을 열지 못하는것이 아무리 해도 자기의 가슴속에 들어찬 중대장에 대한 경탄과 신뢰의 정을 미처 표현할수 없는듯하였다.

《중대장동무, 제가 철수를 엄호하겠습니다.》

마침내 그가 한 말은 이러하였다. 허나 류성우는 아무 말도 없이 무질서하게 덤벼들고있는 적들의 무리를 쏘아보고있었다. 지휘부를 잃은 적들이 미친듯 달려드는것을 바라보면서 이제야말로

눈알이 빠진 미친 황소의 코뚜레를 틀어쥐고 어데로 끌고갈것인가를 결정할 때라고 생각하였다.

엄기창은 또 그의 귀전에 대고 속삭이였다.

《신은하동무와 소년이 구원됐습니다. 들었습니까?》

류성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떡이였다.

《헌데…》 엄기창은 귀전을 씰며 지나가는 총탄이라도 흘겨보는듯 고개를 피뜩 돌리더니 근심어린 얼굴을 성우에게 바투 가져다댔다. 《은하동무가 좀 위독하군요. 중상입니다.》

《중상?…》

성우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물었다. 중상?… 흔히 들어온 말이였고 그자신도 자주 입에 올려온 말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픔과 슬픔을 예고하는 가혹한 말이였다.

《지금 상급준의동무가 붙어있습니다만…》 엄기창은 나직이 계속했다. 《정황이 이렇다보니… 그렇지만 다 일이 잘될겝니다.》

류성우는 소총사격의 불꽃들을 눈여겨보면서 바늘끝처럼 찔러대는 랭랭한 새벽바람을 성급히 들여마셨다.

《은하!》

이렇게 속으로 불러보려니 얼마전의 짤막한 상봉이 떠올랐다. 그것은 너무도 짧은 시간이였다. 무엇을 말했던가?… 하고싶던 많은 이야기들을 그들은 뒤로 미룰수밖에 없었다. 이제 다시 만나면 고요한 기쁨과 애틋한 추억으로 오랜 시간을 즐기고싶었었다. 그러나…

성우는 문득 엄기창을 돌아보았다.

《다음 계선의 유리한 지형에 한개 소대를 또 전개시키시오. 3소대의 철수를 엄호하게 해야겠소. 나머지는 계속 철수하여 빨리 산에 붙도록 해주시오.》

엄기창은 좀전에 류성우가 그랬던것처럼 묵묵히 머리를 끄덕거렸고 다음 련락병 배다운의 모자를 꾹 눌러주고는 달려가버렸다. 그것은 용감하고 지혜로운 전사에 대한 중대의 맏누이로서의 말없는 사랑의 표시였다.

개바닥에서 적의 기관총들이 뚜루룩거리자 다음순간 이번에는 급작스러운 소총사격의 울부짖음소리가 터졌다. 벌써 키높은 소나무들이 들어찬 릉선(은하와 진호가 추격을 받던) 앞코숭이에서는 발뚝을 뛰여 달려드는 적들과 3소대의 전투원들이 치렬한 화력전을

벌리고있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추격에 나선 적들은 무질서한 공격으로부터 정연한 산개대형,전투서렬을 이루기 시작했고 박격포들의 사격도 계획적인 협착사격에로 넘어가고있었다.

사실상 한개 소대가 련대무력을 저지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그들은 극력 탄알을 아끼라는 명령을 받고있었다.

적의 륙공포사격이 릉선을 휩쓸기 시작하자 류성우는 3소대를 또 철수시켰다. 3소대장 리정걸이 륙공포의 장기판사격구역을 벗어나자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 류성우의 지친듯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중대장동무,놈들이 너무 가까이 붙었습니다. 포병화력권내를 빨리 벗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류성우는 비로소 자기가 지난밤에 시간의 촉박감에만 짓눌려 임무의 료해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주지 못했다는것을 생각하였다. 소대장인 리정걸소위의 견해가 일반적인 추격과 퇴각의 범위에 국한되여있으니 전사들의 경우엔 어떻겠는가,그들이 벌써 중대의 전투임무는 기본적으로 수행된것으로 알고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전투는 비로소 시작되고있는것이다.

《소대장동무.》 하고 성우는 리정걸소대장을 엄격한 눈초리로 마주 보았다.

《전투원들에게 명백히 알려주시오. 중대의 임무는 놈들이 주력과 합세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요. 때문에 우리는 퇴각을 하되 놈들의 추격에서 벗어나선 절대 안되오. 그건 도피행위나 다름없소. 알만하오?》

그리하여 중대는 철뚝을 따라 엄호하고 퇴각하고 또 엄호하면서 퇴각을 계속하였다.

점차 적들의 추격은 맹렬하여졌고 지휘부를 녹여낸 상대의 무력이 고작하여 한개 중대 범위를 넘지 못한다는것을 알자 포위를 시도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중대는 스스로 택한 막다른 위기에로 한걸음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갔다.

박격포탄의 간단없는 폭발이 소잔등같은 릉선을 이끌에서 저끌까지 골고루 두들겨대기 시작했다. 어느덧 중대는 기슭에서 둔덕으로,거기서 또 릉선우로 물러서고있었다.

류성우는 입을 꽉 악문채 소대들이 차지한 경사면의 기복들을 바라보고있었다. 해가 뜬지 오랬어도 아무도 그것을 느낀 사람은

없었다. 그것은 암갈색의 포연속에 말려들어 초연과 구름우에 지친 듯한 빛살을 희미하게 던질뿐이였다.

세찬 바람이 초연을 흩날렸다.

《뒈질놈의 새끼들, 아구리를 틀어막아야지.》

오리준하사가 모다카에서 떼여온 대구경기관총으로 멀리 철뚝계선에서 우물거리는 박격포병들을 향해 위력한 사격을 퍼부었다.

《탄알을 랑비하지 마오!》

류성우는 이렇게 웨치며 댓걸음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러자 리정걸소대장이 재빨리 달려와 그의 곁에 엎드렸다. 이번엔 기관총소리가 옆구리쪽에서 들려오는듯하였다. 눈앞엔 포대자루같이 굳어진 적의 시체들이 엇가로 나자빠져있었다. 가혹한 싸움의 흔적들이였다.

(이제 더는 물러설곳이 없구나. …)

경사면을 따라 소잔등같이 드러누워있는 릉선우에 올라서면 막다른 령마루였다. 바위투성이인 령마루, 산의 중턱까지는 키높은 소나무들과 잡관목들로 들어찼지만 령마루는 벗어진 이마와도 같이 멀끔히 드러나있었다. 만약 중대가 령마루에 오른다면 박격포의 집중사격을 견디여내지 못할것이다. 그것은 중대의 전멸을 의미하는것이다.

류성우는 모래알같은 돌가루들이 눈두덩을 때리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리정걸의 잔등을 툭 치고는 거의 웨치다싶이 말하였다.

《3소대장, 중요한 임무를 주겠소.》

《알았습니다.》

믿음에 대한 자각과 기쁨이 서둘러 이 대답을 하게 하였을것이다.

《이제 놈들이 돌격해올라올 때 우린 맞받아 내려밀겠소. 그새 동문 한개 분대를 이끌고 저 경사면을 따라 박격포진지로 우회하시오. 과업을 알만하오?》

그는 류성우가 한 명령을 거의 그대로 복창하였다.

《서둘지 마오. 중요한건 좀 늦더라도 실수 없이 때리는거요.》

《알았습니다. 중대장동무.》

중대가 총탄을 아낄셈으로 사격을 그치자 적들도 돌연히 한순간

잠잠해졌다. 류성우는 연신 뒤를 돌아보며 전투원들이 돌격위치에 들어섰는가를 살폈다. 바로 그때 떨기나무와 바늘잎나무들이 뒤섞인 경사면에서 적들이 고함을 지르며 일어섰다.

지난 싸움의 경험에 의하여 이러한 때가 가장 적절한 반돌격의 기회라는것을 알고있는 류성우는 한순간 한순간을 효과적이고 일격에 무찌를 기회를 노리며 숨을 죽였다. 머리가 빠개지는듯하던 피로도, 피줄이 터져버릴듯하던 흥분도 이미 사라진지 오랬다.

또다시 발작적인 총성이 터지자 기다란 릉선의 전체 경사면으로 수백명의 적들이 뛰여올라 눈앞으로 덮쳐들었다.

한순간, 또 한순간 이를 악물고 기다린다. 적들이 경사면에 거의 뛰여오를 때, 숨이 가빠 고함소리도 지르지 못할 때, 두다리가 비청거릴 때 바로 그 한순간을 류성우는 참고 기다렸다.

《사격!》

기관총과 자동총, 소총들의 일제사격이 질풍처럼 휩쓸자 마침내 류성우는 바위등판으로 달려나가며 전체 중대를 향해 권총쥔 팔을 힘껏 내둘렀다.

《앞으롯! —》

경사면을 뛰여내리는 돌발적인 공격은 멈춰내지 못한다. 벌써 한덩어리로 뭉치면 총도 쏠수 없다. 뛰여내린 전사들이 적의 가슴팍을 발길로 걷어차면서 무시무시한 고함소리를 질렀다.

어느덧 비탈면에는 흙을 파헤친 꺼먼 자취들과 쓰러진 적병들, 불타다 남은 배낭, 원색을 찾을길 없는 철갑모들과 미식소총들이 널려졌다.

그러나 돌연히 비탈면을 뛰여내리던 류성우는 중대를 멈춰세웠다. 거세찬 불의 담벽이 그들을 향하여 밀려오고있는것이였다.

시뻘건 불뭉치들이 룡트림하듯 타래지어오르자 무성한 잡관목들과 키높은 나무들에 불길이 활활 번지며 우—우하는 괴이한 비명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 십여개에 달하는 화염방사기들이 수림을 태우기 시작한것이였다.

불과 몇순간에 류성우는 이마빼기의 피줄들이 터져버리는것 같았다. 불타는 숲, 불타는 땅… 온통 불구름과 뭉개치는 화염뿐이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계속 돌격으로 뚫고나갈것인가?… 아니,

산을 내려 펑퍼짐한 개활지대에 나서면 뜨거운 화염과 동시에 또 총탄의 담벽이 그들을 쓰러뜨릴것이다.

누군가 그의 곁에 달려와 엎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중대장동지, 수류탄을 걷어왔습니다.》

방성화였다. 전투에서 단련된 오랜 하사관, 중대장인 류성우도 한 전투원으로서 존경하는 싸움군이였다.

그러나 수류탄투척에서 아무리 유명한 방성화라 하지만 불길속에서 목표를 보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효과적인 타격을 가할수 있으랴.

《가만, 가만있소.》

불이 달린 솔가치들이 머리우에, 잔등우에 사정없이 떨어져내리고 시뻘건 불의 혀바닥들이 날름거리며 목구멍으로 쓸어들었다. 눈물이 쏟아져 앞을 가렸다.

련락병 배다운의 배낭에 불이 달린것도 이 순간의 일이였다. 갑자기 잔등으로, 목덜미로 불이 확 번져가는것을 보자 류성우는 그를 덮치듯 잡아끌고 질벅하게 녹고있는 땅우에 태질을 치듯하면서 불을 껐다. 그 순간 성우는 불탄 배낭 한귀퉁이로 삐여져나온 새장화를 보았다.

《이건 뭐요?》

배다운은 점적한듯, 괴로운듯 그리고 뜨거운 열풍에 참을수 없는듯 사납게 얼굴을 찡그렸는데 이미 류성우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목이 칵 메여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 벌떡 뛰쳐일어난 류성우는 땅바닥에, 바위틈에 머리를 틀어박고있는 전사들을 향해 목청껏 소리쳤다.

《철수하시오. 산꼭대기로!》

나무 한그루도 변변히 서있지 않고 돌바위들로 들어찬 령마루, 그곳은 중대의 마지막발걸음이 찍혀야 할곳이였다. 수십발의 박격포탄이면 전체 중대를 전멸시킬수 있는곳이였다.

《빨리 철수하시오. 빨리!》

불의 담벽이 추격해왔다. 우―우―솨!― 하는 화염의 파도가 나무우듬지들을 타고넘으며 앞질러가자 뒤미처 무수한 불꽃들이 눈보라처럼 휘몰아쳤고 겨우내 말라버린 나무들이 아우성을 지르며 뿌직뿌직 타번졌다.

중대는 철수한다. 산꼭대기로 철수한다. 이제 모든것은 박격포진지를 까부시러 떠나간, 그리하여 영영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는 리정걸의 기습조에 달려있다.

불붙는 잎사귀들이 어깨우에 떨어져서는 다시 눈앞으로 산산이 흩날렸다. 군화발에 채워 흐트러진 불꽃들이 바람에 휩쓸려 무서운 아우성소리속에서 펀뜩거렸다. 우—우— 하는 불길의 고함소리는 상처입은 짐승의 통곡소리와도 같았다.

문득 류성우가 멎어서자 그림자처럼 따르던 련락병 배다운도 멎어섰다. 기복을 이룬 릉선의 한쪽에서 담가가 움직이고있었다.

은하!… 아직 류성우는 그를 보지 못했었다. 엄기창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녀자의 신상에 벌어진 일을 어렴풋이 짐작하였을뿐 거의나 생각하지 못하였다. 허나 그것은 격렬한 전투와 중대 앞에 다가오는 엄중한 위험으로 하여 그를 생각할 단 한순간의 여유도 가지지 못하였음을 의미할따름이다. 그는 매 순간 그 녀자에 대한 념려와 불안을 날카롭게 느껴왔던것이다.

담가엔 상급준의와 키큰 위생병 그리고 나어린 진호가 붙어있었는데 엄기창정치부중대장이 앞에 서서 나무가 없는 돌바위쪽을 손짓하며 무어라고 웨치고있었다. 그의 안경알에서 화광이 번뜩였다. 돌벽을 짚어가는 그들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렸다. 재개비의 소용돌이가 그들을 추격하였고 세찬 바람은 불의 혀바닥을 내뻗치였다.

한달음에 담가를 따라간 성우는 먼저 진호의 눈물로 매닥질한 얼굴을 보았고 다음 지금까지 고대하고있었던듯이 때맞추 눈을 반쯤 뜨고있는 은하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두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순간 은하는 별안간 들이닥친 뜨거운 화염에 소스라치는듯했다.

《좀 어떻소?》

아무도 성우의 이 마음속 절절한 속삭임을 듣지 못했지만 그 녀자만은 알아들은듯했다. 고통을 참아가는 애처로운 미소가 한순간 떠오르더니 다음 그의 입술이 알릴듯말듯 움직이였다.

《걱정마세요!…》

성우는 그것을 귀로 들었다기보다 그 미약한 입술의 움직임

으로 알아보았다. 그 순간 검붉은 구름이 그들을 휘감았고 앞서가던 엄기창이 《왜 꾸물거리오. 빨리!》 하고 웨쳐서 다시 담가는 앞으로 나갔다. 타래를 지어 휘뭉개치는 구름속에서 성우는 자기를 향한 은하의 눈빛을 다시 느꼈다. 그리고는 모든것이 구름속에,불길속에 잠겨버렸다. 그러나 웬일인지 류성우는 그 뒤틀리는 연기와 불길속에서도 그 녀자의 커다란 두눈이 줄곧 자기를 눈여겨보는것처럼 생각되였고 그러자 가슴은 미여지는듯하였다. 그것이 무엇때문인지는 그도 딱히 알지 못하였다.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된 은하를 다시 볼수 있었던 그 짧은 순간의 기쁨대신에 이제는 피할길 없는 최후의 시각이 박두하였음을 의식한 때문인지도 모른다.

문득 성우는 자기앞으로 되돌아오는 상급준의 안혜순을 보았다. 숨막히는 연기를 삼키자 괴롭게 기침을 깇으며 그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내는것이였다.

《중대장동무,빨리 은하동무를 후송하게 해주십시오.》

《후송?》

《예,이제 당장…》 다시금 맹렬히 기침을 토하고 그는 밀려드는 초연을 막아보려는듯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였다.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런데 전 아직 그런 수술을… 그리고 여기선 아시다싶이… 이런데선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수 없지 않나요.》

성우는 날카로운 아픔이 뼈마디속을 찔러대는것을 느꼈다. 그러나 후송이라니? 적의 포위속에 든 여기서 무슨 후송을 말한단말인가?… 그것은 전중대가 적의 포위를 뚫고 빠져나가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지금 그들은 스스로 포위속에 들지 않았는가. 지금에 와서 포위를 뚫고나간다는것은 스스로 택한 이 길을 포기하고 적들에게 길을 열어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닌가?…

뜨거운 불의 파도가 그들을 앞질러 나가기 시작하였다.

《중대장동무.》

성우의 대답을 듣지 못한 안혜순은 마침내 부르짖었다.

《시간이 급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는 지금… 죽어가고있어요. 중대장동무!…》

《…》

어느덧 입술이 갈라터지고 꺼멓게 얼굴이 그을은 배다운이 어깨우에 떨어져 내린 불꽃들을 몸부림쳐 털더니 날쌔게 달려들어 안혜순의 팔소매를 와락 끌었다. 그 순간 불붙는 나무가지가 떨어져내렸다.

《중대장동무!》

안혜순의 목소리였다. 성우는 그에게 고함소리처럼 《어데로, 어떻게 후송한단말이요?》 하고 부르짖었다. 《우린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여기서 놈들을 막아야 하오!》

불길, 또 불길… 파장식 불의 공격이 거듭되였다. 우-우- 광포한 불의 고함소리와 함께 소낙비처럼 불꽃들이 쏟아졌다. 하늘은 검붉은 구름으로 꽉 차버리고 사위는 순식간에 컴컴해졌다. 회오리치는 불구름속에서 오직 제멋대로 날치고 엇갈려돌아가는것은 불꽃들뿐인것 같았다. 바람소리처럼, 파도소리처럼 우-쏴- 하고 순식간에 밀려오는 불구름속에서 무수한 불꽃들은 미친듯 날뛰고 헤덤비면서 엉켜돌아가는것이였다.

성우는 험한 돌밭경사지로 중대를 앞질러 달려갔다. 눈을 뜰수 없는 화염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그는 목터지게 웨쳤다.

《엎드리오. 땅을 파고… 틀어막소!》

바위틈새기에, 음달의 눈무지에 모두들 코를 박고 엎드리게 하였다.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

산더미같은 불의 파도가 령마루를 향하여 돌격을 거듭하였다. 갑자기 세찬 바람이 건너편 령마루쪽에서 불어치면서 재빛의 검은 구름을 찢어놓았다. 그때 성우는 담가우에 쓰러지듯 몸을 덮는 진호와 그우에 허리를 꺾고있는 안혜순을 피뜩 보았다. 가슴이 덜컥 무너져내렸다. 그 순간 사위는 암갈색의 어두운 장막속에 파묻혀버렸다. 길길이 솟구쳐오르고 타래를 지어 휩쓸어대는 화염속에서 흉포한 불의 고함소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악을 쓰며 울부짖고있었다.

5

산림학자 조성길은 자기의 옷차림을 두고 《산림수호신의 모습》이라고 즐겨 표현하였다. 우습고 놀랍기 그지없는 그의 차림새에서는 검질긴 고집과 너그러운 익살이 다같이 드러나보였다.

반외투를 입고 낡은 총부혁으로 허리와 어깨에 이르기까지 띠를 맸으며 무릎까지 올라오는 로획한 군화를 신은데다가 색날은 배낭을 메고 희끗희끗 성긴 머리칼을 바람에 날리는 그의 모습은 고대 유목민종족의 추장같은 위엄에 중세기의 련금술자같은 검질긴 표정까지 뚜렷이 나타나있었다. 그러나 비록 기괴한 옷차림에 좀 마주보기가 민망스러운 표정을 한 그였지만 군의소의 바쁜 일손을 도우며 부상병들을 부축해가는 그의 영악스러운 모습에 많은 전사들은 상냥한 미소를 지어보이군하였다.

이것이면 조성길로인에게는 지나간 한생의 기구하고 허무한 과거를 다 보상하고도 남을것 같았다. 그는 군의소장이나 간호원, 위생병들이 거의 사정하다싶이 만류하였지만 바로 그러한 리유때문에, 비천한 한 늙은이를 그토록 아껴주는 그때문에 전사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더 많은것을 바치고싶어했다.

그리하여 그는 그중 나어린 처녀인 김숙경을 열심히 쫓아다니며 자기의 보잘나위없는 힘이나마 보태주려 하였다. 그때마다 숙경은 《아유, 정말!》 하고 안타까운듯 부르짖는것이였다.

《그러다 내가 처벌받게 하자구 그러세요?》

《처벌은 왜 받는단말이요?》

조성길은 땀 흐르는 얼굴을 솜옷팔소매로 씻으며 깜짝 놀란듯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내가 하고싶어 따라다니는데 간호원동무가 무슨 책임을 진단말이요? 그런 걱정일랑 마시고 나에게 그 담가채나 맡겨주시오.》

《이제 그러다가 어데 상하기라도 하면 어찌겠어요.》 하고 숙경은 자기도 별반 믿지 않으면서 고집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내가 책임지죠. 아시겠어요? 이건 규정상 요구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아니 이보시오. 간호원동무.》 하고 조성길은 정중하게 말하였다. 《부모의 잘못은 자식들이 책임지지 못한다오. 걱정 마시오. 아무려면 이 늙은게 도덕적인 책임까지야 감당하지 못하겠소?》
그리하여 완고한 이 늙은 학자를 떼여버리는데서 군사규정의 랭혹한 조항들도 무시된다는것을 알게 된 숙경은 마침내 그가 하는대로 내버려두었고 바쁠 때엔 그를 소리쳐부르기까지 하였다.
격렬한 총성이 골어귀와 릉선들에서 끊임없이 울렸다. 두사람은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산너머로 가고있었다.
어느덧 숙경이의 마음을 돌려세우고 나어린 처녀의 조수자격을 얻게 된 조성길은 못내 궁금하던 문제들을 묻기로 작정했는데 그 첫번째는 지금 얼마만한 놈들이 달려들고있는가 하는것이였다.
《한 2천명나마 될가요. 경찰놈들은 내놓고도 말이예요.》
《아니 그럼?!…》
숙경은 조성길의 놀란 얼굴을 즐겁게 바라보았다.
《그래도 공격은 우리가 해요.》
숙경은 부상병들에게서 얻어들었을 공격전술에 대한 상식까지 덧붙였다.
《공격의 법칙은 주타격방향에 10배에 달하는 우세한 력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 공격할수 있다는거죠. 그러나 우린 그와 정반대이죠. 그렇지만 공격을 하거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수 있을가요? 그건 바로 전술적으로…》
문득 숙경은 입을 다물어버렸다. 등성이우에 련대장과 참모장 또 두명의 군관들이 서있는것이였다.
련대장이 묵직한 음성으로 쇠소리가 나게 말하고있었다.
《대대장동무, 드디여 동무네 차례가 되였소. 3대대를 지원하여 반돌격으로 저 골짜기를 차단하시오. 그러면 놈들은 완전히 덫에 걸린셈이 될거요.》
《알았습니다, 련대장동지!》
《신속히 행동하시오.》
분명 마지막 결정적인 공세를 준비하기에 바쁜 상관들을 방해하지 않을셈으로 숙경이는 조성길을 돌아보며 빨리 지나가자고 손짓했다. 그러나 그때 조성길은 련대장이 눈여겨보는 그쪽에 시선

을 옮기자 가슴이 철렁하는것을 느꼈다.
재빛의 검은 구름이 먼 산봉우리에서 솟구쳐올라 주변의 하늘과 땅을 무겁게 뒤덮는것이였다.
《놈들이 불을 지르고있소.》
련대장의 무거운 음성이였다.
《8중대가 위험에 처하게 됐소.》
조성길은 걸음을 옮길수도, 불타는 산에서 눈길을 옮길수도 없었다.
타래쳐오르는 검붉은 불기둥, 하늘을 덮는 검은 구름… 산이 불타고 수림이 불타고, 그속에서 지금 이 땅의 풀 한포기도 소중히 여기는 의로운 인민군전사들이 싸우고있다.
문득 숨막히는듯한 고통과 가슴을 짓누르는듯한 증오에 조성길은 치를 떨었다. 불, 불!… 인간이 불을 발견하고 리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생과 희망과 광명의 상징이였었다. 그러나 가장 잔인하고 포악하고 야만적인자들의 손아귀에 쥐여졌을 때 그것은 파괴와 암흑과 주검의 도구로 된것이다.
야만들, 20세기의 야만들이다. 인류의 재보를 불태운것으로 악명을 떨친 력대의 악한들을 릉가하는 미국의 악귀들이 조국강산과 그의 참된 수호자들을 불태워버리려고 날뛰고있다.
조성길의 험상궂게 변한 얼굴에서 다음 불타는 숲으로, 산봉우리로 눈길을 옮긴 숙경이도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련대장의 말소리가 무겁게 울려왔다.
《8중대동무들이 희생적으로 막아주고있소. 참모장동무,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때가 되였소. 명령을 전하시오!…》
불길은 점차 거대한 기둥으로 회오리치며 솟구쳐올랐다. 조성길은 벌써 그 뜨거운 화염을 삼키는듯하였다. 목구멍이 타들고 혀바닥이 말라들었다.
《저게 8중대가 있어요.》
숙경이의 말이였다.
《근데 난 그런줄도 모르고… 은하언니도 저속에 있겠는데…》
《?…》
조성길은 소스라치듯 놀랐다.
《은하라니?… 그 동무야 적구공작을 나가있다고 하질 않았소?》

숙경은 비로소 이 늙은 학자가 은하의 손에 이끌려왔다는것을 상기한 모양이였다. 그는 떠듬거리며 은하와 진호가 체포된 소식이며 8중대가 그들을 구원하게 되여있어 지난밤 상급준의도 8중대로 떠나갔다는것을 알려주었다.

조성길은 모진 아픔에 신음소리같이 중얼거렸다.

《그럼 그들이 지금… 그 동무가 어떤 사람이라구… 글쎄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데 저 불속에서…》

다시금 검은 구름에 뒤덮인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 조성길은 땅이 꺼져내리는듯 비틀거렸다. 련대장이 그들 두사람을 돌아본것은 그 순간의 일이였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조성길을 향하여 위험한 곳으로 나온것을 나무랐고 숙경이더러는 엄하게 꾸짖기까지 하였다. 조성길은 다급히 숙경이를 막아섰다.

《아니올시다. 제가 따라섰습지요. 사실말이지 저같은게야 무슨 큰일이 있겠습니까. 허지만 저 불길을 보니… 저속에 있는 귀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것만 같습니다.》

련대장은 고개를 돌려 불길이 치솟는 먼 산봉우리를 묵묵히 바라보고있었다. 준엄한 기색이 그의 얼굴에 비껴있었다.

《거기엔… 류성우의 중대가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에 찬 말이였다. 조성길은 그가 무엇때문에 그렇게 말했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그 믿음에 찬 대답을 듣자 갑자기 가슴을 에이던 불안감 대신에 용기가 솟아나는것을 느꼈다. 자기로서는 도저히 가늠할수 없는 그 어떤 크나큰 믿음으로 이들은 련결되여있는듯싶었다.

련대장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잠시후 일제사격의 총성이 벼락처럼 울렸다. 련대장은 조성길을 향해 말했다.

《이제부턴 전투장으로 가까이 오는것도 절대 엄금합니다.》

그는 그닥 서둘지 않고 되돌아갔다. 그 침착한 거동이며 확신에 넘친 어조 그리고 돌격이 벌어지는 산너머로 가는 그 묵직한 걸음걸이에 조성길은 또한번 깊이 몰아쉬였던 숨을 내뿜었다. 그리고 불타는 먼 산봉우리에서 눈길을 떼지 않으면서 《거기엔… 류성우의 중대가 있습니다!》고 한 련대장의 말을 두번,세번 곱씹어보았다.…

스테이지는 땅바닥에 코를 박고 엎드려 불길에 녹아 질척해진

땅걸면을 정신없이 핥기도 하고 마구 씹어넘기기도 하였다. 해묵은 썩은 가랑잎들이 입안을 꽉 메우고 돌부스레기들은 이발의 신경을 날카롭게 건드리는것이였으나 그는 잠시도 쉬지 않았다.

날카로운 불의 창끝들이 잔등을 찌르고 귀바퀴를 지져놓았다. 그때마다 스테이지는 무시무시한 고함소리와 함께 벌떡 몸을 뒤채이며 뱀의 혀바닥같은 그 불길에 몸서리치군하였다.

한번은 얼굴이 거무틱틱하고 주름살들이 가득 줄지은 인민군전사가 웃어대는것을 보았는데 숨막히는 열풍에 미쳐버린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얼마후 거침없이 웃어대는 그 나이든 전사의 얼굴에서 쓰디쓴 조소와 경멸의 빛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그는 자기가 얼마나 가련하고 망측스럽게 보였겠는가를 깨달았다. 그러나 그 인민군전사가 스테이지를 한날 털깎은 짐승모양으로밖에 더 치지 않는다는것을 알았더라면 그가 얼마나 통분했으랴.

사실 김만복은 자기가 포로한 추접스러운놈이 한때 련대장이 말하던 도꾜에서 파견되여온 스테이지라는것, 자기가 그때 겨루어보겠다고 언명한바 있던 그 악명높은 고문놈이라고는 아예 인정하지도 않았던것이다. 숱한 명령서들에 독수리도장을 찍고 지렁이같은 수표를 척척 해갈긴다던 그자와 지금 손아귀에 든 포로는 너무도 엄청나게 달라보였던것이다. 허나 정작 그가 다름아닌 반유격전의 로련한 전문가이며 《유엔군사령부》에서 특별히 파견한놈이라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 이 아바이전사는 개가 웃는것을 보았다는 말보다 더 끔찍이 놀랐는데 그것은 자기가 상상해왔던 그 살인귀의 흉악한 모습과 비굴하고 추접스러운 포로와는 너무도 달랐던것이다.

휘―익! 불덩어리가 날아와 목덜미를 덮치자 스테이지는 발작적인 웨침소리와 함께 태질하듯 딩굴었다. 머리칼이 순시에 불타버린것이였다. 이번엔 목구멍이 타들어 비명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아바이전사가 그의 목덜미를 발로 꾹 눌러놓아서야 그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쓰린 연기에 눈물도 말라버렸다.

물, 물!… 목을 추길 한방울의 물이라도 얻을수 있다면!…

갑자기 잠자리비행기가 날아와 검붉은 타래구름이 치솟는 상공을 돌기 시작하였다. 돌연히 하늘에서 무엇인가 우뢰소리같기도 하고 얼음장이 갈라지는 소리같기도 한것이 울렸는데 그것은 확성기에 련결시키는 록음장치의 마찰음이였다. 뒤를 이어 대기

를 찌르는 예리한 금속성이 불구름속을 뚫고 내려왔다.

잠시후 녀자방송원의 목소리가 귀전을 찌르르하게 울려주었다.

걸탐스럽게 귀를 기울여 듣던 스테이지는 조선말로 록음된 그 목소리에서 가까스로 분간할수 있었던 몇마디에 의하여 그것이 자기의 지시로 씌여진 원고라는것을 깨달았다.

공산군이 발붙일 모든 수림과 촌락을 불태울 준비를 하던 때 벌써 스테이지는 공산군에게 투항할것을 설교하는 그 원고도 쓰게 한것이였다.

(결국 그것은 나를 위한 장송곡으로 되고말았구나. …)

기승스럽게 휘몰아치던 불길도 점차 스러져가고 하늘을 덮었던 재구름이 무너져내리기 시작했다. 비행기는 사라졌다.

절망의 충동이 가라앉았을 때 흔히 맛보게 되는 쓰라린 애수와 허무감이 재만 남은 스테이지의 가슴을 짓누르고있었다.

형체없이 불타고 찢겨진 군복아래 꺼멓게 타버린 살점들이 드러나보였다. 그가 서슴없이 불태운 그 마을들에서 몸서리치게 울부짖던 그 로인들과 녀인들과 어린이들도 이렇게 숯으로 되였었다.

《우리에게는 구원해줄 신이…》

여기서 스테이지는 가슴 한끝에까지 올렸던 팔목을 맥없이 떨구고말았다.

《저주받을 루텔! 저승에 간 네놈이나 신을 찾으라. 나에겐 그것도 이젠… 없다! …》

그러자 갑자기 우묵한 눈확에 질척한 눈물이 고여드는것이였다.

승진과 재부의 꿈도 다 불타버렸다. 이제 바랄것이 또 무엇이랴. 불에 탄 목을 추길 한방울의 물이라도 얻을수 있다면! … 전세계를 탐내던 그의 소원은 이렇듯 극히 작아졌다.

마치도 신앙심이 두텁던 그의 마지막 호소가 하늘의 망령들에게 전해졌던 모양으로 어데선가 쭈르륵! ㅡ물흐르는 소리가 났다. 스테이지는 미친듯 눈알을 번뜩이였다.

똘랑, 똘랑, 똘랑…

군용밥통우에 거꾸로 세운 물통… 한방울 한방울 피빛같은 물방울들이 떨어져내리고있었다. 다시 또하나의 물통이 들리자 쭈르륵! ㅡ 물이 쏟아지고 또다시 똘랑똘랑 물방울소리가 귀청을 아프게 두드리는것이였다.

입술이 말라터진 인민군전사들이 구멍뚫린 물통을 쳐들어보고

흔들어보고는 한 나어린 소년이 들고있는 군용밥통을 바라본다. 이제 저 하나의 밥통을 놓고 전중대가 피투성이 되리라.

악의에 찬 만족감으로 스테이지는 피투성이가 되여 싸울 정경을 그려보았다.

그는 아무리 강한 정신력을 가진 공산군이라 할지라도 죽음보다 더한 이 고통은 참아내지 못하리라는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총탁으로 후려치고 피가 랑자하고… 상관의 총구에서 화약가스가 쓸어나오면 마침내는 류혈의 란투극이 벌어지리라.

나이든 전사가 먼저 일어나 무어라고 웨치자 숱한 전사들이 달려들었다.

(시작됐구나！…)

허나 다음순간 그는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나이든 전사가 배낭속에서 작은 사탕봉지를 꺼내여 밥통에 쏟아붓자 불에 그슬리고 입술이 갈라터진 숱한 전사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오르는것이였다. 만약 스테이지가 말을 알아들을수 있었더라면 부대의 활동에 기여한 한 정치공작대원을 위하여 그들이 정성을 다한다는것이며 중대의 마지막 예비창고인 아바이전사의 《도깨비자루》까지 말끔히 털었음을 알고 깜짝 놀랐을것이다. 어쨌든 스테이지는 그 어떤 륙감으로 사태를 알았고 그리하여 악의에 찬 신음소리를 질렀다.

막다른 죽음에 처한 이 시각에조차 태연히 웃을줄 아는 이 전사들이 가지고있는 그 무서운 힘을 스테이지는 증오하였다. 사나운 발톱과 이발로 물어뜯고 허벼대고 갈가리 찢어던지고싶었고 그 피나는 욕망과 미칠것 같은 갈망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수 없는 그 무력함을 통탄하였다. 그는 사형수의 마지막 신음소리처럼, 죽음에 직면한 상처입은 승냥이처럼 미친듯 이발을 갈면서 알수 없는 힘을 가진 이 사람들과 맞서게 된 자기의 불우한 운명에 저주를 퍼부었다.

6

《물, 물！…》

은하는 자기가 잠을 잤는지 아니면 무의식상태에서 헤매고있

었는지 분간할수 없었다. 목이 타들고 불에 구운것처럼 머리속이 뜨겁게 달아오르는동안 그리고 뼈를 갉는듯한 아픔에 온몸을 비틀어대는동안은 의식이 있었다고도 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지나가면 다시 모든것은 불길속에 뜨거운 열의 숨막히는 중압속에 파묻혀버리는것이였다.

《물, 물！…》

그것은 다만 마음속 부르짖음이였고 타는듯한 애원일따름이였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것을 깨닫기에는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는 얼마후에야 의식을 차렸다. 그러나 그 얼마후라는것이 한순간이였는지 아니면 수십수백을 헤아리는 기나긴 시간이였는지조차 짐작할수 없었다. 마침내 누군가의 엄격한 말소리가 혼미해진 의식속에 스며들었다.

《조심해요！》

뜨거운 불길이 재티를 날리며 휩쓸어오고있었다. 그속에서 눈물에 얼룩진 진호와 상급준의 안혜순의 열띤 얼굴을 분간해보자 은하는 불현듯 급수탑의 콩크리트벽에 머리를 기대고있을 때 벼락같이 터지던 총성들에 이어 어수선한 소음이 휩쓸어대는가운데 《왔어요, 부대가 왔어요！》 하고 기쁨을 못이겨 웨쳐대던 진호의 목소리며 무엇인가 까부시는듯한 쇠소리 등을 상기하였다. 그때에도 어둠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중에서 누군가가 성급한 목소리로 《조심하오！》 하고 웨쳤던것이다.

우－우－하는 고함소리가 가까와왔다. 검은 연기기둥이 하늘로 솟구쳐오르더니 불꽃들이 눈보라처럼 흩날렸다. 웬일일가. 왜서 모두 불타는것일가？… 초연이 몰아치는것과 동시에 은하는 다시금 괴롭게 숨결을 톺아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이 모든것은 어떻게 시작된 일이였던가？그것은 은하의 기억중에서 가장 몸서리치는 기억의 한 파편이였다.

채찍소리처럼 귀전을 후려치던 총성들과 자기를 향해 팔을 내뻗치던 진호의 모습이 바람처럼 사라지자 이번엔 악에 받친 욕지거리들이 떠올랐다. 이어 어깨를 짓누르던 군화발과 누나를 부르던 진호의 새된 부르짖음소리, 발고랑을 가로질러 끌려갈 때 언듯거리던 검은 그림자들… 오래전 일도 아니련만 웬일인지 아득한 옛일처럼 희미하게 떠올랐다. 부릉부릉하는 자동차의 발동소리가 들

리고 그우에 짐짝처럼 내던져지던것도 아슴푸레하게 기억되였다. 바람 세차던 그 밤은 어둠과 추위, 사정없이 내려지던 총탁판이며 멱따는듯하던 웨침소리속에서 흘러간듯싶었다. 얼음장같은 돌바닥… 밖에서 흘러든 한줄기 벌거우리한 불빛이 권총을 거꾸로 틀어쥔 한 괴뢰군장교놈의 괴이한 낯짝을 비쳐보였었다. 그놈은 웃고있었다. 똑똑히 기억하건대 그자의 그 흉물스러운 웃음을 제외하고는 임의의 순간에 머리를 깔수 있도록 거꾸로 돌려쥔 권총도 살을 지져놓기 위하여 들고있던 담배불도 무섭지 않았다. 육체상의 아픔을 느끼기에는 너무도 감각을 잃어버린 은하였었다. 지어 은하는 모진 구타도 두렵지 않은것이 얼마간 기쁘기까지 했던것 같다. 차디찬 피가 목덜미로 흘러내리고 웨침소리에 이어 우둑우둑하는 소리가 날 때 그 모진 고통을 이길수 있고 비밀을 지킬수 있다는것을 입으로 흘러든 피맛이 짭짤함을 느끼는것처럼 명백히 깨닫게 되여 안도감을 가졌던것이다.

그러나 은하의 마음을 참을수 없이 옥죄인것은 부대에 전하지 못한 그 정보였다. 하여 은하는 모다카에 실려 중대에 도착했을 때, 상급준의가 상처를 싸매던 그때 그것부터 물었던것이다. 그리고 부대를 찾아온 생금이에 대하여 들었다. 생금이! 남해어머니!… 비로소 은하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다시금 알수 없는 어둠속에 잠겨버렸다.

은하는 이따금 완전한 무의식상태에 빠져드는가 하면 모든것이 확실해지는 때도 있었다. 눈앞에서 가물가물 섬광을 뿌리던 불꽃들이 별안간 거세차게 타번지는 순간 문득 눈을 떴다. 알수 없는 예감으로 그의 시선은 불꽃들이 날리는 그쪽으로 달렸다. 거기에서는 거칠어지고 험악해지고 전혀 낯모를 사람처럼 변한 류성우가 심각하고도 수심이 비낀 눈빛으로 바라보고있었다.

《좀 어떻소?》

은하는 미소했다. 그가 이처럼 나타나리라는것을 그리고 그가 이렇게 물으리라는것을 이미 알고있은듯했고 기다렸던듯싶었다.

《오셨군요. 성우동무… 그러니 우린 여태 함께 있었군요.》 속삭임소리는 내내가 피여나오는 목구멍어방에서 뱅뱅 맴돌이칠뿐이였으나 은하는 그것도 느끼지 못하였다. 《걱정 마세요!…》

또다시 모든것이 흐트러지고 뒤번져지고 휘말려돌아갔다. 불길이 밀려오고 검은 연기타래가 담가를 휩쓸고 누군가의 굵은 목소

리가 사람들을 재촉하자 담가는 뜨거운 불의 파도속을 헤엽치듯 나아갔다. 타드는듯한 입술을 추겨 무엇인가 부르짖었으나 그것은 꿈과 현실세계의 아득히 먼 지평선으로 사라져버리고말았다.
아픔은 점점 더 심하게 은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한번은 뜻밖에도 《최후를 느낀다는것은 바로 이런것이구나!》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은 그 녀자의 의식이 가장 또렷해진 순간의 일이였다. 분명 이 한순간의 느낌은 은하에게 육체상의 헤아릴길 없는 아픔을 극복할수 있는 준엄한 정신적의지를 돌이켜주었다. 최후를 의식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바와 같이 은하는 길지 않은 자기의 인생행로를 단 몇순간에 낱낱이 더듬어보았다. …
은하는 죽음과 싸우고있었다. 숨결이 가빠졌다. 경련의 파도가 밀려들었다. 이발을 사려물고 신음소리를 삼키며 참을수 없는 아픔을 털어버리려고 몸부림쳤다. 순간과 순간들이 몇천을 헤아리는 날들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때로는 한줄기 강렬한 빛살이 동공을 찌르며 날아들기도 했다. 멀고도 먼 기슭, 파도소리 출렁거리는 백사장에서 화염의 바다물속에 빠져들기도 했다. 암흑, 불길, 갈증, 아픔, 분과 초들, 창살같은 빛줄기들…
누군가 자기의 손회목을 뜨겁게 꽉 부르쥐는것을 느꼈다. 눈을 뜨고싶었다. 그처럼 뜨겁게, 그처럼 열렬하게 숨져가는 자기를 붙안아이끌어주는 그 억센 사람을 보고싶었다. 그러나 눈을 뜰수가 없었다. 뜨거운 입김이 그의 두볼을 간지르며 가까이 다가왔다. 아, 그 숨결, 그 입김… 자기를 불러주는 그 속삭임… 먼 지평선에서 울려오는듯싶던 그 음성이 마침내 귀전을 울리며 꺼져가던 의식속으로 뛰여들었다.
《은하, 용기를 내오!》
눈을 떴다. 비로소 그는 지척에서 울리는 격렬한 총성을 들었고 아직도 전투는 계속되고있음을 깨달았다. 검붉은 구름이 파도쳐 밀려오는 가운데 타는듯한 류성우의 눈빛이 바투 다가왔다. 그 눈빛에서는 강렬한 불꽃들이 이글거리는듯하였다. 무엇이라고 그가 또 말하는것이였지만 은하는 이미 그것을 듣고있지 않았다. 그 어떤 정겨운 속삭임이나 뜨거운 말보다도 불꽃튀는 그 눈빛이면 더 바랄것이 없었다.
《가지 마세요!》 하고 은하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가지

마세요. 난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아요. 가지 마세요. 잠시동안만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바라볼수 있도록… 가지 마세요. 나를 고통속에 남겨두고 이제 동무마저 가버리면…》

문득 귀청을 찢는 기적소리를 은하는 듣는듯했다. 출발을 앞둔 역두, 대렬을 짓는 병사들, 나팔소리, 구령소리 또 기적소리！… 모두들 떠나가는구나.

《가지 마세요！ 이제 동무마저 가버리면 나는 견디지 못해요. 홀로 남는다는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동문 모를거예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또다시 기적소리！… 정치공작대로 떠나던 그날 전투에로, 위훈에로 불러주던 우렁찬 기적소리였다. 그 기적소리는 은하를 불렀다. 대오에로, 투쟁에로 소리쳐부르는것이였다. 군용렬차의 지휘관도 모터찌클을 탄 애된 전사도 거무스레한 포장도 부르고있었다. 그리고 류성우도… 그 녀자의 손을 잡고있는 류성우도 그를 부르고 있었다. 은하, 은하, 은하！…

《성우동무.》 별안간 은하는 아주 또렷한 음성으로 말했다. 《다들 중대장동무를 기다릴거예요. 어서 가보세요！…》

《고맙소, 은하！》 석쉼해진 류성우의 목소리였다. 《나도 그럴줄 알았소. 은하, 용기를 내여 참고견디오. 응？！… 그럼 믿겠소！》

타는듯한 눈빛이 사라지고 성급한 발자국소리마저 멀어져가자 은하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

온통 불길에 싸인 령마루에서 물에 대한 갈망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심정이였다. 얼어붙었던 땅걸면이 뜨거운 불길에 녹군했어도 한방울의 물도 찾지 못하였다. 세찬 열풍은 무수한 재티를 들씌웠고 입에 넣고 씹을 솔잎하나 남기지 않은것이였다.

말라터진 입술을 바위에 붙이고 진호는 괴롭게 숨을 할딱거렸다. 지치고 허기진데다 열풍과 초연에 목구멍이 쓰리다 못해 갈기갈기 찢겨지는듯싶었다. 불을 삼키고 불을 토하는 그 목구멍을 잠시나마 적실수 있다면 불붙는 아궁이속에라도 서슴지 않고 기여들것이다. 그 아궁이라야 불타는 이 산마루나 별반 다름없을것이니.

물！… 혀바닥이 가드라들고 눈물조차 말라버린듯 이제는 눈을 떴다 감았다 하기조차 어려웠다. 인민군전사들이 주머니속에

넣어준 건빵마저 한쪼각 입에 넣고 씹을수 없었다. 물, 물!… 이상한 일이다. 그것 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는 물을 두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은것이야말로 얼마나 미욱하고 괴이한 일이랴!… 지어 진호는 매번 열번씩 절을 하고서야 물을 마시는 법을 만든대도 과분할것만 같았다. 그저 물만 있었으면!…

헌데 그에게는 물이 있었다. 혈육의 정을 모르고 살아온 진호에게 있어서 누나와도 같고 어머니와도 같은 은하를 위하여 전중대가 구멍뚫린 물통들을 기울여 한방울 두방울 모아준 물이였다. 중대의 전재산이 그에게 있었으니 아바이전사의 《도깨비자루》에서 나온 각사탕쪼각과 건빵을 섞어 군용밥통의 밑바닥을 채웠었다.

그러니 그것은 물이 아니다. 그것은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피와도 같고 보약과도 같은것이다. 진호는 밥통을 끼고 이글거리는 불꽃들을 헤집었다. 팔소매에 불이 당기고 남의 살 같은 손바닥에는 벌써 크고작은 물집들이 돋아났어도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리고 물에 대한 피타는 갈망만을 거듭하면서 잉걸불을 모았다. 그것은 진호의 터진 머리를 붕대로 싸매준 상급준의가 《맹물을 마시게 해선 안돼. 알겠니?》 하고 거의나 엄숙하게 경고하였기때문이였다.

이글거리는 불더미우에 밥통을 올려놓는다. 그러자 그 순간에 한방울 물에 대한 소원은 다른 하나의 커다란 소원, 간절한 열망으로 바뀌인다.

누나를 살릴수만 있다면!… 그렇다. 그럴수만 있다면 이제 백날, 천날을 더 한방울 물도 없이 산다 해도 좋을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자 불현듯 설음이 북받쳐올랐다. 왜, 무엇때문에?… 누나가 당하는 이 모진 고통이 자기때문이라는것을 그는 잊지 않고있는것이였다.

저도 모르게 진호는 허리를 폈고 그다음 목을 길게 빼들고 담가가 있는쪽을 바라보았다. 한걸음 또 한걸음… 다음순간 누군가의 외마디 부르짖음에 와뜰 놀란 진호는 머리를 홱 돌렸다. 그러자 몸서리쳤다. 포로된 미제침략군 대좌놈이 불에 타서 없어진 벌거숭이 뒤통수를 잔뜩 젖히고 군용밥통을 기울이고있은것이였다. 아바이전사의 외마디 부르짖음에 놀란 그자는 두눈의 흰자위를 번뜩거리며 고개를 돌렸는데 순간 진호는 도적놈의 입언저리와

수염우에 넌적넌적 게발려있는 거품을 보았다. 악―하는 부르짖음소리… 그것은 진호가 몸서리치게 부르짖은것이였다.
극히 짧은 한순간의 일이였다. 진호는 마치 표범과도 같이 날래고 사납게 몸을 날리며 덮쳐들었고 어느새 그자의 낯짝을 손톱으로 긁었다. 무서운 비명소리가 터진것은 다음순간의 일이였다. 스데이지는 얼결에 밥통을 떨어뜨리고 화닥닥 솟구치더니 정신없이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 나무가지에 부딪치면서 홈타기로 굴러났는데 그러자 홈타기에 가득 찼던 재더미들이 흐트러지고 그속에서 이글거리던 불더미가 검은 몸뚱이를 뒤엎어버렸다.
뒤늦게 달려온 아바이전사는 대뜸 총을 겨누었으나 말없이 도로 내리고말았다. 그것은 불꽃들이 이글거리는 홈타기에서 눈보라치는 겨울 한밤중에나 들을수 있는 굶주린 승냥이의 통곡소리와 같은 처참하고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다가 끊어진때문이였다. 검은 몸뚱이가 파묻힌 홈타기에서 또한번 무수한 불꽃들이 솟구치더니 불길이 확 달렸다.
진호는 맥없이 털썩 주저앉으며 땅바닥에,재더미우에 나딩구는 군용밥통을 더듬어쥐였다. 불에 덴 그 애의 손끝이 경련적으로 떨렸다.
《왜 쏘지 않았어요?》 하고 진호는 말없이 내려다보고있는 아바이전사에게 웨쳤다. 《왜 쏴죽이지 않았어요,예?》
어느새 벌떡 뛰쳐일어난 그는 바지주머니속에서 보총탄 세발을 꺼내여 아바이전사에게 내밀었다.
《쏴요,예? 당장 쏴죽여요!》
투박하고 묵직한 손이 진호의 떨리는 어깨를 꽉 그러쥐였다. 마치 열병에라도 걸린듯 와들와들 떨고있는 소년을 다그어안으며 그리고 짧고도 빠른 불꽃들이 펀뜩거리는 두눈을 들여다보며 아바이전사는 조용히 말했다.
《애야,그만해라. 그놈은 죽었어. 제가 지른 불속에 타죽고말았다. …》
암갈색의 구름에 덮여있는 릉선들에서 격렬한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판가리싸움이 시작된것이였다.

7

릉선의 기복들마다에 바람이 휩쓸 때마다 재더미에 묻혀있던 불꽃들이 솟구쳐날아갔다. 전장은 온통 그을음과 숨막히는 내내와 거무칙칙하게 타다남은 숯덩어리나무들로 들어차있었다.

황량하고도 처절한 살풍경이였다. 그러나 릉선의 한끝 돌출부에서부터 다른쪽 완만한 경사면에 이르기까지의 넓은 구간에서 전투가 시작되자 불타버린 릉선들은 다시 살아나 씩씩 거칠게 숨을 내뿜는듯하였다.

류성우는 적들의 박격포사격이 멎은것으로 미루어 3소대장의 기습조가 자기 임무를 수행했다는것을 깨달았다. 아마도 그들은 영영 되돌아오지 못할는지도 모른다.

그는 커다란 나무가 뿌리채 뽑혀있는 비탈면으로 달려갔다. 포탄에 파헤쳐진 홈타기로 뛰여들면서 나무를 찍어눕혀 바리케트모양의 더미를 쌓는 황히세를 보았다. 꺼멓게 그을은 그의 얼굴은 험상궂게 보였다. 그는 중대장을 보자 소대의 탄약보유량부터 먼저 보고하면서 마지막 한알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남겨둘것을 전체 대원들에게 명령했다고 말했다. 보고를 마쳤을 때 어떤 고통스러운 기색이 그의 무섭게 상기된 얼굴을 짙게 덮는듯하였다.

(마지막 한알！…)

성우는 입술을 악물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다른 명령을, 아니면 그 어떤 충고라도 하고싶었으나 생각나지 않았다. 중대는 탄알이 떨어져가고있었다.

《부상병들에게서 탄알을 걷소！》

불현듯 련대의 공격전투가 벌어지고있을 먼 산너머쪽을 바라보았다. 전투가 끝났다는 소식, 철수해도 좋다는 신호탄이라도 있지 않을가？… 그러자 부지불식간에 머리속에 떠오른 그 생각이 용감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것 같아 낯이 화끈거렸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중대장？ 네앞에는 적의 기동련대를 한사코 저지시켜야 할 명백한 임무가 있지 않느냐？…

문득 바위기슭을 굴러내려 홈타기로 뛰여드는 진호를 보았다. 황히세가 달려가 그를 덮쳐눌렀다.

《이녀석 여긴 왜 왔어?》

소년은 무섭게 소리치는 황히세소대장을 피끗 쳐다보더니 입을 삐죽하고는 불타는 나무등걸밑을 거의 기다싶이 하여 류성우를 향해 다가왔다.

《중대장동지.》

말라터진 입술을 놀려 가까스로 이렇게 짜낸 그의 목소리에는 사무친 애원이 들어있는듯했다. 범골밀영에서 나왔을 때 그가 만났던 소년은 옷매무시가 단정하고 영채가 도는 한 귀염둥이였었다. 그러나 지금 그앞에 다가온 소년의 팔소매며 바지가랭이는 불에 타 너덜거렸고 사납고 영악스러워보이는 얼굴은 그을음에 얼룩져있었다.

《중대장동진 여기서… 제일 높지요?》 소년은 성우의 팔꿈치를 붙잡았다. 《예? 그렇지요?…》

《…》

성우는 그 애가 이제 무슨 말을 꺼낼지 짐작되였다. 그러자 비수처럼 번뜩이는 그 예감에 가슴이 싸늘해졌다.

《난 다 알아요. 이건 중대장동지만이 할수 있어요. 말해줘요. 중대장동지, 명령을 해줘요. 누나가… 지금 누나가…》

그것은 벌써 애원이 아니라 열렬한 호소였고 피타는 요구였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안된대요. 중대장동지, 빨리 병원에 보내라고 명령해줘요. 예?…》

소년의 애타는 그 부르짖음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의 압박으로 숨막히게 하였다. 선뜩해지는 느낌에 성우는 몸을 부르르 떨었고 다음순간 고개를 홱 돌렸다.

《1소대장동무, 누구 한사람 시켜 이 꼬맹이를 당장 쫓아보내오!》

거친 목소리였다. 그것은 그자신도 아직 들어보지 못한 터지고 불에 그을리고 무섭게 성난 남의 목소리였다. 그러자 이렇듯 순간에 랭혹해진 류성우의 거친 목소리에 진호는 아연해진듯했다. 그 애는 벌떡 일어섰다.

《어쩌문 그럴수 있어요? 다른 사람두 아닌 중대장동지가… 그렇게 마— 말하다니 그—그럴수 있어요? 예?!》

별안간 성우는 소년의 어깨를 누르며 사정없이 홈타기에 구겨박았다. 순간 그들의 머리우 파헤쳐진 벽에서 돌가루들이 뽀얗게 흩어져내렸다. 꺼멓게 그을린 나무가지들이 뚝뚝 부러져 떨어졌다. 성우는 태질을 친듯 구겨박혀있는 진호를 끌어당겨 검불같은 머리를 털어주었다. 소년의 두눈엔 커다란 의혹과 공포의 빛이 가셔지지 않고있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나무에 부딪친 팔꿈치를 쓸어만지며 뒤걸음쳤다.

《아저씬… 아저씬 정말？…》

(그래, 이 아저씬 몰인정한 사람이다. 박정한 사람이다！…)

뒤걸음질쳐가는 소년의 눈가에서 피방울같은것이 번뜩이자 성우의 가슴은 참을수 없이 쓰라려났다.

그래 명령을 내려달라고? 누나를 구하라는 명령을？… 나는 안다. 너에게나 나에게 다같이 귀중한 그 사람이 죽어가고있다는것을… 그러나 무슨 명령을 할수 있단말이냐. 이미 그것은 가망없는 일로 되였다. 물한방울 없는 여기서, 재가루만 펄펄 날리는 이 산마루에서 수술을 하라고 명령하겠는가？ 또 포위속에서 후송할수도 없다. 아니다. 나에겐 한 생명을 위해 다른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킬 권리가 없다！… 그리고… 우린 최후를 각오하고있다. 그 시각은 박두했다. 이제 얼마후, 아니, 몇분후에라도 나는 너의 누나에게 권총을 쥐여주면서 《용서하오,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일이요！》라고 말할수도 있는것이다！…

류성우는 멀찍이 물러가는 진호에게서 눈길을 돌리고말았다. 그러나 그는 이때 쫓기듯 물러가는 어린 소년에게서 아픈 눈길을 옮기지 못하고있는 또 한사람이 있다는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1소대장 황히세였다. 누구보다도 그는 류성우가 진호를 당장 쫓아버리라고 웨치던 때 얼마나 모진 아픔이 그의 가슴을 허비였겠는가를 잘 알고있었다. 그리하여 코마루가 날카로운 자기의 중대장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념으로 그는 바위기슭을 돌아가는 류성우를 이윽토록 바라보았다. 그에게 힘이 되고 아픔을 가셔줄 무슨 말인가 하고싶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자기로서는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리라는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어떤 위안도 격려도 필요없는것이였다.

그렇다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속을 썩이고있어야만 한단말

인가?… 문득 가슴을 쥐여비트는듯한 아픔속에서 그는 폭격에 쓰러진 안해와 자기의 어린 아들을 그려보았다. 그들을 황히세는 돌볼수 없었고 결국 살려낼수도 없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대가 있다. 중대장도 있고 정치부중대장도 있고 수십명 용감한 전투원들이 있는 중대… 그뿐인가, 위생병들도 있고 상급준의도 있다. 그러자 불현듯 상급준의를 찾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났다. 그에게 요구하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하든지 수술을 하도록 요구하자!…

상급준의 안혜순은 2소대의 진지를 돌아 돌출부쪽으로 가고있었다. 황히세는 재가루를 펄펄 날리며 그를 다쫓아갔다.

《상급준의동무!》

그가 소리쳐부르자 그 녀자는 불타다남은 나무등걸밑에 멎어섰다. 다급히 달려오는 황히세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엔 긴장과 의혹이 어려있었다. 군모밑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이마에 붙어있었다. 웬일인지 그 녀자는 황히세가 가까이 다가서자 약간 주춤거리며 물러섰다. 비록 맵짜고 도고한 안혜순이였지만 황히세가 입을 비뚤사하게 악물고 두눈을 지릅뜰 때면 조마조마해서 숨소리마저 죽이군하는것이였다. 그 녀자는 차라리 사나운 어성으로 고함을 치는 편을 더 수월히 생각했다.

황히세는 그 녀자앞에 이르자 밑도끝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상급준의동문 도대체 여기 뭣하러 와있습니까?》

몽둥이를 쳐든듯한 위협적인 어조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혜순을 당황하게 한것은 그가 아주 낮은 소리로 거칠게 말한 그것이였다. 억센 사나이들이 자기의 흥분을 억누를 때 이렇듯 거칠고도 낮은 목소리를 짜내는 법이다.

안혜순은 잠자코 기다렸다. 아직은 그가 무슨 말을 꺼내려는것인지, 그가 무엇을 못마땅하게 여기는지 알수 없었다.

《상급준의동문 그저 한 보총수로서 우리 중대에 온건 아니겠지요?》

《…》

《왜 말이 없습니까?》

《무슨 일때문인지 말씀하세요.》

《수술하시오!》

《?》

불현듯 안혜순은 두눈이 쓰려나고 가슴이 옥죄여드는것을 느꼈다. 무엇때문일가? 숨막히는 초연때문인가 아니면 아무런 사정도 알려고 하지 않는 이 과격한 보병소대장의 무리한 요구때문인가?… 안혜순은 지금 황히세가 무엇을 요구하고있는지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것인가? 이 불바다속에서 이 황량한 재더미속에서 어떻게 수술하라고 요구한단말인가?…

《해야 하오!》 황히세의 목소리는 강경했다. 《수술을 하시오, 상급준의동무의 손에 지금 한 생명이 달려있소.》

《…》

왜 아무 말도 할수 없을가? 하고 안혜순은 입안이 바싹 말라들고 목구멍이 타드는속에서 괴롭게 숨을 톺아올렸다. 왜 나는 그것이 무모하고 가혹한 요구라는것을 말하지 못하는가?… 가까스로 눈을 들었다. 순간 그 녀자는 침통한 비애의 그늘이 비낀 황히세의 두눈을 보았다. 그와 동시에 언젠가 류성우중대장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생생히 떠올랐다. 폭격에 쓰러진 녀인, 그가 안고있는 숨진 어린애… 하건만 녀인은 마지막 숨결을 가다듬으며 주사 한대만 놔달라고 그리도 절절하게 하소했다고 하였다… 그렇게 한날한시에 미국놈들 폭격에 안해와 자식을 잃은 황히세였다. 그의 주먹속에서 부스러지던 유리의 파편들처럼 서리찬 증오가 들어찬 심장을 지닌 사람이였다.

《상급준의동무!》 황히세의 음성은 격해졌다. 《왜 대답이 없소, 예?!…》

안혜순은 이 억척같은 사람에게 그처럼 부드러운 인간미가 간직되여있음을 보면서 전우를 위한 그 간절한 호소에 대답을 못주는것이 가슴을 쥐여뜯고싶도록 안타까왔다. 아, 이처럼 굳세고 이처럼 아름다운 심정을 지닌 이 사람에게 《념려 마세요, 소대장동무!》 하고 말할수만 있다면!… 그러나 이 모든 소망과 갈망과 피타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선뜻 대답을 할수 없는 그 엄혹한 현실로 하여 그는 황히세의 얼굴조차 태연히 마주볼수 없었다.

마침내 황히세는 부르짖었다.

《상급준의동무, 우리 중대장동무를 보시오. 자기 애인이 죽어가는걸 보면서도 중대장동문… 동무가 만일 그런 심정을 안다면… 젠장, 동무야 그런걸 알턱이 없지!…》

그리고는 가버렸다. 혜순은 금시 심장이 멎는듯했다. 자동총을 어깨에 걸치고 불에 그슬린 소나무들 사이를 빠져 경사면을 걸어가는 그의 구붓해진 어깨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면서 혜순은 락동강에서 전사한 측량기수를 생각하였다. 처음으로 그 녀자의 눈가에서 한방울 굵은 눈물이 굴러내렸다. …

적들은 미친듯이 공격을 거듭하였다. 돌출부쪽에서는 열두셋밖에 안되는 놈들이 더 뛰여올랐어도 한데 엉켜버렸을 정도로 사태는 절망적이였다. 전투를 진행하는동안 성우는 한시도 《마지막 한알은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전체 대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라고 한 황히세의 보고를 잊지 않았다.

마지막 한알!… 사실상 리론적으로는 벌써 적의 공격을 저지시킬만한 힘이 중대에 남아있지 않았다. 줄어든 대오, 극히 적은 탄약과 수류탄… 쓰러진 적들의 시체를 뒤지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포탄창고 습격의 밤이 떠올랐다. 그때도 중대는 포위속에 들었고 성우는 포위를 뚫고나갈 길을 찾느라고 모대기였었다. 허나 지금은?… 그는 또다시 자기자신도 믿지 않으면서 신호탄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혹시 중대가 받은 명령은 이미 수행되였는지도 모른다.

《적의 기동련대를 타격하고 유인하시오!》

명령은 간단명료했다. 하여 중대는 타격했고 유인했으며 지금은 부대의 배후에로 가는 길을 완강히 차단하고있는것이다. 신호탄으로 철수명령을 알릴 때까지 견지하라는 말은 없었으니 이제 당장 포위를 뚫고 나간다 해도 그와 그의 중대는 임무를 수행한것으로 될것이며 결국 지금 생사기로에서 헤매고있는 은하는 물론 중대를 살릴것이다.

그러나 명령이 수행됐다고? 어떤 명령이?… 전사는 명령의 단순한 기계적인 수행자가 아니다.

불현듯 성우는 련대장이 들려준 이야기, 한 소년중대원에게 하신 장군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너는 지금 한 보총의 무게가 아니라 혁명을 떠메고 간다는걸 알아야 한다!…》

저도 모르게 두주먹을 불끈 쥐였다. 지금 전선에서는 강력한 반

타격전이 적의 대집단을 포위소멸하고 광대한 지역을 해방하는 작전이 벌어지고있다. 그 거대한 작전의 운명이 지금 여기 이름없는 산봉우리에서도 결정되고있는지 어이 알랴. 전선에서 포위된 적의 대집단은 후방으로부터 단 한발의 총포탄도 단 하나의 예비대도 증원받지 못할것이니 바로 그것을 위하여 중대는 스스로 포위를 택했으며 포위를 뚫고 나갈수 있는 모든 가능성도 스스로 버린것이다. 여기서 전선의 운명을 책임지고있기에 우리는 모든것을, 자기의 귀중한 사랑도 고귀한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것이다! …

돌출부에는 엄기창정치부중대장이 나가있었다. 그곳에서 달려온 련락병 배다운은 정치부중대장이 전사들과 담화를 하더라고 보고했다.

《정치부중대장동진 저를 보더니 〈전투도 하고 담화도 하고 있습니다, 련락병동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다운, 중대장동무에게 절대로 과장해서 보고하면 안돼. 알겠소?〉하지 않겠습니까.》

엄기창이야말로 그렇게밖엔 달리 말하지 않을것이다.

잠시 위험이 가셔졌을 때 류성우는 진지들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전사들은 푸석푸석해진 땅을 파거나 나무더미를 고쳐쌓고있었다. 묵묵히 탄알을 헤여보는 전사들도 있었다. 무엇인가 비장한 각오가 그들 매 전사들의 말없는 거동에서 뚜렷이 드러나보였다.

엄기창은 돌바위에 기대여앉아 글을 쓰고있었다. 성우는 그가 이렇게 앉아 전투기록장을 정리하고있으리라는것을 짐작하였었다. 이제 와서는 그와 상반되는 다른 일을 하고있는것이 더 이상하게 느껴질것 같았다.

《아, 중대장동무.》 하고 그는 반색하며 바위옆에 자리를 권했다. 《마침 왔군요. 제가 갈가 했는데…》

류성우는 지금 적들이 력량을 수습하여 달려들기전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있었으므로 대뜸 실무적인 문제로 파고들었다.

《손실이 크오?》

그것은 묻지 않는 편이 나을듯싶었다. 중대의 손실에 대하여 보고받을 때마다 그는 가슴을 비트는듯한 아픔을 느끼군했던것이다.

《탄알은 얼마나 있소?》

《적습니다.》
그가 소대장이나 어느 하사관이였어도 현재 몇발중 기총탄 얼마, 어떤 구경소총탄 얼마 하고 보고했을것이건만 그는 단순히 《적습니다.》 하는것으로 대치했다. 그러나 그것은 《탄알이 떨어지고있습니다.》 하는 말보다도 더 가슴아프게 들렸다.
《중대의 형편이 몹시 어렵지요?》
엄기창이 묻는 말이였다. 류성우의 표정에서 비장한 각오의 빛이라도 발견한것 같았다.
《아마 이번엔 판가리가 나겠지요?》
《그럴것 같소. 어쨌든 우린 다 죽더라도 놈들을 차단할것이요.》
엄기창은 또 몇자 글을 써넣으며 류성우를 흘끔 바라보는것이 그 비장한 결의를 그대로 옮겨쓰는것 같았다. 짧은 순간의 일이였다.
《참, 중대장동무.》
엄기창은 실눈을 지으며 터지고 찢겨진 류성우의 장화를 곁눈질했다.
《련락병동무한테 새 장화 한컬레가 있지요. 본적이 있습니까?》
《…》
《그러니 그 친구가 단단히 비밀을 지켰군…》
그 어떤 구슬픈듯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그려졌다. 그것은 야릇한 회고의 미소였고 흔히 소중한것을 추억할 때 저절로 피여나는 애수의 향기였다.
《그게 바로 희생된 전 중대장동무가 늘 자랑하던 장화입니다. 자랑인들 얼마나 했겠소. 곰팡이라도 쓸세라 잘 닦아서는 배낭에 건사하군했지요. 그런데 전선을 넘어 적후로 행군하던 어느날 그의 장화가 밑창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태백산의 험산준령들이 그렇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는 새 장화를 꺼낼 생각은 않고 떨어진 밑창을 노끈으로 감아신겠지요. 참, 한심한 일두 있지… 눈보라치는 그 산길에 그렇게야 어떻게 걷겠습니까.…》
엄기창은 눈보라치던 태백산줄기의 험산을 그려보는듯 가느다랗게 눈을 감았다. 흐릿한 안경너머 그의 이마에 땀방울들이 송골송골 돋아나고있었다.
《그날 전사들이 그에게 물었지요. 뭣때문에 배낭안에 새 장화를 두고 그런 고생을 하느냐고말이지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참, 난데없는 어릴 때 얘기더군요. 짚세기도 없어 못신던 어릴 때 고무신 한컬레가 차례졌다나요. 아마 아버지가 사다줬겠지요. 그래 그게 너무 기뻐 좋은 날이 오면 신겠다고 애끼구애끼다가 신발이 작아져서 끝내 못신고말았다는군요. 그가 바라던 좋은 날이 끝내 없었으니 신발도 작아져버렸지요… 그렇게 그는 우스개소리처럼 말하고말았으나 전사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새 장화를 배낭에 넣고 지고다니면서 어떤 날을 바라고있는지 거야 뻔한 일이였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류성우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던 그가…》 하고 엄기창은 불현듯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희생되던 날… 나에게 부탁하더군요. 련락병의 배낭안에 자기의 장화가 있으니 이제 그걸… 새 중대장에게 넘겨주라구요. …》

류성우는 초연이 서린 하늘가를 묵묵히 바라보고있는 엄기창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면서 눈굽이 저려나는것을 느꼈다. 목이 타고 가슴이 미여져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저도 모르게 문득 자기의 터진 장화를 내려다본다. 먼길… 얼마나 먼길을 왔는가, 또 얼마나 먼길이 앞에 있는가!…

희생된 전 중대장은 그에게 수수한 보통의 장화만을 넘겨준것이 아니리라. 그리고 혹시는 류성우 역시 그것을 새로운 후임에게 그대로 넘겨줄는지 어떻게 알수 있으랴!…

그의 심중을 엿보기라도 하는듯 엄기창은 유심히 지켜보고있었다. 그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별안간 장화이야기를 꺼낸것은 결코 아니였다.

《중대장동무, 판가리싸움을 앞두고 나는》 하고 엄기창은 웅근 목소리로 말하였다. 《당세포공개회의를 열자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중대장동무?》

《지금말인가요?》

문득 그의 무릎우에 놓여있는 책을 쳐다본 류성우는 얼마 안되는 글줄을 훑어보았다.

(회의록)

제7차세포총회. 공개회의.

다음 날자를 적었는데 장소라고 쓴곳은 비여있었다. 성우는 엄기창의 흐릿한 두눈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물었다.

《장소는 왜 밝히지 않았습니까?》

《글쎄 뭐라고 쓸지 궁리가 나야지요. 우린 아직 자기들이 싸우는 고지이름도 달지 않았군요. 해발고가 얼마던가요?》

《720》

《그럼 720고지라고 쓸가요?》

《가만.》 성우는 시계를 보았다. 《이름이야 후에 단들 뭐랍니까. 우린… 시간을 아낍시다.》

엄기창은 급히 가방을 챙겨넣었으나 왜서인지 류성우를 바라보면서 선뜻 일어서지 못하였다. 괴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중대장동무, 먼저 가보십시오.》

순간 성우는 가슴이 선뜩해지는것을 느꼈다.

《왜 그러오. 부상이요?》

《좀 다쳤습니다.》 그는 서둘러 류성우를 막으면서도 별로 대수롭지 않은듯 말했다. 《누구나 다 있을수 있는 그런 부상이지요. 1차처치는 했는데… 어쨌든 이제 회의를 끝내고는 상급준의동무한테 부탁하렵니다. 사정보지 말고 째든지 틀어막든지 하라구요. 자, 그럼…》 그는 방금 류성우가 한 말로 끝을 맺았다. 《우린… 시간을 아낍시다.》

류성우는 그의 이마를 가득 덮은 땀방울들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8

공개당총회는 령마루에 면한 쌍바위밑에서 진행되였다. 쪼개놓은 콩깍지같은 쌍바위, 마치도 엄혹한 싸움의 증견자와 같은 그 기슭에 전사들은 둘러앉았다.

불에 그을린 군복들에 재가루가 내려앉았고 험상궂게 변모된 전사들의 얼굴에는 그을음이 끼여있었다. 느물느물 연기를 피워올리는 릉선… 재더미, 가느다란 불길, 바람에 흩날리는 불꽃들과 재티

들… 황량하고 무시무시한 전장을 마주하고 중대는 당세포공개회의를 시작하였다.

1분후에라도 판가리싸움이 시작될수 있다. 생사가 판가름될 엄혹한 싸움을 앞둔 시각, 분과 초를 다투는 이때 당세포공개회의를 가지는 그 당적인 태연성은 전사들을 격동시켰으며 토의되는 문제의 엄혹성과 대비되는 그 격식없는 보고와 토론들은 그들을 안정시키고 일종의 유쾌한 기분까지 불러일으키였다.

류성우는 뜨거운 마음으로 정치부중대장의 흐릿한 안경알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그의 부상은 곧 중대가 받은 치명상이라는것을 류성우는 알고있다. 그의 장쾌한 선동은 물론 가장 어려운 때 그가 건네는 평범한 한마디 롱담도 총탄보다 더 귀중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총탄문제가 론의되고있다.

분대장 방성화가 너부죽한 얼굴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말하였다.

《지금 우리 분대는 탄알 스무발정도와 수류탄이 모두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보총수 한사람당…》

그가 말하는 수자들은 가혹하다 할만치 가슴을 조이게 하는것들이였다.

《그러니 중대장동무.》 하고 엄기창이 도중에 말을 꺼냈다.

《적들과 중대의 화력대비는 어떻습니까?》

《그건 대략…》

류성우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적당한 수자를 부를수 있었다.

《중대가 쏘는 총탄 한발에 적들은 백발이상을 퍼부을수 있습니다.》

《그런즉 놈들이 천발을 쏘는동안 우린 겨우 열발을 쏘는셈이군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수자적대비를 하게 하였는가? 정황의 준엄한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시도였는가?… 아니, 그는 사실이 아무리 가슴아프고 엄혹한것이라도 주저없이 까밝히고 전사들에게 결사적인 각오를 가지게 하려는것이리라. 그리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례사로운 일처럼 렬거함으로써 병사대중에게 담력을 주고 어떤 위험도 끄떡없이 맞받아나갈수 있게 하려는것이 분명했다.

방성화분대장의 토론이 계속되였다.

《그러나 우린 이 총탄수자만큼 우선 놈들을 족치겠습니다. 나는 분대장으로서 분대를 대표하여 말합니다. 총탄이 스무발이면 스무명의 놈들이 죽어야 합니다. 분대동무들, 잊지 마시오.》

분대원들속에서, 또 많은 병사들속에서 동의의 속삭임들이 일어났다. 방성화는 주의깊은 눈길로 그것을 확인하였다.

《그다음…》 그는 정치부중대장을 흘끔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성우는 방성화의 이 토론이 사전에 엄기창정치부중대장에 의해 준비되였으리라는것을 깨달았다.

《그다음… 총창이 일곱개 있습니다. 이 총창은 총알처럼 그저 쏘아보내지 않습니다. 다들 아는바이지만 찌르는것입니다. 백놈이라도 찌를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중대의 탄약보유량에 총창으로 계산된 수자도 합할것을 제기합니다.》

엄기창은 잠자코 무엇인가 적고있었다.

황히세소대장이 일어났다.

《나는 전사들에게 마지막 한알은 자신을 위해 남겨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소대장으로서 응당 해야 할 명령이라고 생각했지요. 솔직히 지금 우린… 한 전사가 분대의 방어구역에 해당하는 구간을 차지하고있습니다. 이제 그 구간은 더 넓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소대장으로서 이렇게 명령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은 당회의이니까…》

문득 엄기창이 머리를 들었다. 놀랜듯한 표정이였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류성우가 듣기에 그처럼 힘들게 발음된 그 말은 낮고도 부드러웠다.

《그 명령을 당회의결정에 넣을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지중 어조를 바꾸어 황히세는 엄숙하게 말을 이었다. 《소대에 한사람이 남는다 해도 소대가 지켜야 할 구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끝까지 견지하라! 나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의 토론은 많은 전사들을 격동시켰다. 특히 김만복은 느릿한 어조로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우린 놈들이 저 가고싶은데로 제멋대로 가게 할수 없지요. 전체 중대가 다 죽는다 해도 우린…》

《만복동무.》 하고 엄기창이 다시금 고개를 돌렸는데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다 죽고서야 어떻게 지킵니까?… 우린 전승의 열병장에서 장군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리기전에는 죽을 권리가 없다는걸 잊지 맙시다.》

그 순간 련락병 배다운이 《옳습니다!》 하고 어찌나 되알진 목소리로 웨쳤던지 사람들의 놀란 눈길이 일시에 집중되였다. 이것은 저도 모르게 돌연 내지른 웨침소리때문에 무척 당황했던 배다운으로 하여금 무안을 느끼게 했고 어떤 죄스러운 미소를 띠우게 했다. 불시로 그는 무너지듯 주저앉고말았다.

《일없소, 배다운동무.》

정치부중대장이 그를 고무했다.

《공개당총회니 생각는바를 다 말하시오!》

그러나 그가 아직 용기를 다 내지 못하고 엉거주춤 일어섰을 때 별안간 돌출부에서 적정을 알리는 감시병의 웨침소리가 울려왔다. 전사들의 눈길이 이번엔 류성우에게 쏠렸다. 그 순간 류성우와 엄기창의 두 눈빛이 마주쳤다.

《계속할가요?》 이렇게 엄기창의 눈빛은 묻고있었다. 역시 류성우도 눈빛언어로 《물론이지요.》 하고 대답했다.

《계속합시다.》

엄기창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리자 다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덜어버린듯 어깨를 쭉 펴며 큰숨을 내뿜었다.

《배다운동무, 말하시오.》

《저… 제가 말하자는건…》

그러나 다음순간 배다운은 긴박한 정황에서 부질없는 군말로 시간을 허비할수 없다고 생각한듯 재빨리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토의되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듯한 이야기였다.

《갑자기 중대오락회책임자였던 김명국동지가 하던 말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어느 오락회때 연설하면서 〈유격대행진곡〉에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구절이 무슨 뜻인가? 하고 물었지요. 그리고는 그건 바로 천번 쓰러지면 만번 일어나 싸운다는 뜻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련락병의 토론은 이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류성우는 불현듯 자기의 가슴속에 뜨거운 물결이 밀려드는듯하였다.

(이런 전사들은 죽지 않는다！…)
감시병의 웨침소리가 연거퍼 울렸어도 그들은 바위같이 자리잡고 앉아있었다.
이번에는 오리준하사가 일어났다. 그의 팔소매 한쪽은 불타버렸고 내의를 찢어서 팔을 동인 붕대가 그것을 대신하고있었다.
《전 〈유엔도로〉에서 중기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중기사수로 있습니다. …》
그는 중대장으로부터 임무를 받고 적의 중기관총을 로획하던 일을 말하고 적들의 무기와 탄약을 빼앗아 쓰는것을 계산하면 아직 중대의 탄약예비는 많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적들을 까눕히고 적의 무기와 총탄을 빼앗아 희생된 전우들이 넘겨준 그 몫까지 다하자고 호소하였다. 그에게도 가장 귀중한 전우였던 분대장에 대한 가슴아픈 기억이 되살아난듯하였다.
류성우는 지그시 눈을 감으며 생각하였다. 포탄창고습격전투에서,《유엔도로》에서 그리고 또 수많은 산과 강, 철길우에, 다리우에서 고귀한 피를 흘렸다. 얼마나 많은 꿈과 념원들이, 쓰러진 전우들이 넘겨준 부탁과 임무가 살아있는 우리들의 어깨우에 짊어져있는것인가！…
상급준의 안혜순이 일어난것은 그때의 일이였다.
《저는 한마디만 말하겠어요.》 그는 서둘렀다. 《전 동무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떳떳하게 최후를 맞을것인가 하는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결심했어요. 전우들의 생명을 지켜 모든것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곧… 수술을 하겠습니다.》
안혜순은 자기가 일어선 그 시각부터 타는듯한 시선을 견주고있는 한사람을 알고있었다. 그 녀자가 말을 끝냈을 때 그리고 고개를 돌려 자기자리에 앉으려 했을 때에도 그 시선은 떠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서로 눈빛이 마주친 그 순간에 안혜순은 황황 불타는듯한 황히세의 두눈에서 그렇듯 진정에 넘친 기쁨과 말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는 크나큰 감사의 정을 보았다…
끝으로 류성우가 일어섰다. 이제는 극히 짧은 몇순간의 여유밖에 없었다.
류성우는 자기가 하고싶었던 말들은 이미 다른 전사들을 통해서 다 나왔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단 몇마디만을 첨

부하였다.

《동무들, 지금 우리는 전선너머 먼 적후에 나와있지만 여기서 전선의 운명을 책임지고있다는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피어린 싸움을 할수록 저 기본전선에서는 만세소리가 높아갈것입니다. 동무들, 그 만세소리를 들으며 끝까지… 끝까지 싸웁시다!》

이어 공개당총회는 엄숙하게 자기의 결정을 채택하였다.

《제××보병련대 8중대 전체 당원들과 민청원들은…》

공개당총회결정서—그것은 적후에서 아직 아무도 써보지 못한 고향에 보내는 편지였고 온 세상에 웨치는 그들의 신념이였고 이 세상 가장 무거운 총을 어깨에 멘 전사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올리는 충성의 맹세였다.

또다시 총성이 격렬하게 울렸다.

《중대— 전투준비!》

총을 거머쥔 전사들이 일시에 뛰쳐일어났다. 그러나 한사람만은 일어나지 못했다.

페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예감에 고개를 돌린 류성우는 공개당총회결정서를 무릎우에 올려놓고 바위벽에 기대인채 움직이지 못하는 엄기창을 보았다.

《정치부중대장동무!》

대답이 없다. 창끝으로 우벼내는듯한 모진 아픔이 가슴을 허비였다. 성우는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그를 부둥켜안았다.

《왜 그러오. 응?! 정신차리오!》

역시 대답은 없었다. 다만 그의 안경이 미끄러져 무릎우에 흘러내렸을뿐이였다. 순간 저도 모르게 그것을 움켜쥔 성우는 자기의 손바닥에서 안경의 유리알에 번져가는 뜨거운 선혈을 보았다. 그것은 웅크려앉았던 엄기창의 군복을 슴새여나와 혁띠를 졸라맨 허리춤에 고여있던것이였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군복단추를 벗겼다. 순간 차마 말로써는 형용하기 어려운 끔찍한 상처가 드러났는데 그러자 머리칼이 아파날 지경으로 온몸을 스쳐가는 전률을 느꼈다.

심장이 멎는듯했다. 그처럼 험악한 상처를 참고 견디며 금시까지 글을 쓰고 호소하고 웃기조차 했다는것을 어떻게 믿을수 있으랴!… 치명상을 입고있는 그가 마지막 피 한방울한방울이 진할 때

까지 공개당총회를 이어갔고 그 생명의 마지막 뜨거운 숨결로써 중대를 억세게 불러세우고있었음을 그 누가 상상인들 할수 있었으랴!…

가슴이 미여지는듯한 비통함을 말없이 삼키며 성우는 손에 움켜쥐였던 안경을 정히 닦아 걸어주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일찍 그와 함께 남북수천리 싸움길을 걸어온 전체 중대가 숨소리를 죽이고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허나 유별나게 굵은 목청을 가졌던 그였지만 지금은 입을 꾹 다물고 그가 마지막 하나하나의 피방울들로 써놓은 당총회결정서의 글줄로 엄숙하게 웨치는것이였다. 그의 안경알에는 초연서린 산마루도 전사들이 거머쥔 총창도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전우들의 얼굴도 다 비껴있었다.

가혹한 아픔,랭혹한 비애가 숨길을 틀어막는듯했다. 강쇠처럼 팽팽히 당겨진 가슴들에 불꽃들이 이글거렸다. 한점의 눈물도 없다. 중대는 자기의 정치부중대장을 눈물로 영결하지 않을것이다.

《정치부중대장동무!》 성우는 뜨겁게 부르짖었다. 《조총을 쏘지 못하는것을 용서하시오. 우리는 그것으로 원쑤들을 족칠것이요!》

불타버린 릉선은 또 한차례 뒤번져지기 시작하였다. 황갈색의 초연이 자욱히 서린 릉선마다에서 앙칼진 쇠소리들이 맞부딪치며 서로 위력을 다투었다. 발버둥치는 폭음에 이어 섬광이 펑끗거릴 때마다 총창들이 번쩍이였다.

누군가 무수한 불꽃을 삼키며 웨쳤다.

《죽여라!》

황히세소대장을 따라 방성화분대장이 풀무처럼 씩씩 단김을 내뿜으며 재더미를 걷어찼다.

어느 한 보총수의 곁에서는 검불같은 머리를 헝클어뜨린 진호가 자기의 보총탄 세발을 넘겨주고있었다. 어느덧 나어린 이 소년은 중대의 부사수로 되였던것이다.

공개당총회가 있었던 쌍바위기슭에서는 병사용개인천막을 씌운 야전수술대앞에서 상급준의 안혜순이 은하에 대한 수술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 어느 의학편람에도 없는 가혹한 절개술이였고 백발의 어느 교수도 겪어보지 못한 봉합술이였으나 간고한 제2전선의 싸움에서는 극히 작은 한부분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전체 중대가 마지막 돌격에로 나아갔다. 총창들이 부딪치고 화약가스들이 휘말려 돌아갔다. 허나 저 령마루에서는 긴장한 수술이 계속되고있다.

류성우는 전장에서 끓어번지는 이 모든 총성과 함성을 전선의 만세소리로 듣고있었다. 포연서린 하늘가로 피빛노을이 붉게 비껴 흐르는듯하였다. 그 예리한 노을빛속에서 희끗희끗한 산봉우리들이 내다보였다.

문득 성우는 지금까지 멀리 사라져가던 전장의 소음들이 불시로 고막을 두드려대는듯 느껴졌다. 폭음, 섬광, 군화발밑에서 흩날리는 재티들… 저격무기의 몸부림치는듯한 련발총성들가운데 먼 함성이 똑똑히 들려왔다.

《중대장동지！—》

련락병 배다운이 목메여 부르짖었다. 전중대의 함성이 그 말끝을 삼켜버렸으나 성우는 그가 무엇을 웨쳤는지 잘 알고있었다. 적의 뒤통수를 때리는 련대의 지원공격이 시작된것이였다.

…불타버린 산기슭, 재가루들이 풀썩풀썩 날리는 경사면을 류성우는 내려가고있었다. 꾸역꾸역 피여오르는 연기타래가 비탈면과 골안으로 굼실굼실 기여갔다. 릉선우에 키높이 자란 소나무들은 꺼멓게 타버린 줄기들만 뻗치고있어 전장은 황량하고 처참했다.

어느 대대 어느 중대인지 알수 없는 전사들이 포로들을 끌고가거나 전장을 수색하고있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해둔것처럼 류성우가 가까이 오면 걸음을 멈추고 주춤거렸고 그를 쳐다보다가는 눈길이 마주칠가봐 저어하는듯 슬그머니 외면하군하였다.

류성우는 아무 말 없이 그 무엇도 눈여겨봄이 없이 터벌터벌 걸어갔다. 그의 얼굴은 험상궂었고 두눈은 공허하게 굳어져있었다. 아무런 흥분도 지어 기쁨이나 슬픔도 느끼지 못하는듯 허탈상태에 빠져 걷고있었다. 오로지 그는 극도의 피로와 목구멍을 비틀어대는듯한 무서운 갈증밖에 몰랐다. 모든 피로를 다 넘어선 마지막 피로였고 모질게도 가슴을 태우는 갈증이였다. 탕개를 죄였던

긴장이 단번에 다 풀려나갔고 몸도 마음도 다 말라버려 뜨거운 재더미에 묻혀있는듯하였다. 그에게서 남은 단 한가지 감정과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피로와 갈증을 잊고싶은 그 하나뿐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무엇인가를 공허하게 찾고있었고 기다리고있었다. 무엇을 찾고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자신도 다는 몰랐다. 무엇일가, 그 어데나 쓰러져서 눈을 감고 잠들어버릴수 있는 조용한 구석일가? 한방울 물이였을가?…

불에 그슬린 반자동카빙총을 들고 혹시 쓸모가 있겠는지 이것저것 살펴보던 한 전사가 급히 비켜서며 길을 내주었다. 그러나 여기에 무슨 길이 따로 있는가? 황량한 재더미, 불모의 산기슭…

《동무!》 하고 성우는 불렀다. 그리고는 맥없이 팔을 내저었다. 웬일인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동무!》 또한번… 그 다음순간 안타까운 몸짓을 하며 웨쳤다. 《동무! 응, 동무말이요!…》

그러자 전사는 손에 들고있던 총을 내던지고 급히 다가왔다.

《군관동지, 무슨 일입니까. 저를 찾았습니까?》

《물 좀 주오!》

그래도 전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것 같았다. 아니, 류성우조차 자기가 무어라고 말했는지 듣지 못했다. 이제는 목구멍마저 타버리고 갈기갈기 찢겨버렸는가?… 그는 또다시 안타깝게 물을 마시는 손짓을 해가며 부르짖었다.

《물이 있소? 물, 물!…》

그러자 먼발치에 있던 한 하사관이 달려와 옆구리에 찼던 물통을 끌렀다.

《군관동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군복이나 견장으로써가 아니라 그의 거동과 옆구리에 매달린채 반나마 불에 타버린 권총집으로써 그가 군관임을 분간하고있었다.

《자, 어서 드십시오!》

류성우는 하사관이 마개를 열고 내밀어준 물통을 받았다. 물!…불에 그을고 화약가스와 재티들만 들어찬 메마른 가슴에 콸콸 쏟아붓고싶은 물!… 그는 물통을 들었다. 그리고 크지 않은 그 구멍으로 금시 쏟아져나오려는 맑고 차디찬 물을 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마지막 한방울까지 단숨에 쏟아부으려던 그 순간에 배다운을 보았다. 나어린 전사는 지금도 자기의 중대장을 그림자처럼 따르고있은것이였다.

성우는 물통을 내렸다. 《배다운!》 마치 오랜 세월 떨어져 소식을 모르던 친동생을 만난듯 목메여 부르짖었다. 《배다운!…》

련락병은 몹시 추운듯 몸을 옹송그렸고 몸을 떨었다. 그것이 자기의 련락병 배다운이였다. 터지고 그슬리고 찢기고… 지금까지는 전혀 느끼지 못했고 알수 없었던 새로운 눈으로 류성우는 그를 보았다. 귀엽던 그 얼굴이 험상궂고 낯설게 보이는 전사, 지금까지 그가 자기와 함께 있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는 키 작은 전사, 그것이 사랑하는 련락병이였다.

《배다운, 네가 살았구나!…》

배다운이 달려왔다. 《중대장동지!》 하고 부르짖었다. 언제든,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던 그의 청높던 목소리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중대장동지!》

《배다운! 자, 마시라구. 물이야, 물!…》

물통을 내밀어 련락병에게 안겨준다. 배다운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별안간 그을음에 덮인 그의 얼굴에 그가 들여다보는 그 물보다 천배나 더 맑고 깨끗하고 소중한 눈물이 줄지어내렸다.

물통에 물은 차고넘치고… 허나 이 물을 달게 마시며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할 귀중한 사람들, 많은 전우들은 지금 어데 있느냐?!… 그 물에 어린 귀중하고 친근한 사람들, 혹시는 그의 손에 물통을 쥐여주군하던 엄기창의 모습을 발견했는지도 모른다.…

《중대장동지!》

배다운은 발뒤꿈치를 들고 두손으로 받쳐든 물통을 그에게 기울여주었다.

《마시십시오. 그럼… 속이 시원히 열릴겝니다.》

자기의 입술에 닿는 차디찬 물줄기를 감촉하는 순간 그는 눈굽이 화끈 달아오르는것을 느꼈다. 어느새 류성우는 자기의 련락병을 와락 그러안았다.

물통이 떨어졌다. 허나 아무도 그것을 보는 사람은 없었다.

불타다 남은 가랑잎들이 비틀리고 꼬이고 산산이 날리던 등판우에 물통의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

전장을 수색하던 전사들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중에서 류성우는 류달리 눈에 뜨이는 자기 중대의 전사들도 보았다. 그들도 중대장을 따라오고있은것이였다.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운 군복, 모자도 없는 전사들… 다른 전사들과 그처럼 판이하게 구별되는 자기의 대원들을 바라보면서 류성우는 그들의 험상궂은 모습을 통하여 자기자신의 모습도 보았다.

방성화, 오리준 그리고 만복아바이… 황히세소대장이 터벅터벅 걸어오더니 류성우앞에 멎어섰다. 한손엔 총구를 내려드리운 자동총을 틀어쥐고 다른 손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모자를 구겨쥐고 있었다.

《중대장동무.》 유독 그만이 고함소리처럼 웨칠수 있었다. 《다 제대루 됐습니다. 은하동문 지금… 잠들었습니다 !》

문득 피의 급류가 세차게 솟구치는것을 느꼈다. 불타고 메말라터진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는 피의 흐름 !… 그는 대대위생소의 긴장한 두 위생병이 담가를 들고 비탈면으로 내리는것을 보았다. 상급준의 안혜순이 그 담가를 따라가며 무어라고 부르짖고있었다. 그녀자의 발밑에서 재가루들이 휘뿌려졌다.

비로소 류성우는 지금까지 자기가 무엇을 찾고있었는지,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토록 피타는 갈증에 몸부림치게 하였는지 깨달았다. 뜨거운 물결이 목구멍으로 치밀어올랐다. 그는 죽지 않았다. 전우들의 뜨거운 믿음과 사랑에 받들려 그는 생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벅찬 감정이 치솟아올랐다.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지난날들의 단편들이 어둠속을 헤가르는 번개불마냥 펀뜩펀뜩 머리속을 스쳐지났다. 샘물처럼 맑은 눈동자, 어깨우에 굼실굼실 흘러내린 머리칼, 그를 향해 손저어부르며 달려오던 은하, 밝은 미소… 비록 지금은 해쓱하니 여위고 병든 소녀처럼 담가에 누워있을것이나 이제 다시금 그 눈동자에는 생생한 정기가 샘솟을것이다. 어린아기의 입김처럼 미약한, 그 힘이 진한 몸에도 불같은 열정이, 청춘이, 삶과 투쟁에 대한 강렬한 의욕이 약동할것이다 !…

류성우는 자기와 더불어 담가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전사들을 보았다. 그것은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준 전사들이였고 은하에게 생의 활력을 찾아준 전우들이였다. 아, 전우들！… 비록 수많은 전사들이 곁을 떠나갔지만 중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가혹한 싸움을 이겨내고 살아있었다！… 무슨 힘이 있어 그들은 그처럼 엄혹한 시련을 이겨냈는가？ 무슨 힘이 이들을 불속에서도 타지 않고 총창처럼 굳세고 서리차게 번뜩이게 하였는가！…

바로 그때 련락병 배다운이 그의 귀전에 대고 다급히 말했다.

《중대장동지！》

그의 눈길을 쫓아 고개를 돌린 류성우는 가까이 다가오는 련대장을 보았다.

《성우동무.》 그의 음성은 변함없이 묵직했다. 《여기 있었구만, 8중대장이！…》

류성우는 버릇처럼 군모채양에 손을 올려붙이려 했으나 벌써 련대장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있었다.

《됐소. 중대장, 잘 싸웠소！》

《련대장동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엇인가 가슴에 차넘치는 격정을 말하고싶었으나 그것이 무엇이였던지 성우자신도 알수 없었다. 아마도 오늘의 이 승리를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자기의 전우들, 가장 평범하고 성실하고 참된 병사들에 대하여 말하고싶었던지도 모른다. 그리고 련대장이 자기가 아니라 그 전사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잘 싸웠소！》라고 말해주었으면 하는 심정을 말하고싶었는지도 모른다.

가슴이 뻐근해왔다. 그는 자기자신을 의식하지 못한채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까운 전우들을 잃었습니다, 련대장동지！ 정치부중대장 엄기창동무가…》 그는 목구멍이 꺽 막혔다.

《알고있소. 성우동무,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소！》

련대장은 전사들에게로 다가갔다. 먼저 배다운을, 다음은 오리준하사를 량옆에 꽉 끼여안았다. 전사들이 그들을 에워쌌다. 말없는 눈빛들이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터슬리고 찢기고 피가 엉켜붙은 그 전사들의 어깨를 짚어가는 련대장의 두눈에는 따뜻한 사랑도

굳건한 믿음도 한없는 자랑의 빛도 다 들어있었다.

《동무들, 우리는 임무를 수행했소. 끝내 자기 임무를 수행했단말이요! …》

며칠이 지났다. 련합부대에서 돌아온 조강선련대장은 지휘관회의를 소집하였다. 먼저 그는 군단을 통하여 내려온 최근소식을 전하였다.

《동무들, 전선에서는 제4차작전이 승리적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어제 하루만도 원주—횡성지구의 대포위섬멸전에서 적장병 1만 2천9백여명을 살상하였습니다. 놈들의 〈제한공세〉는 완전히 파탄되였으며 지금 적들은 전전선에서 패주하고있습니다. 전선동부에서는 벌써 37도선이남으로 다시 쫓겨가고있습니다.》

련대장은 기쁨과 환희로 들끓는 구분대지휘관들을 둘러보다가 불현듯 흥분에 잠긴 음성으로 계속하였다.

《이번 작전의 빛나는 성과에는 우리 제2전선부대들의 희생적인 투쟁이 안받침되여있습니다. 최고사령부에서는 우리 제2전선부대들이 제4차작전의 승리를 크게 담보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동무들! …》 그는 기쁨과 환희로 들끓는 사람들의 머리우에 격동적인 손짓을 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제2전선련합부대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치하하시였습니다. 군단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시였습니다. 속히 철수하여 전선을 넘어올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습니다!》

폭발직전의 충격적인 침묵은 다음순간 끓어오르는 격정의 파도로 뒤번져졌다. 가슴을 터치는듯한 감격의 선풍이 휩쓰는가운데 류성우는 목구멍으로 치미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눈굽을 적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 제2전선의 독창적이고도 탁월한 작전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승리에로 령도하신 최고사령관동지! … 전선너머 천리 적구종심에 들어가있는 전사들을 잊지 못하시여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며 승리에로 고무하여주시고 오늘은 친히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시는 우리 전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 …

뿌옇게 흐려진 그의 눈앞으로 시련 많았던 적후의 나날들이 평끗거리는 섬광들처럼 순간순간 찍혀졌다… 정찰소대장으로서 제2전선부대활동의 특성과 준엄한 요구에 따라 맹호같은 중대장을 잃은 중대에 억센 날개를 주기 위하여 보병중대장으로 임명되여 싸워온 한달여의 나날,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길다고도 할수 있는 그 나날들이 돌이켜졌다. 류문기, 김명국, 엄기창… 생명을 내대야 하는 싸움의 길에서 하나의 명령에 따라 묵묵히 걸어온 중대원들, 황히세는 물론 김만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저 나어린 남반부의 이름없던 소년 진호며 정치공작대원으로서 제2전선부대에 편입된 은하, 이 모든 사람들이 제2전선의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어깨우에 걸머지고 싸워온것이였다. 바로 이들이 지닌 힘을 믿으시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정규부대의 제2전선을 펼치신것이였다. 하여 그것은 빛나는 승리로 결속되였다 ! …

최고사령관동지의 부르심을 받은 제2전선부대들은 북으로의 행군을 시작하였다. 불타버린 산기슭 가렬한 싸움의 자취를 뒤에 남기고 중대와 대대들이 걸어가고있었다.

아침이였다. 먼 하늘가에서 창살같은 빛발이 쏟아져내렸다. 분출하는 용암의 바다에 솟구치는듯 험산봉우리들이 기나긴 행렬처럼 대오가 나가는 앞길에 잇대여있었다.

류성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험산봉우리들의 장엄한 행렬과 총창의 긴 흐름을 이룬 철의 대오를 바라보았다.

백두의 지맥을 이루어 조국땅 천리를 골격처럼 뻗어내린 태백산줄기… 얼마나 많은 선렬들이 저 백두의 준령들에 묻혀있으며 얼마나 많은 전사들이 태백의 높고낮은 봉우리마다에 묻혀있는가 ! … 태백산, 오대산, 설악산, 팔공산… 그리고 이제 조국의 지도우에는 전선의 운명을 떠메고 용감했던 전사들의 이름을 새긴 수많은 지명들이 생겨날것이다. 혹시 그 이름들이 적히지 못할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위훈은 조국의 하늘을 굳건히 떠받들고 솟아있는 저 봉우리들처럼 영원히 빛날것이다.

이제는 멀리 뒤에 남은 격전의 봉우리를 돌아보았다. 공개당총회의 회의록에도 아직 이름이 오르지 못한 령… 찌르는듯한 아픔이 가슴을 스쳐지났다. 그 령마루에 귀중한 전우들이 묻혀있다. 우

리 당이 키운 참된 아들 엄기창, 그는 지금 자기의 전우들이 기어이 다시 돌아올 그날을 바라며 묵묵히 대오를 바래우고있을것이다…

북으로, 북으로 대오는 흘러갔다. 수많은 전우들을 남겼지만 대오는 줄지 않았다. 이 대오속에는 꼬마병사 진호와 함께 참된 인생의 길을 새로 시작한 늙은 산림학자도 있었다. 은하가 있는 군의소의 대오속엔 생금이와 련대의 딸 남해도 들어있었다. 위대한 사랑의 품이 그들모두를 기다리고있었다. …